영통구 개청 20주년 기념

영통구,
성장과 도약의 여정

수원학 기획총서 4

영통구 개청 20주년 기념

영통구, 성장과 도약의 여정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발간사



‘영통구, 성장과 도약의 여정’을 기록하며

영통구는 지난 20년 도시공간, 행정, 인구, 환경 등 상전벽해와 같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도시개발로 완전히 새로운 도시로 변모하여, 오랫동안 살아온 공동체가 해체되고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되었습니다.

이 책은 빠른 변화 때문에 스스로 역사를 정리할 기회를 갖지 못한 주민들을 위한 마을지입니다. 영통구로 이주해 오신 새로운 주민들을 위한 역사서입니다. 영통구의 도시성장 20년을 생생하게 기록한 실록(實錄)이기도 합니다.

수원시정연구원 수원학연구센터는 지난 1년 동안 수원 지역사에서 영통구와 영통의 도시개발이 가지는 역사적, 도시계획적 의미를 탐구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마음에 묻어 온 오래된 앨범과 자료를 열어 역사와 변화를 복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신 주민 여러분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작업이었습니다. 김형진 님, 오우근 님, 이해창 님, 이덕운 님, 김진환 님, 이정우 님, 태장 100주년 한마당 큰잔치 추진위원회, 말통골 노인정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통구의 과거와 현재를 기록한 『영통구, 성장과 도약의 여정』은 영통구가 나아갈 미래 방향을 안내하는 등대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영통구의 정체성과 지역애착을 강화하는 데 밀알이 되었으면 합니다. 책의 발간을 위해 정성을 다한 수원학연구센터 연구원들과 원고 집필에 참여해 주신 전문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둔필승총(鈍筆勝聰), 기록이 기억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수원시정연구원 수원학연구센터는 우리 수원의 공동체 역사를 기록하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원시정연구원장 김 성 진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축 사



안녕하십니까?
수원특례시장 이재준입니다.

영통구가 첫발을 내디딘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2003년 당시 주민 평균 연령 29세로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 중 하나였던 영통은 긴 시간 수원의 발전을 선도해 왔습니다. 심장의 모습과 닮아서 영통이 되었다는 지명유래처럼 수원의 힘찬 심장이 되어 주었습니다.

영통구의 지난 20년은 수원의 지도를 바꿨습니다.
영통지구와 매탄지구 그리고 이어진 광교신도시 개발은 수원이 서울의 '베드타운'이 아닌, '자족도시'임을 알렸습니다. 도로와 교통망은 서울이 아닌 수원 내부로 향했고, 주민들을 위한 산업단지와 기업을 유치했습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유수의 대기업들, 첨단 강소기업의 요람 광교테크노밸리, MICE 산업을 선도할 수원컨벤션센터까지 영통은 그야말로 수원의 '미래 먹거리'였습니다.

영통구가 바꿔 나갈 수원의 내일이 기대됩니다.
걸어온 길보다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 더 중요합니다. 지난 20년을 기억하는 『영통구 성장과 도약의 여정』이 앞으로도 영통구가 나아갈 방향을 안내하는 나침반이 되어 줄 것입니다. 영통구에 담긴 젊은 활기와 지속가능한 발전의 가치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영통은 물론, 수원과 한결같이 동행해 주신 36만 영통구민과 공직자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립니다. 진심이 담긴 백서를 만들기 위해 고생하신 수원시정연구원의 노고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축 사



안녕하십니까.
수원특례시의회 의장 김기정입니다.

『영통구, 성장과 도약의 여정』 발간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수원특례시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영통구 개청 20주년 기념 책자 발간의 영광과 기쁨을 가능하게 한 영통구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영통구민은 많은 도전과 어려움을 극복하며 무에서 유를 창조해 냈으며, 지역사회의 발전을 이끌어주셨습니다. 지난 20년간 변함없는 관심과 지지로 젊음과 문화, 스마트한 도시 영통구의 오늘을 일궈 주신 구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통구, 성장과 도약의 여정』은 영통의 개발 과정과 주민들의 일상을 담아냄으로써 귀한 사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영통의 역사이자, 수원의 역사이고,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아울러, 영통구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을 심도 있게 모색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20년, 200년 더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아갈 영통구를 만들어 가기 위해 수원특례시의회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을 통해 의견을 수렴,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영통구, 성장과 도약의 여정』 제작을 위해 애써 주신 수원시정연구원 수원학연구센터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영통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축 사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장 김진표입니다.

『영통구, 성장과 도약의 여정』 발간을 축하합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님과 김성진 수원시정연구원장님, 김용덕 영통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필에 참여하신 전문가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 드립니다.

수원시정연구원은 18대 국회 때 제가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근거해서 설립된 곳입니다. 개인적으로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켜보았습니다. 또한 영통은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첫 출발을 한 곳이며 무한한 애정을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 영통의 성장과 도약 과정을 담은 책을 발간한다고 하니 더욱더 뜻깊습니다.

영통구가 올해로 개청 20주년을 맞았습니다. 영통구는 주거, 교육, 행정, 문화 등 다채로운 분야에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지역입니다. 삼성그룹의 주요 계열사 사업장이 위치하고 아주대, 경기대 등 주요 대학들이 모여 있으며 신도시 및 신시가지 지역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청을 비롯해 수원고등법원, 고등검찰청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등 주요 관공서를 품고 있어 행정적으로도 그 역할이 큰 곳입니다. 하루하루 그 발전상이 새롭습니다.

영통구의 발전 과정을 담은 책『영통구, 성장과 도약의 여정』은 영통구뿐만 아니라 수원시의 역사와 지방자치단체 발전 연구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수원시정연구원의 연구 역량과 성과를 지역사회에 환원하여 지역사회와 협력하고 공동체를 발전시키는 데도 기여할 것입니다.

이 책에는 영통구의 역사와 교육, 의료, 문화, 체육, 주택, 교통, 경제 등 주민의 삶과 밀접한 다양한 정보들이 담겨 있습니다. 영통구 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영통구, 성장과 도약의 여정』 발간을 축하드리며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축 사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국회의원 박광온입니다.

수원시정연구원 수원학연구센터의『영통구, 성장과 도약의 여정』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더불어 지난 20년간, 영통구의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신 영통구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2003년 11월 24일 신설된 이래, 우리 영통구는 경이적인 성장과 변화를 일구어냈습니다. 영통구는 수원시의 4개 행정구 중 가장 늦게 출발했지만 현재는 수원시를 대표하는 지역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삼성전자와 광교테크노벨리가 위치한 글로벌 IT산업의 메카, 경기남부 MICE 산업의 중심지, 경기도청 소재지 등 이 모든 것이 영통구를 일컫는 단어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 · 교통 · 교육 · 문화 · 의료 · 예술 등 모든 분야의 인프라가 구축된 도시가 바로 영통구입니다.

또한 영통구는 현대와 과거가 공존하는 도시입니다. 평균 연령 38.7세로 전국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활기차면서도 청명단오제, 광교 길마재줄다리기 등 선조들의 미풍양속을 꾸준히 계승하는 도시입니다.

이제 영통구는 20살의 건장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채워 가야 할 부분도 많습니다. 37만 인구 규모에 걸맞은 신청사와 행정서비스, 그리고 더욱 촘촘한 교통망과 주민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모든 분이 관심을 가지고 더 좋은 영통구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더욱 살기 좋은 영통구가 될 수 있도록 저 역시 열심히 뛰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오늘날 영통구를 위해 헌신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아울러『영통구, 성장과 도약의 여정』을 발간하기까지 모든 노력과 정성을 아끼지 않으신 수원시정연구원 원장을 비롯한 집필진 여러분께도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Contents

PART 1 Archival photograph **010**

PART 2 Growth and Leap **168**

영통구의 자연환경과 생활터전 170

영통구의 문화유산 232

영통구의 도시계획과 도시개발 266

영통구의 경제와 삼성전자 300

영통구의 행정 332

영통과 광교, 수원의 강남
: 영통구 주거공간의 차별화에 대한 인식과 그 변화 370

영통구의 인구·가구 이동 406

영통구의 캠퍼스타운 432

더 나은 영통구를 향한 노력과 약속
: 영통구청장 5인 5색 454

PART 3 Data & Map **490**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PART 1.

Archival photograph

Rural Village



원천동의 모내기 일손 돕기(1980년대, 수원박물관 제공)



매원동 주민들의 마을 공사(1972년, 수원박물관 제공)



1970년대 매원동의 가정집(1972년, 수원박물관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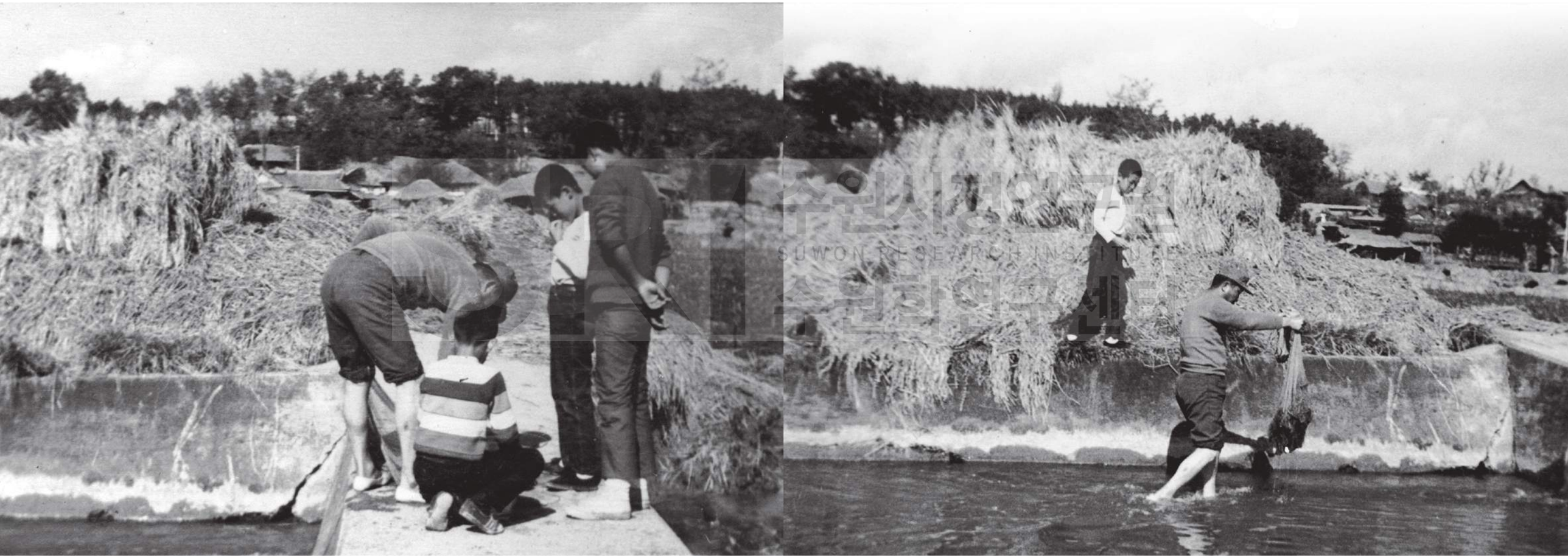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매원동 풍경(1972년, 수원박물관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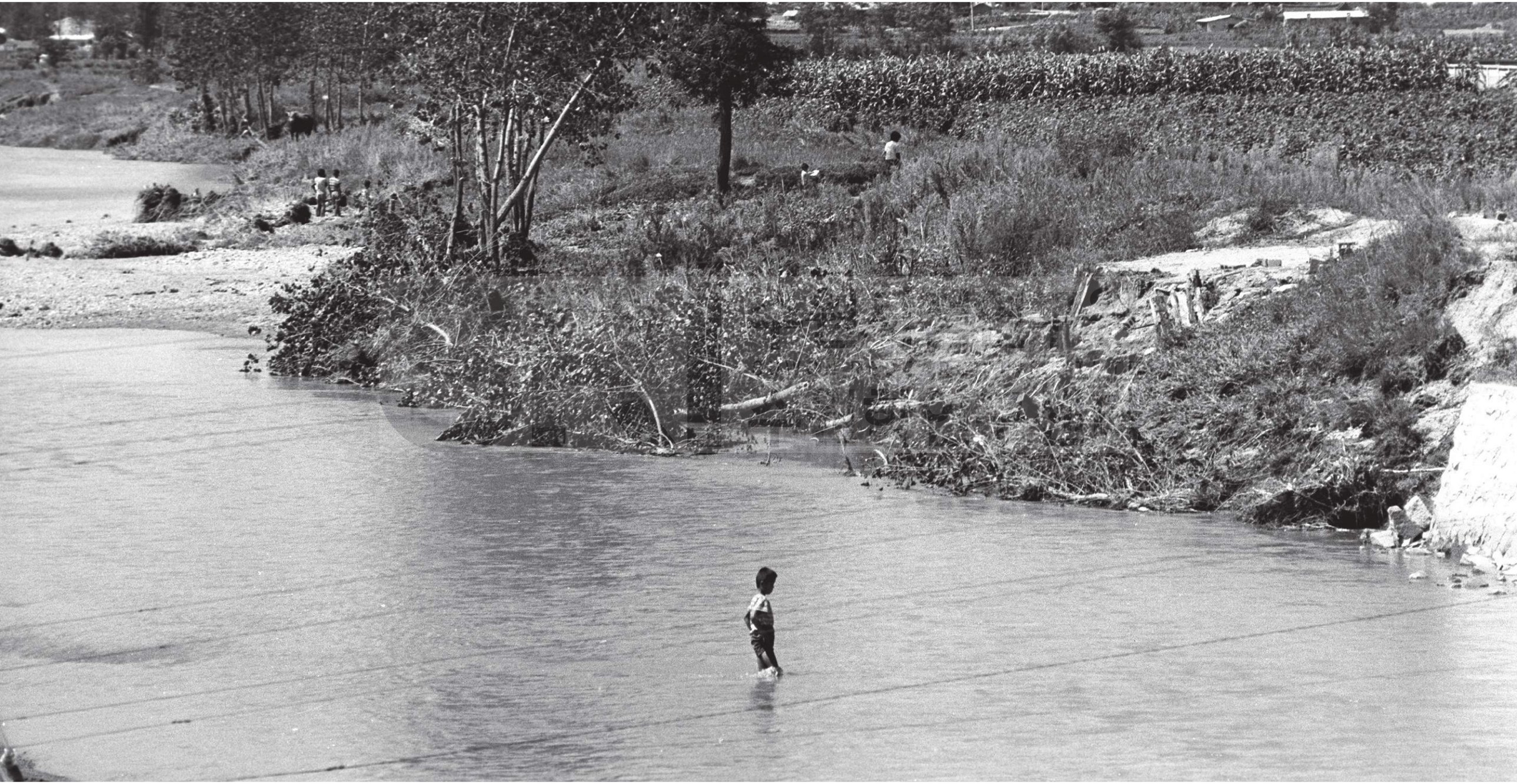


원천천에서 빨래하는 주민들(1972년, 수원박물관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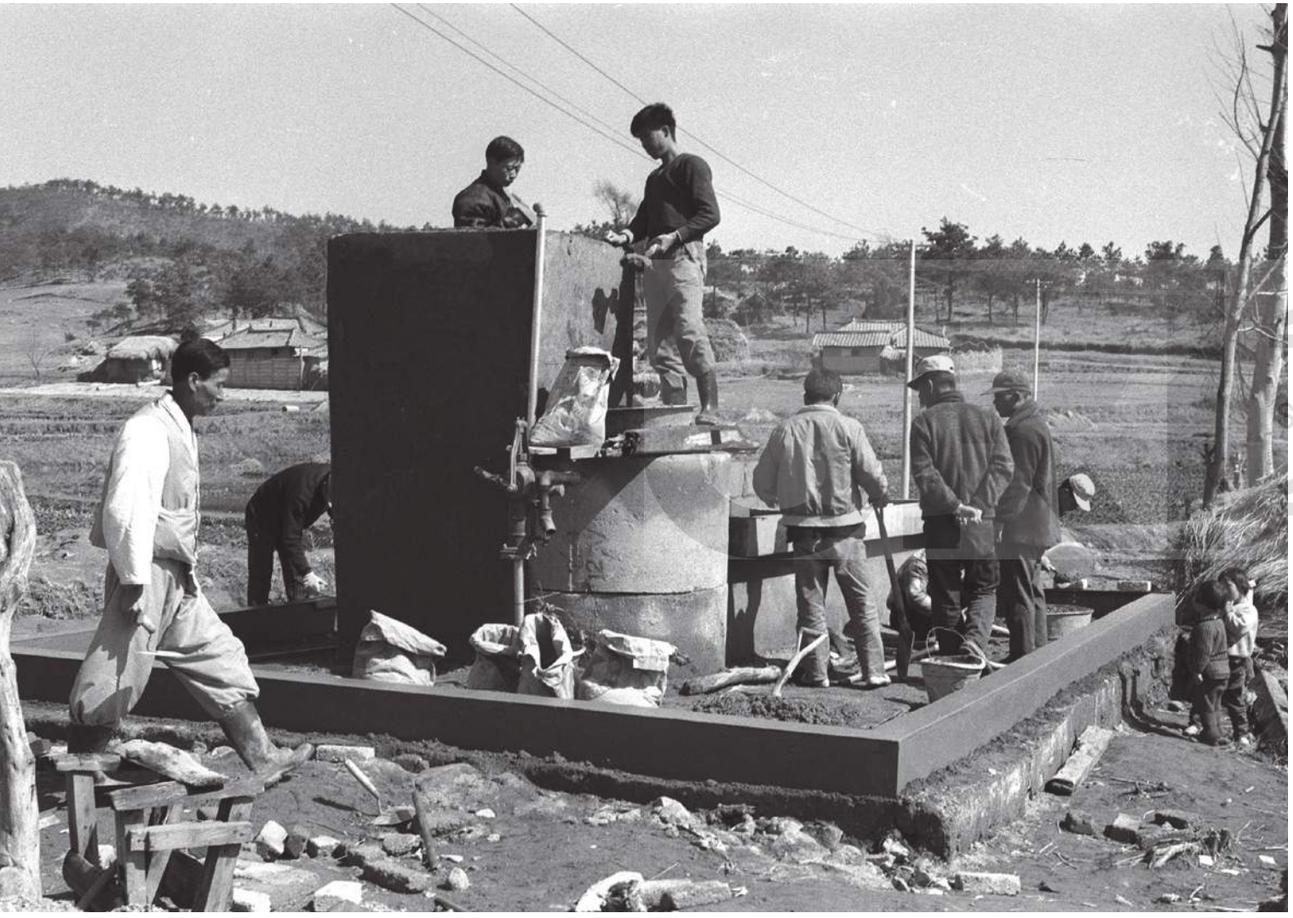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방죽머리 수리조합 수로에서 천렵(1960년대, 김형진 제공)



장마 뒤의 매원동과 원천천 (1972년, 수원박물관 제공)



매원동 공동 빨래터(1972년, 수원박물관 제공)





당암마을 해주 오씨 집안 장례(1965년, 오우근 제공)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원천동 수려선 철길(1972년, 수원박물관 제공)



매탄 산드래미 마을 풍경(1972년, 수원박물관 제공)



방죽머리 버스 종점(1970년대, 태장 100주년 한마당 큰잔치 추진위원회 제공)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매탄동 산드래미 마을 공사(1972년, 수원박물관 제공)



잠업장 누에 키우기(화성시 포토갤러리 제공)



삼성전자-매탄동 산드래미 마을 자매결연(1975년, 수원박물관 제공)

SUWON RESEARCH INSTITU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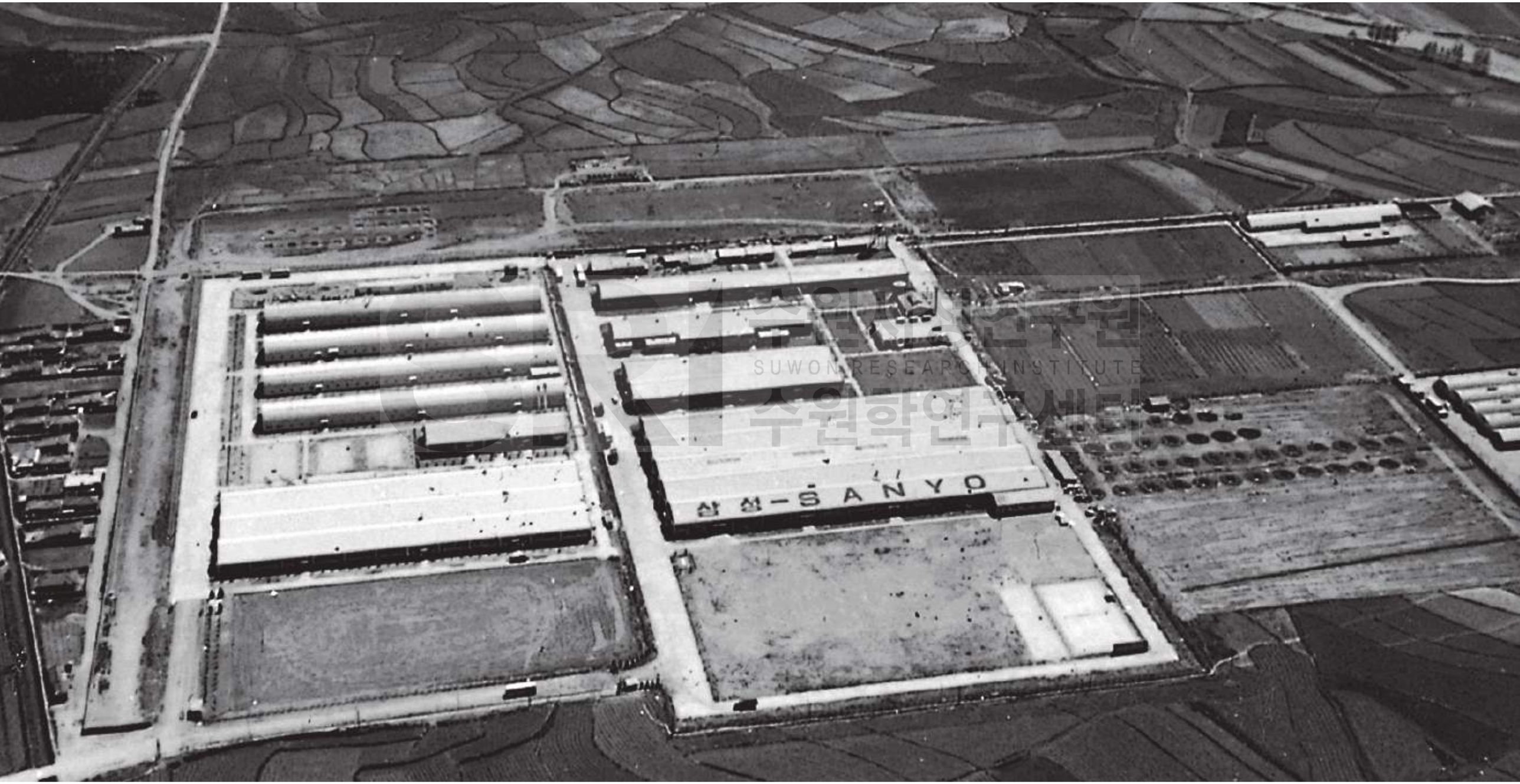


삼성로 개통(1975년, 수원박물관 제공)



삼성전자 진입로(1976년, 수원박물관 제공)

SUWON RESEARCH CENTER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삼성전자 전경(1970년대, 수원박물관 제공)



매원동 산드래미 새마을 공장 준공식(1976년, 수원박물관 제공)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매탄동 점등식(1970년, 수원박물관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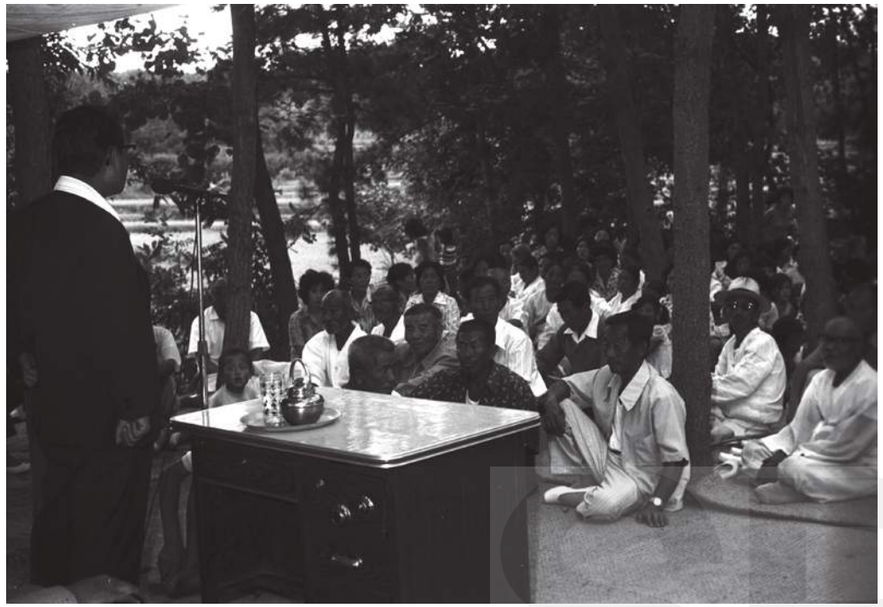


매원동 산드래미 마을 전화 개통식(1977년, 수원박물관 제공)



아주대학교 학생 하기봉사단 위문(1975년, 수원박물관 제공)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원천동 대동회(1977년, 수원박물관 제공)



삼성전자 앞 매성교 준공식(1975년, 수원박물관 제공)



원천동 꽃마을가꾸기(1980년, 수원박물관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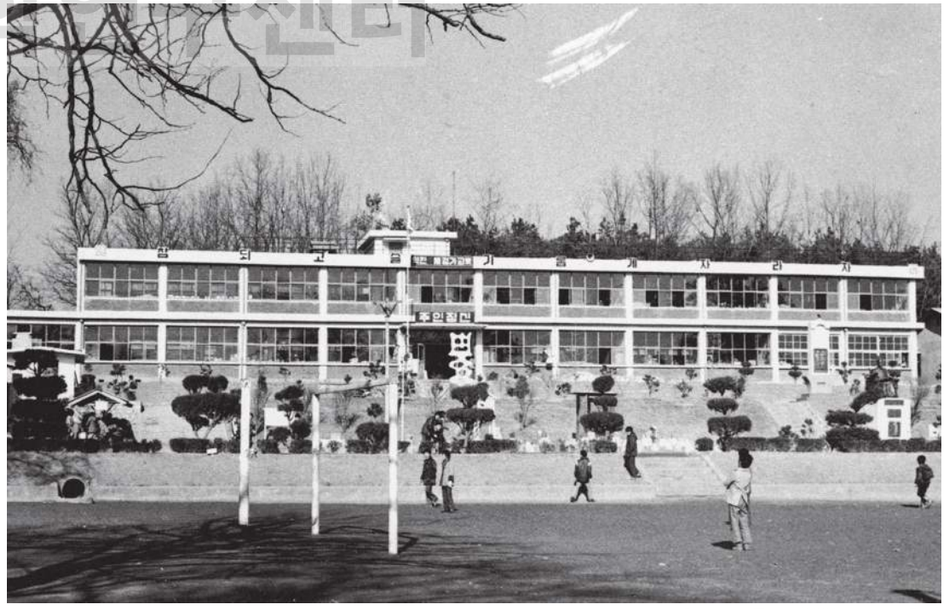
SRI
SUWON RESEARCH INSTITUTE



마을회관과 망포리유치원(1960년, 김형진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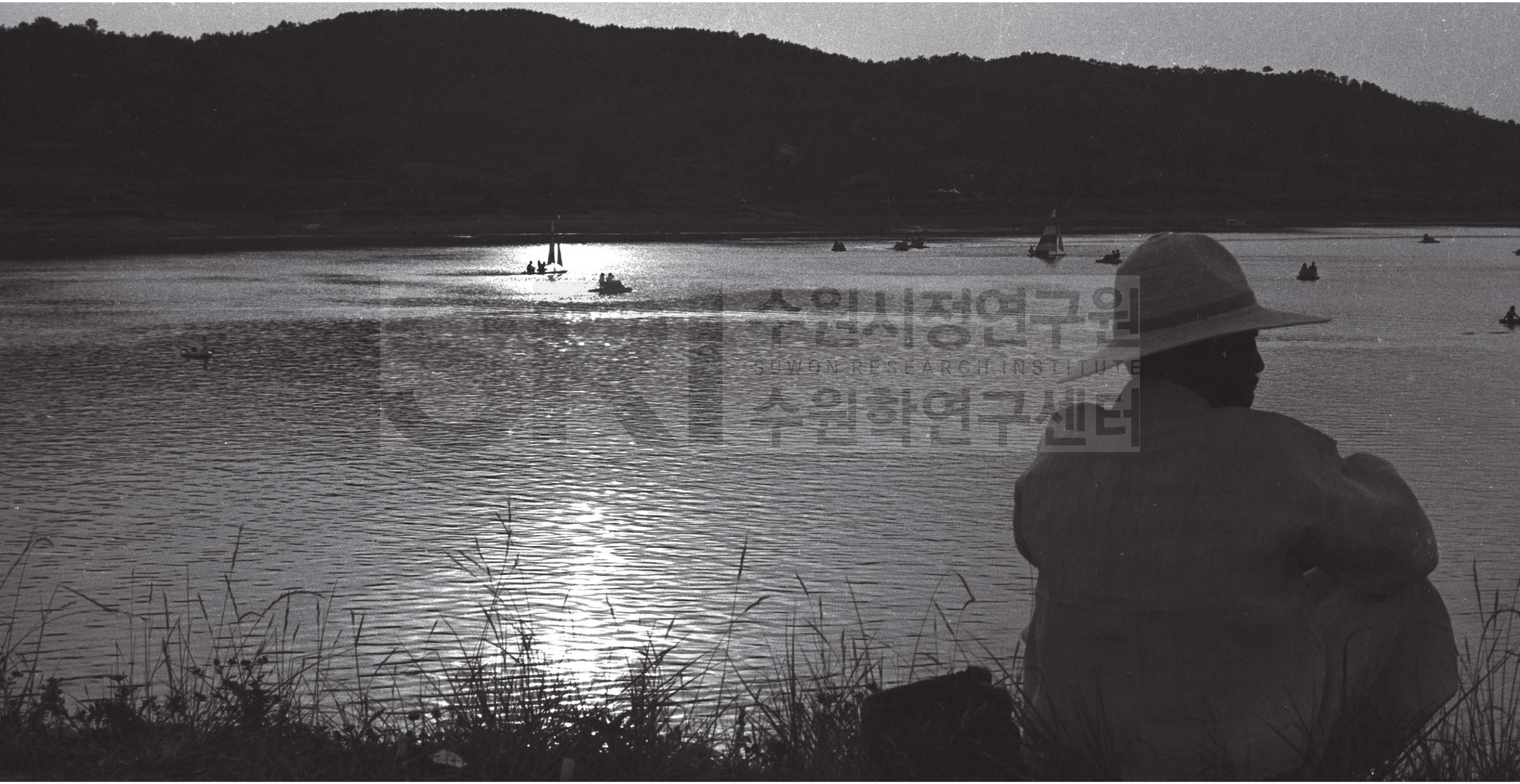


태장국민학교 운동회 기마전(김형진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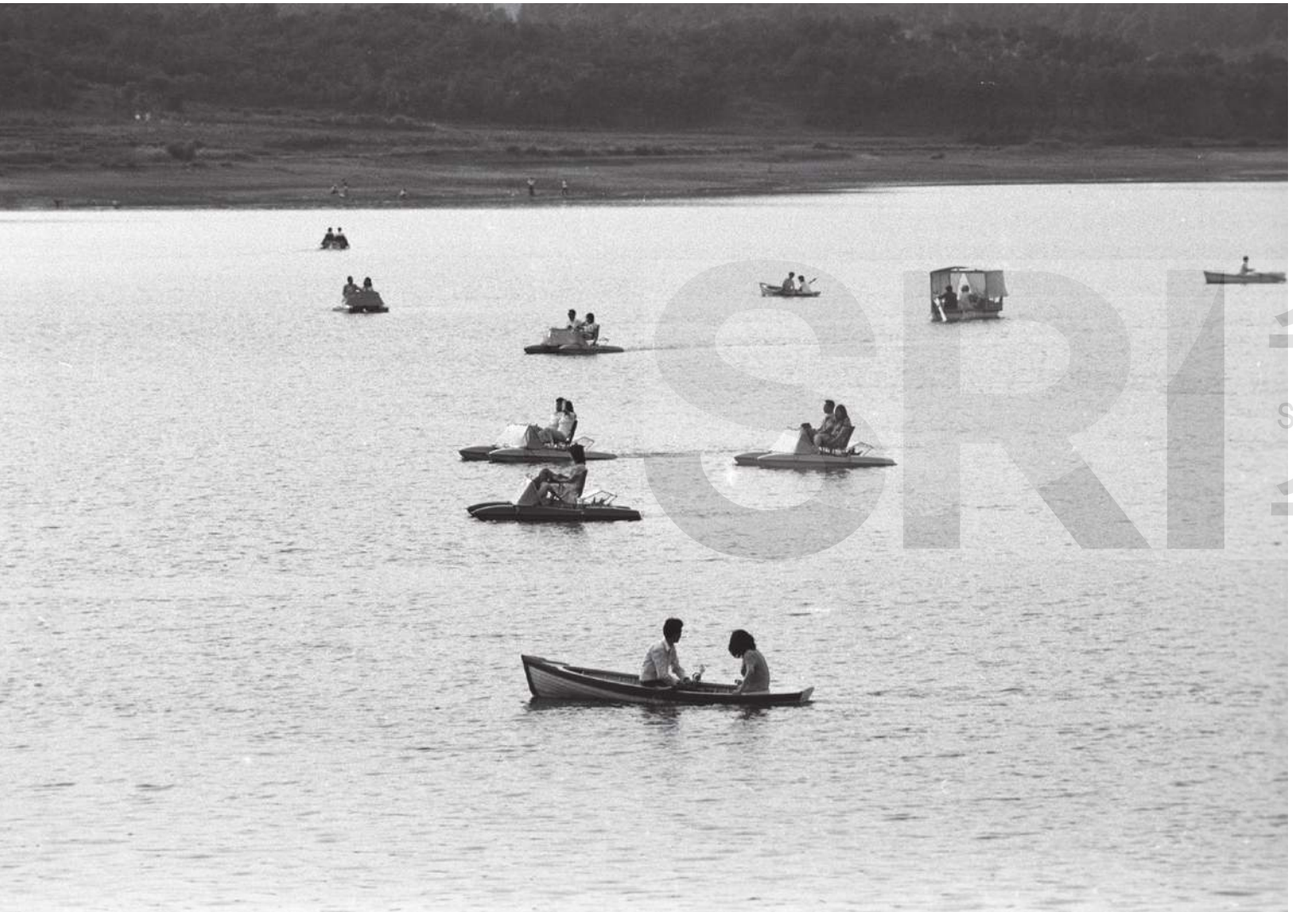


태장국민학교 전경(1981년, 김형진 제공)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원천유원지(1972년, 수원박물관 제공)



원천유원지에서 뱃놀이를 즐기는 사람들(1972년, 수원박물관 제공)



원천저수지 뚝방(1973년, 수원박물관 제공)



원천유원지를 찾은 가족(1972년, 수원박물관 제공)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시정연구원
수원학연구센터



원천유원지에서 이루어진 영복여고 조정부 진수식(1977년, 수원박물관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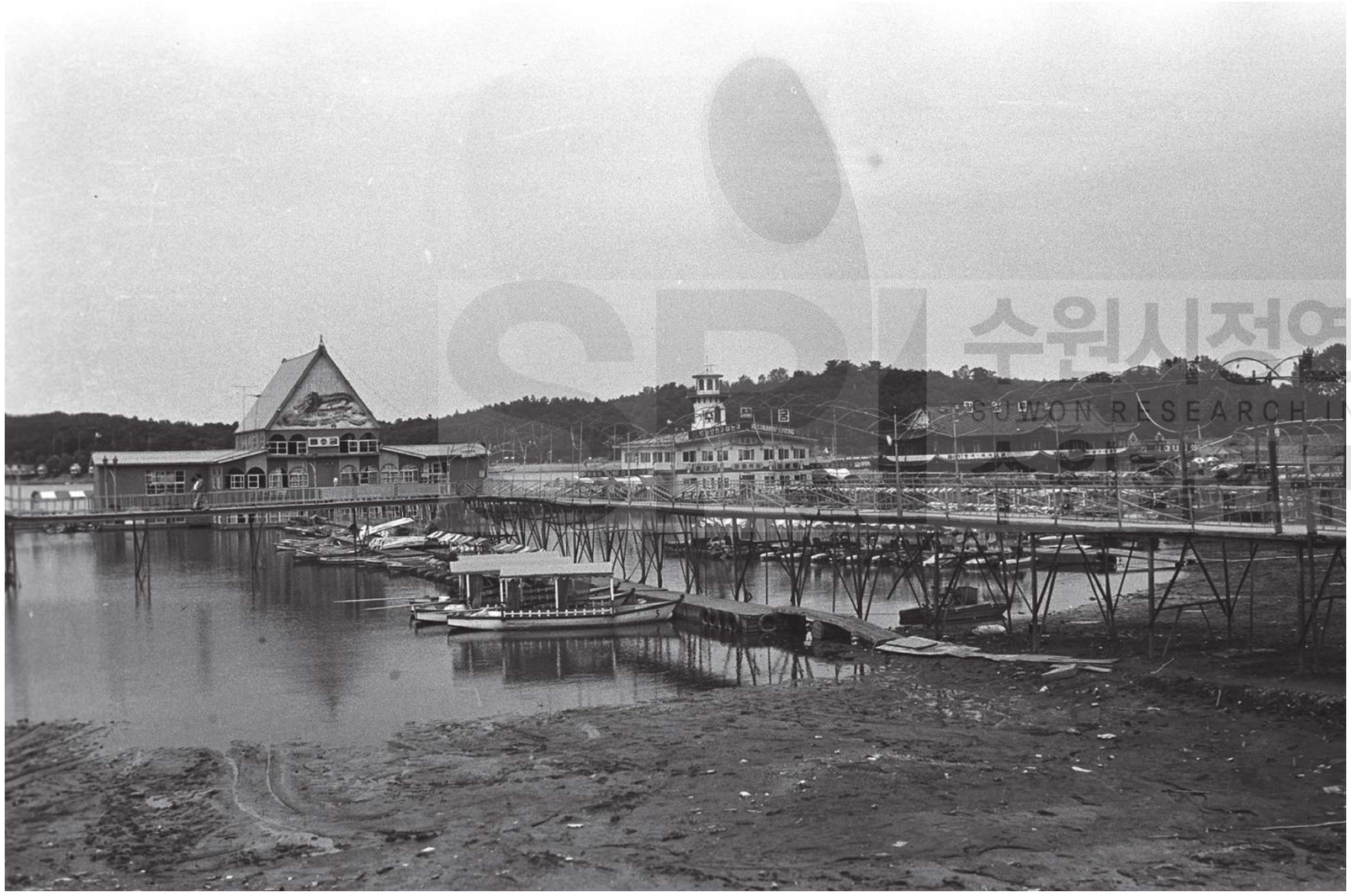
원천유원지 내 오락시설(1981년, 수원박물관 제공)





원천유원지 사격장(1972년, 수원박물관 제공)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원천유원지 수상식당(1983년, 수원박물관 제공)



원천유원지 내 상가(1981년, 수원박물관 제공)



원천유원지 수상식당 가는 길(1973년, 수원박물관 제공)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도시정보센터



원천유원지 전경(1991년, 수원박물관 제공)





원천유원지 점보풀장(2000년, 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원천유원지 야경(1999년, 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영통사, 청명마을 전경(1990년대 초, 한신대학교 박물관 제공)



90년대 초반 영통로 90번길(1990년대, 이해창 제공)



원천동 마을 논에서(이덕운 제공)



원천동 반상회(1986년, 수원박물관 제공)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매탄동 주민들의 윷놀이(1990년대, 김진환 제공)



매원동 부녀회 단합대회(1980년, 이덕운 제공)



원천동 마을 축제(1983년, 이정우 제공)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영통동 신나무실 마을회관(1990년대 초, 한신대학교 박물관 제공)



영통동 청명마을 공회당(1992년, 한신대학교 박물관 제공)

수원학연구센터
SUWON RESEARCH INSTITUTE



이의동 마을 전경(경기도시공사 제공)



이의동 하동 계단식 논(경기도시공사 제공)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이의동 독바위신당(경기도시공사 제공)





이의동 안동 김씨 문중 시제(경기도시공사 제공)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이의동 느티나무 보호수(경기도시공사 제공)



광교신도시 개발 이전 흙길(경기도시공사 제공)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원천저수지 전경(경기도시공사 제공)

Urban Place



매탄 5단지 아파트 공사 현장 일대(1985년, 수원박물관 제공)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삼성전자와 신동 벌터마을(2000년, 수원박물관 제공)



매탄주공 4단지 5단지, 삼성아파트 일대(1988년, 수원박물관 제공)



매탄2동 전경(2000년, 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매탄4동 구매탄아파트(1999년, 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매탄3동 전경(2000년, 수원박물관 제공)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원천성일아파트 건설현장(1992년, 수원박물관 제공)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영통택지개발사업 공사현장(1995년, 수원박물관 제공)



영통 신원, 미주아파트 건설현장(1997년, 수원박물관 제공)



벽산, 동신아파트 건설현장(1996년, 수원박물관 제공)



영통지구열병합발전소 공사현장(1997년, 수원박물관 제공)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영통동 전경(2000년, 수원박물관 제공)



영통동 전경(2023년, 김승일 제공)



영통동 벽산, 풍림아파트(2000년, 수원박물관 제공)



영통대로 야경(2004년, 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개발 중인 망포동 전경(2000년, 최호운 제공)



동수원자이1차 아파트 단지 공사현장(2000년, 수원박물관 제공)



동수원자이3차 아파트 단지 공사현장(2002년)



망포동 동탄지성로 박지성사거리(김승일 제공)

SRI 수원학연구센터
SUWON RESEARCH INSTITUTE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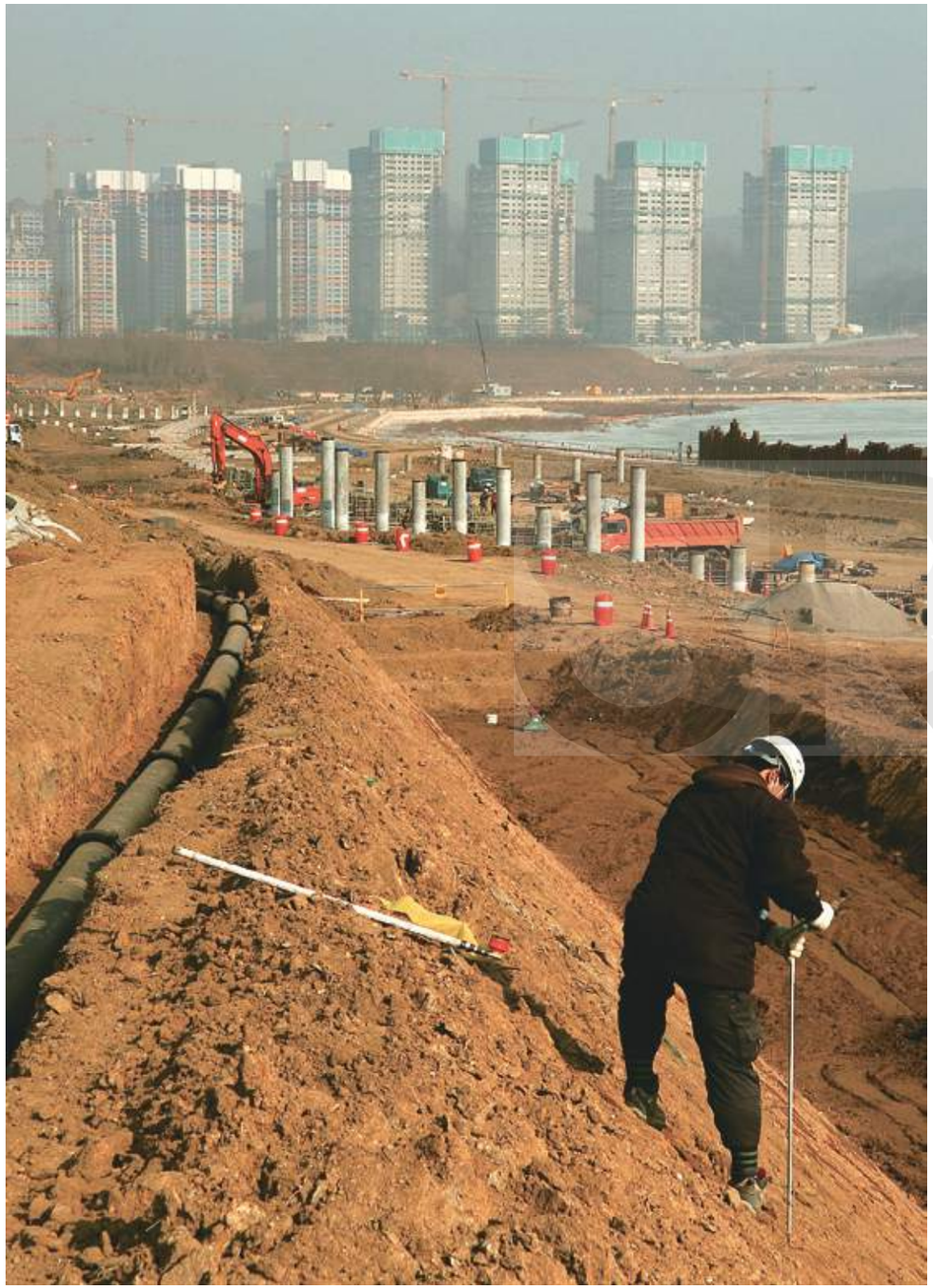
광교 개발 전경(2010년, 경기도시공사 제공)



이의동 래미안광교아파트 건설현장(2010년, 경기도시공사 제공)



공사 중인 광교비즈니스센터(2014년, 경기도 멀티미디어 자료실 제공)



광교신도시 공사현장(2011년, 경기도시공사 제공)





신대저수지 물고기 이동 작업(2010년, 경기도시공사 제공)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원천동 전경(2023년, 김승일 제공)



원천동 원천중학교(2019년, 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원천주공아파트(2019년, 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광교신도시 전경(2017년, 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광교신도시 전경(2020년, 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망포동 덕영대로 전경(김승일 제공)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광교신도시 야경(2014년, 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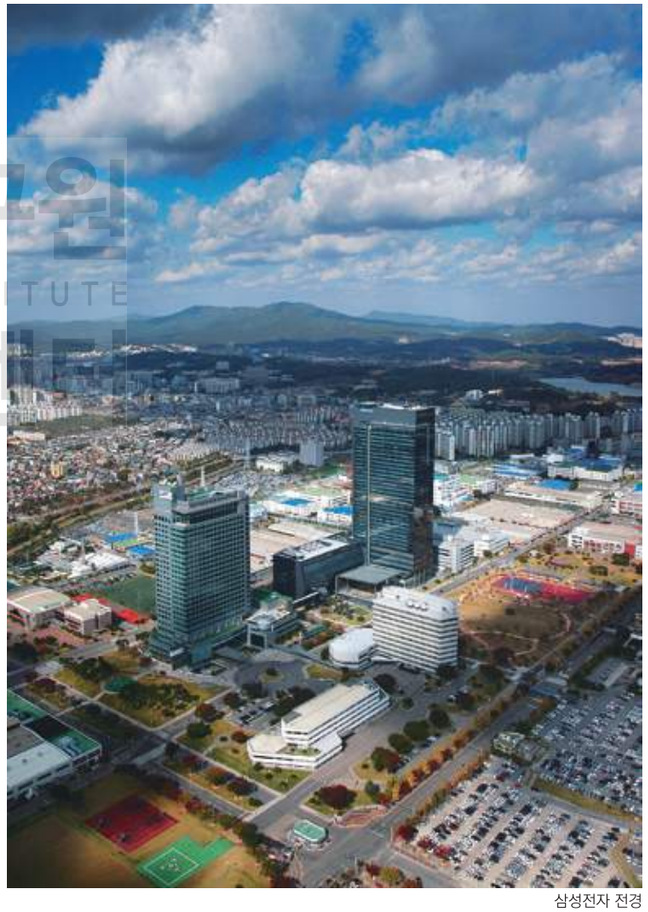
동수원 IC와 광교박물관(2014년, 경기도 멀티미디어 자료실 제공)



경기도청 전경(2023년, 경기도 멀티미디어 자료실 제공)



수원컨벤션센터(2021년, 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삼성전자 전경



광교법조타운 내 검찰청과 법원(2021년, 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독일프라이부르크 전망대(2019년, 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광교호수공원 일대(2019년, 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광교호수공원 전경(2020년, 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광교호수공원과 무지개(2019년, 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SRI 수원학연구센터
SUWON RESEARCH INSTITUTE

City Life



영통지구 첫 입주자 축하방문(1997년, 수원박물관 제공)



매탄동사무소 개소식(1985년, 수원박물관 제공)



매탄동사무소 개소식(1985년, 수원박물관 제공)



영통동사무소 개소식(1999년, 수원박물관 제공)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영통구청 개청식(2003년, 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태장동 주민자치센터 개청식(2010년, 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원천동 주민자치센터 개청식(2011년, 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망포1동 행정복지센터 개청식(2019년, 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광교동 주민센터 개청식(2013년, 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광교2동 주민센터 개청식(2015년, 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영통구보건소 개소식(2013년, 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매탄2동 경로당 준공식(1995년, 수원박물관 제공)



한마음무료급식소 경로잔치(2005년, 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말통골노인정 경로잔치(2006년, 말통골노인정 제공)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원천동 법원사거리 앞 교통질서캠페인(2000년, 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영통구 식목행사(2004년, 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샘말어린이공원 개장식(2007년, 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매탄공원에서 게이트볼을 치는 주민들(2000년, 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수원학연구센터
SUWON RESEARCH INSTITUTE



망포글빛도서관(2019년, 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광교홍재도서관(2014년, 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광교푸른숲어린이도서관(2018년, 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망포글빛도서관(2021년, 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성균시정연구원 SUNGKYUNKWAN URBAN RESEARCH INSTITUTE



광교홍재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어린이들(2014년, 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수원박물관(2008년, 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광교박물관(2014년, 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영통 어린이공원 내 느티나무(2017년, 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영통청명단오제(2009년, 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영통구민체육대회(2005년, 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영통구 청소년 어울마당(2005년, 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매탄 1동 마을음악회(2009년, 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살구골공원 영통마을 작은 음악회(2011년, 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제1회 영통커피축제(2015년, 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시정연구원
수원학연구센터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시정연구원

원천광교한마당 가면축제(2017년, 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2018수원재즈페스티벌(2018년, 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2018수원재즈페스티벌(2018년, 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광교호수 산책로에 핀 벗꽃(2013년, 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광교호수공원 내 튤립꽃밭(2017년, 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매여울공원 물놀이장(2013년, 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광교호수공원 분수대(2019년, 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광교캠핑장(2014년, 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매탄동 장미길(2014년, 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동수원초등학교 담장 벽화 그리기(2012년, 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광교산 축제(2014년, 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영통구 그린하모니콘서트(2023년, 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PART 2.

Growth and Leap

영통구의 자연환경과 생활터전

손승호 인천대학교 지역인문정보융합연구소 선임연구원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 수원과 인접 도시를 연계하는 동수원의 중심지

수원시의 동쪽에 자리한 영통구는 수원의 주산에 해당하는 광교산줄기의 형제봉 남쪽에서부터 청명산의 서사면에 이르는 구간을 지나 화성시와 경계를 형성하는 망포들까지 남북방향으로 길게 뻗어 있다. 구의 동쪽으로는 용인시 수지구와 기흥구가 경계를 형성하며, 남쪽으로는 화성시 반월동의 시가지가 맞닿아 있다. 구의 서쪽은 수원시의 기성시가지인 팔달구와 장안구가 위치한다. 동쪽으로는 용인 및 화성의 시가지와 연담한 구간이 있기도 하고 산지를 사이에 두고 두 도시와 마주하는 구간도 있다. 북쪽 끝 지점은 이의동에 자리한 광교산의 형제봉 남단이며, 남쪽 끝지점은 화성시 반월동과 마주하는 망포동이다 즉 영통구는 동수원에서 수원시를 용인시 및 화성시와 연계하는 매개 역할을 하는 지역이다.

영통구는 영통구 내에서의 교통로, 영통구와 수원시의 기성시가지를 잇는 교통로, 영통구와 인접한 용인시 및 화성시를 연결하는 교통로, 그리고 서울대도시권은 물론 전국으로 연결될 수 있는 교통로 등의 연계를 통해 수원 및 경기도의 행정중심지인 동시에 첨단산업을 비롯한 경제활동의 중심권역으로 기능한다. 구의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영통구청은 효원로 407(매탄동 1268번지)에 자리하며, 행정동 기준으로는 매탄3동에 있다. 영통구는 거대도시 수원특례시에 설치된 하위 행정구역이지만, 특별시나 광역시에 설치된 구와 달리 자치구가 아닌 행정구이다.



수원 동부에 자리한 영통구의 법정동과 행정동

서울대도시권을 비롯해 전국으로 연결되는 고속교통망에는 영동고속도로와 용인서울고속도로가 통과한다. 영통구를 동서 방향으로 가로지르는 영동고속도로의 동수원요금소를 통해 구의 북부에 자리한 광교신도시로 진입할 수 있다. 영통구의 동북쪽에서 시작해 구를 남북방향으로 가로지르는 용인서울고속도로의 시점은 영통동에서 봉영로를 따라 바로 진입할 수 있는 곳이며, 광교신도시에서는 창룡대로를 따라 광교상현IC를 통해 용인서울고속도로의 서울 방향으로 진입할 수 있다. 이외에 국도 43호선(창룡대로)은 수원화성의 창룡문을 지나 영동고속도로와 용인서울고속도로를 연결하면서 용인시로 연결되는 광역도로망이고, 국도 42호선(중부대로)은 우만동에서 진입해 광교신도시의 남단을 지나 용인시 영덕동으로 연결되는 광역도로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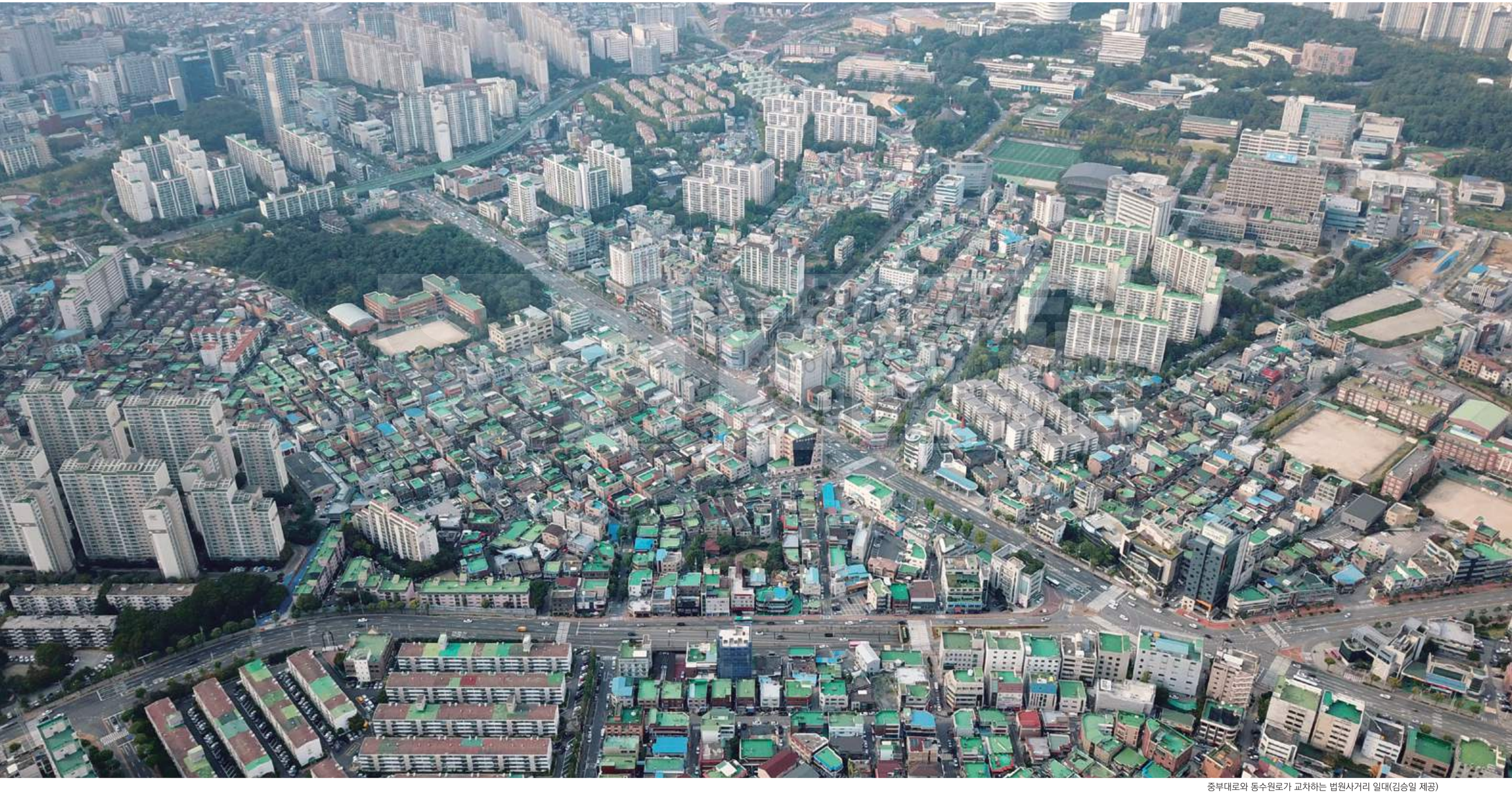
영통구를 통과하는 수인분당선과 신분당선 역시 서울대도시권에서 영통구와 주변 지역의 연계를 강화시켜 주는 대중교통 수단이다. 수인분당선은 영통동과 망포동을 거쳐 수원역 방향으로 연결되고 신분당선은 용인시 수지구에서 영통구의 북쪽인 하동으로 진입해 이의동까지 연결된다. 수인분당선에는 청명역 · 영통역 · 망포역 · 매탄권선역이 설치되어 있고, 신분당선은 용인시 상현동에 설치된 상현역과 영통구에 설치된 광교중앙역을 지나 종점인 광교역까지 연결된다. 한편 2029년 개통 예정인 동탄인덕원선은 안양시 인덕원역에서 화성시 동탄역으로 이어지는 노선으로, 영통구를 관통할 예정이다. 이들 수도권전철은 영통구의 교통접근성을 개선시켜 영통구의 흡인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다른 지역과의 공간상호작용을 원활하게 해 준다.

영통구를 통과하는 간선도로에는 덕영대로, 봉영로, 매탄로, 삼성로, 영통로, 동탄원천로, 효원로, 매영로, 권선로, 월드컵로, 대학로, 광교로, 광교중앙로, 도청로, 센트럴파크로, 법조로 등의 간선도로와 이로부터 파생된 도로가 있다. 국도 43호선과 국도 42호선이 각각 영통구의 북부와 중부를 동서로 횡단하는 도로라 할 수 있고, 덕영대로는 영통구의 남부에서 동서로 횡단하는 간선도로로 기능한다.



영통 신시가지를 관통하는 봉영로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중부대로와 동수원로가 교차하는 법원사거리 일대(김승일 제공)



영통로와 봉영로 교차점(김승일 제공)



법조로(경기도시공사 제공)

2. 행정구역의 변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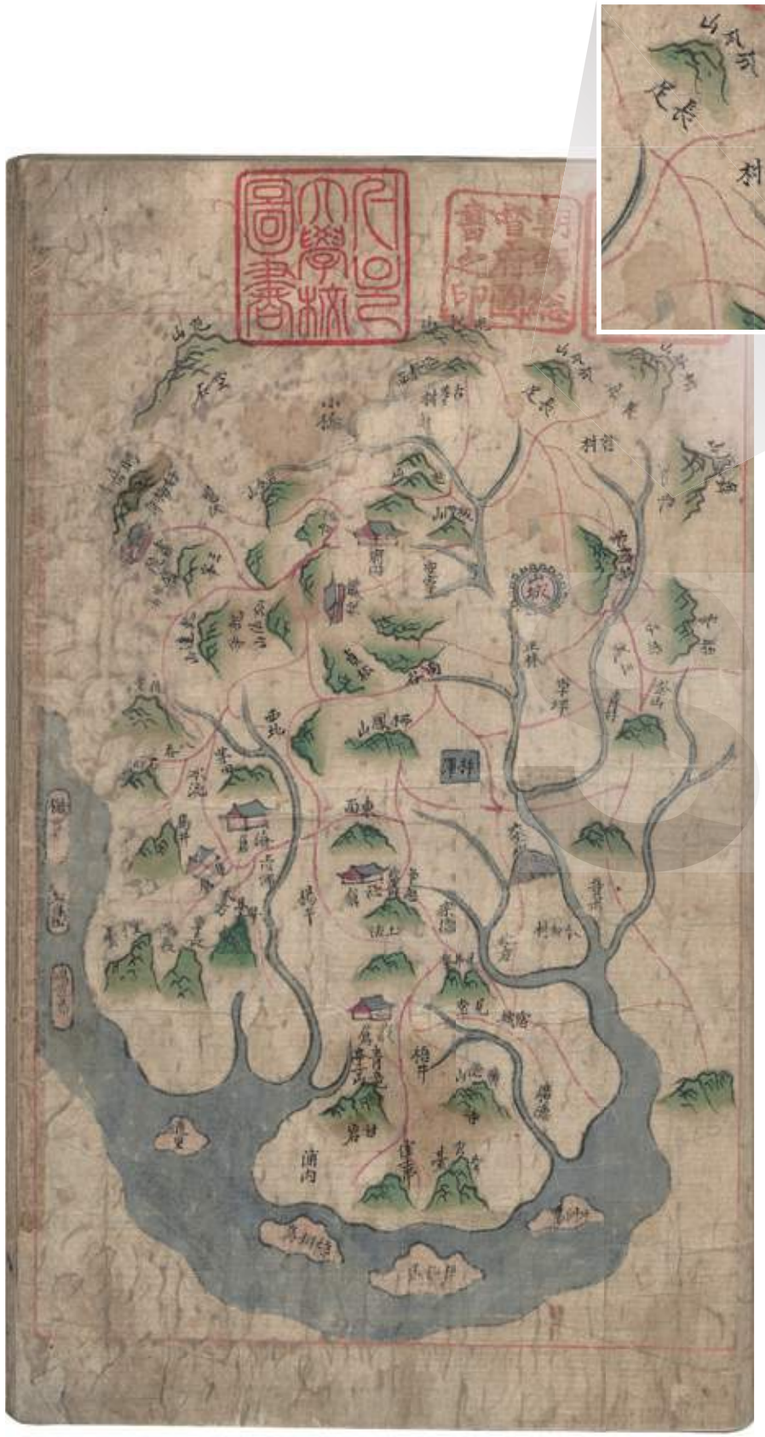
영통구 지역은 조선시대에 수원에 속했던 지역과 용인에 속했던 지역으로 나뉜다. 수원부에 속했던 지역은 매탄동 · 원천동 · 영통동 · 신동 · 망포동으로, 이 중 망포동은 1895년(고종 32) 지방관제를 개편할 당시 수원군 태촌면(台村面)에 속했다가 1914년 일제가 단행한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망포리와 우문리가 통합되어 수원군 태장면(台章面) 망포리로 편제되었다. 매탄동 · 원천동 · 영통동 · 신동은 1895년에 수원군 장주면(章州面, 長足面)에 속했다가 1914년 일제의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수원군 태장면 소속이 되었다. 1914년에 성립된 태장면은 태촌면과 장주면을 비롯하여 남부면 2개 리 등 모두 13개의 리를 거느렸다. 태장면은 태촌면과 장주면에서 각각 한 글자씩 따서 생겨난 이름이며, 태장면의 행정 업무를 담당하던 면사무소는 망포리에 설치되었다.

1949년 수원군 수원읍이 시로 승격하면서 시로 승격하지 않은 수원군의 나머지 지역이 화성군으로 변경됨에 따라, 매탄리 · 원천리 · 영통리 · 신리 · 망포리는 화성군 태장면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1963년 수원시 영역이 확장되면서 화성군 태장면에 속했던 매탄리와 원천리가 수원시의 매탄동과 원천동으로 편제되었다. 이때 영통리 · 신리 · 망포리는 태장면과 안룡면(安龍面)이 병합되면서 화성군 태안면 소속이 되었는데, 태안면은 1985년 화성군 태안읍으로 변경되었다. 영통리 · 신리 · 망포리는 1994년 수원시에 편입되었는데, 영통리는 편입 즉시 법정동이 영통동으로 지정되었지만, 신리와 망포리는 이듬해인 1995년 4월 20일 신동과 망포동으로 지정되었다.

이의동과 하동은 조선시대에 용인현 16면 중 지내면(枝內面)에 속해 있었다. 1895년 지내면은 상리, 하리, 의상, 의하, 덕동, 영통 등 6개 리동을 관장하였다.[1] 일제강점기에 행정구역 개편이 단행되었는데, 1914년 4월 1일 수진면(水眞面)의 죽전리를 제외한 전 지역과 지내면에서 영통리를 제외한 전 지역을 합쳐 수진의 '수(水)'자와 지내면의 '지(枝)'자를 합쳐 수지면이라 하였다.

1983년 2월 15일 이의리와 하리가 용인군 수지면 관할에서 수원시로 편입되었다. 그 당시 원천유원지 개발을 수원시가 주도하였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이의리와 하리가 수원시로 편입되었다. 1988년 장안구의 신설과 동시에 이의동과 하동은 장안구에 속하게 되었으며, 1993년 다시 팔달구의 신설로 팔달구로 편입되었다가, 2003년 11월 24일 영통구의 신설로 다시 영통구로 편입되어 오늘에 이른다.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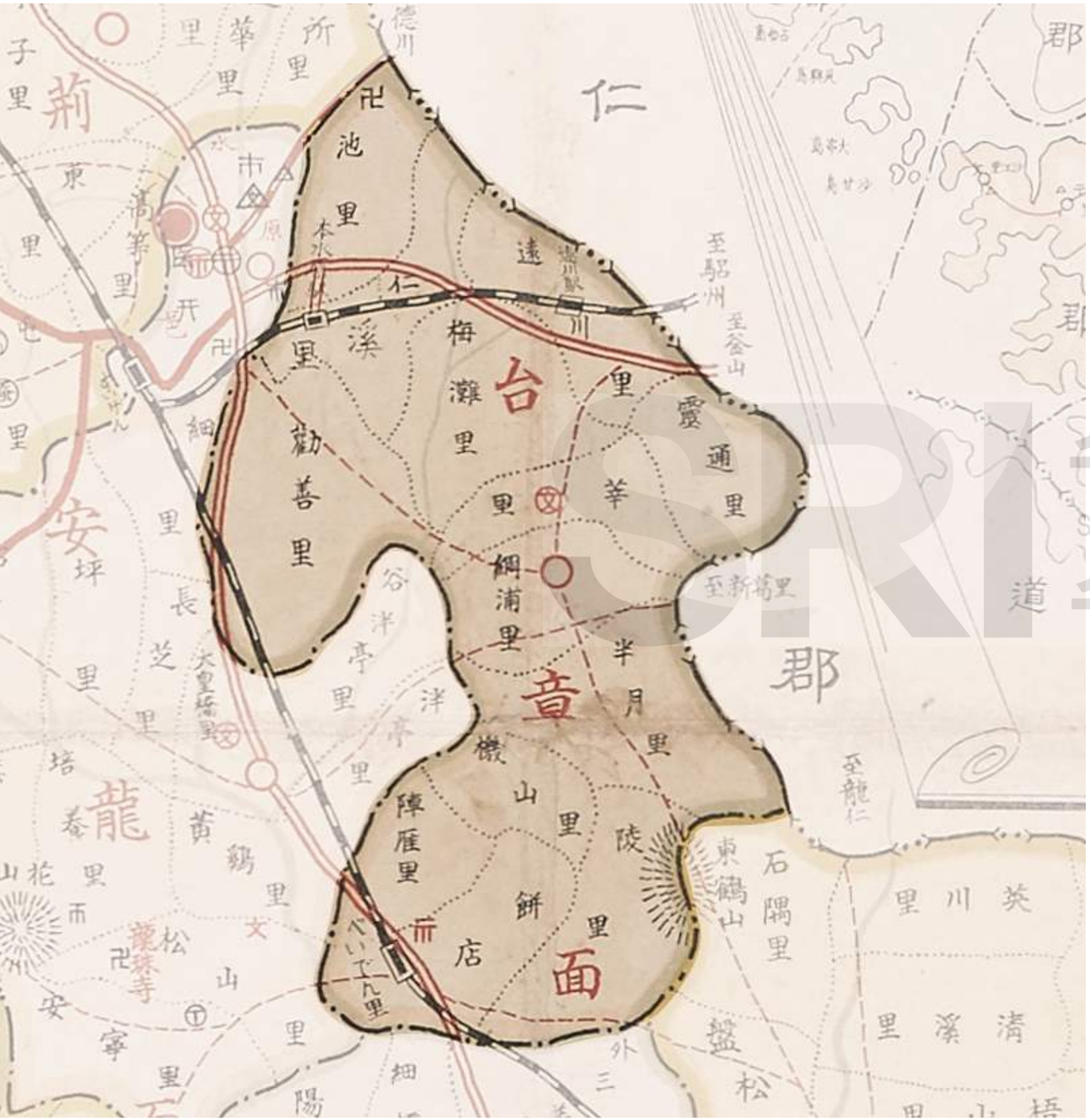


『수원부읍지』에 나타난 태촌면과 장족면(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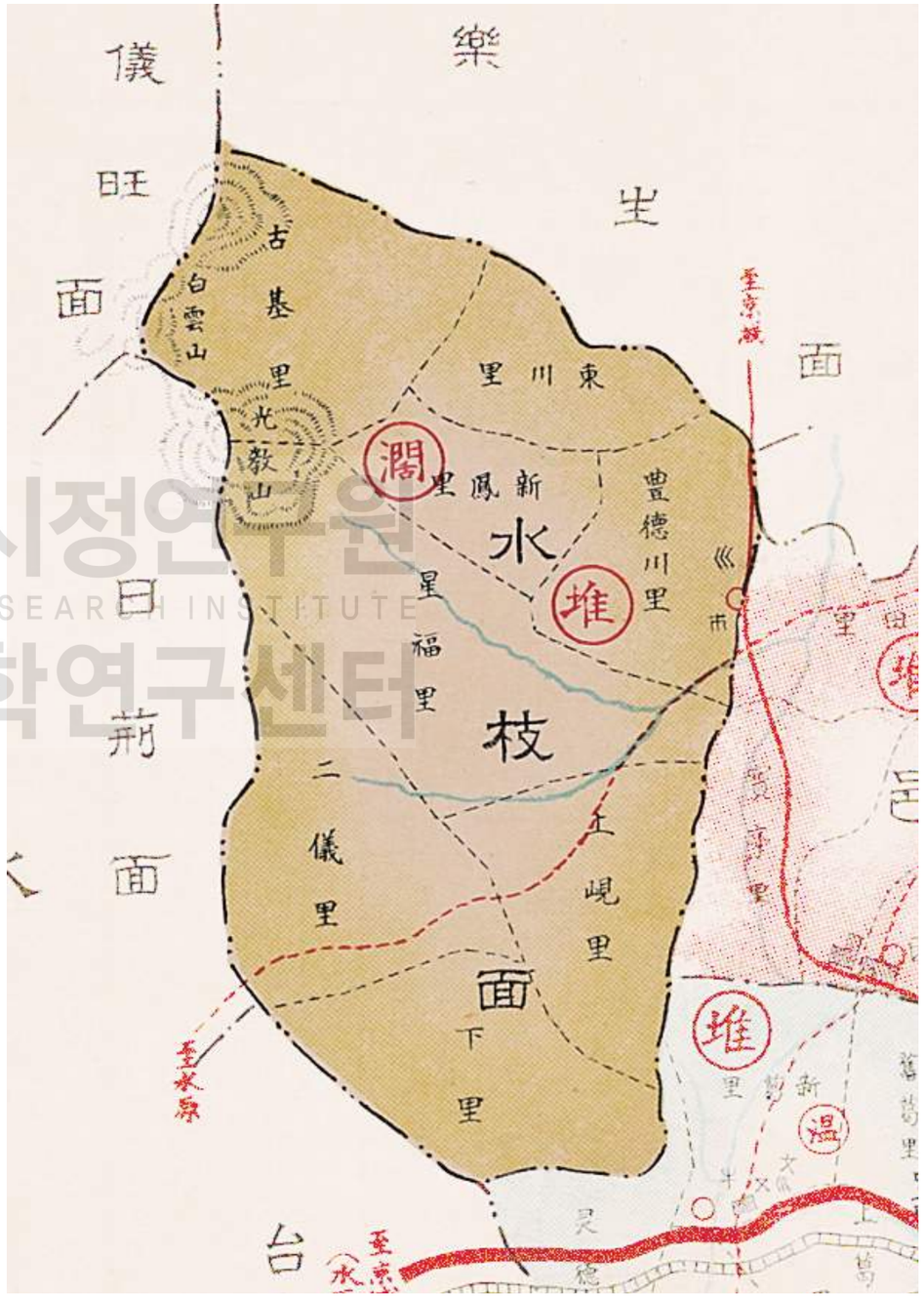


『해동여지도』 용인현 지도에 나타난 지내면(국립중앙도서관 제공)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시정연구원



일제강점기 수원군 태장면(수원박물관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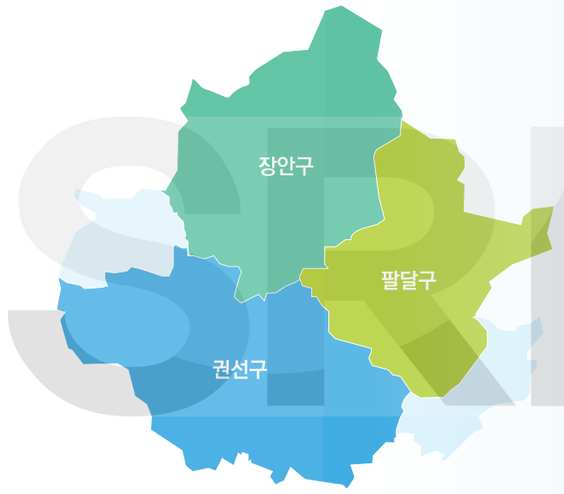
일제강점기 용인군 수지면(e뮤지엄 제공)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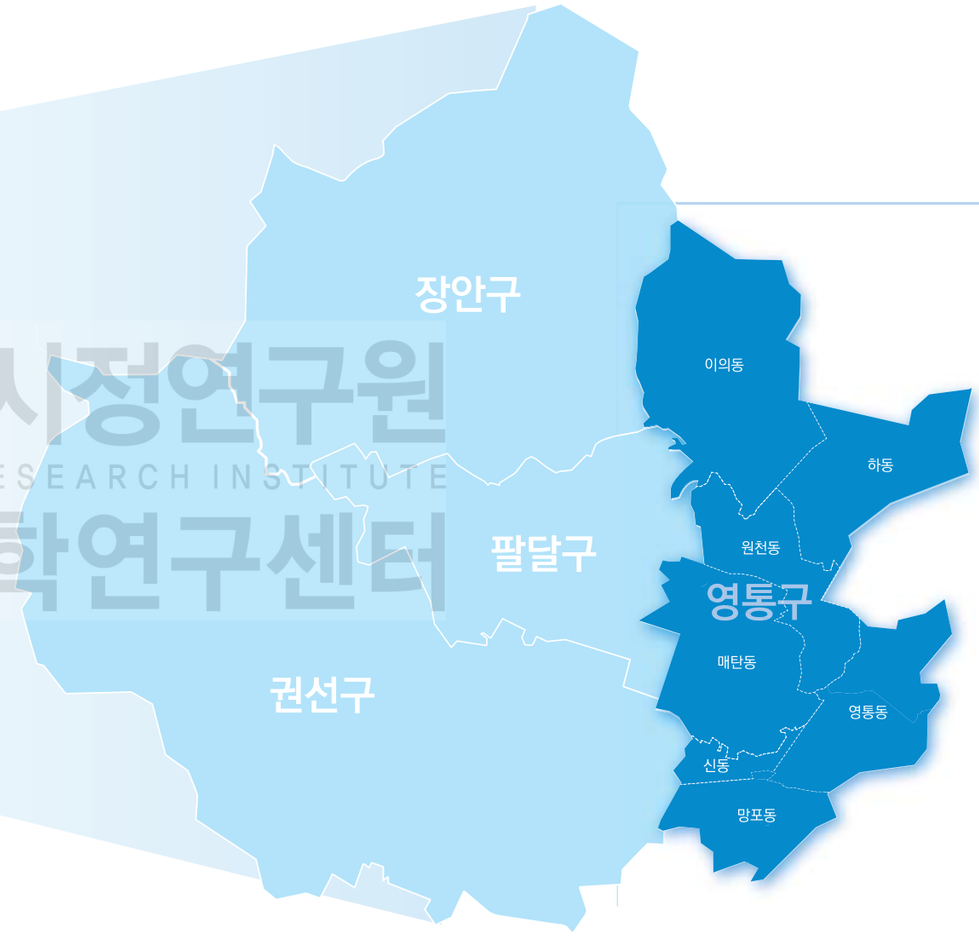
1988년 장안구와 권선구 분구



1993년 팔달구 신설



2003년 영통구 신설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구의 이름인 영통(靈通)은 본래 청명산의 서사면에 자리했던 자연마을의 이름이었다.[2] 영통구는 수원특례시에 설치된 4개의 행정구 가운데 하나이며, 설치시기는 가장 늦은 2003년 11월 24일이다. 지금의 영통구를 구성하는 시가지는 1980년대 중반 동수원 개발로 매탄동 일대가 개발되면서부터 형성되었고, 영통지구 택지개발사업이 1994년 본격화하고 1997년부터 주민 입주가 시작하면서 농촌적 성격이 사라지고 도시적 성격을 나타냈다. 영통 택지개발사업을 통해 조성된 신시가지의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2003년 영통구가 신설되었다.

2023년 기준 영통구는 7개의 법정동에 설치된 12개의 행정동으로 구성된다. 7개의 법정동은 영통구가 신설되기 이전, 7개의 법정동은 모두 팔달구에 편제되어 있었다. 매탄동과 원천동은 1985년까지 매원동으로 편제되었다가 같은 해 12월 2일 매탄동과 원천동으로 분동되었으며, 매탄동은 1990년 1월 1일 매탄1동과 매탄2동으로 다시 분동되었다. 1990년 12월 7일 매탄2동은 매탄2동과 매탄3동으로 다시 분동되었고, 1994년 7월 16일 매탄2동은 매탄2동과 매탄4동으로 분동되었다. 1996년 법정동 경계조정으로 매탄동 일부가 권선구 권선동에 편입되었으며, 1998년에는 망포동 · 매탄동 · 원천동의 각 일부가 영통동으로 편입되었다. 1999년에는 매탄동 일부가 원천동으로 편입되었다. 1999년 10월 1일에는 행정동 원천동이 원천동과 영통동으로 분동되었고, 2000년 6월 26일에는 행정동 영통동이 영통1동과 영통2동으로 분동되었다. 본래 화성군 태안읍에 속했던 신동과 망포동은 1994년 수원시 팔달구에 편입된 이후 매탄3동에서 행정업무를 관할하였다.

〈표 1〉 영통구 설치 이후 행정동의 변천과 법정동 구성

구분	2003년	2007년	2012년	2014년	2017년	2019년 이후	법정동
행정동	매탄1동	매탄1동	매탄1동	매탄1동	매탄1동	매탄1동	매탄동
	매탄2동	매탄2동	매탄2동	매탄2동	매탄2동	매탄2동	
	매탄3동	매탄3동	매탄3동	매탄3동	매탄3동	매탄3동	
	매탄4동	매탄4동	매탄4동	매탄4동	매탄4동	매탄4동	
	원천동	원천동	원천동	원천동	원천동	원천동	원천동
	이의동		광교동	광교1동	광교1동	광교1동	이의동
				광교2동	광교2동	광교2동	하동
	영통1동	영통1동	영통1동	영통1동	영통1동	영통1동	영통동
	영통2동	영통2동	영통2동	영통2동	영통2동	영통2동	영통동, 신동, 망포동
					영통3동	영통3동	영통동
	태장동	태장동	태장동	태장동	태장동	망포1동	망포동
						망포2동	
합계	9	8	9	10	11	12	7



2003년 수원시 영통구청 개청(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2007년 5월 9일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과 수지구 상현동 일부를 영통구 하동으로 편입하고, 영통구 하동 일부를 용인시로 편입시키는 경계 조정이 있었다. 같은 해 8월 6일에는 행정동 원천동과 이의동이 원천동으로 합동되었다. 이후에도 법정동 간 행정 경계 조정은 여러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2012년 8월 14일 법정동 이의동과 하동을 관할하는 행정동 광교동이 설치되었고, 2014년 11월 17일에는 광교동이 광교1동과 광교2동으로 분동되었다. 2017년 11월 17일에는 영통1동과 영통2동을 재편성해 영통1동 · 영통2동 · 영통3동으로 분동했고, 망포동을 관할하는 태장동이 설치되었다. 행정동 태장동은 2019년 3월 20일 망포1동과 망포2동으로 분동됨으로써, 태장동이라는 지명은 수원시에서 공식적으로 사라졌다.

예로부터 전해 오는 토지 경계를 중심으로 설정되는 법정동과 달리, 행정동은 행정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설치되거나 폐지되므로, 행정동의 증감은 주민중심 행정수요의 변화를 반영한다. 영통구의 행정동이 2003년 9개에서 2023년 12개로 증가했음은 상주인구의 증가에 따른 행정수요의 증가를 의미한다. 행정동의 분동은 1998년 영통택지개발사업이 1차적으로 마무리된 이후, 택지개발사업이나 신도시 건설과 같은 대규모 시가지 조성을 통해 인구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영통구의 행정동 증가는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수원시 형성의 기원지라 할 수 있는 팔달구에 설치된 행정동의 수가 2004년 12개에서 2023년 현재 10개로 감소한 것과 대비된다. 즉 기성시가지로 구성된 중심부는 상주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행정동이 폐지되었지만, 영통구와 같이 도시 주변부에서 시가지 개발에 따라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에서는 행정동의 분동이 필수적이다.

영통구에 속하는 지역은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원천리천 주변의 평지에서 벼농사가 이루어지고 산사면에는 밭과 과수원이 산재하던 농촌이었다. 수원에서는 도시 규모가 확대되고 미개발지를 대상으로 한 시가지 개발의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도시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7개 법정동은 수원시에서 도시화가 가장 늦게 진행된 지역으로, 바꿔 말하면 최근에 개발된 신시가지가 가장 많은 곳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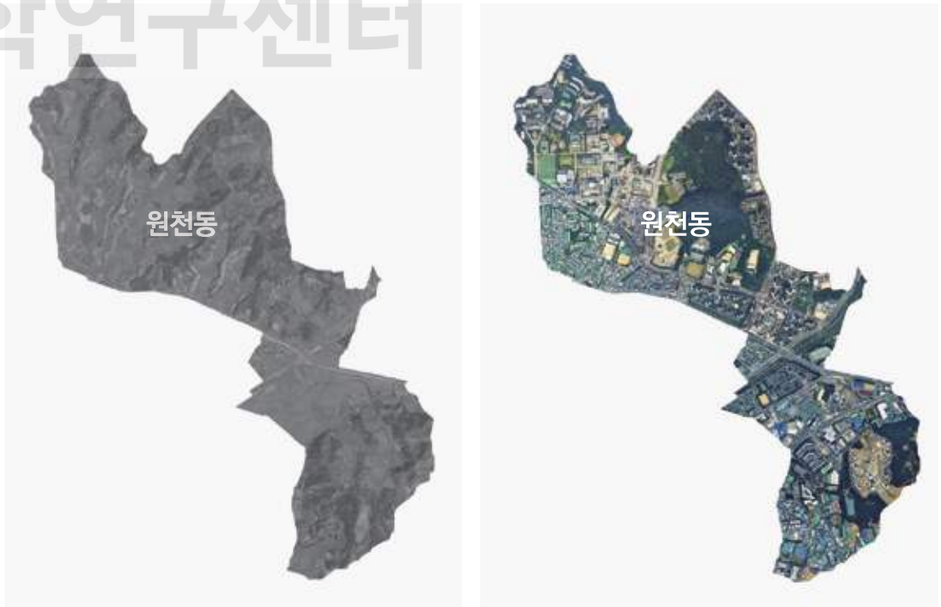
매탄동(梅灘洞)은 영통구에서 가장 이른 시기인 1980년대 중반 수원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파트 단지와 단독주택이 건설되면서 도시화를 경험하였다. 삼성전자와 중소규모 제조업체가 밀집한 원천리천 동편의 매탄3동 일부를 제외하면 매탄동의 대부분 지역은 주거지 성격이 강하며, 구매탄시장(매탄1동) 일대는 경제활동의 입지는 활발한 편이다. 매탄동에는 2000년대 들어 입주가 시작한 아파트가 있지만, 상당수의 아파트와 단독주택은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초반에 건축된 것으로 노후 주택이 많다.

원천동(遠川洞)은 매탄동의 북쪽에 접한 곳으로 원천리천 동편은 제조업체를 비롯한 경제활동이 입지가 활발한 편이지만 원천리천의 서편은 주거지와 자연녹지로 이루어진 곳이다. 원천리천의 서쪽은 월드컵로 북쪽의 아주대학교를 제외하면 1980년대에 주택이 들어선 지역으로 주거지역 성격과 함께, 광교산 산록의 끝자락에 자리하며, 원천호수 남쪽에서 녹지를 품고 있었다. 그러나 원천호수 남서쪽의 녹지는 광교신도시에 포함되면서 신규 주거지역으로 재탄생하였다. 삼성로 동편의 산록에서도 신규 공동주택단지가 조성되었다. 따라서 원천동은 신시가지와 구시가지로 도시공간이 구분되며, 이미 자리한 대학교를 비롯해 신도시 개발 이후 초중등 교육기관이 들어서면서 교육지역으로서의 면모도 갖추고 있다.

이의동(二儀洞)은 원천동의 북쪽에서 광교산의 사면을 품고 있으며, 일찍부터 골짜기의 농경지를 기반으로 터전을 잡은 사람들의 자연마을이 있던 곳이다. 광교산에서 흘러내리는 여천 · 절골천 · 성죽천 · 쇠죽정천 등의 개울이 하천 주변을 침식시키면서 형성한 골짜기는 일찍부터 농경지로 이용되었고 주민들의 생활터전이 되었다. 이들 하천은 광교홍재도서관 근처에서 여



1963년 편입된 매탄동(1966년과 2022년)



1963년 편입된 원천동(1966년과 2022년)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983년 편입된 이의동과 하동(1966년, 수원시 항공사진서비스 제공)



1983년 편입된 이의동과 하동(2022년, 수원시 항공사진서비스 제공)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천으로 통합되며, 여천은 아래쇠죽골천을 받아들인 후 남쪽으로 흐르다가 원천호수로 유입한다. 이의동은 수원시를 동서로 횡단하는 영동고속도로의 동수원IC가 1991년 설치되고 용인서울고속도로의 광교상현IC[3]가 2009년 설치된 후 수원과 주변지역을 연결하는 교통의 주요한 결절점으로 기능한다. 광교신도시 건설과 더불어 이의동에는 경기도청,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등을 비롯한 공공기관이 들어서면서 광교신도시의 중심부로 발돋움하였다.

하동(下洞)은 이의동의 남쪽에서 신대호수와 원천호수를 끼고 있으며, 과거에는 용인시와의 경계에 자리한 전형적인 농촌이었다. 광교산에서 흘러오는 가산천과 원천리천 주변에 농경지를 터전으로 거주하던 자연마을이 있었으나, 용인시에서 수원시로 편입된 후 광교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완전한 도시지역으로 변화하였다. 신대호수 및 원천호수의 원형을 보존하면서 호수의 서쪽과 북쪽으로 광교신도시가 개발되었고, 신대호수의 동쪽은 자연공간을 거의 유지하고 있어 수변공간과 녹지공간이 매우 풍부한 지역이다. 수원지방법원을 비롯해 수원지방검찰청과 수원고등검찰청 등이 입주해 있다.

영통동(靈通洞)은 1990년대 초반까지 농경지와 청명산 서사면에 자연마을이 있던 지역이었으나, 1998년 이후 택지개발사업을 통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였다.[4] 영통동은 대단위의 주거단지가 개발되고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수원가정법원, 동수원세무서 등의 공공기관



1994년 편입된 영통동·신동·망포동(1966년, 수원시 항공사진서비스 제공)



1994년 편입된 영통동·신동·망포동(2022년, 수원시 항공사진서비스 제공)

과 상업업무기능이 진입하면서 광교신도시가 조성되기 이전까지 수원의 동부지역에서 중심지 역할을 하였다. 지금은 영통동의 남쪽에 접한 화성시 반월동에 택지개발이 완료되면서 영통동은 화성시 및 용인시와 수원시를 매개하는 지역으로 발돋움했으며, 영통동에 접한 신동과 망포동의 도시화에도 영향을 미쳤다.

신동(莘洞)은 매탄동과 망포동의 사이에서 원천리천에 접한 지역으로, 면적(0.56㎢)은 영통구 전체의 2.2%에 불과하다. 면적이 좁은 관계로 신동의 인구 규모는 독자적인 행정동을 구성할 수준에 미치지 못하며, 영통2동에서 신동의 행정업무를 처리한다. 신동은 영통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시가지가 개발되기 전 넓은 농경지를 거느린 전형적인 농촌취락이었지만, 지금은 수변공원을 배경으로 쾌적한 주거지역으로 변화했으며 권선로 동북쪽에서 삼성전자에 접한 구역은 제조업체가 들어선 공업지역의 성격을 보인다.

망포동(網浦洞)은 수원시 남단에 자리한 신흥주거지역이다. 망포동은 영통지구의 개발과 더불어 일부 지역이 도시화 구역으로 변모하기 이전인 1990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년대 중반까지 원천리천을 끼고 형성된 넓은 들판을 배경으로 하는 농촌지역이었다. 영통지구 개발과 더불어 농촌지역의 성격을 조금씩 잃어 갔으며, 2010년대 중반 이후 대단위 택지개발에 따른 공동주택 밀집지역으로 변화하였다. 이에 따라 지금은 망포동에서 농촌적 요소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3. 산지와 들판이 어우러진 자연환경

1) 북쪽과 동쪽에 자리한 광교산과 청명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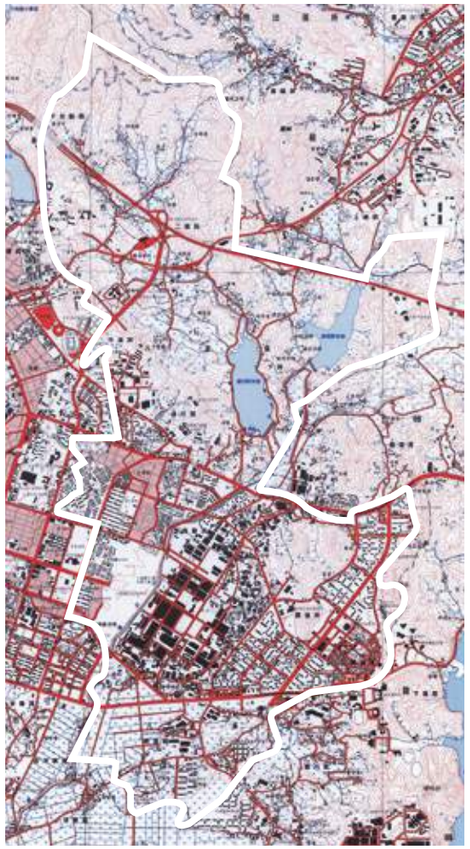
팔달산 동사면에 건설된 수원화성을 중심으로 형성된 수원의 시가지는 사방으로 수평적 확장을 경험하였다. 시가지는 수원시의 북쪽에서 진산 역할을 하는 광교산 사면까지 확장했고, 동쪽으로는 용인시와 경계를 이루는 곳까지 확장하였다. 광교산은 용인시와 경계를 형성하면서 남쪽으로 뻗어 내려오고 구의 동쪽에는 청명산(188m)이 있다. 광교산 정상에서 형제봉과 원천호수의 서사면을 지나 원천리천에 이르는 산줄기는 한 때 수원시와 용인시의 경계역할을 했었다. 수원시와 용인시 사이의 행정경계 조정으로 지금은 신대호수의 북쪽을 통과하는 영동고속도로가 두 도시의 행정경계이다. 이 산줄기의 모습은 현재까지 골격을 유지하고 있지만, 산록이나 산사면은 도시화의 진행과 함께 새로운 모습으로 변형되었다.

영통동의 동쪽에서 남북으로 뻗은 청명산 산줄기의 동사면은 경사가 상대적으로 급하지만, 서사면은 완경사지와 평지로 구성된다. 그리고 영통구 서쪽의 우만동에서 인계동으로 이어지는 구간은 해발고도가 40~50m에 불과한 구릉지가 전개된다. 따라서 우만동에서 인계동으로 이어지는 산줄기의 동쪽과 청명산 산줄기의 서쪽은 서로 마주하면서 그 사이로 원천리천이 통과하고 그 주변으로는 넓은 벌판이 발달했다.

광교산과 청명산의 경계부는 원천리천에 의한 골짜기와 농경지가 발달해 있어 해발고도는 50m에도 이르지 못한다. 신대호수에서 원천호수로 이어지는 구간과 그 주변부는 골짜기를 따라 일찍부터 수원에서 용인으로 이어지는 교통로가 통과하였다. 일제강점기에 부설된 수려선 철도의 원천역-덕곡역[5] 구간이 통과한 곳이기도 하다. 또한 산지의 경사가 험하지 않아 산지 사이의 골짜기에는 소규모의 하천이 발원해 흐르면서 하천 주변에는 일찍부터 농경지가 조성되었고, 이들 농경지를 기반으로 생활을 하던 주민들의 취락도 많이 형성될 수 있었다.



1970년대 초반 영통구(흰 점선은 지금의 영통구 경계)


2000년대 초반 영통구(흰 점선은 지금의 영통구 경계)

광교산에서 내려오는 물은 원천리천 주변의 농경지에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신대호수와 원천호수에 저장되었다. 신대호수의 별칭으로는 윗여수내, 윗방죽, 신대저수지 등이 있고, 원천호수의 별칭에는 아랫여수내, 아랫방죽, 원천저수지 등이 있린다. 신대호수와 원천호수는 본래 신대저수지와 원천저수지로 불렸으며, 방죽은 1929년에 축조되었다. 특히 원천저수지는 1977년 국민관광지로 지정되어 원천유원지로 더 잘 알려지게 되었으며, 2012년 광교호수공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광교호수공원은 자연과 수변공간이 어우러진 국내 최대의 도심 속 호수공원으로, 면적은 202만 5,148㎡이다.[6]

SU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



청명산 자락에 위치한 영통신도시(2023년, 김승일 제공)



광교산 자락에 위치한 광교신도시(2020년, 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호수로 유입되는 물이 흐르는 골짜기에 형성된 자연마을은 지형적 특징을 반영해 '○○골' 또는 '○○실'의 이름을 가졌으며, 이들 명칭은 한자화해서 '○○곡(谷)'으로 변형되었다.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광교산이나 청량산 일대의 자연마을은 많이 사라졌다. 과거에 존재했던 자연마을의 이름을 열거해 보면, 광교산 동남사면으로 '성죽골', '쇠죽골', '시룽골', '산의실', '혜령곡', '덕곡' 등을 꼽을 수 있고, 청량산 서사면으로는 '황곡', '뒷골', '말통골', '느티나무골', '신나무실', '살구골' 등이 있다. 지금은 도시개발에 의해 산의 옛 모습이 사라지고 자연마을도 대부분 자취를 감추면서, 위에 열거한 이름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지만, 일부는 신축된 아파트의 이름으로 보존되고 있다.[7] 우리는 지명을 통해 여러 가지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지명은 그 장소의 역사성을 반영해 주기도 하며, 그 장소를 점유하고 살았던 선조들의 생활상을 보여 주기도 한다. 또한 지명은 땅의 모양 · 지형지물 · 위치관계 등을 내포하고, 옛날에 사용된 언어(말)를 알 수 있게 해 준다. 따라서 지명은 한 지역의 지역성 및 역사성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해 주는 중요한 지표이므로, 과거의 지명은 보존될 필요가 있다. 현재 영통구에서 사용되고 있는 도로명이나 교차로 이름에 과거의 지명이 투영된 사례를 쉽게 볼 수 있는 것도 지명이 그 장소의 특징과 역사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2) 서쪽과 남쪽에 펼쳐진 평지와 하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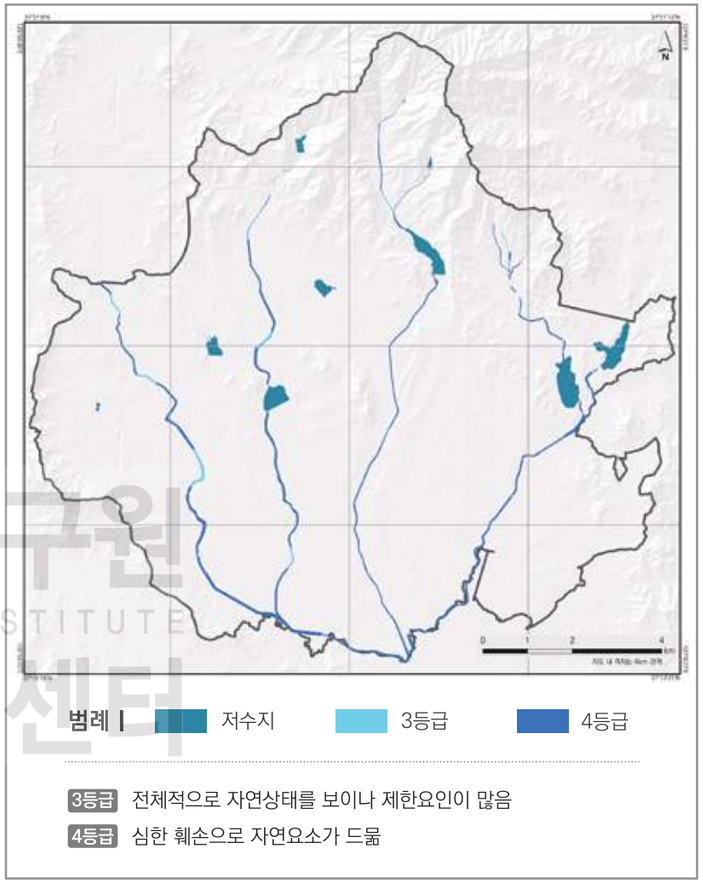
영통구는 전체적으로 동북쪽이 해발고도가 높은 데 반해, 서남쪽은 산지가 거의 없는 평지로 이루어져 있다. 영통구를 대표하는 원천리천이 서남쪽으로 흐르면서 하천 주변으로는 넓은 농경지가 형성되었다. 원천리천은 하동과 이의동에 있는 신대호수 및 원천호수에서 흘러내리는 물과 광교산의 골짜기에서 흐르는 물이 매탄동에서 합류한 후 청명산의 서사면에서 발원한 여러 지류를 받아들이며 남류하는 하천이다. 원천리천은 권선구 곡선동과 화성시 반정동의 경계를 이루면서 남류해 곡선동 수원비행장 남단에서 황구지천에 합류한다. 원천리천은 신동과 망포동 일대에서 권선구와 경계를 형성하기도 한다.

원천리천 주변의 해발고도는 북쪽의 매탄동에서 35m 내외이고, 남쪽의 망포동에서는 25m 내외로 낮아진다. 원천리천의 유로는 10.0㎞에 유역면적은 36.7㎢이며, 본류에 여러 하천이 모여드는 수지상(樹枝狀)의 형상을 하고 있다. 또한 하천 유역의 경사는 20% 이하가 전체 유역의 84.5%에 달할 정도로 비교적 평탄한 지형을 이룬다.[8] 하천의 상류부는 신대호수에서 시작해 좁은 유로를 형성하지만, 하류부에서는 하천 주변에 농경지 · 공업단지 · 주거지 등이 조성되어 있다.

1970년대까지 원천리천은 잦은 범람으로 주변 농경지의 농작물에 많은 피해를 유발하였다. 하천범람과 같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965년부터 원천리천의 제방축조공사가 시작되었으며, 1975년에 곡선제 · 매탄제 등의 제방이 축조되면서 하천개수 작업이 진행되었다. 그 결과 농경지 사이를 구불구불 흐르던 원천리천은 지금과 같이 직선하천의 형태로 변경되었다. 원천리천은 오래전부터 영통구 일대에 생활용수와 농업용수를 공급했지만, 지금은 영통구 내에 농경지가 존재하지 않아 농업용수로는 활용되지 않으며, 공업용수로도 활용되지 않는다.[9]

원천리천은 주변에 아파트 및 공장 등이 있는 관계로 주변으로부터 생활하수가 유입되기도 하고 오염이 심해 악취를 풍기며 한때는 수질이 아주 불량한 하천으로 인식되기도 했다.[10] 그러나 원천리천은 1990년대 중반부터 기업 및 환경단체가 원천리천 살리기 운동을 전개하고,[11] 망포동과 신동의 경계부에 자리한 곡반정교에서부터 황구지천에 합류하는 3.34㎞ 구간에 대해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정비사업이 2021년에 마무리되면서 수질이 개선되었다. 신동과 망포동에는 각각 신동 수변공원과 원천리천 수변공원이 조성되어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이용된다. 원천리천에는 강아지풀 · 개망초 · 민들레 등의 식물, 붕어 · 메기 · 동사리 등의 어류, 장구애비 · 물달팽이 등의 곤충이 서식하고 있다. 특히 신동 수변공원은 수원시를 대표하는 여름 명소 19선에 선정되었을 정도로 하천의 수질이 좋아졌다.[12]

하천 주변의 평지는 과거에 대부분 농경지로 활용되었다. 영통구의 농경지는 대체로 경기편마암 및 대보화강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편마암은 침식에 강하지만, 화강암은 풍화와 침식에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어서, 일찍이 원천리천 주변의 농경지는 침식평야의 형태로 형성되었다. 현재 시가지가 들어선 곳이나 삼성전자가 들어선 곳도 과거에는 모두 농경지이었다.



수원시 하천자연도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신대호수에서 흘러내리는 원천리천 상류부



광교호수공원(2021년, 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원천리천의 주변에 넓은 농경지가 발달함에 따라 농경지 한가운데에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취락이 형성되었는데, 그 마을은 벌터(坪村)라는 이름을 가졌다. 넓은 벌판에 있는 마을이라는 의미의 벌터는 농사를 짓기 좋은 평평한 땅이라는 의미에서 일제강점기에 생겨난 이름이다. 일제강점기에는 신동뿐만 아니라 원천리천 서쪽의 매탄동에 자리한 농경지까지가 벌터의 범위에 포함되기도 했다. 원천리천의 동쪽배후지에 자리한 신동도 2010년까지만 해도 대부분 지역이 농경지였지만, 도시개발이 진행되면서 과거의 농경지가 지금과 같은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으로 탈바꿈하였다.

4. 농촌에서 도시로 탈바꿈한 영통구

1) 택지개발과 신도시 건설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까지 빠른 속도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수도 서울로의 인구집중이 심화하였다. 이로 인해 서울은 거대도시로 발전하는 모양을 취했지만, 그 이면에는 인구집중에 따른 주택문제를 비롯해 여러 가지 도시문제가 자리하였다. 서울의 인구 및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 주변부에 신도시가 건설됨으로써, 서울에 거주하던 인구가 서울 주변의 경기도로 분산된 탈도시 현상은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되었다. 비슷한 시기에, 경기도의 중심도시인 수원시는 인구와 산업의 집중으로 도시 수용력이 포화상태에 달하면서 신시가지를 개발하고 중추기능을 분산하는 시책을 추진하였



1969년 경부고속도로 수원IC 부근

다. 수원시의 시가지 확장 계획과 서울에서 벗어난 인구의 경기도 이전이 맞물리면서 신규 택지개발이 진행된 수원의 도시 규모는 빠르게 확대되었다.

수원시에서는 1967년 새로운 도시계획을 수립했지만, 서울에 있던 경기도청의 수원 이전(1967년 6월), 서울-신갈 간 경부고속도로 개통(1968년 12월), 제조업체 증가 등이 수반하면서 기존에 수립했던 도시계획구역의 확장 및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수원의 도시공간은 1980년대 수원역에서 팔달문에 이르는 지역이 중심지 역할을 하는 단핵구조로 이루어져 있었지만, 1990년대 들어 수원역 동쪽의 권선동과 매탄동 일대를 중심으로 형성된 신시가지가 또 하나의 핵으로 기능하는 다핵구조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수원의 시가지 개발 방향이 서쪽에서 동쪽을 향해 진행되었음을 의미한다.



매탄지구 개발계획평면도(수원시청 제공)



매탄1~2지구 택지개발 대상지(수원시청 제공)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매탄1동 일대 전경(김승일 제공)



매탄4동 일대 전경(김승일 제공)

〈표 2〉 수원시 영통구 택지개발사업지구(1981~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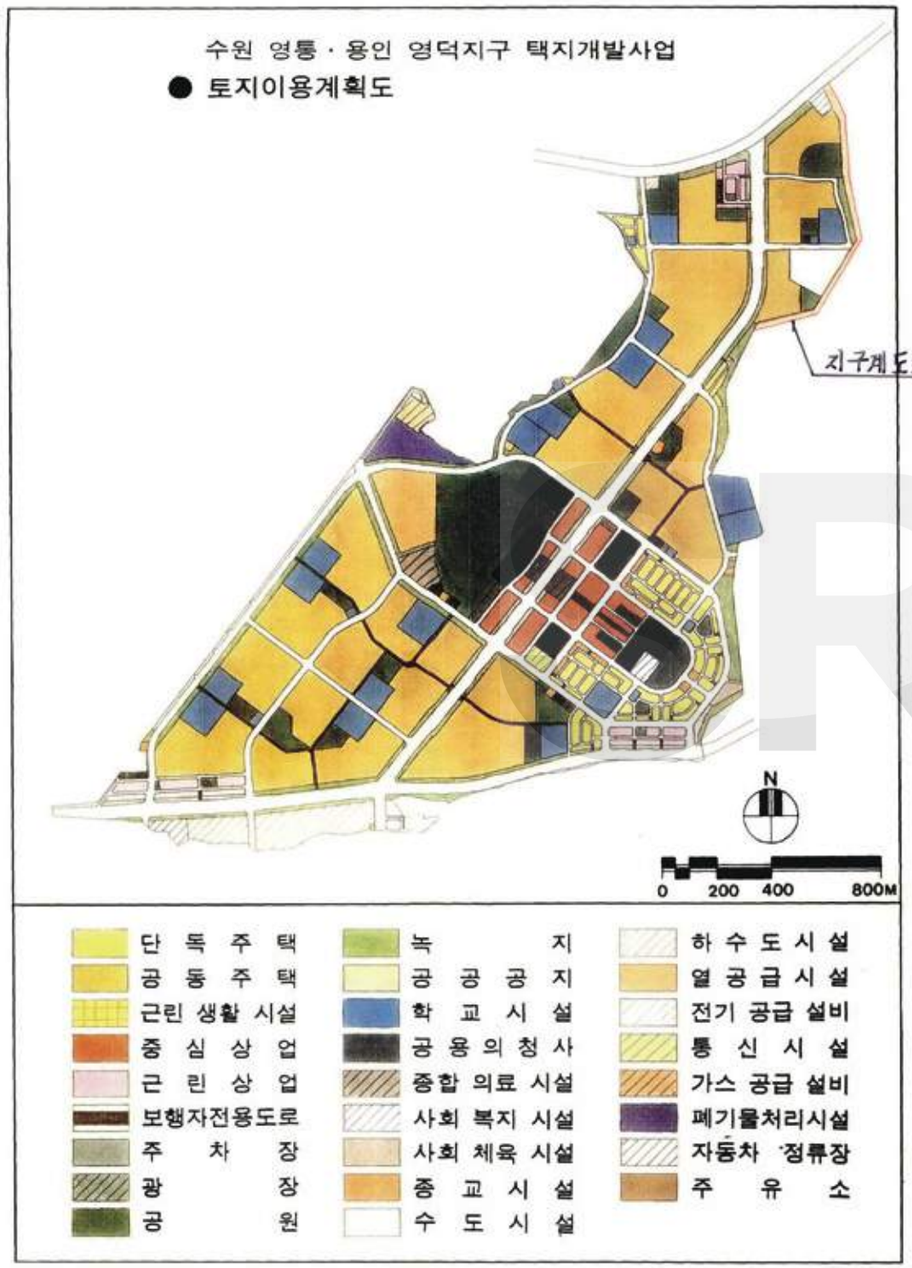
지구명	위치	면적(㎡)	지정연도	시행기간
매탄지구	매탄동 일원	212,421	1981	1984~1988
매탄1지구	인계동, 매탄동 일원	949,000	-	1984~1989
매탄2지구	원천동, 매탄동 일원	767,000	-	1984~1989
원천지구	원천동	420,000	1989	1990~1992
영통영덕지구	영통동, 매탄동, 원천동, 망포동	3,286,775	1988	1992~1997
매탄3지구	매탄동	650,000	-	1994~1997
기흥영덕지구	용인군 기흥읍 영덕리	116,439	1988	1989~1998
원천2지구	원천동, 매탄동	171,573	1994	1996~1998
매탄4지구	매탄동, 신동	656,658	1994	1996~2001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수원시는 1969년 6월 재정비계획(건설부고시 제336호)을 수립하면서 당시 화성군 태안면에 편제되었던 영통리(지금의 영통동)를 수원시 도시계획구역에 포함시켰다.[13] 그리고 수원 영통지구와 용인 영덕지구에 대한 택지개발사업은 1993년 12월 28일 공식 고시(경기도고시 제1993-478호)되었다.

수원 영통지구와 용인 영덕지구는 1989년 10월 당시의 행정구역 기준으로 수원시 권선구 매탄동 일대, 화성군 태안읍 영통리와 신리 일대, 용인군 기흥읍 영덕리 일대를 대상으로 최초 지정되었다. 개발 예정지 면적은 모두 319만 4,000㎡에 달했으며, 1989년 10월 14일 지정(건설부고시 제588호)된 영덕지구가 62만 7,000㎡, 같은 해 10월 27일 지정(건설부고시 제621호)된 영통지구가 256만 7,000㎡이었다. 개발예정지구의 면적은 1992년 12월 28일에 328만 4,972㎡로 변경되었으며, 주거지역은 공동주택(109만 4,912㎡)과 단독주택(11만 3,349㎡)을 합쳐 120만 8,261㎡의 부지에 2만 7,030호를 건설해 인구 10만 명을 수용하도록 계획되었다.[14] 구릉지와 평지를 함께 보유하고 있던 영통지구는 택지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이전까지 수원의 동쪽에서 도시화 수준이 낮은 농촌적 성격이 강했던 지역이었으므로 개발 가능한 부지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 수원의 시가지 확장을 위한 최적의 장소였을 것이다.

1980년에서 1990년 사이 수원시에서는 인구가 31만 757명에서 64만 4,968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고 세대당 평균인구는 5.6명에서 3.8명으로 감소하면서 주택수요가 크게 늘었지만, 이 기간에 실질적인 주택보급률은



영통지구택지개발사업 토지이용계획도(수원시청 제공)

56.4%에서 57.8%로 상승하는 데 그쳤다. 이러한 상황에서 1990년대 초반 영통지구를 중심으로 주택 2만 7,000여 호를 건설하는 계획은 수원의 주택 부족 문제 해결에 일조하였다. 영통지구개발사업은 수원의 도시화 구역을 수평적으로 확장시킴으로써 도시중심부의 과밀화를 해소하면서 동서 간 균형 잡힌 도시공간으로의 발전을 이끄는 계기가 되었다.

영통동으로 대표되는 영통지구개발사업에서 인접한 망포동은 계획구역에 거의 포함되지 않았다. 망포동은 덕영대로의 북쪽에서 영통2동의 관할하에 있는 일부 구역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시가지는 200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개발되었다. 망포동이 수원시에 편입된 시기는 1995년 4월이지만, 수원시의 도시계획에 망포동이 포함된 시기는 1999년 3월 31일 기존의 도시계획 구역을 조정한 이후이다. 망포동은 수원의 도시계획구역에 포함된 이후 용도지역이 준농림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으며, 도시기반시설의 조성 예정지로 지정되었다. 이에 따라 1990년대 중반 이후 택지조성사업이 시작되었고 2000년 7월 처음으로 공동주택에 주민 입주가 시작되었으며, 2001년부터 2004년에 이르기까지 5개 부지의 공동주택에 입주가 본격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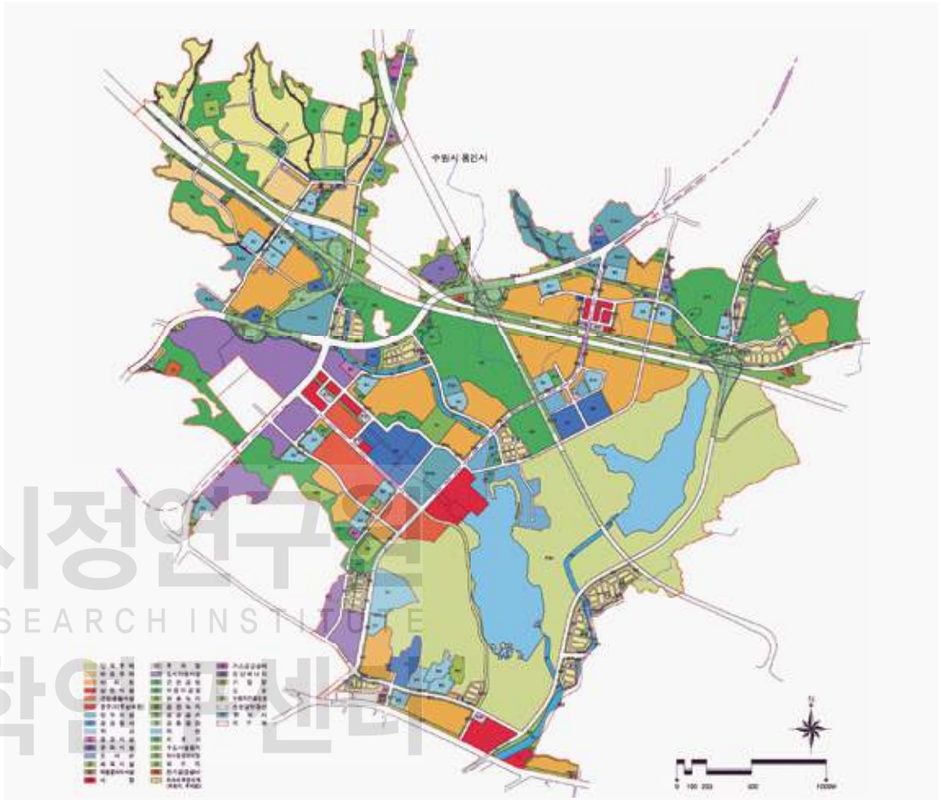
망포동에서의 도시개발은 2000년대 중반 이후에도 꾸준히 진행되었으며, 2010년 이후에는 지구단위 개발이 본격화되었다. 지구단위계획은 특정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시기반시설의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구역 내의 도시기능을 충족시키도록 한다. 망포동은 망포1지구에서부터 망포6지구에 이르기까지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추진되었다. 영통지구에 접한 망포동의 일부 구역은 영통지구에 조성된 도시기반시설을 공유하면서 '신영통'으로 불리기도 했다. 신영통이라는 명칭은 행정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일부 건설업체에서 주택 분양을 위한 홍보용 문구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연유로 망포동 전역에는 영통이라는 이름이 포함된 아파트 단지가 많아졌으며, 망포동의 남쪽에 자리한 화성시 반월동에도 '신영통'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영통지구의 공간 범위는 수원시 경계를 넘어선 지역으로까지 확대된 듯하다.

현대사회의 신도시(new town)는 1898년 런던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런던 북부에 계획적으로 건설된 전원도시(garden city)에서 연원을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신도시는 대체로 중앙정부의 주도하에 계획적으로 건설되었지만, 영통구에 건설된 광교신도시는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의 주도하에 만들어진 첫 번째 사례이다. 광교신도시가 지방정부 주도하에 건설된 이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광교신도시 개발계획 승인(2005년 12월 30일, 경기도시공사 제공)



광교신도시 개발계획 실시계획 17차 변경 토지이용계획도(2015년 11월 11일, 경기도시공사 제공)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유는 토지개발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던 수원시와 경기도가 합의를 통해 접점을 찾는 과정에서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에 의해 계획이 수립되고 개발되었기 때문이다. 본래 수원시는 2000년부터 이의동 일대에 수원컨벤션센터를 건립하고 국제회의장 · 호텔 · 전시장 · 쇼핑몰 · 공동주택 등을 건설하는 계획을 추진했고, 경기도 역시 이의동 일대에 도청사를 건립해 이전하고 행정타운을 조성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수원시와 경기도는 같은 장소를 대상으로 수립했던 서로 다른 개발계획에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이의동 일대의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렇게 해서 광교신도시는 일반적인 신도시가 주거중심의 침상도시적 성격이 강한 것과 달리, 수원시내에 산재하는 정부기관 및 행정기능을 집적시키고 주거기능은 물론 수변공간 등이 어우러진 친환경 비즈니스파크로 개발되었다.[15)]

광교신도시는 2004년 6월 30일 택지개발예정지구(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156호)로 지정되어 2007년 10월 30일 착공했으며, 2011년 7월부터 주민들의 입주가 시작되었다. 광교신도시의 계획지구는 영통구 매탄동 · 원천동 · 이의동 · 하동을 비롯해, 우만동(팔달구)과 연무동(장안구) 일부 지역, 그리고 용인시 수지구와 기흥구의 일부 지역이 포함된 1,130만 4,494㎡의 부지로 구성되었다. 광교신도시에 계획된 주택은 3만 1,113호이고 수용

인구는 7만 7,783명이었다. 신도시 개발의 목적은 단순한 주택용지의 확보가 아니라 광역행정 및 첨단산업 입지를 통한 행정복합도시 및 자족형 신도시 건설, 새로운 주거단지 조성을 통한 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 향상, 그리고 친환경적 도시공간의 조성을 통해 시가지 연담현상이 발생한 수원시와 용인시의 지역 발전 도모 등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광교신도시가 총개발면적에서는 영통지구를 앞지르지만, 계획된 수용인구의 규모는 영통지구에 미치지 못한다. 한편 영통구에 속하는 광교신도시는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에 따르면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므로, 대기업의 입지는 불가능하고 중소형의 제조업 입지는 가능하다.

광교신도시가 개발되기 이전, 수원시와 용인시의 행정경계 일대는 비도시적 공간이 배치되어 시가지의 완충공간이 존재했었다. 그러나 광교신도시가 수원시와 용인시에 걸쳐 조성됨으로써, 두 도시는 시가지가 연속적으로 자리하는 도시연담 현상을 보이게 되었다. 도시연담은 시가지의 수평적 확장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도시 경계의 불명확성에 따른 단점을 노출하지만, 다른 한편 인접한 두 도시의 공생 및 협력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지역개발의 성과를 상승시킬 수 있는 장점도 가진다.

이상에서 언급된 일련의 도시개발은 영통구가 보유한 자연적 요건과 인문적 요건을 적절히 조화시킴으로써 가능하였다. 영통구는 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비도시적 성격이 강한 지역이었기에 개발가능지를 확보하기에 유리했으며, 광교산을 비롯한 도시생태계의 활용을 통해 친환경 녹색도시를 건설한다는 그린플랜(green plan)을 완성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였다. 우리나라의 신도시가 주거기능의 충족에 주안점을 두면서 자족기능이 약한 신도시로 발전해 온 평가를 받는 것과 달리, 영통구에 건설된 신시가지는 주거기능 외에 경제활동의 입지를 수반함으로써 도시 전체의 자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었다. 광교신도시 역시 개발 초기에는 도시기반시설 및 자족기능의 미비로 많은 문제점을 노출했지만, 자족형 복합기능을 보유한 시가지로 발전할 수 있게 되었다.

2) 시가화구역으로 재탄생한 영통구

영통지구의 신시가지가 개발되기 이전 지금의 영통구는 삼성전자 공장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 펼쳐진 시가지와 농경지, 그리고 북쪽의 산지로 특징지을 수 있었다. 영통 신시가지가 개발된 후에는 삼성전자 공장 주변의 농경지가 시가화 구역으로 대체됨에 따라, 영통구가 설치되었던 2003년 무렵 영통구

〈표 3〉 영통구의 지목 구성 변화 (단위 : ㎡)

연도	합계	전	답	임야	대지	학교용지	도로	공원	기타
2003년	27,478,479	2,213,915	3,178,978	7,577,834	5,191,755	1,153,701	2,815,351	794,918	4,552,027
2004년	27,474,978	2,160,871	3,142,037	7,522,612	5,247,109	1,157,433	2,847,814	794,918	4,602,184
2005년	27,501,626	2,066,986	3,061,076	7,466,743	5,330,912	1,221,129	2,961,363	793,535	4,599,882
2006년	27,500,144	2,046,967	3,044,368	7,423,237	5,351,645	1,258,503	2,969,878	791,414	4,614,133
2007년	27,500,439	1,983,311	2,926,590	7,379,574	5,371,397	1,258,503	2,931,980	841,433	4,807,652
2008년	27,456,932	1,973,554	2,914,677	7,332,891	5,438,434	1,258,636	2,911,128	843,696	4,783,916
2009년	27,458,206	1,963,902	2,766,657	7,331,005	5,426,270	1,258,450	2,969,467	843,882	4,898,574
2010년	27,458,161	1,871,088	2,721,193	7,236,711	5,509,835	1,304,663	2,977,253	856,191	4,981,226
2011년	27,667,816	1,889,508	2,754,337	7,353,567	5,542,665	1,316,351	2,978,865	856,191	4,976,332
2012년	27,671,589	1,004,983	1,601,639	4,708,193	7,498,442	1,464,335	3,590,612	3,009,084	4,794,301
2013년	27,673,146	838,817	1,320,382	4,091,002	7,739,366	1,491,215	3,891,720	3,462,727	4,837,917
2014년	27,677,502	809,325	1,300,790	4,054,710	7,844,409	1,492,589	3,899,323	3,470,148	4,806,208
2015년	27,677,136	769,531	1,161,393	4,049,722	7,971,090	1,496,927	3,945,497	3,503,892	4,779,084
2016년	27,680,407	740,078	1,157,877	4,045,330	8,021,433	1,496,927	3,948,071	3,506,606	4,764,085
2017년	27,678,981	709,282	995,630	4,033,128	8,190,141	1,496,927	4,021,379	3,508,282	4,724,212
2018년	27,677,700	623,736	938,624	3,728,841	8,213,357	1,518,703	4,082,640	3,755,888	4,815,911
2019년	27,723,421	583,656	724,076	3,726,043	8,383,783	1,569,309	4,146,363	3,804,759	4,785,432
2020년	27,710,902	572,666	652,694	3,723,999	8,413,421	1,569,309	4,170,019	3,822,425	4,786,369
2021년	27,711,525	566,324	625,875	3,698,318	8,488,726	1,569,309	4,164,685	3,825,285	4,773,002

자료 : 수원시, 『수원통계연보』(해당연도)

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경관은 크게 산지와 시가지로 양분되었다. 광교산과 청명산으로 둘러싸인 영통구는 시가지 곳곳에 해발고도가 높지 않은 구릉성 산지가 산재하고 산사면과 평지에 자리한 농경지가 시가지와 잘 어우러진 곳이었으며, 이러한 모습은 2011년까지 큰 변화 없이 유지되었다. 당시 망포동 일대에는 논이 그대로 있었지만, 비중은 크지 않았다.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광교신도시 개발 관련 사업이 진행되면서, 영통구에서는 지목(地目)의 변경을 통해 토지이용에서 큰 변화가 생겨났다. 영통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영통 시가지(2023년, 김승일 제공)

구에 있는 토지의 목적을 보여 주는 지목의 변화는 2012년을 지나면서 가장 두드러졌다. 영통구를 구성하는 7개의 법정동이 본래부터 수원에 속해 있지 않고 도시화의 진행 과정에서 여러 차례에 걸친 행정구역 변동 및 행정경계 조정을 통해 수원에 편입된 관계로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영통구의 지목 구성 변화를 비교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영통구 설치 이후의 시기를 대상으로 전체적인 지목 구성 변화를 개괄해 보았다.

2003년은 이미 영통 신시가지 조성사업이 마무리된 시점이고, 1980년대부터 도시개발이 진행된 매탄동에서도 도시화가 거의 종착단계에 진입한 때이다. 따라서 2000년대 초반은 매탄동과 영통동의 도시화가 거의 마무리되었고, 원천동과 망포동에서 도시개발이 시작되는 초창기이다. 2003년 망포동은 전체 면적의 59.5%가 전(田)과 답(畓)으로 구성되었으며, 이의동은 전체의 57.3%가 임야로 구성되어 있었다. 전 · 답 · 임야를 합한 면적이 이의동에서는 전체 면적의 81.6%, 하동에서는 61.0%를 차지했을 정도로 영통구의 주변부에 자리한 이의동 · 하동 · 망포동은 2000년대 초반만 해도 도시적 성격이 상당히 약한 지역이었다. 매탄동과 영통동에서는 전 · 답 · 임야를 합한 면적의 비중이 각각 7.5%와 13.9%에 지나지 않았다.

2009년부터 본격화한 광교신도시 개발공사로 2011년에서 2012년 사이 전 · 답 · 임야의 면적이 대폭 감소한 반면, 대지 · 도로 · 공원의 면적이 크게 증가하였다. 영통구를 구성하는 모든 법정동에서 토지이용의 변화가 있었지만,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광교신도시 개발이 이루어진 이의동과 하동에서 찾을 수 있다. 2011~2012년 영통구에서는 비도시적 성격을 보이는 지목 가운데 대표적인 전 · 답 · 임야가 모두 468만 2,597㎡만큼 감소했고, 도시적 성격을 반영하는 대지 · 학교 · 도로 · 공원의 면적이 486만 8,580㎡만큼 증가하였다. 또한 2013년에도 기존 지목에서 농촌적 성격의 토지가 감소했고, 대지 · 도로 · 공원 등의 비중이 증가하였다. 즉 기존에 논과 밭으로 이용되었던 농경지와 임야 대부분이 시가화 구역으로 탈바꿈한 셈이다. 이 시기의 지목 변경은 주로 이의동 · 하동 · 원천동에서 발생하였다. 택지개발을 통해 주거단지 중심의 시가지로 구성된 망포동과 영통동은 대지의 비중이 가장 크고, 신도시로 개발된 이의동과 하동은 대지 및 공원의 면적이 상대적으로 넓다. 매탄동은 대지와 공장용지의 면적이 지배적이다. 영통동은 신시가지의 조성과 더불어 고밀도 주거지역이 되었으며 주거기능을 지원할 수 있는 연관 상업시설이 함께 집적하면서 상업지역의 발달도 두드러졌다.[16]

광교신도시에서는 종합계획에 의해 개발됨에 따라 지목 변경이 짧은 기간에



광교신도시 공사 현장(2010년, 경기도시공사 제공)



광교신도시 공사 현장(2013년, 경기도시공사 제공)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광교신도시(2016년, 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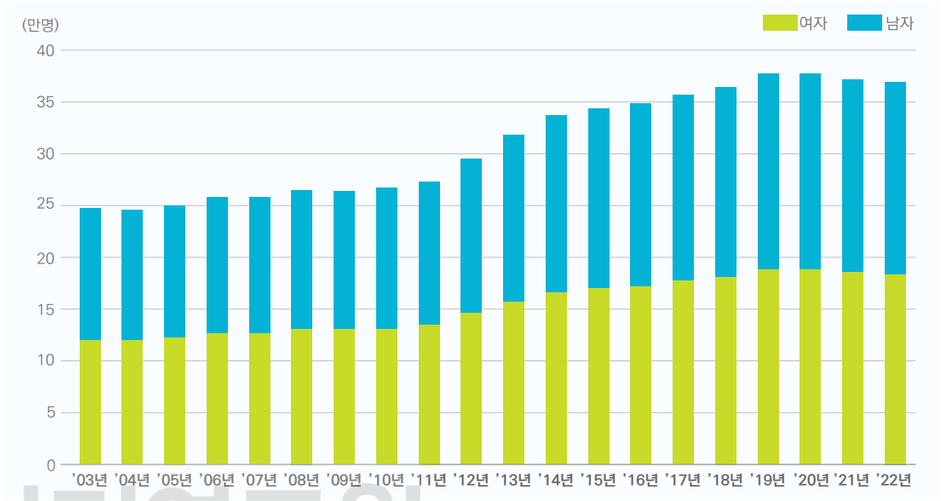
이루어졌지만, 택지개발의 형태로 개발된 망포동에서는 오랜 기간에 걸쳐 순차적으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망포동에 본격적인 공동주택 입주가 시작된 2000년에 망포동의 주거단지는 농경지 사이에 섬처럼 고립된 모습으로 조성되었지만, 이듬해부터 기존 영통시가지와 연담하는 시가화 구역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2015년 동탄지성로의 동쪽에서 택지조성사업이 시작했고 2017년 이후에는 동탄지성로의 서쪽에서도 택지개발이 본격화하였다. 이에 따라 2015년 이후 영통구에서는 농경지의 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게 되었다. 2023년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망포동의 지목은 아직까지 전과 답으로 분류되어 있고 광교신도시가 자리한 이의동에도 지목상 전이나 답으로 남아 있는 곳이 있다. 임야는 광교산 자락에 자리한 이의동을 비롯해 청명산을 끼고 있는 영통동에 많다. 원천호수의 서쪽에서 사색공원이 자리한 원천동도 임야의 면적이 넓은 편이다.

영통구에는 구 전체 면적의 9.5%에 달하는 262만 5,491㎡의 공업지역이 매탄동과 원천동을 중심으로 지정되어 있다. 영통구는 1980년대 이후에 본격적으로 도시화가 진행되었지만, 그 이전부터 제조업이 매탄동에 자리하고 있었다. 제조업체가 입지해 있는 상태에서 그 주변지역의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영통구는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이 공존하거나 혼재하는 공간으로 변모하였다. 즉 주거기능과 공업기능이 혼재하는 상황을 일시적으로 해결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점진적인 공업지역의 재배치를 시도하거나 공업지역내의 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다.[17]

5. 영통구의 주민과 경제활동

1) 감소 추세로 전환된 인구 규모

영통구가 설치된 2003년 구 전체의 인구는 24만 6,730명(남자 12만 4,827명, 여자 12만 1,903명)이었다. 매년 점진적으로 증가하던 인구 규모는 광교신도시 개발사업에 따라 2011년에서 2015년 사이에 크게 증가했고, 2017년에서 2019년 사이에도 인구증가가 두드러졌다. 그러나 영통구의 인구는 2019년 37만 6,091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2022년까지 감소 경향으로 돌아섰다. 내국인과 외국인을 포함한 영통구의 총인구가 수원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23.7%에서 2022년 30.0%로 증가하였다.



영통구 인구 규모 변화(수원시, 「수원통계연보」(해당연도); 국가통계포털, 2022)

2003년을 기준 시점으로 삼고 최근을 비교시점으로 삼아 영통구 전체의 인구 규모 변화를 시기별로 비교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지만, 행정동별 인구 변화를 비교하는 것은 행정동의 분동 및 신설 등으로 인해 쉽지 않다. 매탄1~4동과 원천동은 2003년 이후 행정구역의 변화가 없었기에 비교가 가능하다. 매탄1~4동에서는 매탄3동을 제외한 나머지 행정동에서 2003년에 비해 인구가 감소하였다. 매탄1 · 2 · 4동은 대부분 1980년대 중반 이후 2000년대 초반까지 주거단지가 조성되면서 인구가 증가했지만 2010년대 들어서면서 감소 경향으로 돌아섰다. 반면 매탄3동의 인구는 2008년에 3,000세대가 넘는 대단위 아파트가 건설된 영향으로 2010년대 중반까지 늘어났지만, 2018년 이후 감소추세로 전환되었다. 2022년과 2003년의 내국인 인구를 비교하면 매탄3동에서는 4,254명이 증가했지만, 매탄동에 설치된 나머지 3개의 행정동은 노후주거단지가 밀집분포하고 주거여건이 열악해짐에 따라 모두 1만 2,282명이 감소하였다. 특히 건축시기가 30년 이상 된 아파트와 2~3층 규모의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매탄4동에서 7,266명이 감소하였다.

원천동은 국도 42호선인 중부대로 북쪽의 미개발지가 광교신도시에 포함되면서 1980년대에 개발된 기성시가지와 광교신도시의 구역으로 개발된 신시가지가 공존하는 지역이다. 신도시 개발에 따라 원천동에서는 2014년 이후 인구증가 현상이 두드러져, 인구는 2003년 1만 8,810명에서 2022년 4만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422명으로 증가하였다. 2003년 당시 대부분 농경지로 이루어져 상주인구의 규모가 크지 않았던 이의동은 광교신도시 개발 이후 광교1동과 광교2동으로 분동되었으며, 인구는 2003년 3,152명에 불과했던 것이 2022년 광교1동 5만 2,841명, 광교2동 2만 9,113명으로 급증하였다. 광교2동은 원천호수와 신대호수를 비롯한 녹지공간을 많이 포함하므로 상주인구의 규모가 크지 않다.

영통동은 2003년 영통1동과 영통2동으로 편제되었지만, 2017년 행정동 간 경계조정을 통해 영통3동이 신설되었다. 행정동별 인구 규모의 변화를 추적하기 쉽지 않아 영통 신시가지를 구성하는 법정동 영통동을 단위로 알아보면, 2003년 영통동 전체의 인구는 9만 8,131명이었다가 2022년 9만 2,114명으로 감소하였다. 망포동 역시 기존 태장동이 분동해 2개의 행정동이 설치되었기에 법정동 단위에서 인구 규모의 변화를 살펴보면, 2003년 3만 2,102명에서 2022년 6만 1,792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영통구의 인구 분포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은 시가지 발달의 역사가 오래된 기성시가지인 매탄동에서 인구 감소 현상이 뚜렷해졌고 시가지 형성의 시기가 20년이 지난 영통신시가지에서도 점진적인 인구 감소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 2000년 이후에 조성된 신시가지에서는 인구 증가 경향이 뚜렷해졌다. 신규로 개발된 광교신도시 및 망포택지개발지구는 기존의 비도시적 성격이 강했던 지역을 주거기능이 강화된 시가지로 개발하면서 주변지역으로부터 인구를 흡인하는 장소가 되었다. 요컨대 영통구 내에서 시가지의 형성 시기에 따른 차별적 지역성장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인구 규모의 변화는 전입과 전출, 그리고 출생과 사망에 의해 결정된다. 영통구는 2019년에 이르기까지 전입인구가 전출인구보다 많은 전입초과지역이었으며, 2019년에는 순전입인구가 9,294명에 달했을 정도로 인구 규모가 커졌다. 그러나 2020년 이후 전출초과지역으로 전환되면서 인구감소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순전출인구가 2020년 1,979명에서 2021년 6,888명으로 증가하면서 인구의 사회적 감소가 진행되었지만,[18] 출생과 사망의 차에 의한 자연적 증가는 2020년 1,521명, 2021년 1,537명에 머물렀다.[19] 인구의 자연증가는 2018년까지 연간 2,000명을 넘으면서 사회적 증가와 더불어 영통구의 인구 성장을 견인했지만, 2020년 이후 영통구의 인구 규모는 자연적 증가의 규모가 사회적 감소의 규모를 추월하지 못함에 따라 감소 단계에 진입하였다.

2) 젊은 연령층이 거주하는 영통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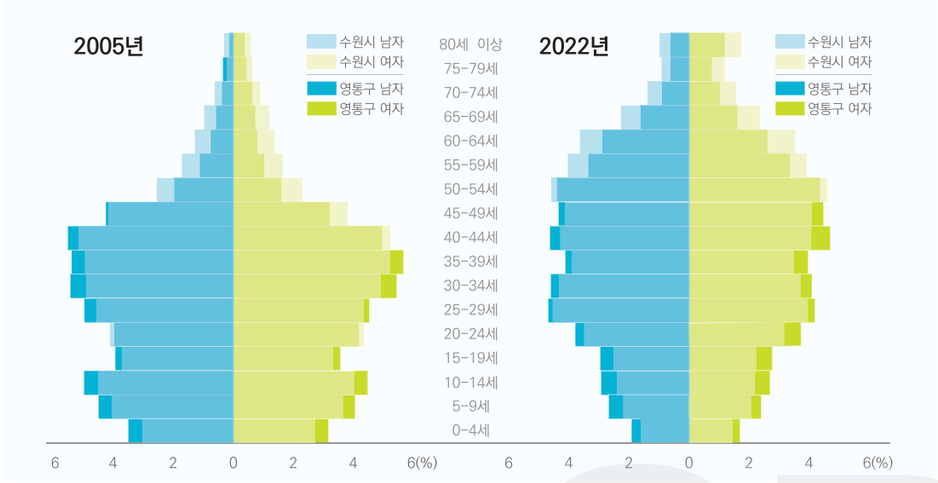
2022년 기준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내국인의 평균연령은 44.0세(남자 42.8세, 여자 45.2세), 수원시에 거주하는 사람의 평균연령은 41.3세(남자 40.4세, 여자 42.2세)를 기록하였다. 영통구는 주민의 평균연령이 38.3세(남자 37.6세, 여자 39.0세)로, 수원시 전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층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다. 영통구 주민의 평균연령은 2005년 29.9세에 불과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평균연령의 상승은 전국적인 현상이다. 2022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의 비율은 영통구가 8.2%인 데 반해 수원시 전체에서는 12.3%를 기록하였다. 영통구가 설치된 2003년, 영통구는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시군구) 가운데 평균연령이 가장 낮은 29.0세를 기록하기도 하였다.[20]

영통구가 비교적 젊은 도시임을 보여 주는 지표는 연령별 인구 구성이다. 연령별 인구 구성과 성별 인구 구성을 동시에 보여 주는 인구피라미드를 살펴보면, 영통구에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구피라미드에서 가로축은 연령층별 인구 비율이고 세로축은 5세 간격의 연령층을 보여 준다. 영통구와 수원시의 인구 구성은 모두 65세 이상 노년층의 비율 증가와 15세 미만 유소년층의 비율 감소로 특징지어진다. 2022년의 인구 구성에서 주요 연령층은 25~54세에 이르는 연령층이지만, 시간을 거슬러 2005년의 인구 구성을 보면 주요 연령층은 10~14세의 어린 연령층과 30~44세의 청년층 및 중년층이었다. 평균연령층의 상승은 지역의 활력을 저하시키는 동시에 생산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도 있지만, 영통구에서는 아직까지 그러한 기미가 나타나지 않는 듯하다. 그럼에도 연령층 상승 현상이 지속될 경우 영통구에서도 지역의 활력이 감퇴하고 생산도시의 이미지가 아닌 소비도시의 이미지로 전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인구피라미드가 삼각형의 형태를 취하면서 연령층이 낮아질수록 인구의 비중이 증가해야 지역 내에서 인구의 자연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영통구는 20세 이하의 연령층에서 연령이 낮아질수록 인구 규모가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향후 인구의 자연감소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인구의 자연감소를 상쇄하고 인구가 증가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으로부터의 전입이 중요한 요소이다.

5년 단위로 나누어 보면 2005년의 평균연령은 영통구가 29.9세 수원시가 32.3세이었다가, 2010년 영통구가 32.2세 수원시가 35.0세로 상승했으며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수원시와 영통구의 인구피라미드 변화(국가통계포털)

2015년에는 영통구가 34.3세 수원시가 37.4세를 기록하였다. 2020년에는 영통구가 37.2세 수원시가 40.2세로, 영통구의 평균연령은 5년 전 수원시 평균연령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하였다. 이는 영통구에 비교적 젊은 연령층이 거주함에 따라, 영통구의 노령화 속도가 수원시 전체와 비교했을 때 5년 정도 느리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시 내에서 전통적인 중심지 역할을 한 기성시가지에 비해 새롭게 개발된 신시가지에 젊은 연령층이 많이 거주하고, 중심부에 비해 주변부에 거주하는 사람의 평균연령이 낮은 것은 익히 잘 알려진 사실이다. 영통구에서 평균연령이 가장 높은 지역은 노후시가지가 많은 매탄동이다. 특히 매탄2동(41.9세), 매탄4동(40.6세), 매탄1동(40.3세)의 평균연령은 40세를 넘어섰다. 반면 가장 최근에 주택건설과 함께 주민입주가 시작된 망포2동의 평균연령이 34.2세로 가장 낮았으며, 영통2동(34.9세), 광교1동(35.1세), 원천동(36.4세), 영통3동(36.8세), 망포1동(36.9세), 영통1동(36.9세) 등지에서도 상대적으로 낮았다.

3) 고차서비스업 중심의 경제활동

2021년 기준, 영통구에 입지한 사업체수는 3만 260개, 사업체의 종사자수는 16만 8,344명이다. 영통구를 대표하는 산업은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제조업(C)이었지만, 지금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이다. 그 이유는 과거 삼성전자와 관련한 연구개발업이 제조업으로 분류되었지만 지금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의 하위 업종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사업체수를 기준으로 하면 도매 및 소매업(G)이 7,943개로 가장 많으며, 그 뒤를 이어 숙박 및 음식점업(I), 전문, 과학 및 전문서비스업(M), 교육서비스업(P), 운수 및 창고업(H)의 순이다.[21] 그러나 종사자수를 기준으로 하면, 전문, 과학 및 전문서비스업 종사자가 5만 579명으로 가장 많고, 도매 및 소매업,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이 그 뒤를 따른다.

〈표 4〉 영통구의 사업체 입지

업종(산업대분류)	사업체(개소)	종사자(명)
A. 농업, 임업 및 어업	8	20
B. 광업	-	-
C. 제조업	1,631	15,939
D. 전기,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25	397
E.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22	225
F. 건설업	1,068	6,520
G. 도매 및 소매업	7,943	19,553
H. 운수 및 창고업	2,014	3,932
I. 숙박 및 음식점업	4,416	14,269
J. 정보통신업	1,308	4,687
K. 금융 및 보험업	186	1,383
L. 부동산업	1,960	5,144
M.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2,435	50,579
N.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753	6,596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40	4,870
P. 교육서비스업	2,252	13,409
Q.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988	13,403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840	2,275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2,371	5,143

자료 : 수원시, 『수원통계연보』 2022.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영통구 매탄동에 위치한 삼성전자 본사(김승일 제공)



광교테크노밸리 일대(2016년, 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제조업은 전자부품 제조업이 가장 월등하게 발달해 있으며, 의료 및 정밀기기, 전기장비 제조업체도 많다. 제조업체가 많이 입지한 지역은 매탄3동, 영통2동, 광교1동, 원천동 등지로, 매탄3동은 삼성전자를 기반으로 전자부품 제조업이 탁월하게 발달해 있다. 건설업(F)은 전문직별 공사업을 중심으로 원천동과 광교1동에 많은 업체가 입지해 있다. 영통구에서 사업체 종사자수가 두 번째로 많은 도매 및 소매업은 자동차를 제외한 물품을 취급하는 소매업이 주요 구성 요소로, 광교1동, 영통2동, 영통3동, 광교2동, 원천동에 많은 반면, 망포1동과 망포2동, 매탄1동에는 많지 않다. 숙박 및 음식점업은 대부분 음식점으로 구성되며, 광교1동, 영통3동, 매탄3동 등지에 많다. 영통구를 대표하는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의 80%는 연구개발업으로 구성되며, 연구개발업 종사자(4만 171명)의 87.5%에 달하는 3만 5,174명이 매탄3동에 있다. 영통구에는 경기대학교, 아주대학교,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등의 고등교육기관을 비롯해, 초등교육기관 및 중등교육기관도 많이 입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통구는 교육서비스업 종사자수의 규모도 큰 지역이다.

5. 자족기능을 구비한 친환경도시 영통구

영통구는 자연적인 시가지의 확장에 의해 도시화가 진행된 지역이라기보다 수원시 및 서울대도시권의 성장과정에서 나타난 인구 및 주택문제를 해결하고 수원시의 균형잡힌 도시성장을 추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계획시가지의 성격이 강하다. 농촌적 경관을 유지하던 영통구는 1969년 설립된 매탄3동의 삼성전자 공장에 의해 초기의 개발이 시작되었고, 1980년대 들어 삼성전자 공장의 확장, 수원시의 도시 팽창 과정에서 동수원 개발을 위한 시가지 조성을 거치면서 도시적 성격과 농촌적 성격이 공존하는 지역으로 변화하였다.

1990년대 들어 영통구는 더욱 빠르게 변화하였다. 농경지는 대부분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반듯한 도로와 시가지가 들어섰으며, 자연경관을 유지하던 산지도 점진적으로 시가화 구역으로 탈바꿈하였다. 영통구의 시가지는 영통지구택지개발, 광교신도시 개발과 같은 대형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계획적으로 조성된 신시가지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새롭게 개발된 시가지는 주거기능만을 강조한 공간이 아니라 주거와 경제활동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공간으로 탄생했으며, 현대사회에서 강조되는 주거 어메니티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조성되었다는 점에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장소로 변화하였다. 여기에 영통구와 주변지역을 연결하는 교통망의 발달이 더해지면서 수원 이외의 도시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이주해 왔으며, 이를 배경으로 영통구는 도시개발 초기부터 자족기능을 갖춘 명품도시로 각인되었다.

시가지의 수평적 확장이 지속됨에 따라, 영통구에 접한 화성시와 용인시의 경계부에서도 도시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대표적인 곳은 망포동에 접한 화성시 반월동과 용인시 서천동 및 영덕동이라 할 수 있다. 이들 지역은 행정구역은 수원시에 속하지 않지만, 주민들은 영통구에 기반한 생활권을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친환경도시 광교(경기도시공사 제공)

형성하고 있다. 또한 광교신도시 역시 영통구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용인시까지 전개되어 있다. 이처럼 타 도시의 시가지가 영통구에 연담함에 따라 영통구의 중심성과 주변지역과의 연계는 더욱 중요해졌다.

영통구는 경계를 맞대고 있는 인접 도시와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도시 발전을 추구해야 하는 동시에 영통구 내부에서의 격차 해소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영통구의 시가지 개발이 시차를 두고 진행되어, 이미 노후 시가지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영통구의 기성시가지는 1980년대 중반부터 개발이 시작되면서 1990년 이전에 건축된 주택이 많이 자리한다. 영통구의 주택 11만여 동 가운데 1990년 이전에 건축된 것이 9,100개 동에 달하므로[22] 노후 건축물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노후 건축물이 매탄동에 집중해 있기 때문에 매탄동의 주거환경이 점차 열악해지는 동시에 1990년대 이후 개발된 시가지와 차별화한다는 것이다. 노후 주택은 원천리천의 서쪽에 주로 자리하고 있는 관계로, 원천리천을 기준으로 동쪽과 서쪽의 시가지 경관이 차별화할 우려도 있으며 나아가 영통구 내에서 신시가지와 기성사기지 사이의 분리 현상이 심화할 가능성도 있다. 향후 노후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 또는 1980년대에 건축된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재건축을 통해 도시환경과 주거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살기 좋은 영통구를 건설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매탄1~4동에서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도 주거환경의 악화임을 고려하면, 노후주택의 철거를 통한 새로운 주거단지 조성은 영통구의 인구와 경제 활력을 증가시키는 촉매제가 될 것이다.

동수원의 중심지로 발돋움한 영통구는 광교산과 청명산, 원천호수와 신대호수, 원천리천 등의 자연요소를 크게 변형하지 않은 상태로 보유하고 있는 친환경도시이다. 게다가 신시가지 조성 과정에서 시가지 곳곳에는 개발 이전의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동시에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크고 작은 도시공원이 조성되었다. 도시의 발달과정에서 자연환경이 인조환경으로 개조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그 속에서 자연환경을 적절히 이용하고 활용함으로써 환경 보존을 추구하고 도시의 주거환경을 향상시키는 것은 우리들의 몫이다. 영통구는 다른 시가지와 달리 계획적으로 조성된 시가지가 지배적이기에, 무분별한 환경훼손을 억제하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면서 친환경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 있다. 앞으로도 영통구가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 자족적이고 친환경적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어 가길 바란다.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 정학수, 「용인 지내면에서 수원시 이의동까지의 변천상」, 『이의동지』, 수원시, 2003; 수원시, 1999, 『수원지명총람』, 수원문화원; 용인문화원, 2001, 『내고장 용인 지명 · 지지』, 용인문화원을 참조.

2) 영통이라는 지명이 생겨난 데에는 크게 세 가지의 이야기가 전해 온다. 첫째는 청명산 고개(嶺)의 몸통에 해당하는 마을이라 영통리로 불렸다는 설이다. 둘째는 과거 영통리는 청명산과 원천리천 주변의 농경지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이 땅의 모양이 염통처럼 생겼다는 데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있다. 셋째는 청명산의 봉우리에 있는 우물 속에 고려시대의 것으로 전해지는 보물이 있었는데, 이 보물이 영(靈)과 통(通)하게 하는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 우물 주변의 마을을 영통리라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3) 본래는 광교IC로 개통했다가 2009년 9월 16일 광교상현IC로 개칭되었다.

4) 수원시사편찬위원회, 2014, 『수원의 지리적 환경』, 흥익문화사, 34~35쪽.

5) 덕곡역은 지금의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에 있던 역이다.

6) 광교호수공원(http://www.gglakepark.or.kr).

7) 자연마을의 이름을 간직한 아파트는 영통동에 많으며, 황골마을아파트, 벽적골아파트, 신나무실아파트, 살구마을아파트, 살구골마을아파트, 청명마을아파트 등이 있다. 이는 아파트 건축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1990년대 우리나라에서는 아파트에 마을이름을 붙이는 것이 유행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아파트의 명칭이 외래어로 바뀌면서 우리식의 마을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흔치 않다. 이것이 영통동의 아파트와 광교신도시의 아파트가 가지는 명칭상의 차이점이다.

8) 경기도, 1988, 『원천리천, 하천 정비기본계획』, 25쪽.

9) 영통구에 입지한 삼성공장은 타 수계의 용수를 끌어오거나 지하수를 개발해 활용하고 있다.

10) 김낙균, 2005, 『수원 원천천 지역의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8쪽.

11) 「수원 원천천 살리기 기업 환경단체 등 참석」, 『동아일보』 1995년 10월 11일.

12) 수원특례시 보도자료, 「자연 속에서 더위 잊는 수원 여름 명소 10선(選)」, 2022년 8월 9일.

13) 수원시, 2012, 『수원시 도시계획 200년사』, 64쪽.

14) 한국토지개발공사, 1994, 『수원영통·용인영덕지구 택지개발사업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25쪽.

15) 경기도시공사, 2016, 『광교신도시 개발백서』, 101쪽.

16) 김재행, 2012, 『다변량 분석을 이용한 수원시의 도시구조 변화: 2000~2009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4쪽.

17) 강주영, 2022, 『대도시 공업지역내 주거시설 특성에 관한 연구-수원시 영통구 일반·준공업지역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78쪽.

18) 『수원통계연보』.

19)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20) 「고령화사회로 '고속질주'」, 『문화일보』 2004년 9월 25일.

21) 산업대분류 업종 뒤에 붙은 영어 알파벳은 표 3에 제시된 것과 일치한다.

22) 수원시, 『수원통계연보』, 2021, 320~321쪽.

영통구의 문화유산

김충현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 영통구의 개발과 문화유산 현황

수원은 1949년 수원군 수원읍이 수원부로 승격하였고, 다시 명칭이 수원시로 바뀌었다. 이후 1967년 경기도청이 이전해 오며 경기도의 수부도시로 기능하였다. 현재 네 개의 일반구 중 영통구는 가장 늦은 시기 설치되었다. 영통구는 수원의 동쪽지역에 위치하며 남북으로 긴 형태인데 대부분 1980~1990년대 시 · 군 · 자치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따라 용인과 화성에서 편입된 지역이 중심을 이루었다. 1983년 용인군 수지면에 속했던 이의리와 하리가 수원으로 편입되었다.[1] 당시 원천유원지 개발을 수원시가 주도하고 있었다. 이는 원천유원지 인근의 이의리와 하리가 수원시로 편입되었던 배경이었다.[2] 이후 수원은 도시가 팽창함에 따라 1988년 장안구와 권선구가 설치되었으며, 1993년엔 장안구와 권선구의 일부를 분리해 팔달구가 설치되었다. 이 과정에서 이의동과 하동 역시 장안구와 팔달구로 소속을 바꾸었다.

1994년과 1995년에 각각 화성시에서 영통리와 신리, 망포리, 용인군 기흥읍에서 영덕리가 수원으로 편입되면서 현재 영통구의 모습이 대개 갖추어질 수 있었다.[3]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들 지역은 수원의 동쪽 외곽지역이었다. 그러나 영통택지개발 사업이 진행된 이후 급격한 도시화가 이루어졌고, 용인 수지의 팽창으로 이의동 일대의 개발 압박은 더해 갔다. 2003년 팔달구 동쪽 지역을 떼어 영통구가 설치되었다. 이처럼 현재 영통구는 행정구역 조정을 거치며 용인과 화성의 일부가 편입되었고, 이후 광교신도시가 건설되며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그리고 2022년 5월 경기도청과 경기도의회가 광교중앙



영통·영덕지구 발굴조사(한신대학교 박물관 제공)



광교신도시 발굴 유물(수원박물관 제공)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역 인근에 새롭게 마련한 신청사에 입주하며 경기도 행정의 중심이 되었다.

경기도 중남부에 위치한 수원시는 발전을 거듭하여 2022년 특례시로 승격되었다. 수원은 민선시대 이후 효의 도시, 인문학 도시를 표방하여 역사와 문화, 예술 등에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를 하고 있다. 그 결과 다른 지자체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박물관과 미술관, 도서관이 상호 협력하며 수준 높은 문화 역량을 드러내고 있다. 그 선도적인 위치에 있는 것이 영통구이다. 수원에는 네 개의 일반구가 있는데 영통구는 그 중 하나이다. 영통구는 2003년 팔달구에서 분구가 이루어지며 가장 늦게 설치되었다. 영통구의 분구는 수원의 도시화와 택지개발 촉진의 결과였다.

영통구는 수원에서 가장 젊은 지역이다. 실질 생산 활동에 종사 가능한 20~50세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다.[4] 이는 경기바이오센터, 경기R&D센터, 삼성전자 등을 비롯한 일자리가 풍부하고, 영통지구와 광교신도시 개발로 외부에서 유입되는 인구가 급격히 늘며 나타난 현상이다. 2022년에는 경기도청 신청사가 문을 열며 경기도 행정의 중심지로 기능하게 되었다.

영통구는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시가화가 이루어졌는데, 급격한 도시화로 예상하지 못한 문제점도 나타났다. 도시개발 과정에서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한 학계와 지역사회의 노력으로 문화유산들이 보존되었다. 광교신도시에는 왕실묘역인 혜령군 · 축산군 묘역, 심온 선생 묘역을 비롯한 청송 심씨 묘역, 안동 김씨 묘역, 상주 황씨 묘역 등 다양한 분묘 유적이 보존되었다. 하지만 새로 유입된 주민들 중에는 보존된 분묘 유적을 부정적으로 인식하여 마찰이 발생하기도 하였는데,[5] 지역사와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이들 문화재를 '무덤'으로 인식하여 민원이 제기된 것이다. 또한 마을 공동체가 해체되며 이의동 길마재줄다리기(수원시 향토유적 제10호)와 같은 민속놀이는 존립이 위태로워졌다.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유입된 시민들에게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알기 쉽게 전달해 유대감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역할을 이미 수원박물관과 수원광교박물관 등이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영통구에는 25건의 등록된 문화유산이 있다. 보물로 지정된 것이 3건, 경기도 유형문화재 12건, 경기도 기념물 1건, 경기도 문화재자료 1건, 수원시 향토유적 8건이다. 이들 문화유산 중 수원 역대 목민관 송덕비군과 안동 김씨 세장묘역 등의 수량을 풀어내면 그 숫자는 더 많아진다. 또한 이의동 길마재줄다리기 같은 민속 관련 문화유산은 마을 공동체 해체로 말미암아 절멸될 위험도 내재하고 있어 좀 더 적극적인 보호가 필요하다.

〈표 1〉 영통구 소재 지정문화재 현황

종별	명칭	소유자(보유자)	지정연월일	관련부서
보물	박유명 초상화	수원시	2006.12.29.	수원박물관
	영조어필 – 읍궁진장첩	수원시	2010.01.04.	수원박물관
	박태유 필적 백석유묵첩	수원시	2010.10.25.	수원박물관
국가민속문화재	오산 구성이씨, 여흥이씨 묘 출토복식	국유	2021.06.02.	수원박물관
경기도 유형문화재	팔달문 동종	국유	1976.08.27.	수원박물관
	김우형 서첩 기오재희묵	수원시	2014.07.08.	수원박물관
	윤증 서첩 유봉필첩	수원시	2014.07.08	수원박물관
	두륜청사첩, 삼사탑명첩	수원시	2018.04.30.	수원박물관
	정조한글어필-빈풍칠월편	수원시	2018.04.30.	수원박물관
	영조예필-송죽	수원시	2018.04.30.	수원박물관
	영조 사 조현명 어필첩	수원시	2018.04.30.	수원박물관
	정조예필-주희시첩	수원시	2018.04.30.	수원박물관
	정조어필-유시	수원시	2018.04.30.	수원박물관
	성수침 서첩-청송진묵	수원시	2018.04.30.	수원박물관
	송준길 서첩-민기묘표, 신도비명	수원시	2018.04.30.	수원박물관
	김수증 서첩-곡운희묵	수원시	2018.04.30.	수원박물관
	영조 · 정조 사 김종수 어제어필첩	수원시	2021.12.09.	수원박물관
경기도 기념물	심온선생묘	청송심씨문중	1979.09.03.	문화예술과
경기도 문화재자료	박유명초상 모본	박근성	2009.03.23.	수원박물관
경기도 등록문화재	수원 방화수류정 자개상	수원시	2021.10.27.	수원박물관
수원시 향토유적	수원역대목민관 송덕비군	수원시	1998.09.17.	수원박물관
	정유선생 묘	온양정씨종중	1990.01.04.	문화예술과
	이목동 출토 석곽묘	수원시	2006.12.26.	수원박물관
	이의동 길마재줄다리기	수원시	2003.11.27.	문화예술과
	수원 화서동 마애삼존불상	수원시	2006.12.26.	수원박물관
	화성관련 표석 일괄	수원시	2006.12.26.	수원박물관
	전주류씨 효자정문	수원시	2006.12.26.	수원박물관
	안동 김씨 참의공파 세장묘역	안동김씨종중	2007.06.03.	문화예술과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이 글에서는 영통구의 문화유산을 등록문화재를 크게 분묘 유적과 민속 문화유산, 그리고 수원박물관과 수원광교박물관 소장 유물로 구분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2. 영통구의 분묘 유적

영통구 소재 분묘 유적은 주로 조선시대 조성된 문중 묘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청송 심씨(靑松 沈氏) 묘역, 왕실 묘역인 혜령군(惠寧君)과 그의 아들 예천군(醴泉君)과 손자 축산군(竺山君) 묘역, 안동 김씨(安東 金氏) 묘역, 온양 정씨(溫陽 鄭氏) 묘역, 상주 황씨(尙州黃氏) 묘역 등이 있다. 이 중 상주 황씨 묘역은 광교신도시 건설로 이장해 옮겨졌다.[6] 이들 묘역은 대개 이의동에 위치해 있는데 이곳은 양택(陽宅)과 음택(陰宅)의 조화를 이룬 곳으로 안동 김씨와 온양 정씨, 전주 이씨, 청송 심씨 등이 세거하기도 했다.[7] 이들 묘역은 조선 전기부터 후기까지 오랜 기간 조성된 묘역으로 조선시대 분묘 문화의 흐름을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 문중 묘역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1) 청송 심씨 묘역

청송 심씨 묘역은 조선 제4대 국왕 세종의 장인인 심온(沈溫, 1375~1418)과 그 후손들의 무덤으로 이루어져 있다. 심온은 세종이 즉위한 뒤 영의정이 되자 상왕이었던 태종이 외척이 발호할까 염려해 1418년(세종 즉위) 명나라에 사은사로 다녀오던 도중 의주에서 체포되어 수원에서 사사되었다. 이후 1451년(문종 1)에 복권되었고 '안효(安孝)'라는 시호를 받았다.

심온 묘역은 단독 묘역으로 수원광교박물관 동쪽, 광교역사공원에 위치한다. 심온 묘역은 조선 전기 처음 마련된 이후 조선 후기까지 꾸준히 석물이 확충되었다. 묘표의 경우 심온의 외손이자 송설체의 대가인 안평대군(安平大君, 1418~1453)의 글씨로 예서로 이루어져있다. 안평대군의 글씨 중 전하는 금석자료가 많지 않고, 예서는 더욱 드물다는 점에서 서예사적 가치가 크다. 따라서 수원시에서는 묘표의 영구 보존을 위해 수원광교박물관으로 이전했으며 묘역에 있는 묘표는 복제본이다.

묘역 입구 위치한 비각에는 심온 신도비가 세워져있다. 본래 개석방부(蓋石方趺)의 형태였던 것으로 마련되었으나 개석이 훼손되어 이수(螭首)로 교체한 것으로 보인다. 신도비는 9세손인 심단(沈檀, 1645~1730)이 짓고, 서명균(徐命均, 1680~1745)이 쓰고, 13대손 심육(沈錥, 1685~1753)이 전액(篆額)을 올렸다. 서명균은 외예(外裔, 외후손)이라 밝히고 있어 신도비가 내외 후손이 참여해 마련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건립연대는 "숭정기원후일백유사년 월 일립(崇禎紀元後一百有四年 月 日立)"이라 해 1731년(영조 7)에 세워졌음을 기록하였다. 이 밖에도 상석과 장명등, 문인석 1쌍이 있는데 양식으로 미루어 모두 조선 전기에 마련된 석물이다. 묘역 하단에는 심온의 사당인 안효사(安孝祠)가 있다.

심온 묘역 좌측 구릉으로 심의명(沈義儉, ?~?), 심융(沈嶸, 1523~1602), 심엄(沈巖, 1532~?), 심은(沈訔, 1535~?), 심연(沈演, 1587~1646), 심단규(沈瑞奎, 1617~1641) 등의 묘역이 있었다. 심의검은 심온의 현손이며, 심융과 심암, 심은은 각각 심의검의 장자와 3남, 4남이다. 심연은 심의검의 증손으로 심대형(沈大亨, 1567~1603)의 아들이며, 심서규는 심의검의 현손으로 심택(沈澤, 1591~1646)의 아들이다.



심온 묘역(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심온 묘역에서 바라본 개발 전 마을 전경(2000년, 수원박물관 제공)



심온 묘역에서 바라본 개발 후 아파트 단지 전경(2015년, 수원박물관 제공)

이들 묘역은 심의검 후손으로 모두 조선 후기에 조성되었다. 심은 묘역 좌측 첫 번째 구릉에는 심은과 심연 묘역이, 좌측 두 번째 구릉에는 심의검, 심융, 심암, 심서규 등이 있었다. 그러다 2017년 심융 묘역을 중심으로 묘역 정비가 이루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다량의 복식과 명기, 지석 등이 출토되어 그 이전까지 알 수 없었던 묘주들까지 새롭게 파악 할 수 있었다. 이들 출토 유물은 17세기 경기지역 사대부가의 문화를 잘 드러낸다. 이때 수습된 유물은 경기도박물관으로 이관되었다.[8] 이 유물을 수원 관내 박물관에서 확보했더라면 지역사를 좀 더 풍부하게 가져갈 수 있었다는 아쉬움이 있다.[9]

2) 전주 이씨 묘역 : 혜령군(惠寧君), 예천군(醴泉君), 축산군(竺山君) 묘역

혜령군과 예천군, 축산군 묘역은 수원광교박물관 북쪽, 광교역사공원 내에 위치해 있다. 이 묘역은 최근 광교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2008년 이장하였다. 현 위치로 이장하기 전 위치는 혜령골이라 부르던 곳으로 현재는 혜령공원이 조성되었다.



혜령군 묘역(2007년)

SRI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시정연구원
수원학연구센터



혜령군 묘역(2017년, 수원박물관 제공)



혜령군 사당 광제사(2017년, 수원박물관 제공)

혜령군(1407~1440)은 태종의 제9왕자이며, 세종의 이복동생이다. 예천군(1422~1443)은 혜령군의 아들이며, 축산군(1452~1479)은 혜령군의 손자이자 예천군의 아들이다. 예천군과 축산군 묘역은 본래 연천군에 있었는데 1994년 혜령군 묘역 아래 이장했다가 묘역 전체가 현재의 위치로 이장하였다. 새로 조성된 묘역 아래에는 혜령군의 사당인 광제사가 새롭게 마련되었다.

혜령군 묘역의 형태는 비교적 조선 전기 묘제 양식을 보전하고 있다. 혜령군과 그의 부인 무송 윤씨의 봉분 아래에는 각각 사각호석을 설치했으며, 각각 봉분 앞에는 문인석이 한 쌍씩 놓였다. 구 묘표는 혜령군 봉분 앞에 있는데 비석의 상단이 각이 지고 비좌를 마련한 규수방부(圭首方趺)의 양식이며, 1994년 새롭게 건립한 묘비는 지붕돌과 비석, 비좌로 구성되어 묘역의 왼쪽에 마련되어 있다. 문인석은 건두공복(幞頭公服)에 홀을 들고 있는 전형적인 조선 전기 문인석 양식을 따르고 있다. 혜령군과 무송 윤씨 봉분 앞에는 각각 사각 장명등이 놓였는데, 혜령군 장명등의 옥개석과 무송 윤씨 봉분 앞 장명등은 근래에 새롭게 마련된 것이다. 이 밖에도 각 봉분 앞에는 옛 상석(床石)이 있고, 두 봉분 사이에는 최근에 만들어진 상석이 놓여 있다.

구 묘표에 '정통팔년계해이월 일 천장우용인현서촌산내곡(正統八年癸亥二月日 遷葬于龍仁縣西村山內谷)'이라 기록되어 있고, 문중에서 1994년 건립한 신도비에는 초장지가 수원 창룡문 안에 있었으나 1443년(세종 25) 왕명으로 지금의 위치(광교신도시 안)로 천장했다고 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로 미루어 혜령군 묘역은 두 번의 이장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인근의 심온 묘역과 관계가 깊다. 혜령군 묘역의 1차 이장이 이루어질 당시 심온은 복권되기 전이었다. 세종은 장인인 심온 묘역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혜령군 묘역을 이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혜령군의 손자인 축산군은 심온의 증손녀와 혼인했던 것으로 미루어 두 가문의 세교가 특별했던 것으로 보인다.[10]

3) 안동 김씨 묘역

안동 김씨 묘역은 광교 웰빙타운 내에 위치하고 있다. 여기에는 김언침(金彦沉, 1514~1584), 김근(金瑾, 1538~1594), 김찬(金瓚, 1543~1599), 김효건(金孝建, 1584~1666), 김호(金鎬, 1636~1721)의 묘역이 조성되어 있다. 이들은 모두 조선 개국공신 김사형(金士衡)의 후손이며, 구 안동 김씨로 조선 후기 명문가인 장동 김씨(莊洞 金氏)와는 무관하다. 처음 김사형의 6세손인 김언침의 묘역이 조성된 이후 문중 묘역으로 자리 잡은 듯 보인다.[11] 본래 이 지역은 광교신도시가 건설되기 전까지 구 안동 김씨 세거지이기도 하였다.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현재 광교 웰빙타운 솔내공원 안에 김언침과 김호, 김근, 김효건의 차례로 묘역이 조성되었으며, 김찬 묘역은 e편한세상테라스광교웨스트힐 아파트 단지 중앙으로 뻗은 능선에 위치한다. 다만 김효건의 아들인 김호의 묘역이 증조부인 김언침 바로 아래 위치한다. 이러한 묘역 조성을 역장(逆葬)이라 하는데 효성스럽지 못한 행위이며 풍수술사들은 꺼리는 행위라는 인식이 있지만, 조선시대 문중 묘역에서 적지 않게 나타나기도 한다.[12)]

안동 김씨 묘역에는 다양한 석물들이 시기별로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각 시기별 석물의 특징을 살필 수 있는 중요한 묘역이다. 각 묘역별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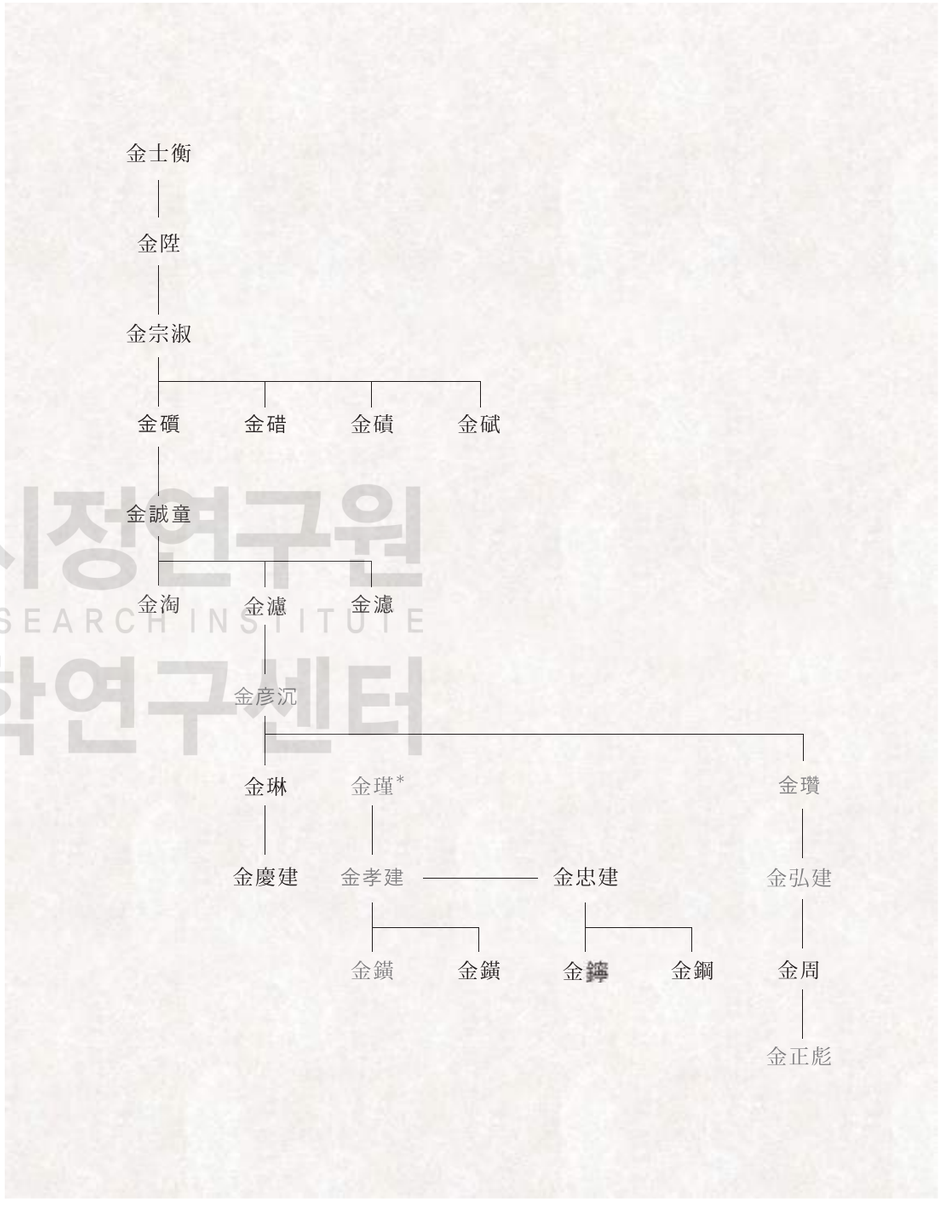
김언침은 1543년(중종 38) 사마시, 1548년(명종 8)에 문과에 급제한 후 관직은 형조참의를 지냈으며, 사후 영의정에 추증되었다. 그의 묘역에는 혼유석 상석, 향로석, 준석, 비석, 망주석, 문인석 등의 석물이 설치되어 있다. 그 중 비석은 전면에 '묘비명병서(墓碑銘并序)'라 하여 그 종류를 밝히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운문체인 명문(銘文)과 서술체인 서문(序文)이 함께 있는 비석의 경우 묘갈(墓碣)로 분류한다. 이 비의 문장은 조경(趙絅, 1586~1669)이 쓰고 후학 이기선(李箕善)이 글씨를 썼으며, 1948년 세워졌다. 묘역의 우측에는 완성되지 않은 비석의 받침돌인 방부(方趺)가 배치되었다. 이를 미루어 미리 문장과 글씨를 받아 두었다가 후에 건립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김찬 묘역 문인석

김언침 바로 아래 증손자 김호의 묘역에는 문인석이 없이 상석과 고석, 향로석, 망주석 한 쌍이 있다. 김호 묘역의 경우 18세기 조성되었기 때문에 석물이 간략하다. 비석이 생략된 대신 상석에 각자를 해 묘주(墓主)를 밝히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은 조선 후기 묘제를 잘 드러낸다 할 수 있다.

김호 아래에는 김근 묘역이 조성되어 있다. 김근은 포천현감을 지냈는데, 과거 급제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미루어 문음으로 관직에 진출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묘역은 상석 한 쌍, 향로석, 망주석 두 쌍, 문인석 한 쌍이 배치된 독특한 형태로 조성되어 있다. 본래 김호와 두 번째 부인인 언양 김씨의 합장묘였으나 근래에 안산에서



이의동 안동 김씨 묘역 관련 인물 가계도

①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http://people.aks.ac.kr/index.aks)의 문과방목 기록과 李敏求의 『東州集』에 수록된 「抱川縣監金公墓誌銘幷序」, 趙絅의 『龍洲遺稿』에 수록된 「吏曹判書訥庵金公墓碣幷序」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② 이의동 묘역에 위치한 인물의 이름은 회색으로 표기하였다. ③ 문과 급제자는 고딕체로 표시하였고, 사마시 입격자는 *표시를 넣어 기입하였다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김언침 묘역(2007년)



김찬 묘역(2007년)

첫 번째 부인인 밀양 박씨가 이장해 왔고, 이 과정에서 기존 석물과 옮겨온 석물이 함께 놓인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경기도의 도시화가 진행되며 나타난 현상이다. 또한 김효건 묘역의 경우 '品'자형으로 조성되었다. 상석의 각 자 내용으로 미루어 김효건이 위쪽이고 아래 두 봉분이 부인의 봉분임을 알 수 있다.

김찬은 현재 이의동 안동 김씨 묘역에 세장된 인물 중 가장 현달하였다. 1567년(명종 22)에 진사가 된 후 1568년(선조 즉위)에 문과에 급제하여 승문원으로 들어갔다. 이후 여러 관직을 두루 역임한 뒤 예조판서, 대사헌, 이조판서를 거쳐 우참찬에 이르렀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당시 능력을 인정받아 전쟁을 수습하는 데 공을 세웠다. 그의 묘역에는 혼유석과 상석, 향로석, 망주석 1쌍, 문인석 1쌍, 사용하지 않은 방부와 1963년에 세운 비석이 있다. 봉분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한 호석(護石) 역시 근래에 조성한 것이다. 비문의 경우 전면에 묘주를 밝히고 있고 나머지 3면에 국한문 혼용으로 기록되어 있다. 비문의 마지막에 미리 받아 둔 조경(趙絅)의 묘도문(墓道文)을 바탕으로 후손들이 작성했음을 밝히고 있다. 조경의 문집인 『용주유고(龍洲遺稿)』와 『국조인물고(國朝人物考)』에 내용이 남아 있다.[13]



김효건 묘역(2007년)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SRI 수원학연구센터

김언침과 김찬 묘역에 사용하지 않은 방부가 남아 있고, 둘 다 조경에게 비문을 청해 받은 것으로 미루어 비슷한 시기에 비석을 입석하려 했으나 어떤 이유에서 그 뜻을 이룰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찬의 좌측 아래에는 김정표 묘역이 있다. 김정표는 김찬의 증손자이자 김주의 장남이다.[14] 묘역의 석물 대부분은 근래에 조성된 것이고, 원래부터 배치되어 있던 석물은 상석과 혼유석, 향로석뿐이다. 두 봉분 왼쪽에 세워진 묘표는 2001년 세운 것이다.

4) 온양 정씨(溫陽 鄭氏) 묘역

온양 정씨 묘역은 원천호수사거리 동남쪽, 힐스테이트광교 아파트 북쪽 구릉에 위치해 있다. 정수강(鄭守綱, ?~?), 정유(鄭裕, 1503~1566), 정희린(鄭嬉隣, 1532~1583), 정려(鄭璨, 1556~1627)의 순으로 묘역이 조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석물이 남아 있다.

정수강은 통진현감(通津縣監)을 지냈고 생몰년은 알 수 없다. 정수강 묘역은 온양 정씨 묘역 가장 위에 자리하고 있다. 정수강 묘역은 부인 임피 진씨(臨陂 陳氏)와 합장묘로 봉분은 쌍분으로 조성되어 있다. 묘역 석물은 묘표와 혼유석, 상석, 향로석이 각각 1기 있으며, 촛대석과 문인석이 각각 1쌍이 있다.

정유는 정수강의 아들로 1528년(중종 23) 사마시에, 1537년(중종 32)에 식년문과에 급제 후 이듬해에는 탁영시(擢英試, 1538년 문무 현직 관리를 대상으로 치른 시험)에 병과로 뽑히기도 하였다. 문한을 담당하는 직을 두루 거쳤으며, 호조좌랑과 예조좌랑 등을 거쳐 서장관으로 명나라에 다녀오기도 하였다. 명종의 총애를 받아 경연에서 임금에게 강의를 하기도 했다. 정유 묘역의 형태는 아버지 정수강 묘역과 비슷하다. 부인 청주 한씨와 쌍분 합장묘로 석물은 묘갈, 혼유석, 상석, 향로석이 각각 1기, 망주석과 문인석이 각각 1쌍이 있다. 정수강 묘역의 촉대석이 사라지고 망주석이 설치된 것은 차이이다. 정유 묘역에 놓은 비석은 비석의 상단이 둥근 호패모양의 방부원수형(方趺圓首形)이며, '대사헌정공묘갈명(大司憲鄭公墓碣銘)'이라 전액이 쓰여 있어 묘갈임을 알 수 있다. 정유 묘갈은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이 글을 짓고, 한호(韓濩, 1543~1605)가 글씨를 쓰고, 김응남(金應南, 1546~1598)이 전액을 올린 것이다. 비문에 따르면 정유의 둘째 아들인 정희번과 유성룡이 동서 사이였기 때문에 비문을 지은 것을 알 수 있다.[15] 게다가 조선 4대 명필인 한호가 글씨를 담당했으며, 당대 전서 명필이었던 김응남이 전액 글씨를 작성하여 서예사로 그 가치가 크다. 이는 한편으로는 정유 묘역을 조성할 당시 가세가 번성했음을 보여 주는 예이다.



온양 정씨 묘역(수원박물관 제공)

정희린은 정희린의 장남으로 음직으로 관직을 시작해 의흥현감(義興縣監)을 역임하였다. 정희린 묘역 역시 부인 전주 이씨와 쌍분 합장묘이다. 석물로는 정유 묘역과 같이 묘갈, 혼유석, 상석, 향로석이 각각 1기, 망주석과 문인석이 각각 한 쌍이 있다. 정희린 묘갈의 경우 형식은 정유 묘갈과 같으나 음기의 글씨와 내용이 비교적 자세히 확인된다. 정희린 묘갈은 송언신(宋彦愼, 1542~1612)이 글을 짓고 전액을 올렸으며, 한호가 글씨를 썼다. 한호는 정유와 정희린 부자의 비석 글씨를 모두 써준 것이다. 정희린 묘갈의 경우 만력(萬曆) 15년 정해(1587, 선조 20)로 건립연대가 정확하게 남아 있다. 한호는 보통 비석의 글씨는 단정하게 썼지만 정희린 묘갈의 경우 행서 기운을 가미해 활달하게 보이기도 한다.[16] 정유 묘갈과 정희린 묘갈은 서예사적 가치가 크기 때문에 영구 보존하고자 실물은 수원박물관에 기증되었고 현재 묘역에 있는 비석은 실물 그대로 복제한 것이다.

정희린 묘역 아래 쌍분으로 조성된 묘역은 묘주를 정확히 알 수는 없다. 정희린의 아들 정여로 추정된다. 권시(權諰, 1604~1672)의 『탄옹집(炭翁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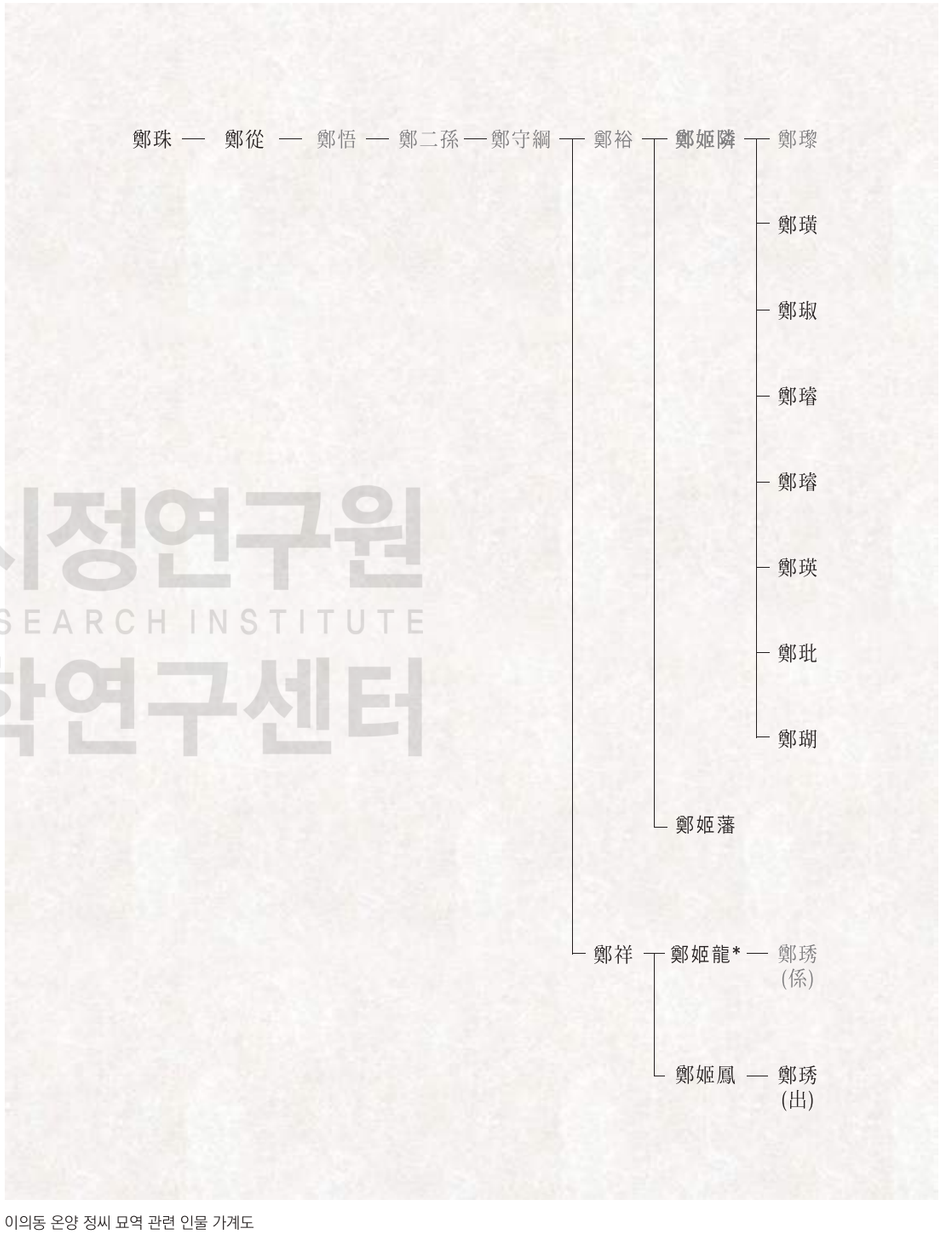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정유 묘역(1995년, 수원박물관 제공)

에는 정여의 묘갈명이 수록되어 있다.[17] 묘갈명에 의하면 정여는 용인 지내리 선영에 함께 묘역을 마련한 것으로 되어 있다. 아마 묘갈문은 미리 청해 받았으나 비갈을 건립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정오(鄭悟, ?~?), 정이손(鄭二孫, ?~?), 정수(鄭琇, 1578~ 1630)의 묘역이 광교신도시 개발로 수용되면서 문중에서 이들 묘역의 석물을 수원박물관에 기증하였다.[18] 이때 기증한 석물은 대개 수원박물관에서 야외전시를 하고 있어 언제나 관람이 가능하다. 정오는 성균관 생원이 되었으나 관직에는 나아가지 않았다. 방부원수의 묘표가 전하지만 음기가 마모되어 내용을 알기는 어렵다. 다만 '만력사십년 윤십일월 일립(萬曆四十年 閏十一月 日立)'이라는 기록이 확인되어 1612년(광해 4)에 건립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정이손은 성균 생원 정오의 차남이다. 관직은 연풍현감을 역임하였다. 묘표는 방부하엽(方趺荷葉)의 형태를 갖춘 것으로 16세기에 건립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수는 정희봉의 아들이지만 큰아버지인 홍주목사(洪州牧使) 정희룡에게 입후되었다. 묘표 방부원수가 전하며, 건립연대는 1680년(숙종 6)이다.



이의동 온양 정씨 묘역 관련 인물 가계도

①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http://people.aks.ac.kr/index.aks)의 문과방목 기록과 鄭裕墓碣, 鄭璨墓碣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② 수원에 묘역이 있었거나 현전하는 경우 이름을 회색으로 표기하였다. ③ 문과 급제자는 고딕체로 표시하였고, 사마시 입격자는 *표시를 넣어 기입하였다. ④ 鄭姬藩은 문과 방목은 확인되나 사마시 기록의 확인이 어렵다.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3. 이의동 길마재줄다리기

길마재줄다리기는 수원시 이의동의 길마재와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독바위 주민들 사이에 전승해 온 민속놀이이다.[19] 길마재줄다리기는 중단되었다가 1985년 주민들 스스로 복원하였다.[20] 그러나 길마재줄다리기는 대부분의 줄다리기와 같이 정월대보름을 전후로 하여 연행되었다. 다만 특이한 점은 매년 진행되는 행사가 아니라 윤달이 들은 이듬해에 진행되었기 때문에 보통 3년에 한 번 이루어진다. 길마재줄다리기와 관련하여 다음 유래담이 전해진다.

> 지금부터 약 250년 전 수원시 이의동 길마재(하1통)와 용인군 수지면 상현리 독바위 일대 마을에는 각종 전염병이 돌아 목숨을 잃은 주민이 부지기수였다. (중략) 돌림병의 공포 속에서 떨기만 하던 어느 날, 주민 장진종(張鎭宗)이라는 사람의 꿈에 아버지가 나타났다. (중략) 아들에게 현몽한 장이강(張以綱)은 (중략) 아들 진종에게 근엄한 목소리로 말하였다. "너를 중심으로 묘아래 동민,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용기를 내고 힘을 합하여 정월 상달 첫 밤에 줄다리기를 하라. 그리하면 신의 도우심을 얻어 온 동민이 무사할 뿐 아니라 매년 풍년이 들어 만사가 대통하리라." (중략) 이 소문은 이 마을 뿐 아니라 인근 부락에도 모두 퍼졌다.
> 지푸라기라도 잡을 만큼 돌림병 앞에 가슴 졸이고 초조해하던 인근 부락 주민들은 이 얘기를 듣고 너도나도 줄다리기에 동참하겠다고 나섰다. 인근 부락 주민들까지 총 동원이 돼 줄다리기는 성대하고 무사히 끝났다. 그리고 장이강이 아들에게 현몽해서 말한 것처럼 신의 도우심인지 돌림병은 일소되고 매년 풍작으로 주민들의 생활은 날로 안락해졌다.[21]

위 내용으로 미루어 길마재줄다리기는 조선 후기 이후 전승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야기에 등장하는 장이강은 본관이 진천이며 1674년(현종 15)에 태어나 1706년(숙종 32)에 무과에 급제한 인물이다. 방목 기록에 의하면 장이강은 자신의 거주지를 용인으로 기재하였다.[22] 또한 줄다리기가 행해지던 장소는 장이강의 묘역이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진천 장씨는 주민들을 동원할 수 있는 유력 가문이었을 것이다. 최근까지 수지구 상현동에 진천 장씨 후손들이 거주하였다.

길마재줄다리기는 크게 ① 지신밟기, ② 줄 만들기, ③ 줄다리기, ④ 뒷풀이 과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23] 각 절차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지신밟기 : 정초부터 두레패들이 마을을 돌며 지신을 밟고 쌀과 돈, 짚을 추렴한다.
> ② 줄 만들기 : 줄을 만드는 것을 '줄을 드린다.'고 표현한다. 이때 여성들은 줄에 접근하지 못한다. 줄은 암줄과 수줄로 나누어 만든다. 줄을 만드는 과정에서 장이강 묘 앞에 불을 피우고 음식을 장만하는 한편, 윷놀이와 같은 민속놀이를 하며 마을잔치를 한다.



이의동 길마재줄다리기(1999년, 수원박물관 제공)



이의동 길마재줄다리기(수원문화원 제공)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③ 줄다리기 : 줄다리기 행사에 앞서 장이강 묘 앞에서 고사를 지낸다. 고사가 끝나면 줄다리기를 한다. 본래 밤 10시가 넘어 시작하였으나 1985년 복원한 후에는 저녁 7~8시경 행한다. 암줄과 수줄을 결합하여 줄다리기를 하는데, 동쪽은 수줄, 서쪽은 암줄로 하고 각각 남성과 여성으로 편을 가른다. 줄다리기는 여성 쪽이 이겨야 풍년이 든다고 생각해 결국 승부는 여성들이 이긴다.[24]

④ 뒷풀이 : 줄다리기를 마치면 줄은 본래 태워버렸다고 하지만 때로는 독바위 쪽 개울가 논둑에 길게 늘여 놓고 말뚝을 박아 두기도 하였다. 이는 장마철 논둑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려는 조치이기도 했다.[25]

현재 길마재줄다리기는 새로운 변화를 맞았다. 1990년대 중반까지 수원 길마재마을과 용인 독바위마을이 정월대보름 줄다리기 축제를 진행했으나 급격한 도시화가 이루어지며 명맥이 끊어졌다. 수원시에서는 지난 2003년 길마재줄다리기를 수원시 향토유적 제10호로 지정하고 수원문화원에서 주관하여 화성문화제 기간에 재연하고 있다. 용인시도 2000년대 들어 향토문화의 보존과 전승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나 그 성과는 미미하였다. 그러다 광교신도시 개발사업 추진과 맞물리며 전수관과 역사공원을 건립하는 등 전통문화 보존을 위해 애쓰고 있다.[26]

수원시와 용인시는 각자 길마재줄다리기를 자신들의 전통문화로 인지하고 개별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그러나 이는 문화 원형을 해치는 방식이다. 수원시에서 화성문화제 기간을 활용해 재연하고 있다고 하지만 세시풍속 성격을 벗어난 것이며, 그 설행 장소도 수원행궁 근처이기 때문에 시기와 장소가 모두 어긋난다. 용인시는 그 명칭에 변화를 주어 용인시만의 문화행사로 탈바꿈하려 하고 있다. 이는 두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다. 기왕 광교신도시가 수원시와 용인시가 각각 부지를 제공해 조성되었고, 옛 길마재줄다리기를 행했던 지역이므로 두 지역 사회가 협력해 원형에 가까운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문화유산이 되어야 할 것이다.

4. 수원박물관과 수원광교박물관 소장 문화유산

수원시는 박물관 설립 계획을 세운 이후 꾸준히 유물을 수집한 결과 2008년 수원박물관을 개관하였다. 수원박물관은 수원역사박물관과 한국서예박물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관한 이후에도 꾸준히 유물 수집에 힘쓰고 있다. 그 결과 수원박물관에는 보물 3점, 경기도 유형문화재 12점, 경기도 문화재자료 1점, 수원시 향토유적 5점 등을 보유하게 되었다. 그리고 지난 2014년에는 수원광교박물관이 개관하여 광교신도시 개발과정에서 출토된 유물 등을 담당하고 있다. 이처럼 수원박물관과 수원광교박물관은 수원의 역사와 문화를 보전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원박물관은 수원의 역사와 문화는 물론 우리나라 서예사 전문 박물관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는 2003년 근당 양택동 선생이 서예 관련 자료 5,000여 점을 기증하는 한편, 2004년 사운 이종학 선생의 유족이 2만여 점에 달하는 유물을 기탁하면서 수원박물관을 설립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확보되어 박물관 건립이 본격화되었다.[27] 여기에 매년 꾸준한 유물 수집이 더해지면서 수원과 한국 서예사 관련 유물이 모일 수 있었으며, 옛 수원과 인근 지역에 오래 세거하던 가문에서 기증 및 기탁이 이루어지면서 유물의 질이나 양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었다. 그 결과 수원박물관은 수원시 지정문화재의 대부분을 소장하는 박물관으로 발돋움했다.

수원박물관 소장 보물은 모두 3점으로 「박유명 초상」, 「영조어필 – 읍궁진장첩」, 「박태유 필적 – 백석유묵첩」이 있다. 박유명(1582~1640)은 본관이 尙州(尙州)로 인조반정에 참여했는데, 그 공을 인정받아 정사공신 3등에 책록되어 초상화가 그려지게 되었다. 이후 「박유명 초상」은 화성시 서신면 용두리 상주 박씨 문중에서 보관하던 것을 2005년 수원박물관에 기증 및 위탁하였다. 이때 초상화 2본이 확인되었는데 원본과 이모본이었다. 수원박물관은 훼손이 심한 원본을 보존처리하는 한편 모사본을 2본 제작해 한 본은 상설 전시하고 1본은 문중에 전해 사당에 모셨다.

「박유명 초상」은 그 제작시기가 분명하고 다른 공신 초상과 비교할 수 있으며, 원본과 이모본을 함께 비교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술적 가치가 크다. 이에 초상화 원본은 보물 제1489호(2006), 이모본은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142호(2009)로 지정되었다. 「박유명 초상」은 17세기 공신 도상의 전형을 보여 주며, 호랑이 흉배가 그려진 예는 희귀한 것이라 인정을 받은 것이다.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박유명 초상」(수원박물관 제공)



팔달문 동종(수원박물관 제공)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영조어필-읍궁진장첩」(수원박물관 제공)

「영조어필-읍궁진장첩」은 조선 제21대 임금 영조가 노년에 쓴 글씨들을 모아 1첩 18장으로 만든 것이다. 모두 12점의 어필이 실려 있다. 영조의 노년 글씨를 모은 것으로 글씨를 쓴 시점이 확정되며, 조선 후기 궁중 장황을 확인할 수 있어 중요한 자료로 평가 보물 제1631-3호(2010)로 지정되었다.

「박태유 필적-백석유묵첩」은 조선 후기 명필이었던 박태유(1648~1746)의 글씨를 모은 것이다. 박태유의 본관은 반남(潘南), 호는 백석(白石)이고, 아버지는 소론의 영수인 박세당이다. 44면에 당시 9수, 단구 2개를 해서와 행초, 광초, 예서, 행서 등 다양한 글씨가 다양하다. 이 서첩에는 박태유의 다양한 서체가 실려 있어 박태유 서예를 한 눈에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경기도 유형문화재는 모두 12점이며, 이 중 서예 관련 유물이 11건, 팔달문 동종이 1건이다. 영조와 정조의 글씨가 5점이며, 조선시대 뛰어난 학자이자 명필로 이름 높았던 성수침과 김수증, 송준길, 윤증의 글씨 등이 있다. 이 작품들은 모두 조선시대 서예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유물들이다.

이 밖에도 수원시 향토유적 중 수원박물관으로 옮겨진 유물들이 있다. 수원역대목민관 송덕비군은 수원화성박물관과 함께 야외전시 중이며, 이목동 출토 석곽묘, 수원 화서동 마애삼존불상, 화성과 관련한 표석, 전주류씨 효자정문 등 다양한 형태의 유물이 있다. 이들 유물은 수원의 도시개발 속에서 사라질 위기에 있었던 것들로 본래 위치에서 이전해 보존한 것으로 수원의 지역사를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다.

광교역사공원 내에 위치한 수원광교박물관의 경우 광교신도시 개발로 사라질 위기에 있던 유물들을 수습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는 한편, 사운 이종학(史芸 李鍾學, 1927~2002)과 소강 민관식(小崗 閔寬植, 1918~2006)의 기증유물을 중심으로 수장하고 있다.

광교신도시를 개발하며 출토된 유물은 구석기부터 조선시대까지 오랜 시간에 걸쳐 이 지역에 사람이 생활을 영위했음을 보여 준다. 특히 각 문중 묘역이 도시개발을 통해 이장 등으로 사라질 위기에서 수습된 묘지명과 명기 등은 수원 지역 사족 생활의 단면을 아주 잘 보여 준다. 여기에 오산 가장지구에서 수습된 복식 등, 인근 지역의 도시개발을 통해 수습된 유물까지 아우르고 있다.

사운 이종학은 수원군 우정면 주곡리(현 화성시 우정읍 주곡리)에서 출생으로 오랫동안 고서점을 운영하였다. 그는 충무공 이순신과 독도, 그리고 고향 수원에 대한 사료를 모으고 연구한 서지학자이다. 이후 이종학은 평생에 걸쳐 수집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곳으로 기증하였다. 독도와 관련한 자료는 독도박물관 건립에 발맞추어 기증하였고, 이순신 관련 자료는 순천향대에 기증하면서 이순신연구소가 개소되었다. 그리고 수원과 관련한 자료 등



수원박물관에서 전시하고 있는 수원역대목민관 송덕비(수원박물관 제공)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수원박물관



수원광교박물관

SRI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시정연구원
수원학연구센터

을 수원시에 기증하였다. 수원시는 이를 바탕으로 사운 이종학 사료관을 개관하기도 하였으며, 이후 수원박물관을 거쳐 수원광교박물관에서 기증받은 자료를 보관하고 전시에 활용하고 있다. 이 밖에도 독립기념관과 아산 현충사, 전주역사박물관 등에 기증하였고, 희귀자료를 자료집으로 꾸며 대학도서관 등 관계 기관에 기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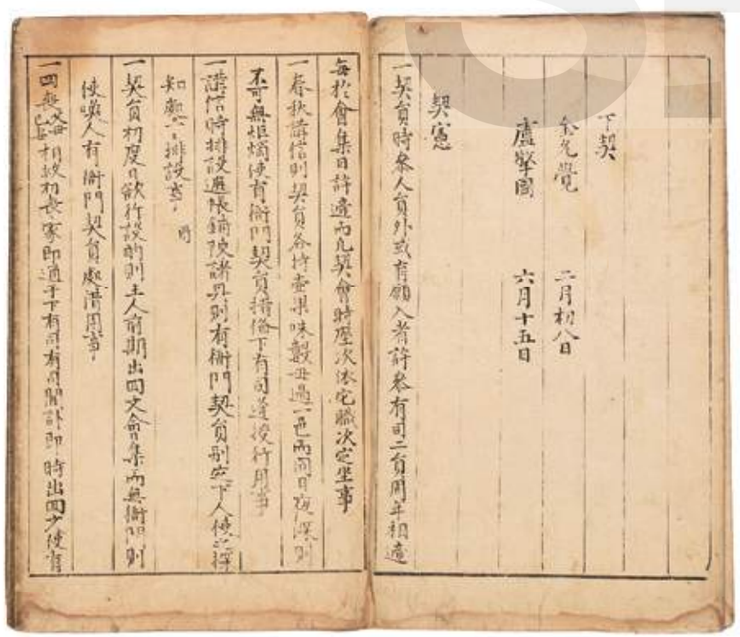
소강 민관식은 정치인이자 체육인이다. 제3~5대 민의원, 6대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직무대행, 문교부장관, 대한체육회회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는 개성 출신으로 경성제일고보(현 경기고), 수원고등농림학교(현 서울대학교 농생명과학대)를 졸업하고 일본에 유학해 교토제국대학 농예화학과를 졸업하였다. 민관식 사후 유족은 2009년 그의 생전 기록과 수집한 물품 일체를 수원에 기증하였다.

한국 스포츠계 대부였던 민관식의 자료는 우리나라 현대 체육사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자료가 다수이다. 민관식의 주도로 태릉선수촌이 건설되었으며, 스포츠 과학을 도입하는 등 스포츠 근대화에 앞장선 인물이었다. 또한 수원고등농림학교 관련 자료들은 일제강점기 수원의 옛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기도 하다.

이 밖에도 영통구의 다양한 가문에서 유물을 기증하였다. 해주 오씨 추탄공파는 영통지역의 유력 가문으로 2007년 334점을 기증하였는데, 이는 오덕영과 오창근, 오재근 관련 자료로 각종 증명서 및 상장, 사진 등 다양한 생활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 2013년에는 교지와 토지 매매 문서 등 다양한 자료 230점을 추가로 기증하였으며, 2015년에는 오득영이 사용했던 대한제국 군복과 견장 및 군모에 꽂았던 깃털장식 등을 기증하였다. 한편 2013년과 2014년에 걸쳐 용수흥농주식회사를 설립한 오상선 관련 자료를 725점을 기증받았다. 이때 기증받은 용수흥농주식회사 관련 유물과 직조기 등은 상설 전시하고 있다. 특히 용수흥농주식회사 관련 기록과 저수지 표석 등은 해주 오씨의 농촌계몽 활동과 관련한 내용으로 근대 수원과 용인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이다.[28]

이의동 안동 김씨도 많은 고문서를 위탁 관리하였다. 이들은 스스로 두릉리 안동 김씨라 지칭하는데, 김찬 교지를 비롯해 김효건과 관련한 『갑신계첩(甲申契帖)』(1631, 인조 9), 문중기록인 『경수록(慶壽錄)』(1732, 영조 8), 『김씨종계첩(金氏宗契帖)』(1753, 영조 29) 등 조선 후기 사회사와 지역사 연구에 유용한 자료 99점을 위탁하였다. 또한 지난 2008년 김홍건 일가의





안동김씨 현감공파 종중이 위탁한 『갑신계첩』(1631년)
1584년 만들어진 동갑내기들의 친목 도모 모임인 갑신계(甲申契)의 계원 명단과 규칙 등을 기록한 서첩이다.

분묘를 이장하는 도중 출토된 여성의 복식 등 유물 36점을 수습한 것을 기증하기도 하였다.[29] 이처럼 수원박물관과 수원광교박물관은 다양한 방법으로 유물을 수집하고 정리하여 지역사를 정리하고 보존할 수 있는 자료를 축적하고 있다.

5. 역사와 문화가 살아 있는 도시를 위하여

영통구는 수원의 다른 구에 비해 비교적 늦게 설치되었다. 영통구를 구성하는 많은 지역은 용인과 화성에서 구역 변경을 통해 수원으로 편입된 곳이다. 이곳은 최근까지 수원의 외곽지역으로 머물면서 전통 문화가 가장 잘 남아 있던 지역이기도 했으며, 다양한 가문의 세거가 지속했던 곳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도시의 팽창으로 이 지역의 개발 압력은 거세졌고, 근래에 들어 신도시 개발 등이 진행되면서 여러 가문의 세거지와 마을 공동체가 파괴되며 아끼고 보전해야 하는 문화유산도 멸실의 위기에 놓이기도 하였다. 여기에 새롭게 외부로부터 유입된 주민들은 지역과 지역사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었고, 기존 주민과 다양한 형태의 문제가 발생하며 마찰도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원박물관과 수원광교박물관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는 첨병으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 수원박물관과 수원광교박물관은 수원은 물론 인접 지역의 도시개발로 소멸될 수 있는 여러 형태의 유물을 수집하는 동시에 여러 기획전시와 특별전시를 개최하고, 지역사와 관련한 우수한 책자를 발간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박물관의 모범이 되기도 한다.

영통구는 수원의 다른 구에 비해 성장 잠재력이 큰 곳이다. 경기도청과 경기도의회가 광교신도시에 신청사를 건립하여 이전했으며, 첨단 연구소를 비롯해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활력이 넘치는 곳이다. 고속도로와 지하철, 다양한 광역버스 등 편리한 교통은 다른 지역에서 방문할 수 있는 가능성을 더욱 높여 주기도 하였다. 이에 영통구가 보유한 역사와 문화유산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박물관을 중심으로 주민들과 방문객에게 수준 높은 문화 경험을 제공하는 한편, 수원과 영통구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후세에 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수원박물관에서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는 어린이(수원박물관 제공)

1) 대통령령 제11027호, 「시·군·구·읍·면의 관할구역 변경 및 면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⑭ 경기도 수원시의 관할구역에 다음의 지역을 편입한다. 경기도 용인군 수지면 하리 · 이의리, ⑮ 경기도 용인군 수지면의 관할구역 중에서 하리 · 이의리를 제외한다.

2) 경기도시공사, 『광교신도시 개발백서』, 2011, 80쪽.

3) 대통령령 제14434호 「시·군·자치구의 관할 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제5조 1항, 2항. 대통령령 제14629호 「시·군·자치구의 관할 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제4조 1항, 2항.

4) 수원특례시 빅데이터포털(https://data.suwon.go.kr/ctznSvc.do)에 따르면 2023년 8월 14일 기준 수원시 20~50세 인구는 57만 6,587명(전체 1,227,323명 중 47%)이다. 이 중 영통구가 18만 8,223명(전체 36만 9,543명 중 51%)으로 가장 많다. 뒤를 이어 권선구 17만 5,205명(전체 37만 7,578명 중 46%), 장안구 12만 384명(전체 27만 5,875명 중 44%), 팔달구 9만 2,775명(전체 20만 4,317명 중 45%)이다.

5) 「"분묘 공원 흉물" – "문화재 이장 안해"」, 『경인일보』 2013년 7월 25일; 「창문 열면 '공동묘지' … 입주자 고민」, 『경인일보』 2016년 11월 14일.

6) 「도시화에도 동족촌 이루고 있는 '상주 황씨'」, 『용인시민신문』 2015년 8월 31일. 상주 황씨 묘역에 있었던 황효원의 사당인 襄平廟도 함께 여주시 북내면으로 옮겨 갔다. 양평묘는 본래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해 있던 것을 2001년 이의동 최죽골의 상주 황씨 묘역으로 이전하였다. 그러다 묘역이 광교신도시로 수용되며 묘역과 함께 다시 여주로 옮겨 갔다(『水原 二儀地區 宅地開發事業敷地內 墓域調査 報告書』, 고려문화재연구원 · 경기지방공사, 2005, 79쪽 참고).

7) 정해득, 「제1장 선현의 분묘와 석물」, 『수원시 이의동지』, 수원시, 2003, 329쪽.

8) 경기도박물관, 『경기도박물관 기증유물 보고서 – 청송 심씨 사평공파 출토유물』, 2022 참고.

9) 수원 관내 박물관이 수습하지 못한 것은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는 학예 인력이 부족해 나타난 현상이며, 학예 인력의 전문성과 중요성을 잘 드러내는 사례이다. 또한 이미 근무하고 있는 학예 인력이라도 지역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재교육이 필요하다. 관내 문화유산에 대한 정확한 파악은 물론 비슷한 사례에 대응하기 위한 메뉴얼을 마련해 내용을 공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10) 이민식, 『수원이의지구 택지개발사업부지 문화유적 지표조사보고서』, 기전문화연구원 · 고려문화재연구소, 2005, 170쪽.

11) 정해득, 「제1장 선현의 분묘와 석물」, 『수원시 이의동지』, 수원시, 2003, 337쪽.

12) 조선의 대표적인 유학자 李珥를 배향한 파주 紫雲書院 뒤편 구릉에는 이이 일가의 묘역이 조성되어 있다. 이 묘역의 경우 가장 위에 이이-李瑢(이이 형)-이원수와 사임당 신씨-李景臨(이이 아들)의 순서로 조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많은 명문가에서도 역장이 확인된다.

13) 趙絅, 『龍洲遺稿』 권15, 「吏曹判書訥庵金公墓碣幷序」; 『국조인물고』 권15, 卿宰, 「金瓚碑銘」.

14) 김주의 아들은 순서대로 김정표, 金正徽, 金正直, 金正夏, 金正會, 金正雅가 있으며, 이중 김정하는 문과에 급제하여 公州牧使를 지냈다. 李瑞雨의 『松坡集』에 「司憲府持平金公墓碣銘幷叙」가 전한다.

15) 『國朝人物考』 권19, 卿宰, 「鄭裕墓碣銘」.

16) 한신대학교박물관, 『한석봉의 서예 – 서거 400주기 추모전』, 2005, 5쪽.

17) 權諰, 『炭翁集』 권12, 墓碣銘, 「將仕郎鄭公墓碣銘」.

18) 『수원일보』 2011년 3월 14일; 『기증유물로 보는 수원 – 정오 묘 문인석』.

19) 경우에 따라 장대흥전줄다리기, 장작묘줄다리기, 하동줄다리기로 지칭된다. 장대흥전줄다리기나 장작묘줄다리기는 줄다리기가 행해지는 곳이 張以綱(1674~?)의 무덤을 장대흥 묘나 장작묘로 부르기 때문이다. 하동줄다리기는 길마재 일대를 하동이라 부르기 때문이다.

20) 金禹泳 · 蘇柄九, 『水原의 民俗 – 길마재 줄다리기(張大興墓前 줄다리기)』, 수원문화원, 1997, 18쪽. 본문 내용으로 미루어 1985년 이후 조사된 것임을 알 수 있으나 명확한 출판연대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21) 金禹泳 · 蘇柄九, 『水原의 民俗 – 길마재 줄다리기(張大興墓前 줄다리기)』, 수원문화원, 1997, 11~12쪽.

22) 『肅宗三十二年丙戌庭試別試文武科榜目)』(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B13LB-9)

23) 이상열은 「제4장 대동놀이 – '길마재 줄다리기'」(『수원시 이의동지』, 수원시, 2003, 259~261쪽)에서 길마재줄다리기를 크게 네 과정으로 나누었고 이 글에서는 이 구분을 따른다. 다만 최근 송미숙과 서정화가 작성한 「용인 독바위 줄다리기 연구」(『인문사회』 34, 인문사회21, 2019)에서는 ① 볏짚 모으기, ② 줄 만들기, ③ 줄 제사, ④ 줄 메고 돌기, ⑤ 줄쌈(줄싸움), ⑥ 줄 당기기, ⑦ 줄 처리로 다소 세분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24) 金禹泳 · 蘇柄九, 『水原의 民俗 – 길마재 줄다리기(張大興墓前 줄다리기)』, 수원문화원, 1997, 18쪽. 여성 쪽이 기울어지면 남자들도 여성 편에 붙어 줄을 당기기도 했다.

25) 金禹泳 · 蘇柄九, 『水原의 民俗 – 길마재 줄다리기(張大興墓前 줄다리기)』, 수원문화원, 1997, 18쪽. 불로 태울 경우 너무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며, 산불의 위험이 있어 삭을 때까지 보관했다고 한다.

26) 송미숙 · 서정화, 「용인 독바위 줄다리기 연구」, 『인문사회』 34, 인문사회21, 2019, 1113~1114쪽. 용인시의 경우 기존 길마재줄다리기라는 명칭을 탈피해 '독바위줄다리기'라 지칭한다.

27) 한동민, 「수원박물관 기증유물의 성격과 의미」, 『기증유물로 보는 수원』, 수원박물관, 2010, 9~10쪽.

28) 진성규 · 한동민, 「화은시집 해제」, 『역주 화은시집』, 수원시정연구원 수원학연구센터, 2021, 13~15쪽.

29) 한동민, 「수원박물관 기증유물의 성격과 의미」, 『기증유물로 보는 수원』, 수원박물관, 2010, 22쪽.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영통구의 도시계획과 도시개발

이창수 가천대학교 도시계획학과 교수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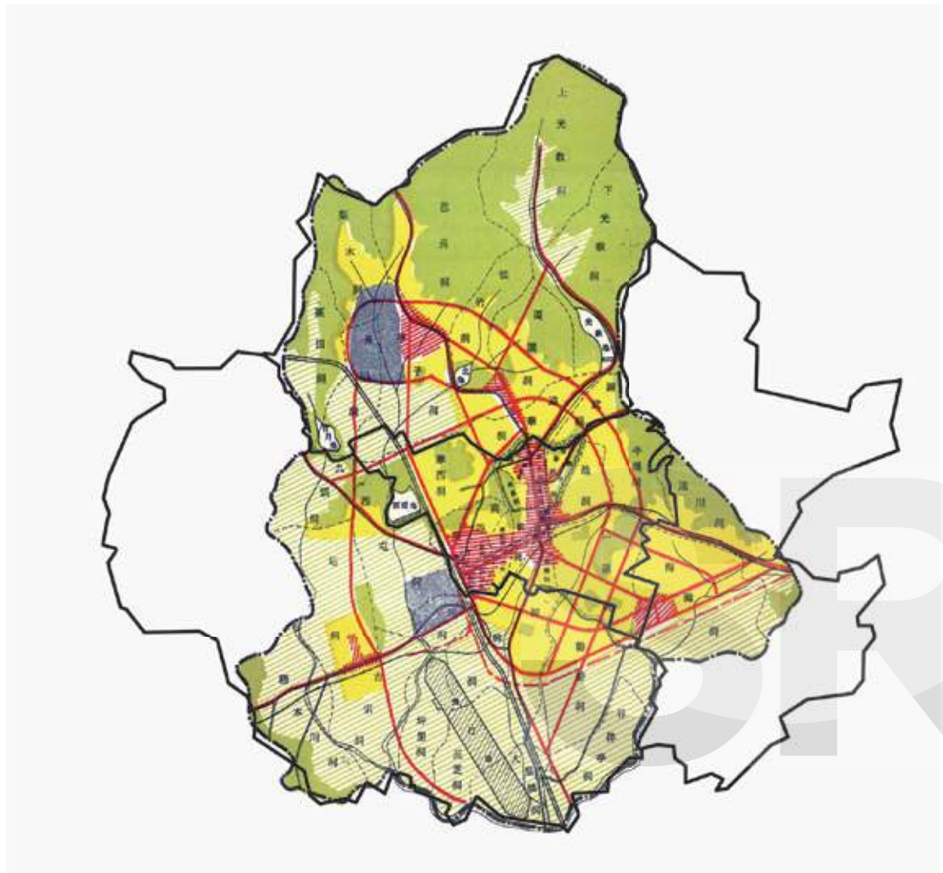
1. 수원시 도시계획 변천과 영통구

1) 1960년대 도시계획

1949년 시 승격 당시 수원시의 행정구역 면적은 23.35㎢, 도시계획구역 면적은 29.39㎢였다. 이 당시 오늘날의 영통구는 화성군 태안면, 용인군 수지면과 기흥면에 속하였다. 1963년 화성군 태장면, 안용면, 일왕면의 각 일부를 편입하여 시역(市域)이 83.67㎢로 대폭 확장된 시점에서도 수원시 도시계획구역 면적은 29.39㎢로 유지되었다. 이것은 오늘날의 영통구 행정구역의 일부가 수원시 행정구역으로 편입되었으나 도시계획구역으로 설정되지는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날의 영통구 행정구역 일부가 도시계획구역으로 포함된 시점은 1967년이다. 1965년 수원시 도시계획재정비계획 수립 시에 수원시 도시계획구역을 행정구역 83.67㎢과 일치시켜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을 계획하였고, 이 계획(1967년 7월 3일, 건설부고시 제478호)이 고시됨으로써 오늘날의 영통구 행정구역 일부가 수원시 도시계획구역에 포함되게 되었다. 당시의 도시계획구역에는 오늘날의 영통구 행정구역 전체가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매탄동과 영통동 일부가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그리고 녹지지역으로 결정되어 있다.

오늘날의 영통구 일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구상을 담은 계획안은 당시 비법정계획으로서 도시장기발전구상인 수원도시계획종합계획(1969년



1965년 수원도시계획 용도지역 지정계획도(안)

5월)이다. 이 계획은 용인 신갈 지역을 포함하여 수원시 도시계획구역을 확장(83.67㎢→121.66㎢)하고, 계획 목표연도 1988년에 인구 35만 명을 수용하는 도시계획 구상을 담고 있다. 이 계획은 신갈 지역 일부를 시가화할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영통구 행정구역 일원에 대해서도 주거기능과 공업기능을 배치하도록 하였다. 이 계획의 내용 대부분은 도시계획재정비계획(1969년 6월 11일, 건설부고시 제336호)에 반영되었다. 이를 통하여 삼성전자가 영통구에 입지함으로써 오늘날의 수원시 및 영통구로 성장하는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건설부고시 제336호(1969년 6월 11일) 결정 이후 1969년 10월에는 매탄동의 공업지역을 확장하기 위하여 화성군 태안읍 일부를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하여 도시계획구역 면적을 123.89㎢로 확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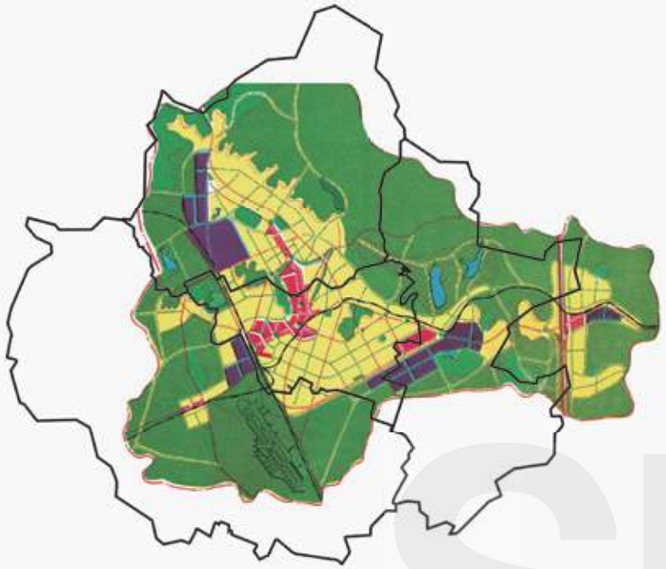


도시장기구상을 위한 기초조사자료(196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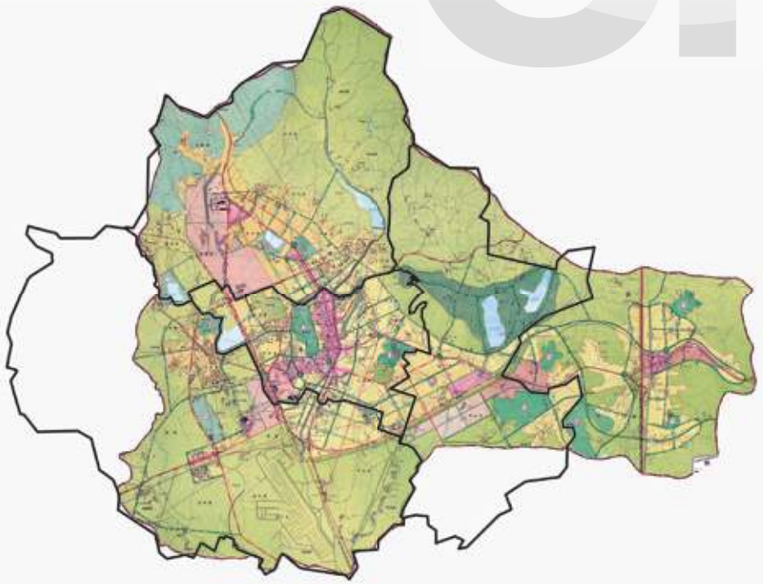


도시장기구상상의 도시기능도(1968년)

SU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수원도시계획종합계획도(1969년)



건설부고시 제336호(1969년 6월 11일)

2) 1970년대 도시계획

1970년대 한국사회는 공업화와 도시화, 특히 인구의 서울 집중이 가속화되었다. 이에 따라 서울 과밀 방지를 위해 서울의 인구 및 산업을 분산하고자 하는 정책이 수립되었다. 이러한 정책의 결과로 수원시에 선경합섬 공장 건립을 시작으로 삼성전자, 연초제조창(KT&G), 금강(KCC), 한일합섬, 선경화학(SKC) 등의 공장이 유치되었다. 이들 대기업 공장들은 1990년대 초반까지 수원 경제를 이끌어 나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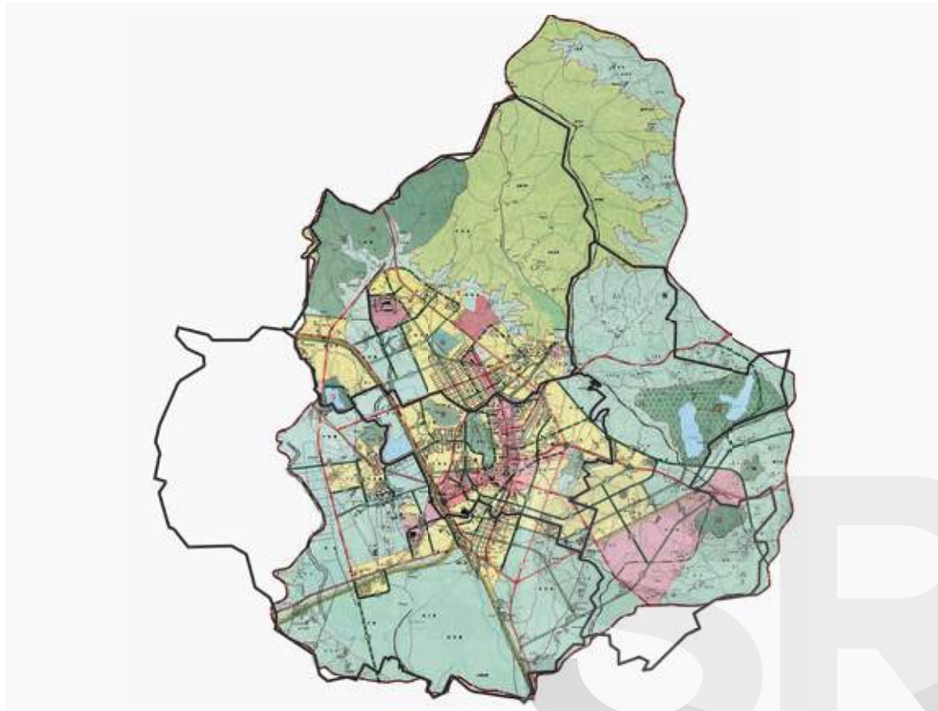
또한 제1차 국토종합계획의 확정, 개발제한구역(Green Belt)의 조정, 영동고속도로의 개통 등에 따라 기흥저수지와 민속촌 주변 지역을 계획성 있는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1972년 8월 11일 건설부고시 제339호에 의해 도시계획구역을 대폭 확장하여 202.854㎢로 변경하였다. 이때 확장 지역에는 용인의 수지 · 기흥 · 구성면과 화성군 태안면 일부가 포함되었다.

1970년대에 들어서는 국제적인 자원난 시대가 도래하여, 우량농지의 보전과 식량 증산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었다. '도시계획구역 내 농지보존을 위한 도시계획재정비지침'에 따라 시가화지역으로 개발토록 계획되어 있는 지역 중 우량농지가 편입되어 있는 지역은 녹지지역으로 전환하였다. 이로 인해 매탄동과 원천동 일원의 녹지지역으로 변경되었다.



건설부고시 제339호(1972년 8월 11일)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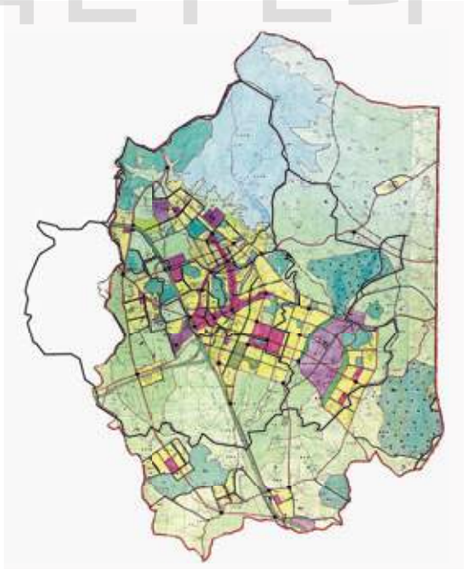
건설부고시 339호(1975년 1월 13일)

3) 1980년대 도시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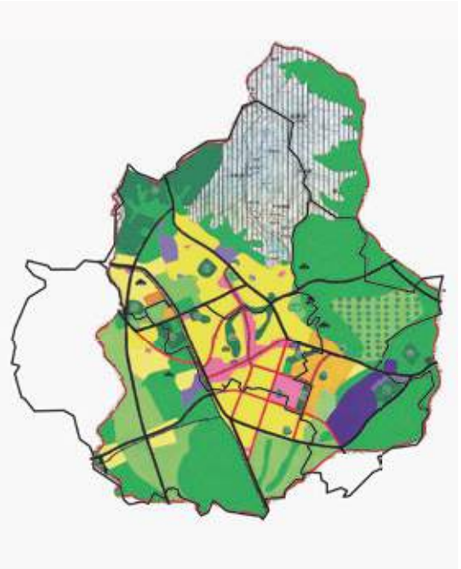
1980년에 이르러서 장기 발전적 관점에서 2000년대를 대비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수원시는 목표연도 2001년, 계획인구 80만 명의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이 계획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법정계획이 아니라 시정방향을 제시하는 장기종합계획의 성격으로서 수원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는 1984년까지 활용되었다. 이 계획에 의거하여 수원도시장기종합개발계획 실시계획(1982~1986)도 수립되었다. 이 계획은 비록 법적 규제력은 없었지만 수원시의 도시 성격과 위상을 재정립하였고, 도시개발 미래지표를 향후 20년까지 거의 정확하게 예측하여 그 의의가 크다고 판단된다. 이 계획에서 영통구 지역은 삼성전자 단지 이외에도 매탄동과 영통동을 시가지로 개발하는 것으로 제안되었다.

1980년대 초반에 영통구 도시개발과 관련한 가장 의미 있는 도시계획은 매탄지구 지정이다. 당시 팔달구에 속하였던 매탄동 일원에 매탄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에 필요한 용도지역 변경결정을 고시하였다. 주요 내용은 매탄동 일원에 약 3,400호의 주택을 건설하여 계획인구 1만 5,600명을 수용하고자 하는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자연녹지지역 21만 2,412㎡를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고시하였고, 초등학교와 공원 각 1개소씩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였다.

1981년 「도시계획법」의 개정으로 도시기본계획제도가 도입되었다. 수원시도 이에 따라 1984년에 2001년을 목표연도로 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수원시 최초의 도시기본계획으로서 1984년 12월 31일 승인된 수원도시기본계획은 2001년을 목표연도로 계획되었다. 도시계획구역은 당초 면적인 120.394㎢를 대상으로 하여, 기정 도시계획의 내용과 1981년에 수립한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수립되었다. 주요 개발전략은 도시골격의 구 시가지를 서부생활권 중심으로 설정하여 상업서비스기능과 유통기능을 부여하고, 현 시청이 입지하고 있는 신시가지를 동부생활권 중심으로 중심상업기능과 업무기능을 새로이 형성하는 2개의 도시 핵을 구상하는 것이었다. 이 계획으로 수원시청이 인계동으로 이전함으로써 매탄동 일원에 시가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고 이어 원천동, 영통동, 그리고 광교동이 순차적으로 개발될 수 있었다.



1980년 수원시 종합개발 계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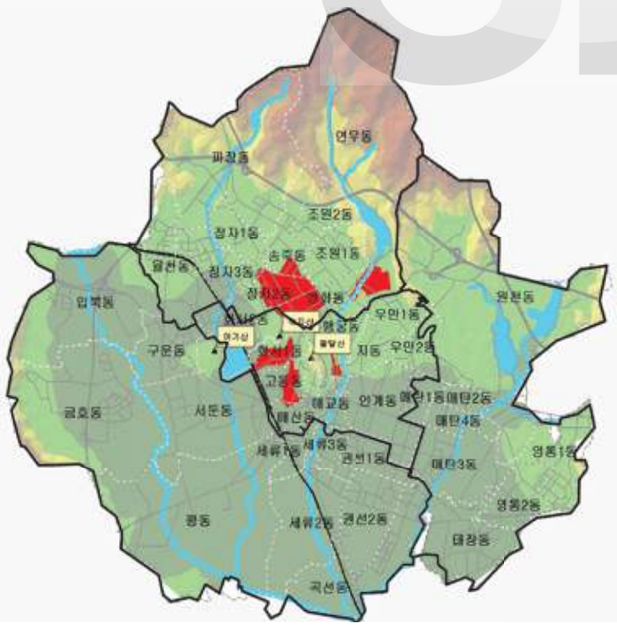


2001년을 위한 수원도시기본계획 구상도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경기도고시 제408호(1989년 12월 29일)



1980년 도시개발 현황

4) 1990년대 도시계획

1990년 수원시는 지속적인 인구 증가로 인해 1984년에 수립한 수원도시기본계획상 목표연도 2001년 계획인구가 57만 명을 훨씬 초과하게 되었다. 이러한 여건 변화에 따라 목표연도 2011년의 대상 구역면적 120.207㎢, 계획인구 150만 명을 수용하는 것을 골격으로 하고, 도시공간구조는 기존 도심과 부도심, 서수원 지역 중심, 북수원 지역 중심의 4개 다핵구조로 하는 제2차 수원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었고, 1993년 5월 14일 건설부에서 기본계획을 승인하였다.

수원시 도시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1990년대가 고시된 횟수나 규모로 판단할 때 도시의 변화가 가장 컸던 시기이다. 이 중에서 영통구와 관련한 고시는 1991년 2월 4일 원천지구 택지개발사업(경기도고시 37호), 1993년 12월 28일 수원 영통과 용인 영덕지구 택지개발사업(경기도고시 제1993-478호), 1995년 11월 15일 원천2지구 택지개발사업(경기도고시 제1995-395호), 1998년 2월 19일 매탄4지구 택지개발(경기도고시 제1998-73호), 1999년 6월 23일 신동 · 망포동 재정비(경기도고시 제1998-225호)사업 등이다.

경기도고시 제478호(1993년 12월 28일)는 수원 영통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한 계획이다. 1980년대 후반의 심각한 주택 공급 부족과 이에 따른 가격 앙등 현상을 최단 시일에 해결하기 위해 공급 최우선 정책으로 주택 200만 호 건설 계획을 추진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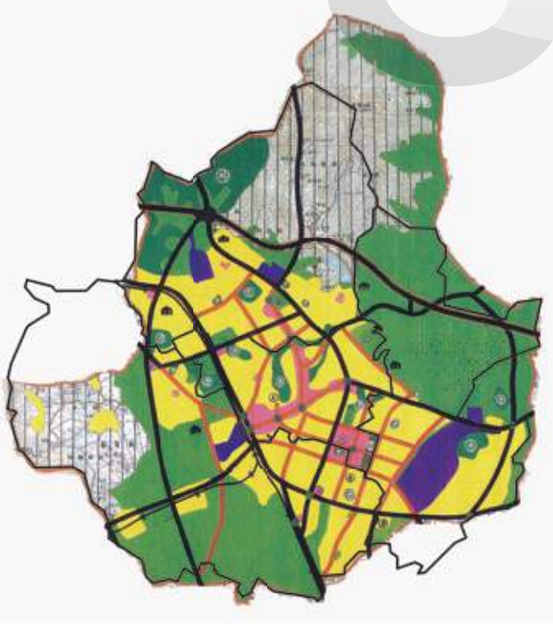
수원 영통과 용인 영덕지구 택지개발사업은 대단위 택지를 광역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수도권 주택 수용 증가와 서울시의 인구 분산정책에 대처함과 동시에 수원시의 주택 부족현상을 완화시키고 장래 수원시 발전에 대비한 신시가지를 개발하여 수원시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기 위한 계획이다. 이에 따라 수원시 권선구 매탄동, 화성군 태안읍 영통리, 신리, 용인군 기흥읍 영덕리 일원에 329㏊ 규모로 택지개발사업이 추진되었다. 인구 10만 명(2만 7,030세대)을 수용하는 계획으로 토지이용은 주택건설용지 37.6%, 상업업무용지 4.1%, 공공시설용지 58.3%로 계획되었다.

1995년 4월 20일(대통령령 제14629호) 행정구역 개편으로 화성시 행정구역에서 편입된 팔달구 신동과 망포동 지역에 대하여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재정비계획이 수립되었다. 신동과 망포동 지역은 도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원시로 편입되어 인접하고 있는 영통택지개발사업지구와 더불어 빠른 속도로 무질서한 난개발이 이루어져 교통과 환경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건설부고시 제152호(1991년 3월 25일)



2011년 수원 도시기본계획(1993년 5월 14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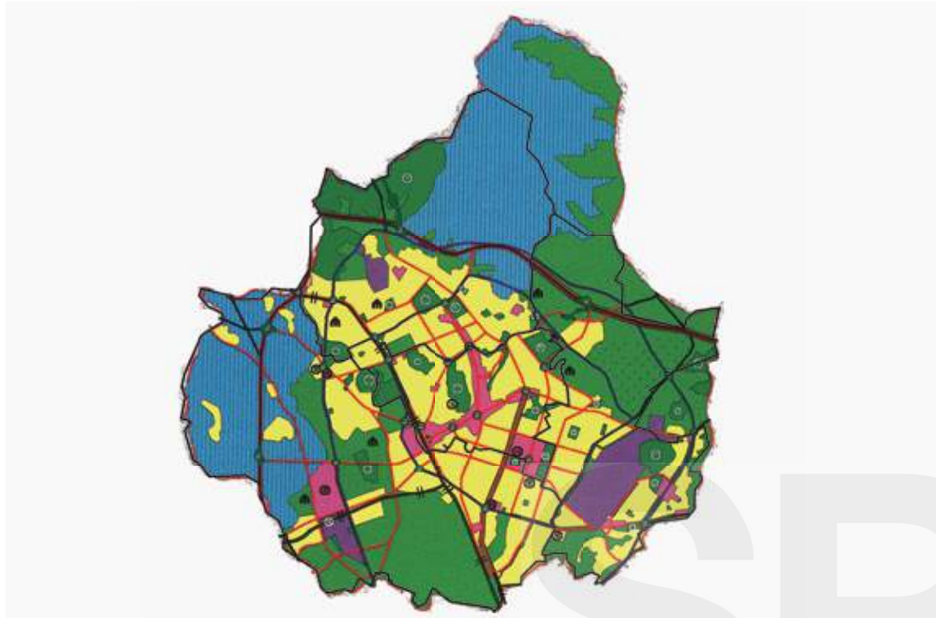


경기도고시 1996-314호(1996년 11월 18일)



경기도고시 1996-339호(1996년 12월 6일)

SRI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시정연구원
수원학연구센터



2016년 수원도시기본계획(1998년 7월 6일)



경기도고시 제225호(1999년 6월 23일)

등의 도시문제를 발생시켰다. 이에 따라 1998년 7월 13일 상위계획인 목표 2016년 수원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고, 1999년 3월 13일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여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 농림지역을 도시지역으로 편입하고 1999년 6월 23일(경기도고시 제225호) 신동과 망포동 지역에 대한 도시재정비계획을 결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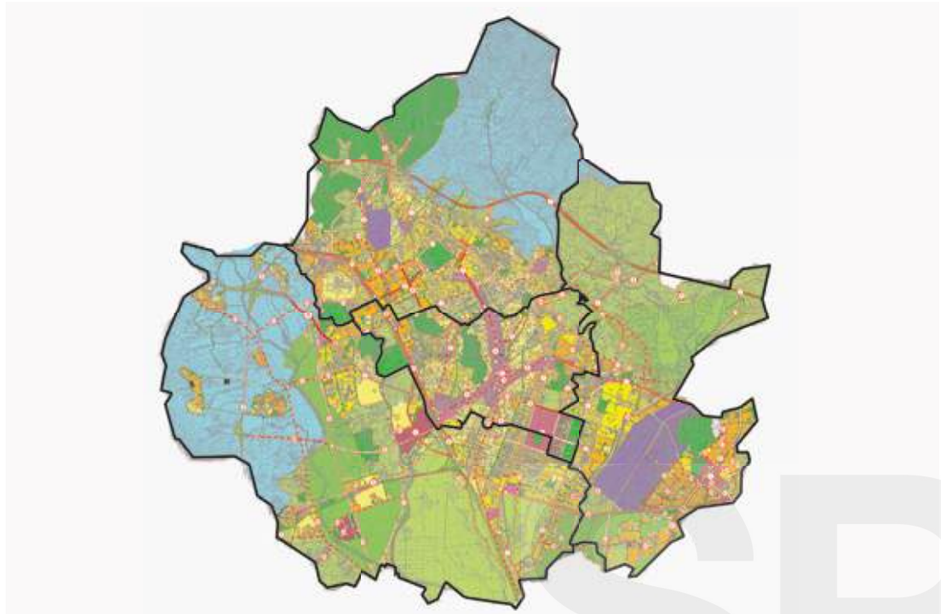
5) 2000년대 이후 도시계획

2000년대에 들어서 제4차 국토종합계획,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시행 등에 따라 미래지향적인 VISION을 제시하기 위한 도시공간체계의 변화를 고려한 계획으로서, 수도권 남부 거점도시로서 광역행정 · 업무, 역사 · 문화 관광, 유통, 산업경제 첨단산업 등을 선도하여 실질적인 중추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한 2020년을 목표로 하는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2003년 11월 17일 건교부에서 승인받았다. 계획인구 13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미래 발전방향을 제시한 계획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기본계획구역을 용인시 행정구역 17.612㎢를 제척하여 121.390㎢로 계획하였으며, 도시공간구조는 수원역과 이의동의 2개 광역상업 · 업무권, 북서쪽과 남동쪽에 2개 중심상업 · 업무권과, 삼성전자 및 영통지구를 지원하는 1개의 지역상업권으로 구상하고, 생활권계획으로는 경부선철도, 구 경계 및 수원시 주요 간선도로를 기준으로 4개의 대생활권으로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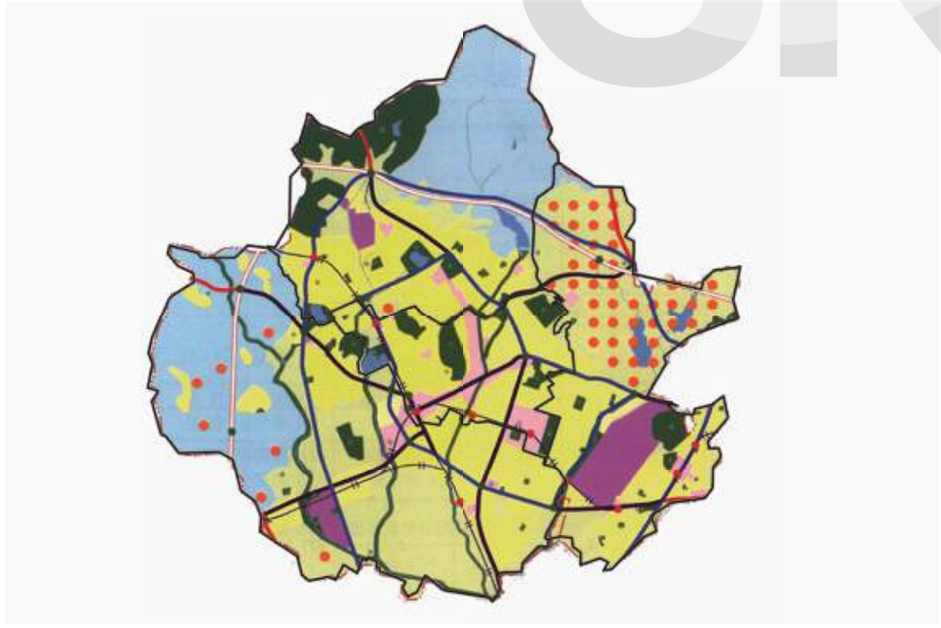
광역행정 및 첨단산업 입지를 통한 행정복합도시 및 자족형 신도시 건설, 수도권의 택지난 해소를 위한 신주거단지 계획을 통한 국민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과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일원에 광교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용도지역을 변경한 계획이 수립되었다.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였다. 토지이용계획은 부지면적 1,130ha에 인구 약 7만 8,000명(주택 약 3만 1,000호)을 수용하는 계획으로 주택건설용지 209ha(18.4%), 도시지원시설용지 50ha(4.5%), 상업업무시설용지 53ha(4.7%), 공공시설용지 819ha(72.4%)로 계획되었다.

광교신도시 개발, 호매실택지지구 개발, 권선구 행정타운 건설 등에 따른 도시 현안사업의 수용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도시공간구조 개편과 도시기능 재배치를 위해 기존의 도시기본계획의 변경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100만 이상의 도시로서 21세기 수원시가 지향해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경기도고시 제2003-146호(2003년 6월 17일)



2020년 수원 도시기본계획(2003년 11월 17일)

야 할 미래상과 도시 발전의 전략을 제시하고, 수도권 남부 중심도시로서 광역행정 · 업무, 교육, 유통, 첨단산업 기능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중추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위상을 정립할 수 있는 2020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경기도로부터 승인받아 2007년 9월 18일 공고하였다. '문화와 경제로 번영하는 행복한 도시! 수원' 건설을 미래상으로 설정하여, 2020년 계획인구 129만 명을 수용하며, 수도권 남부지역의 중추적 기능 확립과 지역 특성화 및 지역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 1도심, 2부도심, 3지역중심체계의 공간구조를 설정하고, 생활권은 수원시 전체를 하나의 대생활권으로 설정하여 공간구조 위계를 중심으로 하여 5개의 중생활권으로 재편하였다.

2. 영통구 도시개발

1) 영통구 도시개발 개관

수원시는 1981년 12월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고 1984년 3월에 사업이 시행된 매탄지구를 시작으로 20개 지구 총 2,330㏊의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였다. 1980년대에 4지구 203㏊, 1990년대에 15개 지구 997㏊가 시행되었고 2000년대에는 광교신도시 1,130㏊가 유일하게 택지개발사업으로 시행되었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시행된 19개 지구 중 영통구 행정구역 내에서 추진된 지구는 8개 지구 711㏊로 같은 기간에 수원시 행정구역 내에서 추진된 택지개발지구 면적의 59.2%를 차지한다. 매탄, 매탄1(인계동 일부 포함), 매탄2, 매탄3, 매탄4, 원천, 원천2지구의 사업면적 합계는 383㏊로 신도시 기준 규모 330㏊를 상회한다. 영통 · 영덕지구의 면적도 329㏊로 신도시 규모에 육박한다.

1980년대는 우리나라의 경제 고도성장기로서 인구의 수도권 집중 및 도시화가 매우 강하게 진행되던 상황이었다. 이와 같은 사회적 여건에 따라 수원시도 산업 및 인구가 고도로 성장하고 그에 따라 주택 및 도시 인프라를 대폭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었다. 당시의 매탄동은 자연녹지지역이었으나 서측 수원시 원도심과 동측 삼성전자단지를 연계하는 지점으로서 수원시 택지공급의 제1순위 입지조건을 보이고 있었다. 권선구의 권선동이 수원 원도심과의 접근성 측면에서는 더 유리하나 매탄동은 삼성전자라는 고부가가치 첨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표 1〉 수원시 택지개발 현황

사업 착수시기	장안·권선·팔달구		영통구		수원시 면적(㏊)
	지구	면적(㏊)	지구	면적(㏊)	
1980~1989년	우만	10.1	매탄	21.2	202.9
			매탄1(인계동 포함)	94.9	
			매탄2	76.7	
1990~1994년	권선	62.3	매탄3	65.0	
	권선2	32.6	매탄4	65.7	
	권선3	48.5	원천	42.0	
	정자	95.2	원천2	17.1	
	정자2	37.2	영통	328.7	
	화서	23.5			
	구운	53.1			
	천천1	24.7			
	천천2	83.0			
	조원	18.8			
	소계	478.9	소계	518.5	997.4
1980~1999년	누계	489.0	누계	711.3	1,200.3
2000년 이후			광교	1,130.5	1,130.5
계	11개 지구	489.0	9개 지구	1,841.8	2,330.8

단산업 거점단지 및 경부고속도로와의 접근성이 매우 탁월하여 권선동보다 앞서 택지개발사업이 추진되었다. 매탄지구가 수원시 내에서 최초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고 뒤이어 매탄1지구와 매탄2지구가 1980년대에 개발된 것은 이와 같은 사회적 여건과 수원시 도시정책, 그리고 수도권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주택공급정책이 맞물려 이루어진 결과라고 볼 수 있다.

1987년 수원시의 인구가 50만 명을 상회하게 되었다. 행정구를 설치할 수 있는 대도시 특례에 따라 1988년에 수원시에 장안구와 권선구를 신설하였다. 행정체계의 개편과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현대적 대도시로서의 시가지 확장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었다. 이러한 여건을 고려하여 1989년에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가 영통 · 영덕지구이다. 그동안 택지개발예정지구의 규모가 100㏊ 미만인 데 반해 영통영덕지구는 대규모(329㏊)로 지정하여 지구 단위로 도시 인프라를 자족적으로 확보하고자 하였다. 영통 · 영덕지구 택지개발사업은 1990년대 초반에 시행되었다.

1990년대 전반기 또한 지속적으로 산업 및 인구가 성장하는 시점이었다. 1980년대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다수의 지구들이 개발사업을 착수하게 되었다. 영통구 내에서는 영통 · 영덕지구와 원천지구가 개발사업을 착수하였다. 이 외에 권선지구, 화서지구, 천천1지구 등이 1980년대 말에 지구가 지정되고 1990년대 초에 사업을 착수한 곳이다. 매탄3지구, 매탄4지구, 원천2지구 등은 1990년대에 지구로 지정되고 1990년대 초중반에 사업을 착수한 곳이다.

수원시에서 2000년대에 택지개발사업이 추진된 지구는 광교신도시가 유일하다. 2004년 지구로 지정되어 2005년부터 사업이 시행된 광교신도시(1,130㏊)는 사업 대상면적이 수도권 1기 신도시 분당(1,960㏊), 일산(1,570㏊)보다는 작으나 500㏊ 내외 규모의 평촌, 산본, 중동신도시 규모의 2배를 상회하며 2기 신도시 동탄2신도시(2,400㏊)의 절반 크기이나 동탄신도시(900㏊) 크기를 상회한다.

이상의 분석 결과는 1980년대 이후 택지개발사업이 추진됨으로써 오늘날의 영통구의 시가지가 조성되었다는 것을 뚜렷하게 보여 준다. 7개 지구는 중소 규모의 개발사업이며 영통지구와 광교신도시는 신도시급 대규모 개발사업이었다. 결론적으로 영통구는 시가지 전역이 택지개발사업 추진으로 형성된 신시가지로 21세기의 첨단을 구현하는 중핵지역으로 성장하고 있다.

2) 영통지구 택지개발

영통지구는 오늘날 영통1~3동으로 사업 면적은 326㏊이다. 계획인구 9만 9,492인을 목표로 주택 2만 6,893호를 공급하는 개발계획이 수립되었다. 개발계획상의 토지이용은 주택건설용지 37.6%, 상업용지 4.1%, 공공시설용지 58.3%로서 여타의 신도시계획의 공공시설 용지율을 보여 정주환경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자 하였다. 영통지구 토지이용계획에서 특기할 점은 집단에너지공급시설(4만 537㎡)과 폐기물처리시설(3만 7,273㎡)을 계획하였다는 점이다. 영통지구는 도시 인프라의 자족성을 확보한 개발사업이다.

주택건설용지는 122만 6,333㎡로서 단독주택용지 10만 6,789㎡(주택건설용지의 8.7%), 공동주택용지 109만 852㎡(주택건설용지의 89.0%), 근린생활시설용지 2만 8,692㎡(주택건설용지의 2.3%)로 구성되었다. 공동주택용지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은 당시의 심각한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택지개발촉진법 자체가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취득 · 개발 · 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해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법률 제정 목적을 명시하고 있다.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표 2〉 영통지구 토지이용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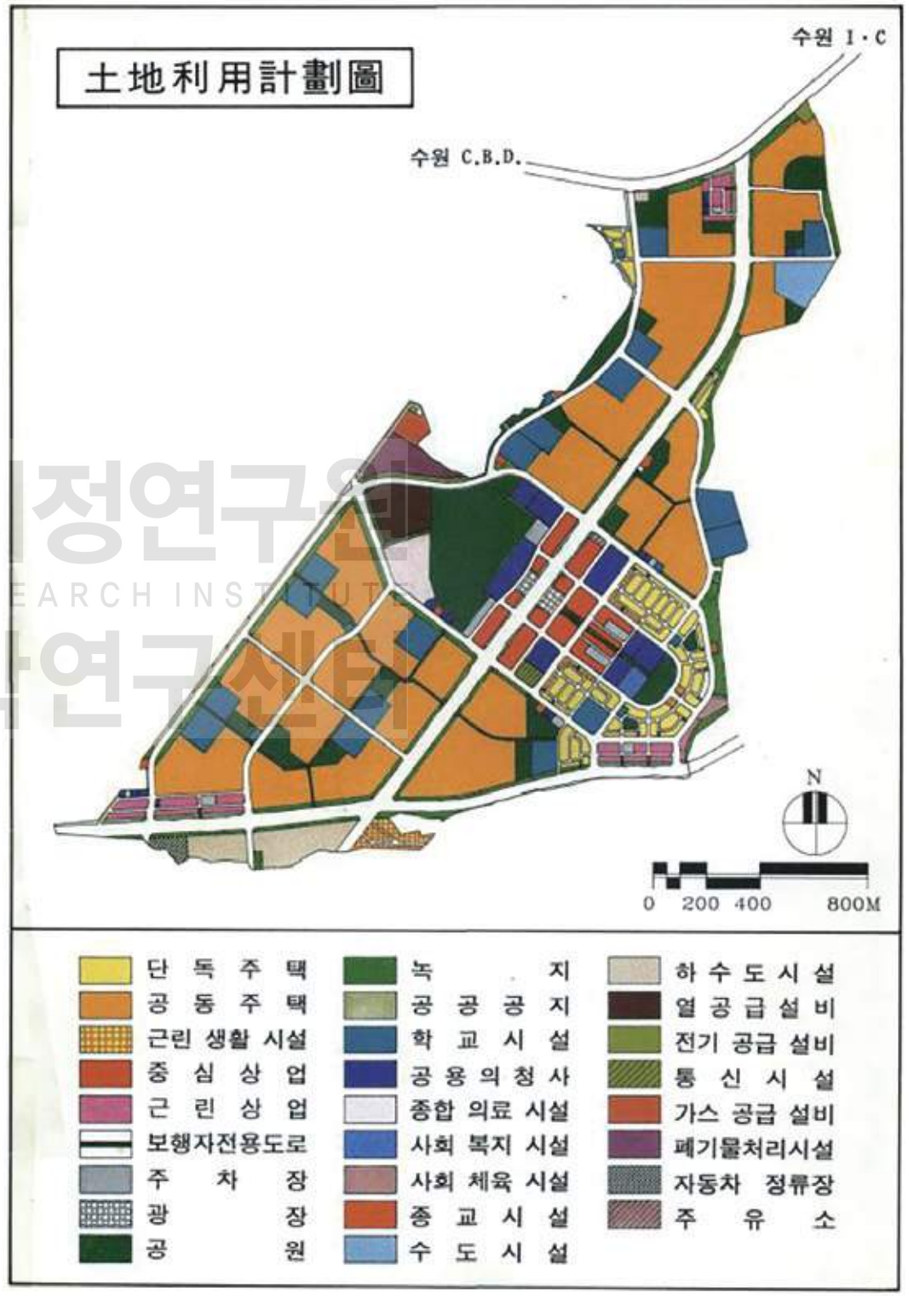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계		3,260,533.9	100.0	
주택건설용지	소계	1,226,333.2	37.6	
	단독주택	106,788.7	3.3	
	공동주택	1,090,852.4	33.4	
	근린생활시설	28,692.1	0.9	
상업용지	소계	133,584.2	4.1	
	중심상업	8,384.7	2.6	
	근린상업	48,199.5	1.5	
공공시설용지	소계	1,900,616.5	58.3	
	도로	764,141.2	23.4	
	광장	10,303.0	0.3	
	주차장	23,709.0	0.7	
	공원	342,689.0	10.5	자연1, 근린8, 어린이14
	녹지	203,800.2	6.3	완충녹지, 경관녹지
	공공공지	15,584.1	0.5	
	학교	230,839.6	7.2	
	공용의청사	93,109.8	2.9	초8, 중5, 고4, 유치원6
	종교시설	7,790.6	0.2	구청1 외 23
	생활체육시설	17,474.8	0.5	
	사회복지시설	7,193.1	0.2	
	폐기물처리시설	37,272.6	1.1	쓰레기소각장1
	집단에너지공급시설	40,537.1	1.2	지역난방1
	변전소	11,329.0	0.3	
	수도시설	26,496.3	0.8	배수지
	주유소	1,809.0	0.1	
	자동차정류장	9,247.0	0.3	
	공장용지	19,664.0	0.6	아파트형 공장
	종합의료시설	31,376.0	1.0	
	통신시설	5,981.1	0.2	전화국

자료 : 한국토지공사, 2000, 『토지개발총람 8-1999년도 사업준공지구』, 149쪽에서 발췌 후 재작성.

〈표 3〉 영통지구 주택건설용지

구분	면적(㎡)	획지수	평균 획지면적(㎡)
소계	1,226,333	63.5	1,931
단독주택	106,789	50.6	211
공동주택	1,090,582	23.0	47,428
근린생활시설	28,692	106	271

자료 : 한국토지공사, 2000, 『토지개발총람 8-1999년도 사업준공지구』, 149~150쪽에서 발췌 후 재작성.



영통지구 토지이용계획도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영통지구의 기반시설용지는 190만 617㎡로 지구 전체 면적의 58.3%이다. 이 중 도로는 76만 4,141㎡로 지구 전체 면적의 23.4%이다. 도로는 광로 27만 4,172㎡(연장 6,058m, 평균 폭원 45.3m), 대로 25만 4,176㎡(연장 9,135m, 평균 폭원 27.8m), 중로 11만 5,138㎡(연장 6,135m, 평균 폭원 18.8m), 소로 7만 4,487㎡(연장 7,709m, 평균 폭원 9.7m), 보행자전용도로 8,029㎡(연장 426m, 평균 폭원 18.8m)이다.

영통지구 내 공원은 34만 2,689㎡로 도시자연공원 1개 1만 7,471㎡, 근린공원 8개소 25만 6,807㎡, 어린이공원 14개소 6만 8,411㎡이다. 27호 근린공원은 14만 2,563㎡로 도시지역권 근린공원 규모이며 근린공원 31호는 3만 470㎡로 도보권 근린공원에 해당된다. 그 외 6개 근린공원은 1만~2만㎡ 규모로 도보권 근린공원이다. 어린이공원 14개소의 규모는 1,535~6,969㎡로 당시 공원법 규정에 따른 어린이공원 규모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다.

학교용지는 23만 840㎡로 지구 전체 면적의 7.2%이다. 학교는 고등학교 4개교로 1개교당 평균 규모 1만 6,943㎡, 지원인구 2만 4,870명이다. 중학교 5개소 1개교당 평균 1만 2,131㎡, 지원인구 1만 9,896명이다. 초등학교 8개소 1개교당 1만 2,181㎡, 지원인구 1만 2,435명이다. 유치원 6개소 1개교당 1,160㎡, 지원인구 1만 6,580명이다.



학교시설계획도



공동주택 블록별 주택 공급형태 구분도

〈표 4〉 영통지구 학교시설계획

구분	개소	면적(㎡)	개소당 면적(㎡)	학교당 인구수(인/개소)
계	23	230,840	10,037	-
유 치 원	6	6,962	1,160	16,580
초 등 학 교	8	97,450	12,181	12,435
중 학 교	5	60,655	12,131	19,896
고 등 학 교	4	67,773	16,943	24,870

자료 : 한국토지공사, 2000, 『토지개발총람 8-1999년도 사업준공지구』, 149~150쪽에서 발췌 후 재작성.
비고 : 학교당 인구수는 개발 및 실시계획 최종 변경 계획인구 9만 9,479명을 기준으로 산정함.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도로시설계획도



공원녹지계획도

3) 광교신도시 개발

광교신도시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이의동, 원천동, 하동, 팔달구 우만동, 장안구 연무동,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기흥구 영덕동 일원에 조성된 신도시이다.

광교신도시는 수도권의 택지난 해소를 위한 신주거단지 계획을 통한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 향상, 그리고 도시 중심성을 확보할 수 있는 도시 공간구조 형성 및 친환경적 도시환경 조성이라는 목표로 신도시 사업이 추진되었다. 2004년 6월 30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었고 2005년 12월 30일 택지개발계획이 승인되었다. 2007년 10월 30일 착공한 이후 2011년 7월 30일 신도시 주민들의 최초 입주가 이루어졌다. 수용인구는 7만 7,783인(69인/ha), 수용호수는 3만 1,113호(2.5인/가구)이며 사업시행주체는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경기도시공사이다.

광교신도시를 계획하기 이전부터 이의동 일원에 대해서 수원시는 원도심 기능의 재편 및 첨단 대도시에 부합되는 새로운 도시기능 유치를 위하여 단위 시설별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다. 경기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에 이어 수원컨벤션시티21 사업, 도청사 및 행정타운 입지계획 등이 진행되면서 주변지역 난개발과 주민 민원, 단위 사업으로 추진시 예상되는 기반시설의 부족과 기능시설 상호간의 연계성 부족 문제 등이 제기되었다. 이에 수원시 이의동 일원에 지역특성화에 맞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 · 시행함으로써 토지이용의 극대화를 도모함은 물론 지역 발전의 계기로 활용하고자 종합계획을 검토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도 수원시 이의 · 원천 · 하 · 우만 · 연무동 및 용인시 상현동 · 기흥읍 영덕리 일대에 경기첨단행정신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택지개발에 본격화되었다.

광교신도시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수원시 행정구역 내 면적은 976ha으로서 지구지정 당시 용도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 5ha(0.5%), 녹지지역 971ha(87.7%)이며 용인시 행정구역 내 면적 131ha(11.8%)는 모두 자연녹지지역이었다. 95.5%가 자연녹지지역이므로 지목은 대부분 임야 457ha(40.5%)와 전 · 답 349ha(21.0%)으로 전체의 61.5%를 차지하고 대는 68ha로 6.0%이다. 광교신도시 계획에서는 이와 같은 지역 특성을 최대한 고려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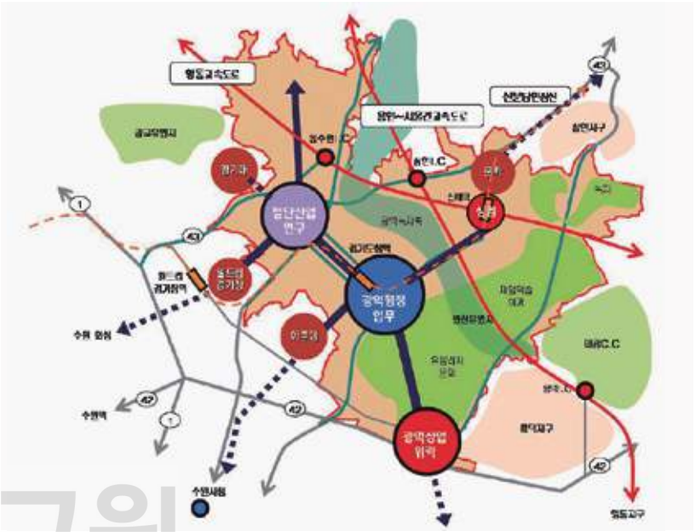
광교신도시의 개발 목표는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주체가 된 신도시의 모델을 만든다는 것이었다. 주택 공급 중심의 기존 신도시의 문제에 대응하여 광교신도시는 주택 공급과 더불어 사람과 자연이 공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존하는 최고의 명품도시 건설을 목표로 계획되었다. 광교신도시는 입지 여건을 최대한 살려 생태계 보전에 입각한 그린플랜(Green Plan)의 원칙 아래 기존의 자연을 그대로 살리는 친환경 계획을 수립하였다. '공원녹지 비율 43.8%'는 자연과 인간이 서로의 영역을 지켜 가며 공생하는 친환경 도시를 만들겠다는 노력의 결과이다.

광교신도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안점을 두고 계획되었다. 첫째, 대중교통 지향적인 개발(TOD)과 복합용도개발(MUD)을 도모하였다. 지하철역, 버스 정류장을 주요 도시 기능시설과 통합 개발하여 대중교통 거점으로 개발하고 시설에 대한 이용과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둘째, 토지이용의 효율성은 유지하되, 광장 · 공원 및 수변부의 개방형 워터프런트 등 다양한 개방공간(Open Space)을 확보하고 이들 상호간뿐만 아니라 도시기능시설들과 연계하고자 하였다. 셋째, 광역녹지축, 원천저수지 등 지역을 대표하는 자연자원 특성과 첨단도시기능시설의 특성이 제각기 정체성을 확보하면서도 상호간의 도시적 맥락을 갖고자 하였다. 넷째, 그린플랜(Green Plan) 개념을 도입하였다. 광교산 녹지축 및 원천저수지, 신대저수지에 대한 생태적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훼손된 생태계와 녹지축을 복원, 정비하고 지구 내 소하천을 살려 물순환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다섯째, 수요자 특성을 고려한 주택 유형을 도입하였다. 광역행정 · 업무, 첨단산업 등 도시 핵심기능에 종사하는 주민이 조기에 입주할 수 있도록 고품격 정주 공간을 마련하고 가구원 특성에 따른 주택 유형을 개발하고, 소득과 계층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사회적 통합을 유도하였다. 주거단지의 입지적 특서에 다라 주택유형을 다양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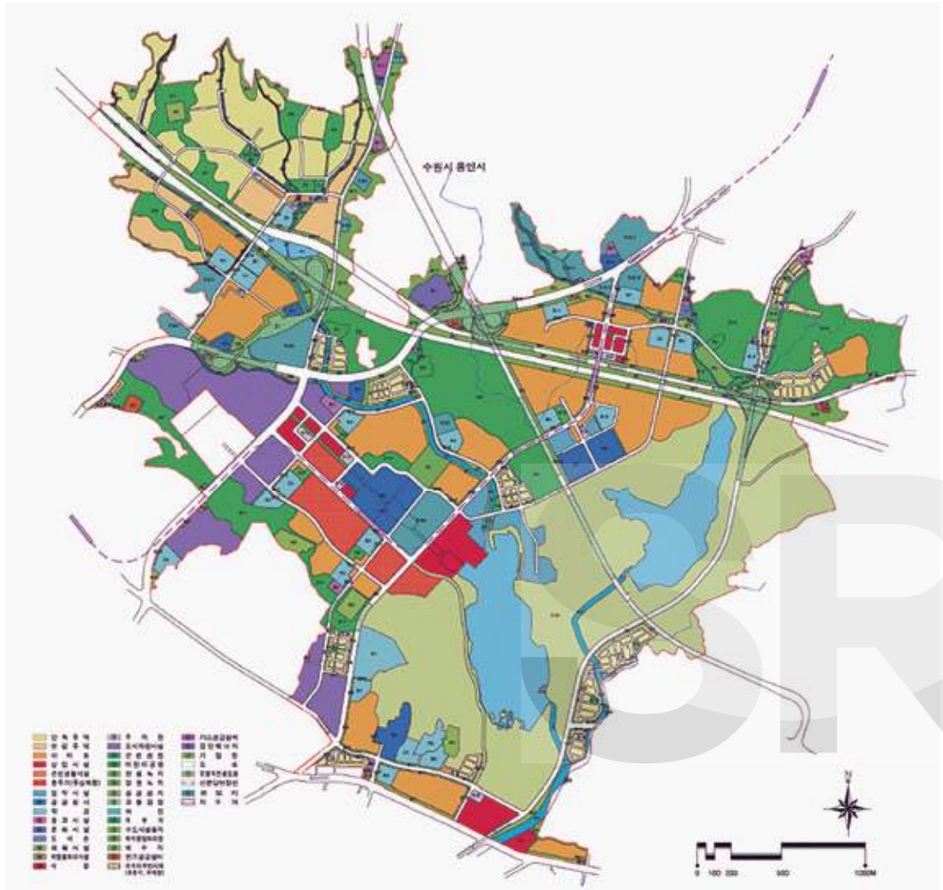
광교신도시 도입기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광교신도시 개발을 활성화할 수 있는 핵심 선도 기능으로서 광역행정기능을 도입하였다. 경기도청, 고등법원 및 고등검찰청 등 광역행정기능은 다양한 도시기능을 연계 ·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둘째, 기업 본사 · 지사급의 업무시설, 국제전시시설 등 광역업무기능을 도입하였다. 이 기능은 경기도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광역상업시설과 교외형 호수공원을 중심으로 도심형 테마관광산업 거점으로서 역할을 도모하였다. 특히 광교호수공원은 도심 속 휴양지로 부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넷째, 광교신도시 내에 첨단산업 · 연구 기능을 육성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인근 대학(아주대, 경기대, 경희대 등), 기업(삼성전자 등)과 연계한 산 · 학 · 연 클러스터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섯째, 고품격 정주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신주거단지 모델을 제시하였다. 또한 자연환경과 조화된 친환경 주거단지 개발로 웰빙도시의 이미지를 강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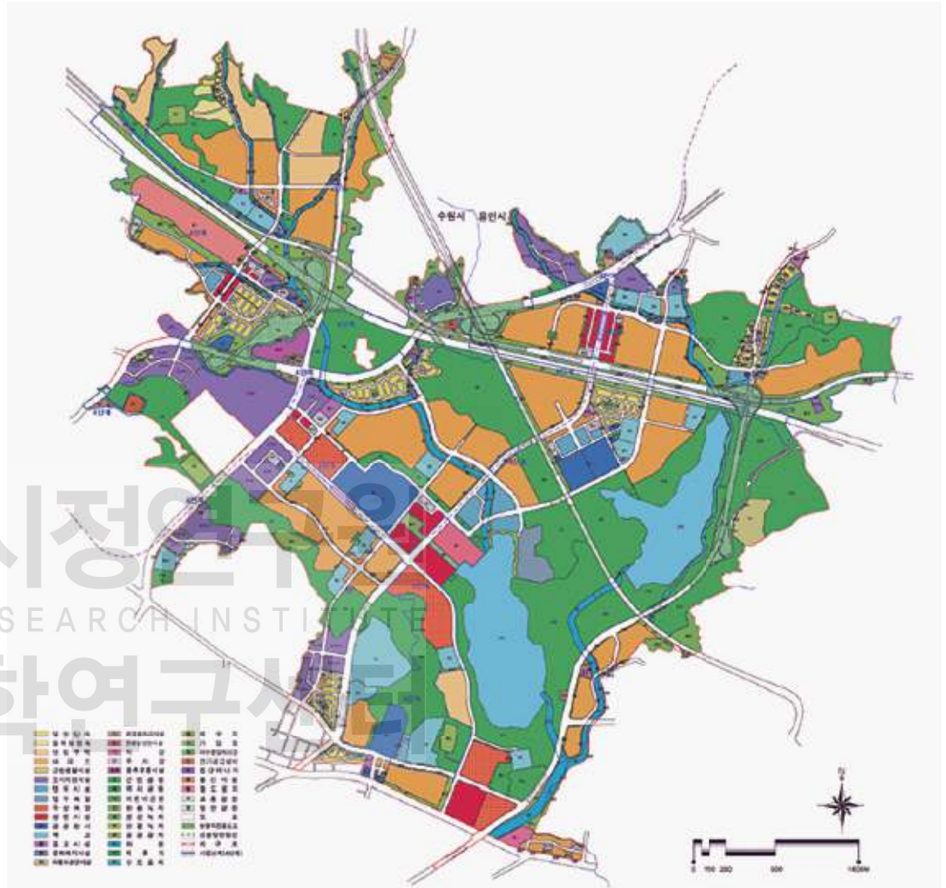
개발구상도(2005년 12월 30일)

광교신도시의 공간구조 및 기능배치 구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 H자형 도시구조를 통한 유기적 도시 연계이다. 남북 축 2개를 설정하고, 2개의 남북 축을 동서로 연결하는 주 활동 축을 설정하여 H자형 도시 구조를 형성하고, 주요 도시기능이 연계되도록 하였다. 둘째, 신분당연장선 철도 계획을 반영한 대중교통체계 및 역세권을 형성하였다. 이에 더하여 광교중앙역에는 도심형 환승센터를 구상하였다. 셋째, 커뮤니티 회랑을 통한 보행 중심 친환경도시 체계를 구축하여 커뮤니티 회랑과 이와 연계된 공공시설, 교육시설, 주민편의시설, 공원 등을 집적 배치하여 주민 일상생활의 활동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도심과 호수공원의 유기적 통합을 도모하였다. 원천저수지 남측은 도시 용도로 활용하면서 문화시설과 도심형 상업 기능을 복합한 워터프런트와 연계하였다. 원천저수지 남측 입구에는 광역상업 기능을 배치하여 북측 워터프런트와 연결되는 개발 축을 형성하고, 신대저수지와 함께 광교신도시의 핵심 공원으로 계획하였다.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광교신도시 개발계획 승인 시 토지이용계획도(2005년 12월 30일)



광교신도시 개발계획 17차 토지이용계획도(2015년 11월 11일)

토지이용계획에서 주택용지는 환경친화적이고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낮은 주택용지율(20.1%)로 계획하고 단독주택의 공급 확대로 단독 : 공동 = 35.8% : 64.2%로 배분하였다. 상업 · 업무시설용지의 경우, 광교의 도심은 주변지역과의 연관성, 지역 중심성, 행정타운의 상징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 중심의 상권으로 조성하고,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이 배분되는 동쪽지역에 있는 신분당연장선 역사의 최적 위치를 감안하여 지역 중심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도시지원시설용지는 단지 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나노펩 특화센터 등과 연계가 용이한 동수원IC와 밀레니엄로 변에 집중 배치하여, 광교테크노밸리 조성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였다.

공원 · 녹지용지는 광역녹지축상의 녹지대를 공원으로 계획하며 하천을 따라 부녹지 축을 계획하였다.

광교신도시 건설에 따라 불가피하게 등장한 것이 수원시와 용인시 간의 행정구역 경계 조정 문제였다. 광교신도시 내 접경지역이 영동고속도로를 기준으로 부정형(좌 · 우측)으로 편재되어 주민생활권이 단절되고 도시기반시설 관리에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토지이용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불용지 발생 등 불합리한 점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광교신도시 조성 후 도시 기능의 최적화를 위해 행정구역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경기도는 다음과 같이 양 시간의 행정구역 조정을 확정하였다(대통령령 제

SRI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시정연구원
수원학연구센터

19875호, 2007년 2월 8일 공포 시행). 수원시와 용인시 간에 경계 조정을 통해 편입 면적의 증감은 없었다.

광교신도시의 토지이용계획은 주택건설용지 18.4%, 도시지원시설용지 1.0%, 상업업무시설용지 4.5%, 공공시설용지 72.7%로 계획되었다. 공공시설 중 공원녹지 비율이 43.8%로 매우 높은 비율을 보인다. 이것은 광교호수공원의 비율이 높은 데에 기인한다.

광교신도시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19차) 및 실시계획(20차) 변경에서 다음 네 가지 사항에서 토지이용계획 변경이 있었다. 첫째, 공공청사 면적이 2만 8,444㎡ 감소하고 주상복합용지 8,700㎡, 업무용지 1만 9,744㎡가 추가되었다. 둘째, 수원외곽순환도로 실시계획 승인 결과 경관녹지 618㎡가 증가되고 완충녹지 466㎡, 교통광장 285㎡, 하천 65㎡가 감소되었다. 셋째, 국도 43호선 및 한전 진입도로 시공 결과 반영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이다. 완충녹지가 443㎡ 증가되고 근린공원 35㎡, 도로 408㎡가 감소되었다. 넷째, 지적 확정 측량 결과를 반영한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이다. 철도부지 면적 55.3㎡가 감소하고 완충녹지(24호) 부지면적이 13.5㎡, 인접 도로 면적이 41.8㎡ 증가되었다. 완충녹지(9호) 부지면적이 6.0㎡ 증가하고 인접도로 면적이 6.0㎡ 감소하였다. 위험물 처리시설(7호) 부지와 하천(8호) 부지 면적이 각각 50㎡, 5㎡ 감소하고 인접 도로 면적이 51.0㎡ 증가하였다.

〈표 5〉 광교신도시 개발계획 토지이용계획

구분			최초승인(2005.12.30.)		17차 변경(2015.11.11.)		증감
			면적(㎡)	비율(%)	면적(㎡)	비율(%)	
주택건설용지	총계		11,278,267	100.0	11,304,494	100.0	26,227
	합계		2,263,883	20.1	2,085,270	18.4	-178,613
	단독주택		725,532	6.4	237,137	2.1	-488,395
	공동주택	소계	1,298,273	11.5	1,739,814	15.4	441,541
		연립	210,302	1.9	244,576	2.2	34,274
		아파트	1,087,971	9.6	1,495,239	13.2	407,268
	근린생활시설		40,351	0.4	108,319	1.0	67,968
	준주거(주상복합)		199,727	1.8	상업·업무시설용지로 변경		
도시지원시설용지			513,019	4.5	503,376	4.5	-9,643
상업·업무시설용지	합계		305,899	2.7	530,090	4.7	224,191
	업무시설		111,369	1.0	98,118	0.9	-13,251
	업무복합		0	0.0	50,957	0.5	50,957
	주상복합		주택건설용지의 준주거		221,823	2.0	22,096
	상업시설		194,530	1.7	159,192	1.4	-35,338
공공시설용지	합계		5,126,893	45.5	4,949,715	43.8	-177,178
	근린공원		1,313,157	11.6	3,588,566	31.7	2,275,409
	역사공원		0	0.0	140,580	1.2	140,580
	어린이공원		53,327	0.5	23,540	0.2	-29,787
	완충녹지		418,849	3.7	437,363	3.9	18,514
	공원녹지	경관녹지	234,787	2.1	326,416	2.9	91,629
		연결녹지	0	0.0	6,531	0.1	6,531
	공공공지		146,068	1.3	146,630	1.3	562
	하천		175,663	1.6	280,088	2.5	104,425
	유원지		2,785,042	24.7	0	0.0	-2,785,042
	저류지		22,197	0.2	0	0.0	-22,197
	수도공급설비		77,137	0.7	101,146	0.9	24,009
	하수종말처리장		56,700	0.5	21,828	0.2	-34,872
	전기공급설비		15,689	0.1	14,464	0.1	-1,225
	가스공급설비		9,722	0.1	0	0.0	-9,722
	집단에너지공급시설		34,404	0.3	32,575	0.3	-1,829
	교통광장		279,187	2.5	287,431	2.5	8,244
	일반광장		0	0.0	7,029	0.1	7,029
	철도용지		0	0.0	130,901	1.2	130,901
	도로		1,395,894	12.4	1,647,481	14.6	251,587
	보행자도로		32,368	0.3	17,488	0.2	-14,880
	유보지		356,061	3.2	0	0.0	-356,061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광교신도시의 광역 교통체계로 도입된 것은 신분당선 연장과 용인-서울 간 고속도로이다. 2007년 5월 16일 신분당선 연장선 구간을 단계별로 공사하는 것을 건설교통부 직권으로 확정하고, 신분당선 연장선을 포함하여 광교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였다. 신분당선 연장선 정자-광교 구간(13.8㎞)이 완공됨에 따라 2016년 1월 30일 5시 30분부터 운행에 들어갔다. 광교 중앙역에서 강남까지 31분, 광교(경기대)-강남은 37분 만에 접근이 가능하게 되었다. 용산까지는 40분대에 이동이 가능하게 되어 수도권 남동부 지역의 교통난이 크게 완화되었다.

광교신도시의 호수공원은 광교와 수원뿐만 아니라 수도권 남부지역의 광역적 근린공원으로 기능할 수 있는 일상적이고 시민친화적인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광역 레저 · 문화 기능과 신도시 주민을 위한 공원 기능을 복합하고 휴식 · 레포츠 · 관람 · 학습 등 다양한 유형의 옥외 활동 체험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수려한 자연경관과 어우러진 매력적인 건축물과 조경 조성을 위하여 유원지 시설은 활동이 집중될 수 있는 지역에 집약적으로 배치하여 시설 활성화와 주변 자연경관을 최대한 보전하고자 하였다. 특히 1기 신도시 개발과정에서 보이는 자연환경이나 지형을 평탄화하고 도시를 건설하는 유형에서 벗어나, 기존의 환경을 유지 보존하면서 토지개발을 진행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는 초기 영통신도시 개발에서도 보이지 않았던 개발유형이다. 최근 개발되는 2기 · 3기 신도시의 특징으로 부득이한 경유를 제외하고는 최대한 환경을 살려 진행하는 개발방식의 초기형태이다.

3. 영통구 도시공간 변천의 함의

2023년은 수원시 영통구가 신설 2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자 영통구 일부인 매탄동과 원천동이 '수원시'로 편입된 지 6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지난 60년간 영통구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의 변천을 살펴본 결과 영통구의 오늘은 수원시의 도시특성과 도시정책, 영통구의 입지적 특성, 그리고 경기도와 중앙정부의 국토 및 지역정책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된다. 오늘날 영통구는 수원시를 이루는 구성요소이고 수원시의 양적 · 질적 성장을 견인하는 중추적인 행정구이다. 이와 같이 영통구가 성장하기까지 영통구는 수원시 및 장안구 · 권선구 · 팔달구로부터 도시 성장의 직접적인 추동력과 간접적인 영향효과를 수혜하였다.

첫째, 영통구의 오늘날은 수원 화성 축조가 기원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화성 축조 이전의 수원도호부 관아가 있었던 융건릉 일원은 삼성전자 및 경기도청으로부터 7~10㎞ 이격되어 있다. 반면에 화성과 영통구의 거리는 4㎞ 내외이다. 영통구의 입지는 화성이 축조됨으로써 개발 및 성장잠재력이 더욱 커지게 되었다.

둘째, 수원시의 역사문화적 특성에 의한 영향이다. 수원도호부가 화성 축조 이후 정2품 경관직 유수가 임명되는 유수부로 승격되었고 1896년에는 한성부에 설치었던 경기감영이 수원으로 이전되었다. 경기감영이 있다는 것은 경기도의 수부도시라는 것을 의미한다. 1910년에 서울로 이전된 경기도청을 경기도로 복원하는 논의 과정에서도 경기감영이었던 수원의 역사성이 크게 작용하여 1967년 수원시로 경기도청이 이전하였다. 이로써 수원시는 경기도의 수부도시로서 광역행정기능을 비롯한 중추기능이 집적되는 도시로 급성장하게 되었고 그 영향으로 영통구 신설에 이르게 되었다.

셋째, 수원시의 지속적인 도시 성장이 영통구의 신설 및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화성 축조 이후 수원시의 도시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국도 1호선이 수원을 경유하고 경부선 철도 또한 수원을 경유하게 되었다. 또한 경부고속도로가 수원 동측으로 신설되었다. 수원시의 도시 위상에 더하여 광역교통 인프라가 확충됨으로써 수원시는 대도시로서의 성장 잠재력이 더욱 커지게 되었다. 이로써 수원시 시가지가 동측으로 확장되었다. 수원시청을 원도심 화성과 영통구를 연계할 수 있는 인계동으로 이전함으로써 영통구의 도시개발 잠재력이 더욱 커질 수 있었다.

넷째, 수원시의 산업정책에 의한 영향이다. 일제강점기까지 농업도시로 특화된 수원시는 1960년대부터 SK, 삼성전자 등 유수한 기업을 유치하여 도시의 자족성을 높였다. 자족성이 확보된 도시는 튼실한 지속성장이 가능하다. 특히 삼성전자는 영통구 도시개발에서 절대적 강점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다섯째, 영통구는 수원시 도시계획으로부터 도시개발의 직접적인 추동력을 부여받았다. 1967년 수원도시장기구상으로부터 영통구 일원에 대한 공업지역과 주거지역에 대한 구상이 있었다. 이와 함께 수원시 시가지를 확장하는 추진과정에서 원도심 화성 일원 중심으로 인계동 → 매탄지구 → 원천지구 → 영통지구 → 광교신도시로 이어지는 단계적 · 순차적 개발이 이루어져 원도심과 영통구가 연계 발전할 수 있는 맥락을 확보하였다. 영통의 개발은 동

SRI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시정연구원 수원학연구센터

수원 개발의 연장으로, 수원의 도시를 가장 크게 변화시킨 사례라 할 수 있다. 원도심에서 동수원으로 확장되면서 수원시 도시 경역이 가장 큰 변모를 맞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수원시의 제반여건에 더하여 오늘날의 영통구는 자체의 입지적 강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수원시 원도심 및 신도심 인계동 일원과의 접근성이 양호하다. 이것은 영통구가 첨단산업 입지로 유리할 뿐만 아니라 광역 도시 서비스 접근성이 양호한 정주환경의 시가지를 형성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 영통구 관내에 삼성전자라는 세계적 첨단산업기업이 입지하고 있다. 첨단산업 입지는 도시의 자주성 및 도시성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산업집적 및 시민생활을 지원하는 도시정주환경이 지속적으로 향상되었다. 그 결과로 산업 및 인구의 증가, 시가지의 확장이 이어지면서 영통구 신설에 이르렀다.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수원시'로 인해 오늘날의 수원시 영통구가 20주년을 맞고 있다. 셋째,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 용인-서울 간 고속도로 등 간선도로망과 분당선과 신분당선 등 도시철도가 지원되어 광역교통 접근성이 탁월하다. 넷째, 아주대학교와 경기대학교가 영통구 관내에 있으며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가 인접하여 있다. 또한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 캠퍼스가 근거리에 있다. 이들 대학교는 교육기능뿐만 아니라 연구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영통구와 수원시의 산업, 문화 등 제반 영역에 기여한다. 다섯째, 광교산 녹지 축과 원천리천을 비롯한 하천들이 영통구를 환경 ·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정주지로 발전시키고 있다.

영통구의 오늘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와 중앙정부의 국토 및 지역정책을 통하여 대규모적 신개발이 추진되었다. 우리나라 화두의 하나인 수도권 주택문제가 단기간에 아파트를 공급하는 택지개발사업으로 귀결되면서 영통구가 짧은 기간에 대규모 시가지로 변화하였다.

광교신도시는 지하철역과 버스정류장을 중심으로 대중교통을 강화하고, 이를 주요 도시 기능시설과 통합하여 대중교통 거점을 형성하고 시설에 대한 이용과 접근성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둔 대중교통 중심 개발,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유지하면서도 광장, 공원, 수변부 워터프런트 등 다양한 개방공간을 확보하고 이들을 도시기능시설과 연계하여 활용한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개방공간 조성과 광역녹지축, 원천저수지 등 지역의 자연자원과 첨단도시기능을 조화시키면서 상호간의 도시적 맥락을 유지하는 자연자원과 도시기능의 조화, 그린플랜 개념을 도입한 광교산 녹지축, 원천저수지, 신대저수지 등의 생태적 연속성을 확보하고, 훼손된 생태계와 녹지축을 복원하며 물순환 시스템을 도입하여 친환경적인 도시를 만들었다. 그리고 다양한 주택 유형과 사회적 통합을 위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 주택 유형을 다양화하고, 소득과 계층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광교신도시는 광역행정기능 도입을 도입해 경기도청, 고등법원, 고등검찰청 등 광역행정 기능을 통해 광교신도시의 개발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도시 기능을 연계 및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그리고 광역업무기능 도입을 추진하여 기업 본사 및 지사급의 업무시설, 국제전시시설 등을 도입하여 경기도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였다. 거기에 도심형 테마관광산업 거점 도모하여 광역상업시설과 교외형 호수공원을 중심으로 도심형 테마관광산업을 발전시키며, 광교호수공원을 도심 속 휴양지로 부각시키는 역할을 하도록 했고, 인근 대학 및 기업과 협력하여 산업 및 연구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광교신도시 내에 첨단산업 및 연구 기능을 육성하고,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신주거단지 모델을 제시하고, 친환경 주거단지를 개발하여 웰빙도시의 이미지를 강화하였다.

이상과 같이 영통구 도시개발과 공간 변천 그리고 공간 변천을 추동한 원동력을 살펴보았다. 검토 결과 영통구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오늘의 영통구로 성장하는 과정에 작용한 제반 요소 및 여건들과의 맥락을 적극 유지할 필요가 있다. 수원 원도심 및 삼성전자, 그리고 대학 및 도시 기능 시설과의 연계, 녹지축과 수계축과의 맥락 등은 지속적으로 유지 · 발전되어야 한다. 다만, 수도권 주택문제 해결이라는 목표하에 단기간에 아파트 위주로 조성된 시가지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고찰이 필요하다.

SW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참고문헌

경기도시공사, 2016, 『광교백서』.
수원시, 2019, 『70, 수원시 공간의 역사』.
한국토지공사, 2000, 『토지개발사업총람8 - 1999년도 사업준공지구』.
국토교통부, 『수원 광교 신도시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19차) 및 실시계획 (20차)변경안 승인 고시』.

영통구의 경제와 삼성전자

황병주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관
유상희 서울대학교 석사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 지역경제와 기업

영통구는 광교신도시와 영통지구 등 수원 동부지역의 급속한 개발에 따라 폭증한 인구를 감당하기 위해 2003년 11월 24일 신설된 구로 2023년 3월 말 현재 인구 36만 9,789명으로 수원시 전체 인구의 30.14%를 차지하고 있다. 신설된 해인 2003년 24만 6,730명에서 10년 만에 50% 가까이 증가했으니 가히 폭발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영통구의 인구 증가는 수원 전체의 인구 증가와 대비해도 인상적이다.

2003년 수원 인구는 104만 223명에서 2022년 122만 5,058명으로 증가해 증가율은 10.89%에 불과해 영통구 증가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인구 증가는 산업화와 도시화의 명백한 지표이다. 수원의 인구 변화는 한국의 산업화 과정과 그대로 겹쳐진다. 특히 1980년대 이후 인구 증가가 눈에 띄는데, 2000년 초까지 급격하게 증가하다 그 이후로는 증가세가 크게 꺾인다. 서울의 인구가 1980년대 이후 증가세가 둔화된 것과 수원의 인구 급팽창이 연결되는 대목을 통해 서울의 비대화와 수도권 위성도시의 확대가 밀접히 관련됨을 알 수 있다.

비슷한 패턴이 영통구에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수원의 인구 증가가 완만해지거나 정체 현상을 보인 것과 달리 수원의 외곽에 해당하는 영통구는 급속하게 인구가 늘어난 것이다. 해당 시기 수원의 인구 증가 18만 4,835명 중 영통구 증가분은 12만 3,059명으로 66.6%에 달하였다. 영통구에 신도시가 개발된 주요 요인 중 하나는 교통과 관련된다. 경부선 철도와 경부고속



망포동에서 바라본 영통구 전경과 삼성전자(김승일 제공)

도로를 양옆에 끼고 있는 위치상 서울을 비롯한 전국과의 연결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입지에 큰 영향을 받은 것이 삼성전자다.

삼성전자는 영통구의 가장 대표적인 입주 기업이다. 삼성전자는 자타공인 한국 최고의 기업이자 세계적으로도 첨단 기업으로 인정받고 있다. 삼성 매출액은 2022년 300조 원이 넘어 한국 GDP 대비 13%를 넘었고 수출 비중은 18% 내외가 된다. 스마트폰은 세계 최대 판매량을 몇 년째 유지하고 있고 반도체는 인텔과 1~2위를 다투고 있다. 현재 시점에서 삼성이 한국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최고의 상품임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덩치가 커진 만큼 삼성전자는 단지 경제 분야의 일개 기업으로 한정되지 않는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한다. 삼성공화국이라는 말이 회자되는 것도 무리가 아닐 터이다. 총수 일가의 근황은 언론의 핫이슈가 되고 주주 총회가 열리는 때면 각종 언론 지면에 관련 기사가 도배된다. 세계 최초, 최대로 수식되는 기사가 끊이지 않고 보도된다.

물론 삼성전자가 늘 긍정적 내용으로만 나타나지는 않는다. 각종 부정부패와 추문의 온상지이기도 하다. 1961년 5 · 16 쿠데타 이후 부정축재 기업으로 낙인찍혀 절체절명의 위기에 내몰렸는가 하면 1960년대 중반에는 사카린 밀수사건으로 다시 한 번 세인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3대 세습 과정에서 각종 편법과 불법으로 총수가 구속되는 지경까지 내몰리기도 했다. 정권과 기업의 유착에서부터 집안 내 알력에 이르기까지 한국사회가 보여 줄 수 있는 부정적 모습을 다 포함한 스캔들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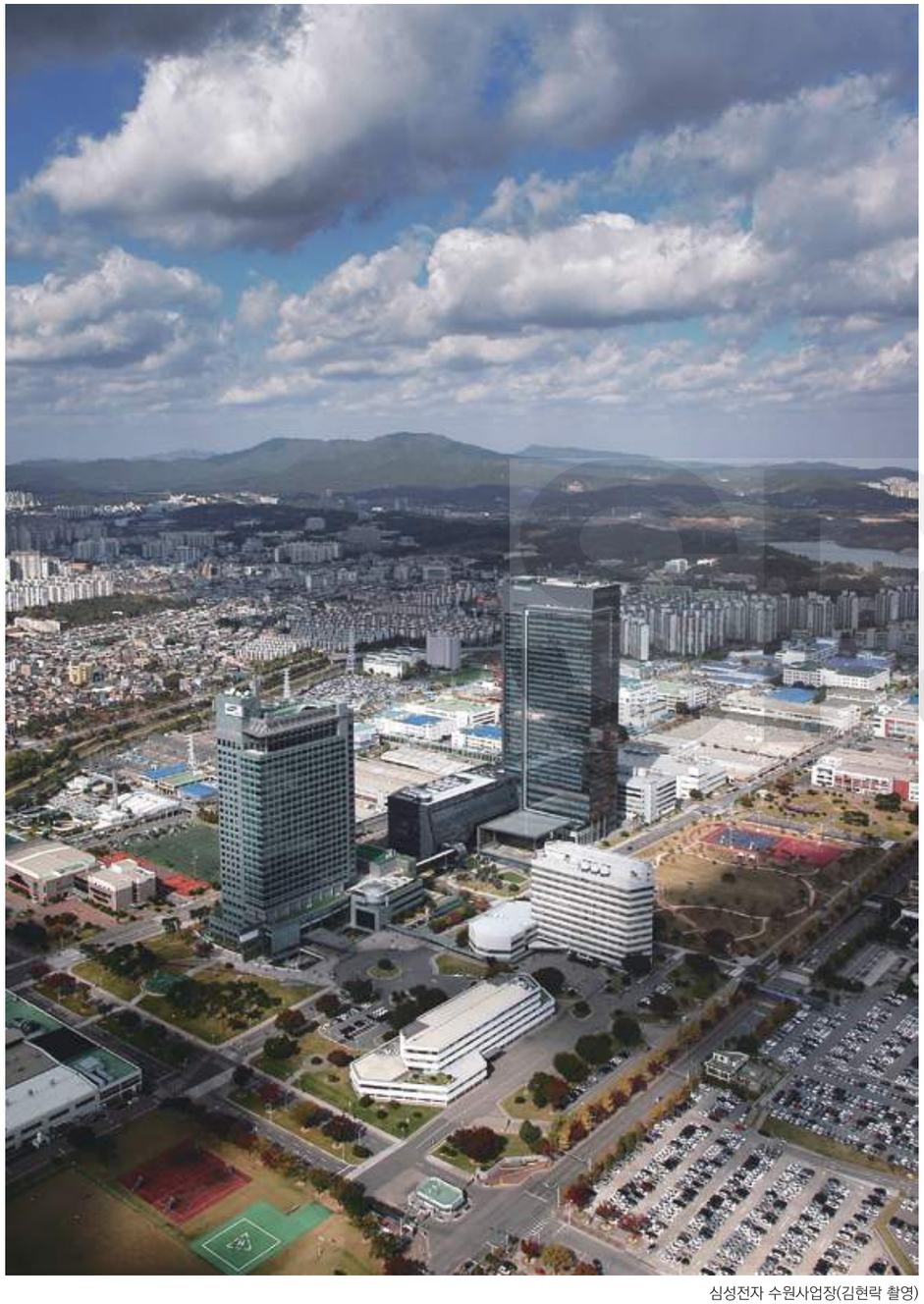
세계와 한국 차원에서 운위되는 삼성은 수원 지역 차원에서 느껴지는 삼성과 많이 다른 모습일 터이다. 삼성전자의 CEO는 세계적 기업 CEO들과 허물없이 어울리고 마치 국경이 없는 것처럼 자유롭게 전 세계를 주유한다. 자본의 사회적 형식으로서 현대 기업의 특징은 초국적성이다. 자국 내수시장만으로 글로벌기업이 될 수는 없다. 특히 한국처럼 내수시장의 규모가 작은 경우 세계 시장을 상대하는 것은 사활을 건 문제가 된다. 그러나 아무리 초국적 성격이 강한 거대 기업이라 해도 특정 국가에 귀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대 세계체제의 특징이기도 하다. 이른바 국민국가와 국민시장의 조합은 근대 이후 대표적 시장–국가 체제로 통용되고 있다.

다시 말해 국가를 매개하지 않는 자본–기업은 세계 체제와 세계 시장에서 존재하기 힘들다. 삼성 역시 한국이라는 특정 국민국가에 귀속되며 국가가 제공하는 경제외적 서비스가 없다면 기업으로 존립할 수조차 없을 터이다. 그 국가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막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 역시 근대 조세국가의 기본 원리에 속한다. 국가 귀속성의 가장 확실한 징표 중의 하나가 본사 위치다. 삼성 본사가 수원 영통구에 있다는 것은 삼성이 한국에 속한 자본–기업임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 준다.

국가와 자본–기업의 관계는 비교적 분명하지만 사실 지역과 기업 사이의 관계가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주지하듯이 기업이 경제를 책임지는 실체이자 사회의 대표적 조직 형식이 된 것은 근대 이후의 일이다. 자본주의적 산업화와 함께 기업은 경제를 넘어 사회 전체를 대표하는 조직처럼 된다. 이는 시장 질서가 경제를 넘어 사회 전체를 규율하게 되는 것과 궤를 같이한다.

그런데 특정 지역과 기업 간의 관계가 도드라지는 경우가 있다. 울산은 현대자동차와 중공업의 도시로 알려져 있고 거제 하면 몇몇 기업의 조선소가 연상된다. 포항은 무엇보다 포항제철의 도시로 각인된다. 세계로 눈을 돌려보아도 이러한 경우가 적지 않다. 일본의 도요타시는 도요타자동차의 본사가 있는 도시이며 미국의 디트로이트는 자동차 기업의 메카로 여겨진다. 실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심성전자 수원사업장(김현락 촬영)



2012년 프로축구 수원삼성 관객(수원박물관 제공)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리콘밸리가 첨단 테크기업의 본고장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즉 지역이 기업을 만들었다기보다 기업이 지역을 재구성해냈다는 인상이 강하다.

수원도 삼성의 도시로 알려진 경우가 많다. 각종 프로 스포츠만 보더라도 삼성과 수원의 결합은 낯설지 않다. 물론 이것은 삼성전자가 수원에 처음 터를 잡은 것으로부터 기원한다. 1969년 삼성전자의 수원 입주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수원에도 커다란 사건이었고 한국사회 전체의 변화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했다. 기업이 지역을 재편하게 된 하나의 상징적 사건일 터이다.

그런데 지역과 기업의 경제적 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의외로 간단치 않다. 특히 구 차원에서 특정 기업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삼성전자가 영통구에 위치하고는 있지만 실제 영통구 주민들과 어떠한 경제적 관련하에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의외로 애매하다는 것이다. 기업과 지역이 경제적으로 관련되는 것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세금 관련이다.



영통구청과 삼성전자(2014년, 수원박물관 제공)

근대국가는 조세국가로 불릴 정도로 세금에 근거해 국가를 운영한다. 중상주의 국가인 독일 제국의 경우만 하더라도 황실 소유 재산으로부터의 수입이 국가재정의 절대 비중이었다. 조선왕조도 세금과 함께 지대 수입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근대국가는 정치적 권리 부여와 조세 수취를 사회계약의 형태로 교환한 셈이다. 또한 조세는 국가재정 운용을 통해 경제적 재생산 과정에 투입됨으로써 경제의 중요한 영역을 이룬다.

영통구에 위치한 삼성전자는 한국 최고의 기업답게 매년 막대한 법인세를 납부한다. 지역에는 법인세의 10%에 해당하는 법인 지역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즉 수원시는 삼성 법인세의 10%를 지방세수로 확보하게 되는 셈이다. 그런데 이 세금은 수원시로 귀속되며 영통구에 직접 전달되지 않는다. 영통구는 다만 수원시의 재정집행에 따라 그 일부를 간접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뿐이다.

다음으로는 기업의 경제행위에 따른 관계인데, 이 부분도 영통구와 수원의 경우그 관계가 명료하지 않다. 먼저 삼성전자는 글로벌 기업답게 전 세계의 공장을 운영하며 영통구에 위치한 것은 본사와 연구조직이다. 본사 위치는 세금과 관련해서는 중요하지만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분은 분명치 않다. 본사는 생산 조직이 아니기에 관련 협력업체가 본사 주변에 위치할 필요는 없다. 연구조직도 직접 생산이 없기에 관련 협력업체가 제한된다. 게다가 삼성은 서울과 수원 사이 수시로 본사 위치가 변경되었다.

지역 상권 활성화도 꼼꼼하게 따져볼 문제이다. 삼성 디지털시티는 3만 4,000여 명의 직원을 포함하고 있지만, 거대 기업답게 내부 복지시설도 탄탄하다. 사내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어린이집도 있어 직원들의 외부 시설 이용 필요성을 반감시킨다. 지역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기업 운영에 여러모로 편리하기에 삼성도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일회성 행사로 지역과의 안정적 경제관계를 형성할 수는 없다. 수시로 본사 이전을 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삼성은 자신의 경영 필요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지 지역의 이해관계가 중시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삼성전자 설립부터 현재까지 영통구 지역과의 경제적 관계가 어떠했는지 실질적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2. 삼성전자 설립과 지역사회의 영향

삼성이 전자산업을 시작한 것은 1960년대 후반 정부가 전자산업 육성정책에 박차를 가한 것과 관련된다. 1969년 전자공업진흥법이 제정되었고 이어 전자공업진흥 8개년계획(1969~1976)이 발표되는 등 정부는 중화학공업 이전부터 전자산업 육성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에 1966년 이른바 사카린 밀수사건으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있던 이병철은 1968년 경영복귀와 함께 전자산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 삼성은 결국 이병철 주도로 일본 기업들과 제휴하여 전자산업을 시작하였다. 1968년 11월 산요전기와 자본 · 기술협정을 맺은 것을 시발로 NEC 등과의 합작도 진행되었고 1969년 1월 13일 삼성전자 설립등기를 마친다.[1)]

초창기 삼성전자는 일본 전자산업을 거의 그대로 벤치마킹하였다. 이병철은 40만 평 규모에 달하는 도쿄 인근 산요전자 공장을 둘러보고 서울 인근 수원에 41만 평 규모의 공장부지를 확보하고자 했다. 서울은 물론 지방과도



1971년 삼성전자 TV 생산라인(수원박물관 제공)



1980년대 삼성전자 일대 전경

쉽게 연결되는 교통 여건에 값싼 가격의 토지를 찾던 삼성이 주목한 곳이 곧 현재 수원의 매탄동 삼성 디지털 시티 지역이다. 산요가 그랬던 것처럼 삼성도 수도 인근에 대규모 전자산업 단지를 조성하고자 했다. 공장 건설과 제품 생산이 본궤도에 오르게 되면서 1973년 9월에는 서울 본사를 수원으로 이전하게 된다.

삼성전자의 성장은 굳이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미 잘 알려져 있다. 라디오와 TV로 시작해 냉장고, 세탁기 등 각종 가전제품으로 확장되었고 전자부품, 통신기기에 이어 1980년대에는 반도체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였다. 이후 컴퓨터, 휴대폰 등 현재 삼성의 주력 생산품으로 영역이 확장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굴곡도 있었지만 사업 확장에 따라 1984년에는 창립 16년 만에 총매출 1조 3,516억 원을 기록해 업계 최초로 매출 1조를 돌파하였다. 이 과정에서 분리되어 있던 삼성 반도체 통신과 삼성전자가 통합되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1988년 말 삼성전자는 종업원 3만 8,500명에 자산 2조 2,000억 원에 달하는 국내 최대 전자업체로 성장하였다.[2)]

1987년에는 수원사업장에 정규 대학원 석사과정 수준의 2년 과정 사내 기술대학원을 설립해 운영하기 시작했으며 1990년에는 삼성전자기술대학을 설립하였다. 이어 1991년에는 수원에 협력회사 종합연구소를 준공해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초창기 수원사업장은 경남 양산 가천사업장과 함께 삼성의 핵심 생산단지였으며, 또한 각종 교육, 연구 시설들이 들어서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1980년대 후반부터는 해외 생산기지를 확충하기 시작한다. 동남아시아를 비롯해 스페인, 포르투갈, 영국 등의 유럽 그리고 터키까지 확장되었다. 또한 1990년대 초반 동구 공략을 위해 헝가리, 슬로바키아 등지에 현지 공장을 설립하게 된다.[3)] 이렇게 삼성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지는 것은 자본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진전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었지만 그만큼 국내 시설 확충은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도 했다. 즉 수원사업장의 확장은 일정한 한계에 도달하게 된 셈이었다.

삼성전자의 획기적 발전을 가능케 한 것은 반도체였다. 1991년 삼성 반도체는 메모리 분야에서 세계 1위를 달성했고 이후로 현재까지 1위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다. 1995년 삼성은 수출 100억 달러를 돌파한다. 이는 한국 전자산업 총수출의 31%에 달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폭발적 성장을 가능케 한 반

SRI 수원사적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997년 호주타운즈빌 자매도시 결연방문단 삼성전자 방문(수원박물관 제공)



1999년 삼성전자 일부 이전에 따른 기자회견(수원박물관 제공)

도체는 수원 이외의 사업에서 생산되었다. 기흥, 온양, 부천 등 새롭게 구축된 반도체 생산단지들은 수원사업장의 독보적 위치를 넘볼 정도가 되었고 점차 수원사업장의 재편을 모색하게 된다. 한편 본사가 자주 이전된 것도 수원사업장의 성격 변화와 관련해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설립 당시 서울에 두었던 본사는 1973년 수원으로 이전했다가 1980년대 중반 다시 서울로 돌아갔다. 1980년대 후반에는 재차 수원으로 옮겼다가 1990년 또다시 서울로 이전하게 된다. 그러나 2016년 도로 수원으로 돌아왔는데, 최근 서초동 사옥으로의 재이전설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잦은 본사 이전은 삼성의 경영상 필요에서 이루어졌다고 하겠는데, 수원사업장의 위상이 수시로 변동되는 원인의 하나가 된다.

21세기 들어 수원사업장은 본격적으로 연구개발 중심의 단지로 재편되었다. 그 출발을 알린 것은 2001년 12월 지상 25층, 지하 4층으로 완공된 정보통신연구개발센터이다. 3,000억 원의 공사비가 투입된 이 건물은 연면적 4만 평 규모로 분당, 기흥, 서울 등지에 흩어져 있던 각 연구 인력을 한데 모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설되었다. 이미 2001년 삼성의 연구 인력은 1만 7,000명으로 전체 임직원의 30%에 육박할 정도였다. 2003년에는 2만 명을 넘어섰고 그다음 해에는 2만 4,000명에 달하였다. 2003년 9월에는 지상 35층, 지하 5층 규모의 디지털연구소 건설을 시작해 2005년 9월에 완공하였고, 연구단지로서의 성격을 더욱 강화하였다. 단일 연구소로는 동양 최대로 수용인원만 9,000명에 달하였다. 이로써 백색가전 생산기지로 시작된 삼성의 수원공장은 연구개발 단지로 성격을 일신하게 된다.[4]

21세기 들어 삼성은 전국의 8개 사업장을 크게 4개 권역으로 나누어 단지를 조성키로 한다. 그 결과 수도권은 반도체와 연구 개발단지, 충청권은 차세대 디스플레이 사업과 크리스탈밸리, 구미사업장은 차세대 고부가 정보통신단지, 광주권은 디지털 컨버전스 생활가전의 대중국 성장단지 등으로 특화시키고자 했다. 이 구도 하에서 수원사업장은 연구 개발단지로 성격이 재조정된 것이며 삼성전자 연구개발의 메카로 거듭나게 된다. 즉 수원, 기흥, 화성을 잇는 경기 3각 벨트가 되어 반도체산업의 메카로 위치 짓고자 했다.[5]

삼성전자 설립과 폭발적 성장은 영통 지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까. 먼저 공장 설립에 따른 지역의 경제적 활성화 현상을 살펴보자. 공장 설립 직후인 1970년 언론 기사에 따르면 수원 지역은 각종 접객업소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1967년 말 27개에 불과했던 다방이 80개로, 선술집은 100여

SRI 수원학연구센터 SUWON RESEARCH INSTITUTE



삼성전자 수원-용인(기흥)-화성 클러스터(구양미, 「삼성전자 수원공장 완공」, 『100만 도시 성장기』, 2019)

개에서 300여 개로, 또 30대에 불과했던 영업용 택시는 400대로 10배 이상 늘어났다.[6] 수원시 전체에 걸친 통계이고 또 삼성전자 설립 효과만으로 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공장 설립이 지역경제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음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삼성이 마련한 부지에 각종 계열사들이 입주하여 경제적 확장 현상을 보여주기도 했다. 삼성전자도 미국의 코닝 등과 합작하여 계속해서 공장을 신설하기도 했고 1971년 6월에는 삼성 계열사인 제일복장이 매탄동에 국내 최대 기성복 공장을 세운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다.[7] 이듬해인 1972년에는 완구공장 건설 계획도 흘러나왔다.[8] 삼성 계열사들의 진출과 함께 각종 부품 협력회사들이 설립되는 것도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1978년 삼성전자는 수원시민회관에서 600여 부품 협력회사가 참가한 가운데 공장 새마을 품질관리 경진대회를 개최하였다. 공업진흥청과 함께 수원상공회의소가 후원한 이 대회는 품질관리 운동을 부품 협력회사로 확산시키기 위해 개최되었다.[9] 600여 회사가 모두 수원이나 영통에 위치한 것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삼성전자 설립에 따른 부품 회사가 인근 지역에 집중적으로 들어서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삼성의 팽창에 따라 수원지역에서 차지하는 경제적 비중도 크게 늘어난다. 이는 제조업 고용 현황에서도 나타난다. 1975~1977년 최대 고용업종은 섬유업으로 47.7~57%에 달하였다. 반면 전자업종은 같은 시기 23.3~24.8%에 그쳤다. 그러나 1978~1979년으로 가면 전자·전기업종의 제조업 비중은 41.2~43.6%로 확대되어 최대 업종이 된다.[10] 삼성전자 가전 공장의 지방 이전 문제가 불거지게 된 1999년 '경제살리기수원시민협의회'가 밝힌 바에 따르면 삼성전자 제조업 분야 고용률이 수원지역 50%, 경기도 전체의 24%에 해당하고 삼성전자단지에 대한 수원 지역경제 의존도는 50%에 이른다.[11] 공장 이전을 반대하기 위해 좀 과장된 수치일 가능성도 있지만 그만큼 삼성전자가 수원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컸음을 보여 준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수원 경제는 삼성 월급날 활성화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다. "수원시내가 삼성 사람 아니면 먹고살기 힘들다." 혹은 "삼성 월급날에는 과일 파는 아저씨들의 매상이 달라진다."는 말이 회자될 정도였다.[12] 1993년 이른바 '신경영' 방침의 일환으로 삼성에서 7시 출근, 4시 퇴근제가 전격 실시되자 지역경제 상황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통근버스와 택시 운행시간의 변화는 물론이고 주변 음식점과 술집의 저녁 매상은 줄고 스낵 코너와 호프집 등 가벼운 주류를 파는 집들이 호황을 누리게 된다. 외국어 교육 강조에 따라 학원가가 성황을 맞기도 했고 헬스클럽, 탁구장, 당구장, 볼링장, 영화관 등의 오후 매출이 상승하기도 했다.[13]

한편 삼성의 공장 가동은 환경오염 문제를 불러오기도 했고 산업재해가 불거지기도 했다. 1987년에는 TV 사업부에서 납땜 작업을 하던 19세 여성 노동자가 작업장에서 하반신 마비 증상을 보여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는 사고가 발생하였다.[14] 삼성의 무노조 경영은 유명한데, 수원사업장도 예외가 아니었다. 특유의 인력관리 기술을 통해 삼성은 노동자와 작업장 통제에 발군의 능력을 보여 주었다.

노동 통제에 철저했던 삼성은 그 반대급부로 사내 복지는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것이 기숙사와 식당이다. 기숙사에는 노래방, 미용실, 호프집, 마트 등 일상생활의 대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시설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었고 사실상 바깥세상과는 담을 쌓고 살아도 될 정도였다고 한다. 삼성은 직원 채용에 있어 지방 출신들을 선호하였다. 지방 출신 나이 어린 여성 노동자들은 대부분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고 사회생활 경험이 적기에 회사 방침에 순종적일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15] 이렇게 기숙사에서 폐쇄적인 생활을 하게 되기에 오히려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SRI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시정연구원 수원학연구센터

반감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삼성전자 건설 이후 지역의 가장 큰 경제적 변화는 부동산 가격의 폭등이었다. 1968년 말부터 시작된 삼성의 토지매입은 애초 율전동, 천천동 지역에 집중되었다. 그런데 삼성은 이 지역에서 확보한 30만 평 토지에 애초 약속했던 공장 대신 성균관대학교를 만들고 공장은 매탄동에 건설하겠다고 나섰다. 마침 인근 지역으로 수인산업도로 공사가 시작되면서 평당 170원에 매입한 토지가격이 평당 3,500원으로 상승한 상태였다. 이어 매탄동 일대 토지 47만 평을 매입하였다. 1971년 11월 무렵 삼성전자가 입주한 이후 부근의 땅값은 급상승해 서울 외곽 수준에 육박하였다. 서울 중계동 대지가 평당 3,200원인 데 반해 삼성전자 인근은 공장부지가 3,000원에 달하였다.[16] 결국 삼성은 지역발전을 내세워 헐값에 토지를 매입해 공장과 대학을 설립한 것은 물론 막대한 비업무용 토지를 집적해 거대한 시세 차익을 거둔 셈이었다.

삼성은 단지 공장만 건립하고 공장부지만 매입한 것이 아니었다. 1975년에는 국회에서는 신민당 유제연 의원이 삼성이 신갈인터체인지 부근에 공장부지 명목으로 농경지를 포함한 수만 평의 토지를 매입해 보유하고 있음을 문제 삼기도 했다.[17] 삼성은 이미 용인에 공원 조성을 명목으로 500만 평이 넘는 토지를 매입한 상황이었기에 더욱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이에 『동아일보』는 1976년 6월 28일부터 7월 3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삼성과 재벌의 토지투기 문제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개발과 발전을 명분으로 결국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극대화한 만행을 강력한 어조로 고발하였다.

> 취직을 시켜 주겠다고 약속했으면 취직을 시켜 주어야 한다. … 토지를 뺏다시피 강점해서는 안 된다. … 놀리는 땅은 빨리 공장을 짓든지 아니면 농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 그러나 어찌 해골같은 달이 은화(銀貨)처럼 보이는 황금만능 사고의 삼성재벌이 스스로 이렇게 하기를 바라겠는가. … 사회가, 법률이, 행정이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 유한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 삼성재벌에 규제를 가해야 하는 것이다.[18]

인용문에서 보이듯이 초기 삼성전자의 토지 매입과 확장 과정은 상당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음이 분명하였다. 1970년대 중반은 본격적으로 강남 등의 아파트 투기가 시작되고 복부인이라는 신조어가 유행할 정도로 부동산 투기가 커다란 사회문제로 떠오르던 시점이었다. 주택에 이어 토지 투기도 이어졌고 재벌들의 비업무용 토지 축적에 대한 사회적 비판도 날로 높아졌다. 삼성의 입장에서는 장기적 전망 하에 미리 공장부지를 싼 값에 확보한 합리적 경제행위가 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의 부동산 투기에 불을 지피게 된 것도 사실이다. 삼성이라는 최고 재벌의 토지 구입 자체가 가장 큰 호재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결국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삼성의 위력이 거듭 확인된 셈이었고 영통 지역의 경제는 삼성전자의 행보에 크나큰 영향을 받게 된다. 공적 영역에서는 재벌의 부동산 투기가 비판의 대상이지만, 폭등하는 부동산에 대한 욕망이 부풀려진 것도 사실이다. 전문적인 투자와 투기에 나설 수 없는 대부분의 주민들은 폭등하는 부동산을 따라잡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게 된 셈이다. 발전의 빛과 그림자가 영통 지역에 드리워지게 된 것이다.

3. 삼성전자의 재편과 지역경제의 영향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은 2000년대 들어 커다란 변화에 들어간다. 30년 가까이 유지되었던 핵심 생산 공장의 성격을 벗어 버리고 연구단지로 환골탈태하게 된 것이다. 처음부터 수원사업장을 연구단지로 전환시키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 출발은 가전제품 생산 공장을 이전하는 것이 먼저였고 이에 대한 반발이 심해지자 삼성에서 내놓은 대책이 종합연구단지와 첨단 멀티미디어 생산단지로 전환한다는 것이었다. 25층의 연구동을 신축하여 서울, 분당, 기흥 등지에 흩어져 있는 각종 연구기관을 집결시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종합연구단지를 만들겠다는 구상이었다. 아울러 삼성에서는 인근 화성 태안읍 일대에 30만 평 규모의 반도체 생산기지를 건설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하였다.[19] 2018년 현재 삼성 디지털시티의 총면적은 172만㎡, 약 52만 평으로, 축구장 250개를 모아 놓은 면적과 같다.

해외기업과의 합작 사업은 많은 이점이 있기는 했지만 독자적 경영은 힘들었다. 이에 삼성은 1980년대 들어 기술개발에 힘을 기울여 본격적으로 R&D 투자에 나선다. 1980년 390명, 1988년에는 1,500명을 각각 수용하는 R&D연구소를 잇달아 건립하였다. 그러나 수원사업장이 생산단지에서 R&D 중심 연구단지로 거듭난 것은 2000년대 들어 본격화된다. 2001년 삼성 디지털시티에 지상 27층, 수용인원 6,000명 규모의 정보통신연구소(R3)를 세우면서 '휴대폰 세계화'를 위한 전초기지를 마련하였다. 또 4년 뒤인 2005년에는 TV를 비롯한 영상디스플레이 사업 일류화의 일환으로 지상 37층에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삼성로 조감도(2014년, 수원박물관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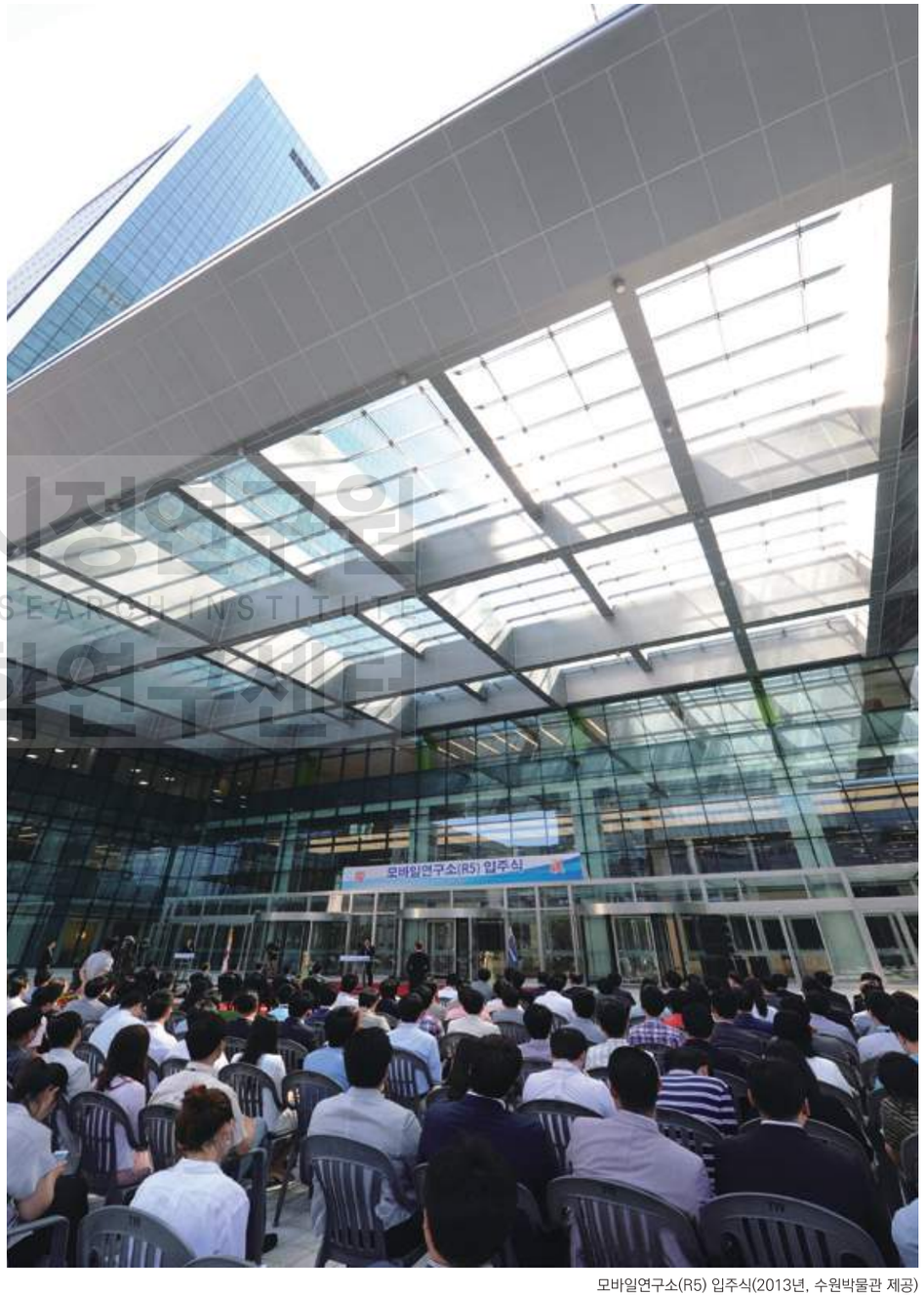


모바일연구소(R5)

9,000명을 수용하는 디지털연구소(R4)를 세웠다. 이어 2013년, 지상 27층의 2개 동, 1만여 명을 수용하는 모바일연구소(R5)를 완공함으로써 삼성 디지털시티는 R&D를 중심으로 하는 연구단지로 거듭나게 된다.

국내 최대 연구단지가 된 삼성 디지털시티에는 생산라인이 대부분 이전되면서, 현재 제조인력 비중은 약 1%에 불과하다. 설립 당시 100명에도 미치지 못했던 삼성 디지털시티 인력 규모는 2000년 약 1만 1,000명, 2005년 2만 1,000명, 2010년 2만 8,000명, 현재 약 3만 4,000명 수준까지 계속해서 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중 1만 2,000여 명 정도가 수원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20] 또한 약 71%인 2만 4,000여 명의 임직원들이 수원 및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인근 기흥, 화성사업장 임직원 중 2만 6,000여 명의 임직원들도 수원 및 용인, 화성에 거주하고 있다.

삼성 디지털시티는 총 131개의 크고 작은 건물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중심부에 위치한 오피스 단지는 4개의 고층 빌딩으로 구성되어 디지털시티의 랜드마크가 된다. 총면적은 157만 8,274㎡으로 웬만한 행정동 3~5개를 모은 크기이며, 사옥과 공장뿐 아니라 삼성의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러 시



모바일연구소(R5) 입주식(2013년, 수원박물관 제공)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삼성전자 야경(김현락 촬영)

설들이 있다. 3만 4,000여 명의 인력이 상주하는 공간인 만큼 그 규모는 조그만 소도시를 연상케 할 정도이며 150명의 교사가 900명의 임직원 자녀를 돌보고 있다. 이 어린이집은 국내 최대 규모이다. 또한 매일 7만 2,000끼니분의 식사가 무료로 제공된다.[21] 여기에 다양한 헬스케어 서비스가 모두 무료로 제공된다. 전통적인 헬스케어 치료부터 치과 치료, 독감 예방, 체력 관리까지 모든 의료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임산부를 위한 휴식 공간도 마련돼 있다. 이밖에 수영장, 클라이밍 연습장 등도 갖추고 있다.[22]

이렇게 거대한 규모의 삼성 디지털시티는 삼성전자 본사도 포함하고 있으며 영통구를 포함한 수원 경제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먼저 직접적으로 수원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막대한 금액의 세금이다. 삼성전자 순익 규모에 따라 증감은 있지만 매년 수백억 원의 법인세 지방소득세가 수원시 재정에 공급되고 있는 셈이다. 이미 2008년 수원시 전체 시세(市稅) 수입 목표액의 15%를 삼성 계열사가 납부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삼성전자 636억 원, 삼성전기 41억 원, 삼성SDI 11억 원, 삼성코닝 3,800만 원 등 모두 합쳐 689억 원이었다. 세목별로는 주민세가 530억 원으로 가장 많고 사업소세가 104억 원, 재산세 48억 원, 자동차세 1억 3천만 원 등이었다.[23]

10년 후인 2018년 수원은 전체 예산 2조 7,767억 원 중 10% 정도가 삼성전자가 내는 법인지방소득세로 거의 4배가량 증가하였다.[24] 이러한 추세는 세제 변동, 삼성 순익 규모 변동에 따라 매년 달라지기는 한다. 2023년 수원시가 삼성전자로부터 거둘 예상 법인지방소득세는 1,520억 원으로 추산되었는데, 이는 2022년 2,141억 원보다 621억 원이 줄어든 것이다.[25] 이는 인근 지역도 비슷하였다. 2022년 대비 화성시는 2,700억 원에서 2,300억 원, 용인시는 940억 원에서 660억 원, 이천시는 2,088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법인지방소득세가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26]

그런데 이러한 세수는 수원시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영통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즉 수원시가 재정 집행의 권한이 있기에 삼성전자가 영통구에 위치한다 해서 모든 세금이 영통구에 집행되지는 않는다. 세금과 관련해서 영통구와 삼성전자는 비대칭적 관계를 맺고 있는 셈이다. 이를 잘 보여 주는 것이 영통구의 세출 및 세입 현황이다.

〈표 1〉을 보면 수원시 4개 구의 세출은 큰 차이가 없다. 권선구가 제일 많고 영통구는 장안구와 함께 공동 2위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세입은 매우 큰 차이가 난다. 특히 영통구와 나머지 3구 사이의 차이가 크다. 영통구는 무려 44.4%를 차지한 반면 나머지 구들은 10~20%대에 머물고 있다. 이는 영통구에 위치한 삼성 디지털시티를 빼놓고 설명할 수 없는 세수 차이라고 할 것이다. 영통구 입장에서 세출과 세입의 현격한 비대칭은 구라는 행정 단위의 특성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다. 재정 독립성이 없는 수원시의 하부 행정단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넓게 보면 삼성전자의 세금이 포함된 수원시의 재정집행은 영통구도 포함되기에 양자 간의 경제적 함수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성립된다고 할 것이다.

〈표 1〉 2023년 수원시 행정구역별 세출 및 세입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세출예산			세입목표	
	소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액	비율
수 원 시	3,072,025	2,747,708	324,317	1,881,286	100.0
장 안 구	38,960	38,707	253	235,512	12.5
권 선 구	42,592	42,438	154	380,132	20.2
팔 달 구	32,059	31,938	121	430,342	22.9
영 통 구	38,873	38,710	163	835,300	44.4

자료 : 「영통구청 홈페이지 일반현황-재정규모」.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표 2〉 수원시 10인 이상 광업 및 제조업 현황 (단위 : 개, 명, 백만원)

연도	항목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	계
2013	사업체수	48	196	22	234	500
	종사자수	2,178	6,513	521	22,798	32,010
	연간급여액	99,266	185,424	10,852	1,210,705	1,506,247
	생산액	876,125	1,753,387	79,942	8,105,358	10,814,812
	부가가치	413,694	655,153	30,273	3,448,615	4,547,735
2021	사업체수	51	329	19	209	608
	종사자수	1,707	12,806	360	12,285	27,158
	연간급여액	71,588	560,449	11,500	697,436	1,340,973
	생산액	882,886	4,572,268	53,299	6,434,949	11,943,402
	부가가치	495,111	1,810,635	26,309	2,388,165	4,720,220

자료 : 『수원 통계연보』 각년도판.

다음으로 직접 경제행위를 수행하는 사업체 현황을 보자. 〈표 2〉를 보면 2013년의 경우 영통구의 제조업 경제가 다른 3구를 압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종사자수, 급여액, 생산액, 부가가치 등 모든 지표에서 영통구는 3구 전체를 합친 것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그런데 이러한 추세는 2021년 무렵에는 크게 바뀐다. 영통구는 종사자수를 비롯해 모든 지표에 있어 8년 전에 비해 감소하고 있다. 종사자는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고 급여액도 비슷한 추세였으며 생산액과 부가가치도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축소된 상황이다. 반면 권선구는 모든 지표가 2개 이상으로 상승하고 있었다.

이는 영통구 지역의 재개발에 따라 다수의 제조업체가 이전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즉 새롭게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공장 이전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다. 삼성전자 역시 연구단지 성격을 강화하면서 생산라인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었기에 이러한 현상에 일조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통구는 여전히 제조업종에서 수원 최고의 지위를 유지하고는 있다. 그러나 업종별 현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영통구의 변화가 더욱 분명하게 감지된다.

〈표 3〉 2021년 수원시 업종별 사업체 및 종업원 현황 (단위 : 개, 명)

구분	계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제조업	5,521	38,897	748	3,227	2,214	17,592	928	2,139	1,631	15,939
건설업	9,259	31,798	1,953	7,014	3,712	11,307	2,526	6,957	1,068	6,520
도소매업	28,027	67,121	4,831	10,061	8,566	23,785	6,687	13,722	7,943	19,553
숙박음식점업	15,951	43,897	3,243	7,958	3,912	10,011	4,380	11,659	4,416	14,269
부동산업	5,988	15,334	1,034	2,120	1,529	3,995	1,465	4,075	1,960	5,144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5,206	63,559	751	3,638	1,024	5,349	996	3,993	2,435	50,579
시설관리 사업지원 임대서비스업	3,145	38,380	578	7,832	908	9,538	906	14,414	753	6,596
교육 서비스업	6,059	37,876	1,359	10,225	1,556	8,248	892	5,994	2,252	13,409
보건업 복지서비스업	3,484	47,771	755	10,408	942	10,723	799	13,237	988	13,403

자료 : 『수원 통계연보』 각년도판.

업종에서 영통구가 다른 지역을 압도하고 있는 것은 전문 과학기술 서비스업이다. 종사자가 5만 명을 넘어 다른 지역과 비교조차 안 된다. 권선구와 비교해 보면 사업체수는 2배가 조금 넘는 수준이지만 종사자수는 무려 10배에 가깝다. 이는 영통구의 전문 과학기술 서비스업이 대규모 기업 중심임을 말해 주는데 삼성전자를 생각하면 쉽게 납득된다.

그 외 영통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 우세를 보이는 분야는 부동산, 교육 서비스, 보건업 및 복지 서비스 계통이다. 부동산은 영통구가 신도시 개발이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과 관계된다고 보이며 교육 서비스는 신도시 젊은 세대의 자녀교육과 관련된다고 해석된다. 보건업과 복지 서비스는 고소득 전문직의 보건의료에 대한 관심과 경제적 여력 등으로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삼성전자가 수원사업장을 연구단지로 전환하면서 고학력 전문 직종에 종사하는 인구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생산 공장을 운영할 때와는 인구 구성에 있어 현격한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 여기에 신도시 개발과 신규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는 것 역시 이와 관련된다. 통상적으로 대규모 생산 공장 인근에 신도시가 들어서는 것은 입지적으로 곤란하다.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생산라인을 가동했다면 영통의 부동산 상황은 또 달랐을 것이다.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표 4〉 2021년 수원시 조직 형태별 사업체 현황 (단위 : 개, 명)

구분		합계		조직형태별							
				개인사업체		회사법인		회사이외법인		비법인단체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계		110,987	481,383	90,492	173,152	14,450	208,572	4,328	84,276	1,717	15,383
장안구		20,963	81,345	17,756	34,045	1,746	22,885	1,072	20,702	389	3,713
권선구		34,033	124,748	28,216	52,011	4,134	52,317	1,153	15,502	530	4,918
팔달구		25,731	106,946	21,289	40,983	3,060	38,685	1,069	24,615	313	2,663
영통구	소계	30,260	168,344	23,231	46,113	5,510	94,685	1,034	23,457	485	4,089
	매탄1동	1,036	2,421	946	1,815	38	137	34	352	18	117
	매탄2동	1,346	5,012	1,159	2,233	99	1,157	57	1,333	31	289
	매탄3동	2,595	52,622	2,143	4,118	316	46,685	78	1,141	58	678
	매탄4동	1,194	2,679	1,085	1,651	48	456	34	330	27	242
	원천동	3,563	21,872	2,708	5,584	667	9,376	151	6,656	37	256
	광교1동	5,513	27,187	3,771	7,496	1,519	13,898	174	5,349	49	444
	광교2동	3,074	11,826	2,164	4,110	769	4,464	114	3,022	27	230
	영통1동	1,294	3,795	1,101	1,904	79	459	60	1,069	54	363
	영통2동	3,430	16,596	2,395	4,919	926	10,606	62	638	47	433
	영통3동	4,621	17,004	3,519	7,976	866	6,262	185	2,450	51	316
	망포1동	1,401	3,598	1,218	2,226	98	565	39	416	46	391
	망포2동	1,193	3,732	1,022	2,081	85	620	46	701	40	330

자료 : 『수원 통계연보』 각년도판.

조직 형태별 사업체 현황을 알려 주는 〈표 4〉는 영통구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위상을 분명하게 보여 준다. 영통구는 회사 법인에서 여타 지역보다 월등하다.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권선구에 비해 종사자수가 2배 가까이 많다. 이는 앞에서도 보았듯이 영통구의 삼성전자를 빼놓고 설명하기 힘들다. 이를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영통구의 동별 통계이다. 매탄3동은 회사법인 종사자수에서 다른 동들에 비할 바가 아닐 정도로 압도적으로 많은데 삼성 디지털시티가 바로 이곳에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매탄3동에 위치한 삼성전자가 영통구는 물론 수원까지 커다란 경제적 파급력을 행사하고 있는 셈이다.

삼성전자가 수원사업장을 연구단지로 전환시키면서 주변 지역에 미친 가장 대표적인 경제적 효과는 부동산 폭등이다. 이는 1970년대 초반과 비슷한 양상처럼 보이지만 그 구체적 내용은 상당히 다르다. 70년대는 공장 설립에 따른 지가 전반의 상승이었다면 2000년대 변화는 주로 아파트로 집중되기 때문이다. 물론 전반적 지가 상승이 수반되지만, 한국의 특성상 유독 아파트 가격 폭등이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아파트를 위시해 상업, 업무 용도의 부동산도 동반 상승하기 마련이기는 하다.

관련 계통에서는 '삼성효과'를 '삼세권'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설명할 정도로 그 영향력이 강하다고 한다. 일례로 KB부동산시세 자료에 따르면 2023년 9월 말 기준, 영통구 아파트 평균 매매시세는 약 6억 8,000만 원으로 수원시 평균 약 5억 6,000만 원보다 1억 원 이상 높다. 또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권정보 분석에 따르면, 삼성 디지털시티 인근 영통동 일대 상업지역 편의점의 월평균 추정 매출은 8,700여만 원 수준으로 수원시 평균 7,215만 원보다 약 1,500만 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7]

그렇기에 부동산 분양 관련해서 삼성은 단골손님처럼 불려 나온다. 한국을 넘어 글로벌 첨단기업으로 성장한 삼성이기에 이 정도 프리미엄은 당연한 것처럼 보인다. 복잡하고 골치 아픈 설명보다 삼성이 선택한 곳 또는 삼성이 있는 곳이라는 말 한 마디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삼성 효과의 가장 큰 수혜자는 삼성 자신일 터이다.

영통과 삼성전자의 관계는 어쩌면 배경과 주인공의 그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언제나 세상을 바꾸고 이끌어 나가는 것은 삼성이었고 영통은 마치 그 배경이 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삼성이 영통 지역을 바꾸었지, 영통이 삼성을 바꾸지는 못하였다. 삼성은 마음대로 본사를 이전하지만 영통지역이 그것에 개입할 힘은 별로 없어 보인다. 경제가 모든 것에 우선하는 세계에서는 이 관계가 뒤바뀔 일은 별로 없어 보인다. 삼성의 성공이 곧 지역의 성공이라는 신념도 더욱 강화될 터이다.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4. 영통구와 삼성의 미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1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연보』에 따르면 영통구는 전국 263개 시 · 군 · 구 가운데 1인당 연간 진료비가 가장 적다. 영통구 주민들은 2021년 1인당 148만 6,670원의 진료비를 썼는데, 전국 평균 214만 1,314원보다 30.6% 적은 금액이다. 지금은 세종시에 자리를 내주었지만 2019년까지 영통구는 평균 연령이 가장 낮은 곳이었다. 2021년 영통구 평균 연령은 37.7세로 한국 전체 평균연령 43.5세보다 무려 6살 가까이 젊다. 이렇게 영통구의 긍정적 측면은 청년들의 만족도에서도 확인된다.

〈표 5〉 수원 지역 청년 일자리, 경제 만족도 조사결과 (단위 : %)

구분	계	만족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불만족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계	100.0	44.3	12.1	32.2	43.9	11.8	9.1	2.7
장 안 구	100.0	36.0	11.4	24.6	47.2	16.8	13.6	3.3
권 선 구	100.0	43.1	10.8	32.2	43.7	13.2	9.8	3.4
팔 달 구	100.0	46.2	14.1	32.1	39.2	14.6	13.4	1.2
영 통 구	100.0	50.3	12.8	37.5	44.1	5.6	3.1	2.5

자료 : 2022년 수원시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결과표.

일자리와 경제에 대한 영통구 청년들의 만족도는 다른 지역보다 확연히 높다. 최하위인 장안구와는 무려 14% 이상이나 차이가 난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경제적 이유가 빠질 수는 없다고 보인다. 삶의 여러 곡절과 개인 차이도 있겠지만,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규정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경제적 조건일 것이기 때문이다. 영통구의 가구당 소득 수준은 수원시에서 최고 수준이다. 2022년의 경우 800만 원 이상 고소득자의 비율이 영통구는 16.5%에 달했는데, 이는 10%의 장안구, 12.2%의 권선구, 7.8%의 팔달구에 비해 월등한 수준이다. 700만 원 이상 소득자도 6.3%로 제일 많았다. 또한 직종에서도 영통구는 사무직이 41.8%로 20%대에 머물고 있는 다른 구들을 압도하였다. 반면 단순 노무나 기능직 비율은 제일 낮은 수준이다.[28]

무릇 청년은 사회의 미래를 보여주는 세대로 주목된다. 자연의 시간 리듬에 따르자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판단일 것이다. 그러나 사람은 아버지보다 시대를 닮는다는 아랍 속담을 상기하건대, 청년 세대는 미래가 아니라 현재를 반영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다. 그렇게 현재가 미래를 만들어간다고 할 터이다. 그런데 현재에 긴박되다 보면 미래는 현재의 부정이 아니라 그 연장에 불과할 수도 있지 않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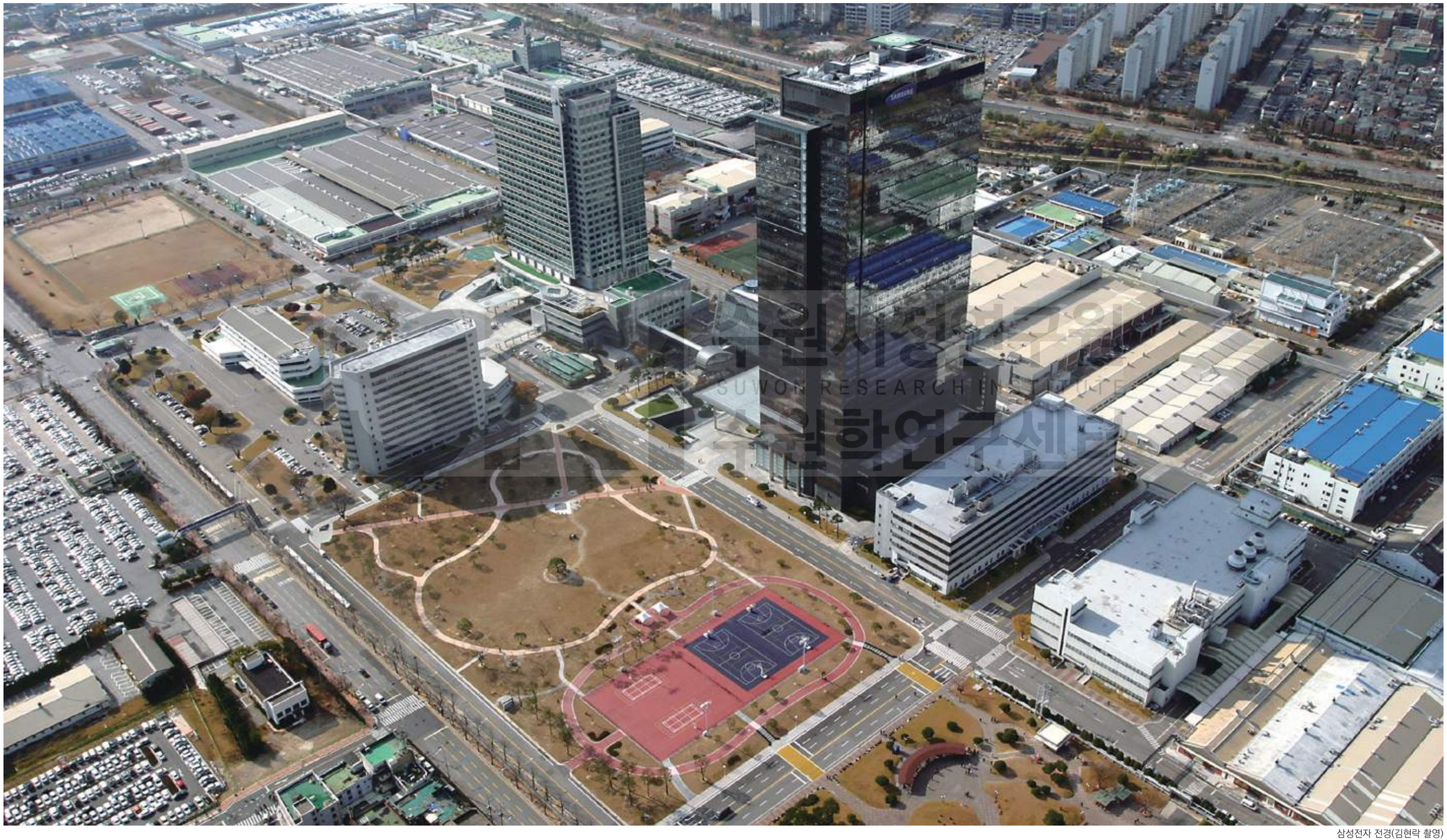
누가 보더라도 현재 삼성전자는 한국 사회의 최고 성공작이다. 아이돌이 주류를 이루는 한류 이상의 세계적 소구력을 가진 것이 삼성이라고 보이기 때문이다. 삼성의 역사가 이를 증거하고 있기에 누구도 삼성의 미래 선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 힘들다. 삼성을 통해 자신의 미래를 투시하고자 하는 욕망이 거의 모든 한국인들의 심리가 된 것도 충분히 이해될 것이다.

2021년 삼성전자 매출액은 약 280조 원이다. 여기에 매출원가 166조 원을 제외한 수치가 부가가치와 비슷하다. 약 113조 원이다. 결국 우리나라 GDP 대비 삼성전자 부가가치 비중은 약 5.7%이다. 연결기준이 아닌 삼성전자 단일 기업의 부가가치는 64조 원으로 우리나라 GDP 대비 비중 3.2% 수준이다. 물론 한 기업의 부가가치가 GDP의 5.7%를 차지한다는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비중이 14%는 아니다.[29] GDP가 매출 총액의 단순 합이 아니라 부가가치의 총합이기에 삼성이 만들어낸 매출 총액에는 하청 계열의 부가가치가 포함된다. 즉 삼성의 매출만 보게 되면 그것이 오롯이 삼성만의 것이 아니며 복잡한 산업 생태계의 산물임에도 그 과정의 실제 현실은 다 사상되고 오직 삼성의 능력치로 환원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부가가치가 아니라 매출액으로 삼성을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오해에 따른 것으로만 보기 힘들다고 생각된다. 사실 삼성이 더 크고 강한 존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은 단지 삼성 주식 소유자로 국한되지 않는다고 보인다.

삼성에 대한 매우 강력한 팬덤이 형성된 것이 오늘의 한국사회이지 않을까 한다. 여기에는 삼성이 만들어낸 놀라운 신화가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는 강렬한 욕망이 깃들어 있을 터이다. 삼성의 성공이 곧 나의 성공이 되어야 하는 상상의 동일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다. 성공신화를 만들 수 없는 무력한 개인에게 삼성의 성공은 그 자체로 구원의 상징처럼 다가올 수도 있을 터이다.

삼성에서 CEO까지 역임한 이는 '삼성 만들기'가 '대한민국 만들기'라고 생각하며 일했다고 하며 삼성을 종교에 비교하기까지 한다. 심지어 자신의 삼성 시절을 "전장을 방불케 했던 기업전선의 말발굽 소리, 포성 그리고 함성이 메아리친" 것으로 회상한다.[30]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김용서 수원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삼성전자 전경(김현락 촬영)

시장은 재선에 성공하면 수원시 명칭을 '삼성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공약을 내놓기도 했다.[31]

역사적 연원을 가진 도시의 명칭마저 바꿔야 한다는 수원시장의 공약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아마 삼성전자의 입장에서도 이러한 공약은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삼성은 일개 재단법인에 불과하고 복잡다단하기 그지없는 사회의 모든 면을 감당할 수 없는 존재다. 애초 상법에 따라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으로 만들어진 것 자체가 온갖 문제를 제외하고 오직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자유를 얻기 위해 취해진 조치이지 않겠는가. 다시 말해 상법상의 법인으로 자유롭게 이윤 극대화를 추구할 수 있는 존재로 기업을 규정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것이 시장의 자유가 금과옥조로 외쳐지는 근본적 이유일 것이다.

그래서 경제외적인 강제, 시장 외부에서 시장에 규율을 강제할 수 있는, 공정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권력의 존재는 자본에게 필수불가결하다. 삼성을 좋아하되 삼성의 입장이 아니라, 외부의 제3자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삼성을 지원할 수 있는 권력이 실제로 삼성이 좋아할 수 있는 권력이 될 터이다. 더 나아가 삼성에 좋은 것이 곧 모두의 이익이라는 논리가 성립된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삼성 공화국'이라 쓰고 '대한민국'으로 읽는 무의식이 작동한다면 최상일 터이다.

어떤 측면에서 정치란 특수이익의 보편이익화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과정이기도 한다. 즉 개별 이익이 전체의 이익이 되는 과정의 헤게모니를 장악하는 것이 곧 정치의 기본이다. 국익을 둘러싼 논쟁과 경쟁을 보면, 자신의 사적 이익을 공동체의 공적 이익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에 다름 아닌 것으로 읽힌다. 오늘의 한국사회는 삼성의 이익이 모두의 이익이라는 논리가 강력한 헤게모니를 실현해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삼성의 성공을 통해 나의 성공을 도모하려는 광범위한 이익 공동체가 구성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삼성에 대해 올바른 소리를 하는 것이 아파트 가격을 하락시킨다면, 도대체 그게 누구에게 이익이 되겠는가는 항의가 모두의 정의가 되는 것처럼 보인다.

앞서 보았듯이 영통구에서 삼성은 결정적 경제 요소임이 분명하다. 더 나아가 삼성은 영통구에 단지 경제적 요소로 국한되지 않는 강력한 사회문화적 힘이기도 하다. 삼성 본사가 있고 매년 치러지는 주주 총회가 언론의 핫이슈가 되는 시공간으로서 영통은 어쩌면 한국의 축소판처럼 보인다. 주지하듯이 주주 총회는 1주 1표의 원리가 지배하는 공간이며 1인 1표라는 공화국의 기본 원리는 입장금지이다. 또 하나 투표권이 없는 대신 배당금이 더 많은 우선주도 주주 총회 입장이 불가능하다. 투표권이 있는 보통주 대신 배당금만 챙기는 우선주를 사고자 하는 욕망이 곧 삼성과 모두의 미래처럼 여겨지는 현재가 우리의 삶일지도 모른다.

1) 삼성전자, 『삼성전자 40년』, 2010, 20~23쪽.
2) 삼성전자, 『삼성전자 40년』, 2010, 70~75쪽.
3) 이대원, 『삼성 기업문화 탐구』, 엠디자인, 2007, 236~238쪽.
4) 삼성전자, 『삼성전자 40년』, 2010, 239쪽, 294~295쪽, 393~394쪽.
5) 삼성전자, 『삼성전자 40년』, 2010, 320쪽.
6) 「接客-환경業所 66%가 規定어겨 營業」, 『조선일보』 1970년 7월 9일.
7) 「旣成服 메이커 시설경쟁」, 『조선일보』 1971년 6월 11일.
8) 「大企業 玩具産業에 진출」, 『매일경제』 1972년 2월 12일.
9) 「三星電子 品質管理 경진대회」, 『매일경제』 1978년 10월 4일.
10) 김보현, 「해방 후 경제의 변화와 특성」, 『수원시사』 6권, 2014, 305쪽.
11) 「삼성전자 수원공장 부산이전 반대」, 『매일경제』 1999년 7월 13일.
12) 김원, 「삼성전자 노동자의 노동 경험과 '무노조 경영'」, 『수원 노동자의 노동세계와 노동문화-수원시사 14권』, 수원시사편찬위원회, 2014, 84쪽.
13) 김원, 「삼성전자 노동자의 노동 경험과 '무노조 경영'」, 『수원 노동자의 노동세계와 노동문화-수원시사 14권』, 수원시사편찬위원회, 2014, 84쪽.
14) 「납中毒증세 10代」, 『여공 半身마비일으켜 入院』, 『매일경제』 1987년 6월 3일.
15) 김원, 「삼성전자 노동자의 노동 경험과 '무노조 경영'」, 『수원 노동자의 노동세계와 노동문화-수원시사 14권』, 수원시사편찬위원회, 2014, 115~117쪽.
16) 「不動産 前週보다 買氣호전 投機投制稅 폐기설 자극」, 『매일경제』 1971년 11월 13일.
17) 「數萬평 遊休地化追窮 農水産委 財閥이 工場터로 산 沃畓 등」, 『동아일보』 1975년 11월 17일.
18) 「땅의 哀史 (6)-돈에 짓밟힌 땅」, 『동아일보』 1976년 7월 3일.
19) 「삼성전자 수원단지 첨단 종합연구단지로」, 『매일경제』 1999년 7월 29일.
20) 『조선비즈』 2022년 10월 29일.
21) 삼성전자와 함께하는 행복한 수원시(https://www.samsungdigitalcity.com/941).
22) 『삼성뉴스룸』 2018년 2월 7일(https://news.samsung.com).
23) 「삼성 · SK 수원시에 세금 얼마나 내나?」, 『수원일보』 2009년 2월 17일.
24) 「올해 삼성이 4개 지자체에 낸 세금 8354억, 수원 · 화성시 전체 예산의 10% 가량 책임져」, 『조선일보』 2019년 9월 17일.
25) 「반도체 어닝쇼크에 지방재정 흔들…법인세 감세하면 또 타격」, 『조세금융신문』 2023년 1월 10일.
26) 「수원 · 화성 · 용인 · 이천시 '반도체 불황' 직격탄」, 『중부일보』 2023년 5월 18일.
27) 「진정한 '삼세권' 입지 누리는 '현재 테라타워 영통 패트스윙트' 주목」, 『서울경제』 2023년 10월 4일.
28) 수원시, 『2022 수원 사회조사 보고서』, 96쪽.
29) 「이상민의 경제기사비평」, 『미디어오늘』 2022년 3월 20일.
30) 이대원, 「서문」, 『삼성 기업문화 탐구』, 엠디자인, 2007.
31) 『조선비즈』 2022년 10월 29일.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영통구의 행정

백정미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연구교수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 행정구역의 개편

영통구는 수원시 조례 제2440호 및 제2456호에 의거 2003년 11월 24일에 9개의 행정동으로 개청되었고, 행정구역 조정으로 경계가 변경되고 인구 증가에 따른 분동으로 관할 동수가 늘어나 2023년 현재 12개 동(법정동 7개)을 관할하고 있다. 2005년 11월 22일 시조례 제2577호로 팔달구 인계동 일부를 영통구 매탄1동으로, 영통구 원천동 일부를 팔달구 우만2동으로 편제하였다. 2007년 5월 9일 대통령령 제19875호로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과 수지구 상현동 일부를 수원시 영통구 하동으로, 수원시 영통구 하동 일부를 용인시로 편제하였고, 광교택지개발에 따라 이의동의 인구가 감소하면서 8월 6일 시조례 제2682호로 원천동과 이의동을 원천동으로 통합하였다.

2009년 2월 16일 시조례 제2824호로 영통구 신동 일부를 매탄동으로, 망포동 일부를 신동으로 편입하고, 2011년 6월 20일 시조례 제3042호로 영통구 이의동 일부를 하동으로, 하동 일부를 원천동으로, 이의동 일부를 하동으로, 원천동 일부를 이의동으로, 하동 일부를 이의동으로 편입하는 등 경계를 조정하였다.

광교택지개발로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2012년 12월 26일에 시조례 제3139호로 원천동을 원천동과 광교동으로 분동하였고, 2015년 1월 20일 시조례 제3346호로 광교동을 광교1동과 광교2동으로 분동하였다. 2015년 11월 13일 시조례 제3446호로 영통구 하동 일부를 원천동으로 편입하여 경계를 조정하였다.





2003년 11월 24일 영통구청 개청식(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표 1〉 영통구의 기본 현황

연도	인구(명)	세대수	면적(㎢)	시면적 대비비율(%)	행정구역			비고
					동	통	반	
2003	246,730	83,358	27.47	22.69	9	310	1,453	
2004	245,011	83,850	27.48	22.70	9	317	1,474	
2005	248,649	86,989	27.50	22.72	9	333	1,550	
2006	257,778	91,487	27.48	22.70	9	341	1,564	
2007	256,948	91,001	27.50	22.71	8	259	1,176	원천동과 이의동을 원천동으로 통합
2008	264,796	93,804	27.46	22.69	8	260	1,177	
2009	263,350	92,884	27.46	22.69	8	260	1,107	
2010	266,174	93,680	27.46	22.69	8	265	1,132	
2011	272,670	95,719	27.68	22.87	8	274	1,164	
2012	295,018	103,659	27.68	22.87	9	292	1,242	원천동을 원천동과 광교동으로 분동
2013	317,196	111,793	27.68	22.87	9	312	1,346	
2014	336,861	120,637	27.68	22.87	9	314	1,365	
2015	342,733	124,407	27.68	22.87	10	329	1,400	광교동을 광교1동과 광교2동으로 분동
2016	347,838	127,598	27.68	22.87	10	334	1,426	
2017	357,099	133,663	27.68	22.87	11	349	1,477	영통1동과 영통2동을 영통1, 2, 3동으로 분동
2018	363,692	139,699	27.68	22.87	11	379	1,570	
2019	376,091	146,641	27.72	22.89	12	386	1,611	태장동을 망포1동과 망포2동으로 분동
2020	375,812	149,929	27.71	22.88	12	389	1,623	
2021	370,227	151,071	27.71	22.88	12	394	1,647	
2022	368,212	152,636	27.71	22.88	12	399	1,669	

비고 : ① 각 연도 12월 31일 기준, ② 인구는 외국인 포함임, ③ 세대수는 외국인세대는 제외함.
자료 : 수원시, 『수원 통계연보』 해당연도; 통계로 보는 수원(https://www.suwon.go.kr/stat/index.do).

또한 영통동과 태장동의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분동이 이루어졌다. 2017년 12월 26일에 시조례 제3732호로 영통1동과 영통2동을 영통1동, 영통2동, 영통3동으로 분동하여 영통구의 동수가 11개 동으로 증가하였고, 2019년 4월 15일 시조례 제3884호로 태장동을 망포1동과 망포2동으로 분동하여 12개 동이 되었고, 이는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표 2〉 영통구의 행정동과 법정동

2003		2012		2015		2017		2019~2023	
행정동	법정동	행정동	법정동	행정동	법정동	행정동	법정동	행정동	법정동
매탄1동	매탄동	매탄1동	매탄동	매탄1동	매탄동	매탄1동	매탄동	매탄1동	매탄동
매탄2동		매탄2동		매탄2동		매탄2동		매탄2동	
매탄3동		매탄3동		매탄3동		매탄3동		매탄3동	
매탄4동		매탄4동		매탄4동		매탄4동		매탄4동	
원천동	원천동	원천동	원천동	원천동	원천동	원천동	원천동	원천동	원천동
이의동	이의동	광교동	이의동	광교1동	이의동	광교1동	이의동	광교1동	이의동
			하동	광교2동	하동	광교2동	하동	광교2동	하동
영통1동	영통동	영통1동	영통동	영통1동	영통동	영통1동	영통동	영통1동	영통동
영통2동		영통2동		영통2동		영통3동		영통3동	
						영통2동	신동	영통2동	신동
태장동	태장동	태장동	신동	태장동	신동	태장동	망포동	망포1동	망포동
			망포동		망포동			망포2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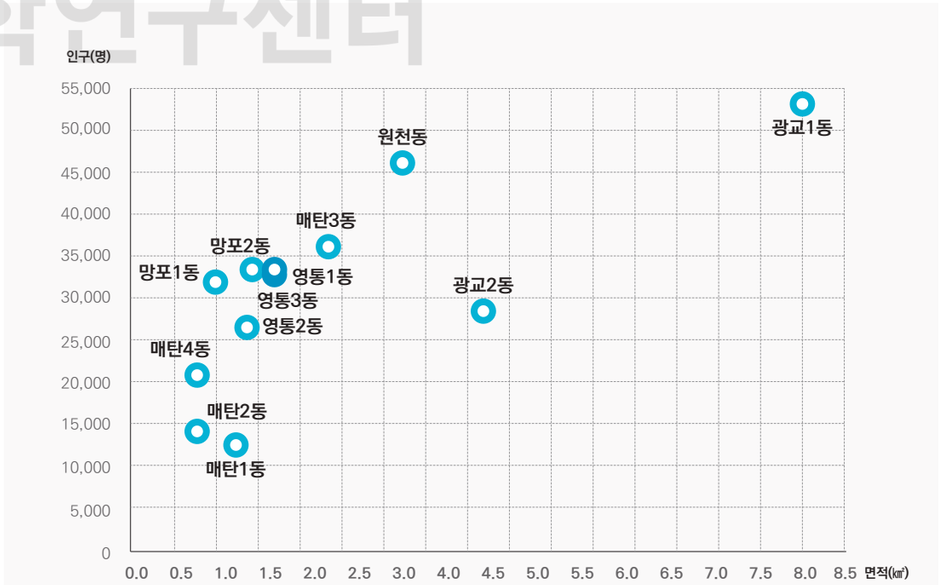
한편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구역 조정이 이루어졌다. 먼저, 2019년 9월 13일 대통령령 제30036호에 의해 영통구 원천동 일부와 용인시 기흥구 흥덕동 일부를 조정하였는데,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일부를 수원시 영통구 영통1동으로,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일부를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으로 편입하였다. 2020년 6월 23일에는 대통령령 제30794호에 의해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일부를 화성시 반정동으로, 화성시 반정동 일부를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및 영통구 신동과 망포동으로 편입하였다.

2023년 8월 31일 기준 영통구는 전체 면적 27.71㎢, 인구수 37만 999명, 세대수 15만 4,381세대의 규모로, 행정구역은 12동 399통 1,669반이다. 동별로 보면 면적 기준으로는 광교1동(7.98㎢)이 가장 크고, 매탄2동(0.79㎢)과 매탄4동(0.78㎢)이 1.00㎢ 미만으로 작다. 인구와 세대수 기준으로는 광교1동이 5만 3,475명, 2만 2,455세대수로 가장 크고, 매탄1동이 1만 3,191명, 5,293세대로 가장 작다. 행정구역도 광교1동이 49통 207반으로 가장 크고, 매탄1동이 24통 114반으로 가장 작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광교1동이 면적, 인구, 행정구역 모두에서 가장 크고, 면적으로는 매탄2동과 매탄4동, 인구와 세대수, 행정구역으로는 매탄1동이 가장 작다.

〈표 3〉 영통구 동별 기본 현황 (2023년 8월 기준)

동	면적(㎢)	인구수(명) (외국인포함)	세대수(세대)	행정구역(개)	
				통	반
계(12)	27.71	370,999	154,381	399	1,669
매탄1동	1.23	13,191	5,293	24	114
매탄2동	0.79	14,469	6,426	26	114
매탄3동	2.34	35,464	15,809	44	188
매탄4동	0.78	20,800	9,498	32	119
원천동	3.20	45,781	20,656	46	207
광교1동	7.98	53,475	22,455	49	207
광교2동	4.18	29,091	11,643	23	94
영통1동	1.69	33,732	12,504	33	152
영통2동	1.36	26,041	13,459	33	125
영통3동	1.72	33,400	13,817	37	148
망포1동	1.00	31,979	11,477	29	97
망포2동	1.44	33,576	11,344	23	104

자료 : 통계로 보는 수원(https://www.suwon.go.kr/stat/index.do).



영통구 동별 면적과 인구 매트릭스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표 4〉 인구와 세대수 변화

(단위 : 명, 세대)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인구	세대수	인구	세대수	인구	세대수	인구	세대수	인구	세대수	인구	세대수	인구	세대수	인구	세대수	인구	세대수	인구	세대수
계	246,730	83,358	245,011	83,850	248,649	86,989	257,778	91,487	256,948	91,001	266,796	93,804	263,350	92,884	266,174	93,680	272,670	95,719	295,018	103,659
매탄1동	15,688	5,617	15,421	5,550	16,021	5,792	23,710	8,389	23,851	8,337	25,573	8,302	23,449	8,136	23,057	8,148	22,790	7,981	23,027	8,077
매탄2동	17,495	6,063	17,438	6,178	17,375	6,252	17,812	6,581	17,754	6,570	17,284	6,371	16,849	6,230	18,155	6,603	18,194	6,558	18,094	6,597
매탄3동	31,367	11,399	29,912	11,067	29,453	11,206	29,558	11,360	29,462	11, 354	38,976	14,488	39,682	14,680	40,146	14,777	39,724	14,571	39,289	14,586
매탄4동	28,318	9,755	27,893	9,713	28,038	9,904	28,058	10,178	28,292	10,265	27,592	10,143	26,785	9,832	26,850	9,868	26,493	9,628	26,049	9,575
원천동	19,335	7,510	19,503	7,720	19,856	8,307	19,865	8,407	20,064	8,360	19,680	8,307	19,757	8,574	20,209	8,870	27,574	11,688	19,996	8,825
이의동	3,250	1,345	3,574	1,526	3,583	1,525	1,619	744												
광교동																			30,396	10,240
광교1동																				
광교2동																				
영통1동	46,316	15,702	46,172	15,764	46,553	16,137	47,654	16,784	47,602	16,772	47,806	16,855	47,255	16,374	46,228	16,017	45,805	15,611	45,707	15,336
영통3동																				
영통2동	52,476	15,927	51,624	15,753	51,230	16,029	51,187	16,490	51,119	16,704	50,830	16,683	50,279	16,314	50,580	16,079	49,910	15,813	49,289	15,658
태장동	32,485	10,040	33,474	10,579	36,540	11,837	38,315	12,554	38,804	12,639	39,055	12,655	39,294	12,744	40,949	13,318	42,180	13,869	43,171	14,765
망포1동																				
망포2동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인구	세대수	인구	세대수	인구	세대수	인구	세대수	인구	세대수	인구	세대수	인구	세대수	인구	세대수	인구	세대수	인구	세대수
계	317,196	111,793	336,861	120,637	342,733	124,407	347,838	127,598	357,099	133,663	363,692	139,699	376,091	146,641	375,812	149,929	370,227	151,071	368,212	152,636
매탄1동	23,055	8,073	22,175	7,999	21,751	7,902	21,631	7,952	21,196	7,897	20,786	7,856	20,131	7,792	19,562	7,760	18,847	7,669	14,720	6,049
매탄2동	17,960	6,597	17,938	6,614	17,698	6,592	17,314	6,516	16,700	6,353	16,348	6,372	15,887	6,394	15,625	6,533	15,214	6,541	14,802	6,499
매탄3동	39,437	14,936	39,738	15,112	39,122	15,001	39,383	15,282	39,502	15,772	38,540	15,622	37,314	15,398	36,885	15,466	36,594	15,859	36,083	15,955
매탄4동	25,778	9,541	25,673	9,507	25,212	9,466	24,802	9,496	24,363	9,543	23,720	9,442	22,827	9,381	22,335	9,485	21,722	9,466	21,221	9,547
원천동	20,834	9,426	25,188	11,469	25,353	11,623	25,359	11,658	25,771	12,306	29,947	14,127	39,673	17,626	40,055	17,941	39,766	18,109	41,748	19,344
이의동																				
광교동	48,916	15,744	61,145	20,691																
광교1동					44,789	15,611	46,150	16,285	50,548	18,061	54,198	20,205	52,575	20,628	53,603	21,737	53,431	22,070	53,449	22,215
광교2동					24,400	8,679	25,704	9,212	25,753	9,431	28,551	10,548	28,125	10,721	29,232	11,419	29,531	11,665	29,318	11,629
영통1동	45,463	15,207	44,765	15,261	44,265	15,180	44,090	15,267	37,531	12,196	36,800	12,291	37,060	12,579	36,465	12,709	35,277	12,634	34,423	12,567
영통3동									28,381	12,745	27,833	13,034	27,095	12,891	27,206	13,195	26,624	13,192	26,550	13,464
영통2동	48,624	15,617	48,784	15,601	48,192	15,549	47,814	15,669	34,790	12,190	33,980	12,740	34,771	12,923	34,430	13,222	33,944	13,495	33,735	13,720
태장동	47,129	16,652	51,455	18,383	51,951	18,804	55,591	20,261	52,564	17,169	52,989	17,462								
망포1동													32,212	10,847	31,902	10,923	31,252	10,916	32,127	11,452
망포2동													28,421	9,461	28,512	9,539	28,025	9,455	30,036	10,195

비고 : ① 각 연도 12월 31일 기준, ② 인구는 외국인 포함임, ③ 세대수는 외국인세대는 제외함.
자료 : 수원시, 「수원 통계연보」 해당연도; 통계로 보는 수원(https://www.suwon.go.kr/stat/index.do).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영통구는 도시개발계획에 따라 광교신도시, 망포지구의 개발로 인구가 계속 증가하면서 변화를 보여 왔다. 영통구 전체 인구와 세대수는 2003년 개청 당시 24만 6,730명, 8만 3,358세대에서 2022년 36만 8,212명, 15만 2,636세대로 20년간 인구수는 12만 1,482명(증가율 49.24%), 세대수는 6만 9,278세대(증가율 83.11%) 증가하였다.

또한 인구 변화로 동이 통합 혹은 분리되었다. 이의동의 경우 2003년 3,250명이던 것이 광교택지개발에 따라 2006년 1,619명(744세대)까지 감소하여 2007년에 원천동에 통합되었다. 이의동과 통합된 원천동은 2007년 2만 64명에서 인구가 계속 증가하여 2011년 2만 7,574명까지 증가했는데, 2012년 이천 이의동 지역에 인구가 급증하면서 법정동 이의동 및 하동을 광교동으로 분동하였다. 분동 후인 2012년 원천동은 1만 9,996명, 광교동은 3만 396명이 되었다.

광교동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형성되면서 인구가 계속 증가하였는데, 원천동에서 분동된 첫해인 2012년 3만 396명이던 것이 2013년 4만 8,916명, 2014년 6만 1,145명으로 2년 만에 2배에 가깝게 증가하여 2015년 광교1동과 광교2동으로 분동되었다. 분동 당시인 2015년 광교1동에는 4만 4,789명, 광교2동에는 2만 4,400명이 분포하였다.

2017년 12월 26일 행정동인 태장동이 권할하던 법정동 신동 전역과 망포동 일부가 영통2동에 편입됨에 따라 영통1동과 영통2동의 각 일부가 분리되어 영통3동이 신설되었다. 분동 전 2016년 영통1동은 4만 4,090명, 영통2동은 4만 7,814명이던 것이 분동 후 2017년에 영통1동 3만 7,531명, 영통2동 3만 4,790명, 영통3동 2만 8,381명이 분포하였다.

망포지구 도시개발과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 등으로 태장동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2019년 망포1동과 망포2동으로 분동하였다. 태장동의 인구는 2003년 3만 2,485명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에는 4만 명, 2014년에는 5만 명을 넘어섰다. 분동되기 전인 2018년 인구는 5만 2,989명이었고, 분동 후인 2019년에는 망포1동 3만 2,212명, 망포2동 2만 8,421명으로 2개 동을 합치면 6만 명을 넘어선다.

2. 행정 조직과 인력의 변화

1) 행정 조직의 변화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의해 구(區)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과'를 설치 · 운영하는데, 2003년 개청 당시 조직은 구청을 총괄 · 지휘하는 구청장 산하에 총무과, 종합민원과, 세무과, 사회산업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건설과 7개과, 30개 담당으로 편성되었다. 지방화, 정보화, 민주화 등 행정환경 변화와 저출산 · 고령화, 환경문제, 기후변화, 도시개발에 따른 각종 도시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의 기능과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영통구의 조직도 변화되어 2023년에는 구청 산하에 1개 대민협력관, 12개과, 50개 팀으로 확대되었다.

연도별 행정 조직 변화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7과	7과	7과	8과	8과	8과	8과	8과	8과	8과	8과
총무과	총무과	총무과	총무과	총무과	총무과	총무과	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
종합민원과	종합민원과	종합민원과	종합민원과	종합민원과	종합민원과	종합민원과	종합민원과	종합민원과	종합민원과	종합민원과
세무과	세무과	세무과	세무과	세무과	세무과	세무과	세무과	세무과	세무과	세무과
사회산업과	사회산업과	사회산업과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	경제교통과	경제교통과	경제교통과	경제교통과	경제교통과	경제교통과	경제교통과	경제교통과
건축과	건축과	건축과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
건설과	건설과	건설과	건축과	건축과	건축과	건축과	건축과	건축과	건축과	건축과
			건설과	건설과	건설과	건설과	건설과	건설과	건설과	건설과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9과	9과	9과	10과	11과	11과	11과	11과	12과	13과
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	대민협력관	대민협력관
안전주민자치과	종합민원과	종합민원과	종합민원과	종합민원과	종합민원과	종합민원과	종합민원과	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
종합민원과	세무과	세무과	세무과	세무과	세무과	세무과	세무과	종합민원과	종합민원과
세무과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	세무과	세무1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가정복지과	가정복지과	가정복지과	가정복지과	가정복지과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	세무2과
경제교통과	경제교통과	경제교통과	생활안전과	생활안전과	생활안전과	생활안전과	생활안전과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	경제교통과	경제교통과	경제교통과	경제교통과	경제교통과	생활안전과	가정복지과
건축과	건축과	건축과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	경제교통과	생활안전과
건설과	안전건설과	안전건설과	건축과	건축과	건축과	건축과	건축과	환경위생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건설과	건설과	건설과	건설과	건축과	환경위생과
				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	건설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건설과
									공원녹지과

영통구 행정 조직 변화는 행정환경에 따른 기능 변화, 그리고 본청-구청-동의 관계에서 구청의 역할 변화를 반영한다. 주요한 변화를 보면 2003년 7과 35담당에서 2006년 8과 41팀, 2014년 9개과 43팀, 2017년 10과, 2018년 11과 46팀, 2023년 12과 50팀으로 계속 확대되었다.

행정 조직 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3년 과별 하부조직으로 총무과에 6담당(총무, 기획감사, 동기능전환, 경리, 문화공보, 정보통신), 종합민원과에 4담당(민원호적, 민방위, 토지관리, 지적), 세무과에 5담당(시세, 도세, 재산세, 징수, 세입정리), 사회산업과에 6담당(사회복지, 가정복지, 지역경제, 산업, 교통행정, 교통지도), 환경위생과에 5개 담당(청소1, 청소2, 환경관리, 공중위생, 식품위생), 건축과에 4담당(건축행정, 건축, 건축물관리, 광고물관리), 건설과에 5담당(건설행정, 건설, 도로정비, 녹지, 하천하수)을 두었다.

2006년에는 기존 사회산업과를 주민생활지원과와 경제교통과로 분리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하였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사회복지, 통합조사, 노인장애인, 가정복지업무를 수행하고, 경제교통과는 지역경제, 산업, 교통행정, 교통지도업무를 수행한다. 고령화 등 복지수요의 변화에 따라 기존 사회복지팀과 가정복지팀을 사회복지팀, 통합조사팀, 노인장애인팀, 가정복지팀으로 전문화 · 분업화하였다. 이와 함께 총무과의 동 기능전환담당이 민간지원팀

영통구청장 7과 35담당

2003년 영통구청 조직도

총무과	종합민원과	세무과	사회사업가	환경위생과	건축과	건설과
총무	민원호적	시세	사회복지	청소1	건축행정	건설행정
기획감사	민방위	도세	가정복지	청소2	건축	건설
동기능전환	토지관리	재산세	지역경제	환경관리	건축물관리	도로정비
경리	지적	징수	산업	공중위생	광고물관리	녹지
문화공보		세입정리	교통행정	식품위생		하천하수
정보통신			교통지도			

영통구청장 8과 41팀

2006년 영통구청 조직도

총무과	종합민원과	세무과	주민생활지원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건설과
총무	민원	시세	사회복지	지역경제	청소1	건축행정	건설행정
기획감사	호적	도세	통합조사	산업	청소2	건축	건설
민간지원	민방위	재산세	노인장애인	교통행정	환경관리	건축물관리	도로정비
경리	토지관리	과표	가정복지	교통지도	환경지도	광고물관리	녹지
문화공보	지적	징수			위생관리		하천하수
정보통신	지정	세입정리			위생지도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영통구청장 8과 40팀

2010년 영통구청 조직도

행정지원과	종합민원과	세무과	사회복지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건설과
총무	민원	시세	사회복지	지역경제	청소	건축행정	건설행정
기획감사	가족관례등록	도세	통합조사	산업	환경관리	건축	건설
민간지원	민방위	재산세	노인장애인	교통행정	환경지도	건축물정보	도로정비
경리	토지관리	과표	가정복지	교통지도	위생관리	광고물관리	녹지
문화공보	지적관리	징수			위생지도		하천하수
정보통신	지적정보	세입정리					

영통구청장 8과 42팀

2013년 영통구청 조직도

행정지원과	종합민원과	세무과	주민생활지원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건설과
행정관리	민원	시세	사회복지	지역경제	청소	건축행정	건설행정
기획감사	가족관계등록	도세	통합조사관리	산업	환경관리	건축	건설
생활불편제로	민방위	재산세	무한돌봄사례관리	교통행정	환경지도	건축물정보	도로정비
민간지원	토지관리	과표	노인장애인	교통지도	위생관리	광고물관리	녹지
경리	지적관리	징수	가정복지		위생지도		하천하수
문화공보	지적정보	세입정리					
정보통신							

으로 전환되었는데, 이는 1999년부터 추진된 동 기능전환이 마무리되어 감에 따라 동 기능전환 관련 업무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등 구·동 단위 민간단체 활동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지원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그리고 환경위생과는 기존 5개 팀에서 6개 팀으로 1개 팀이 증가했는데, 환경관리담당을 환경관리팀과 환경지도팀으로 분리하였다. 환경관리팀은 대기, 수질, 소음진동, 환경개선부담, 하천 수질보전, 자연보호 관리에 대한 업무를 주로 하고, 환경지도팀은 환경관련 지도단속 업무를 하여, 환경오염관련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전문성을 강화하였다.

2010년에는 기존 총무과의 명칭을 행정지원과로 변경하고, 주민생활지원과를 사회복지과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2006년 41개 팀이던 것이 40개 팀으로 1개 팀이 줄어들었는데, 이는 청소업무를 담당하던 2개 팀을 1개 팀으로 축소했기 때문이다.

2013년에는 기존 40개 팀에서 42개 팀으로 2개 팀이 증가하였는데, 행정지원과의 생활불편제로팀과 사회복지과의 무한돌봄사례관리팀이 이에 해당한다. 생활불편제로팀은 2011년에 개설한 영통 8888민원콜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2012년에 신설되었고, 무한돌봄사례관리팀은 무한돌봄휴먼서비스 사업을 위해 2012년 8월에 신설된 팀으로, 복지사각지대 주민을 직접 만나고, 듣고, 찾아내는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서비스이다.

영통구청장 9과 43팀

2014년 영통구청 조직도

행정지원과	안전주민자치과	종합민원과	세무과	사회복지과
행정관리	안전주민자치	민원	시세 / 도세	사회복지
기획감사	민간지원	토지관리	재산세 / 과표	통합조사관리
경리	생활불편제로	지적관리	징수 / 지방소득세	무한돌봄사례관리
문화공보	민방위	지적정보		노인장애인
정보통신		가족관계등록		가정복지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건설과
지역경제	청소	건축행정	건설행정
산업	환경관리	건축	건설
교통행정	환경지도	건축물정보	도로정비
교통지도	위생관리	광고물관리	녹지
	위생지도		하천하수

영통구청장 9과 42팀

2015년 영통구청 조직도

행정지원과	종합민원과	세무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행정관리	민원	시세 / 도세	사회복지	가정복지
기획감사	가족관계등록	재산세 / 과표	통합조사관리	보육지원
주민자치	민방위	징수	무한돌봄사례관리	노인장애인
경리	토지관리			
문화공보	지적관리			
정보통신	지적정보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안전건설과
지역경제	청소	건축행정	안전정책
산업	환경관리	건축	건설행정
교통행정	환경지도	건축물정보	건설
교통지도	위생관리	광고물관리	도로정비
	위생지도		녹지
			하천하수

2014년에는 안전주민자치과를 신설하여 안전 및 주민자치, 주민지원 관련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 행정지원과의 민간지원팀과 생활불편제로팀, 종합민원과의 민방위를 안전주민자치과로 이관하였다. 그리고 세무과는 기존 세입정리팀을 폐지하고 2014년 지방소득세 개편에 따라 지방소득세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지방소득세팀을 신설하였다.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영통구청장 9과 44팀

2016년 영통구청 조직도

행정지원과	종합민원과	세무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행정관리	민원	시세 / 도세	사회복지	가정복지
기획감사	가족관계등록	과표 / 징수	통합조사관리	보육지원
주민자치	민방위	개인지방소득세	무한돌봄사례관리	노인장애인
경리	토지관리	법인지방소득세		
문화공보	지적관리	재산세		
정보통신	지적정보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안전건설과
지역경제	청소	건축행정	안전정책
산업	환경관리	건축	건설행정
교통행정	환경지도	건축물정보	건설
교통지도	위생관리	광고물관리	도로정비
	위생지도		녹지
			하천하수

2015년에는 기존 안전주민자치과를 폐지하고, 기존 건설과가 안전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여 안전건설과로 개편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 안전주민자치업무는 안전업무는 안전건설과로, 주민자치업무와 민간지원업무는 행정지원과로 이관하였고, 민방위는 종합민원과로 이관하였다. 한편 사회복지과 업무 중 가정복지와 노인장애인업무를 분리하여 가정복지과를 신설하였고, 가정복지과 내에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보육지원을 전담할 보육지원팀을 신설하였다.

2016년에는 9과 44팀을 설치 · 운영하였는데, 이는 2015년과 비교해서 2개 팀이 증가한 것으로, 지방소득세 개편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 업무를 수행할 팀을 2개 신설하였기 때문이다.

2018년에는 11과 46팀으로 2016년에 비해 2개 과가 증가했는데, 생활안전과와 녹지공원과를 신설하였다. 생활안전과는 2017년에 신설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 안전정책과의 안전정책팀, 환경위생과의 청소팀, 종합민원과의 민방위팀을 생활안전과로 이관하여, 청소행정과 안전행정을 수행하였다. 녹지공원과에는 기존 건설과에 속했던 녹지팀이 이관되었고, 조경팀과 공원관리팀이 신설되었다. 이는 기존 본청에서 수행하던 도시공원관리 업무를 구청에 이관함에 따른 것이다. 그리고 기존 녹지팀에 수행하던 업무 중 학교숲, 가로수, 쌈지공원, 가로화단 설치 및 관리 업무를 별도로 분리하여 신설된 조경팀에서 수행하게 되었다.

영통구청장 11과 46팀

2018년 영통구청 조직도

행정지원과	종합민원과	세무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생활안전과
행정관리	민원	시세 / 도세	사회복지	가정복지	안전행정
기획감사	가족관계등록	과표 / 징수	통합조사관리	보육지원	청소
주민자치	토지관리	개인지방소득세	노인장애인	보육지도	민방위
경리	지적관리	법인지방소득세			
문화공보	지적정보	재산세			
정보통신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건설과	녹지공원과
지역경제	환경관리	건축행정	건설행정	녹지관리
산업	환경지도	건축	건설	조경
교통행정	위생관리	건축물정보	도로정비	공원관리
교통지도	위생지도	광고물관리	하천하수	

영통구청장 1대민협력관, 12과 50팀

2023년 영통구청 조직도

대민협력관	행정지원과	종합민원과	토지관리과	세무1과	세무2과	사회복지과
	행정관리과	민원팀	토지관리팀	시세팀	도세1팀	돌봄지원팀
	기획감사팀	가족관계등록팀	지적팀	재산세1팀	도세2팀	통합조사관리1팀
	주민자치팀	민방위팀	지적재조사팀	재산세2팀	지방소득세팀	통합조사관리2팀
	경리팀			재산과표팀	징수팀	노인장애인팀
	문화공보팀					
	정보통신팀					

가정복지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안전건설과	녹지공원과
가정복지팀	지역경제팀	청소팀	건설행정팀	도시안전팀	녹지관리팀
보육지원팀	산업팀	환경관리팀	건설팀	건설행정팀	조경팀
보육지도팀	교통행정팀	환경지도팀	건축물정보팀	건설팀	공원관리1팀
	교통지도팀	위생관리팀	광고물관리팀	도로정비팀	공원관리2팀
		위생지도팀		하수관리팀	
				전기시설팀	

2019~2021년에는 11과 체제를 유지하고 다만 2019년 47개 팀, 2020, 2021년 48팀으로 팀이 1개씩 신설되었는데, 2019년에는 사회복지과 통합조사관리팀을 1 · 2팀으로 분리하였고, 2020년에는 건설과에 전기시설팀을 신설하였다.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2022년에는 수원특례시 출범으로 영통구청에 현장 민원처리와 갈등조정 등을 담당하기 위해 구정창을 보좌하는 하부조직으로 대민협력관을 설치하여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제26조).

마지막으로 2023년에는 대민협력관, 12과 50팀으로 조직개편이 이루어졌는데, 세무과를 세무1 · 2과로 분리하여, 세무1과는 시세팀, 재산세1팀, 재산세2팀, 재산과표팀로 구성하였고, 세무1과는 도세1팀, 도세2팀, 지방소득세팀, 징수팀으로 구성하였다.

2) 행정 인력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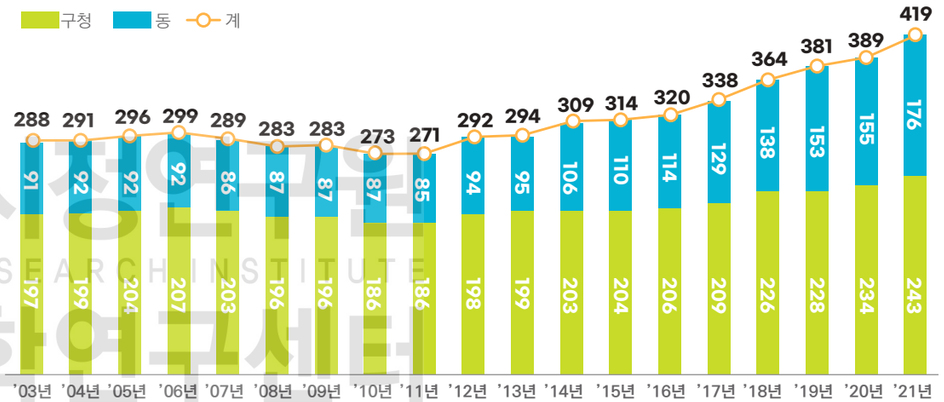
행정 기능의 변화와 역할 증가, 인구 증가에 따른 동수 증가로 공무원 수도 증가하였다. 2003년 개청 당시 구청 공무원 197명, 동 공무원 91명으로 전체 288명에서 2011년에 구청 공무원 186명, 동공무원 85명, 전체 271명으로 17명 감소했다가[1] 이후에 계속 증가하여 2014년 구청 공무원 203명, 동 공무원 106명, 전체 309명으로 300명을 넘어섰고, 2021년에 구청 공무원 243명, 동 공무원 419명, 전체 419명으로 400명을 넘어섰다.

영통구청 공무원은 2003명 197명에서 2021년 243명으로 거의 20년간 23.4% 증가했고, 동 공무원은 2003년 91명에서 2021년 176명으로 93.4%로 거의 2배 가깝게 증가하였다. 이는 행정서비스 질에 영향을 주는 공무원 1인당 인구수가 2003년 857명이었던 것이 인구 증가 비율 대비 공무원 수 증가 비율이 낮아 2008년에 900명 이상, 2011년 1,000명 이상으로 증가했다가, 2019년 900명 대, 2021년 800명 대로 떨어졌다. 이러한 변화는 구청의 조직 신설, 분동 혹은 동 신설 시기와 거의 맞물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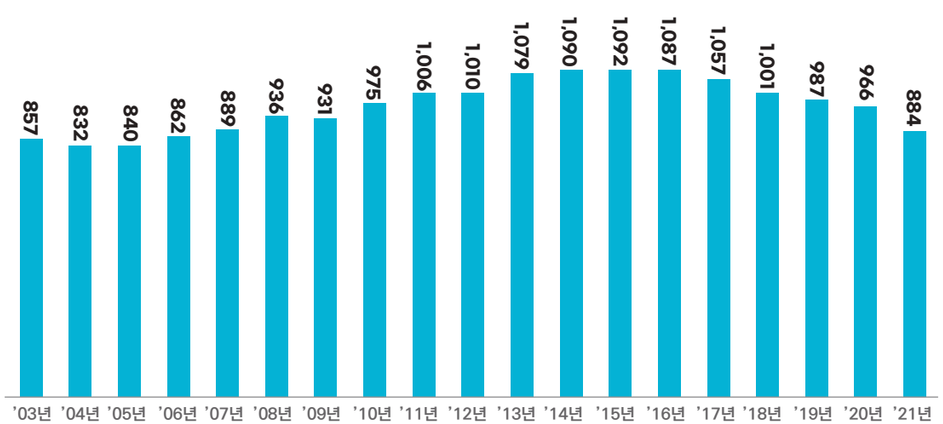
먼저, 영통구청 공무원의 경우, 2014년 안전기능을 총괄하는 안전주민자치과가 신설됨에 따라 199명에서 203명으로 증가했고, 2018년 공원관리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어 공원녹지과가 신설됨에 따라 226명으로 2017년 대비 17명이 증가하였다.

다음으로 동의 경우, 2007년 이의동이 원천동에 통합됨에 따라 동 공무원도 92명서 86명으로 감소되었다가, 2012년 원천동에서 광교동이 분동됨에 따라 94명으로 증가하였다. 광교동은 2015년 광교1 · 2동으로 분동되기 전에 준비를 시작하였는데, 2013년에 95명이었던 것을 2014년에 106명으로 총 11명을 증원한 인력을 사전 배치해 두었다. 이후 2017년 영통1 · 2동이 영통1 · 2 · 3동에 분동되어 동 공무원 수도 114명에서 129명으로 증가하였다. 마지막으로 태장동이 망포1 · 2동으로 분동된 2019년에는 153명으로 이전에 비해 15명이 증가하였다. 이와 함께 2021년부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시범동 운영 등 복지기능 확대로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 설치 · 운영됨에 따라 2020년 155명으로 2021년 176명으로 21명이 증가하였다.

직급별 공무원 현황을 보면, 구청의 경우 4급 구청장에서 2018년부터 3 · 4급으로 한 단계 상승하였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기능직이 40명 이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가 2008년부터는 6급과 7급의 비중이 높고, 기능직도 30명 이상으로 8급과 거의 유사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영통구청 공무원수(구청과 동 포함)



영통구청 공무원 1인당 인구수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표 5〉 영통구 구청 공무원 직급별 현황 (단위 : 명)

연도	총계	일반직								기능직 등 기타
		소계	3·4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2003	197	145	–	1	7	35	40	36	26	52
2004	199	148	–	1	7	38	41	36	25	51
2005	204	154	–	1	7	40	41	40	25	51
2006	207	158	–	1	7	41	41	42	26	49
2007	203	160	–	1	8	41	41	39	30	43
2008	196	158	–	1	8	41	41	38	29	38
2009	196	158	–	1	8	41	43	38	27	38
2010	186	152	–	1	8	40	41	37	25	34
2011	186	152	–	1	8	40	41	37	25	34
2012	198	159	–	1	8	44	41	38	27	39
2013	199	199	–	1	8	44	46	46	54	–
2014	203	203	–	1	9	45	51	49	48	–
2015	204	204	–	1	9	45	50	51	48	–
2016	206	206	–	1	9	46	50	51	49	–
2017	209	209	–	1	10	44	51	52	51	–
2018	226	226	1	–	11	59	78	50	27	–
2019	228	228	1	–	11	60	73	42	41	–
2020	234	234	–	1	11	59	61	50	52	–
2021	243	243	1	–	11	57	56	59	59	–

자료 : 수원시, 『수원 통계연보』 해당연도.

2013년 기능직 폐지와 일반직 전환에 따라 2013년부터는 모두 일반직으로 구성되었다. 2013년 이후 연도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6~9급은 비슷한 비율로 구성되었다. 다만 공원녹지과가 신설된 2018년에는 7급이 78명으로 가장 많고, 6급, 8급, 9급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까지 이어졌고, 이후 2020년부터 직급별로 거의 유사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동 공무원은 5~9급에 배치되는데, 5급은 동장으로 동의 수와 일치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동 공무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9급이고, 다음이 8급, 7급 순이다. 다만 2021년 동의 복지기능의 강화에 따라 8급 공무원이 대폭 배치됨에 따라 8급이 61명, 34.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동별 공무원 수는 동의 인구수와 행정수요에 따라 배치된다. 2003년에는 인구가 가장 적은 이의동에 최소 8명, 인구가 가장 많은 영통2동 13명이 배치되었다. 2022년에는 망포1 · 2동이 14명으로 가장 적고, 광교2동과 원천동이 21명으로 가장 많다. 이는 인구뿐만 아니라 동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기능 확대에 따라 복지수요가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된다.

〈표 6〉 영통구 동 공무원 직급별 현황 (단위 : 명)

연도	총계	일반직						기능직 등 기타
		소계	5급	6급	7급	8급	9급	
2003	91	91	9	9	19	21	33	–
2004	92	92	9	9	19	21	34	–
2005	92	92	9	9	19	21	34	–
2006	92	92	9	15	19	20	29	–
2007	86	86	8	15	17	19	27	–
2008	87	87	8	16	17	19	27	–
2009	87	87	8	16	17	19	27	–
2010	87	87	8	16	17	20	26	–
2011	85	85	8	11	17	21	28	–
2012	94	93	9	12	18	21	33	1
2013	95	95	9	9	21	22	34	–
2014	106	106	10	10	23	25	38	–
2015	110	110	10	10	23	27	40	–
2016	114	137	12	16	33	36	40	–
2017	129	129	11	22	29	28	39	–
2018	138	138	10	22	24	27	55	–
2019	153	153	12	25	30	39	47	–
2020	155	155	12	24	28	43	48	–
2021	176	176	12	27	32	61	45	–

수원시, 『수원 통계연보』 해당연도; 통계로 보는 수원(https://www.suwon.go.kr/stat/index.do).

〈표 7〉 영통구 동별 공무원 수 변화 (단위 : 명)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계	91	92	92	92	86	87	87	87	85	94
매탄1동	9	9	9	10	10	10	10	10	9	9
매탄2동	9	9	9	9	9	10	10	10	9	9
매탄3동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매탄4동	10	10	10	10	10	10	10	10	9	9
원천동	9	9	9	9	10	10	10	10	12	11
이의동	8	8	8	7	–	–	–	–	–	–
광교동	–	–	–	–	–	–	–	–	–	10
광교1동	–	–	–	–	–	–	–	–	–	–
광교2동	–	–	–	–	–	–	–	–	–	–
영통1동	12	12	12	12	12	12	12	12	11	11
영통3동	–	–	–	–	–	–	–	–	–	–
영통2동	13	13	13	13	13	13	13	13	12	12
태장동	10	11	11	11	11	11	11	11	12	12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95	106	110	114	129	138	153	155	176	199
매탄1동	9	9	9	10	11	11	11	11	14	15
매탄2동	9	9	10	11	11	12	14	14	14	15
매탄3동	11	11	11	11	13	14	14	14	17	19
매탄4동	9	10	10	11	12	11	12	12	14	18
원천동	11	11	12	12	14	13	14	14	18	21
이의동	-	-	-	-	-	-	-	-	-	-
광교동	11	-	-	-	-	-	-	-	-	-
광교1동	-	11	12	12	13	14	15	16	16	17
광교2동	-	10	10	10	11	11	14	14	18	21
영통1동	11	11	12	12	11	13	12	13	14	15
영통3동	-	-	-	-	11	12	12	11	13	15
영통2동	12	12	12	13	10	12	12	12	13	15
태장동	12	12	12	12	12	15	-	-	-	-
망포1동	-	-	-	-	-	-	11	12	12	14
망포2동	-	-	-	-	-	-	12	12	13	14

수원시, 『수원 통계연보』 해당연도; 통계로 보는 수원(https://www.suwon.go.kr/stat/index.do).



영통구청 민원실(2003년, 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3. 정책목표의 변화

영통구는 자치구가 아닌 일반구이기 때문에 시의 시책방향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영통구의 특성을 반영하여 구정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분야별 시책 혹은 기본방침을 설정하였다. 영통구는 용인시와 접경지에 청명산이 위치하고, 구의 중심부에는 자연형 생태하천인 원천리천과 어천, 쇠죽골천 등 소하천 등이 도심부를 가로지르는 자연여건을 가지고 있으며, 삼성전자를 비롯하여 R&D 클러스터 광교테크노벨리 등 글로벌 IT산업의 메카이다. 또한 경부고속도로와 인접하고, 영동고속도로, 용서고속도로 진입로와 주요 간선도로가 도심부를 통과하며, 수원분당선, 신분당선 지하철이 연결되어 있는 교통의 요충지이자, 광교호수공원, 영흥체육공원, 매탄공원 등 공원이 다수 존재하고, 영통 · 광교 · 매탄동 일대 중심상권이 대규모로 형성되어 있는 상업기능이 활발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수원시는 2003년부터 2009년까지 '해피 수원(Happy Suwon)', 2010년부터 '사람이 반갑습니다. 휴먼시티 수원', 2018년부터 한 단계 더 나아가 '사람 중심 더 큰 수원'으로, 2022년에는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로 지향점을 설정하였다.

이에 영통구의 특징과 수원시의 도시브랜드 방향을 반영하여 구정목표를 설정하였는데, 2004~2006년에는 '희망찬 영통구, 살기 좋은 영통구, 번영하는 영통구', 2007~2008년에는 '구민의 꿈을 실현하는 풍요로운 영통구', 2009년에는 '희망찬 행복도시 살기 좋은 새 영통', 2010년 '살기 좋은 영통 행복한 구민', 2011~2012년에는 '사람 중심의 활기찬 명품도시 영통', 2013년은 '사람이 행복한 희망도시 영통', 2014~2017년은 '사람이 중심이 되는 젊은 도시 영통', 2018~2023년은 '젊음과 문화, smart 영통'이다. 따라서 구정목표에서 나타나는 키워드는 희망, 살기 좋은, 풍요, 행복, 사람 중심, 희망, 젊음, 문화, smart이다.

구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역점시책의 워드 클라우드를 보면, 복지, 함께, 도시기반, 따뜻하고, 활력 있는, 넘치는, 친환경, 공감행정, 열린 행정, 다함께 등이 주요 키워드로 나타난다.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영통구 역대 역점시책의 워드 클라우드

영통구의 특징과 수원시 전체 정책 방향을 반영하여 마련된 연도별 정책목표와 역점시책을 소개하고자 한다. 특히 역점시책은 민원과 행정지원 및 주민자치, 복지, 문화체육, 교통, 지역경제, 환경, 안전 등 분야별로 설정되었는데, 시기에 따라 강조점이 조금씩 변화하였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희망찬 영통구, 살기 좋은 영통구, 번영하는 영통구'라는 목표를 위해 민원 및 행정 분야, 도시환경, 복지, 문화, 교통을 중점시책으로 설정하였다. 민원 및 행정 분야에서는 현장행정, 신뢰행정, 열린행정을 강조하였고,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쾌적하고, 조화롭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을 주요 시책으로 설정하였다. 복지 분야에서는 복지문화 공동체 구현, 참여복지 등을 강조하였다. 문화 분야에서는 젊고 활력 있는 지역문화를 건설하고, 품격 있고 역동적인 선진문화 육성을 중점시책으로 설정하였다. 교통 분야에서는 원활한 교통소통 대책, 앞서가는 으뜸 교통질서 확립을 강조하였다. 이 외에도 삼성전자 등 산업도시로서 IT 산업메카에 걸맞은 생활편익시설 확충이 역점시책으로 제시되었다.

2004년

희 망 찬 영통구
살기좋은 영통구
번영하는 영통구

- 원활한 교통소통 대책의 다각적 추진
- 싱그럽고 살기좋은 도시환경 조성
- 서로 화합하는 복지문화공동체 구현
- IT 산업메카에 걸맞은 생활편익 시설 확충
- 시민을 우선시하는 현장행정 강화

2005년

희 망 찬 영통구
살기좋은 영통구
번영하는 영통구

- 주민과 함께하는 신뢰행정 구현
- 아름답고 살기좋은 도시환경 조성
- 젊고 활력있는 지역문화 건설
- 다함께 만족하는 참여복지 실현
- 앞서가는 으뜸교통질서 확립

2006년

희 망 찬 영통구
살기좋은 영통구
번영하는 영통구

- 감동과 믿음의 열린행정 구현
- 쾌적하고 조화로운 도시환경 조성
- 따뜻하고 건강한 복지사회 실현
- 품격있고 역동적인 선진문화 육성
- 아름답고 편리한 도시공간 확충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2007년과 2008년에는 정책목표를 '구민의 꿈을 실천하는 풍요로운 영통구'로 설정하고, 각각 역점시책을 설정하여 사업을 수행하였다. 특히 2008년 구청 정책목표는 주민이 만족하는 감동행정, 함께하는 사회복지, 격조 높은 문화체육, 푸른 숲 맑은 공기녹색환경, 질서 있는 교통문화로, 이는 2007년의 정책기조와 매우 유사하다.

2009년과 2010년에도 수원시 비전인 '해피 수원(Happy Suwon)' 기조를 반영하였는데, 2009년에는 '희망찬 행복도시 살기 좋은 새 영통'을 정책목표로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편리한 도시기반 구축,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복지영통, 생활 속에서 열려 있는 문화체육 도시 조성, 사람과 자연이 함께 숨 쉬는 푸른 영통, 내부 역량강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등 지역경제와 도시기반, 복지, 문화체육, 환경, 행정 및 민원 5분야를 역점시책으로 설정하였다. 2010년에는 정책목표 '살기 좋은 도시 행복한 구민'을 달성하기 위한 역점시책으로, 늘 푸르고 생동감 넘치는 녹색환경 도시, 나눔과 실천으로 모두가 행복한 복지 도시, 젊고 활력 있는 문화 · 체육도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고품격 도시, 친절과 혁신을 선도하는 고객 중심 도시를 설정하였다.

2010년 수원시의 비전이 '사람이 반갑습니다. 휴먼시티 수원'으로 변경되었

2007년

구민의 꿈을 실현하는 풍요로운 영통구

- 행복을 주는 감동행정 서비스
- 사랑과 정이 넘치는 복지사회 실현
- 격조높은 문화와 역동성 체육 육성
-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색환경 조성
- 신속하고 편리한 선진 교통문화 정착

2009년

희망찬 행복도시 살기좋은 새영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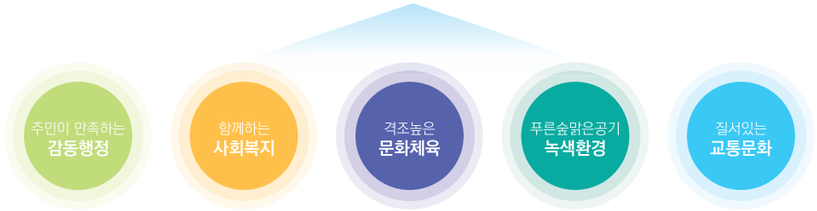


5대 역점시책

- 지역경제 활성화와 편리한 도시기반 구축
- 생활 속에서 열려있는 문화체육 도시 조성
- 내부 역량강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복지영통
- 사람과 자연이 함께 숨쉬는 푸른 영통

2008년

구민의 꿈을 실현하는 풍요로운 영통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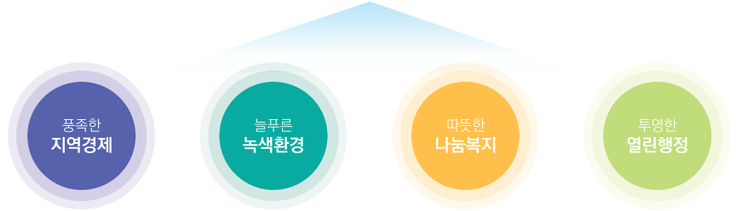


5대 역점시책

- 감동주는 행정서비스 실현
- 품격있는 문화, 건전한 생활체육 육성
-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기반 구축
-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복지사회 구현
- 깨끗하고 아름다운 녹색도시 조성

2010년

살기좋은 영통 행복한 구민



5대 역점시책

- 늘 푸르고 생동감 넘치는 녹색환경 도시
- 젊고 활력있는 문화·체육 도시
- 친절과 혁신을 선도하는 고객중심 도시
- 나눔과 실천으로 모두가 행복한 복지 도시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고품격 도시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다. 이에 영통구에서는 2011년부터 정책목표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사람'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즉, 정책이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결정되고 집행되고 평가될 것을 천명하였다. 그리고 영통구가 출범한 지 20년이 되지 않아 젊은 도시로서 활기와 희망을 정책목표에서 적극적으로 제시하였다. 2011년과 2012년 정책목표는 '사람 중심의 활기찬 명품도시 영통'으로 동일하고, 역점시책의 중점이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행정, 지역경제, 복지, 도시환경 분야에서 역점시책을 설정하였다.

2011년

사람중심의 활기찬 명품도시 영통

살맛나는 지역경제 / 싱그러운 녹색환경 / 함께하는 나눔복지 / 소통하는 현장행정

5대 역점시책

- 골목경제를 살리기 위한 미래형 도시기반 확보
- 나눔과 배려, 사랑 넘치는 복지 영통 구현
- 구민의 삶터에서 소통하는 거버넌스 행정 구현
-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녹색 Eco-City 조성
- 독특한 지역문화 창출과 격조높은 문화기반 구축

2012년

『휴먼시티 수원』의 비상을 위한

사람중심의 활기찬 명품도시 영통

소통하는 현장행정 / 살맛나는 지역경제 / 함께하는 나눔복지 / 싱그러운 녹색환경

5대 역점시책

- 참여와 소통의 주민자치, 주민 생활불편 제로화 추진
- 사랑 나눔의 휴먼시티 복지 영통 구현
- 사람이 건강한 친환경 Green-Village 조성
- 미래형 도시기반 구축과 지역 불균형 해소
- 전통문화의 계승과 문화체육 기반 확충

2013년과 2014년에는 정책목표와 역점시책이 동일한데, 정책목표는 '사람이 행복한 희망도시 영통'으로 이를 위한 역점시책으로 참여하는 주민자치, 소통하는 열린 행정 구현, 지속가능한 도시기반 구축 활력 있는 지역상권 조성, 모두가 따듯하고 행복한 맞춤형 복지 실천, 삶의 활력을 더하는 문화체육 인프라 구축, 사람이 건강한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이다. 2013년은 지방행정에서 주민참여와 주민자치가 활발하게 논의되고 강조되는 시기로 2016년에는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할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역점시책에서도 주민자치를 강조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구민 건강증진 위한

2013년

『휴먼시티 수원』의 비상을 위한

사람이 행복한 희망도시 영통

소통하는 현장행정 / 살맛나는 지역경제 / 함께하는 나눔복지 / 싱그러운 녹색환경

5대 역점시책

- 참여하는 주민자치, 소통하는 열린 행정 구현
- 모두가 따뜻하고 행복한 맞춤형 복지 실현
- 사람이 건강한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
- 지속가능한 도시기반 구축, 활력있는 지역상권 조성
- 삶의 활력을 더하는 문화체육 인프라 구축

2014년

『휴먼시티 수원』의 비상을 위한

사람이 행복한 희망도시 영통

5대 역점시책

- 참여하는 주민자치, 소통하는 열린 행정 구현
- 모두가 따뜻하고 행복한 맞춤형 복지 실현
- 사람이 건강한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
- 지속가능한 도시기반 구축, 활력있는 지역상권 조성
- 삶의 활력을 더하는 문화체육 인프라 구축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 영통배수지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2014년 5월 준공목표로 추진함에 따라 역점시책으로 삶의 활력을 더하는 문화체육 인프라 구축이 제시되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정책목표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젊은 도시 영통'으로 주요 키워드는 '사람'과 '젊은'이다. 2015년부터 역점시책에서 '안전'이 새롭게 제시되었다. 이는 2014년 안전주민자치과 신설, 2015년 안전건설과 명칭 변경 등 구에서 안전을 담당하는 조직이 만들어진 것과도 연관이 있다. 이 외에도 기존과 동일하게 행정, 녹색환경, 복지, 문화 분야에서 중점시책을 설정하여 사업을 수행하였다.

2018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 정책목표는 '젊음과 문화, smart 영통!'으로 동일하다. 그러나 역점시책은 조금씩 변화를 보이는데, 특히 2020년부터 기존에 5개로 설정했던 것에서 1개를 줄여 4개를 설정하여 제시하였다. 역점시책의 주요 분야에도 연도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데,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행정, 문화, 복지, 도시기반 및 환경 4개 분야이던 것이 2022년과 2023년에는 행정, 복지와 문화, 교통 · 경제 및 도시기반, 환경 및 안전 4개 분야로 재구성되었다.

2015년

사람이 중심이 되는 젊은 도시 영통

5대 역점시책

- 주민과 소통하는 공감행정 구현
- 모두가 신뢰하는 안전도시 조성
- 따뜻하고 행복한 맞춤형 복지 실현
- 즐거운 삶을 추구하는 웰빙도시 조성
- 건강하고 풍요로운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

2016년

사람이 반갑습니다 『휴먼시티 수원』 완성을 위한

사람이 중심 되는 젊은 도시 영통!

소통하는 현장행정 / 안전한 도시환경 / 살맛나는 지역경제 / 따뜻한 나눔복지

5대 역점시책

- 감동을 선사하는 열린 현장행정 구현
- 주민과 함께 만드는 안전한 도시환경
- 활력이 넘치는 삶을 위한 웰빙도시 조성
- 행복지수 높아가는 맞춤형 복지도시 실현
- 살아 숨쉬는 쾌적한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

2017년

사람이 반갑습니다 『휴먼시티 수원』 완성을 위한

사람 중심 젊은 영통!

소통하는 열린행정 / 안전한 도시환경 / 품격있는 문화도시 / 따뜻한 나눔복지

5대 역점시책

- 언제나 감동을 더하는 열린행정 구현
- 든든한 믿음을 주는 안전도시 건설
- 삶의 가치를 높이는 문화향유 도시 조성
- 누구에게나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실현
- 자연이 살아있는 친환경 생태도시 보존

2018년

젊음과 문화, smart 영통!

소통하는 현장행정 / 사람중심 문화도시 / 함께하는 나눔복지 / 스마트한 도시환경

5대 역점시책

- 배려와 소통으로 변화하는 공감행정 구현
- 다 함께 누리는 문화도시 조성
- 따뜻한 영통 함께하는 나눔복지 실현
- 자연과 함께 숨쉬는 친환경 도시조성
- 시민이 행복한 안전도시, 살고 싶은 영통 건설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2019년

젊음과 문화, smart 영통!

구민공감 열린행정

- 구민중심의 다가가는 적극 행정 추진
- 누구나 참여하는 열린 행정 실현
- 유기적인 효율적인 조직체계 구축

삶을 바꾸는 문화

- 삶으로 녹아든 문화의 일상화 실현
- 기대에 부응하는 수준 높은 문화 제공
- 공감과 화합을 위한 주민참여 확산

소외 없는 안심복지

- 탄탄한 실버복지, 안심 노후 지원
- 행복으로 키우는 육아 환경 조성
-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공감서비스 제공

건강한 자연친화도시

- 쾌적하고 편한안 도시 환경 제공
- 빈틈없는 안전관리로 대응 역량 제고
- 마음 놓고 숨쉬는 깨끗한 대기 관리

2020년

젊음과 문화, smart 영통!

불만 ZERO 신뢰 UP 공감행정

- 구민과 직업 소통하는 적극 행정
- 누구나 함께 참여하는 열린 행정
- 다양한 민원편의 서비스 행정
- 발로 뛰는 현장 행정

삶을 풍요롭게 수준높은 문화향유

-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문화·체육 지원
- 주민주도형 화합의 문화행사 추진
- 함께하는 즐거움이 있는 체험 콘텐츠
- 문화로 공감하고 소통하는 일상 실현

함께 누리는 똑똑한 맞춤복지

- 아이가 행복한 안심보육 환경 조성
- 건강한 노후, 든든한 노인복지 지원
- 취약계층을 위한 적극적인 복지 실현
- 민관이 협력하는 나눔 복지공동체 구현

걷고 싶은 녹색 도시

- 편안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공원과 도시가 조화로운 도시경관
- 빈틈없는 안전관리 체계 구축
- 생활편리성을 높이는 주거환경 개선

2021년

사람중심 더 큰 수원의 완성을 주도하는

젊음과 문화, smart 영통!

구민과 소통하고 함께 만드는 공감행정

- 구민과 직접 소통하는 적극행정
- 누구나 함께 참여하는 열린 행정
- 다양한 민원 편의 서비스 제공과 청사환경 개선
- 내부행정 역량강화를 구민 만족도 UP

함께 누리는 맞춤복지 그리고 문화가 있는 삶

- 아이가 행복한 안심교육, 건강한 노후, 든든한 노인 복지
- 나눔공동체구현과 사각복지 해소
- 일상에서 함께 배우고 즐길 수 있는 생활문화
- 건정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문화체육 기반 조성

구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안심복지 조성

- 편리한 도로·교통환경 조성
- 스마트 안전인프라 구축과 시설물 안전점검
- 각종 재난 과잉 대응으로 주민안전 보호
- 코로나19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

쾌적한 환경 자연친화도시 조성

- 사색과 힐링의 근린공원, 그리고 심놀이 공간 조성
- 깨끗한 환경도시 조성과 쓰레기 분리배출 생활과 추진
-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2022년

사람중심 더 큰 수원의 완성을 주도하는

젊음과 문화, smart 영통!

구 자치행정 강화 및 구민과 함께하는 공감행정

- 지방자치 역량 강화 및 확대
- 구민이 참여하는 열린행정, 소통행정
- 직원 역량 강화 & 재충전으로 구민만족도 UP

촘촘하고 탄탄한 사회복지와 문화생활

- 신뢰받는 보육, 건전한 성장, 건강한 노후
- 나눔과 배려, 주민주도형 복지공동체 구현
- 젊음과 활력이 넘치는 문화·생활체육도시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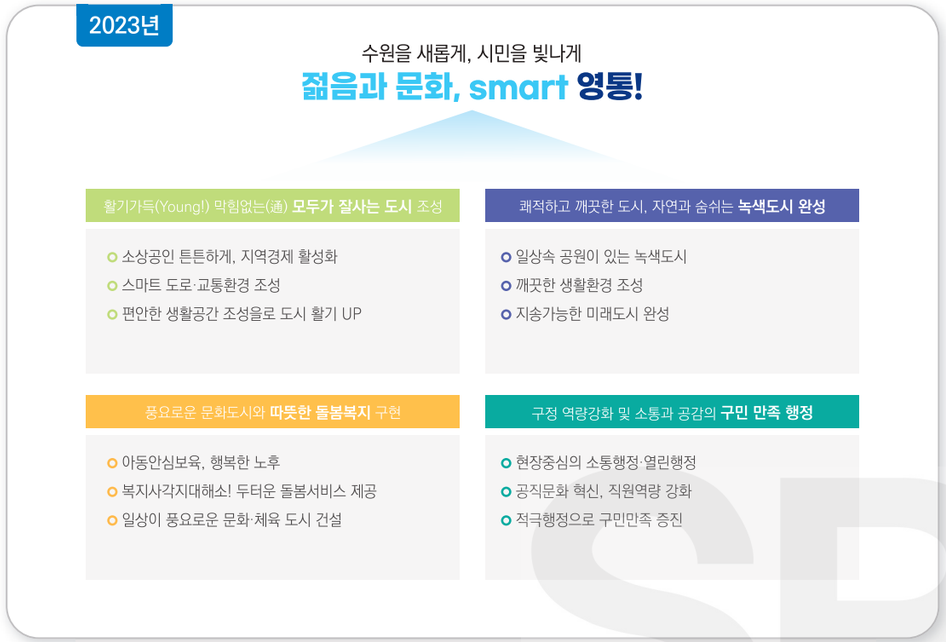
구민이 편리하고 안전한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

- 편리한 도로·교통환경 조성
- 시설물 안전성 확보 및 재난 대응체계 확립
- 신속한 코로나19 위기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

깨끗한 환경, 사계절 힐링할 수 있는 녹색 도시 조성

- 도심 속 녹지공간, 자연친화적인 생활경관 조성
-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과 자원 선순환 실천
-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4. 우수시책

1) 성과와 수상실적

수원시 영통구는 2003년 11월 24일 개청 이래 매해 구정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구청 전 공직자가 구민과 함께 노력하여 여러 부문의 각종 평가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먼저 대외평가에서 실적을 보면, 2011년 전국 인구주택총조사 기관표창(영통1동), 2014년 · 2016년 · 2018년 인천경기지방병무청 사회복무요원 실태조사(복무관리) 우수기관 표창을 받았고, 2009년 경기도 주요 지적업무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한편 경기환경대상에서는 2016년 대상, 2019년 환경우수기관부문 경기도지사상, 2020년 환경단체부문 주민자치특별상(광교1동)의 실적을 거두었다.

그리고 수원시 구행정 종합평가와 수원시 시책과 관련한 각종 행정분야별 평가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였다. 구행정 종합평가에서 2007년과 2011년에 최우수상을 시상했고, 수원시정 Best 7평가에서 2007년 영통 행복나눔축제와 2009년 희망근로와 함께하는 벽화그리기 사업이 각각 4위를 차지하였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업무에서는 2009년 수원시 세외수입 평가 우수, 2010년 수원시 체납액정리 평가 우수, 2011년 수원시 체납액정리 평가 최우수, 2018년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세무과) 우수의 실적을 보였다. 청소행정 및 재활용 관련 분야에서 2007년 청소행정 최우수(태장동), 2016년 수원시 자원재활용 수거실적 종합평가 최우수(원천동), 2016년 수원시 쓰레기 무단투기 제로화사업 최우수(원천동), 2020년 수원시 청소 시책 아이디어 경진대회 장려(매탄1동), 2021년 청소행정 종합 수행평가 종합우승(망포1동), 2021년 수원시 유용폐자원 수거 우수부서 평가에서 매탄4동이 최우수, 생활안전과, 매탄1동, 광교1동, 망포1동이 우수상, 망포2동이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규제개혁 평가에서 영통구가 행정지원과가 2015년 최우수, 2016년 우수 평가를 받았고, 2018년에는 옥외광고업무 평가에서 최우수(건축과), 2020년 통합사례관리사업 운영 평가에서 매탄1동 우수, 매탄4동 장려상의 실적을 거두었다. 그리고, 행정효율성 향상과 공직윤리문화 정착운영을 위해 실시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평가에서 2021년에 최우수를 차지했고,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평가에서 망포1동과 망포2동이 우수상을 차지하였다. 계속해서, 2021년에 행정 민원제도 개선 경제대회에서 세무과가 우수상,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평가에서 매탄1동이 대상, 영통1동이 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보였다.

주민자치의 좋은 사례 발굴 및 확산, 주민들의 교류와 학습의 장으로서 2001년부터 개최된 전국주민자치박람회 평가에서 영통구의 각 동들이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 2010년 장려상을 비롯하여, 2011년 센터활성화분야 영통1동 우승, 2012년 영통1동 최우수, 영통2동 장려, 2014년 평생 학습 분야 매탄동 우수상, 2016년 평생 학습 분야 광교1동 최우수, 2019년 지역활성화 분야 광교1동 우수상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경기도 주민자치대회에서도 2019년 매탄4동 장려상, 광교1동 우수상도 주목할 만하다.

한편 수원시에서도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각 동 주민자치센터 운영평가 및 주민자치박람회에서 2009년 영통1동이 최우수를 차지한 것을 비롯하여 각 동이 수상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각종 체육대회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는데, 2013년 전국생활체육축전 우승을 비롯하여, 수원시 체육대회에서 2007년, 2011년, 2012년에 종합우승을 차지하였다. 2013년 제3회 대통령기 전국여성축구한마당 우승, 2013년 전국저학년 리틀야구 대회 우승, 2015년 제5회 대통령기 전국축구한마당 우승 등, 영통구에서 지원하는 개별 체육 종목들이 다양한 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표 8〉 주요 수상실적

연도	수상내용	수상실적
2007	2007년도 구 행정종합평가	최우수
	제51회 수원시 체육대회	종합우승
	2007년 수원시정 Best 7 선정(영통 행복나눔축제)	4위
	2007년도 수원시 청소행정분야(태장동)	최우수
	2007년도 수원시 주민자치센터 운영 평가(영통1동)	우수
2009	2009년 경기도 주요지적업무 추진실적 평가(종합민원과)	우수
	제53회 수원시 체육대회	준우승
	2009년도 수원시정 Best 7(희망근로와 함께하는 벽화그리기 사업)	장려
	2009년 수원시 주민자치센터 운영 종합평가(영통1동, 태장동)	최우수, 우수
	2009년도 수원시 세외수입 평가	우수
2010	2010년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장려
	제54회 수원시 체육대회	우승
	2010년 수원시 체납액정리 평가	우수
	2010년 수원시 주민자치센터 운영 종합평가(영통1동, 태장동, 영통2동)	최우수, 우수, 장려
2011	2011년 구행정 종합평가	최우수
	제55회 수원시 체육대회	종합우승
	2011년 수원시 체납액정리 평가	최우수
	2011년 수원시 주민자치센터 운영 종합평가(영통1동, 태장동)	최우수, 우수
	2011년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센터활성화분야(영통1동)	우승
	2011년 전국 인구주택총조사 기관표창(영통1동)	기관표창
2012	2012년 제11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수상(영통1동, 영통2동)	최우수, 장려
	제56회 수원시 체육대회	종합우승
	2012년 제11회 여성가족부장관기 전국여성축구대회	준우승
	2012년 제12회 대통령기 전국축구한마당	우승
	2012년 제12회 문체부장관기 전국여성축구대회	준우승
	2012년 경기도지사기 축구대회	우승
	2012년 제4회 서울히어로즈기 전국리틀야구대회	우승
2013	제11회 수원시 주민자치박람회 수상(태장동, 영통1동)	우수, 장려
	제57회 수원시 체육대회	준우승
	2013년 제3회 대통령기 전국여성축구한마당	우승
	2013년 제12회 여성가족부장관기 전국여성축구대회	준우승
	2013년 전국생활체육축전	우승
	2013년 제8회 경기도지사기 생활체육 여성축구대회	우승
	2013년 전국저학년 리틀야구 대회	우승
2014	2014년 제12회 수원시 주민자치박람회 수상(태장동, 매탄4동)	우수, 장려
	2014년 제13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수상(매탄동: 평생학습분야)	우수상
	제58회 수원시 체육대회	우승
	2014년도 제1회 제주만덕배 국민생활체육 전국여성축구대회	우승
	2014년 제2회 국민생활체육 경기도연합회장기 전국여성축구대회	우승
	2014년 제15회 구리시장기 전국리틀야구대회	우승
	2014년 제12회 용산구청장기 전국리틀야구대회	우승
	인천경기지방병무청 사회복무요원 실태조사	우수기관
2015	2015년 제13회 수원시 주민자치박람회 수상 - 작품전시회 : 광교1동, 매탄4동, 매탄3동 - 동아리경연 : 매탄1동	최우수, 우수, 장려 장려
	2015년 제5회 대통령기 전국축구한마당	우승
	2015년 제14회 여주 세종대왕대 전국축구대회	우승
	2015년 제1회 하드스포츠배 전국리틀야구대회	우승
	2015년 제11회 도미노피자기 전국리틀야구대회	우승
	2015년 제7회 서울히어로즈기 전국리틀야구대회	우승
	2015년 규제개혁 평가(행정지원과)	최우수
2016	2016년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우수기관(종합민원과)	우수
	2016년 제21회 경기환경대상(환경위생과)	대상
	2016년 제15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수상(광교1동 : 평생학습분야)	최우수
	2016년 제16회 수원시 주민자치박람회 수상 - 작품전시회 : 매탄1동, 광교1동, 영통2동 - 동아리경연 : 매탄1동	최우수, 우수, 장려 장려
	2016년 수원시 자원재활용 수거실적 종합평가(원천동)	최우수
	2016년 수원시 쓰레기 무단투기 제로화사업(원천동)	최우수
	2016년 규제개혁 평가(행정지원과)	우수
2018	2018년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세무과)	우수
	2018년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기관평가(생활안전과)	우수
	2018년 수원시 주민자치센터 우수사례 발표(매탄4동, 영통2동)	최우수, 장려
	2018년 제16회 수원시 주민자치박람회 - 작품전시회 : 태장동, 광교1동, 영통3동 - 동아리경연 : 영통1·3동	최우수, 우수, 장려 우수
	2018년 옥외광고업무 평가(건축과)	최우수
2019	2019년 수원시 주민자치센터 우수사례 발표(광교1동, 매탄4동)	대상, 장려
	2019년 제17회 수원시 주민자치박람회 - 작품전시회 : 영통2동, 매탄4동, 광교1동 - 동아리경연 : 매탄4동, 영통3동	최우수, 우수, 장려 우수, 장려
	2019년 경기도 주민자치대회 참가(매탄4동)	장려상
	2019년 제18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광교1동 : 지역활성화분야)	우수상
	2019년 제24회 경기환경대상(환경위생과 : 환경우수기관부문)	경기도지사상
2020	2020년 경기도 주민자치대회(광교1동)	우수상
	2020년 수원시 주민자치활동 평가(매탄1동, 매탄2동·매탄4동·영통3동)	우수, 장려
	2020년 통합사례관리사업 운영 평가(매탄1동, 매탄4동)	우수, 장려
	2020년 수원시 청소 시책 아이디어 경진대회(매탄1동)	장려
	2020년 제25회 경기환경대상(광교1동: 환경단체 부문)	주민자치특별상
2021	2021년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평가	최우수
	2021년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평가(망포1동, 망포2동)	우수
	2021년 청소행정 종합 수행평가(영통구, 망포1동)	종합우승
	2021년 행정 민원제도 개선 경진대회(세무과)	우수
	2021년 수원시 주민자치 활동평가(매탄4동, 광교1동, 영통2동)	우수
	2021년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평가(매탄1동, 영통1동)	대상, 우수
	2021년 수원시 유용폐자원 수거 우수부서 평가 - 매탄4동/생활안전과, 매탄1동, 광교1동, 망포1동/망포2동	최우수/우수/장려

비고 : 수상 실적은 『수원시정백서』를 참조한 것으로, 2007년 이전, 2008년, 2017년 실적은 미수록.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2) 영통구정 베스트 5

영통구는 지역의 특성과 수원시의 정책 기본방향을 반영하여 설정한 비전실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2012년부터 공직자와 시민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주요 업무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2014년부터 '영통구청 베스트 5'를 선정하였다.[2] 연도별 '영통구청 베스트 5'는 영통구의 주요 시책의 성과를 알 수 있다.

2014년에는 169개 사업 중 '영통구민 한마음 축제', '도심 속 텃밭 조성을 통한 힐링&복지 실천', 매탄4동의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평생학습 분야 입상, 영통1동의 '주민이 주인되는 영통체육문화센터' 운영, 태장동의 '우렁각시 파수꾼 도농캠프단'이 우수시책으로 평가받았다. 2015년에는 158개 사업 중 지방세 체납 SOS서비스, 광교2동의 '원천 · 광교 한마음 축제', 광교1동의 '꿈마을 사랑장', 매탄2동 클린마을 조성사업, 동수원상가부지 철거사업이 영통구정 베스트 5로 선정되었다.

2016년에는 159개 사업 중 쓰레기 감량을 위한 종합대책으로 쓰레기봉투 배출표시제, 폐현수막을 가치 있는 업사이클링 제품으로 재활용한 '폐현수막 재활용 BANK', 안전하고 안심하며 안정된 3安도시 완성을 위한 '스마트폰 안전사용 실천운동', 광교신도시 주민 간 화합과 소통에 기여한 광교1동 제15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참가 · 홍보, 영통1동의 친환경적인 생태교통체험의 '영통 차 없는 거리축제'가 우수 시책으로 평가받았다.

2018년 162개 사업 중 '영통구청 베스트 5'는 영통구청 개청 15주년 구민화합을 위해 추진한 '제2회 매여울 어울림 축제 개최', 영유아에게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한 '찾아가는 어린이집 인형극 공연', 365일 안전도시 수원 건설을 위해 아동에게 가상체험 안전교육을 실시한 'VR로 배우는 4D 안전체험', 청사 옥상에 텃밭을 가꾸어 마을정원을 만든 '나누면 더해지는 사랑의 초록 및 옥상', 청명단오제 행사에서 옛 물건을 판매 · 전시하여 옛것에 대한 가치를 일깨우는 계기를 마련한 '고물이 보물이다' 운영이다.

2019년에는 구 · 동 전 직원과 구민의 합심하여 추진한 185개 사업 중 영통구청 청사 내 다양한 미술작품의 전시로 생활 속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한 열린 미술관 'Gallery 영통', 생활쓰레기 감량을 위한 '생활폐기물 Diet 사업', 미세먼지 · 폭염 등 각종 환경재난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삼성전자와 업무협약을 통해 중수도공급시설을 설치 · 운영한 '버려지는 물 환경용수로 재탄생',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통행로 확보와 초등학교 주변 안전사고예방을



2019 주민과 함께하는 우수시책 평가(『수원화성신문』 2019년 12월 23일)


2014년 영통구민 한마음 축제(『뉴스피크』 2014년 11월 11일)


2015년 광교1동 '꿈마을 사랑장'(『경인데일리』 2015년 4월 2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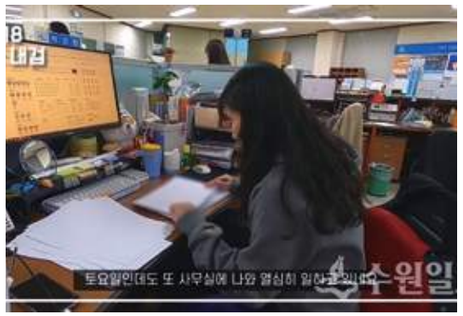

2016년 폐현수막 재활용 BANK(『경인종합일보』 2016년 10월 12일)


2018년 찾아가는 어린이집 인형극 공연(『경인종합일보』 2018년 6월 6일)

수원화성문화재단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2019년 Gallery 영통(수원시 블로그)



2020년 영통 생생리포트(『수원일보』 2020년 5월 31일)



2021년 영통 현안해결단(『수원신문』 2021년 4월 6일)



2022년 망포2동 희망뚝딱 행복드림(『문화매일신문』 2022년 12월 28일)

위한 '부모의 마음으로' 초등학교 안전통학로 조성, 지역주민이 누구나 참여하고 누구나 학습할 수 있는 기회 제공으로 주민자치 역량강화 토대를 마련한 '산드래미의 유쾌한 마을살이'가 '영통구정 베스트 5'로 선정되었다.

2020년에는 총 191개 사업이 추진되었는데,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통구의 소소한 일상을 시민과 공유하고 소통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한 '영통 생생리포트', 코로나19 위기 속 어려운 이웃에게 적시에 희망 나눔복지를 실현한 '코로나19 위기속 따뜻한 희망영통 만들기', 지역주민 숙원사업이었던 영통1동 업타운 코드더테라스~보배로운 교회 도로 확장을 통해 차량정체 개선 등 교통개선을 이루어 낸 '꽉 막힌 도로, 이제는 씽씽도로로 탈바꿈',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주민과의 소통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소식지 '만나지 않아도 알아요! 집콕시대 신박한 소통채널' 제작 · 배포하여 주민과의 비대면 소통창구 확대, 코로나19에 따른 마스크 수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 직접 만든 마스크를 전달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수제마스크 제작 · 나눔'의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었다.

2021년에는 189개 사업 중 밀착형 현장행정을 구현한 '영통 현안해결단', 미래 클린도시 구현의 기초가 될 '올바른 분리배출 플랫폼',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기회가 부족한 저소득층 학생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비대면 학습 · 정서 멘토링 운영', 소외된 저소득 가정에 목도리를 지원한 '손끝사랑-망포2동 명품 쁘띠목도리', 기부와 나눔 릴레이를 통한 어려운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매여울 온(溫)마음 희망 브릿지 나눔 캠페인'이 우수시책으로 평가받았다.

그리고 2022년에는 지역보장협의체와 대학생 봉사단체가 연계해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망포2동 '희망뚝딱! 행복드림(Dream)', 원스톱 통합민원서비스 제공으로 민원만족도를 높인 '민원접견실 조성 · 운영', 신동수변공원을 새로운 특화거리로 만든 '수국정원 조성', 맞춤형 스마트기기 교육 등으로 어르신들의 디지털 활용능력을 높인 'Smart 영통, Smart 경로당', 직원들의 활력충전 및 화합을 위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아무튼 출장!' 등 5건이 선정되었다.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참고문헌

「수원시 영통구 '영통구민 한마음축제' 성황리 개최」(http://www.newspeak.kr/news/articleView.html?idxno=73824), 『뉴스피크』 2014년 11월 11일.
「수원영통 광교1동, '꿈사랑 사랑장' 성료」(http://m.gidaily.co.kr/5973), 『경인데일리』 2015년 4월 26일.
「수원시 영통구 '폐현수막 재활용 뱅크' 협약 체결」(http://www.jonghap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6434), 『경인종합일보』 2016년 10월 12일.
「영통구, 찾아가는 어린이집 인형극 공연」(http://www.jonghap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67682), 『경인종합일보』 2018년 6월 6일.
영통구 우수시책, 주민의 손으로 뽑는다 (http://esuwon.net/43468), 『수원화성신문』 2019년 12월 23일.
「영통구청 직원이 만든 유튜브 영상 '생생리포트' 눈길」(http://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647), 『수원일보』 2020년 5월 31일.
「수원시 영통구, 우수시책 '올해의 Best 5' 선정 (http://www.dailyculture.kr/937536), 『문화매일신문』 2022년 12월 28일.
「영통 현안해결단, 영통구청사거리 차선확장 등 현안 논의」(http://www.newsuwon.com/news/articleView.html?idxno=19323), 『수원신문』 2021년 4월 6일.
수원시, 『수원시정백서』, 해당연도.
수원시, 『수원기본통계』, 해당연도.
수원시 공식블로그(https://m.blog.naver.com/suwonloves/221407391481).

1) 수원시는 2008년에 행정안전부의 공무원의 감축지침을 토대로 정원을 감축함에 따라 구청 정원도 감소되었다. 행정안전부는 2008년 당시 78명 감축을 요청함에 따라 61명 감축하는 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으나 시의회가 행정수요 등을 고려해 47명만 감축하는 수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후 계속 감축계획을 마련하여 실행하였다.

2) '영통구정 Best 5'는 동일한 비율로 구성된 부서장과 시민평가위원이 구정발전기여도, 주민만족도, 홍보실적, 발표력 등을 평가해 선정한다.

영통과 광교, 수원의 강남[1]

영통구 주거공간의 차별화에 대한 인식과 그 변화

이성호 경상국립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 들어가며 : 수원에도 '강남'이 있을까?

신문기사, 특히 부동산 면의 기사에서 자주 언급되는 표현이 있다. 바로 'ㅇㅇ 지역의 강남'이라는 문구이며, 제목에 이 말이 나올 때면 어김없이 좋은 입지 조건에 높은 분양가로 아파트가 공급된다거나,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는 지역이라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기사가 이어진다.

한국적 도시화 과정에서 가장 인구와 기능이 집중된 서울의 내부 공간은 사회계층 간의 분화가 확대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이른바 강남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형태의 차별적 공간을 형성하였다. 오랫동안 상류층 주거지로서 지위를 누려왔던 강북의 소규모 부촌과 달리, 강남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러움과 욕망이 투영되는 공간인 동시에 한국적 도시화의 목표이자 이데올로기로 자리매김한 대중화된 부촌이다. 강남은 기본적으로 경제 환경, 교육 여건 등 다수의 대중들이 선호하고 시대적으로 요구되는 양호한 주거환경을 갖췄다는 점에서 부동산 시장의 핵심자산으로 자리매김한 동시에 부의 편중, 과열된 사교육 등 사회경제적 양극화에 따라 심각해지는 도시 내 주거불평등의 표상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즉 현 시대에서 강남은 서울의 한 지역이라는 사전적 정의를 넘어 독보적인 지위와 정체성을 가진 위계적 주거공간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서울이라는 공간적 경계를 넘어 부산의 '강남', 광주의 '강남', 대구의 '강남' 등으로 복제 · 확산되고 있다.[2]

개인의 주거지에 대한 선호도는 기준을 설정하기 어려운 주관적 가치개념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어디에 살지를 결정하는데 있어 저소득층은 일자리 접근성을, 서민층은 주택소유의 실현 여부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반면 고소득 계층은 상대적으로 입지 선택의 제약요인이 적다는 점에서 스스로의 선호도에 따라 주거입지를 선택하게 된다. 따라서 주거입지 선택의 자유도가 높은 고소득 계층의 주거지역은 당시의 주거환경에 대한 선호와 가치를 드러내는 척도라고 할 수 있으며, ○○ 지역의 '강남'은 시대적 환경에서 선호되는 주거에 대한 인식이 사회 · 경제 · 문화적 여건 속에서 공간상에 실현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 지역의 '강남'을 찾는다는 것은 해당 지역의 주거공간의 계층성을 파악하고 공간상에서 가시화되는 사회 · 경제 · 문화적 갈등 양상을 탐색하는 것이다.

수원시 역시 20세기 후반 대규모의 주거지역 개발을 통해 도시의 몸집을 불려왔다. 1949년 수원읍이 수원시로 처음 승격할 당시 인구는 불과 5만 명이었다. 하지만 1980년대 동수원 개발사업을 통한 인계동 일대 개발을 시작으로 대규모 주거지역의 조성이 본격화되면서 1990년대 영통지구, 정자 · 천천지구, 2000년대 호매실지구와 광교신도시 등이 지속적으로 개발되었고, 그 결과 수원시는 100만을 훌쩍 넘는 인구를 자랑하면서 광역시인 울산보다도 인구가 많은 전국 7위의 도시가 되었으며 특례시라는 지위를 부여받기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수원의 성장 과정에서 형성된, 이 구분되는 여러 지역들이 어떤 차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와 그 중에서 앞서 언급한 이른바 '강남'에 상응하는 주거공간이 수원에도 존재하는가에 대한 궁금증 역시 생길 수밖에 없다. 현재까지 수원의 '강남'에 해당하는 지역이 어디이며, 그 지역이 가지는 차별적 특성이 무엇인지를 밝힌 연구는 진행된 적은 없었다. 가십성으로 언급될 때 많이 거론되는 것은 삼성전자의 배후도시 성격을 가진 영통[3]과 가장 최근 개발된 지역 중 하나이며 호수공원 등 뛰어난 주거환경과 높은 주택 가격으로 많은 주목을 받은 광교신도시 등이다. 하지만 이러한 언급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라고만 칭해질 뿐 구체적인 자료나 통계에 근거해 지역의 성격을 규정지은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이 글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기 위한 하나의 시도이다. 즉 수원에도 과연 '수원의 강남'이라고 불릴 만한 특징적인 주거공간이 있는지, 있다면 그 특징은 무엇인지를 보다 구체적인 과정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통계적 분석과정을 통해 수원의 주거공간을 유사한 사회 · 경제 · 물리적 특성을 가진 몇 개의 사회지역(social area)으로 구분한 뒤, 그 중 이른바 수원의 '강남'에 해당하는 지역의 공간적인 영역을 획정하고 이 지역의 주거환경 및 사회 · 문화 · 경제적 특성을 밝히는 과정을 진행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과연 수원에 '수원의 강남'이라는 주거공간이 존재하는 지와 존재한다면 '수원의 강남'이 '서울의 강남'과 가지는 차이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한다.

2. 한국사회와 강남 만들기

1) '강남'의 탄생과 강남 따라 하기

현재의 사회적 공간으로서 (서울의) 강남이 그 물리적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부터이다. 1966년 수립된 '남서울 신도시 기획안'에서부터 시작한 한강 이남의 동쪽 지역 개발은 '영등포의 동쪽'이라는 의미의 영동지구 신시가지 계획으로 이어지면서 본격화되었다.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에서 유하 감독이 재현하던 변화기의 강남은 199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된 부동산 버블시기를 거쳐서 이제는 한국사회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가진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기존 서울 도시의 공간적 문법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진 강남이라는 물리적 공간은 한국 사회의 경제적 성장을 상징하는 동시에, 사회계층 간의 관계 변화, 급격한 경제성장에 따른 천민자본주의의 출현과 물질숭배를 대변하는 욕망의 공간이기도 하다.

강남은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서 하나의 신화와 같은 공간이다. 1970년대 강남의 개발이 논밭을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시키면서 일부 계층의 인생역전으로 1막을 마무리하였다면, 2000년대 이어지는 부동산 가격 상승과 최근의 재건축 붐은 '강남불패'라는 용어와 함께 강남을 주연으로 하는 또 하나의 신화를 완성하였다. 2000년대의 강남불패는 강남의 신화를 광범위한 도시 중산층에게까지 확대하였고, 강남을 그들의 현실공간인 동시에 우리들의 욕망의 공간으로 투사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강남의 성격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자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을 하였다. 강준만은 대중들이 강남을 탐욕과 욕망으로 만들어진 공간이라고 비판하지만 실제로는 누구나가 마음속으로 동경하는 욕망을 담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박배균 · 장진범[4]은 1970년대부터 본격화된 강남의 성장 과정을 해석하면서 이를 한국적 도시 이데올로기가 형성되는 '강남화'(Gangnam-ization)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이 강남화의 과정은 다시 강남을 물리적으로 건설하고 담론적으로 재현하는 강남 만들기의 과정과 이것을 통해 형성된 신도시 건설의 제도적 장치와 이렇게 형성된 도시 이데올로기를 바탕으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로 전국적으로 강남을 보급하고 복제하는 강남 따라 하기의 과정으로 구분된다. 즉, 강남은 단순한 서울의 고급주거지가 아니라 한국적 도시 이데올로기를 상징하고 있으며, 동시에 자산증식을 지향하는 신중간계층을 대상으로 한 도시 공간의 계층별 주거지 분화 과정을 수반한다. 이전에 계층적으로 혼재된 도시 내의 주거 공간은 강남화 과정을 거치면서 대규모 고급 아파트 단지 건설을 통해 신중간계층과 서민 · 도시빈민 간의 공간적으로 분리되었다. 물질적인 측면에서 강남은 고급 고층 아파트와 근린생활 시설이 완비된 중산층 주거지이자 전국적 교통 · 경제 · 문화의 중심지라는 특징을 가지면서, 사회 · 문화적으로는 정치적 보수성, 인적 · 문화적 · 사회적 자본의 집중, 과시적 소비문화, 사교육과 경쟁주의로 특징지어진다.[5]

서울에서 이루어진 강남 만들기라는 선도적 과정은 그 자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적 도시화의 모델로서 여러 지역에서 복제되고 재생산되는 이른바 '강남 따라 하기'의 과정을 통해 전국화되었다. 즉, 강남 따라 하기는 강남이 한국적 도시화의 이데올로기이자 롤 모델로 자리 잡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제도적 장치와 도시 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강남식 도시 공간을 전국적으로 복제, 보급하였으며,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강남화된 신도시는 한국의 도시 중산층이 지향하는 도시적 이상으로 포장되었다. 이제는 자연스럽게 이곳저곳에서 언급되는 'ㅇㅇ의 강남'은 한국의 지방 도시 곳곳에서 가장 뛰어난 거주환경과 잠재력, 그를 통해 부동산 자산가치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대표적인 우량자산이 되었고, 'ㅇㅇ의 강남'으로 언급되는 것 자체가 지역 주민에게는 자부심을 가져다주는 사회적 현상이 되었다. 강남 따라 하기의 과정을 통해 지방의 도시들은 서울-지방이라는 중심-주변적 일방적 관계를 지역 내에서 재현해내면서 다시 한 번 도시공간의 위계적 서열화를 만들어내고 자신들이 거주하는 장소에 대한 장소적, 계급적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6]

2) 강남의 지리적 영역과 장소적 속성

그렇다면 흔히 말하는 '강남'은 어느 지역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점이 존재한다. 강남(江南)이라는 단어 자체는 강(하천)의 남쪽 지역을 가리키는 일반명사로 서울에서는 한강의 이남 지역 전체가 다 강남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문자 그대로의 강남을 의미한 것일 뿐,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강남'과는 그 성격이 전혀 맞지 않는다.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강남, 그리고 이 글에서 다루는 사회적 공간으로서의 강남은 보통 강남구를 중심으로 인접한 서초구, 송파구등을 포함하는 영역적 범위를 의미하며, 이때는 '강남 3구'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오늘날의 강남 지역을 가리키는 의미로 가장 먼저 사용된 것은 '영동'이었다. 영동은 영등포의 동쪽이라는 뜻으로 강남 개발 당시 사업명 역시 영동지구 개발사업이었다. 이로 인해 초기에는 영동대로, 영동대교 등 여러 명칭에서 영동이라는 말이 많이 쓰였지만, 강남구가 생겨나고 강남역이 활성화되면서 점차 그 쓰임새가 적어져 최근에는 거의 쓰이지 않는다. 강남구에 있는 대표적 종합병원 중 하나인 세브란스 병원의 명칭이 2009년 영동 세브란스 병원에서 강남 세브란스 병원으로 변경된 것은 영동과 강남의 위상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최근에는 송파구의 동쪽에 위치한 강동구까지를 포함해 '강남 4구'라는 용어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특히 부동산 동향분석과 주택정책 수립 등에서 주로 많이 사용된다. 이것은 강남이 가진 속성을 기본적으로 주택 가격이 높은 지역으로 파악하는 것이며, 따라서 강남 주변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이 일어나는 곳, 혹은 공간적으로 이격되어 있더라도 강남 지역과의 부동산 가격 동조화가 나타나는 지역이 그 대상이 된다.

또 다른 한편에서 강남을 상징하는 대표적 용어가 바로 '8학군'이다. 8학군이란 서울 시내의 고등학교 배정을 위한 학군 중 하나를 가리키는 용어로 강남 일대의 인구 증가에 따라 1978년 처음으로 생겨났다. 8학군이 지금과 같이 강남을 대표하는 용어로 떠오르게 된 계기는 1980년 고등학교 배정이 행정동 기준의 거주지역에 따르는 것으로 변경되고 부터인데, 이때 8학군에는 경기고, 휘문고, 서울고, 숙명여고 등 강남 개발 과정에서 강북에서 이전해온 전통의 명문 학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 학교에 진학할 경우 향후 사회생활에서 동문 네트워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와 함께 실제 서울대 진학률 등 여러 입시 관련 지표들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강남의 뛰어난 교육여건을 대표하는 말로 그 의미가 변하였다.[7]

하지만 실제 8학군의 공간적 범위는 강남구와 서초구뿐만 아니라 송파구와 강동구 전역까지를 포함하고 있었지만 강남의 교육 여건을 가리키는 의미로 8학군을 사용할 때는 애써 이러한 사실관계를 외면한 채 강남구와 서초구 지역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주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이 8학군에는 오히려 현재 높은 아파트 가격으로 주목받고 있는 서초구 반포본동과 그 지역의 고등학교들(9학군에 해당)은 빠져있기도 하다. 또한 최근에는 공교육보다는 사교육 여건이 더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으로 추세가 바뀌면서 오히려 8학군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보다는 '대치동'이 강남의 뛰어난 교육여건을 상징하는 용어로 그 기능을 대체하는 현상도 나타난다.

〈표 1〉 다양한 강남의 지리적 영역에 대한 정의

구분	지리적 영역	특징
한강 이남	한강 남쪽에 위치한 서울의 11개 구	문자 그대로의 강남을 해석강북이 아닌 지역을 언급할 때 사용
영동	영등포구의 동쪽	도시화 개발 초기 계획상 지명
강남3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사회계층, 문화집단에 대한 사회과학적 연구에서 사용
강남4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부동산 동향분석과 주택정책 수립시 사용
8학군	서초구, 강남구	입시 위주 교육환경 언급 시 사용

자료 : 정수열, 2018, 「강남의 경계 긋기: 사회지역분석 및 요인생태학적 접근」, 『대한지리학회지』 53(2), 178쪽.

일반 사람들도 강남의 영역적 범위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은 채 상황적 맥락에 따라서 강남의 의미를 다르게 사용하는데 이와 관련해 이동헌 · 이향아의 연구[8]는 흥미 있는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일반 시민 183명에게 본인이 생각하는 강남의 범위를 행정동 단위로 표시하는 심상지도를 작성하게 하였는데, 그 결과 응답자 전원이 강남으로 인정한 서울시 행정동은 하나도 없었다. 응답자의 대부분은 강남구의 중북부에 속하는 행정동을 강남의 일부로 인식하였지만, 사교육 중심지인 강남을 대표하는 대치동과 강남역이 있는 역삼동, 강남 내에서도 전통적 부촌에 해당하는 압구정동 등도 일부는 강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강남의 지리적 영역에 대해 대체적으로 서쪽의 경계는 서초구로 인식하면서 관악구나 동작구는 강남의 일부로 받아들이지 않는 반면, 동쪽 경계에 대해서는 그 인식의 폭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특성을 보였다. 이처럼 우리가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대체적으로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강남'의 심상적 이미지 역시 영역적으로 구체화되어 있지 않으며, 이를 통해 강남이라는 사회적 공간의 영역이 다양한 차원에서 형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강남의 영역적 범위를 정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강남적 속성이 무엇인지를 정의하기는 더 어려운 문제가 된다.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강남'은 그렇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지는 못하고 있다. 이는 강남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용되는 맥락적인 의미가 영역화되고 계층화된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는 급격한 도시화 과정에서 타 지역을 소외시키고 여러 가지 사회적 자원과 경제력을 상대적으로 독차지한 일부 계층들이 만들어 낸 영역적 공간이며, 이를 통해강남이라는 공간이 대한민국 전체에서 차별과 배제의 이데올로기를 주도하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내는 용어로서 '강남'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즉 중립적인 의미로 강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더라도 여기에는 일종의 사회 이데올로기적 인식이 들어가 있다는 점이다.

박배균 · 장진범[9]은 인터뷰를 통해 '강남'이라는 공간에 대한 인식을 도출하여 몇 가지로 유형화하였는데, 가장 우선 언급되는 강남의 속성은 이상적 신도시로서의 강남으로, 강남은 '정돈된 공간', '고급 대단지 아파트', '자기 충족적 세계', '공간적 예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전국구 강남과 강남의 회춘을 들고 있다. 이것은 '경제의 중심지', '전국구 강남', '대장주 강남', '자산으로서의 도시'로서의 강남에 대한 인식이다. 김창석 · 강세진[10]의 경우 인물정보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른바 파워엘리트 계층의 주거지역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분류하였는데,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의 강남 3구 지역의 파워엘리트 거주자는 서울시 전체의 47.3%에 달할 정도로 고소득 엘리트 계층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이라는 점을 밝혔으며, 정수열[11]은 근린환경지표를 통해 도출해 낸 강남적 주거환경의 특성은 편의시설과 문화체육시설이 많고 공교육보다는 사교육 환경이 탁월하며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이 많으면서도 인구수에 비해 주택면적이 넓고 지가가 높은 고급주거지로 취학연령대 자녀를 둔 혈연가구가 주로 거주하는 지역이라는 특성을 밝혀내기도 하였다.

3. 수원의 강남 찾기

1) 사회지역분석을 적용한 강남 찾기

1940년대 말 쉐브키(E. Shevky), 벨(W. Bell) 등은 도시생태학의 경험주의에 근거해 도시를 다차원적인 구조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회지역'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사회지역이란 동일한 생활수준과 생활방식, 민족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사라가는 곳을 의미하는데, 사회경제적 지위, 가족적 지위, 민족적 지위라는 3가지 요인에 따라 여러 사회지역이 형성되고, 각각의 사회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회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과 체계적으로 다를 것이라는 것이 사회지역분석의 기본적인 가정이다.[12] 각각의 패턴을 가지는 사회경제적 지위, 가족적 지위, 인종적 지위의 3가지 차원이

SWRI 수원학연구센터 SUWON RESEARCH INSTITUTE

공간상에서 결합되면서 특정한 생활양식을 공유하는 동일한 사회집단이 거주하는 사회지역의 구조와 체계가 도시 공간상에서 형성된다.

보통 도시공간 구조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사회지역분석과 요인생태학(factorial ecology)을 같이 묶어서 언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요인생태학은 기술발달과 사회진보에 따른 연산능력의 향상과 통계자료의 구축 등을 기반으로 한 계량혁명의 영향 하에 도시생태학 연구에서도 이를 활용하고자 하는 접근방법이다. 즉 다양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s analysis)을 통해 도시 내부의 계층 간 분포 패턴을 귀납적으로 식별하는데, 고전생태학의 직관적인 변수 정의를 지양하고 센서스 자료를 토대로 한 계량화를 통해 유의미한 요인을 도출하여 사회지역을 탐색하고자 하는 시도이다.[13]

사회지역분석은 도시 내부의 공간구조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사회경제적 지위, 가족적 지위, 민족적 지위라는 3가지를 정의하고 해당 요인들을 지표를 통해 측정하여 도시공간을 유형화하는 연역적인 접근을 시도한다. 반면, 요인생태학은 도시 공간구조를 형성하는 요인을 사전에 설정하지 않고, 다양한 통계자료를 통계적 기법에 의해 분석하는 것을 통해 도시 내부의 계층 간 분포 패턴을 식별하는 귀납적 접근을 한다는 점에서 사회지역분석과는 오히려 상반된 접근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요인생태학의 여러 연구결과에서 통계적 분석을 통해 식별해 낸 도시공간의 패턴과 그를 형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속성이 결과적으로 사회지역분석에서 가정한 세 가지 요인과 매우 유사한 결과로 나타나면서 사회지역분석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결과로 이어졌기 때문에 보통 사회지역분석과 요인생태학을 같이 언급한다.

이 글에서 관심을 가지는 '강남'은 사회적 · 경제적 · 물리적 측면에서 유사한 내부적 속성이 공유되고 또 그를 향유할 수 있는 유사한 집단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주변의 비강남 지역과 차별화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일종의 사회지역으로 바라볼 수 있다. 사회지역은 다른 집단과 생활 방식의 차이를 가진, 내부적으로 유사한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사회지역분석의 결과는 특정 사회집단 또는 사회 환경이 어디에 존재하는가에 대한 사전 예측이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도시 내부의 구조가 잘 알려지지 않은 지역에서 후속 연구를 진행하는 데 있어 사례지역 선정의 가이드를 제시하는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여기에서도 사회지역분석이 가진 이러한 장점에 주목하여, 수원 내부 주거공간의 공간구조를 파악하는 동시에 수원의 '강남'에 해당하는 속성을 가진 지역을 1차적으로 도출해 내는 목적으로 사회지역분석과 요인생태학의 관점에서 수원의 주거공간을 유형화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주택, 인구, 생활 · 편의 · 교통, 복지 · 문화, 교육 등 거주민의 사회경제적 특성 및 근린의 주거환경과 관련한 총 18개의 지표를 주거환경 분석을 위한 지표로 구성하였으며, 이를 요인생태학에서 주로 활용하는 요인분석(주성분분석)을 실시해 유사한 특성을 공유하는 몇 가지의 사회지역 유형을 도출하였다. 분석 시점은 2018년이며,[14] 분석의 단위는 수원시의 행정동이 2018년 기준 43개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해, 현재 통계청에서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가장 최소 공간단위인 집계구[15]를 분석의 공간적 단위로 설정하였다. 사회지역의 도출에 활용된 18개 지표와 자료 구축방법은 〈표 2〉와 같다.

〈표 2〉 수원시 주거공간 유형화를 위한 지표

분류	지표	해설	구축방법	기준연도
주택	공동주택 비율	총주택 중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비율	집계구 데이터	2017
	주택당 평균면적	주택별 평균 면적		2017
	노후주택 비율	건축연도 20년 이상 경과한 주택 비율		2017
	자가점유 비율	지역 총주택 중 자가점유 주택 비율		2010
	공시지가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표준지 공시지가를 내삽해 집계구 평균 산출	2018
인구	청장년인구 비율	지역 총인구 중 15-64세 인구 비율	집계구 데이터	2017
	혈연가구 비율	지역 총가구 중 2세대 이상 가구 비율		2017
	대졸이상 인구 비율	지역 총인구 중 대졸이상 인구 비율		2010
생활 편의 교통	편의시설 수	공공기관(주민센터, 시청, 구청, 파출소, 소방서), 은행 수	반경 400m 이내 해당시설의 수	2018
	쇼핑시설 수	대규모 점포 및 휴게음식점(편의점) 수		2018
	외식시설 수	일반음식점 수		2018
	대중교통 접근성	정차버스 노선 수		2018
복지 문화	보육복지	유치원 및 어린이집 수		2018
	보건복지	병원, 약국, 의원 수		2018
	노인복지	노인복지시설 수	반경 1.5㎞ 이내 해당시설의 수	2018
	사회복지	사회복지시설 수		2018
	문화체육시설	공연장, 박물관, 영화관, 종합체육시설의 수		2018
교육	학원수	교육서비스업 수		2017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2) 수원의 주거공간 유형과 수원의 '강남'

집계구 단위로 구축한 18개의 주거환경 지표를 대상으로 요인분석(주성분분석)을 통해 수원시의 주거공간을 5가지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으며 유형별 속성과 분포 양상은 각각 〈표 3〉 및 〈그림 1~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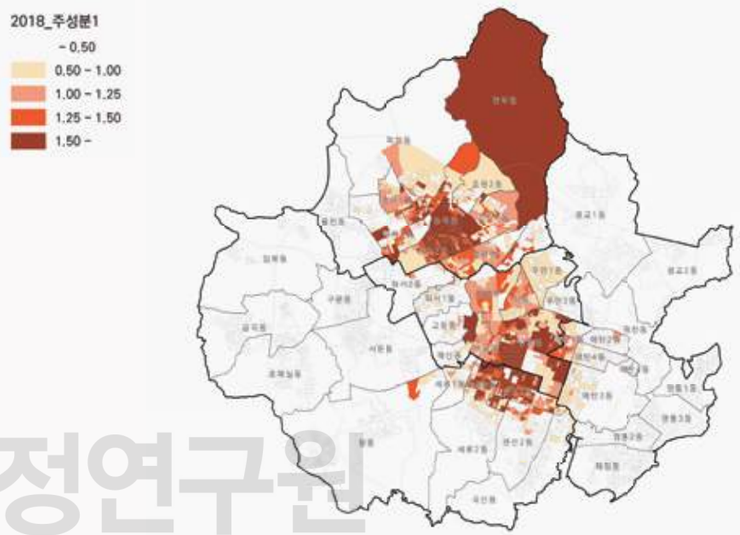
우선 첫 번째 유형은 노인복지시설, 문화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과 외식시설, 학원 등 각종 서비스 시설이 주로 분포하고 있는 지역으로 팔달구와 장안구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대체적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보다는 다세대 주택 등이 중심인 지역이라는 점에서 원도심형 근린으로 성격을 규정할 수 있다. 두 번째 유형은 외식시설, 쇼핑시설, 편의시설, 보건복지시설 등이 많고 대중교통 접근성이 높은 반면 혈연가구의 비율은 낮게 나타나는 특성을 가진 지역으로 주로 도심의 상업지역 주변에 해당한다. 가족 단위의 거주보다는 1인 가구 등의 거주 형태 등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이러한 특징을 고려할 때 도심서비스형 근린으로 그 특성을 규정할 수 있다. 세 번째 유형은 주택의 평균면적이 넓고 청장년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반면, 공동주택 비율과 혈연가구 비율, 자가점유 비율은 낮게 나타나는 특성을 보이며 주로 도심 외곽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데, 하나의 성격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혼합형 근린으로 명명하였다.

〈표 3〉 2018년 수원 주거공간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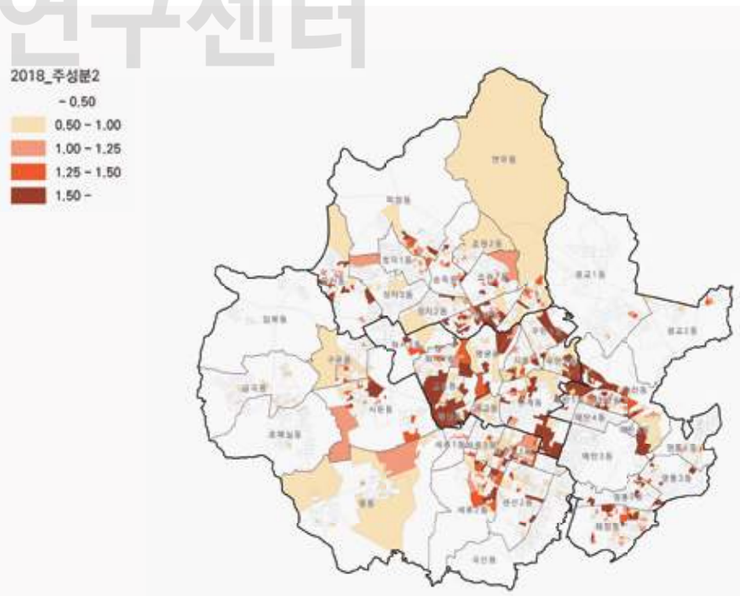
주성분	관련지표(+)	관련지표(-)	유형
I	노인복지시설 수, 문화체육시설 수, 사회복지시설 수, 외식시설 수, 학원 수	-	원도심형 근린
II	보건복지시설 수, 외식시설 수, 쇼핑시설 수, 대중교통 접근성, 편의시설 수	혈연가구 비율	도심서비스형 근린
III	평균면적, 청장년 비율	공동주택 비율, 혈연가구 비율, 자가점유 비율	혼합형 근린
IV	대졸이상 비율, 자가점유 비율, 보육복지시설 수, 청장년 비율, 학원수	-	기존 고급형 근린
V	공시지가, 학원 수, 편의시설 수, 혈연가구 비율, 보육복지시설 수	노후주택 비율	신규 고급형 근린

비고 : 5개 요인의 전체 지표에 대한 설명력은 68.6%임.

도출된 다섯 가지 주거공간 유형 중 수원의 '강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후보는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유형이다. 먼저 네 번째 유형은 대졸 이상 주민의 비율과 자가점유 비율, 청장년층 비율이 높고, 보육복지시설과 학원이 다수 분포하고 있는 지역으로, 상대적으로 주민들의 구성이 안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를 '기존 고급형 근린'으로 분류하였다. 공간적으로는 영통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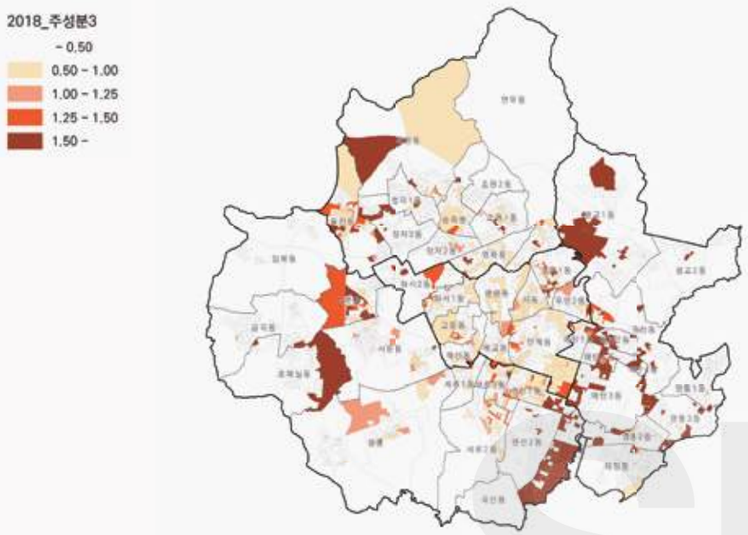


〈그림 1-1〉 원도심형 근린의 주요 분포 지역



〈그림 1-2〉 도심서비스형 근린의 주요 분포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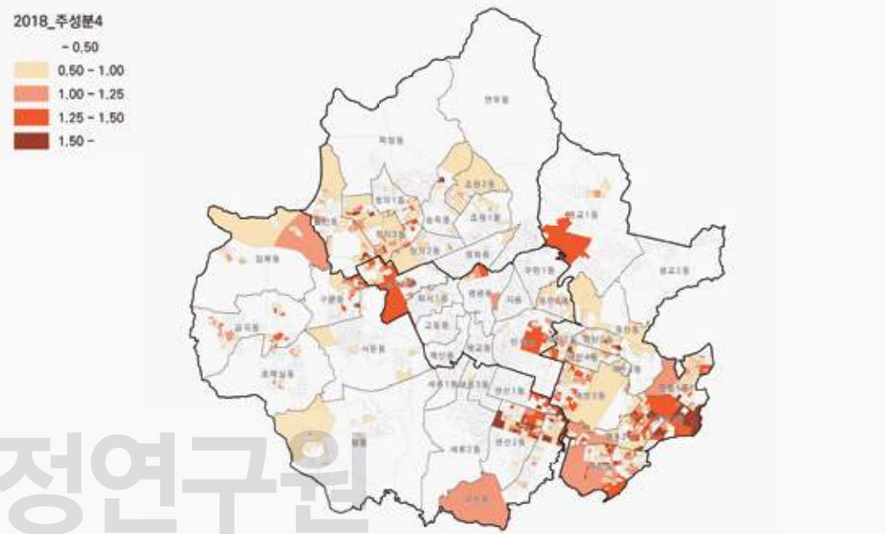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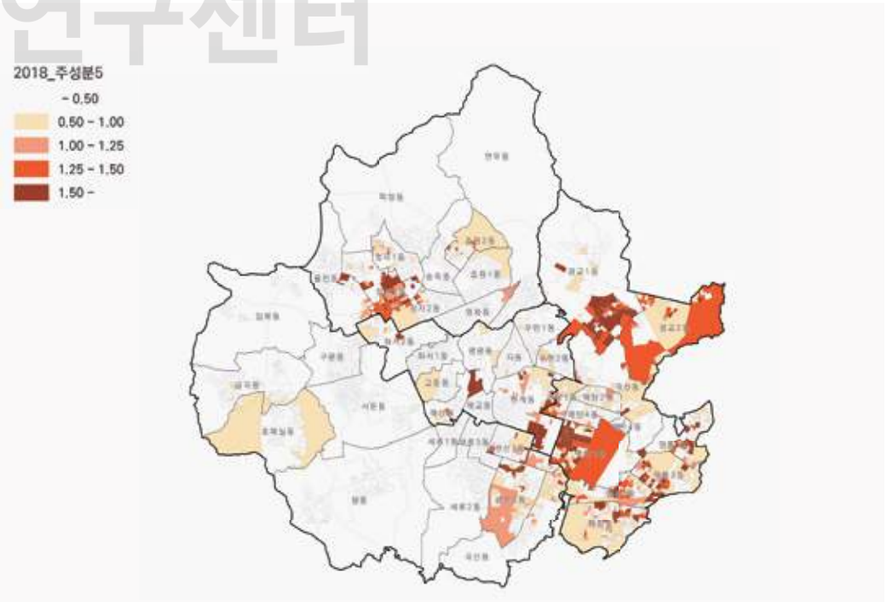
〈그림 1-3〉 혼합형 근린의 주요 분포 지역

에 해당하는 영통1동과 영통2동을 중심으로 인계동과 권선2동 등에도 다수 분포하고 있다. 다섯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지역은 공시지가가 높고, 혈연가구 비율이 높으며, 학원과 편의시설, 보육복지시설이 많이 입지하고 있는 반면 노후주택 비율은 다른 지역에 비해 낮게 나타나는 지역으로, 노후주택 비율이 낮은 신규 개발지역이면서 높은 주택가격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네 번째 유형과 구분해 '신규 고급형 근린'으로 명명하였다. 공간적으로는 광교신도시 지역에 해당하는 광교1동과 광교2동, 그리고 매탄4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해당하는 영통구 매탄3동 등이 주로 여기에 포함된다.

이 글에서 주목하는 '강남'적 주거환경에 대해 연구자별로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문화체육시설이 많고, 공교육보다는 사교육 환경이 탁월하고, 공동주택이 많으며 주택면적이 넓고 지가가 높은 고급 주거지역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16] 이러한 점에서 여러 주거환경에 대한 분석 결과, 강남적 주거환경의 특징이 나타나는 기존 고급형 근린과 신규 고급형 근린에 해당하는 영통지구와 광교신도시 지역을 수원의 강남으로 1차적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 이는 여러 언론 기사들과 주민들의 일반적인 인식에



〈그림 2-1〉 기존 고급형 근린의 주요 분포 지역



〈그림 2-2〉 신규 고급형 근린의 주요 분포 지역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서 언급되는 바와 같이 영통과 광교 지역이 나름의 독자적이고 위계적인 주거공간으로서 위상을 갖추었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두 지역의 경우 유사한 특성을 보이는 와중에 영통의 경우 주민의 특성 측면에서, 광교의 경우 주택의 물리적 상태와 경제적 가치의 측면에서 상대지역에 비해 차별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구체적인 분석이나 자료에 근거하지 않은 채 개개인의 경험과 인식에 근거해 수원의 주거공간의 유형과 특성에 대해 언급하였다면, 여기에서는 이러한 경험적 인식을 구체적인 데이터와 분석방법을 기반으로 해 설명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일반적인 인식에서 주로 언급되던 기존의 영통과 새롭게 부상한 광교라는 두 지역의 범위와 특성을 어느 정도는 도출할 수 있었으며, 이 두 지역이 수원의 다른 지역과 구분되는 주거공간으로서 특성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에서는 영통과 광교라고 하는 수원 내 대표적인 두 주거공간이 가지는 성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4. 수원의 강남으로서 영통과 광교의 구별 짓기

1) 영통 : 명확한 경계를 가진 중산층 대표 거주지

영통은 '영통구', '영통동' 등 다양한 공간 단위를 지칭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영통'이라고 부를 때에는 영통택지개발사업을 통해 조성된 '영통지구'를 지칭한다. 영통지구는 수도권 1기 신도시의 건설 이후 지속적인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1990년대 추가로 조성된 택지개발사업지구 중 하나이다. 2만 6천여 호의 주택 공급을 통한 목표인구 10만 명을 위해 1992년부터 1997년까지 약 5년간 개발이 진행되었으며, 본격적인 입주는 1998년부터 시작되었다. 영통지구는 광교신도시 개발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수원시에서 시행된 가장 대규모의 택지조성사업으로, 개발계획 당시부터 전체 가구의 98%를 공동주택으로 계획하였을 만큼 절대적인 아파트 밀집지역이다. 또한 개발 이전에 인근에 대규모 삼성전자 단지가 이미 조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초기부터 삼성전자의 배후도시의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

지역의 특성을 규정하기 위한 첫 단계는 지역의 공간적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다. 서울의 강남을 언급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별다른 정의 없이 그냥



〈그림 3〉 영통지구 주요 배치도

'강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사람들이 인지하고 활용하는 강남이라는 지역적 범위는 그 상황적 맥락에 따라 다른 물리적 공간을 형성한다. 하지만 영통의 경우 그 공간적 범위를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외부 사람들까지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영통택지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영통지구 1~9단지가 영통의 공간적 범위라고 명확하게 구분한다. 영통이 이렇듯 명확한 공간적 범위를 가질 수 있게 된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주요한 것은 그 입지적 특성과 개발방식에서 기인한다. 영통 지역의 공간적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데에는 영통의 입지적 특성이 우선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영통지구는 서쪽으로 광대한 삼성전자 부지와 연



〈그림 4〉 기존 수원 도시지역과 영통지구를 구분하는 삼성전자 단지(네이버 항공뷰, 2009년 3월 촬영)



〈그림 5〉 영통의 아파트 단지 전경(네이버 항공뷰, 2009년 3월 촬영)

접해 있으며, 이로 인해 인계동, 매탄동 등 동수원 지역으로 확장되고 있던 기존의 수원 도시지역과 공간적으로 단절되어 있는 지역이다. 최근 들어 영통의 남쪽에 위치한 망포동과 신동 일대에 아파트 개발 등이 다수 이루어지면서 권선구 지역과 기능적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불과 10여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영통과 기존의 수원 도시지역은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었으며, 이에 따라 주민들은 영통을 기존의 수원과는 조금은 다른 별개의 지역으로 비교적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었다. 더욱이 영통 지역은 동쪽으로는 용인시와 경계를 접하고 있다는 점에서 행정구역의 변화에 따른 주변 지역과의 심리적 거리감을 통해 더욱 지역의 공간적 범위를 분명하게 할 수 있었다.

최근 이루어지는 신도시 개발에서 단독주택 구역이나 근린상업시설 구역이 상당 부분 포함되는 것에 반해 영통지구는 5년 남짓의 짧은 기간 동안 주택의 98%가 아파트일 정도로 절대적인 아파트 지역으로 개발되었으며, 단지의 물리적 형태 역시 20층 내외, 20평형 대에서 30평형 대의 임대주택이 거의 포함되지 않은 분양주택으로 전체 지역이 유사하게 개발되었다. 따라서 택지개발사업의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더라도 경관상 뚜렷하게 주변 지역과 영통을 구분해 낼 수 있다. 시기를 조금 달리해 뒤늦게 개발된 10단지와 11단지의 경우에는 동일하게 영통지구의 단지명을 붙이고 있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이 1~9단지의 아파트 지역만을 영통으로 인식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주택 공급방식은 자연스럽게 비슷한 사회계층적 특징을 가진 집단들의 이주를 불러 왔다. 수원에서 영통은 전례 없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었고, 대단지 개발을 통해 확보된 양호한 주거환경은 수원 지역 중산층의 대규모 이주로 이어지면서 비교적 빠르게 지역의 안정을 가져왔다. 여기에 더해 입지적 특성에 따라 삼성전자 임직원의 초기 입주가 다수를 차지하면서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여건이 비교적 동질적인 주민들의 거주지역으로 빠르게 자신만의 영역성과 특성을 구축할 수 있었다.

교육열이 매우 높은 우리나라에서 학군은 거주지역을 선택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작용한다. 현재의 서울 강남지역이 지금과 같은 위상을 가지게 된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언급되는 것이 개발 초기 주민들의 이주를 유도하기 위해 강북의 명문 고등학교들을 대거 이전시킨 정책이다. 이에 따라 형성된 8학군은 높은 대학 진학률로 대표되는 우수한 학군의 대명사가 되었으며, 8학군으로 대표되는 공교육 환경과 대치동으로 대표되는 사교육 환경은 현재의 강남불패 신화를 지탱하고 있는 주요한 요소 중 하나로도 언급된다.[17]

영통의 경우 많은 수원시민들의 인식에서 이른바 '교육 1번지'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지역으로, 공교육뿐만 아니라 사교육 환경에서도 수원의 대표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다. 영통이 빠르게 구축한 안정적인 중산층 거주지로서의 사회적 특성은 양호한 교육 환경의 구축에 매우 큰 이점을 가지게 된다. 공교육의 영역에서는 중산층 가정의 비슷한 배경을 지닌 균질한 학생 특성을 바탕으로 학교별로 명성을 쌓아가고 있는 한편, 지역의 경제적 안정성은 영통의 중심상업지역과 각 아파트 단지에 대규모 학원가의 형성을 유발하였다. 영통의 학원가는 수원에서 가장 큰 규모로 대형 학원체인들과 수많은 소규모 학원들이 일종의 클러스터를 이루면서 영통 지역 내뿐만 아니라 수원 및 주변 지역에서까지 학생들이 모여드는 사교육의 중심지로 기능하고 있다.

하지만 1990년대 후반 일거에 개발이 이루어진 영통의 물리적 특성은 20년 이상의 시간이 경과되면서 지역이 전체적으로 노후화 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사실상 수원의 첫 번째 신도시로서 넓은 도로와 쾌적한 주거환경을 자랑하던 영통은 2010년대 이후 인근에 광교신도시, 동탄신도시, 망포지구 등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대기업 브랜드의 신규 아파트가 공급되기 시작하면서 주거환경에 대한 상대적 우월성을 상실하고 있다. 특히 200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광교신도시의 개발은 수원 내에서 차별적이고 우수한 주거지로서의 영통의 지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단기간에 동일하게 개발된 영통지구의 특징은 초기에는 빠르게 지역을 안정화 시키고, 중산층의 거주지로서 지역성을 차별화시키는 데 중요한 자산으로 작용하였지만, 이로 인해 동시에 발생하는 노후화의 진행은 지역의 약화와 주민들의 이주 결정에 대응하기 어려운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더 이상 '영통' 내에서는 새 아파트로 대표되는 주거환경의 개선이 일어나기 어렵기에, 주민들은 신축 아파트를 찾아 영통 내의 이주가 아니라 동탄이나 광교, 망포 등 영통을 벗어난 주변 지역으로 이주를 진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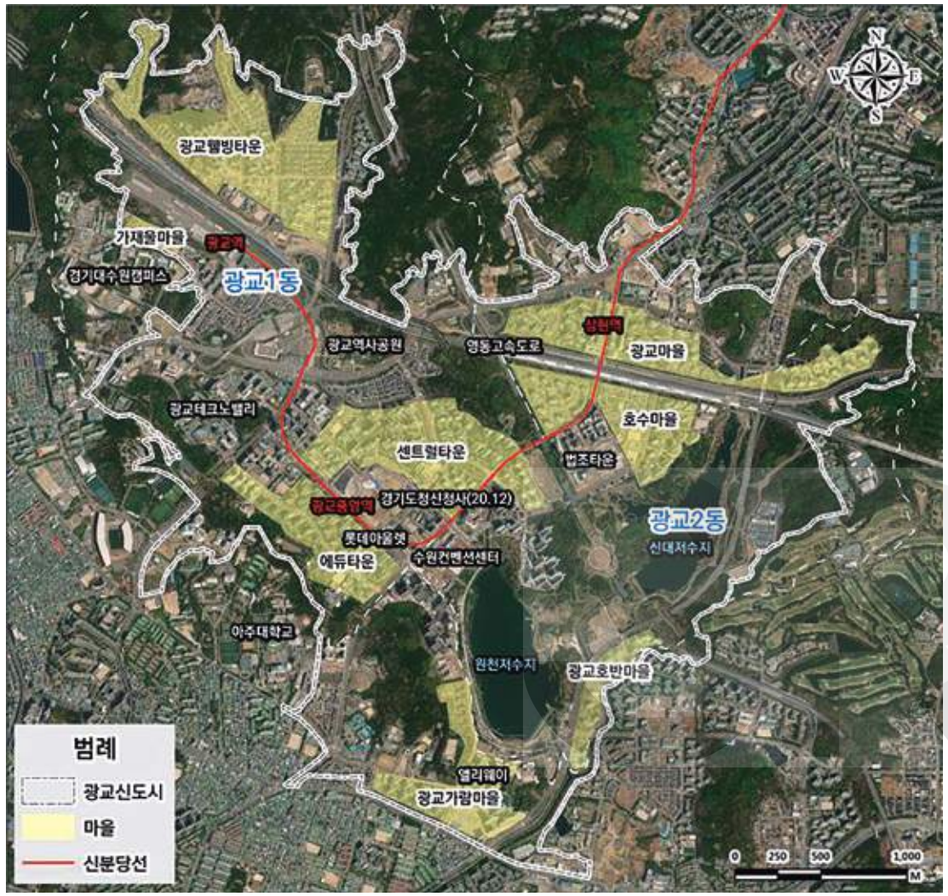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통이 여전히 나름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명성을 잃지 않고 있는 것은 기존의 지역자산을 기반으로 해 공고하게 구축해 놓았던 교육 중심지로서의 위상이다. 교육 중심지이자 대표 학군으로서의 지역적 명성은 20년 이상 된 아파트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영통 지역으로 여전히 많은 사람들, 특히 자녀를 둔 30~40대들이 상당수 이주해 오는 주요한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아직까지 주변의 신규 개발지역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기반시설과 안정된 환경, 특히 교육환경의 측면에서 여전히 상대적 우위로 급격한 지역의 쇠퇴를 막고 있지만, 공간적 범위만큼이나 명확한 영통의 이러한 장·단점들이 앞으로 어떻게 작용할지에 대해서는 보다 더 세심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광교 : 떠오르는 신흥 강자의 자부심

현재의 '광교'라는 지역 명칭은 수도권 제2기 신도시 건설계획의 일환으로 2000년대 후반부터 개발되어 2011년부터 본격적인 입주가 이루어진 광교신도시를 가리키는 의미로 보편적으로 사용된다. 광교는 수원의 진산(鎭山)에 해당하는 광교산(582m)에서 가져온 명칭으로, 기존에는 광교라고 칭할 경우 현재의 장안구 연무동에 포함된 법정동인 상광교동과 하광교동을 가리켰다. 하지만 현재의 영통구 이의동 지역에 신도시 건설을 추진하면서 신도시의 명칭을 광교신도시로 명명하게 되면서, 현재는 일반적으로 '광교'라고 칭할 경우 광교신도시를 가리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광교신도시 개발사업은 경기도 광교지구에 광역행정 및 첨단산업 입지를 기능을 갖춘 자족형 신도시를 건설한 사업으로, 신도시는 행정구역상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과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등에 걸쳐 있으며 수원시가 전체의 88%, 용인시가 12%를 차지하고 있다. 앞서의 영통지구에 비해 사업면적은 3.4배인 것에 비해 수용 인원은 약 78%에 불과한 7만 7,783명(3만 1,113호)으로 계획되었는데, 이는 개발계획에서부터 구역 내에 호수공원을 조성하는 등 수도권 신도시 중 가장 높은 녹지비율(45%)을 갖추도록 계획되었기 때문이다.

광교신도시는 2011년부터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된 후 시간이 경과하면서 지역 내 주요 상권이 형성되고 있으며, 입주 이후 신분당선 연장선의 개통, 수원컨벤션센터 개관, 고등법원 및 검찰청 개청, 경기도청 이전 등 대규모 개발사업 역시 하나둘씩 성과를 보이고 있는 중이다. 이처럼 수원 내부뿐만 아니라 수도권 남부 지역 전체로도 주목할 만한 대규모 개발사업이 상당 부분 광교신도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면서 앞으로도 지역이 더 발전할 것이라는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그림 6〉 광교신도시 주요 배치도

기대감을 많은 주민들이 공유하고 있다. 특히 대규모 개발사업의 결과들이 지역의 부동산 가격에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광교 주민들은 서서히 광교라고 하는 지역에 대한 소속감과 지역의식을 형성해 가고 있다.

영통의 지역성과 관련해 지역의 영역적 경계에 대해서 주민들이 명확하게 인식한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광교도 수도권 2기 신도시 개발의 일환으로 단기간에 동일한 방식으로 조성된 대규모 신도시라는 점은 유사하지만, 광교의 경우에는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지역의 경계와 영역에 대한 인식이 영통과는 다소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 우선 광교가 광교신도시 개발사업을 통해 단일하게 조성되었기 때문에 광교 주민들 역시 '광교=광교신도시'라는



〈그림 7〉 광교신도시와 인접한 용인 흥덕지구(저자 촬영, 2019년 7월)
동일한 지역처럼 보이지만 가장 앞쪽 아파트는 광교신도시 호반마을인 반면, 뒤쪽 아파트들은 용인 흥덕지구에 속한다.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웰빙타운, 광교마을 등 지리적으로 조금 떨어져 있는 내부 지역 역시 동일한 하나의 광교 지역으로 받아들인다. 동시에 광교신도시 아파트들과 인접해 있는 용인시의 흥덕지구 아파트와 용인시 상현동의 아파트들은 명확하게 다른 지역으로 구분하여 인식한다. 하지만 이러한 명확한 사실 관계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 내부에서는 '광교신도시'와는 별개로 '광교'라고 하는 별도의 심리적 지역경계가 만들어지기도 한다.

우선 광교신도시 개발지역은 용인시의 일부 지역을 포함하고 있어 지역 내에서도 행정구역이 상이한데, 대부분의 지역이 수원시에 속하는 반면 12% 남짓의 일부 지역만이 용인시에 포함되어 있어 지역 내에서 하나의 경계를 형성한다. 또한 수원시 구역 내에서도 호수공원 남측 지역은 행정구역이 광교동이 아닌 원천동에 상당수가 속하면서 행정구역 명칭만으로는 광교 지역의 공간적 범위를 주민들이 인식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외에도 웰빙타운 지역은 영동고속도로와 43번 국도라는 두 개의 장애물이 존재해 신도시의 중심에 해당하는 센트럴타운이나 에듀타운과의 연결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다양한 요인들로 동일한 광교신도시 지역 내에서도 지역 간의 연계가 떨어지면서 한 구역의 개발사업이 다른 구역까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다. 주로 광교중앙역과 호수공원을 중심으로 주요 개



〈그림 8〉 도로로 인해 단절된 광교 내부의 지역들(네이버 항공뷰, 2019년 4월) 광교마을과 호수마을(위)/에듀타운과 센트럴타운(아래)

발사업들이 집중되면 서 여기에서 벗어난 지역들은 광교 지역 내부에서도 일종의 소외와 차별을 경험하게 되고, 이것은 지역의 부동산 가격에서 가시적으로 드러나게 된다. 단적으로 2009년에 거의 동일한 분양가로 입주자를 모집하였던 에듀타운과 웰빙타운의 84㎡ 아파트 실거래 가격은 10여 년이 지난 2018년에는 초기 분양가에 육박하는 3억 원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18] 즉 주민들은 광교신도시 개발사업이라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로 인해 광교신도시 지역을 하나의 동일한 지역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심리적 측면에서는 상이한 행정구역(수원과 용인), 주택형태의 차이(분양주택, 임대주택, 오피스텔), 단지 간 주거환경의 차이(지하철 접근성, 호수 접근성 등)의 이유로 내부의 분화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광교신도시는 수도권 2기 신도시의 일환으로 조성되었고, 개발구상 단계에서부터 수원시 내부의 주택 수요에 대한 고려보다는 수도권 전체의 주택 공급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었다. 영동고속도로와 용서고속도로에 접해 있는 입지적 여건과 강남으로 바로 이어지는 신분당선이 통과하는 것도 수원의 다른 지역과의 연결성보다는 서울 접근성에 더 유리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수원 외부에서는 수원의 광교신도시라기보다는 그냥 광교신도시 자체로서 인식되게 되었다. 특히 신도시 개발이 어느 정도 완료되고 기반시설이 구축되면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광교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수원의 타 지역과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급격하게 상승하게 되면서 광교는 전국적으로 주목받는 부동산 투자지역으로 부상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그동안 서울과 인접한 도시들에 비해 아파트 가격이 그렇게 높지 않았던 수원지와는 별도로 광교 자체가 하나의 하위 주택시장을 형성하게 되었고, 수원 외부에서도 이를 주요하게 인식하게 되었다.

수원의 광교가 아닌 광교신도시 자체로 외부의 주목을 받게 되면서 광교 주민들 역시 이러한 외부의 시선을 인지하고 있으며, 점차 수원과는 별개의 주거공간으로서 광교에 대한 인식과 자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광교 내부에서도 구역 별로 나름의 구별 짓기와 심리적 분화가 나타나지만 이러한 내부적 구별 짓기가 심리적 갈등과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반해, 수원과 광교의 구별 짓기는 보다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즉 '우리는 다르다'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지만, 주변에서 특히 외부에서 우리를 다르게 본다는 인식을 주민들이 공공연하게 드러내면서 스스로를 수원의 다른 지역과 차별화시키려고 한다. 이러한 인식은 최근 들어 광교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주변 지역에 비해 더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더욱 두드러지고 있는데, 부동산 시장의 블루칩, 우등재라는 자부심이 광교 주민들에게 수원과는 다른 광교 주민으로서의 자부심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즉, 신도시 개발 사업이 어느 정도 완성되고 기반시설이 지속적으로 확충되는 동시에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이 나타나면서 새로운 주거지역이자 부동산 관심지역으로 주목받는 현재의 여건으로 인해 광교는 그 물리적 거리만큼 내부의 심리적 분화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주민 스스로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가 단일한 광교가 아니라 몇 개의 위계적인 지역으로 내부를 구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상호간에 독립적이고 이질적이며, 동시에 다층적인 주거지역을 형성해 가고 있다. 이러한 지역 내부의 공간적 분화와 선택적 영역화 과정을 통해 광교신도시 내에서도 핵심에 해당하는 '진짜 광교' 지역을 다시 형성하고 있으며, 이 지역을 중심으로 광교가 속해 있는 수원과의 차별화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3) 수원에는 '강남'이 있는가

(1) 영통과 광교는 수원의 '강남'인가?

이 글은 이른바 수원의 강남에 해당하는 지역이 어디인가와 그 지역이 가지는 지역적 특징이 어떠한 것인가라는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추리 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강남'이 가지는 핵심적인 속성이 무엇인가이다. 즉 수원의 강남을 찾기 위해서는 '강남' 내지는 '서울의 강남'이 가지는 핵심적인 속성이 정의되어야 그에 가장 부합하는 지역적 특성을 가진 지역을 논의할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 강남이 주목받고 있는 만큼 선행연구에서 우리 사회에서 강남이 가지는 의미와 강남이 가지는 차별적인 특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들은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어떤 연구자들은 강남불패로 대표되는 강남이 가지는 부동산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에 주목하였으며, 어떤 연구자들은 우리나라 엘리트들과 중산층들의 거주지역으로 강남에 주목하여 주민 특성을 고려하였다. 다른 한편에서는 가지는 사교육 시장에서의 위상을 주목하기도 하였으며, 강남이 대표하는 천민자본주의의 소비문화를 그 속성으로 살펴보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들에도 불구하고 강남이라는 지역의 핵심 속성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명확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으며, 이러한 모호성은 강남의 영역적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 각자의 대답을 내놓는 방식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오늘의 강남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어떤 특정한 요인 몇 가지로 정의하기는 매우 어렵다. 한국 사회의 급격한 성장과 도시화의 과정에서 다양한 요소들이 특정한 공간상에 압축되고 집중되면서 종합적이고 복합적으로 만들어진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환경적 장소가 바로 강남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오히려 강남에 대한 논의에서 중요한 것은 강남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아니라 그 결과로서 바로 '강남'이라고 하는 사회적 공간이 만들어졌다는 점 그 자체이다. 강남의 핵심적 속성은 대중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인식을 기반으로 해 다른 지역과 다른 차별적 공간이 존재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하는 '인식'이 만들어졌다는 것에 있다. 즉 강남은 여러 사회 · 경제적 환경이 조합되는 '과정'이 아니라 '결과'이며, 이를 통해 공간적 헤게모니와 영역성을 가진 차별적 공간이 만들어져서 일반 대중들에게 그 지역적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부여한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강남에 대한 논의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하는 것은 바로 강남이 스스로 가지게 된 공간적 헤게모니를 유지하고 지탱하는 사후적 과정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맥락에서 수원에는 강남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 살펴본 영통과 광교 지역을 과연 수원의 강남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자. 우선 결론적으로는 영통과 광교는 이른바 수원의 강남으로 볼 수 없다. 바로 앞에서 강남을 바라볼 때 가지는 가장 핵심적인 속성은 여러 가지 요인의 조합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결과로서의 공간적 헤게모니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즉 대중들이 공통적으로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차별적이고 위계적인 공간이 바로 강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수원에서는 이런 지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영통이 여러 분석을 통해 1990년대 후반부터 중산층 거주지역으로서 수원 내에서 차별적인 특성을 형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그러한 공간적 위계성이 유지된 것은 불과 광교신도시가 개발되기 전까지의 10년 남짓에 불과하다. 반대로 현 시점에서 수원 내에서 강남과 유사한 위상을 갖추고 있는 것은 광교 지역이지만 광교의 경우에는 영통과는 달리 수원의 한 지역이라는 인식과 연계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즉, 강남이 될 가능성이 광교에는 남아 있지만, 그것은 단순히 광교라는 지역이 가지는 가능성일 뿐 수원 내에서의 공간적 헤게모니를 지닌 차별적 주거지역으로서의 '수원의 강남, 광교'는 아니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본 연구에서 지금까지 주목해서 살펴본 영통과 광교라는 지역은 왜 서울의 강남과 같은 차별적이고 안정적인 지위를 획득하지 못하였을까?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여 두 지역을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영통은 왜 수원의 강남이 되지 못했나?

명확하지만, 너무나 명확해서

영통의 지역적 특성을 설명하면서 가장 강조한 것이 영통이라는 지역에 대해서 주민뿐만 아니라 지역 외부에서도 그 공간적 범위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이 특성은 영통이라는 지역의 성격을 형성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영통의 변화와 위상 약화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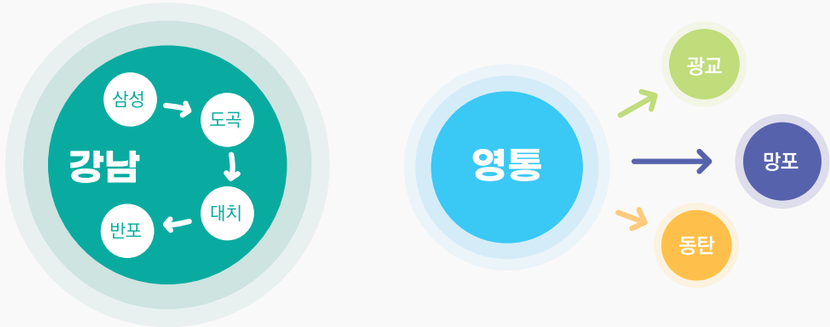
SU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영통은 지역 내 전체 구역이 거의 같은 시기에 개발되었으며, 비슷한 물리적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변 지역과 가시적으로 구분되는 경관을 형성한다. 이러한 영통의 특징은 개발 초기 단계에서 삼성전자의 배후도시라는 사회 · 경제적 특징과 함께 빠르게 지역을 안정화시키고 지역성을 형성하는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하였다. 빠른 안정과 차별화를 바탕으로 영통은 10여 년간 수원 내에서 차별적인 주거지로서의 위상을 가질 수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확보된 교육 여건 등은 현재까지도 영통의 지역적 위상을 지탱하는 주요한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반대로 지역의 물리적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는 이러한 명확한 지역적 경계가 오히려 지역의 유연한 대응전략 수립에 장애물로 작용한다. 많은 도시개발 사업에 있어 개발과정에서 계획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인접지역들이 개발사업의 영향으로 도시화의 과정을 유사하게 진행하게 된다. 특히 단기간에 일시적으로 개발되는 계획구역이 완료된 이후에 주변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개발행위들은 난개발로 인해 원래의 계획구역에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지속적인 신규 주택 공급으로 인해 지역의 공간적 영역을 확장하면서 새로운 시설의 공급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특정 지역의 공간적 범위를 사람들이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대부분 이렇게 이루어지는 개발행위들이 원래의 지역과 융합되면서 일정 부분 이상의 지역적 특징을 공유하기 때문이다.

개발 초기부터 확립된 영통의 명확한 지역적 경계는 이후 진행된 주변지역의 개발을 영통이라는 지역의 확장으로 잇지 못하고 새로운 지역으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영통과 바로 인접해 있는 망포지구의 경우 최근 들어 새로운 아파트의 공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 지역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의 상당수가 '영통○○ 아파트'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지만 지역 주민들은 이들 지역을 영통이 아니라 망포동, 망포지구라고 구분해서 다른 지역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따라서 영통 지역은 더 이상의 신축 주택의 공급 없이 1998년에 준공된 1~9단지로 지역 전체가 동일하게 노후화되는 과정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된다.

서울의 강남의 경우에는 여전히 강남이라는 지역적 영역성을 공고히 유지하고 있지만, 그 내부에서는 지속적으로 그 중심이 변화하고 있다. 즉 2000년대 이후만 보더라도 신규 랜드마크 아파트의 공급에 따라 내부 공간의 무게중심이 삼성동에서 도곡동으로, 다시 대치동으로, 반포동으로 주기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전체적인 스케일에서는 강남이라고 하는 차별적 지위를



〈그림 9〉 서울 강남과 수원 영통의 차별적 대응

확고하게 하면서도 내부의 진화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해서 영통은 실질적인 공간적 스케일로는 강남에 비할 바 없이 작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광교, 망포, 동탄 등으로의 이주가 영통과는 전혀 다른 별개의 지역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영통이라고 하는 지역의 위상이 약화되는 형태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또한 영통이 초기 단계부터 구축한 독자적 지역성의 형성은 영통 주민들이 주변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에 대한 심리적 저항감을 낮추는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수원과의 정서적 분리를 진행하고 있는 광교와 달리 영통은 수원에 속한 한 지역임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수원에 속하면서도 수원의 다른 지역과는 명확하게 차별화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영통의 주민들은 영통을 벗어난 이주를 한다는 것이 의미를 가질 뿐 그 최종적인 목적지가 수원시 행정구역 안이든 혹은 그를 벗어나는 지역이든 큰 차이를 느끼지 않게 된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서 동탄신도시가 개발되는 과정에서 상당수의 영통 주민들이 깨끗한 신축 주택을 찾아 시 경계를 넘어선 동탄으로 이주할 수 있었는데, 이것은 영통이 가지고 있는 명확한 영역적 범위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부동산 시장에서의 불명확한 지위

또 다른 요인으로 영통은 주민들의 사회경제적 특성의 측면에서는 수원의 타 지역과 구분되는 차별적인 중산층 거주지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였지만, 그것이 부동산 시장에서의 차별적 지위로 이어지지는 못했다는 점이다. 영통이 개발되던 시기는 이전 분당, 일산 등 대규모 신도시 건설에 이어서 다양한 규모의 택지개발 사업이 여러 지역으로 침투되고 확산되는 시기로 수도권의 여러 도시들에서 주택 공급이 대대적으로 확대되는 시기이다. 수원시 역시 영통과 비슷한 시기에 정자 · 천천 지구를 비롯하여 여러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인구의 급격한 증가가 이루어지던 시기이다.

즉 영통의 아파트들은 입주 초기부터 부동산 시장에서 희귀하기 보다는 보편적인 공급 유형에 해당하였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서의 차별적 지위 획득에 실패하였다. 이것은 수도권 남부의 주택시장이라는 광역적 차원뿐만 아니라 수원 내에서도 차별적인 '대장주' 등극에 실패하였다는 점이다. 실제 주택가격의 변화를 자료를 통해 살펴보면 영통 지역의 아파트들은 몇 년 후에 개발된 장안구의 정자 · 천천지구의 동일 면적 아파트에 비해 주택 가격의 측면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며, 변동 역시 비슷한 형태로 나타난다. 더욱이 2010년대에 들어서서 광교 지역이 본격적으로 입주가 시작되면서 최소한 부동산 시장에서만은 수원의 대표적인 주거지역으로서 지위를 광교 지역에 확실하게 넘겨주었음이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영통은 대중적으로 공유된 차별적 주거지역으로서의 사회적 인식이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는 자산가치로는 이어지지 못하면서 확고한 위상과 공간적 헤게모니를 확보하는 데에 실패하였다. 이러한 부동산 시장에서의 불안정한 지위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지역의 노후화가 진행되고 주변 지역에 대규모의 주택 공급이 이어지면서 지역 위상의 약화라는 과정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다.

〈표 4〉 수원 내 주요지역의 아파트 가격 변화

지역	단지명	입주연도	전용면적	2006.12.	2009.12.	2012.12.	2015.12.	2018.12.
영통	벽산삼익	1997	84	44,900	38,500	37,500	34,600	44,200
영통	삼성태영	1997	84	38,800	32,600	31,700	33,500	33,700
정자천천	베스트타운	2001	84	40,200	35,800	31,500	33,500	35,900
정자천천	LG	2001	84	38,300	32,800	27,200	31,900	35,600
광교	자연앤힐스테이트	2012	84	-	38,300 (분양가)	46,600	65,500	99,500
광교	이편한세상2차	2011	84	-	39,500 (분양가)	42,800	57,500	69,000

자료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비고 : 각 단지의 실거래가격은 해당 기준시기에 이루어진 마지막 거래 2건의 평균값임

(3) 광교는 수원의 강남이 될 수 있는가?

자부심과 열등감의 그 사이 어디에서

광교는 새롭게 지역의 영역성을 공고하게 만들어 가고 있는 주거공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여전히 그 과정은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그렇다면 광교는 영통과는 달리 수원의 강남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우선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을 볼 때 광교 지역이 부동산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획득하는 데에는 1차적으로 성공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주민뿐만 아니라 외부의 인식도 변화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

수원시 내부의 지역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 영통과 달리 광교에서는 수원시와 분리되어야 한다는 인식들이 나타나기까지 한다는 점에서 광교는 기존의 수원과 차별화된 공간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수원과의 구별 짓기 전략에는 근본적인 제약이 존재한다. 광교가 수원과의 정서적 · 심리적 분리와 구별 짓기를 한다는 것은 서울의 강남, 분당, 판교 등 기존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핵심지역과의 비교와 경쟁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수원과의 구별 짓기를 통해 획득한 우등재로서의 지역적 지위가 오히려 열등재로 전환된다는 점에서 광교 주민들의 수원과의 구별 짓기 전략은 스스로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즉 지역의 차별성과 우등재로서의 성격을 강화하기 위해 수원과의 정서적, 인지적 분리를 원하지만, 이 과정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시장과의 연계성의 강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이것은 수원과의 분리로 얻고자 하는 영역성의 강화에 대한 바람과는 달리 오히려 명성의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딜레마에 지속적으로 놓이게 된다. 요약하자면 광교가 수원의 지역 중 하나로서 지역 내에서 차별적인 지위를 획득하는 '수원'의 강남이 되는 것은 가능하지만, 광교 지역이 스스로 지향하는 수원과 관계없는 그냥 '강남'이 되기에는 어렵다는 점이다. 하지만 여전히 수원과의 정서적 분리는 계속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더 이상 '수원의 광교'가 아닌 개별적으로 독립된 '그냥 광교' 되기의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부산의 해운대, 대구의 수성구 등 각 지역별로 이른바 그 지역의 강남으로 언급되는 다수의 지역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 지역들과 수원의 광교는 지리적인 입지에 있어서 큰 차이를 가지고 있다. 부산, 대구 등은 지역의 중심도시로서 광역 단위에서 수도권에서 서울이 가지는 위상에 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독자적인 권역을 형성하고 있는 광역 단위에서 그 지역의 중심지는 서울의 강남을 따라 하는 과정을 수행하더라도 강남에 직접적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인 영향과 기능적 예속을 받지는 않는다. 이에 반해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는 수원의 광교는 수원의 강남이 되는 것 자체로 지역 내에서 차별적이고 독자적인 위계성을 가진 공간으로 기능할 수 없고 직간접적으로 서울 강남의 영향력 하에서 포섭될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가지게 된다. 즉 수원의 강남이라고 하는 우월적 지위를 획득함과 동시에 서울 대도시권에 속하는 수원과 광교라고 하는 지리적 요인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서울의 강남에 대한 종속적이고 하위적인 지위를 동시에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물리적 환경 이외의 차별성 전략 부재

다음으로는 광교 지역이 서울의 강남과 같이 시간이 경과해도 지역 내에서 공간적 헤게모니를 지속하고 유지할 수 있는 차별성이 있는가의 문제이다. 현재의 시점에서 광교는 분명히 수원의 다른 지역에 비해 주거환경이 양호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우수한 주거공간이다. 하지만 이는 영통이 10~20년 전에 가졌던 장점이기도 하다. 지역의 노후화가 진행됨에 따라 불과 10여 년 만에 그 위상이 약화되고 있는 영통과 마찬가지로 지금의 광교가 지역의 물리적 노후화가 진행될 20년 후에도 여전히 지금과 같은 위상을 유지할 수 있는 차별적인 전략과 자원을 갖추고 있느냐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앞서 강남의 성격을 규정함에 있어서 강남이 스스로 가지게 된 공간적 헤게모니를 유지하고 지탱하는 사후적 과정에도 주목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만약 10여 년 후부터 광교의 주변 지역에 또다시 대규모의 신도시가 건설된다면 그 때에도 광교는 수원 내에서 차별적인 위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자족적 명품신도시라는 개발 과정에서의 지향점과 같이 광교는 주거지역 중심의 영통이 가지지 못했던 다양한 도시 중심기능들을 갖춰 가고 있다. 단순히 주거기능만이 부여되었던 영통과 달리 광교는 경기도청의 이전과 수원컨벤션센터 건립, 고등검찰청 및 고등법원 개청 등 광역 중심기능이 부여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영통의 변화와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수원의 한 지역이 아니라 독립적이고 차별적인 지위를 얻고자 하는 광교의 전략에서, 끊임없이 주변의 신도시들과 서울 강남의 대체제이자 보완재의 지위를 얻기 위해 경쟁해야 하는 광교의 여건에서 그러한 기능들이 물리적 노후화에 대응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힘을 가질 수 있을지는 아직은 미지수라고 볼 수밖에 없다.

5. 강남이 아닌, 영통과 광교 그 자체가 되기를

우리나라에서 '강남'만큼 많이 언급되면서 여러 차원의 주목을 받고 있는 지역도 없을 것이다. 강남은 한국적 도시화를 상징하는 공간인 동시에 그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사회문제들을 표상하는 지역이며, 또 한편에서는 거기에 투영된 부러움과 욕망이 실현되는 공간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도시화 과정이 본격화된 1960~1970년대부터 시작해 강남이라고 하는 차별적인 주거공간이 만들어지는 이른바 '강남 만들기'의 과정과 현재도 여러 지역에서 진행되는 '강남 따라 하기'의 과정은 지역성을 상실하고 자본주의 도시개발의 논리에 따라 획일화되고 몰개성화되는 과정으로 비판을 받고 있으면서, 또 동시에 그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동조와 선호를 반영하는 과정으로서의 속성도 가지고 있다. 이 글은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강남 따라 하기'의 과정이 수원에서도 나타나고 있는지, 그 결과 수원 내에서도 차별적이고 위계적인 주거공간이 형성되고 있는지를 탐색해 보고자 하는 목적에서 시작되었다.

우선 강남적 주거환경이 나타나는 수원 내의 주거공간을 요인생태학(factoral ecology)의 관점에서 구체적인 통계자료와 분석방법에 따라 유형화 해 수원시 주거공간의 구조를 구분하고 '강남'적인 주거환경과 주민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부합하는 공간의 영역을 설정하였다. 그 결과 수원의 주거공간을 각각 5가지로 유형화 할 수 있었으며, 그 중 일반적인 인식과 언론 등에서 주로 언급되는 영통과 광교라고 하는 수원의 대표적인 두 주거지역이 '강남'적 주거지역으로 분류됨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많은 사람들의 인식이 실제 현상을 비교적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의미를 가진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영통과 광교를 대상으로 지역의 특성과 차별성을 규명하는 과정을 진행하였는데, 영통의 경우 지역 내·외부적으로 명확한 영역적 경계를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으로 두드러졌으며, 이는 영통의 개발과정과 입지적 요인에 따른 특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영통이 초기 단계에서부터 중산층의 거주지역으로 빠르게 안정화 될 수 있었던 배경이 되기도 하였다. 영통이 가진 물리적, 사회적 균질성은 현재까지도 사회적 안정성을 가져왔으며, 양호한 교육 환경을 갖출 수 있는 자산이 되었다. 하지만 개발이 완료된 지 20여 년이 경과되면서 지역 전체적으로 물리적 노후화와 그에 따른 지역의 약화를 피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이에 비해 광교의 경우 최근 신도시 개발사업이 대부분 완료됨에 따라 뛰어난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와 발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초기의 불안정성을 극복하고 주민들의 소속감과 지역의식이 형성되는 단계에 접어들고 있었다. 하지만 동일한 신도시 개발사업을 통해 조성되었음에도 지역 내부에서 여러 구별요소들이 존재하면서 지역 내부에서 심리적 분화와 선택적 영역화의 과정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기도 하다. 주변 지역에 비해 높은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주민의 광교에 대한 소속감을 높이는 동시에 수원과의 차별성과 정서적 분리도 강화시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이러한 수원과의 차별성 강화와 동시에 서울의 강남 등과의 비교로 인한 위상의 약화를 걱정하는 이중적 상황에 처해 있기도 하다.

결론적으로 수원에서 강남 따라 하기의 과정은 있었지만 그 결과로서 만들어져야 할 '수원의 강남'에 도달하는 것에는 실패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강남이 가지는 가장 핵심적인 속성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 내에서의 차별적이고 위계적인, 그리고 영역성과 안정성을 지닌 주거공간이라는 공간적 헤게모니가 형성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즉 시기별로 수원 내의 다른 주거공간과 상대적으로 구분되고 차별화되는 고급 주거지역은 있지만 그 지역이 수원 내에서 안정적이고 확고한 차별적 지위는 획득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며, 이것이 수원에 강남이 있는가, 수원의 강남은 어디인가에 대해 손쉽게 대답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기도 하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수원이 서울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수도권의 한 도시라는 점이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영통과 광교가 다른 시기, 다른 방식으로 개발되었지만, 결국에는 서울과의 관계성에 따라 그 과정이 이루어졌으며, 지방의 대도시들과는 달리 서울 강남의 직접적인 영향력 하에 계속적으로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수원의 '강남'으로서 독자적인 지위를 획득하는 데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수원에는 강남이 없다는, 지역 주민들이 기대하기 힘든 결론을 내는 것으로 끝나야만 할까? 오히려 수원에 강남이 없음을 아쉬워하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단순히 강남처럼 되고자 하는 모방의 도시정책과 전략이 아니라, 이를 넘어서는 수원, 그리고 영통과 광교 지역의 발전의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강남 따라 하기 전략은 시대적으로 선호하는 양호한 주거환경을 적극적으로 구축하고 이를 여러 지역 개발과정에서 공간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도시개발전략의 방향성 수립을 손쉽게 할 수 있다. 강남에 대한 여러 비판적 관점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강남을 동경하고 강남에 진입하고자 하며, 강남화되고 싶어하는 것은 강남의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요인들이 보편적으로 선호되는 주거환경 요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시에 강남 따라 하기의 도시 개발전략은 기존 지역과 융화되지 못하는 지역 전략이라는 점 역시 생각해야 한다. 즉 새로운 지역의 개발이 주변 지역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 채 주변 지역을 소외시키는 신도시 개발 위주의 전략으로 기존 지역을 배제한 채 새로운 공간을 생산하는 방식으로만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영통과 광교 모두 외부지역과의 연계성 정도에 있어서 차이만 있을 뿐 수원의 한 지역으로 융합되기보다는 독자적인 지역을 형성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기존의 수원 도시지역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크게 드러나지 않는다. 영통과 광교의 성장의 이면에는 이들 지역으로 지역의 역량이 집중되면서 소외된, 주변 지역의 보이지 않는 희생이 자리하고 있다. 즉 강남 따라 하기 전략이 수행되는 개별 지역의 차원에서는 지역의 위상이 강화되고 환경이 개선되지만, 지역의 전체적인 차원에서는 제로섬 게임 혹은 마이너스 게임의 양상을 띨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 '강남 따라 하기' 전략은 주변 지역에 대해 상대적인 우위와 차별성을 이끌 뿐 오히려 고유한 지역적 특색과 차별성을 약화시키는 방식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영통의 사례에서도 나타나듯이 강남 따라 하기 전략에 따른 물리적 개발전략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급격히 지역의 차별성을 상실하고 그동안 확보한 상대적 우위를 손쉽게 상실하는 일회성의 도시 발전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수원의 경우 독립적인 광역 중심을 형성하는 지방도시와는 달리 주택시장이 긴밀하게 연계된 수도권 내에 자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획일적인 물리적 개발 위주의 강남 따라 하기 전략은 오히려 지역의 생명력을 단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따라서 손쉽게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강남 따라 하기 전략으로 지속가능하지 않은 도시를 끊임없이 만들어내기보다는 지역에 대한 이해와 도시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에 대한 종합적 고려를 통해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하며 지역의 특성을 계승, 발전시키는 도시발전 전략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강남화된 모방품, 복제품으로서의 수원의 강남이 아니라, 개별지역으로서 차별성을 가지고 주민들의 지역의식을 높일 수 있는 독자적인 지역으로서의 그냥 '영통'과 '광교'가 되기를 더욱 기대한다.

SW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참고문헌

권용우 외, 2016, 『도시의 이해』(제5판), 박영사.

김창석·강세진, 2011, 「서울시 상류계층 주거지역의 변화패턴 및 분포특성에 관한 연구: 파워엘리트 분포자료(1994-2005)를 토대로」, 『국토계획』 46(3), 47~65쪽.

남영우, 2015, 도시공간구조론』(제2판), 법문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편, 2014, 『단지계획』, 보성각.

박배균·장진범, 2016, 「강남 만들기, 강남 따라 하기와 한국의 도시 이데올로기」,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2(2), 287~306쪽.

박배균·황진태 편, 2017, 『강남 만들기, 강남 따라 하기』, 동녘.

신정엽, 2007, 「도시내부구조의 생태적 접근방법과 도시지역선정 연구의 재조명」, 『지리교육논집』 51, 27~42쪽.

오병록, 2014, 「가구통행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한 통행특성 분석과 생활권 기준 설정 연구」, 『서울도시연구』 15(3), 1~18쪽.

이동헌·이향아, 2011, 「강남의 심상규모와 경계짓기의 논리」, 『서울학연구』 42, 123~171쪽.

정수열, 2018, 「강남의 경계 긋기: 사회지역분석 및 요인생태학적 접근」, 『대한지리학회지』 53(2), 173~191쪽.

지주형, 2016, 「강남 개발과 강남적 도시성의 형성: 반공 권위주의 발전국가의 공간선택성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2(2), 307~330쪽.

황희연·백기영·변병설, 2011, 『도시생태학과 도시공간구조』, 보성각.

Ogino Chihiro, 2004, 「'강남8학군' 지역의 형성 – 장소형성에 나타난 한국적 특성」,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 이 글은 이성호, 2019, 「수원 내 주거공간 계층화의 사회·공간적 특성 연구」, 수원시정연구원의 내용 일부를 이 책의 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한 것입니다.

2) 박배균·황진태 편, 2017, 『강남 만들기, 강남 따라 하기』, 동녘; 정수열, 2018, 「강남의 경계 긋기: 사회지역분석 및 요인생태학적 접근」, 『대한지리학회지』 53(2), 173~191쪽.

3) 여기에서 영통은 수원시의 4개 구(區) 중 하나인 영통구가 아닌, 1990년대 영통지구 택지개발사업을 통해 조성된 '영통지구'를 의미한다. 이후로도 언급이 없는 경우 영통은 이 영통지구를 지칭하는 것이며, 그 외 행정구 전체나 영통구 내의 행정동을 지칭할 경우 '영통구', '영통동' 등의 용어를 사용한다. 마찬가지로 광교 역시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에는 광교신도시 지역을 지칭한다.

4) 박배균·장진범, 2016, 「강남 만들기, 강남 따라 하기와 한국의 도시 이데올로기」,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2(2), 287~306쪽

5) 박배균·장진범, 2016, 「강남 만들기, 강남 따라 하기와 한국의 도시 이데올로기」,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2(2), 287~306쪽; 정수열, 2018, 「강남의 경계 긋기: 사회지역분석 및 요인생태학적 접근」, 『대한지리학회지』 53(2), 173~191쪽.

6) 박배균·장진범, 2016, 「강남 만들기, 강남 따라 하기와 한국의 도시 이데올로기」,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2(2), 287~306쪽.

7) Ogino Chihiro, 2004, 「'강남8학군' 지역의 형성 – 장소형성에 나타난 한국적 특성」,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8) 이동헌·이향아, 2011, 「강남의 심상규모와 경계짓기의 논리」, 『서울학연구』 42, 123~171쪽.

9) 박배균·장진범, 2016, 「강남 만들기, 강남 따라 하기와 한국의 도시 이데올로기」,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2(2), 287~306쪽

10) 김창석·강세진, 2011, 「서울시 상류계층 주거지역의 변화패턴 및 분포특성에 관한 연구: 파워엘리트 분포자료(1994-2005)를 토대로」, 『국토계획』 46(3), 47~65쪽.

11) 정수열, 2018, 「강남의 경계 긋기: 사회지역분석 및 요인생태학적 접근」, 『대한지리학회지』 53(2), 173~191쪽.

12) 황희연·백기영·변병설, 2011, 『도시생태학과 도시공간구조』, 보성각.

13) 신정엽, 2007, 「도시내부구조의 생태적 접근방법과 도시지역선정 연구의 재조명」, 『지리교육논집』 51, 27~42쪽.

14) 2018년 기준의 자료를 활용할 수 없는 지표의 경우 가장 최신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15) 집계구는 통계청에서 통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구축한 최소 통계구역 단위로, 약 300세대 내외의 비교적 균질한 물리적 환경을 가진 동질지역으로 구성된다. 2018년 기준 수원시 전체의 집계구는 2,425개이다.

16) 정수열, 2018, 「강남의 경계 긋기: 사회지역분석 및 요인생태학적 접근」, 『대한지리학회지』 53(2), 173~191쪽.

17) Ogino Chihiro, 2004, 「'강남8학군' 지역의 형성 – 장소형성에 나타난 한국적 특성」,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8) 2009년 12월에 분양한 에듀타운의 자연앤힐스테이트 84㎡는 초기 분양가가 3억 8,300만 원이었으나, 2015년 12월에는 6억 5,500만 원, 2018년 12월에는 9억 9,500만 원에 거래되었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기준). 이에 반해 웰빙타운에 위치한 이편한세상 2차 아파트 84㎡의 경우 초기 분양가가 3억 9,500만 원으로 자연앤힐스테이트보다 약간 높았지만, 2015년 12월 거래가격은 5억 7,500만 원, 2018년 12월 거래가격은 6억 9,500만 원으로 오히려 낮게 형성되고 있었다.

영통구의 인구·가구 이동

박관아 수원시정연구원 위촉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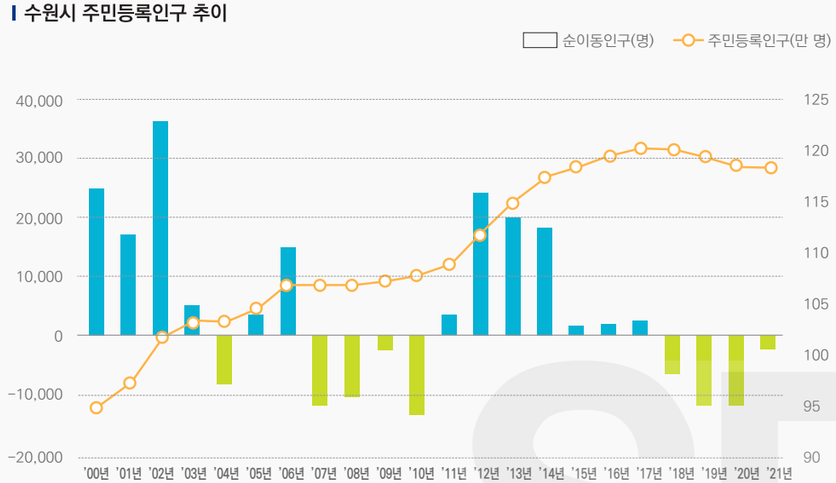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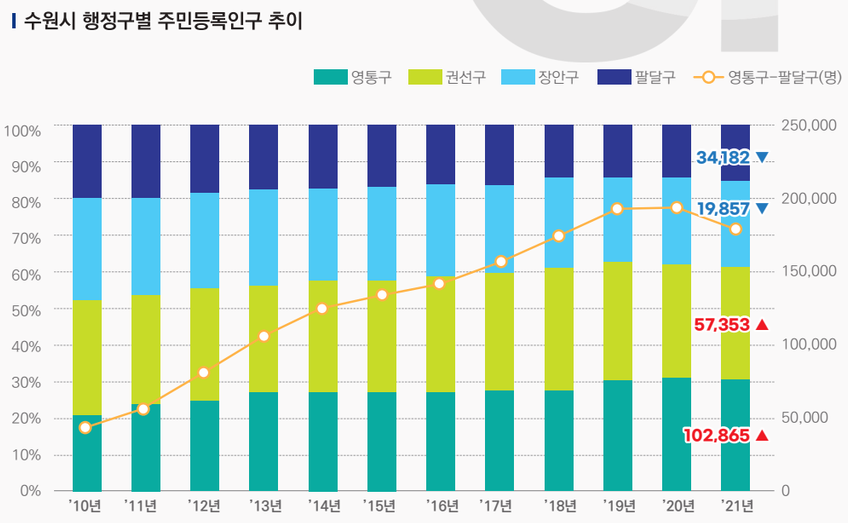
1. 수원시와 영통구의 인구 이동

수원시의 전체 인구는 2017년 120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되고 있는 추세[1]이나, 시 내부적으로 살펴보면 영통구 인구는 2020년까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인다. 특별히 지난 10년간(2010~2020년) 수원시 내 자치구별 인구 증감량을 살펴보면, 영통구에서는 총 10만 2,000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팔달구는 3만 4,000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수원시 내부의 지역 간 격차가 상당함을 확인할 수 있다.

저출산 · 고령화 현상으로 절대적인 인구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장기적으로는 영통구의 인구 감소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나 지난 10년간 영통구의 인구가 증가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 글에서는 영통구의 인구 이동 추이를 살펴봄을 통해 그 이유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인구 및 가구의 이동 결정요인은 크게 가구의 생애주기적 관점, 사회경제적 관점, 그리고 중력적 특성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나, 수원시의 경우, 인근 지역의 주택공급, 도로 및 교통체계 구축, 산업단지 조성 및 사업체 변화 등 지역경제적 요인에 따라 인구이동의 유출입이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2] 특별히 수원 광교, 권선, 호매실 지구 등 수원시 내부 주택개발사업의 입주시기인 2011년 이후로는 7년간 수원시로 순유입한 것으로 나타나, 여러 요인 중 주택으로 인한 요인이 이동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 수원시 주민등록인구 추이(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그림 2〉 수원시 시기별 인구 이동 특성(통계청 MDIS 마이크로데이터, 「국내인구이동통계」)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이에 영통구 인구 유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광교신도시를 중심으로 가구 이동을 살펴보았으며, 세부적으로는 가구의 생애주기별(예컨대 청년 1인 가구, 중장년 3~4인 가구 등과 같이 가구주 연령별 · 가구원수별) 분석을 진행하여 영통구 인구 및 가구 이동의 종합적 이해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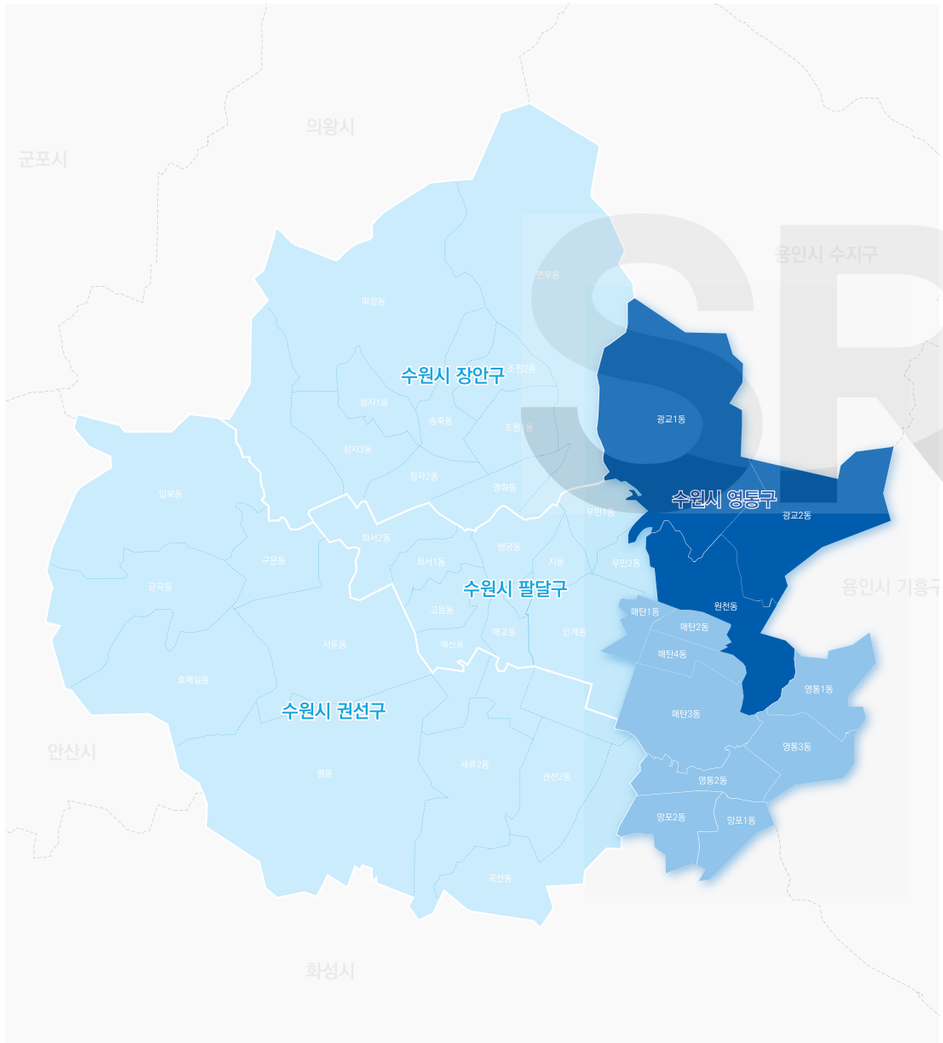
2. 영통구의 가구 이동[3)]

1) 영통구 내 신도시 권역

수원시 내 대규모 주택개발사업으로 가장 많은 인구 유입이 발생되었던 지역은 광교신도시로 2011년 이후 영통구로 지속적인 인구 유입이 발생되었다. 본 분석에서는 광교신도시를 연구의 범위로 지정하여 진행하였으며, 광교신도시의 권역(이하 신도시)은 광교신도시 개발구획도를 참고하여 광교1동, 광교2동, 원천동을 공간적 범위로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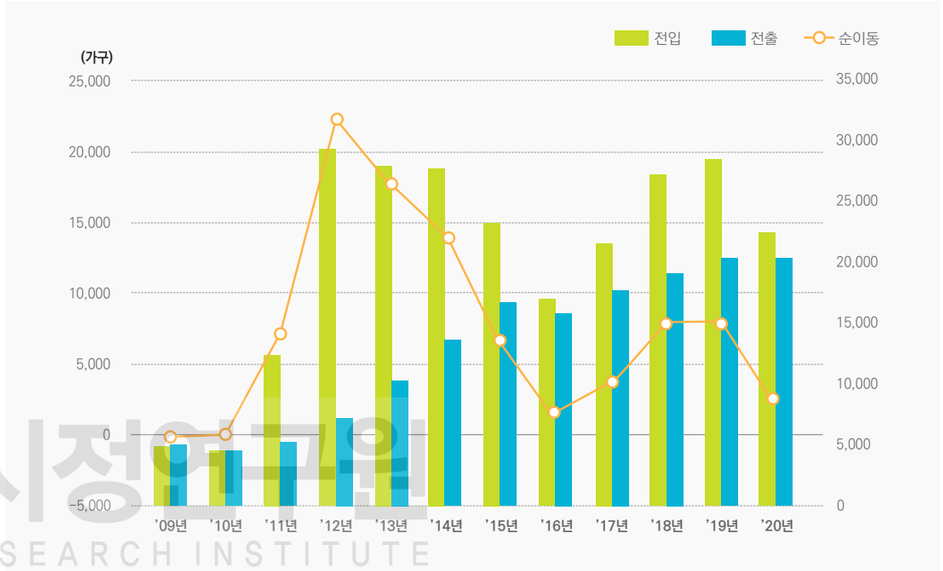
〈표 1〉 수원시 영통구 내 신도시 설정

구분	행정동 권역	비고
신도시	광교1동	광교신도시 개발구획도 참고
	광교2동	
	원천동	



〈그림 3〉 수원시 신도시 권역 설정

2) 신도시 가구 이동 분석



〈그림 4〉 신도시 가구 이동 비교(통계청 MDIS 마이크로데이터, 「국내인구이동통계」)

〈표 2〉 영통구 신도시 가구이동

(단위 : 가구)

구분	전입	전출	순이동
2009	4,909	4,992	-83
2010	4,528	4,464	64
2011	12,408	5,204	7,204
2012	29,453	7,224	22,229
2013	27,995	10,288	17,707
2014	27,910	13,827	14,083
2015	23,192	16,666	6,526
2016	17,012	15,797	1,215
2017	21,554	17,702	3,852
2018	27,276	19,053	8,223
2019	28,522	20,440	8,082
2020	22,549	20,522	2,027
평균	20,609	13,015	7,594

자료 : 통계청 MDIS 마이크로데이터, 「국내인구이동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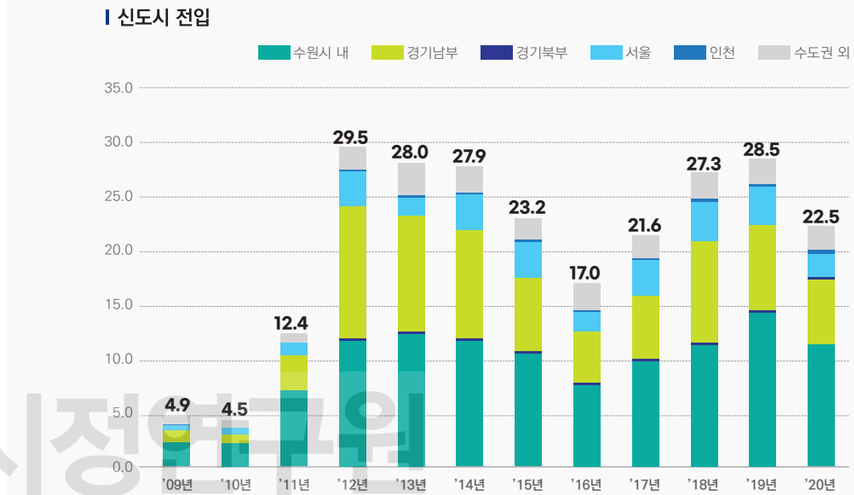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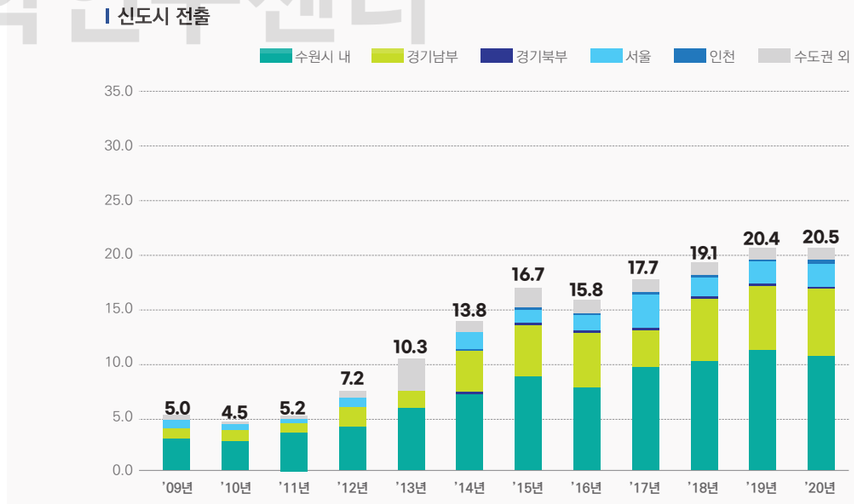
지난 10년간 신도시 전입가구는 연평균 약 2만 600가구로, 2012년에 가장 많이(약 2만 9,500가구) 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출가구는 연평균 1만 3,000가구로, 약 7,600가구(=2만 600가구 - 1만 3,000가구)가 매년 순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교신도시의 입주가 시작된 2011년 이후 2012년에 순유입량이 가장 높았으며, 이후 발생하는 순이동량의 변동 폭은 광교신도시 내 입주물량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순유입량이 가장 많았던 2012년 이후로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나, 2020년까지 순유출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신도시 행정구역별 이동 비교

지난 십여 년간 신도시의 가구 전입 · 전출량은 수원시 내에서 약 50% 발생하였고 경기도에서 30%, 그 외 지역에서 약 20%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원시 내 원도심(행궁동 · 지동 · 매교동 등의 팔달구 일대) 지역[4]과 비교하였을 때, 수원시 내부이동에 비해 외부로부터의 이동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수도권 내에서의 전입 · 전출량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난 10년간 경기 남부지역에서는 평균 6,400가구가 수원시로 전입하였으며, 3,800가구가 전출한 것으로 나타나, 약 2,600가구가 매년 수원을 제외한 경기 남부지역에서 순유입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경기 북부지역에서는 평균 400가구가 전입, 200가구가 전출하는 것으로 나타나 매년 200가구가 순전입한다. 서울시는 매년 평균 2,000가구가 전입, 1,000가구가 전출하는 것으로 나타나 약 1,000가구가 매년 순유입하며, 인천시의 경우, 매년 평균 300가구가 전입, 200가구가 전출하는 것으로 나타나 약 100가구가 순유입하였다. 지난 10년간 수도권 내의 모든 지역인 경기 남부, 경기 북부, 서울시, 인천시에서는 순유입의 영향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경기 남부지역에서의 순유입량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이동의 크기를 지역별로 비교하면, 경기 남부〉서울〉경기 북부〉인천 순으로 가구 순유입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거리에 반비례하여 인구 · 가구 이동이 발생한다는 기존 학계에서 증명된 이론과도 부합하는 결과이다.





〈그림 5〉 행정구역별 전·출입 추이(통계청 MDIS 마이크로데이터, 「국내인구이동통계」)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표 3〉 원도심 행정구역별 인구 이동 (단위 : 천 가구)

구분	신도시 전입						신도시 전출					
	수원시	경기남부	경기북부	서울시	인천시	기타	수원시	경기남부	경기북부	서울시	인천시	기타
2009	2.76	0.76	0.08	0.43	0.08	0.8	3.03	1.17	0.05	0.39	0.04	0.32
2010	2.50	0.74	0.06	0.38	0.08	0.76	2.65	1.08	0.04	0.29	0.06	0.35
2011	7.08	3.20	0.23	0.91	0.15	0.84	3.36	1.04	0.05	0.3	0.07	0.39
2012	12.13	12.02	0.59	2.51	0.37	1.84	4.13	1.77	0.09	0.53	0.1	0.6
2013	12.61	10.45	0.51	2.45	0.36	1.62	5.77	2.76	0.14	0.8	0.14	0.69
2014	11.7	10.34	0.55	2.66	0.41	2.25	7.31	3.74	0.34	1.05	0.21	1.18
2015	10.81	7.00	0.43	2.47	0.37	2.12	8.73	4.81	0.38	0.98	0.28	1.49
2016	7.79	4.74	0.32	2.15	0.25	1.77	7.81	4.89	0.27	1.23	0.23	1.37
2017	9.95	6.10	0.42	2.59	0.34	2.17	9.37	5.36	0.19	1.29	0.2	1.3
2018	13.37	7.65	0.43	2.95	0.4	2.49	9.96	6.06	0.21	1.47	0.21	1.15
2019	14.71	7.75	0.4	2.64	0.48	2.54	11.05	5.95	0.25	1.78	0.26	1.16
2020	11.56	5.89	0.38	2.28	0.32	2.13	10.48	6.31	0.26	2.12	0.25	1.1
평균	9.75	6.39	0.37	2.04	0.3	1.78	6.97	3.75	0.19	1.02	0.17	0.93

자료 : 통계청 MDIS 마이크로데이터, 「국내인구이동통계」.

4) 신도시 이주 사유별 이동 비교

신도시의 시도 간 이동의 전입 · 전출을 이주 사유별[5]로 비교해 보자. 신도시는 대부분의 사유에서 전입이 더 우세[6]하며, 특히 주택 및 직업 사유가 높은 비중으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순이동 합계는 직업 사유의 경우 총 1만 3,000가구, 주택 사유의 경우 6만 1,000가구가 순유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 사유를 시기별로 살펴보면, 수원시 신도시는 광교지구의 입주시기인 2011년 이후 대부분의 사유에서 순유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1년 이후 주택 사유로 순이동이 급격히 증가하여, 2012년에는 1만 8,731가구로 정점을 찍은 이후 점차적으로 감소하여 2020년에는 순유출하는 것으로 전환되었다. 2020년 이후의 순유출에 관하여서는 수원시 연접지역의 주택 공급으로 인한 유출의 영향이 큰 것으로 추정한다. 한편, 직업사유는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순유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1,000가구가 순유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요인 중 총량은 크지 않지만 교육 사유[7]로 이동도 매년 500가구가량 순유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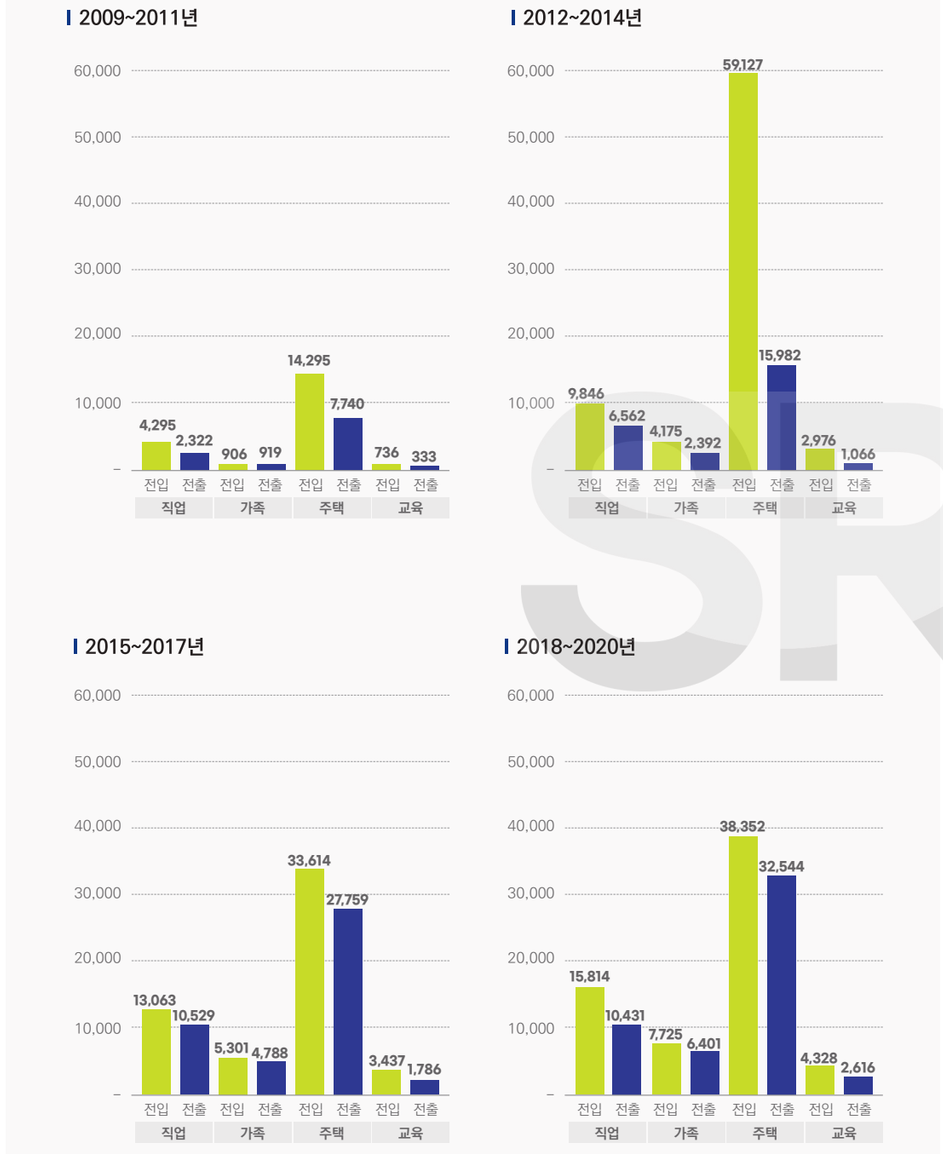
〈표 4〉 이주사유별 가구 이동 추이 (단위 : 가구)

신도시	직업 사유			가족 사유		
	전입	전출	순이동	전입	전출	순이동
2009	1,646	693	953	244	283	-39
2010	1,432	825	607	293	319	-26
2011	1,217	804	413	369	317	52
2012	3,225	1,567	1,658	1,476	546	930
2013	3,201	2,101	1,100	1,429	769	660
2014	3,420	2,894	526	1,270	1,077	193
2015	4,481	3,777	704	1,566	1,461	105
2016	4,206	3,612	594	1,566	1,526	40
2017	4,376	3,140	1,236	2,169	1,801	368
2018	5,437	3,309	2,128	2,661	2,041	620
2019	5,227	3,387	1,840	2,586	2,158	428
2020	5,150	3,735	1,415	2,478	2,202	276
합계	43,018	29,844	13,174	18,107	14,500	3,607

신도시	주택 사유			교육 사유		
	전입	전출	순이동	전입	전출	순이동
2009	2,057	2,757	-700	306	127	179
2010	2,063	2,234	-171	261	103	158
2011	10,175	2,749	7,426	169	103	66
2012	21,936	3,205	18,731	1,152	219	933
2013	19,507	5,195	14,312	781	332	449
2014	17,684	7,582	10,102	1,043	515	528
2015	13,992	9,295	4,697	983	512	471
2016	8,677	8,568	109	721	559	162
2017	10,945	9,896	1,049	1,733	715	1,018
2018	13,896	10,369	3,527	1,517	775	742
2019	14,677	11,356	3,321	1,661	881	780
2020	9,779	10,819	-1,040	1,150	960	190
합계	145,388	84,025	61,363	11,477	5,801	5,676

자료 : 통계청 MDIS 마이크로데이터, 「국내인구이동통계」.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그림 6〉 신도시 이주사유별 가구 이동(통계청 MDIS 마이크로데이터, 「국내인구이동통계」)

3. 신도시 가구 특성별 이동 비교

1) 가구원수별 가구 이동

신도시의 가구원수별 이동을 살펴보면, 2009년 이후 1인 가구는 모두 순유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는 연평균 3,800(전출)~5,900가구(전입)가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3~4인 가구는 연평균 6,200(전출)~1만 100(전입)가구가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나 두 가구 유형 모두 순유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인 가구와 3~4인 가구만큼의 비중은 아니지만, 2인 가구는 연평균 1,800(전출)~2,600(전입)가구, 다인 가구는 연평균 1,100(전출)~2,000(전입)가구가 이동한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시기에서 순유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교신도시 입주시기인 2011년부터 2014년까지는 모든 가구 유형에서 순유입하였으나, 그 이후 2016년에는 1인 가구를 제외한 모든 가구에서 유출되었다가 다시 순유입으로 전환되는 양상을 보인다. 2016년 순유입량이 줄어든 이유는 인근 화성 봉담지구의 주택공급 등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후 반등하여 순유입이 다시 발생하는 이유는 광교신도시 내 주택 입주물량 증가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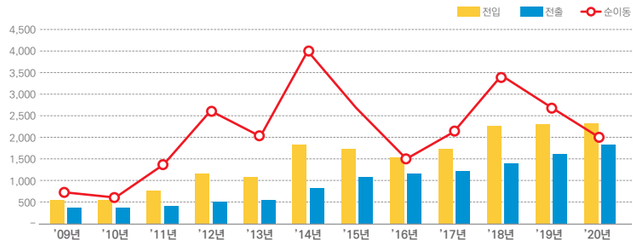
〈표 5〉 신도시 가구원수별 인구 이동 (단위 : 가구)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4인 가구			다인 가구		
	전입	전출	순이동	전입	전출	순이동	전입	전출	순이동	전입	전출	순이동
2009	2,267	1,548	719	690	714	-24	1,659	2,299	-640	293	431	-138
2010	2,177	1,549	628	588	636	-48	1,543	2,035	-492	220	244	-24
2011	3,028	1,645	1,383	1,828	750	1,078	6,304	2,390	3,914	1,248	419	829
2012	4,632	2,061	2,571	3,116	892	2,224	17,444	3,539	13,905	4,261	732	3,529
2013	4,292	2,267	2,025	2,788	1,312	1,476	16,918	5,508	11,410	3,997	1,201	2,796
2014	7,215	3,296	3,919	3,518	1,794	1,724	14,165	7,106	7,059	3,012	1,631	1,381
2015	6,900	4,279	2,621	2,970	2,188	782	11,355	8,651	2,704	1,967	1,548	419
2016	6,104	4,600	1,504	2,236	2,346	-110	7,246	7,408	-162	1,426	1,443	-17
2017	6,925	4,817	2,108	2,686	2,570	116	10,146	8,820	1,326	1,797	1,495	302
2018	8,973	5,609	3,364	3,808	2,918	890	12,349	8,987	3,362	2,146	1,539	607
2019	9,068	6,420	2,648	3,734	2,956	778	13,495	9,429	4,066	2,225	1,635	590
2020	9,261	7,303	1,958	3,076	3,034	42	8,847	8,765	82	1,365	1,420	-55
평균	5,904	3,783		2,587	1,843		10,123	6,245		1,996	1,145	

자료 : 통계청 MDIS 마이크로데이터, 「국내인구이동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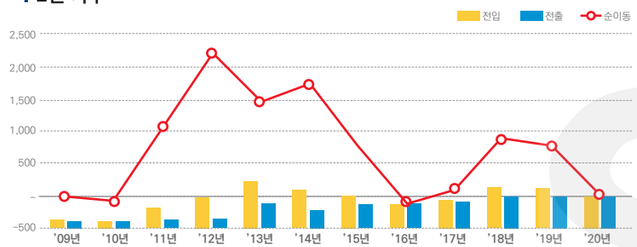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인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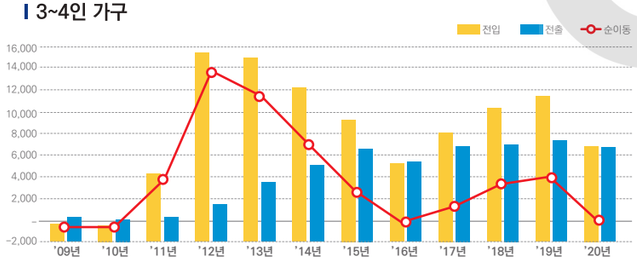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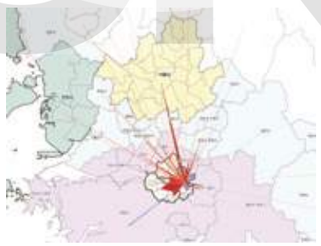
2인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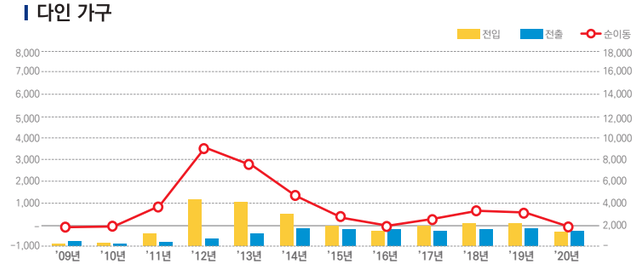


3~4인 가구





다인 가구





〈그림 7〉 신도시 가구원수별 이주사유 추이(통계청 MDIS 마이크로데이터, 「국내인구이동통계」)

2) 가구주 연령별 가구 이동

신도시의 가구주 연령별 이동을 살펴보면, 청년 가구는 지난 10여 년간 모두 순유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가구는 연평균 6,500(전출)~9,900(전입)가구가 이동한 것으로 나타나 매년 약 3,400가구가 순유입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중장년 가구는 연평균 6,600(전출)~9,900(전입)가구가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약 3,300가구가 순유입하였다. 한편, 노인 가구는 청년 및 중장년 가구의 이동량에 비해 적은 수준이나, 연평균 500(전출)~800(전입)가구가 이동하며, 약 300가구가 순유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 연령별 가구이동은 앞서 살펴본 가구원수별 이동과 비슷하게 대부분의 가구유형에서 순유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순이동은 2011년 급격히 늘어난 후, 2016년에 다소 순유입량이 줄어들었으나 다시 증가하였으며, 최근 2년 전부터는 감소 추이로 들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추정한 이유와 동일하게 이는 광교지구의 아파트 입주물량과 인접 지역의 주택공급에 의한 영향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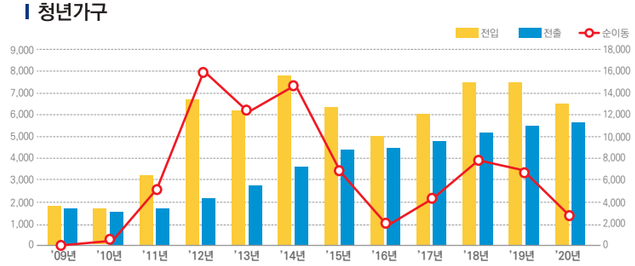
〈표 6〉 가구주 연령별 인구 이동 (단위 : 가구)

구분	청년 가구			중장년 가구			노인 가구		
	전입	전출	순이동	전입	전출	순이동	전입	전출	순이동
2009	3,329	3,179	150	1,484	1,669	-185	96	144	-48
2010	3,051	2,836	215	1,387	1,527	-140	90	101	-11
2011	5,833	3,158	2,675	5,928	1,922	4,006	647	124	523
2012	11,974	3,903	8,071	16,709	3,083	13,626	770	238	532
2013	11,190	4,997	6,193	16,036	4,958	11,078	769	333	436
2014	13,935	6,541	7,394	12,969	6,787	6,182	1,006	499	507
2015	11,362	7,906	3,456	11,026	8,155	2,871	804	605	199
2016	8,983	8,086	897	7,442	7,186	256	587	525	62
2017	10,838	8,639	2,199	9,850	8,448	1,402	866	615	251
2018	13,329	9,317	4,012	12,562	8,958	3,604	1,385	778	607
2019	13,362	9,882	3,480	14,002	9,735	4,267	1,158	823	335
2020	11,616	10,122	1,494	9,917	9,525	392	1,016	875	141
평균	9,900	6,547		9,943	5,996		766	472	

자료 : 통계청 MDIS 마이크로데이터, 「국내인구이동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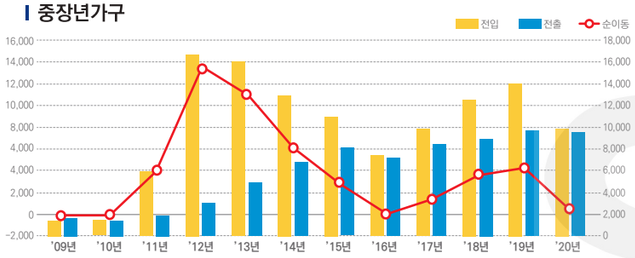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청년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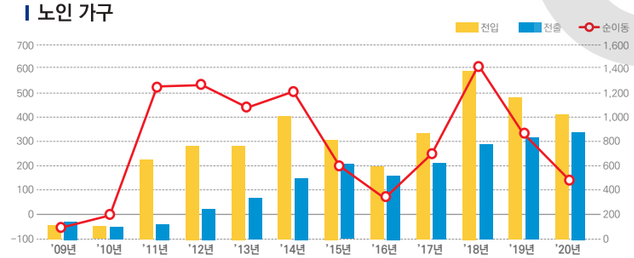


중장년가구





노인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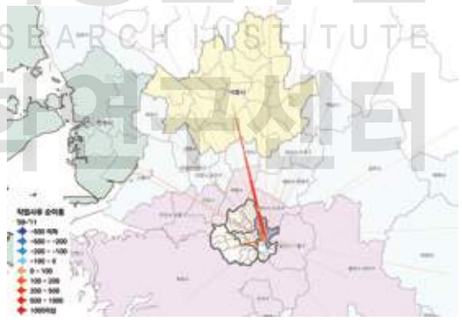


4. 신도시 지역여건과 이동요인[8]

1) 신도시 직업 사유 이동

2009년 이후 수원시 신도시에 직업 사유로 순이동 가구는 모두 순유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광교신도시 사업체와 비교한 결과 큰 상관관계가 있지는 않은 것[9]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직업 사유로 신도시에 이동한 가구를 살펴보면, 서울 및 수도권 중부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순유입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2015년부터는 화성시 및 수원시 남단에 위치한 경기도 지역으로 순유출이 발생하였다. 가구주 연령별로 더 세분화하여 지역 간 가구 이동을 살펴볼 수 있다.

2009~201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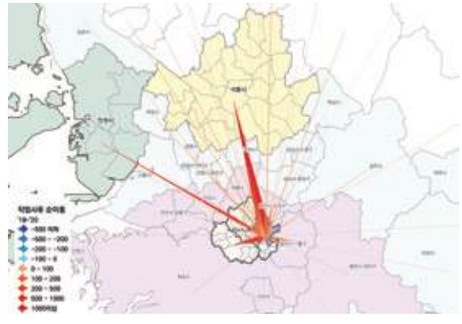
2012~2014년



2015~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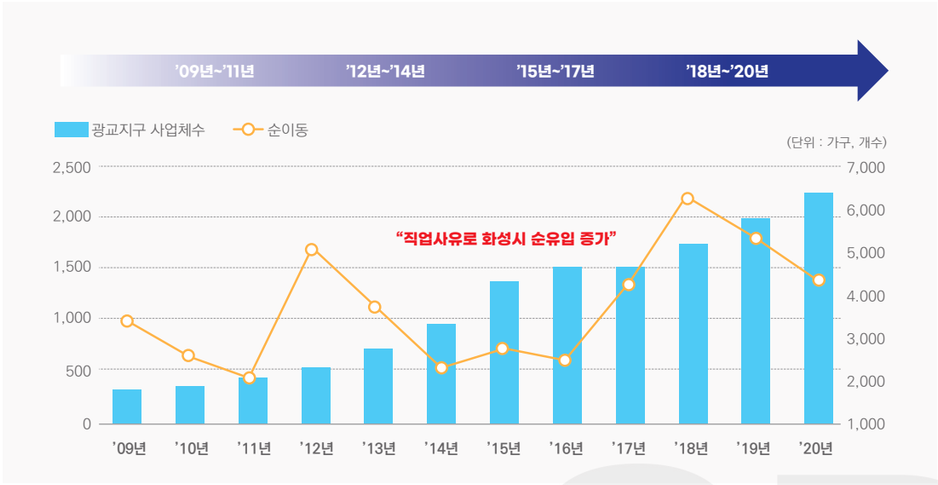


2018~2020년



〈그림 9〉 신도시 직업 사유 시기별 가구 이동 추이(통계청 MDIS 마이크로데이터, 「국내인구이동통계」)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그림 10〉 수원시 신도시 순이동 및 광교지구 사업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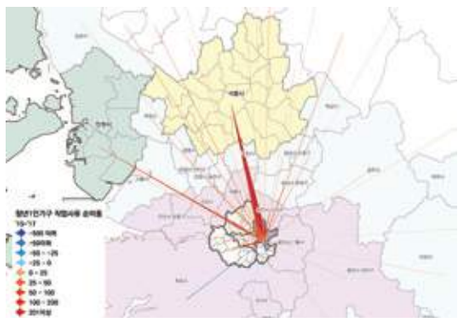
2009~2011년



2012~2014년



2015~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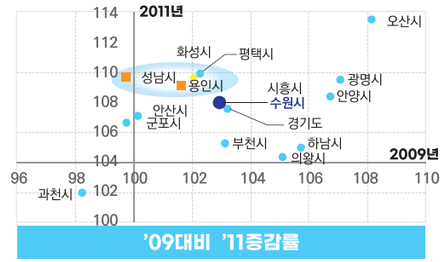
2018~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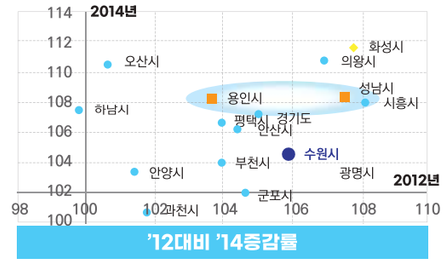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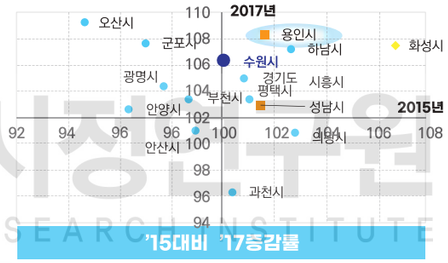
〈그림 11〉 신도시 청년 1인 가구 직업 사유 시기별 가구 이동 추이(통계청 MDIS 마이크로데이터, 「국내인구이동통계」)

경기 남부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전문화학기술서비스업 및 출판영상정보통신업 종사자로 한정)의 증감률을 파악해 본 결과, 성남 및 용인지역의 사업체 수 및 종사자수의 증감률이 급격히 상승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경기 남부지역의 사업체수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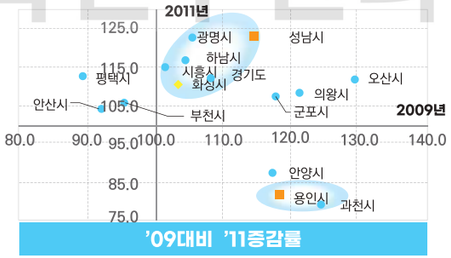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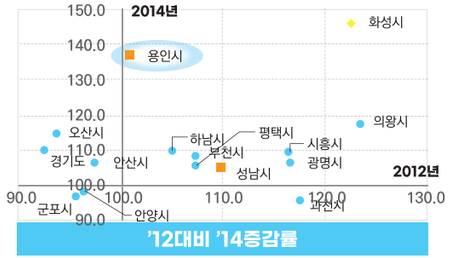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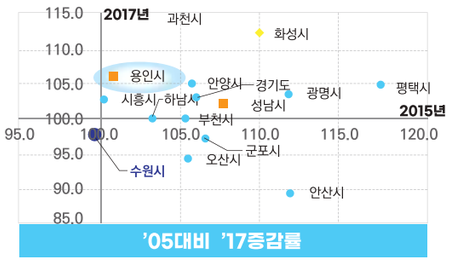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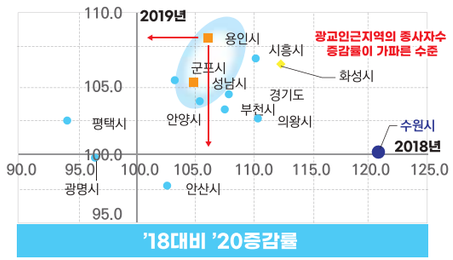


경기 남부지역의 종사자수 증감률









〈그림 12〉 수원시 및 인근지역의 시기별 사업체 및 종사자수 증감률(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실태현황」)
주 :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J. 출판·영상·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58~63), M.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70~73) 종사자수를 합산, 2012년 이전 수원시 종사자수는 자료 부정확성으로 제외.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청년 1인 가구의 경우, 서울, 인천 및 수도권 중부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순유입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2018년 이후에는 대부분의 수도권 지역에서 순유입이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다. 화성시로는 순유출하는 경향이 2017년까지 지속되다가 2018년부터는 화성시로부터도 순유입하는 것으로 전환되었다. 이와 같이 2018년 이후 급격히 수원시에 직업사유로 순이동하는 이유는 〈그림 12〉와 같이 성남 및 용인 판교 등의 정보통신업이 활성화됨과 연관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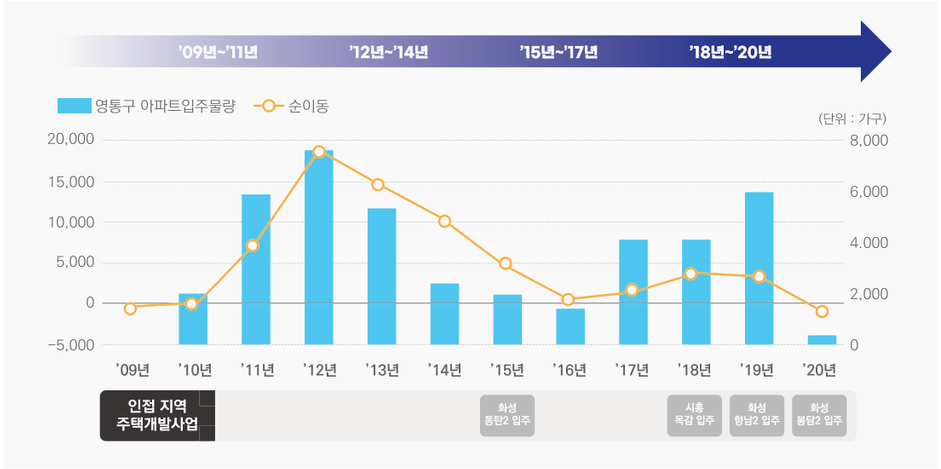
2) 신도시 주택 사유 가구 이동

신도시의 순이동을 살펴보면, 2011년 광교지구 입주시기 이후 주택 사유로의 순유입 급격히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별히 영통구의 아파트 입주물량과 2009년 이후 순이동량을 비교해 볼 때, 서로 상관관계가 있음[10]을 〈그림 13〉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2015년 화성 동탄지구, 2018년 시흥 목감지구, 2019년 화성 향남지구 등의 입주로 2015년 이후부터는 화성, 용인, 시흥 등의 방향으로 순유출이 발생하였다.

청년 1인 가구는 광교신도시 입주시점인 2011년 이후, 서울 및 수도권 중부지역에서 유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5년부터는 화성시로 유출하기 시작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2018년 이후로는 용인 기흥구와 화성시 순유출량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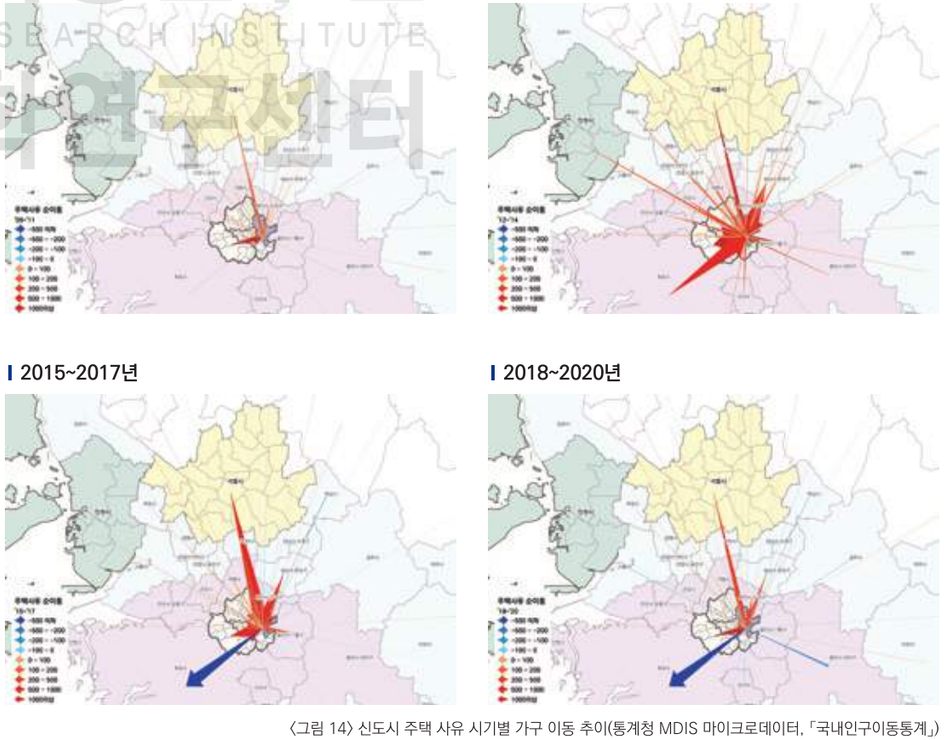
중장년 3~4인 가구의 경우, 광교신도시 개발(2011년 입주) 이후 주택 사유로 서울, 성남, 용인, 화성 등에서 대량 순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5년 동탄신도시 개발 이후에는 화성시 순유출이 뚜렷하게 발생하기 시작하였으며, 청년 1인 가구와 달리 2020년까지 꾸준히 용인 수지에서 주택 사유로 유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6〉.

지난 10여 년간 노인 1인 가구는 서울, 인천, 수원시 내부, 용인 등에서 지속적으로 순유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이후부터는 화성, 오산, 기흥, 평택 등 경기 남부지역으로 순유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8년 이후부터는 수원시 내부에서 광교신도시로 순유입한 이동량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7〉.



〈그림 13〉 수원시 신도시 순이동 및 영통구 아파트 입주물량

SRI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시정연구원
수원화연구센터



〈그림 14〉 신도시 주택 사유 시기별 가구 이동 추이(통계청 MDIS 마이크로데이터, 「국내인구이동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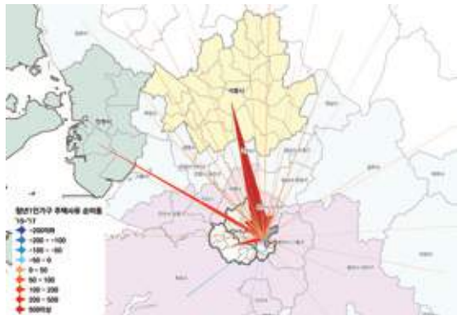
2009~2011년



2012~2014년



2015~2017년



2018~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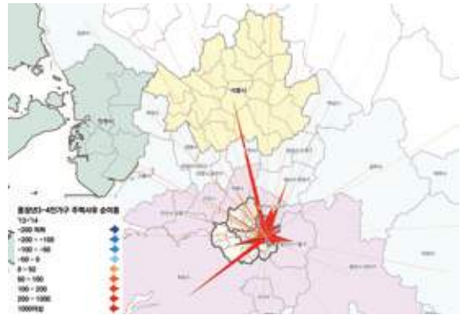


〈그림 15〉 신도시 청년 1인 가구 주택 사유 시기별 가구 이동 추이(통계청 MDIS 마이크로데이터, 「국내인구이동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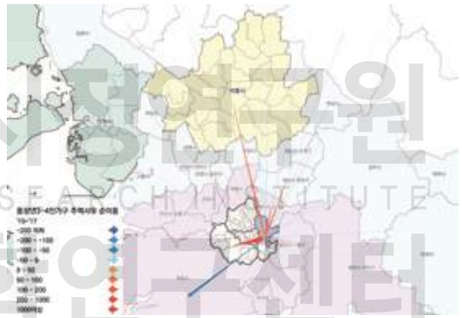
2009~201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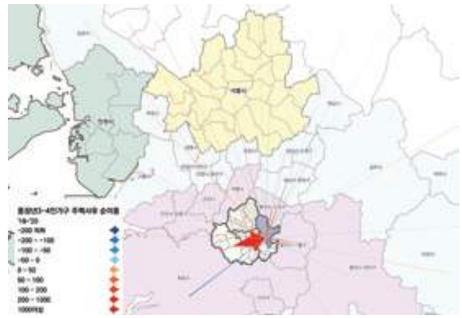
2012~2014년



2015~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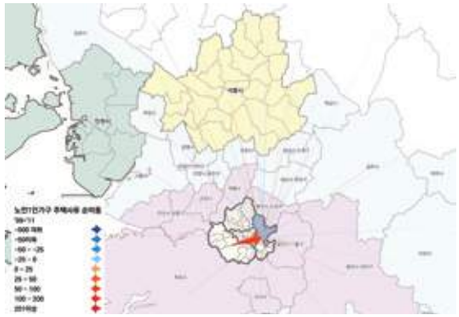
2018~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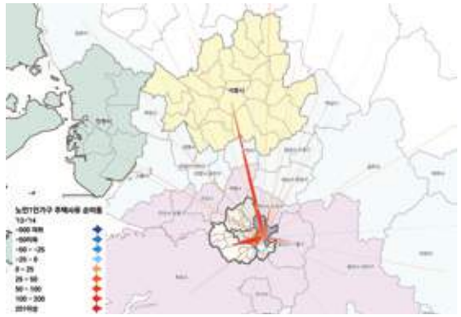
〈그림 16〉 신도시 중장년 3~4인 가구 주택 사유 시기별 가구 이동 추이(통계청 MDIS 마이크로데이터, 「국내인구이동통계」)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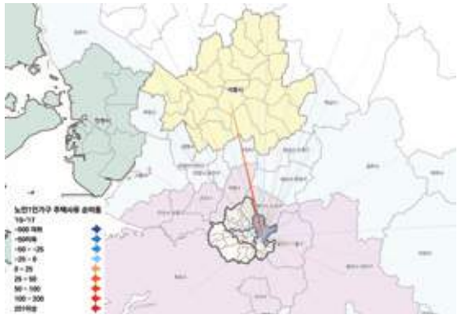
2009~201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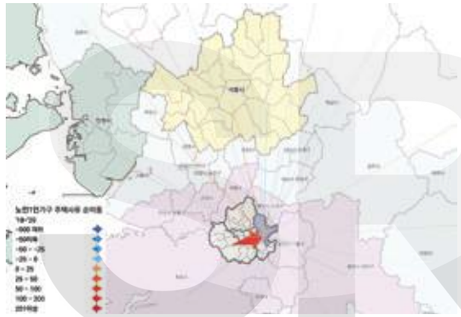
2012~2014년



2015~2017년



2018~2020년



〈그림 17〉 신도시 노인 1인 가구 주택 사유 시기별 가구 이동 추이(통계청 MDIS 마이크로데이터, 「국내인구이동통계」)

〈표 7〉 가구 특성별 세부분석 정리

구분		특징
이주 사유	가구 유형	
직업 사유	청년 1인 가구	○ 청년1인 가구는 서울, 인천, 수도권 중부지역에서 순유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2018년 이후 상당히 많은 청년1인 가구가 직업사유로 순유입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용인 판교테크노벨리 등 인근지역의 산업단지로 인해 나타난 현상으로 추정 ○ 한편, 화성·평택 등으로 일시적으로 순유출이 나타난 시기도 있었으나, 2018년 이후에는 순유입하는 것으로 나타남
주택 사유	청년 1인 가구	○ 청년1인 가구는 서울 및 수도권 중부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주택사유로 순유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을 제외하고는 용인 및 성남에서 유입되는 이동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한편, 화성 동탄지구의 입주시기인 2015년 이후부터는 점차 화성시로 유출되는 것으로 나타남
	중장년 3~4인 가구	○ 중장년3·4인 가구는 타 가구유형에 비해 주택사유로 유입된 양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2012~2014년 가장 많이 유입됨 ○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대부분의 수도권 지역에서 순유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 용인, 성남, 화성 등에서 많이 유입된 것으로 나타남 ○ 한편, 2015년부터는 화성시로의 유출이 발생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남
	노인 1인 가구	○ 노인1인 가구는 수원시 내부에서 가장 많이 유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9년 이후 서울에서도 지속적으로 유입한 것으로 나타남 ○ 2015년 이후부터는 이동량 자체가 크지는 않지만 수원시 남단에 위치한 화성, 오산, 평택 등으로 순유출이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음

자료 : 통계청 MDIS 마이크로데이터 「국내인구이동통계」.

5. 소결

지금까지 영통구 인구 유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광교신도시를 중심으로 인구 · 가구 이동을 살펴보았다. 광교신도시는 연평균(2009~2020년) 2만 700가구가 전입, 1만 3,000가구가 전출하여 약 7,600가구가 매년 순전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한 가구의 전입 · 전출 지역을 살펴보면, 전체 이동량 중 타 시도 간 이동이 20.0%, 경기도 내에서의 이동이 약 32.8%로 약 52.8%가 외부이동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주 사유별로 살펴보면 특히 주택 및 직업 사유가 전반적으로 높은 비중으로 우세하나, 세부가구 유형별로는 전입 · 전출지의 특성별로 이동패턴이 상당히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2009년 이후 신도시에 직업사유로 이동한 가구를 살펴보면, 서울 및 수도권 중부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순유입하였으나 2015년부터는 화성시 및 수원시 남단에 위치한 경기도 지역으로 순유출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청년1인 가구에 대해 분석한 결과, 다른 가구유형과 비슷한 추이를 보였으나, 2018년 이후에는 대부분의 수도권지역에서 순유입이 다량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8년 이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에 따른 사업체 증가와 정보통신업 관련 산업의 종사자 증가와 높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주택 사유에 따른 순이동을 살펴보면, 모든 가구 유형에서 2011년 광교지구 입주시기 이후 순유입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2015년부터는 인접지역의 화성 동탄지구, 2018년 시흥 목감지구, 2019년 화성 향남지구 등의 입주로 해당지역으로의 순유출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를 유발하는 사유는 단일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닌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영통구 내 광교신도시는 대규모 주택 공급이 있었던 지역으로 주택사유가 다른 사유에 비해 가장 강력하게 작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많은 사람들이 더 넓은 주택 규모, 더 안정적인 점유형태, 더 쾌적한 정주환경을 위해 이주를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인구의 유입을 위해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현재와 같은 인구 감소시대에는 상호간 출혈경쟁(zero-sum)을 유발하므로 바람직한 도시정책은 아니다. 예컨대 광교신도시 개발 시점에는 인구 유입이 있었지만 화성과 용인 등 연접한 지자체의 주택개발로 영통구 인구가 유출되는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유래 없는 저출산 · 고령화, 사회적 인구 증감으로 인구 · 가구 구조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쉽게 언급하기 어려우나, 영통구와 인접해 있는 화성시 용인시 등 동일한 생활권을 영위하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인구 · 가구 이동을 분석함을 통해 앞으로 상호보완적인 도시정책을 구상하여야 할 것이다.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2) 허경재·박관아, 「수원시 인구·가구 이동특성 및 영향요인 분석」, 수원시정연구원, 2022.

3) 인구·가구 이동 분석을 위한 자료로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국내인구이동통계 자료의 원자료인 MDIS(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가구주의 연령별로 구분하여 분석을 진행하기 위해 해당 분석은 '인구'단위가 아닌 '가구'단위의 분석을 진행. 가구주의 나이는 청년의 경우 만 40세 미만, 중장년은 만 40세 이상 65세 미만, 노인은 만 65세 이상으로 설정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4) 허경재·박관아(「수원시 인구·가구 이동특성 및 영향요인 분석」, 수원시정연구원, 2022)에 의하면, 수원시 원도심의 가구 이동은 수원시 내에서 약 70%, 경기도에서 약 15%, 그 외 지역에서 15%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국내인구이동통계 자료의 원자료인 MDIS(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자료는 전입신고 시 주민센터에 제출하는 전입신고서를 기반으로 한 자료로 이주사유에 대해서는 1. 직업, 2. 가족, 3. 주택, 4. 교육, 5. 주거환경, 6. 자연환경, 7. 기타의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2001~2008년은 전입사유 미입력 시 기본값으로 '직업'을 선택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어 2009~2013년은 상세한 설명 부족 등으로 인한 무응답 비중이 높아 담당 공부원이 '기타'로 일괄 입력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 한계가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2009년 이후를 연구의 범위로 설정하였으며, 기타 사유는 제외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6) 한편, 수원시 내 원도심의 경우, 주택 사유로의 전출이, 직업 사유로의 전입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 신도시와는 상반된 이동이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다.

7) 광교지구 내에는 아주대 및 경기대가 입지해 있다.

8) 신도시로의 이주 사유 중 가장 우세한 비중으로 전입하는 주택과 직업사유에 대하여 세부분석을 진행하였다.

9) 광교지구 사업체수와 순이동가구의 상관도를 구해준 결과 0.51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10) 영통구 아파트입주물량과 수원시 신도시의 순이동의 상관정도는 0.71인 것으로 나타났다.

11) 가구유형분류(청년1인 가구, 청년 2인 가구, 청년 3·4인 가구, 청년 다인 가구, 중장년 1인 가구, 중장년 2인 가구, 중장년3·4인 가구, 중장년다인 가구, 노인1인 가구, 노인2인 가구, 노인3·4인 가구, 노인 다인 가구)는 총 12개의 가구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으나, 특별히 순이동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나며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가구유형을 대상으로 결과를 정리하였다.

영통구 캠퍼스타운

김진희 수원시정연구원 위촉연구원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 지역에서 대학의 역할

오늘날 대학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역할과 모습을 요구받고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보고자 한다. 과거의 대학과 달리 오늘날 대학은 사회활동의 기초가 되는 기술과 정보 그리고 인력을 창출하는 혁신주체로서 그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이와 동시에 대학에서 쌓아온 지식을 국가 기술과 지역발전에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 심오한 이론과 이론방법을 연구하던 대학의 역할이 새로운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지식을 창출하고 이를 밖으로 이전시킴으로써 경제 성장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 곳으로 바뀌었다.

대학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면서 대학의 기능과 역할, 운영방식도 점점 변화를 맞고 있다. 대학은 전통적 가치인 학술적 이론개발과 연구를 기본으로 하되, 실용적인 가치 충족과 이를 활용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수행하려는 노력도 계속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학의 교육과 연구, 다양한 활동의 범위가 캠퍼스 내에서 지역사회까지 확장되면서 지역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실제로 대학은 지역사회에 대한 문화적 통합기능도 강조되고 있다. 대학은 대학병원을 비롯한 도서관, 체육시설, 연구단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폭넓은 시설물을 지역사회에 개방하고 제공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1] 이와 동시에 대학의 교육과 연구도 지역사회를 주체로 하며 대학이 지역사회와 긴밀한 관계를 맺기도 한다. 이처럼 대학은 지역사회와의 결합을 바탕으로 지역의 정체성을 부여한다고 볼 수 있다.



2023년 경기대학교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2023년 아주대학교 LINC(Leaders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사업단 홈페이지



도시재생 리빙랩(수원도시재단 제공)



소상공인 자영업자 활성화프로젝트(아주대학교 LINC 사업단 제공)

다른 한편으로는 대학은 지역의 발전을 위한 혁신주체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산학협력을 통해 대학의 전문지식을 실용적 기술로 이전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여 기업체에 제공하고 기업이 바라는 양질의 기술 인력을 배출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기관으로서 대학이 지역에 대한 영향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영통구에 위치하는 경기대학교와 아주대학교 두 대학은 지역사회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지역사회와 맺는 연대 강도에 따라 미치는 영향에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앞서 대학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논의해 보았을 때 작은 영향까지도 결코 우리는 과소평가할 수 없다.

대학은 인문사회, 예술, 창업, 도시문제 해결 등 지역에서 다양한 분야의 발전 주체로 기능하고 있으며 물리적이든 비물리적이든 지역과의 협력적 관계를 통해 이익을 주고받는다. 영통구 개청 20주년을 맞아 영통구에 위치한 경기대학교와 아주대학교 두 대학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두 대학은 지식 경쟁시대를 맞이하여 사회가 필요로 하는 기술 및 창의적인 지식 창출을 위해 산학연관 협력에 힘쓰고 있다. 경기대학교의 경우 경기권 산학협력 특화대학으로서 대학 특성에 맞는 선도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지역사회 및 기업과 산학협력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한다. 가족회사제도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을 통해 대학과 기업이 지속적으로 연계관계를 맺고 인적, 물적 자원을 공유함으로써 상호 발전을 도모한다. 아주대학교는 산학연공동기술 개발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에너지, 빅데이터, 모빌리티, 문화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예술, 사회과학 등 특화분야를 중점으로 공동연구를 통한 기술개발과 기술사업화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경기대학교와 아주대학교는 공통적으로 교원창업에 대한 지원으로 벤처기업의 창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연구결과에 의해 얻어진 직무발명에 대해서 지식재산권을 취득하기 위한 절차 및 경비를 지원하고, 산학협력단을 통해 기술수요업체에 기술이 이전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대학의 연구 성과물 및 지식재산 기반이 기술사업화 성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역사회와 대학의 연계는 도시문제 대응으로도 확장되고 있다. 대학의 역할과 기능이 점점 커지면서 지역사회에 발생한 문제들에 대해 고찰이 생겨나기 시작하였고 학생들과 협력하여 도시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게 되었다. 그 예로 경기대학교에서는 연무동 주민자치회와 함께 마을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논의된 마을 문제는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상가 주변 환경과 분위기 개선, 젊은 층 상권 유입 활성화, 원룸 밀집지역 안전 방안, 디지털 기반 안전거리 조성 등 5가지의 안건을 논의하였다. 간담회 현장에 함께한 경기대학교 학생들이 5개의 팀으로 나뉘어 각 분야별 과제를 설정하고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였다. 아주대학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주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해 '아주사랑 소상공인 · 자영업자 활성화 상생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심리학과, 경영학과, 미디어학과, 영문학과 등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모여 인테리어 콘셉트 설정, 고객설문, SNS 이벤트 기획 등 상권 활성화를 위한 환경개선과 홍보활동을 진행하였고 프로젝트 참가 업체들의 평균 매출은 75% 이상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아주대 LINC는 수원도시재단과 함께 지역 현안해결을 위한 리빙랩 경진대회를 운영하여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사회문제 해결에 접목해 보며 아이디어를 확장시켜 나가고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였다. 실제 경기도청 주변 도시재생 서포터즈 운영 및 수원시 그린뉴딜 리빙랩 아이디어 경진대회 등을 통해 정책 참여를 유도하였다.

이처럼 영통구에 위치한 두 대학은 지식사회의 심화된 경제구조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장래 진로를 고심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에도 깊은 관심을 쏟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우리나라 대학의 학령인구가 감소되는 상황에 직면했으며 대학의 위기가 점차 심화되고 있다. 경기대학교와 아주대학교 또한 이러한 현실을 간과하고 안주해 있을 순 없다. 학령인구 감소와 미래 산업에 대비하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특성화 전략을 모색이 필요하다. 이에 다음에서는 영통구에 위치한 두 대학의 학령인구 감소와 미래 산업에 대비한 혁신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현황을 파악하고, 대학이 지역 발전을 위해 어떤 기능을 수행하고, 지역과의 상생방안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다뤄 보고자 한다.

2. 영통구 캠퍼스타운 현황

1) 영통구 캠퍼스타운 부지 현황

영통구에 위치한 두 캠퍼스에 대한 현황을 통해 대학과 지역의 협력관계 조성을 위한 관련 요인들을 살펴보고, 캠퍼스 활용에서 법적 한계와 개발 규모를 가늠해 보고자 한다.

경기대학교는 인근에 교통인프라 시설인 광교역(신분당선)이 위치하고 있으며 IT, NT, BT가 융합된 첨단산업단지인 광교테크노밸리가 접해 있어 기술협력 및 인력교류 가능성에 대한 이점이 있다. 아주대학교의 경우 교통인프라가 인접하지는 않으나 서울 등 수원 외부로 이동하기 위한 광역버스가 지나가는 정류장과 인접하여 교통기반시설이 양호한 편이다. 또한 대학병원과 대학상권이 있어 생활편익시설이 양호함을 알 수 있다.

경기대학교와 아주대학교 캠퍼스 부지의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이며 그 주변으로는 일반주거지역으로 형성되어 있다. 경기대학교와 아주대학교 각각 대지면적이 494㎡, 497㎡로 수원에 위치한 캠퍼스 중 가장 넓은 부지를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두 캠퍼스 부지는 용도지역 자체가 자연녹지로 되어 있어 활용할 수 있는 여유 면적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표 1〉 경기대학교와 아주대학교 용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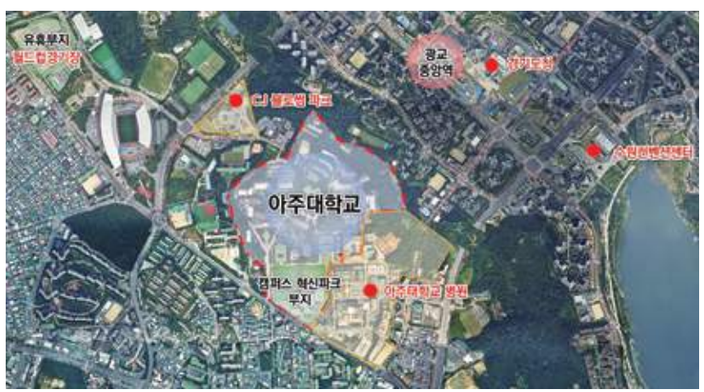
구분		경기대학교	아주대학교
용도지역		대학(자연녹지), 주변(일반주거)	대학(자연녹지), 주변(일반주거)
대지면적		494,911.6㎡	479,758㎡
건축면적		58,433.6㎡	76,483.67㎡
건폐율		11.81%	15.94%
연면적		262,014.62㎡	414,379.03㎡
용적률		46.81%	66.33%
여유 건폐율		8.19%	4.06%
여유 용적률		53.19%	33.67%
1종 일반주거지역 용도변경 시	건축면적	238,513㎡	211,371㎡
	연면적	727,808㎡	545,137㎡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하지만 〈표 1〉과 같이 대학부지 활용을 높이기 위해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여유 건폐율과 용적률을 환산하였을 때, 그 비율은 높은 편이 아니었다. 단, 캠퍼스 자체에 유휴부지를 가지고 있다면 대학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것은 아니다. 경기대학교는 후문 일대에 약 1만 7,700㎡ 규모의 유휴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는 대학의 자체 발전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향후 이 부지에 대한 개발방안과 공간 활용 전략을 검토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아주대학교는 유휴부지를 소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캠퍼스혁신파크 조성사업에 제안한 부지가 있다.



경기대학교 주변 현황(저자 작성)



아주대학교 주변 현황(저자 작성)

하지만, 이와 같은 부지들은 현 시점에서 당장이라도 개발이 가능한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영통구는 청년자원이 집중된 우수한 대학의 입지를 보유하고 있으나 규모 대비 대학부지 활용도가 낮은 실정을 보이며, 청년인구의 외부 유출 방지를 위한 두 캠퍼스의 적극적인 활용방안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앞서 두 캠퍼스에 대한 물리적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면, 비물리적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앞서 물리적 현황에서는 캠퍼스부지 활용성에 대해 미비한 것을 알 수 있었으나, 캠퍼스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에 대해 활용하고 있는 동향을 파악하여 두 캠퍼스의 성격을 알아보고자 한다.

우선, 대학별 정원을 살펴보면 2023년 현재 재학생 기준으로 경기대학교는 1만 1,233명, 아주대학교는 9,705명의 재학생을 보유하고 있다. 중점학과로는 경기대학교의 경우 AI컴퓨터 공학부(소프트웨어, IOT임배디드, 블록체인) 등이 있으며 2021년 소프트웨어 중심대학[2]에 선정되었다.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SW중심대학사업단을 총장 직속화하고 17개의 주요 추진과제를 도출하여 추진하고 있다. 아주대학교는 의과대학 및 소프트웨어학과 등 중점학과를 보유하고 있으며 2022년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에 선정되었고, 소프트웨어융합대학을 신설하였다. 경기대와 마찬가지로 아주대학교 또한 총장 직속기구인 SW융합교육원을 신설하고 기술지주회사와 연계한 전주기적 창업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중점학과 외에도 각 대학에서는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제도도 실행하고 있다. 경기대학교 창업보육센터는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 이내 기업을 대상으로 교육과 저비용의 입주비용으로 창업공간을 지원하고 있다. 경기대학교는 경기권의 거점형 기술창업 전초기지의 역할을 수행하며 창업생태계 조성과 수원시의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주대학교 창업보육센터는 일반창업과 신기술창업 분야를 중점으로 전반적인 창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총 29개의 보육실과, 지원시설 등을 제공하고 있다. 공간 외에도 창업 아이템을 사업화하기 위한 자금, 홍보 등의 지원과 창업지원제도에 대한 상담창구를 운영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두 캠퍼스는 대학 내 풍부한 인적, 물적, 지적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대학의 노력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캠퍼스타운 확장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2) 영통구 캠퍼스타운 데이터 분석

앞서 두 캠퍼스타운에 대한 물리적, 비물리적 현황을 살펴보았다면 이 글에서는 현재 두 캠퍼스타운을 기준으로 일정 반경 내 인구, 상권, 용도, 주요 유입시설 등을 데이터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대학의 영향권이 지역사회에 어느 정도 미치는지 파악하고 도시발전 측면에서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캠퍼스타운의 조성을 위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객관적인 현황 분석이 필요하다.

데이터 분석은 캠퍼스타운 일정 반경과 수원시 전체 유동인구, 상권 분석은 통신데이터와 카드데이터를 바탕으로 통계 분석하였고, 토지 및 건축 현황 분석은 건축물대장데이터를 활용하여 진행하였다. 또한 이와 같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GIS를 이용한 공간 분석을 동시에 진행하였다. 경기대학교와 아주대학교의 데이터 분석을 위한 영향권 범위 설정은 정문을 기점으로 반경 1㎞를 기준으로 하였으나, 도로와 역사의 위치, 상권 분포 등의 요소들을 고려하여 경기대학교는 후문의 반경도 포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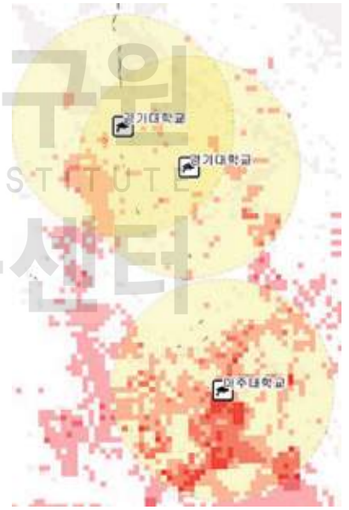
(1) 인구구조 부문

먼저 인구 현황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인구는 유동인구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분석의 범위는 크게 연령별, 기간별로 분류하였다. 유동인구는 특정지역에 대한 밀집지역 파악이 가능하며 2019~2022년 유동인구의 평균값을 연령대별 및 시간별(주중/주말)로 구분하여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20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20대 유동인구 분석은 캠퍼스 반경뿐만 아니라 수원시 전체에 대해 어느 지역에 가장 밀집하고 있는지도 동시에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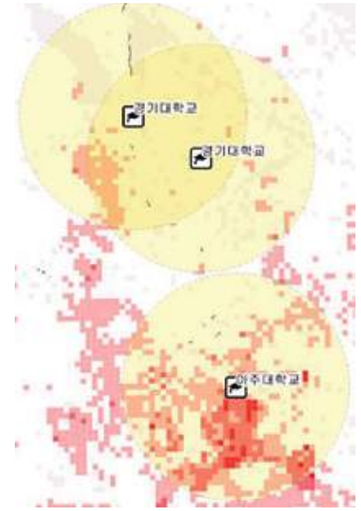
연령별 유동인구를 주중과 주말로 나누어 분석하였을 때, 20대와 30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수원시 내외부로 생산 및 소비활동, 학습활동 등을 위해 이동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수원시 내 유동인구가 어디에 가장 밀집되는지를 GIS공간분석으로 분석하였을 때 수원역과, 수원시청, 영통역 일대, 아주대학교 앞 정문에 밀집되어 나타났다.

〈표 2〉와 같이 두 캠퍼스타운의 주중과 주말의 20대 유동인구를 살펴보면 주중과 주말은 경기대학교는 9,000여 명 정도의 차이를 보였으며 아주대학교는 8,000여 명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특히 수원시 주중 · 주말 유동인구 대비 아주대학교의 유동인구가 26~27%인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대학병원, 대학상권, 여가 시설 등 대학생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이 대학 인프라에 대한 활용도가 높은 것을 추정할 수 있다. 또한 GIS공간분석을 통해 본 주중과 주말의 유동인구 밀집지역은 경기대학교의 경우, 후문 부근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였으며 아주대학교는 전반적으로 높은 유동인구의 밀집도를 보였다. 이와 같이 실제 대학 인근 교통인프라와 상업시설, 생활편의시설이 인접하게 위치한 경우 유동인구 비율이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기간별 유동인구의 경우 학기와 방학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분석을 진행하였다. 학기와 방학 중 캠퍼스 반경 내 유동인구를 분석하여 실제 대학생들이 학습을 위한 목적으로 유입되는지, 주말에도 대학 인근 지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기 위해 유입되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다. 기간별 유동인구를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은 대학생들의 소비활동이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상권매출이 증가하는 것인 일반적인 사실이며 특히 대학 인근 지역 상권은 이러한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



경기대, 아주대 주중 20대 유동인구(저자 작성)



경기대, 아주대 주말 20대 유동인구(저자 작성)

〈표 2〉 주중·주말 영통구 캠퍼스타운 유동인구 현황

구분		경기대학교		아주대학교		수원시	
		유동인구(명)	비중(%)	유동인구(명)	비중(%)	유동인구(명)	비중(%)
주중	10대	9,139	5	30,779	7	527,044	7
	20대	40,956	25	111,846	26	1,583,554	20
	30대	33,993	20	76,139	18	1,528,300	19
	40대	28,912	17	70,183	16	1,430,059	18
	50대	27,959	17	71,712	17	1,471,020	19
	60대 이상	25,913	16	69,300	16	1,298,318	17
	합계	166,872	100	429,959	100	7,838,295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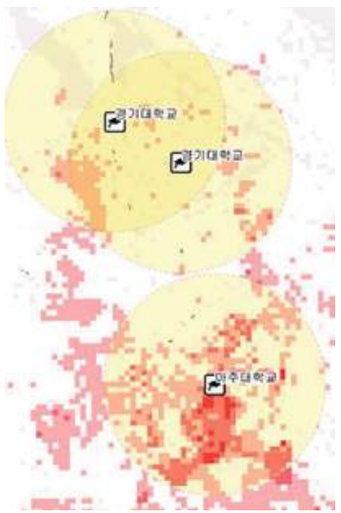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구분		경기대학교		아주대학교		수원시	
		유동인구(명)	비중(%)	유동인구(명)	비중(%)	유동인구(명)	비중(%)
주말	10대	7,251	5	26,914	7	481,170	7
	20대	31,924	24	103,857	27	1,592,188	22
	30대	24,805	19	69,294	18	1,442,863	20
	40대	21,673	16	61,996	16	1,298,571	18
	50대	23,356	18	64,768	17	1,371,292	19
	60대 이상	23,636	18	60,524	16	1,202,513	16
	합계	132,645	100	387,353	100	7,388,596	100

〈표 3〉 기간별 영통구 캠퍼스타운 유동인구 현황

구분	경기대학교		아주대학교	
	유동인구(명)	비중(%)	유동인구(명)	비중(%)
겨울방학(1~2월)	33,365	22	94,972	22
1학기(3~6월)	39,546	26	112,884	26
여름방학(7~8월)	40,442	27	108,404	25
2학기(9~12월)	38,598	25	113,906	26
합계	151,952	100	430,167	100

기간별 유동인구 조사 결과는 〈표 3〉과 같이 겨울방학과 1학기의 유동인구 차이가 크게 나타났으며 경기대학교의 경우 5,000여 명, 아주대학교는 2만 3,000여 명의 큰 차이를 보였다. 이처럼 방학기간 중 수원시 내로 유입되는 20대 인구수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대학의 재학생들이 캠퍼스 내 · 외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의 요지가 없음을 의미하고 현재 캠퍼스는 학습을 위한 공간적 기능만을 수행하고 있다. 청년층의 인구 유입을 위해 캠퍼스는 자기 완결적인 공간이 아닌 주변 지역 및 주변 산업 등과 긴밀한 연계 속에서 학습, 생산, 여가 활동 등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합공간으로서 캠퍼스타운이 조성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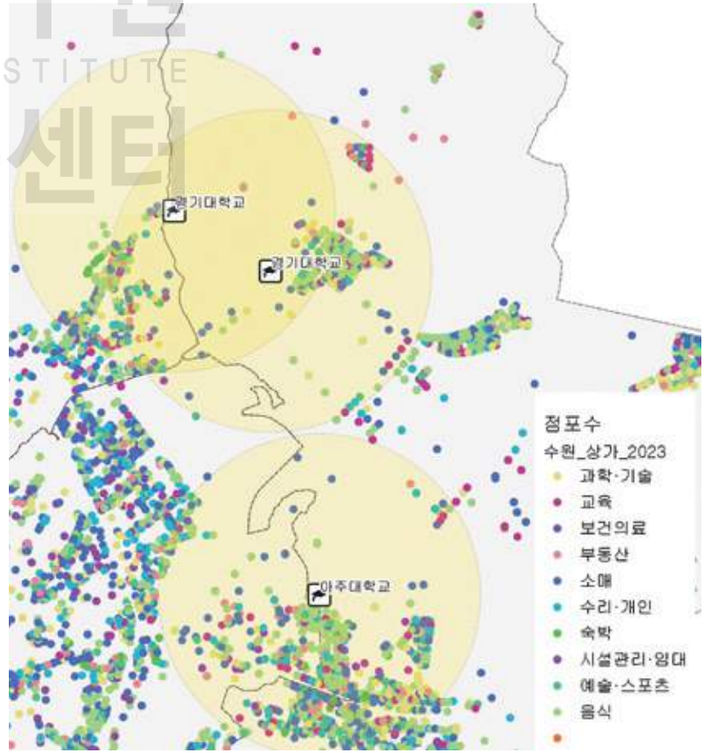
학기 중 20대 유동인구 밀집도(저자 작성)



방학 중 20대 유동인구 밀집도(저자 작성)

(2) 상권구조 부문

다음은 대학을 중심으로 형성된 상권의 업종 분포 현황과 매출 현황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대학상권은 대학생들의 주된 소비공간이자 여가생활을 위한 요지로서 공간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대학생들이 창업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연도별 점포수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유동인구와 상권이용자가 감소하여 대학상권이 침체가 진행되



2023년 대학별 업종 분포(저자 작성)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었다. 실제, 수원시 점포수 통계를 보았을 때,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20년 대비 2021년에 약 1만 9,000개소가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대학별 점포수 현황을 살펴보았을 때, 2020년 대비 2023년 아주대학교가 약 4,000개소로 가장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 분포는 캠퍼스 반경 1㎞ 내에 포함된 오프라인 소비업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2023년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산업분류 기준에 따라 대분류로 분류하였다. 대학상권은 지역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 일반 상권과는 차별화되지만, 경기대학교와 아주대학교 인근 상권을 살펴보면 업종의 범주가 음식점 및 소매업에 한정되어 나타났다. 대학상권이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업종의 한계로 하교 후 학생들이 활동할 수 있는 이벤트, 문화 등 장소의 명소화가 될 요소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나 두 캠퍼스의 상권은 여타 서울 소재 대학상권과 다르게 교통망을 이용한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복합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상권이 형성될 필요가 있다.

〈표 4〉 연도별 점포수 현황 (단위 : 개)

구분	경기대학교	아주대학교	수원시 학교
2019	1,362	3,478	67,320
2020	2,370	6,388	73,574
2021	3,213	5,070	54,131
2022	2,573	4,222	50,954
2023	1,556	2,102	49,300

〈표 5〉 업종 분포 현황 (단위 :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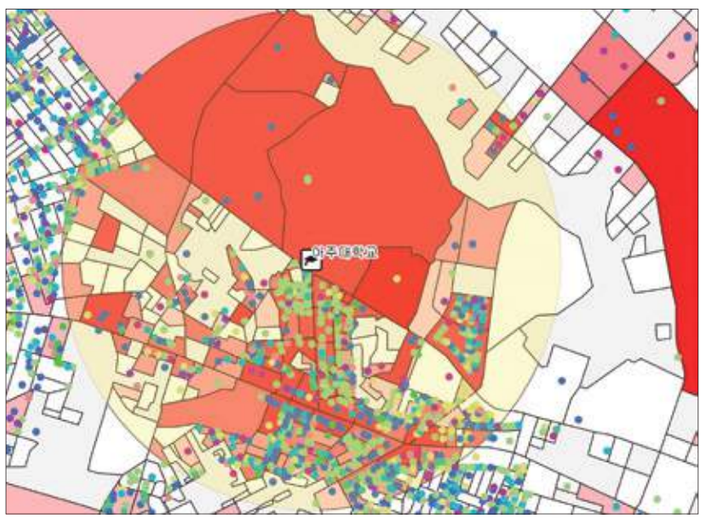
업종	경기대학교	아주대학교	수원시 학교
과학·기술	307	216	4,945
교육	87	126	2,666
보건의료	8	29	590
부동산	83	109	2,524
소매	307	464	11,810
수리·개인서비스	164	233	6,627
숙박	11	24	571
시설관리·임대	69	56	1,889
예술·스포츠	73	119	2,666
음식	447	726	15,012
합계	1,556	2,102	49,300

업종별 소비 현황을 분석의 경우 2019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월 평균값으로 산출하였으며 두 캠퍼스를 중점으로 20대 소비 현황과 기간별(학기/방학) 20대 소비 현황을 분석하였다.

업종 분포도와 카드 매출 현황을 중첩하여 보았을 때 주요 소비 매출은 음식점과 유통영업이며 주로 편의점, 주점, 카페, 패션 · 뷰티, 오락 등 대학상권에 주로 입지한 업종으로 나타났다. 경기대학교는 정문과 후문에 인접한 단독주택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음식점과 소매업을 중심으로 카드 매출 현황이 높게 나타났으며 아주대학교는 수원시 내 캠퍼스 중 대학상권이 가장 잘



경기대학교 20대 카드 소비 현황(저자 작성)



아주대학교 20대 카드 소비 현황(저자 작성)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표 6〉 영통구 캠퍼스타운 기간별 20대 카드 소비 현황 (단위 : 원)

구분	경기대학교	아주대학교
겨울방학(1~2월)	269,476,997	903,314,966
1학기(3~6월)	409,471,909	1,204,358,175
여름방학(7~8월)	333,427,964	1,072,956,395
2학기(9~2월)	392,852,691	1,149,504,351
합계	1,405,229,561	4,330,133,8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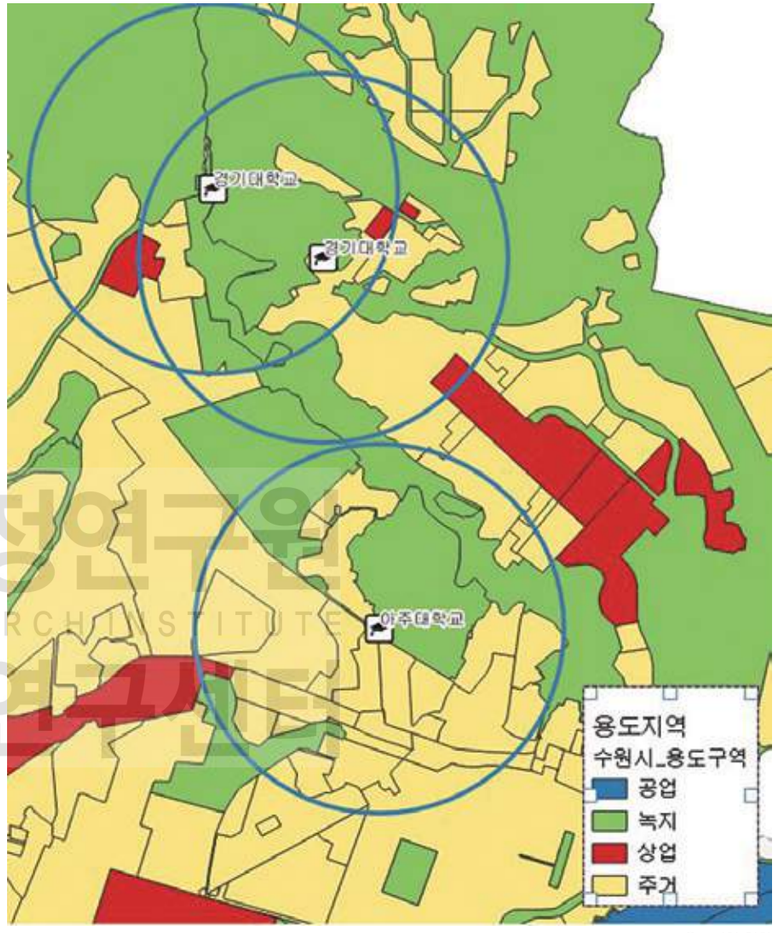
이루어져 있어 음식점 외 예술, 오락, 스포츠 등의 업종에서 높은 매출액을 보였다. 캠퍼스 주변 상권 외 캠퍼스 내에서도 카드 매출 비중이 높게 나타났는데 소비업종은 음식점 및 소매업 등으로 나타났다.

기간별 소비 현황은 학기와 방학기간으로 구분하여 비수기기간에 매출 현황을 파악하고자 분석을 진행하였다. 경기대학교와 아주대학교는 학기와 방학기간의 매출액 차이를 보였으나 아주대학교의 경우 매출액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이는 아주대학교 인근에 위치한 대학병원을 이용하는 주민과 외부 방문객으로부터 소비가 이뤄지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방학과 학기기간을 비교해 보았을 때, 학기 대비 방학 매출이 현저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학상권이 기간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3) 토지 및 건축 부문

마지막으로 대학의 개발 가능 규모를 파악하고자 용도지역과 건축물 등 물리적 현황을 살펴보았다. 용도지역은 주거, 상업, 공업, 녹지로 보았으며 건축물의 수는 주거용도와 상업용도, 업무용도와 기타로 살펴보았다. 용도지역은 녹지지역과 주거지역이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대학교는 녹지 비율이 67%를 보이며 실질적으로 건축물 면적의 비율이 33%로 나타났고, 아주대학교는 주거비율이 높은 반면 상업과 공업 비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대학교와 아주대학교는 공통적으로 주거용도의 건축물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도 단독주택의 수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상업시설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개수가 많이 나타났고 교육연구시설과 업무시설 외 기타시설 등이 일부 나타났다.

캠퍼스타운 반경 내 1~2종 일반주거지역의 점유율을 고려한다면 향후 캠퍼스타운의 물리적 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으나, 녹지지역으로 이루어진 캠퍼스 부지의 물리적 변화를 위해서는 용도지역 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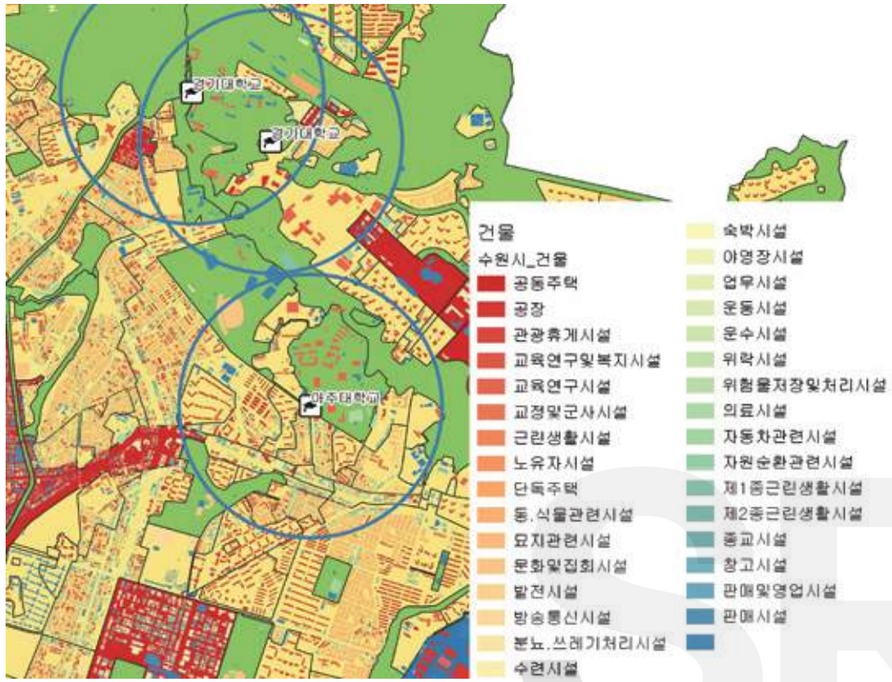


용도지역 현황

〈표 7〉 용도지역 면적

구분	경기대학교		아주대학교	
	면적(㎡)	비중(%)	면적(㎡)	비중(%)
주거	1,367,386.92	30	2,225,319.17	67
상업	119,581.24	3	13,936.81	0
공업	0.00	0	0.00	0
녹지	3,022,180.82	67	1,085,865.68	33
합계	4,509,149	100	3,325,122	100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건축물 현황(저자 작성)

〈표 8〉 용도별 건축물수 (단위 : 개)

구분		경기대학교	아주대학교
주거	공동주택	234	347
	단독주택	903	921
상업	1종근생시설	65	171
	2종근생시설	98	250
업무시설		27	13
교육연구시설		40	70
종교시설		11	8
숙박시설		10	15

3. 캠퍼스타운의 발전방향과 지역상생 활성화 방향

기존 캠퍼스타운은 대학부지의 경계를 중심으로 기존의 도시와 단절되어 독립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면 이 글에서 제안하는 캠퍼스타운은 개방적인 양상으로 추구하며 복합적 공간으로서 도시에 작용하는 형태를 제안하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대학은 물리적, 비물리적 차원에서 발전이 전제되어야 하며 새로운 접근 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먼저 물리적 차원의 발전 방향으로는 캠퍼스 경계 부근에 대한 확장이다. 캠퍼스 공간개방을 통해 지역과 공간적 협력을 가지고 캠퍼스 외부로 학생들의 커뮤니티를 확장 시키거나 기업 및 연구소 등을 캠퍼스 내외부로 입주하게끔 캠퍼스 공간을 공유하여 대학-지역-기업이 파트너십을 형성하도록 한다. 구체적으로 대학의 유휴부지 활용을 통해 일정 공간을 기업 유치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거나 대학과 기업이 상생발전 할 수 있는 기업협업공간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두 대학 모두 용도지역이 자연녹지로 지정되어 있어 용도변경을 통한 행정적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다. 도시계획 변경 등을 통해 캠퍼스 내 가용부지에 캠퍼스 부지 내 첨단기업 유치할 수 있는 각종 인허가가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이처럼 대학은 가용부지를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기업 유치를 위한 관련 행정의 간소화를 지원하며 기업은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한다.

또 다른 방향으로는 대학상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청년들의 주 활동 장소가 대학상권임을 염두했을 때, 대학상권과 캠퍼스 부지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여 바라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대학상권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아주대학교의 경우 대학상권이 잘 형성되어 있으나 특색 없는 상업공간화로 대학가 고유의 매력이 부족하다. 경기대학교 대학상권은 아주대학교보다 면적이나, 상권밀도가 높은 편은 아니지만, 대학생들의 이용률은 높은 편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대학상권의 고유 특성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대학가의 일부를 창업문화 특화가로로 조성하는 등 대학상권이 가진 고유의 특성을 반영하여 명소로 만드는 등의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세계적인 창업도시인 실리콘밸리 또한 스탠포드대학교과 주변 지역에서 성장하였고, 유럽 최고의 스타트업 요람인 핀란드 헬싱키의 경우 대학과 정부의 창업 지원으로 확대하였으며 베이징의 중관촌은 칭화대학교와 베이징대학교 등에 입지하여 창업도시로 성장하였다. 이처럼 창업도시들은 대부분 대학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대학상권 내 위치한 창업카페(저자 촬영)

이에 대학 인근에서 청년들이 창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창업 기초시설을 조성하거나, 창업 아이디어를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공간조성으로 대학상권 내 청년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상업화되고 프랜차이즈화된 대학상권에 대응하여 두 대학상권이 고유의 매력을 확립시켜나갈 수 있도록 창업특화가로를 제안하고자 한다.

창업공간을 조성하는 것 외에도 대학과 지역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청년, 상인, 주민이 함께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을 제안해 본다. 캠퍼스타운의 성공사례로 불리는 고려대학교의 경우 안암어울림센터를 조성하여 학생들을 위한 공간 마련뿐만 아니라 주민 및 상인들을 고려하여 편의시설을 제공하였다. 어울림센터 조성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주민소통방, 북카페, 공유창고 등으로 공간을 활용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다. 이처럼 경기대학교와 아주대학교 인근 저층주거지 지역의 공실이나, 학교소유 건물 등을 리모델링하여 커뮤니티 라운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계속해서 화두가 되고 있는 청년주거 및 청년들의 자립기반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캠퍼스타운 범위 내 거주시설 조성을 제안한다. 청년들의 경우 역세권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음을 알 수 있으나, 경기대학교와 아주대학교의 경우 역세권에서 일부 거리감이 있어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는 정주환경이 좋다고 할 순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주택 등 주거비 부담을 감소하면서 양질의 주거형태를 공급할 수 있는 청년임대주택을 제공하여 청년창업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해소하고, 지역 정착에 따른 토착기업화를 유도한다.

다음은 비물리적 차원에서의 발전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대학과 지역사회가 협력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경기대학교와 아주대학교는 평생교육원, 산학협력단, 창업보육센터 등 지역사회와 연계된 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비물리적 차원에서 협력 정도는 미비한 것으로 보인다. 물리적인 공간 제공을 통해 캠퍼스타운의 발전과 기반 마련 또한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대학과 지역사회의 협력계획도 필요하며 지역사회와의 관계 형성이 근본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지역과의 신뢰 형성은 어떻게 되어야 할까? 우선 지역과 연계한 현장밀착형 프로그램이 추진되어야 한다. 현장밀착형 프로그램은 지역이 가지고 있는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주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을 의미한다. 그 예로 대학 골목상권 활성화의 일환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영 전반에 대한 컨설팅 및 개선자금 지원하는 것이다. 학교 내 창업동아리와 매칭하여 컨설팅을 서포트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캠퍼스타운의 홍보와 참여를 독려하는 동시에 대학생들에게 대학상권과 지역문제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킨다.



대학상권 창업스튜디오(고려대학교 제공)

SRI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시정연구원
수원학연구센터

그다음으로는 대학상권 문화 콘텐츠를 발굴하는 것이다. 이는 말 그대로 대학 내 골목상권의 정체성 향상을 위해 고유 이벤트를 만드는 것이다. 대학-지역이 공동기획으로 지역축제를 진행하는 등 문화콘텐츠를 생산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문화활동 참여 및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과 주민 간의 소통 기회를 확대한다.

다음은 청년인재들의 지역 정착을 위한 비물리적 차원의 사업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첫 번째로 캠퍼스타운 사업시행을 통해 입주한 창업기업 중 금융권 대출이 어려워 기술기반의 확대가 어려운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여 창업자금 보증을 지원한다. 대학이 신용보증추천서를 발급하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보증을 지원하며 각 대학의 주거래 은행이 담보대출을 실행하는 등 지역기반 금융권과 대학이 협력하여 대출을 지원하는 것이다. 경기대학교와 아주대학교의 경우 학교 내에서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나 이외 별도로 민 · 관 · 학 간의 협업사업 또한 실행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창업기업들이 지역에 토착하기 위한 창업활성화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두 대학 모두 앞서 살펴보았듯이 교원창업기업에 대한 육성과 기술이전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지역 창업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한 프로그램은 고려되지 않았다. 이에 창업성장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외부기관 연계, 기술매칭 등 스케일업을 위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야 한다.

대학이 가지고 있는 기능적 함의는 여전히 지역발전에 있어 큰 역할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대학의 위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으며, 더욱더 치열해질 대학 간의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대학의 존립과 그 기반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임을 시사하고 있다.

대학이 앞으로 어떤 미래상을 가지고 변화해야 하는가? 영통구청 개원 20주년을 맞이하여 영통구에 오랫동안 자리하고 있는 두 대학교가 미래에 대비하고 지역 발전의 능동적 주체로 지역사회에 융합될 수 있도록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물리적 공간의 조성과 그에 따른 비물리적 프로그램 운영이 복합적으로 연계되어야 하고, 이를 위하여 대학뿐만 아니라 공공, 민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는 것 또한 중요한 요소로 작용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기대학교와 아주대학교 두 대학이 기존의 대학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역할과 더불어 지역과 공간적 · 비공간적 협력관계의 형성으로 대학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 발전에 적극 나서길 기대한다.



2019년 청년창업-취업 '끌어 안암' 축제(고려대학교 안암동 캠퍼스타운 아카이브)


2019년 고려대학교 대학-지역 연계축제 '끌어 안암'(고려대학교 안암동 캠퍼스타운 아카이브)

1) 박영한 외 2명, 「대학과 지역발전: 연구동향과 전망」, 대한지리학회, 2001, 42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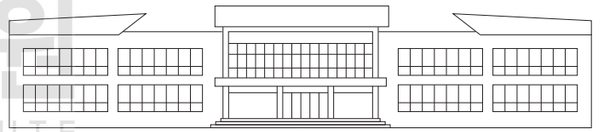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차 산업 혁명시대를 견인할 창의적 SW융합 인재 양성을 위해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을 공고·시행하여 현장수요 기반의 전문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더 나은 영통구를 향한 노력과 약속,

영통구청장 5인 5색

유현희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원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초대 영통구청장이 된 영통 사람,

김진흥



행정고시 합격으로 시작한 공직생활

김진흥은 1959년 화성군 태장면 영통리 183번지에서 태어났는데, 태장초등학교와 수원중학교를 졸업한 후 금오공업고등학교에 입학하였다. 금오공업고등학교는 동양 최고의 공고를 만들어 기술로 대한민국을 잘살게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전국의 인재들을 모아 설립되었다. 이곳에 입학해서 전국 인재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김진흥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서울시립대 대학원 행정학 박사과정을 졸업하였다. 김진흥은 그 와중에 신림동 고시원과 영통을 오가며 고시를 준비하였고,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첫발을 디뎠다. 1989년 제33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행정부처 공무원이 된 후 총무처, 경기도 총무과, 내무부 지방기획과, 행정자치부 법무담당관실, 자치제도과에서 서기관으로 재임하다가 수원시 영통구청장을 역임하였다. 이후 중앙부처로 복귀하여 국무조정실 일반행정심의관실 팀장, 행정자치부 분권지원팀장, 지방인사여성제도팀장,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실 선임행정관, 국토해양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지원국장을 지내다가 경기도청으로 전입하여 환경국장, 화성시 부시장, 안산시 부시장, 고양시 제1부시장, 성남시 부시장을 지냈다. 2017년 11월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되어 2018년 12월까지 재임하다가 공직 여정을 마쳤다.

영통구청 개청과 초대 구청장 부임

1990년대 초반 영통신도시가 개발되면서 그가 뛰어놀던 야트막한 산과 들판, 뒷동산이 없어지는 것을 지켜보아야 했다. 개발 현장에서 포크레인과 다양한 중장비가 무지막지하게 땅을 파헤쳐 빨간 생토를 드러낼 때는 속상해서 한동안 고향에 돌아올 엄두를 내지 못할 정도였다. 가족과 조상들의 삶의 흔적을 일거에 부정당한 느낌이었다. 게다가 그가 떠난 이듬해 영통지역은 행정구역 경계가 조정되어 화성에서 수원으로 편입되기도 했다.

고향을 떠나 일에만 집중해서 살다가 2003년 수원시에 영통구가 개청되면서 초대 구청장으로 임명되어 영통으로 돌아왔다. 신생 구청인 영통구청은 행정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하고 구 행정을 안정화하는 일이 시급하였다. 김진흥은 구청장으로 부임한 후 영통구가 직면한 현실을 파악하고, 이에 걸맞은 행정체계를 구축하고 미래 비전을 그리기 시작하였다. 새로운 출발에 걸맞게 젊고 역동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한 그는 세 가지 목표를 설정하고 하나하나 이를 실행에 옮겼다.

첫 번째는 신시가지 정비와 도시 미관 정비이다. 영통신도시에 들어선 술집과 여관의 불법 광고물을 정리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하였다. 이들 불법 광고물 철거 계획을 수립하고 약 3개월 동안 단계적으로 진행하여 해결하였다. 이를 위해 구청 직원들과의 협력이 중요했고, 구청 공무원들도 뜻을 모아 힘을 합쳐줬다. 광고물 철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와 계도가 이루어졌고, 김진흥도 직접 현장으로 나가서 집행을 지켜보고 주민들 의견을 청취하였다. 두 번째는 민원 대응력 개선이다. 새로 입주한 주민들의 다양한 민원을 즉각적이고 친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 신도시 민원 유형을 미리 파악하고, 민원실을 개선하여 주민들이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는 작업을 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현장민원 행정반이다. 세 번째는 문화 행사 활성화 작업이다. 젊은 영통에 어울리는 다양한 문화 활동과 행사를 조직하고 진행할 계획을 세웠다. 그래서 청명산을 배경 삼아 영통 느티나무 육교 위에 무대와 관람석을 설치하여 클래식도 하고 아이돌 공연을 하는 음악축제를 만들었다.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시원한 가로수와 숲이 있고 젊은이들의 문화가 있는 영통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곳에 영통신도시의 정체성을 만들어 가고 싶었다.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영통구청 개청식(2003년 11월 24일, 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제1회 영통 청명축제(2004년 10월 14일)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아직도 마음은 영통구청장

김진흥은 2003년 11월 24일부터 2005년 4월 4일까지 초대 영통구청장으로 임명되어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였다. 그는 구청장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면서 항상 더 살기 좋은 영통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였다. 그가 이러한 노력과 고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영통구의 역사와 변화 과정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영통지역은 1993년 12월 수원 영통택지개발사업 추진 결정에 따라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1995년에는 수원, 화성, 용인 일부 지역이 주민편의 및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경계 조정으로 수원에 편입되었다. 당시에는 화성에 속해 있어서 행정업무는 화성의 진안리에 있는 태안읍사무소를 이용해야 했고, 진학이나 상품 구매 등의 일상생활은 수원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였다. 경계가 조정된 이후 개청을 앞두고 구의 명칭을 정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존재했지만, 최종적으로 영통구로 결정되었다.



직원 월례조회(2005년)

그러나 가장 큰 상처는 신도시 개발과정에서 발생하였다. 동네에서 살던 사람들이 떠나고, 옛 모습이 사라지고 파헤쳐져 갔을 때, 정말 고통스러운 경험이었다. 그래서 김진흥은 돌아보고 싶지 않았던 고향이었지만 다시 그곳으로 돌아와 영통만의 새로운 전통을 만들고 싶었으며, 상처 입은 공동체를 회복하고 싶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약 여건도 존재하였다. 지역적으로 분절되어 있다는 것이 공동체 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이다. 즉 매탄동에 위치한 삼성전자는 영통구의 한가운데에 위치해 있어, 영통구 지역을 융합시키는 데 물리적으로 제약을 주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였다. 삼성전자를 관통하는 도로를 구상하기도 했고, 지역 정치인과 협력을 통해 삼성전자와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또한 이곳에 입주한 영통구 주민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음식을 나누고 일상을 공유하는 공동체를 만들고자 했다. 행정자치부 근무 시 주민자치센터를 기획하고 시행한 경험을 살려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이 중심이 되어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였다. 수원시나 영통구가 주체가 되는 행사는 오래 지속되기 어렵기 때문에 주민들이 스스로가 얼굴을 마주하고 부담스럽지 않은 공동체를 형성하고 유지한다면 신도시 영통에도 새로운 문화가 형성될 것이라고 믿었다.

영통구는 신도시 개발로 확장된 도시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신도시 개발로 탄생한 지역이었기에 섬세한 고려가 필요하였다. 김진흥은 아직 영통 개발로 고향이 사라진 상처가 다 아물지는 않았지만 조금씩 무뎌져 가고 있다. 그러한 아픔을 뒤로 하고, 신도시 영통이 잘 정비되고 발전하기를 기원하고 있다.

영통구의 미래를 준비한 구청장, 김영규



노력으로 꿈을 이루어낸 성장기

김영규는 고등학교 시절 학도호국단 연대장으로 활동할 정도로 적극적인 성격이었다. 하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할 즈음 집안 형편이 어려워져 학비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는 사관학교 시험을 지원하였다. 공군사관학교 출신인 사촌 매형의 권유로 공군사관학교 시험을 봤는데 신체검사에서 색약판정을 받아 떨어졌다.

마음을 다잡고 다시 공부를 하던 중, 무슨 용기가 생겼는지 당시 경기도지사인 손재식 지사에게 자신의 상황과 노력을 써서 편지를 보냈는데, 그때 공무원 시험을 권하는 답글이 왔다. 그래서 예비고사를 합격한 성적이면 공무원 시험을 합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끝에, 이천군을 지원하여 당당하게 합격하였다. 1977년 5월 10일 이천군 모가면에서 산업담당으로 첫 업무를 시작하였다. 그러다가 군대를 다녀오고 복직을 했는데, 고향인 송산면 총무계장이 자신이 퇴직하면서 고향을 지켜줄 후배로 김영규를 낙점했고, 이천군에 요청해 송산면으로 전출되었다.

송산면 공무원으로 전출된 지 5개월 만에, 더 큰 꿈을 가지고 있던 김영규는 다른 국가고시를 보거나 경기도청으로 가겠다는 생각을 했다. 정치적으로 불안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가시험이 전면 취소되거나 연기될 경우를 대비하여 안전판으로 수원시 공무원 시험도 병행해서 보았는데, 예상대로 수원시 시험은 무난히 합격하여 1980년 6월 수원시 공무원이 되었다.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끊임없는 도전과 노력으로 단단해진 공무원 생활

수원시에서 첫 발령지는 평동이었는데, 이곳에서도 산업담당 업무를 맡았다. 평동은 농촌 지역이었기 때문에 산업담당의 주된 업무가 농업과 관련된 일이었다. 1년 농사의 흐름을 알아야 처리할 수 있는 일들이었기에 아버지를 도와 농사일을 했던 경험과 이천군의 큰 들판에서도 산업담당을 했던 경험을 살려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다.
이러한 업무처리 능력을 인정받아 본청 산업과 농산계에서 총무과 인사담당에게 김영규를 보내 달라는 요청을 하였을 정도였다. 그런데 요청은 농산계에서 했는데, 능력을 눈여겨본 총무과의 요구에 따라 시정계로 발령이 났다. 수원에는 인맥이나 학맥도 없었던 김영규는 능력 하나로 빠른 시간 내 본청에 입성하게 된 것이다.
김영규는 본청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사들의 주목을 받았다. 맡은 일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밤을 새워서라도 해내고야 말았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쓰러져 자더라도 끝까지 열과 성을 다해 성공적으로 일을 완수하였다. 어떤 일이든 맡겨 놓으면 무조건 해낸다는 신뢰를 주었기 때문에 총무국에서는 다른 부서로 보내지 않고 계속 총무국에서 근무하게 하였다.
시정계에서는 주민동향 보고, 새마을 어린이집 운영, 반상회 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처리하였다. 반상회 관리는 그야말로 순발력과 정확도가 요구되는 업무였다. 반상회는 매달 15일에 열리는데, 회의 자료는 중앙정부부터 경기도를 거쳐 단계별로 과제가 내려오고, 시 과제를 기록한 후 인쇄해서 동사무소에 넘겼다. 회의에서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정리하여 내무부에 보고하는 절차로 마무리된다. 이 일을 하루 동안 처리해야 했는데, 일정이 빠듯하여 현장에서 수렴된 주민 의견을 모두 정리하여 그날 상부에 전달하기가 쉽지 않았다. 몇 차례의 경험을 통해 요령을 터득한 김영규는 주민들이 제기할 만한 건의사항을 미리 정리해 두고, 당일 각 동에서 실제로 청취된 내용을 종합하여 상부에 보고하였다.
한편 김영규는 8급에서 시작하여 5급에 이르기까지 9년 7개월을 비서실에서 근무하였다. 비서실 업무는 시장의 일정 관리와 필요한 정보를 사전 획득하여 수원시 최고 결정권자인 시장의 업무를 보좌하는 것이기에 힘들었지만 성실성과 절제의 미덕을 배웠던 시절이기도 했다. 시장의 일정 확인과 주변을 살피면서도 각종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결함을 보여 주었다. 그리고 업무 숙달을 위해 주요 정책 보고서를 찾아 외우고 핵심을 요약하는 방법을 배우기도 했다. 특히 유석보 시장은 수원시 발전을 위해 미래 도시 기반 시설을 확보하는 데 큰 역할을 했는데, 수원이 인구가 50만 명이던 시절에 150만 인구를 수용할 대도시를 구상하는 큰 비전을 그렸다. 이것은 이후 김영규의 공무원 생활에서도 중요한 자산으로 남아 있다. 그리고 관선에서 민선시장 체제로 전환도 경험하였으며, 시장이 바뀔 때마다 대응하는 팀을 만들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구축하였다.
2003년 영통구 개청 당시에는 개청 준비단에 참여하여 사회산업과 과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다시 본청으로 복귀하여 청소년 문화센터 건립, 평생학습관 건립, 수원외국어고등학교 문제 등 굵직한 업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였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려고 노력하였으며, 최대한 적극 행정을 추진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 김영규는 1998년 비서실장, 2002년 기획예산과장, 2004년 체육청소년과장, 2007년 주민생활지원국장, 2008년 문화체육국장, 2010년 영통구청장, 2013년에는 수원시 행정조직 역사상 처음 설치된 3급 직제인 기획조정실장에 부임하는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반상회 의견청취상황실(1982년, 수원박물관 제공)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2011년 영통구 정례브리핑(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영통발전연대 창립총회(2011년, 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영통구 발전 전략과 비전을 수립한 구청장

2010년 영통구청장에 부임한 김영규는 30년 공직생활의 경험을 살려 영통 발전에 기여하였다. 그는 영통구의 발전을 위한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고, 시민 참여를 촉진하며 지역사회 단체와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요구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앞장섰다. 그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소통 중심의 현장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영통8888 민원 콜센터'를 운영하였다. 이 콜센터는 365일 24시간 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현장 중심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주력하였다. 이를 위해 구청에서는 직접 직제를 만들 수 없으니, 각 계에서 인력을 차출하여 신속대응팀을 만들어 구성하였으며, 보도블록 교체, 가로등 · 보안등 교체 등의 민원이 발생하면 해당 물건을 매번 구입해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연간 필요량을 사전에 계산하여 준비함으로써 민원 처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였다.



영통8888민원콜센터 개설(2011년, 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는 관내 뜻있는 인사들과 영통구청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희망을 전달하는 심부름꾼을 자처하는 ‘영통발전연대’를 출범시켰다. 이 단체는 지역 주민도 행정과 합력하여 지역사랑과 봉사를 실천하여,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에게 장학금 1,400만 원과 교복 800만 원 상당을 전달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또한 ‘Happy Bag 사업’과 ‘꿈나무 휴먼스터디’, 현충일 보훈단체 가정 방문, ‘365웰빙 콜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구를 찾아내 지원하였고 신속한 복지전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관내 체육인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수원시 내 구(區) 대항 체육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기도 하였다. 지역구 정치인들의 대회 방문을 유도하여 구민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정치인들도 지역에 관심을 가지게 하고, 지역민들도 영통구에 대한 소속감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었다. 그리고 선거가 있을 때마다 투표를 독려하는 등 주민들이 권리와 의무를 스스로 인식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김영규는 공직생활 경험을 적극 활용하여 훌륭한 행정 업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노력을 통해 영통구와 수원시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영통구의 미래를 준비하고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의 리더십은 지역사회와 시민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36년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수원시청소년육성재단(현 수원시청소년재단) 이사장을 역임하면서 행정역량을 수원시에 아낌없이 쏟아 부었다. 현재는 고향인 화성시 송산면에 소재한 모교 송산중학교 학원 이사장직을 맡아 미래와 인재 육성에 열정을 다하고 있다.

영통구의 단합을 이끌어낸 구청장,

박래헌



발로 뛰는 공무원

박래헌은 1979년 수원고등학교 졸업 직후, 부친이 돌아가시면서 가장이 되자 고민 끝에 공무원 시험을 쳤다. 고등학교 시절에 대학 진학 공부를 하였기에 어렵지 않게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였다. 합격 후 경기도인재개발교육원에서 8주간 신규 교육을 받고 지만동에 발령을 받아 세무담당 공무원으로 공직을 시작하였는데, 주민세, 지방세, 취득세, 등록세 등 세금을 고지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당시에는 손으로 일일이 성명과 금액을 기재하여 세금고지서를 작성하였고 주소지에 직접 방문하여 세금을 부과하였다. 지만동은 지번이 쪼개져 있었고 지번 내에 거주자도 상당히 많아 고지서를 제대로 전달하기 매우 어려운 지역이었다. 고지서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면, 주민들이 세금을 제때에 납부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 배포해야 했다. 박래헌은 고심 끝에 동 지도에 지번을 그려서 빠짐없이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했다. 동사무소의 말단 행정에서 통장님들의 역할은 매우 크다. 통장들은 세무담당의 업무를 분담해서 고지서를 분배하고 세금을 수금하는 등의 일을 도와줬다. 그리고 나면 세무담당은 세금을 연체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주민들에 대한 계고장 발송이나 연체세금 징수에 들어갔다. 현장에서 발로 뛰는 공무원 이력의 시작이었다.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980년대 지만동사무소와 동 공무원(수원박물관 제공)

차곡차곡 쌓은 공직 경험

박래헌은 지만동에서 약 1년 반 정도 근무한 후, 1982년 9월 군대에 입대해 30개월 군 복무를 마친 뒤 업무에 복귀하였다. 당시에는 공무원을 하다가 군대를 가는 일이 많았다. 군 입대는 박래헌의 인생 설계를 확실하게 정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군대에 있을 때 책을 읽고 교육을 받으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삶의 목표를 구체화한 박래헌은 가정, 사회, 교양, 신앙, 승진 등 5가지 측면에서 인생 설계를 했다. 지금 돌아보면 이때 계획했던 대로 목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름 성공적인 인생 설계였다고 판단한다. 군 제대 후 박래헌은 곡선동 산업담당으로 근무하였는데, 이때에도 통반장들의 업무 지원이 절대적이었고, 동사무소 전 직원이 서로 도와가며 일을 했다.

곡선동에서 3년 동안 근무를 마친 후 진급해서 장안구청으로 발령이 났다. 구청에서는 세무과 평가계, 총무과 총무계, 공보계를 거쳤다. 3년 정도에 한 번씩 직무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새로운 업무를 수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장안구에서 2년 정도 근무한 후, 주택 200만 호 건설사업의 일환으로 수원에서도 공영개발사업을 시작해서 주로 택지개발 업무를 하게 됐다. 수원시에서 직접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13만 평을 개발하는 일이었다. 그때 한국토지공사에 가서 공공용지 취득 선수 보상하는 법, 관련 법 등을 배워서 업무를 수행하였다. 여기서 3년 정도 근무하다가 수원시청 새마을과의 체육 업무를 담당하였다. 체육시설, 선수, 육성종목, 체육대회 등 전반적인 체육업무를 수행하였다. 1986년 아시안게임 때 수원에서 핸드볼 경기를 치렀는데 좋은 성적을 거두자, 유석보 시장이 체육관에 만찬을 마련해서 격려해 줬던 일이 기억에 남는다.

이후 1994년에 이의동 사무장으로 발령이 났다. 그즈음 이의동은 수해도 있었고, 폐기물 적환장과 연화장 유치 예정지였기 때문에 사람들의 반대와 데모가 많았다. 수해로 인한 문제는 아버지의 벽돌공장 경험을 살려 안전둑을 잘 쌓아 응급복구에 성공했고, 동사무소 시절의 경험을 살려 적환장과 연화장 건립도 주민들의 민원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수인선 지하화로 공원이 조성된 옛 수인선 철길(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2018년 영통청명단오제(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SRI
수원학연구센터

을 잘 해결하여 무사히 건립할 수 있었다. 이뿐만 아니라 교육청 소년과장, 교통행정과장, 푸른녹지사업소장, 박물관사업소장, 문화체육교육국장 등 주요 부서와 요직을 두루 거치면서 풍부한 경험을 쌓았다. 그리고 수원시의 수인선 지하화 문제를 철도공단과 원활하게 풀어 가는 데도 기여하였다.

전통 문화를 살려 영통구의 단합을 이끌어내다

박래헌은 2018년 영통구 제12대 구청장에 취임을 했다. 공무원 이력 37년 만이다. 그는 동에서부터 차근차근 밟아 온 행정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영통구의 미래상을 그려냈다. 영통구는 수원시의 4개 구 중 가장 늦게 탄생한 신생구로, 지역주민들의 공감대를 확대하고 지역정체성을 만들어 가는 계기가 필요하였다.

그래서 37년 오랜 공직생활 경험을 영통구민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 아낌없이 쏟아 부었다. 이를 위해 지역 주민들을 통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전통적인 마을 축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의동 동장으로 있을 때 길마재줄다리기도 복원하고, 영통1동 동장으로 재직 당시 청명산단오제에 관심을 가져 복원에 기여했으며, 영통구청장으로 있으면서 영통청명산단오제의 중요성을 깨닫고 활성화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다.

이 축제는 2005년부터 영통구의 대표적인 축제로 개최되어 왔으며, 주민들의 마음을 열고 참여하는 지역공동체의 만남의 장이 되어 왔기 때문이다. 청명산은 수원과 용인을 가르는 경계이기도 하지만 마을의 오랜 역사와 문화를 품은 산이며, 영통신도시 개발에도 자리를 지켜낸 상징과도 같았다. 영통청명단오제는 영통 토박이가 공유해 전통성을 계승하고, 새로 입주한 주민들에게 화합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어릴 때부터 봐왔던 마을 공동체의 경험 때문이다. 그의 할아버지는 면장을, 아버지는 이장을 하였고, 어머니는 마을 대소사에 앞장선 마을 행동대장이었다.



영통 청년씨앗 추진단 발대식(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영통환경아카데미(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그의 시골집 사랑방은 항상 사람들이 북적거렸다. 지만동, 곡선동, 이의동 등에서 근무하면서 각 동의 특징을 잘 파악하고 마을 주민들과 잘 어울렸던 것도 이러한 경험이 바탕이 된 것이다.

박래헌은 영통구정을 행하면서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행정의 힘'과 그리고 '역사와 문화의 힘'을 강조했고, 성숙한 시민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필수조건으로 '참여정신'을 꼽았다. 이는 예전 마을 공동체에서 마을 리더들을 선출하고 모두가 참여하며 교류하고 화합하던 대동회 정신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그는 대동회의 정신을 영통구에서 구현하여, 만들어진 지 15년이 넘어가는 영통구의 핵심가치로 만드는 데 노력을 기울였다. 그는 젊고 건강한 신생 영통구가 한 단계 성장하는 과정에서 단단하게 결집하도록 접착제를 역할을 수행하였다.

박래헌은 후배들을 위해 길을 터주기 위해 정년보다 일찍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결정을 했는데, 이것 또한 그가 몸담아 왔던 공직사회가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결정이었다. 먼저 지역을 생각하고 공동체의 결속과 안녕을 우선으로 고려한 성격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8년 공직생활은 마무리했지만, 여전히 수원시와 영통구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는지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다.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정책 선도 모델을 꿈꾼 구청장,

송영완





수원시 공무원 자체전산교육(1994년, 수원박물관 제공)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행정 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송영완은 군 복무를 마치고 대학졸업 후의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던 중 포천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형의 권유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게 되었다. 제대하고 복학하기 전 6개월을 서울에 있는 고시학원에서 헌법 및 행정학과 같은 시험과목을 공부했고, 복학한 후에는 3~4학년을 공무원 시험 준비에 전념하였다. 그리고는 경기도 공무원 7급 시험을 치렀다. 지역별로 신청할 때 1지망은 수원, 2지망은 의정부, 3지망은 포천을 선택했는데, 경기도 내에서는 큰 도시들이라 신청을 한 것이다.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 수원으로 발령받은 사람은 송영완을 포함하여 3명이었다. 그때 나름 우수한 성적으로 7급 공무원에 합격해 수원시 공무원으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1988년 처음 발령받은 곳이 원천동이었고 새마을담당 계장을 맡았다. 그 당시, 전국 동사무소를 대상으로 주민자치 시범 동을 운영했는데, 원천동이 전국에서 최우수 동으로 선정되었다. 송영완은 계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시책을 만들고 제도 개선을 해서 우수 평가를 받았으며, 최우수 동으로 선정되어 상금 500만 원을 받기도 했다. 그때는 전산화 초기 단계로, 이제 막 컴퓨터가 보급되었기 때문에, 행정 자료를 대부분 수기로 기록하고 관리하였다. 통계학과를 졸업한 송영완은 전공 지식을 살려 전산시스템을 도입하고 행정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엑셀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혁신을 주도하였다.

이후 1992년에는 권선구청 세무과로, 1993년에는 본청 총무과 총무팀으로 발령을 받았다. 그때는 동에서 구로, 구에서 시로 발령 나는 것이 어려운 시기였기에 경쟁도 치열하였다. 이때는 선배 공무원들이 눈여겨보고 추천해 주는 경우가 그나마 수월하게 발령 받을 수 있는 기회였다. 수원에 아는 사람도 없던 송영완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뛰어난 업무능력과 성실성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새로운 정책 개척의 주인공

1996년 송영완은 승진해서 이의동 사무장이 되었다. 이의동은 농촌지역이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처리해야 할 일이 많았고, 다양한 민원 사안이 발생하였다. 이 시기에 이의동은 쓰레기적환장 건립, 이의동 마을길 개발가능한 녹지도로 인정, 태풍 링링으로 발생한 수재민 지원, 원천천-광교천 정비사업(IMF 당시 취로사업) 등이 주



중국 지난시와의 자매결연(2003년, 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경기남부수퍼마켓협동조합 공동도매물류센터 개장식(2006년, 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SRI 수원학연구센터 SUWON RESEARCH INSTITUTE

요 현안이었다. 이때 주민 여론을 잘 수렴하여 조율하며 수행하였는데, 이의동 통장님들과 마을 주민들의 도움도 많이 받았다.

그 후 1998년에 수원시 자치기획국 국제과 국제통상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국제교류 업무는 1993년 중국 제남시와 자매결연을 맺을 때에도 담당했었는데, 이것이 인연이 되어 1998년에 국제통상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다. 1990년대부터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단체 간의 국제교류를 적극 권장하였는데, 이는 도시 간 교류를 통해 국가들의 우호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기초자치단체들은 지방도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하면서 국제교류 업무가 확대되었는데, 주로 문화교류와 경제협력을 통해 두 도시 간 관계를 강화하였다. 수원시는 중국의 지난시, 일본의 아사히카와시, 인도네시아 반둥, 캄보디아 시엠립 등 다양한 도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하였다. 또한 2002년 한일월드컵 때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경기를 홍보하는 역할을 했다. 월드컵은 국가행사였으나, 수원시는 개최 도시 중 하나였기에 홍보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2004년 12월까지 국제통상과 국제교류 업무를 담당한 후 송영완은 1년간 중견리자과정 교육을 마치고 복귀하여 국제통상국 지역경제과 소비자보호담당 팀장을 맡았다. 이때 시장 개방으로 까르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들이 국내 시장에 진출하면서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소상공인들은 지역의 조그만 슈퍼마켓을 운영하는데, 이들이 직접 물류를 처리하기 위해 중소유통도매물류센터를 만들기로 했다. 이미 몇 군데서 중소유통도매물류센터를 설립한 곳이 있었고, 수원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때 중소유통도매물류센터를 만들기 위해 협동조합을 구성하고 부지를 확보한 소상공인들과 건축 예산을 시에서 지원하는 등 협력을 이뤄냈다. 이 과정에서 건물 소유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지만, 이를 성공적으로 해결해냈다. 이 경험을 통해 수원은 국내에서도 모범적이고 선진적인 정책을 제시하는 선도적인 지방자치단체 중 하나이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큰 영향을 주고, 수원

의 정책은 지자체 간에 확산되는 촉매 역할을 한다는 자부심을 느꼈다. 그래서 송영완은 수원시가 우수한 정책을 추진해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선진 정책 추진에 더욱 노력하는 계기가 되었다.

송영완은 2010년 영화동장으로 승진하였고, 2011년 수원박물관장, 2012년 서울사무소장, 2013년 미래비전과장, 2014년 정책기획과장을 역임하였다. 그리고 2018년에는 문화체육교육국장을 맡았으며, 2019년 영통구청장으로 발령되었다. 장기간에 걸친 공직생활 동안 시립예술단 제도 개선, 국제연극제 추진, 영화동 당제 부활, 인문학 중심도시 구축, 국도비 적극 확보, 지방분권 추진, 광복70주년 행사 추진, 평창올림픽 지원 등 굵직한 현안을 해결해 나갔다. 2021년 공직생활을 마치고, 그해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이사장을 역임하였으며, 2023년 5월 퇴임하였다.

두려움 없는 도전으로 선진 정책을 만들어내다

2019년 영통구청장으로 부임하였다. 그간 수원시 정책의 선진성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기에, 영통구에 와서도 우수한 정책을 만들기 위한 노력하였다. 송영완 구청장은 소통 협업체계를 강조하기 위해 경계 없는 FOCUS 행정을 추진하고, 다양한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씨앗추진단을 운영하였다.

당시 영통구의 주요 현안 사항으로는 광교권 수원외곽순환도로 방음터널 설치, 수원고등법원 · 검찰청 · 수원시컨벤션센터 주변 교통문제 해결, 매탄 · 영통권 공영주차장 조성, 망포역 주변 공공부지 복합센터 건립 등이 있었다. 이러한 오래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했으며, 특히 광교지역과 법조타운 및 컨벤션센터 주변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 주차 단속을 위한 전담반을 조직하였다. 또한 구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통을 유도를 위해 광교1동 원탁토론회, 매탄1동 환경파수꾼 및 원천동 부엉이 봉사단과 같은 다양한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SNS와 지역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구정의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참여예산제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정책 반영에 노력하였다.



2019년 영통구 · 삼성전자 환경용수 공급 업무협약(영통구청 제공)



2020년 주민과의 만남

SW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그리고 영통구는 삼성전자(주) Global EHS센터(환경안전 총괄)와의 협약을 통해 환경(살수)용수 공급을 받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협약에 따라 삼성전자는 현재 400㎥/일 규모인 사업장 내 중수도 시설을 1,680㎥/일 규모로 증설하고, 영통구는 이 중수도 시설과 연결되는 시유지 공사 구간의 공급배관 공사를 진행하였다. 중수도는 사용된 수돗물을 재활용하여 환경에 친화적으로 처리하는 시설로, 이를 통해 환경용수를 무상으로 제공받게 되었다.

또한 이 환경용수는 미세먼지를 제거하거나 도로 온도를 낮추는 등 환경 개선을 위해 사용되며, 이전에는 하천수, 빗물, 하수처리장 방류수 등을 환경용수로 사용했으나, 삼성전자의 중수도 공급으로 충분한 환경용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미세먼지, 황사, 폭염, 가뭄 등이 발생할 때 삼성전자가 제공하는 환경용수를 활용하여 도로의 먼지를 줄이고 도로 온도를 낮추고, 조경용수로도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중수도 사용은 환경 보호에 큰 도움을 주며, 1년에 중수도 1만㎥를 사용하면 연간 온실가스 3,000㎏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이는 20년생 소나무 1,087그루를 심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을 정도이다.

실제로 삼성전자 내부에는 사용한 물을 처리하는 중수도 설비가 있으며, 이 설비를 통해 하루 1,680㎥/일 규모의 물을 원천천에 방류하고 있었다. 이 물은 환경용수나 조경용수로 활용하기에는 적합하였으나, 매일 방류되어 하천에 흘려보내는 것이 낭비라고 생각하여 적절한 활용 방법을 모색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예산절감뿐 아니라 혁신적인 사업으로 인정을 받아 영통구가 경기도 환경 분야에서 대상을 받기도 했다. 이를 위해 저녁에 서울로 가서 환경에 대한 공부도 하고 노력을 많이 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수원은 1년에 61만 3,200㎥의 물을 얻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송영완 구청장은 항상 자부심을 가지고 수원시 정책이 타 지자체에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믿었고, 이를 수행하는 것이 자신의 책무라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항상 우수 정책 발굴을 위해 노력하였고, 이 노력이 삼성전자 중수도 사용 방안 발굴로 이어졌다. 이는 영통구 공직자의 관심과 적극 참여, 그리고 구민들의 지속적인 응원과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하였다. 따라서 앞으로도 영통구가 우수한 정책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

소통·공감·열정으로 영통의 가치를 구현한 구청장.

김용덕



아버지를 롤 모델로 성장한 소년의 인생 선택

김용덕은 고등학교 시절, 아버지가 면사무소에서 근무하시는 것을 지켜보면서 공무원이 되겠다는 꿈을 키우게 되었다. 아버지는 성실하고 가정에 충실하며 자상한 분이었다. 그래서 김용덕은 어른이 되면 아버지 같은 성품을 갖춘 사람이 되어야 겠다고 생각을 했다. 이러한 경험은 공무원을 친근하게 생각하게 된 요인이 되었고, 공무원이 되는 길을 선택하게 되었다. 1987년 22살에 화성군 공무원 시험을 응시하고 한 번에 합격하여 화성군 남양면 산업계에 발령을 받았다.

남양면 산업계에서 근무하던 김용덕은 1988년 새로운 선택을 하게 되었다. 서울올림픽이 개최된 그해, 수원에서는 인구 50만이 넘어 장안구, 권선구가 만들어졌고, 공무원 인력이 부족해 주변 지역에서 인재들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김용덕도 과감하게 수원시로 전출을 신청하였다.

수원시에서 첫 근무지는 매교동으로, 새마을 업무를 수행하였다. 권선구청에서 4~5년간 근무하면서 세무과와 총무과를 거치는 등 다양한 업무를 경험하고 수행하였다. 그리고 기획담당관실과 자치기획국, 자치행정과 등에서 경력을 쌓으면서 시 행정의 중요한 사항을 체득해 나갔다. 그 후 2000년에는 팀장으로 승진하여, 장안구의 세무과, 주민자치과, 총무과 등을 거쳤다. 2004년 본청으로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영통3동 기공식(2021년, 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복귀하여 교통행정과에서 교통행정과 택시화물 업무, 이후에는 체육청소년과를 담당하여 약 4년간 근무하면서 능력을 인정받았다. 그 후에는 총무과에서 총무팀장을 맡았고, 사회복지과에서도 경험을 쌓았다.

공무원 생활 25년 만인 2012년에 사무관으로 승진하여 입북동과 송죽동장을 역임하였다. 송죽동에 부임했을 때에는 안전행정부 주관의 주민자치회 시범동과 안심마을 시범사업 대상 동으로 송죽동이 선정되었다. 그 후에는 수원박물관장, 교육청소년과장, 자치행정과장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2019년에 안전교통국장으로 승진하고, 2021년에는 영통구청장, 2022년에는 기획조정실장을 맡았으며, 승진 후 2023년에는 다시 영통구청장으로 임명되어 지금까지 영통구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

교육청소년과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원시 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특히 유네스코 평생학습도시 지정과 유네스코 평생학습도시상을 수상한 성과는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다. 가장 힘들었던 시절은 안전교통국장을 맡았을 때였다. 2019년 구운동 삼환아파트 배기덕트가 탈착된 사건이 있었는데, 즉시 현장에 상황실을 설치하고 주민들의 협조로 인명사고 없이 붕괴시설을 철거할 수 있었다. 또한 2020년부터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은 코로나-19의 확산은 안전교통국장으로서 안전을 책임지고 있었기에 더 힘든 시기였다. 코로나-19는 유례없는 질병이었기에 막연한 두려움과 싸워야 했고 주민을 안심시키기 위해 직원들과 밤을 새우며 고생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중책을 맡아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위기를 돌파하는 힘을 갖게 되었다.

영통구청장으로 두 번 부임한 인연

김용덕은 2021년에 이어 2023년에 다시 영통구청장으로 부임하였다. 첫 번째로 영통구에 부임했을 때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새로운 업무 방식을 도입하고 적응해야 하는 과제가 있었다. 또한 영통구는 광교신도시가 들어서고 수원고등법원과 고등검찰청,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 수원시컨벤션센터 등 다양한 공공기관이 위치한 복합 행정도시로서, 새로운 행정수요가 폭증하는 지역이다. 그러나 영통구는 2021년 현재 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수가 947명에 달했으며, 영통3동과 망포1동 행정복지센터도 임시청사로 운영되고 있어 공무원 업무 부담이 크고, 현장의 적절한 민원에 대응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주민과의 소통창구도 단절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통행정'과 '공감행정'을 구정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수원시 최초로 구청 통합민원실을 운영하여 코로나-19 대비 안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원 절차를 최소화하였다. 통합민원실은 민원인의 입장에서 한 번에 민원처리가 가능하고,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사무실과 민원실을 분리하여 업무 집중도를 높일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노력으로 영통구 통합민원실 사례는 본청과 나머지 3개 구청까지 확대하여 운영하는 모범 사례가 되었다.

또한, 영통 현안해결단을 발족시켜 각종 현안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시·구 관련 부서 및 외부 전문가가 모여 부서 간 소통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관계자들이 사안을 적극 협의하는 방식을 도입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SRI 수원학연구센터



영통 현안해결단 발대식(2021년, 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하였다. 영통사거리 차선 확장 및 신호체계 개선, 택시승강장 설치, 망포역 공공공지 개선 등 다양한 현안을 해결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신축 행정복지센터 추진 외에도 영통구 도시기반시설 정비를 비롯한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 망포체육문화센터와 영흥공원 수목원 등 각종 기반시설을 확충 등 영통구를 젊음과 문화가 함께하는 활기찬 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다.

영통구청에 부임하던 첫날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 있다. 업무를 시작한 첫날은 수원시 전역에 폭설이 내려서 비상상황이었다. 추운 날씨 때문에 눈이 얼어 제설이 쉽지 않았다. 이에 제설차량을 이용해 눈을 긁어내고 염화칼슘을 뿌렸으며, 골목골목마다 공무원들과 주민들이 눈삽을 들고 나와 수작업으로 일일이 치워야 했다.

영통구청장으로 다시 부임했을 때는 구민들의 높은 기대와 책임감에 부담도 느꼈다. 더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러한 부담은 느낄 새도 없이 현장에는 다양한 현안들이 산적해



추석 전통시장 장보기 및 물가안정 캠페인(2023년, 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태풍대비 대형공사장 특별점검(2023년, 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있음을 실감하였다. 첫 번째로는 영통구 복합청사 건립문제였다. 2003년에 가건물로 지어진 현 영통구청사는 노후화가 심할 뿐 아니라, 주민들의 다양한 행정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매탄동 지역에서도 주민을 위한 문화 · 복지공간 부족 문제가 심각해 복합청사 신축을 요구하는 민원이 많이 들어왔다. 게다가 광교신도시 건립과 인구 증가로 동 행정 업무 증가하면서 임시청사로 사용하고 있던 동 청사의 신축이 현안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래서 신축공사가 진행 중인 영통3동과 망포1동에 이어, 매탄4 · 5단지 재건축에 따라 매탄1동 행정복지센터도 신축공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는 영통구민들을 위한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마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로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도시공원과 도로시설 재정비도 역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이러한 산적한 문제를 순차적으로 차분하게 처리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 대유행을 겪으면서 사회안전망 점검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꼈다. 특히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직접 발굴하여 복지안전망으로 포용하는 작업이 필요하였다. 그래서 지역사정에 밝은 주민들과 협력하여 지역사회복지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에 밝은 통장, 공인중개사, 소매점, 사회복지시설 종사들을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하여 '인적 복지안정망'을 구축하고 지역 복지체계 강화하는데 노력하였다. 동시에 민 · 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동수원새마을금고와 '영통구형 통합돌봄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행정을 활발히 펼쳤다. 그리고 코로나-19로 해체된 기관, 단체, 개인 네트워크를 복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손바닥 정원 조성이다. 이 프로젝트는 지역 주민과 협력하여 지역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만들자는 취지에서 출발했으며,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쓰레기 투기장소나 자투리땅에 정원을 조성한 것이다. 비록 공원의 크기는 작지만 효과는 대단하였다. 쓰레기들이 무단투기되었던 장소가 아름답게 바뀐 것을 보며, 뿌듯한 생각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구 대항전 영통구 종합우승(2023년, 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더 나은 영통구를 향한 노력과 약속

영통구는 다른 수원시 구청과 차별화된 특징과 독특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이 지역은 구민의 평균 연령이 38.5세로 전국에서 손꼽히는 젊은 도시이며, 명품 신도시 광교를 비롯하여, 수원고등법원과 고등검찰청, 경기도청이 있는 복합행정도시이자, 수원컨벤션센터가 있는 글로벌도시라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젊음과 문화, Smart 영통'이라는 구정목표에 맞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 목표는 크게 4가지 분야로 구체화되었다. 첫째는 '활기가득(Young)! 막힘없는(通)! 모두가 잘사는 도시 조성', 둘째는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 자연과 숨쉬는 녹색도시 완성', 셋째는 '풍요로운 문화복지와 따뜻한 돌봄복지 구현', 마지막으로 '구정 역량강화 및 소통과 공감의 구민 만족행정' 실현이다. 이에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구민들과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만족도 높은 행정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구청장 임기 중에 4개 구 중 최초로 통합민원실 조성 운영과 영통현안해결단, 공원 리모델링, 영통3동 청사 건립 및 망포1동 착공

등 다양한 성과를 냈지만, 여전히 지방자치의 한계를 느끼고 있다. 행정수요가 더욱 복잡해지면서 직원 부족과 예산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점이다. 특히 영통구는 공무원 1인 대비 주민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많아서 주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는 지방세수와 국가지원 예산액이 적다보니 구민이 필요로 하는 문화, 생활편의 인프라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김용덕 구청장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원칙을 가지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노력하고 있다. 주민들과의 소통을 위해 각 동 행사에 열심히 참여하고, 현장에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현안 지역 로드체킹과 현장점검을 매주 2회 이상 추진하며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영통구 모든 직원들과 함께 노력하고 있다. 김용덕 구청장은 이 모든 난관을 극복하여 이뤄낸 성과들은 영통구 공직자 모두의 노력의 결과라며 그들에게 공을 돌렸다.

영통구는 평균 연령이 낮은 젊은 도시이고, 수원시 전체 세수의 43.8%를 책임지며 수원의 발전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교통의 중심 역할을 하며 경부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가 지나고, 신분당선, 동탄인덕원선 개통 예정 등 다양한 교통의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삼성전자와 SDI 등 첨단기업과 수원컨벤션센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광교테크노벨리 등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도시이다. 앞으로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혁신과 발전을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김용덕 구청장은 두 번째 임기를 역임하면서도 나태해지지 않고, 지역 현안을 극복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하였다. 그리고 이 모든 공이 영통구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에서 비롯되었다고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영통구 발전을 위해 36년간 축적된 공직 경험에서 얻은 노하우를 아낌없이 쏟아 부을 것을 다짐하였다.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PART 3.

Data & Map

활용데이터

구분	항목	공간범위	시간범위	데이터
1. 인구 현황	인구수	행정동	2022년	수원기본통계
2. 인구 구조	성별 인구	행정동	2022년	수원기본통계
	연령별 인구	행정동	2022년	수원기본통계
	출생아수	행정동	2022년	행정안전부-주민등록인구 지역별 출생등록
	유소년·생산가능인구·고령인구	행정동	2022년	수원기본통계
	외국인 인구	행정동	2022년	법무부 등록외국인 현황
3. 인구 변화	연도별 인구	영통구	2003~2022년	수원기본통계
		영통구 외	2003~2022년	
		행정동	2003~2022년	수원기본통계
	전입인구	영통구·영통구 외	2016~2022년	수원기본통계
	전출인구	영통구·영통구 외	2016~2022년	수원기본통계
4. 가구 형태	가구수	행정동	2022년	행정안전부-지역별 세대원수별 세대수
	1인 가구	행정동	2022년	
	2~3인 가구	행정동	2022년	
	4인 가구	행정동	2022년	
	5인 이상 가구	행정동	2022년	
	다문화가구수	행정동	2017~2021년	KOSIS-읍면동별 다문화가구 현황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행정동	2021년	
	다문화가정 자녀	행정동	2021년	
5. 기상 기후	연평균기온	수원기점	2018~2022년	기상자료개방포탈-종관기상관측
	계절 평균기온	수원기점	2022년	
	최고기온	수원기점	2022년	
	최저기온	수원기점	2022년	
	강수량	수원기점	2018~2022년	
6. 교육 시설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수	법정동	2023년	경기도데이터드림-유치원 및 어린이집 현황
	아동 인구수	법정동	2023년	국토지리정보원-아동 인구수
	초등학교 시설수	법정동	2023년	경기도데이터드림-초등학교 현황
	초등학교 학생수	법정동	2023년	국토지리정보원-초등학생 인구수
	중학교 시설수	법정동	2023년	경기도데이터드림-중학교 현황
	중학교 학생수	법정동	2023년	국토지리정보원-중학생 인구수
	고등학교 시설수	법정동	2023년	경기도데이터드림-고등학교 현황
	고등학교 학생수	법정동	2023년	국토지리정보원-고등학생 인구수
	사교육 시설수	법정동	2021년	경기도데이터드림-학원 및 교습소 현황
7. 의료 시설	병의원 시설수	법정동	2023년	경기도데이터드림-병원·의원 현황
	병의원 의료인수	법정동	2023년	
	치과 시설수	법정동	2023년	경기도데이터드림-치과 현황
	치과 의료인수	법정동	2023년	
	한의원 시설수	법정동	2022년	경기도데이터드림-한방병원·의원 현황
	한의원 의료인수	법정동	2022년	
	약국 시설수	법정동	2023년	경기도데이터드림-약국 현황
	보건소 시설수	법정동	2022년	경기도데이터드림-보건소·보건지소 현황
8. 문화 시설	박물관 및 미술관 시설	법정동	2023년	경기도데이터드림-박물관·미술관 현황
	도서관 시설수	법정동	2023년	수원시기본통계-공공도서관
	도서관 이용자수	시설단위	2023년	

SD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구분	항목	공간범위	시간범위	데이터
8. 문화 시설	도서관 장서수	시설단위	2023년	수원시기본통계-공공도서관
	영화관 시설수	법정동	2023년	수원시기본통계-영상시설
	영화관 접근성	법정동	2023년	
	공연장 접근성	법정동	2022년	경기도데이터드림-공연장 현황
	문화재	구단위	2022년	수원시 문화예술과
9. 체육 시설	축구장 및 야구장 시설수	법정동	2022년	수원시기본통계-구기종목
	수영장 시설수	법정동	2023년	경기도데이터드림-수영장 현황
	골프장 및 골프연습장 시설수	법정동	2023년	경기도데이터드림-골프장 및 골프연습장 현황
	가상체험 체육 시설수	법정동	2023년	경기도데이터드림 – 골프장 및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현황
	당구장 시설수	법정동	2023년	경기도데이터드림-당구장 현황
	태권도장 시설수	법정동	2022년	수원시기본통계-태권도
	기타 체육 시설수	법정동	2022년	경기도데이터드림 – 궁도장, 빙상경기장 등
10. 편의 시설	마트 및 편의점	행정동	2022년	경기도데이터드림-시장 및 마트 현황·편의점 현황
	패스트푸드점	행정동	2022년	경기도데이터드림-일반음식점(패스트푸드)
	공영/민영 주차장 시설수	법정동	2023년	영통구청-공영·민영주차장
	공원 시설수	법정동	2023년	경기도데이터드림-도시공원정보 현황
11. 교통 시설	지하철 시설수	행정동	2022년	공공데이터- 전국도시철도역사정보표준데이터
	버스정류장	행정동	2023년	전국국가관심지점정보(POI)
	버스 이용객수	행정동	2022년	경기도교통정보센터-시군별 버스 이용객수 상세분석
12. 주거주택	종류별, 건축 연도별 주택수	구단위	2021년	KOSIS-건축 연도별 주택 현황
	소유형태별 주택수	구단위	2021년	KOSIS-주택 소유 현황
13. 지가	평균 공시지가	행정동	2023년	공공데이터-국토교통부 표준지공시지가
	아파트 실거래가	법정동	2022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14. 사업체 및 종사자	사업체수	행정동	2021년	KOSIS-구·동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종사자수	행정동	2021년	영통구 소상공인 현황
15. 업종	도매 및 소매업	행정동	2021년	수원시기본통계-사업체
	숙박 및 음식점업	행정동	2021년	
	제조업	행정동	2021년	
16. 도로교통	도로구간	법정동	2023년	국가공간정보포털-(도로명주소) 도로구간
	평일 추정 교통량	행정동	2022년	한국교통연구원
	자동차 등록대수	법정동	2022년	수원시 자동차 등록 현황
17. 반려동물	반려동물수	법정동	2022년	공공데이터-수원시 반려동물 현황
	반려동물 등록자수	법정동	2022년	
	동물병원 및 동물미용업수	법정동	2022년	경기도데이터드림-반려동물 의료 및 복지 시설, 생활편의 시설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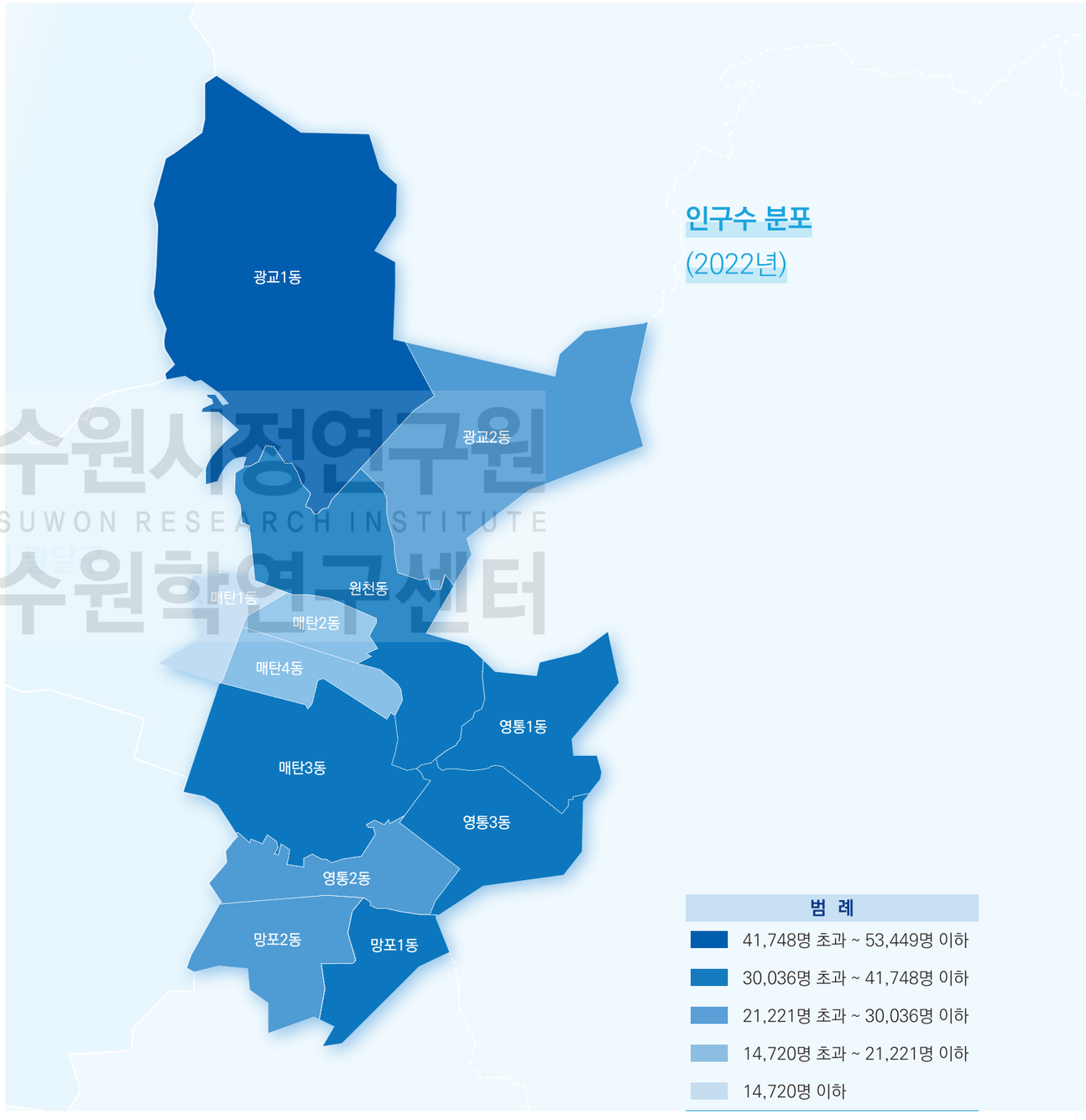
1 인구 현황

인구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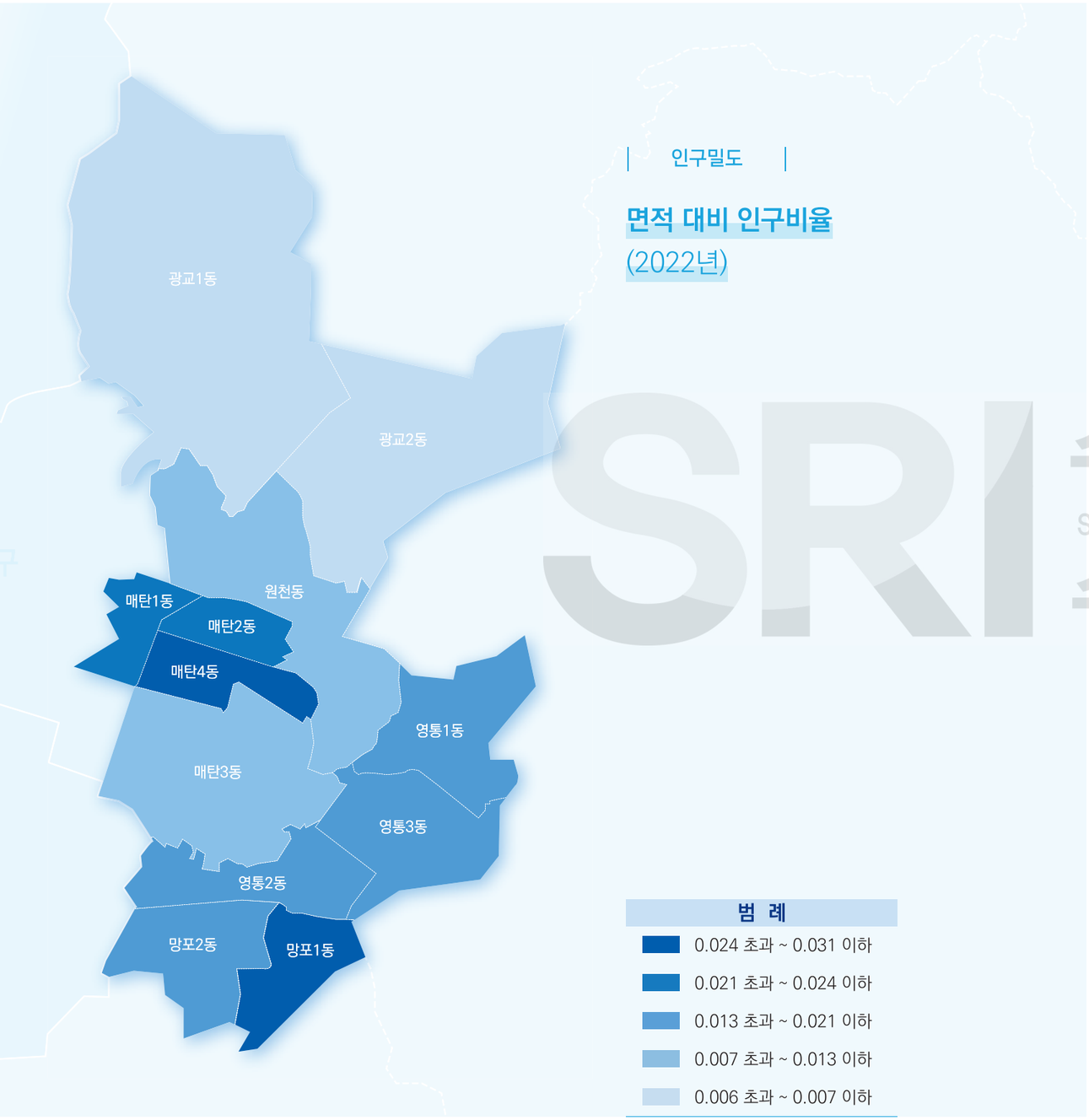
총인구수(2022년)

행정동	총인구수(명)	면적(m²)	면적대비 인구비율
매탄1동	14,720	601,322.18	0.02447939
매탄2동	14,802	608,330.76	0.02433216
매탄3동	36,083	3,184,789.95	0.01132979
매탄4동	21,221	745,559.73	0.02846318
원천동	41,748	3,238,924.63	0.01288946
광교1동	53,449	7,972,231.33	0.0067044
광교2동	29,318	4,145,175.16	0.0070728
영통1동	34,423	1,688,698.68	0.02038434
영통2동	26,550	1,369,329.82	0.01938905
영통3동	33,735	1,699,274.06	0.0198526
망포1동	32,127	1,027,412.66	0.03126981
망포2동	30,036	1,420,078.07	0.02115095
합계	368,212	27,701,127.03	0.013292311

※ 출처 : 수원기본통계 – 구·동별 인구 현황 ※ 면적 대비 인구 비율 = 총인구수/면적(m²)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인구밀도

면적 대비 인구비율
(2022년)

범 례

- 0.024 초과 ~ 0.031 이하
- 0.021 초과 ~ 0.024 이하
- 0.013 초과 ~ 0.021 이하
- 0.007 초과 ~ 0.013 이하
- 0.006 초과 ~ 0.007 이하

2 인구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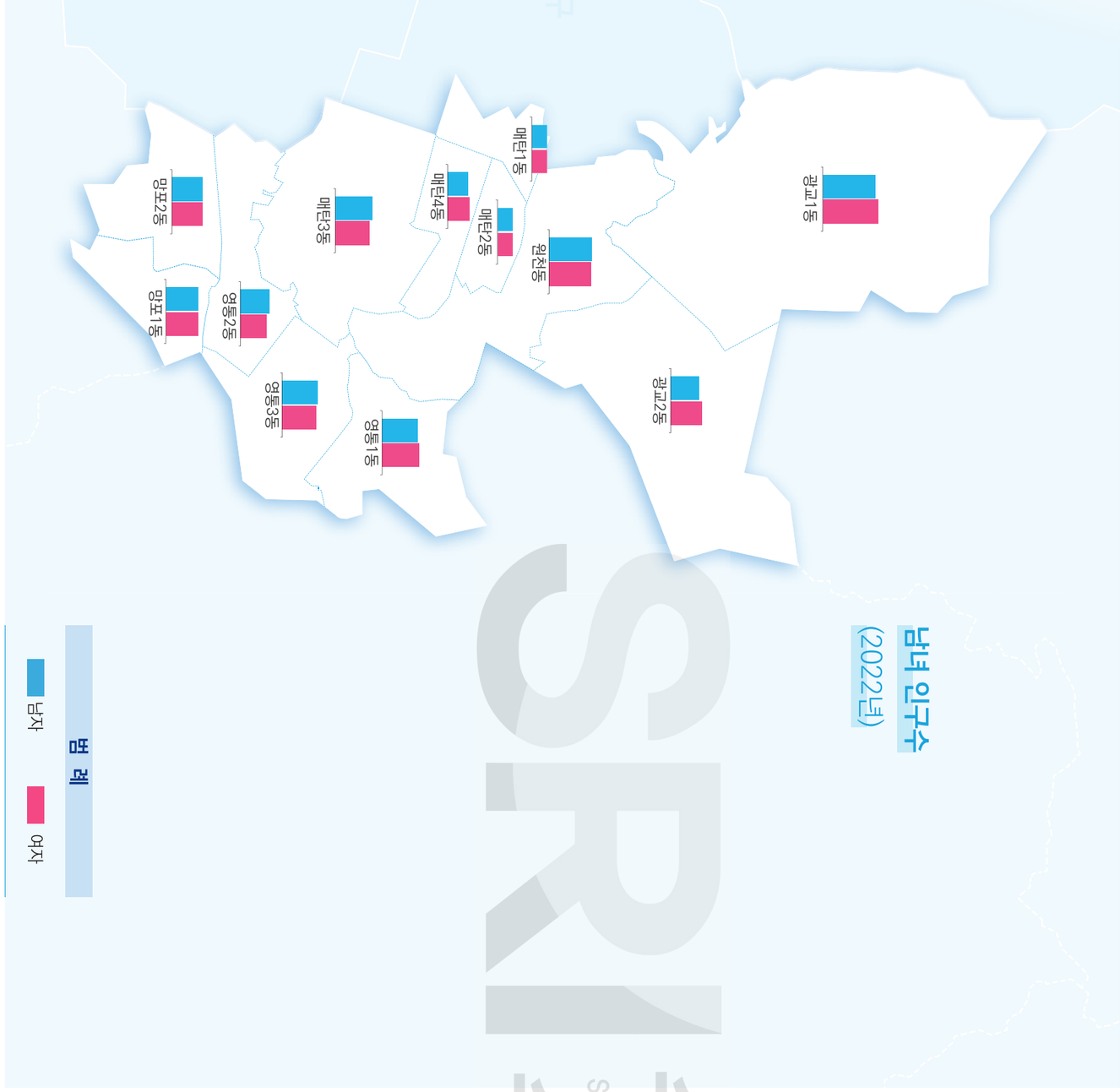
성별 인구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남녀 인구수(2022년)

행정동	남자(명)	여자(명)
매탄1동	7,435	7,285
매탄2동	7,378	7,424
매탄3동	18,785	17,298
매탄4동	10,326	10,895
원천동	21,056	20,692
광교1동	26,200	27,249
광교2동	14,032	15,286
영통1동	16,924	17,499
영통2동	14,117	12,433
영통3동	17,329	16,406
망포1동	16,166	15,961
망포2동	14,966	15,070
합계	187,714	183,498

※ 출처 : 수원기본통계 – 구·동별 인구 현황



남자 인구수 변화(2003~2022년)

(단위 : 명)

행정동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광교1동													22,029	22,623	24,710	25,732	25,502	26,012	25,928	26,200
광교2동													11,757	12,343	12,349	13,662	13,534	14,061	14,124	14,032
광교동										14,946	23,809	29,950								
망포1동																	16,051	15,965	15,662	16,166
망포2동																	14,094	14,166	13,922	14,966
매탄1동	7,623	7,439	7,798	11,601	11,433	11,248	11,114	11,123	10,906	10,925	10,872	10,735	10,579	10,487	10,239	9,885	9,508	9,232	8,866	7,435
매탄2동	8,802	8,729	8,703	8,883	8,784	8,527	8,317	8,873	8,922	8,924	8,878	8,764	8,623	8,371	8,086	7,826	7,644	7,544	7,347	7,378
매탄3동	15,741	15,042	14,973	15,106	15,041	19,826	20,196	20,347	20,139	19,969	20,197	20,051	19,677	19,804	19,948	19,561	19,021	18,778	18,656	18,785
매탄4동	14,215	13,932	13,981	14,028	14,128	13,812	13,349	13,382	13,085	12,861	12,812	12,634	12,395	12,216	11,919	11,589	11,146	10,817	10,479	10,326
영통1동	23,261	23,084	23,214	23,675	23,416	23,458	23,027	22,682	22,326	22,085	21,723	21,552	21,299	21,236	18,267	17,958	18,007	17,737	17,108	16,924
영통2동	26,420	26,025	25,854	25,779	25,763	25,559	25,260	25,158	24,819	24,587	24,213	23,888	23,563	23,451	14,696	14,678	14,094	14,126	13,855	14,117
영통3동															16,837	16,989	16,813	16,810	16,629	17,329
원천동	9,601	9,606	10,003	10,023	9,941	9,672	9,771	9,945	13,392	9,715	10,436	12,706	12,773	12,724	13,003	15,066	19,628	19,791	19,645	21,056
이의동	1,712	1,866	1,861	822																
태장동	16,124	16,545	18,052	18,955	19,154	19,357	19,528	20,335	21,038	21,818	23,949	26,214	26,443	28,197	26,165	26,225				
총합계	123,499	122,268	124,439	128,872	127,660	131,459	130,562	131,845	134,627	145,830	156,889	166,494	169,138	171,452	176,219	179,171	185,042	185,039	182,221	184,714

※ 출처 : 수원기본통계 – 구·동별 인구 현황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여자 인구수 변화(2003~2022년)

(단위 : 명)

행정동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광교1동													22,365	23,107	25,382	26,659	26,629	27,193	27,097	27,249
광교2동													12,472	13,220	13,278	14,587	14,445	14,996	15,213	15,286
광교동										15,447	24,598	30,643								
망포1동																	15,951	15,728	15,414	15,961
망포2동																	14,155	14,189	13,950	15,070
매탄1동	7,803	7,691	8,020	11,854	11,769	11,498	11,267	11,140	10,879	10,943	10,826	10,642	10,385	10,328	10,133	9,882	9,453	9,103	8,746	7,285
매탄2동	8,614	8,625	8,568	8,810	8,811	8,612	8,389	9,018	8,978	8,947	8,860	8,758	8,607	8,470	8,117	7,963	7,744	7,618	7,434	7,424
매탄3동	15,334	14,507	14,219	14,206	14,197	18,928	19,275	19,269	19,018	18,981	18,984	18,844	18,535	18,662	18,588	18,088	17,547	17,501	17,326	17,298
매탄4동	13,988	13,842	13,960	13,925	14,041	13,646	13,310	13,268	13,211	13,029	12,808	12,697	12,460	12,269	12,135	11,805	11,366	11,204	10,952	10,895
영통1동	22,574	22,330	22,376	22,819	22,720	22,775	22,492	22,167	21,850	21,678	21,375	21,354	21,052	21,058	18,598	18,390	18,502	18,211	17,677	17,499
영통2동	25,876	25,469	25,303	25,306	25,295	25,210	24,919	24,732	24,395	24,291	24,074	23,872	23,652	23,550	13,156	13,021	12,537	12,618	12,333	12,433
영통3동															16,395	16,420	16,180	16,098	15,898	16,406
원천동	9,209	9,213	9,326	9,234	9,158	8,951	8,940	9,004	12,910	8,982	9,488	11,595	11,685	11,641	11,743	13,854	18,917	19,344	19,161	20,692
이의동	1,440	1,605	1,612	610																
태장동	15,978	16,586	18,168	18,914	19,079	19,131	19,267	20,114	20,674	20,946	22,772	24,819	25,024	26,897	26,092	26,272				
총합계	120,816	119,868	121,552	125,678	125,070	128,751	127,859	128,712	131,915	143,244	153,785	163,224	166,237	169,202	173,617	176,941	183,426	183,803	181,201	183,498

※ 출처 : 수원기본통계 – 구·동별 인구 현황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연령별 인구

영통구 연령별 인구 5세 단위(20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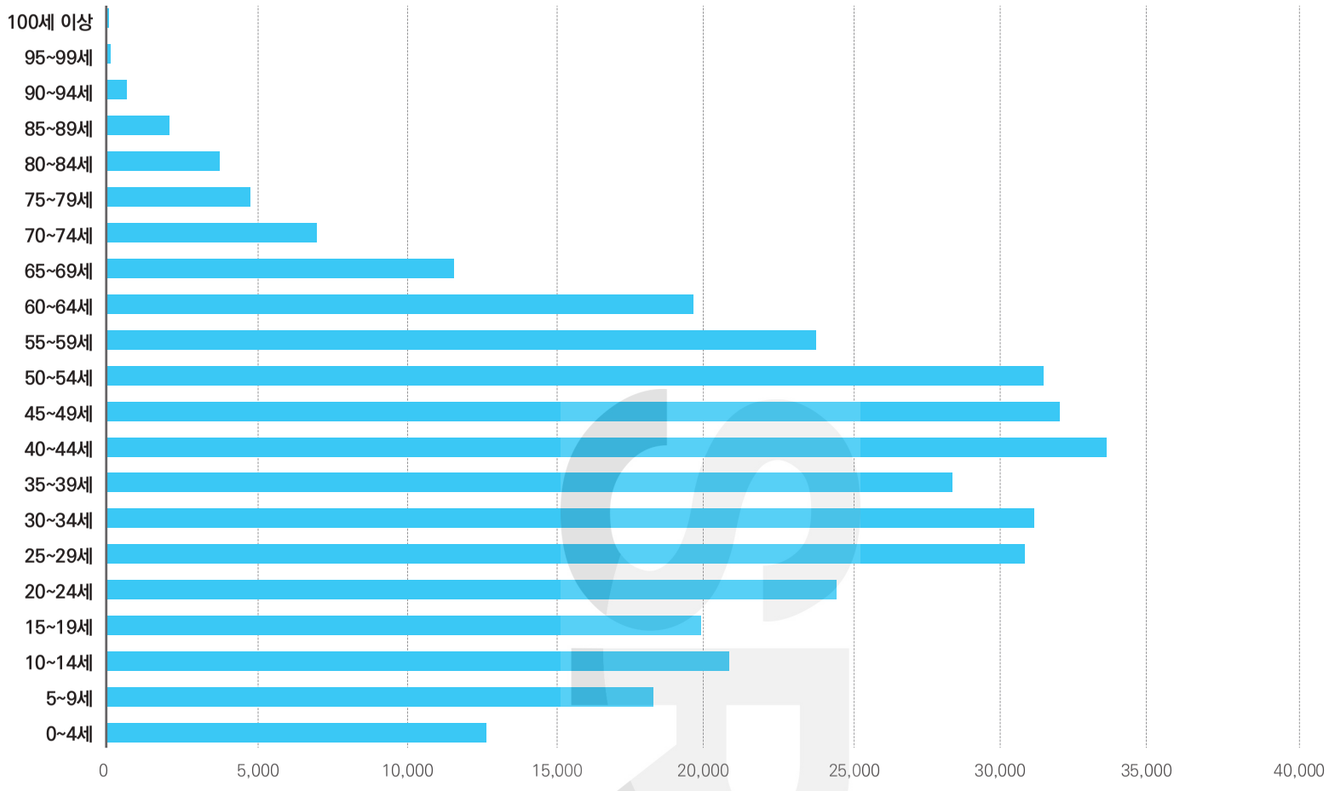
(단위 : 명)

행정동	0~4세	5~9세	10~14세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50~54세	55~59세	60~64세	65~69세	70~74세	75~79세	80~84세	85~89세	90~94세	95~99세	100세 이상
매탄1동	323	443	627	730	1,149	1,083	875	833	1,021	1,157	1,348	1,072	940	673	462	303	193	104	35	3	1
매탄2동	283	441	603	742	1,016	1,259	1,072	794	1,032	1,155	1,375	1,180	1,218	770	506	355	281	128	42	15	2
매탄3동	850	1,445	1,914	2,146	2,649	3,676	2,916	2,338	2,980	3,277	3,352	2,459	2,016	1,185	756	475	443	229	71	12	1
매탄4동	464	573	819	1,135	1,514	1,946	1,759	1,361	1,517	1,721	2,058	1,666	1,621	1,030	627	465	321	187	64	13	0
원천동	1,475	2,374	2,248	1,688	2,761	3,906	3,684	3,566	4,115	3,486	2,917	2,322	2,062	1,464	836	604	443	219	87	18	1
영통1동	1,132	1,669	2,186	2,274	2,172	2,253	2,796	2,388	3,029	3,356	3,309	2,478	1,930	969	596	492	400	221	67	16	3
영통2동	1,200	964	984	1,031	1,626	3,677	4,086	2,586	2,122	1,941	1,932	1,387	959	514	305	271	241	93	39	4	2
영통3동	814	1,312	1,992	2,082	3,235	3,234	2,426	1,871	2,467	3,039	3,100	2,389	1,785	912	481	362	296	186	73	17	1
망포1동	1,416	1,869	2,092	1,899	2,080	2,208	2,490	2,716	3,061	2,789	2,946	2,245	1,812	890	488	367	277	148	64	14	2
망포2동	1,788	2,625	2,087	1,622	1,514	1,505	2,229	3,201	3,809	2,630	2,273	1,636	1,263	690	366	230	184	93	32	9	2
광교1동	1,663	3,117	3,665	3,256	3,492	4,768	4,751	4,215	5,353	5,114	4,661	3,093	2,408	1,272	761	469	335	188	60	19	1
광교2동	1,440	1,642	1,740	1,453	1,425	1,502	2,172	2,717	3,230	2,543	2,378	1,966	1,722	1,199	787	505	304	179	69	18	3

※ 출처 : 수원기본통계 – 구·동별 인구 현황

영통구 연령별 인구 5세 단위 그래프(2022년)

(단위 : 명)



영통구 연령별 인구 10세 단위(2022년)

(단위 : 명)

행정동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89세	90~99세	100세 이상
매탄1동	766	1,357	2,232	1,708	2,178	2,420	1,613	765	297	38	1
매탄2동	724	1,345	2,275	1,866	2,187	2,555	1,988	861	409	57	2
매탄3동	2,295	4,060	6,325	5,254	6,257	5,811	3,201	1,231	672	83	1
매탄4동	1,037	1,954	3,460	3,120	3,238	3,724	2,651	1,092	508	77	0
원천동	3,849	3,936	6,667	7,250	7,601	5,239	3,526	1,440	662	105	1
영통1동	2,801	4,460	4,425	5,184	6,385	5,787	2,899	1,088	621	8[3]	3
영통2동	2,164	2,015	5,303	6,672	4,063	3,319	1,473	576	334	43	2
영통3동	2,126	4,074	6,469	4,297	5,506	5,489	2,697	843	482	90	1
망포1동	3,285	3,991	4,288	5,206	5,850	5,191	2,702	855	425	78	2
망포2동	4,413	3,709	3,019	5,430	6,439	3,909	1,953	596	277	41	2
광교1동	4,780	6,921	8,260	8,966	10,467	7,754	3,680	1,230	523	79	1
광교2동	3,082	3,193	2,927	4,889	5,773	4,344	2,921	1,292	483	87	3

※ 출처 : 수원기본통계 – 구·동별 인구 현황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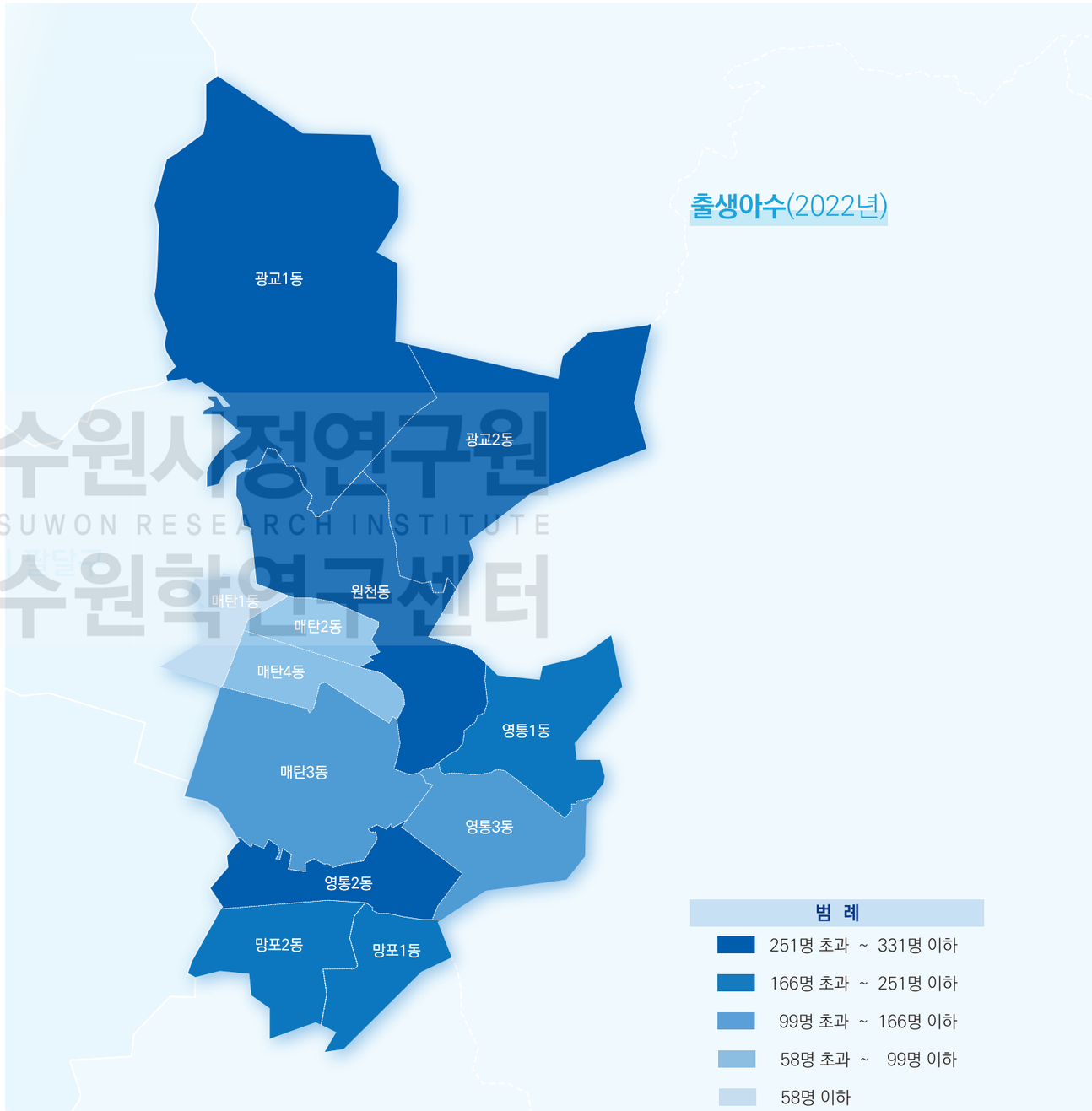
출생아수

영통구 출생아수(2022년)

(단위 : 명)

행정동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총합계
매탄1동	4	6	6	4	4	8	6	2	5	3	5	5	58
매탄2동	7	5	9	6	4	3	4	7	7	5	4	4	65
매탄3동	15	8	12	15	16	10	16	16	13	11	10	6	148
매탄4동	10	8	13	8	4	5	6	8	10	12	5	10	99
원천동	20	16	25	29	28	20	19	21	30	29	27	30	294
영통1동	21	21	27	24	22	18	16	16	23	22	19	22	251
영통2동	26	26	36	27	40	27	24	27	21	24	26	20	324
영통3동	6	11	14	16	9	9	18	13	22	25	11	12	166
망포1동	17	14	15	20	22	11	15	19	25	18	20	13	209
망포2동	15	31	22	16	19	14	23	25	28	16	21	17	247
광교1동	32	29	26	25	33	27	36	33	29	23	23	15	331
광교2동	29	29	29	29	23	22	17	27	22	27	20	26	300

※ 출처 : 행정안전부 – 주민등록인구 지역별 출생등록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유소년, 생산가능인구, 고령인구

영통구 유소년, 생산가능인구, 고령인구수(20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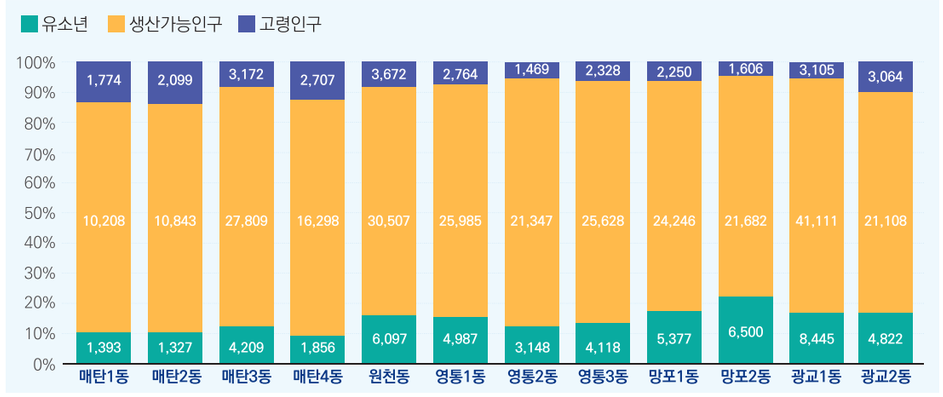
(단위 : 명)

행정동	유소년	생산가능인구	고령인구	총합계
매탄1동	1,393	10,208	1,774	13,375
매탄2동	1,327	10,843	2,099	14,269
매탄3동	4,209	27,809	3,172	35,190
매탄4동	1,856	16,298	2,707	20,861
원천동	6,097	30,507	3,672	40,276
영통1동	4,987	25,985	2,764	33,736
영통2동	3,148	21,347	1,469	25,964
영통3동	4,118	25,628	2,328	32,074
망포1동	5,377	24,246	2,250	31,873
망포2동	6,500	21,682	1,606	29,788
광교1동	8,445	41,111	3,105	52,661
광교2동	4,822	21,108	3,064	28,994

※ 출처 : 수원기본통계 – 5세, 10세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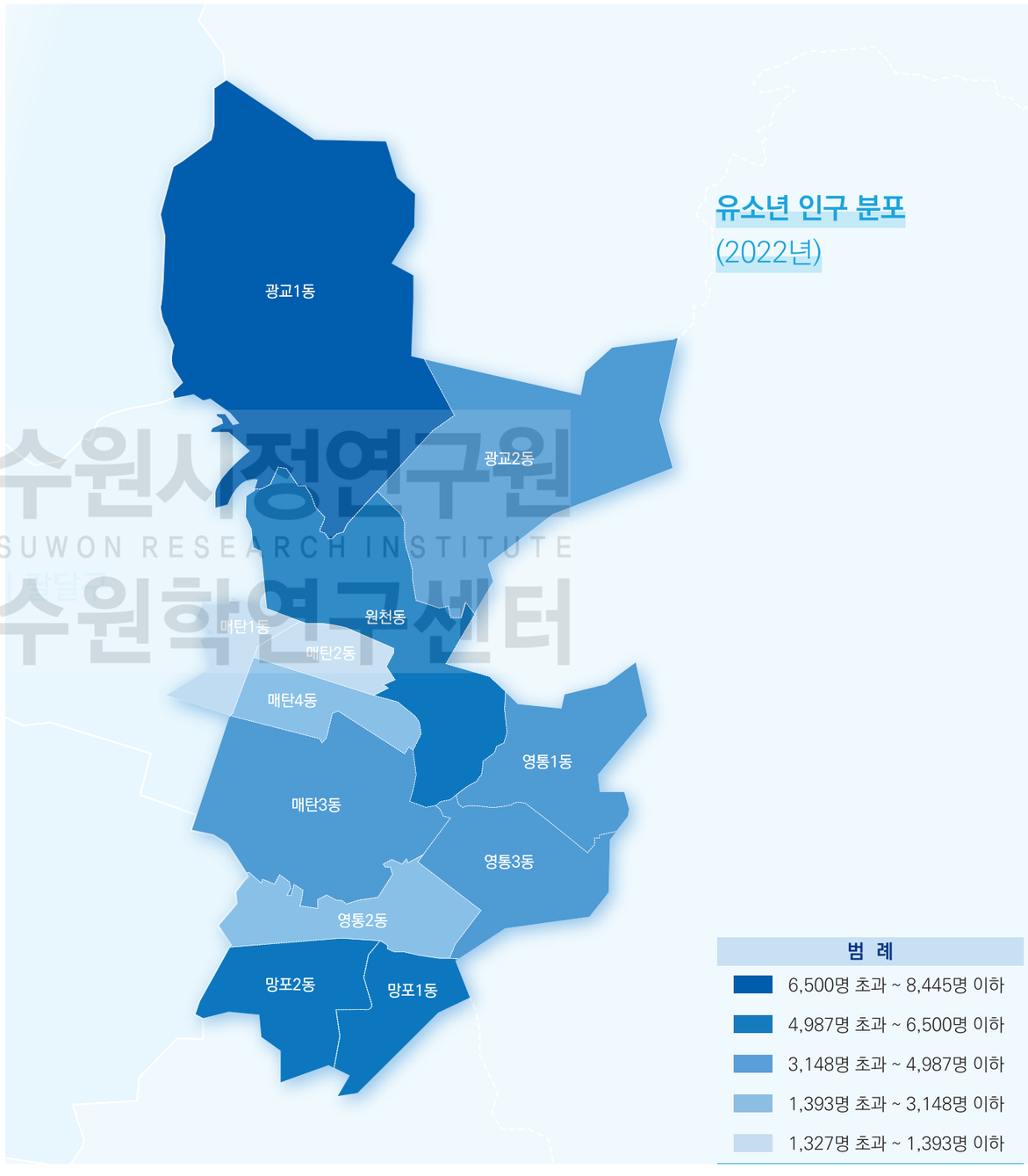
행정동별 유소년, 생산가능인구, 고령인구 비율(2022년)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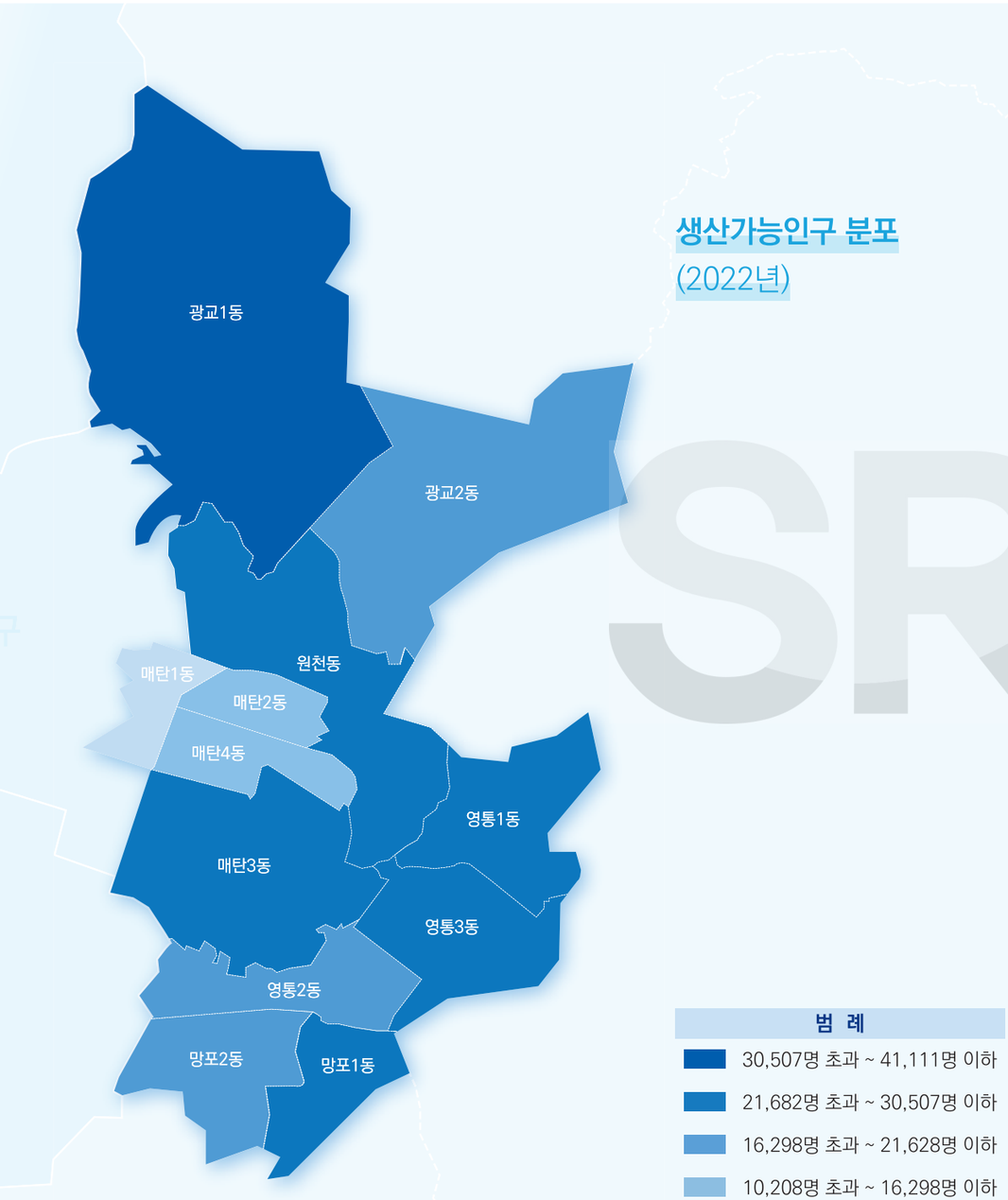
※ 출처 : 수원기본통계 – 5세, 10세 단위

유소년 인구 분포 (2022년)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생산가능인구 분포
(2022년)



범 례

- 30,507명 초과 ~ 41,111명 이하
- 21,682명 초과 ~ 30,507명 이하
- 16,298명 초과 ~ 21,628명 이하
- 10,208명 초과 ~ 16,298명 이하
- 10,208명 이하

고령인구 분포
(2022년)



범 례

- 3,172명 초과 ~ 3,627명 이하
- 2,764명 초과 ~ 3,172명 이하
- 2,328명 초과 ~ 2,764명 이하
- 1,774명 초과 ~ 2,328명 이하
- 1,469명 초과 ~ 1,774명 이하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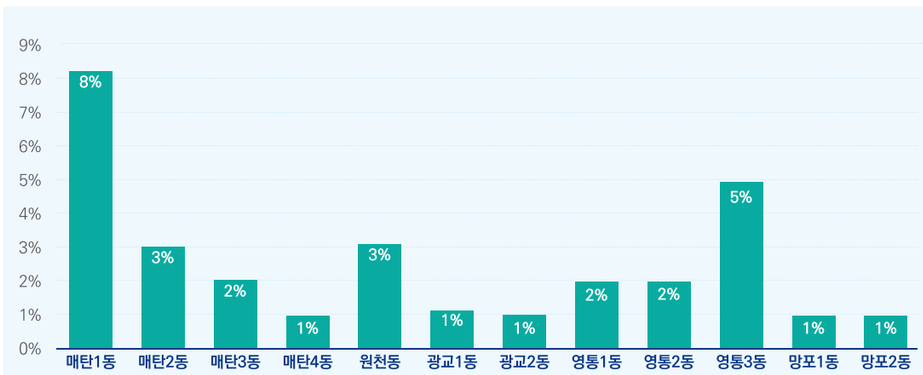
외국인 인구

외국인 인구 현황(2022년 9월)

행정동	총인구수(명)	외국인 인구수(명)	외국인 비율(%)
매탄1동	14,720	1,238	8
매탄2동	14,802	448	3
매탄3동	36,083	754	2
매탄4동	21,221	284	1
원천동	41,748	1,326	3
광교1동	53,449	606	1
광교2동	29,318	205	1
영통1동	34,423	529	2
영통2동	26,550	504	2
영통3동	33,735	1,561	5
망포1동	32,127	207	1
망포2동	30,036	157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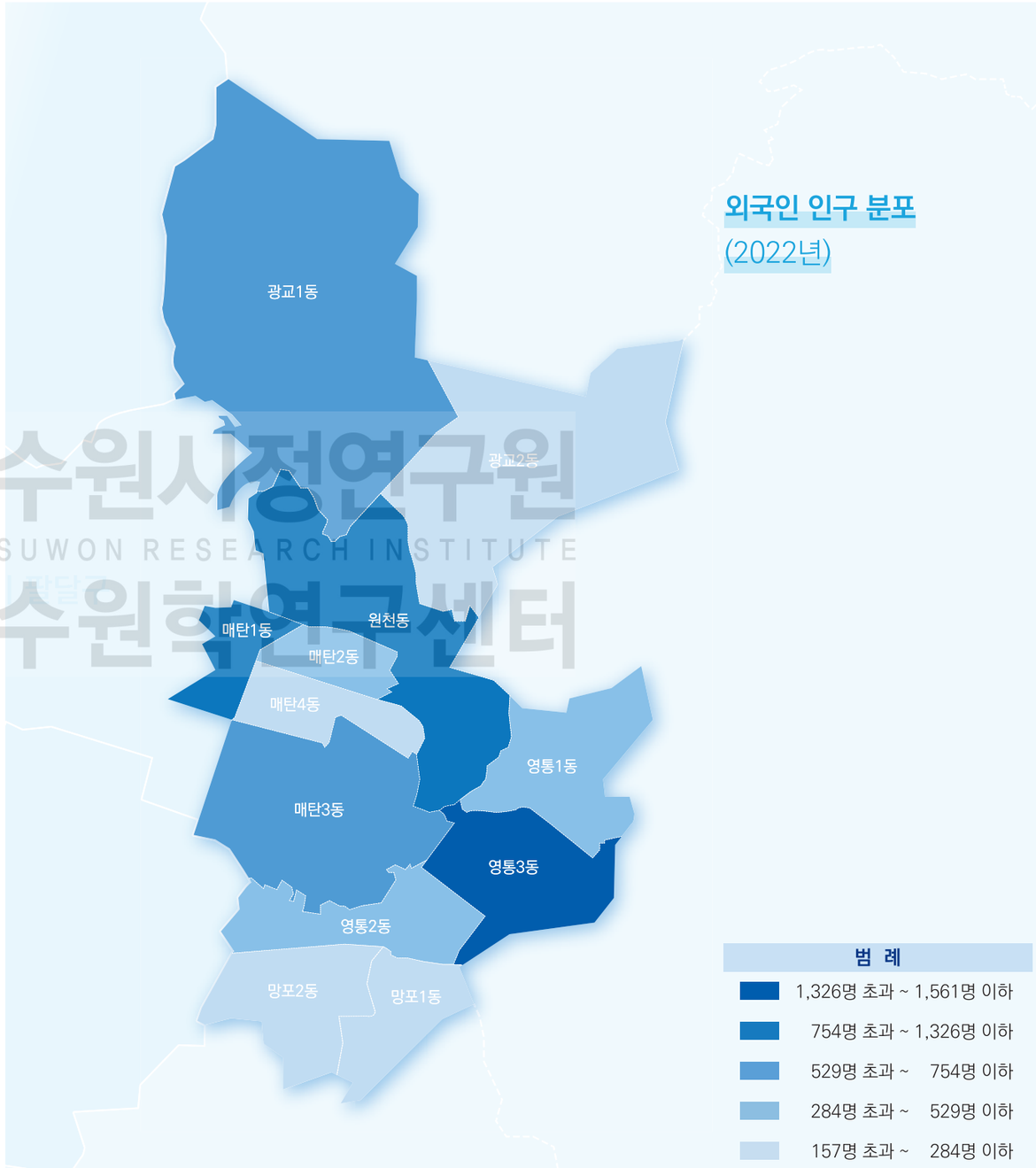
※ 출처 : 법무부 – 2022년 9월 등록외국인 현황 ※ 외국인 비율 : 외국인 인구수/총인구수

외국인 인구 비율(2022년)



※ 출처 : 법무부 – 2022년 9월 등록외국인 현황 ※ 외국인 비율 : 외국인 인구수/총인구수

외국인 인구 분포 (2022년)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3 인구 변화

연도별 인구

영통구 행정동별 인구 변화(2003~2022년)

(단위 : 명)

행정동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광교1동													44,789	46,150	50,548	52,843	52,575	53,603	53,431	53,449
광교2동													24,400	25,704	25,753	28,383	28,125	29,232	29,531	29,318
광교동										30,396	48,916	61,145								
망포1동																	32,212	31,894	31,245	32,127
망포2동																	28,413	28,512	28,025	30,036
매탄1동	15,688	15,421	16,021	23,710	23,202	23,676	23,450	23,057	22,788	23,027	23,055	22,175	21,751	21,631	21,196	20,786	20,131	19,562	18,847	14,720
매탄2동	17,495	17,438	17,375	17,812	17,595	17,284	16,849	18,155	18,196	18,094	17,960	17,938	17,698	17,314	16,700	16,348	15,887	15,625	15,214	14,802
매탄3동	31,367	29,912	29,453	29,558	29,238	38,976	39,682	40,145	39,726	39,289	39,437	39,738	39,122	39,383	39,502	38,540	37,314	36,885	36,594	36,083
매탄4동	28,318	27,893	28,038	28,058	28,169	27,592	26,785	26,850	26,493	26,049	25,778	25,673	25,212	24,802	24,363	23,720	22,827	22,335	21,722	21,221
영통1동	46,316	46,172	46,553	47,654	46,136	47,806	45,619	46,227	45,805	45,707	45,463	44,765	44,265	44,090	37,531	36,919	37,060	36,465	35,277	34,423
영통2동	52,476	51,624	51,230	51,187	51,058	50,830	51,226	50,579	49,916	49,289	48,624	48,784	48,192	47,814	28,381	28,191	27,095	27,206	26,624	26,550
영통3동															34,790	35,216	34,771	34,430	33,944	33,735
원천동	19,335	19,503	19,856	19,865	19,099	19,680	20,448	20,209	27,576	19,996	20,834	25,188	25,353	25,359	25,771	29,947	39,673	40,055	39,766	41,748
이의동	3,250	3,574	3,583	1,619																
태장동	32,485	33,474	36,540	38,315	38,233	39,095	39,294	40,949	42,180	43,171	47,129	51,455	51,951	55,591	52,564	52,799				

※ 출처 : 수원기본통계 - 구·동별 인구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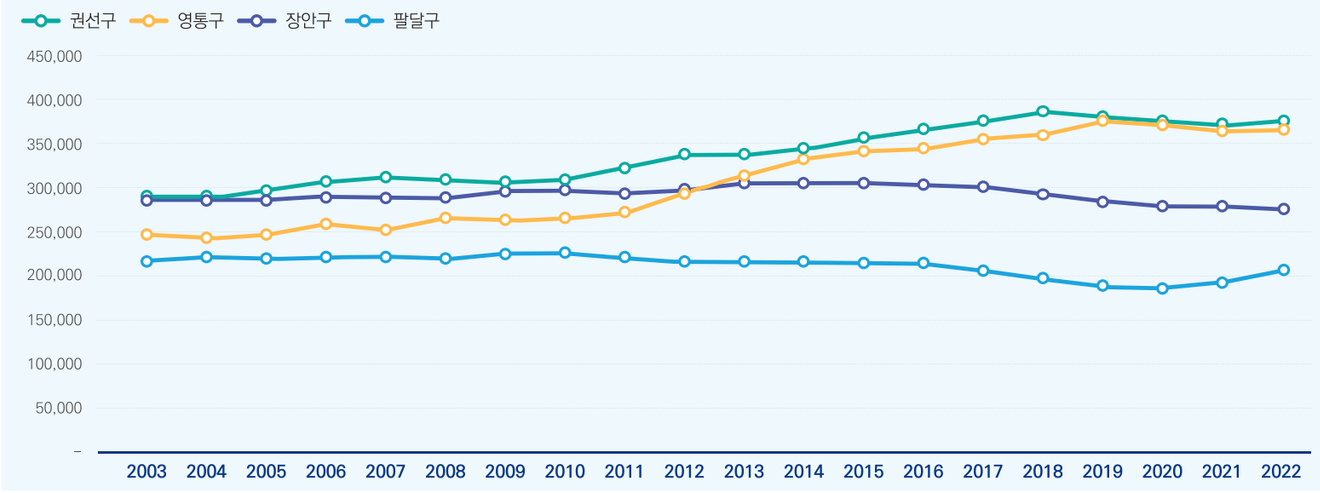
구별 인구 변화(2003~2022년)

(단위 : 명)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권선구	288,579	288,743	298,934	310,054	315,075	313,631	309,831	312,802	327,878	338,811	338,642	347,928	360,138	367,584	375,255	388,478	382,436	378,153	372,772	376,165
영통구	246,730	245,011	248,649	257,778	252,730	264,939	263,353	266,171	272,680	295,018	317,196	336,861	342,733	347,838	357,099	363,692	376,083	375,804	370,220	368,212
장안구	286,807	285,268	285,974	292,092	291,037	290,038	295,506	298,729	296,285	296,794	306,164	307,151	305,166	302,819	300,455	293,955	285,937	280,209	280,100	277,006
팔달구	218,107	223,110	221,062	222,347	223,935	222,070	226,881	226,968	221,377	217,332	216,507	217,229	213,938	212,983	207,671	196,087	190,558	187,739	193,866	203,675

※ 출처 : 수원기본통계 - 구·동별 인구현황

구별 인구 변화(2003~2022년)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 연구센터

전입인구

구별 전입인구 변화(2016~20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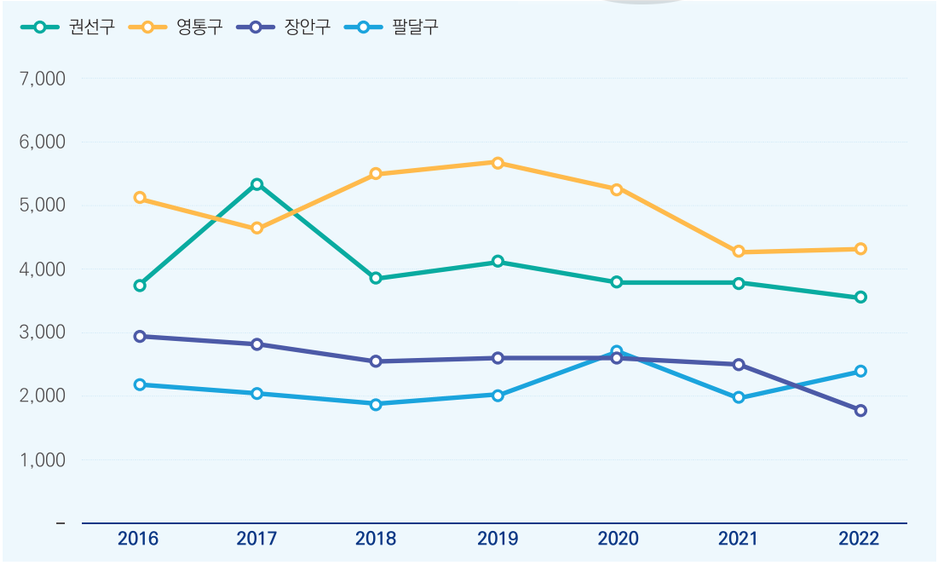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권선구	3,893	5,489	4,057	4,239	3,968	3,922	3,693
영통구	5,214	4,752	5,595	5,783	5,395	4,387	4,486
장안구	3,129	2,986	2,708	2,775	2,778	2,751	2,012
팔달구	2,398	2,227	2,079	2,240	2,875	2,175	2,564

※ 출처 : 수원기본통계 – 인구이동

구별 전입인구 변화 그래프(2016~2022년)

(단위 : 명)



전출인구

구별 전출인구 변화(2016~20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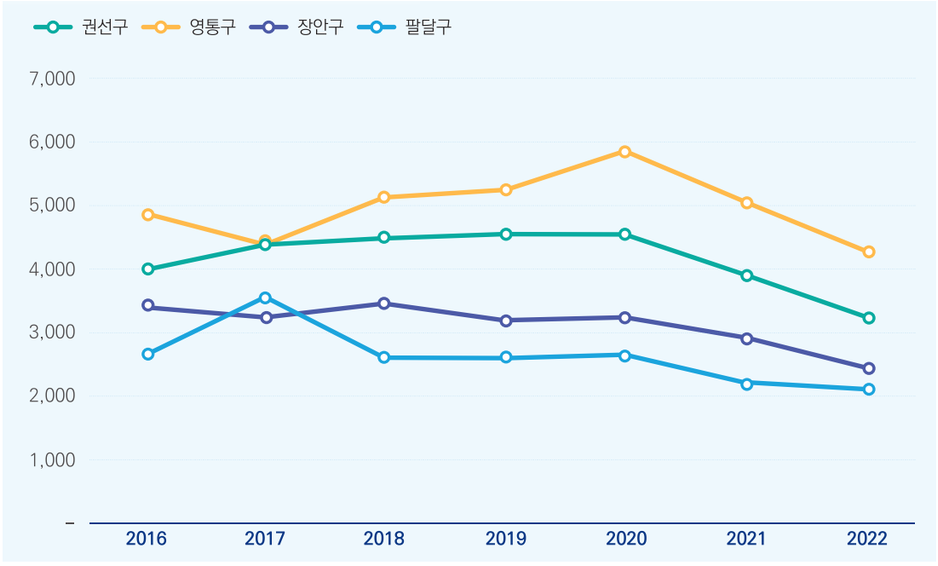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권선구	4,023	4,383	4,507	4,575	4,543	3,933	3,261
영통구	4,890	4,414	5,066	5,242	5,844	5,072	4,306
장안구	3,403	3,195	3,451	3,175	3,233	2,937	2,456
팔달구	2,647	3,567	2,642	2,576	2,641	2,206	2,125

※ 출처 : 수원기본통계 – 인구이동

구별 전출인구 변화 그래프(2016~2022년)

(단위 : 명)



SRI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시정연구원
수원학연구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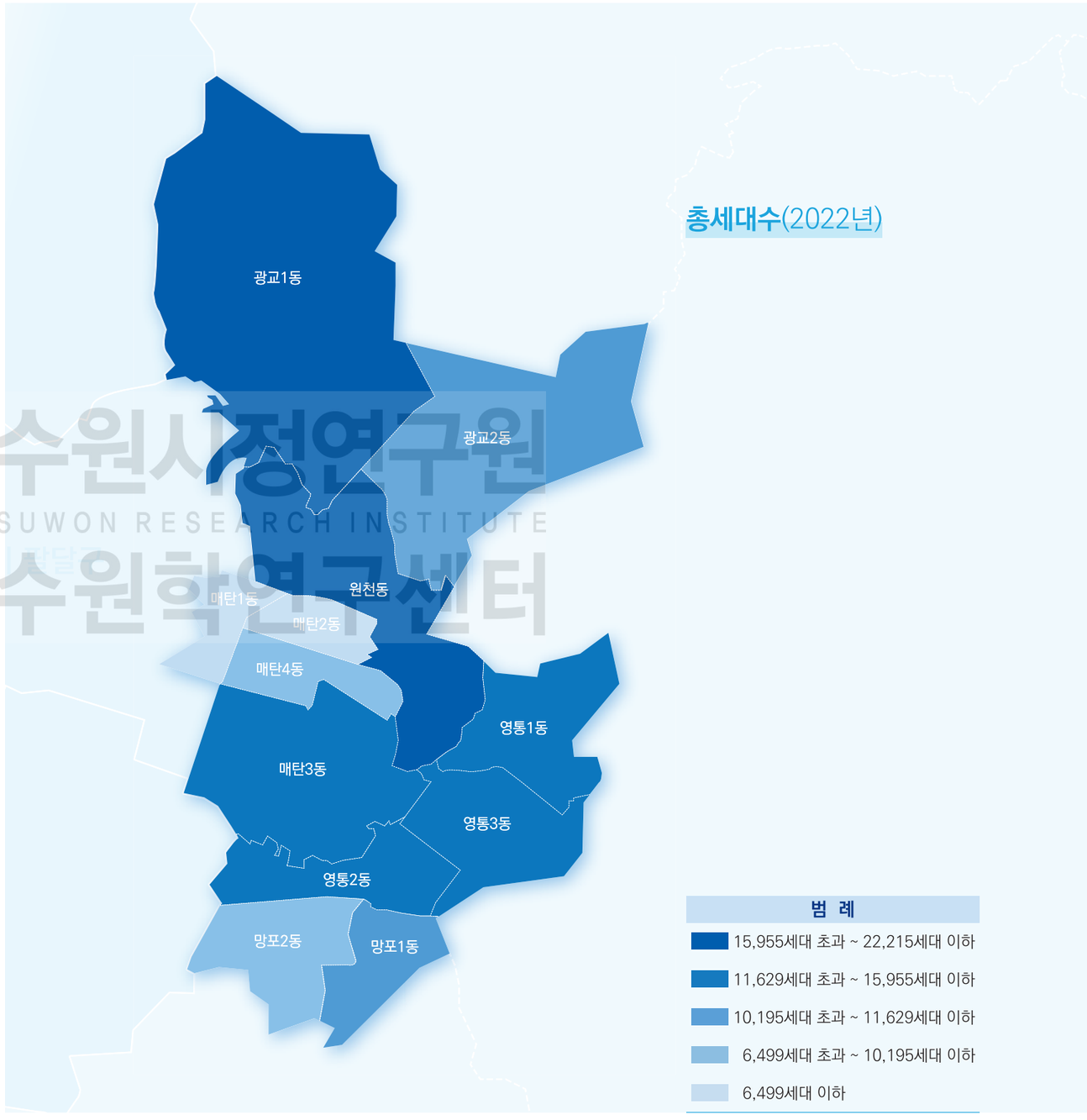
4 가구 형태

| 가구 형태별 세대수 |

가구 형태별 세대수(20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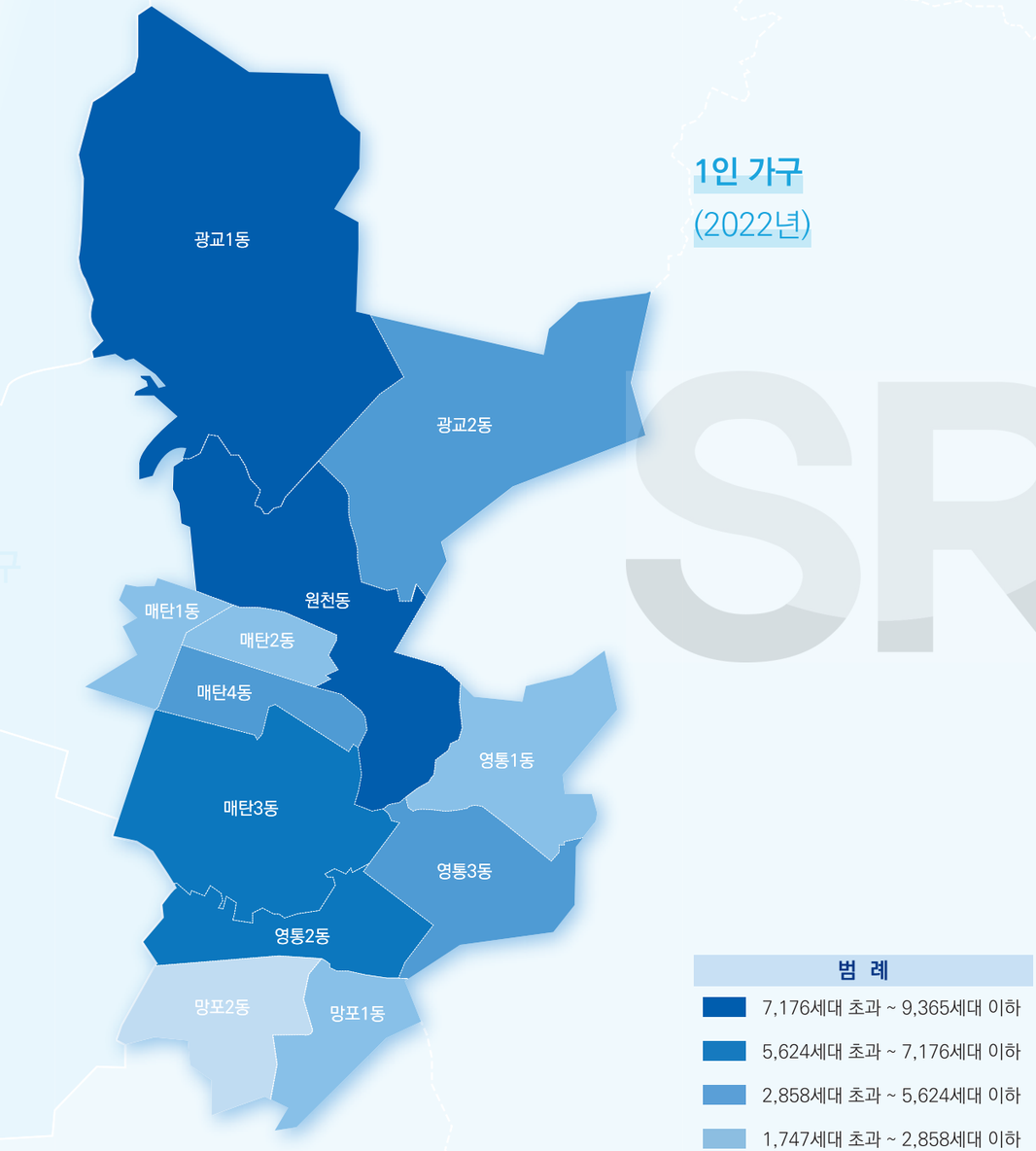
행정동	총세대수	1인 세대	2~3인 세대	4인 세대	5인 이상 세대
매탄1동	6,049	2,545	2,224	1,027	253
매탄2동	6,499	2,695	2,570	893	341
매탄3동	15,955	7,090	5,295	2,953	617
매탄4동	9,547	3,799	3,983	1,433	332
원천동	19,344	9,365	6,401	2,899	679
영통1동	12,567	2,858	5,843	3,225	641
영통2동	13,464	7,176	4,335	1,650	303
영통3동	13,720	5,624	4,562	2,903	631
망포1동	11,452	2,568	4,980	3,158	746
망포2동	10,195	1,747	4,605	3,201	642
광교1동	22,215	8,740	7,654	4,678	1,143
광교2동	11,629	3,258	5,467	2,320	584

※ 출처 : 행정안전부 - 지역별 세대원수별 세대수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인 가구
(2022년)



범 례

- 7,176세대 초과 ~ 9,365세대 이하
- 5,624세대 초과 ~ 7,176세대 이하
- 2,858세대 초과 ~ 5,624세대 이하
- 1,747세대 초과 ~ 2,858세대 이하
- 1,747세대 이하

2~3인 가구
(20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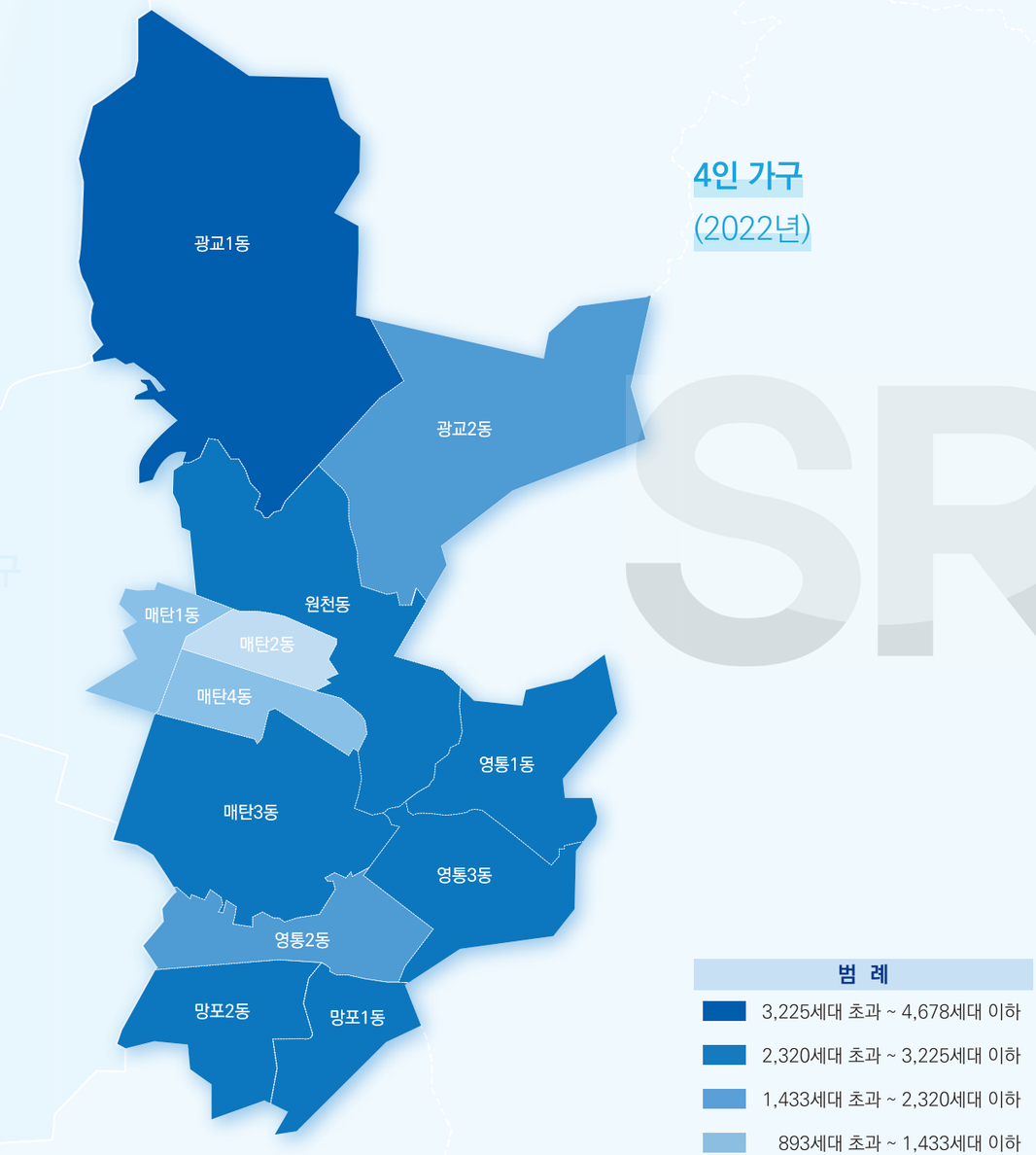


범 례

- 6,401세대 초과 ~ 7,654세대 이하
- 4,980세대 초과 ~ 6,401세대 이하
- 3,983세대 초과 ~ 4,980세대 이하
- 2,224세대 초과 ~ 3,983세대 이하
- 2,224세대 이하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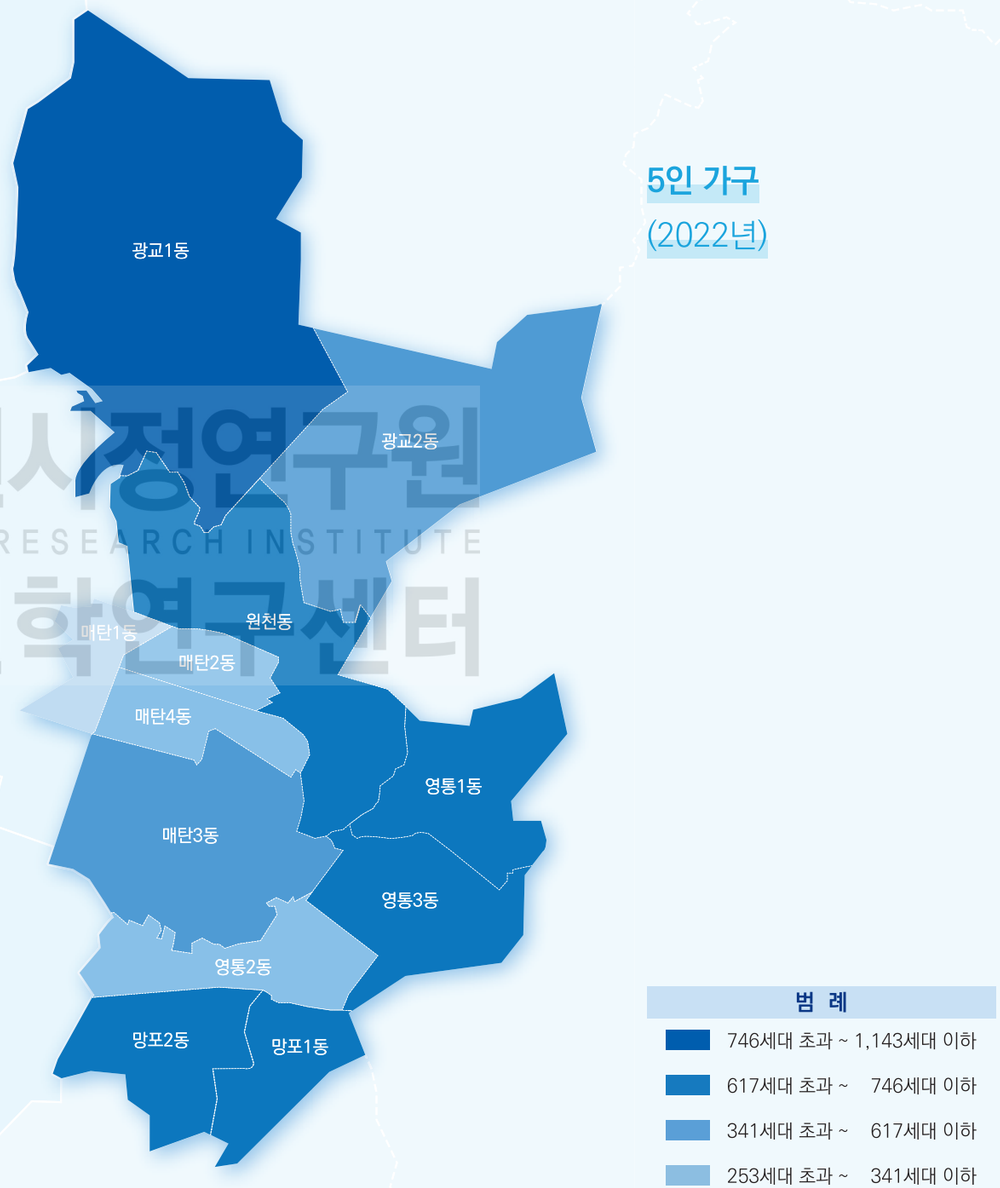
4인 가구
(2022년)



범 례

- 3,225세대 초과 ~ 4,678세대 이하
- 2,320세대 초과 ~ 3,225세대 이하
- 1,433세대 초과 ~ 2,320세대 이하
- 893세대 초과 ~ 1,433세대 이하
- 893세대 이하

5인 가구
(2022년)



범 례

- 746세대 초과 ~ 1,143세대 이하
- 617세대 초과 ~ 746세대 이하
- 341세대 초과 ~ 617세대 이하
- 253세대 초과 ~ 341세대 이하
- 253세대 이하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다문화가구

행정동별 다문화가구수(2017~2021년)

(단위 : 세대)

행정동	2017	2018	2019	2020	2021
매탄1동	285	297	288	292	281
매탄2동	322	345	381	357	368
매탄3동	387	395	401	437	456
매탄4동	342	350	376	367	396
태장동	543	430	-	-	-
원천동	308	354	417	478	448
광교1동	390	436	416	536	524
광교2동	379	396	422	463	470
영통1동	383	316	351	381	326
영통2동	388	320	301	336	334
영통3동	-	273	331	320	335
망포1동	-	-	285	310	328
망포2동	-	-	238	245	275

※ 출처 : KOSIS - 읍·면·동별 다문화가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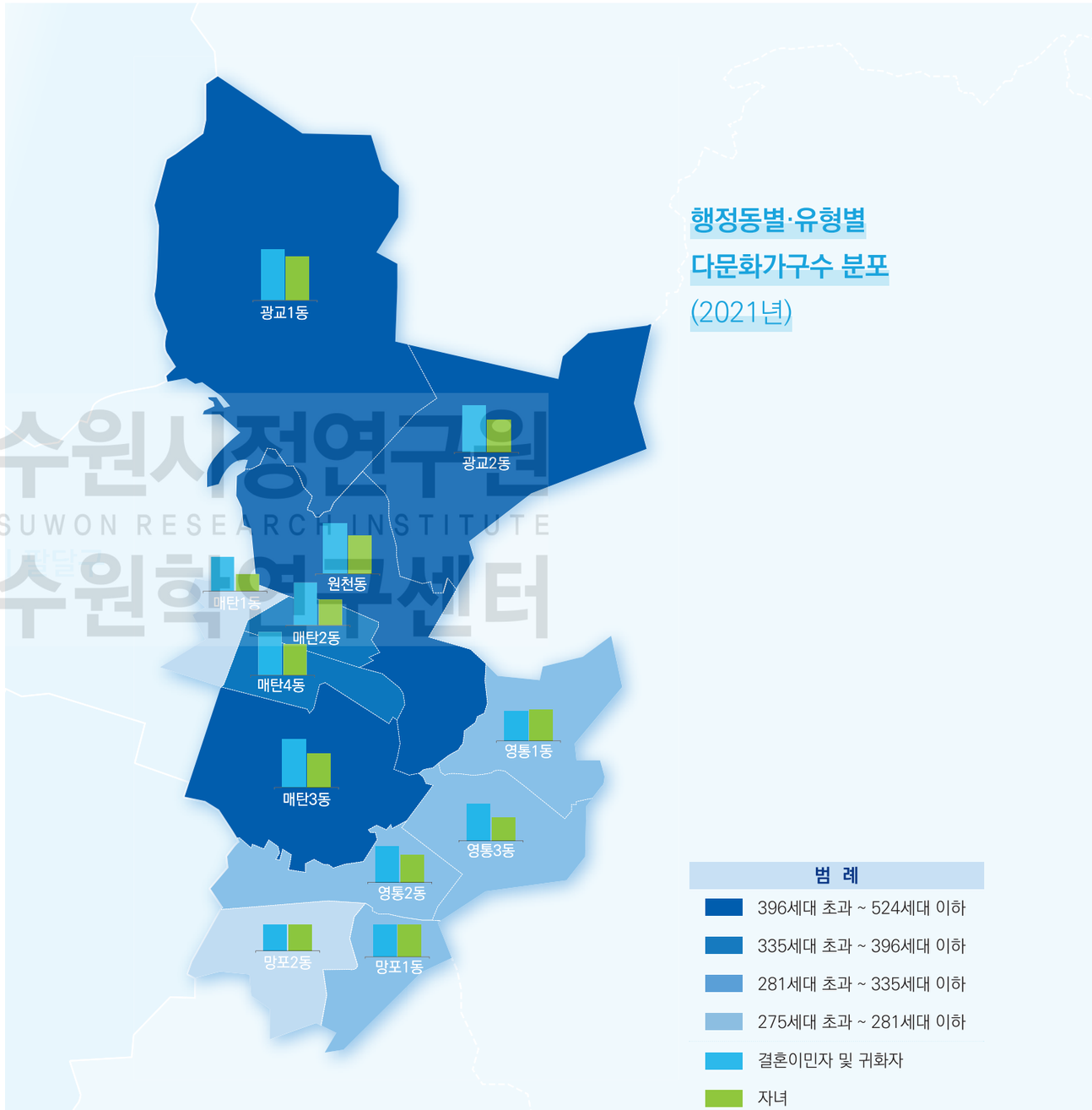
유형별 다문화가구수(2021년)

(단위 : 세대)

행정동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자녀
매탄1동	112	59
매탄2동	137	81
매탄3동	151	104
매탄4동	137	103
원천동	158	117
광교1동	160	136
광교2동	150	102
영통1동	95	98
영통2동	112	81
영통3동	117	73
망포1동	100	100
망포2동	84	77

※ 출처 : KOSIS - 읍·면·동별 다문화가구 현황

행정동별·유형별 다문화가구수 분포 (2021년)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5 기상 기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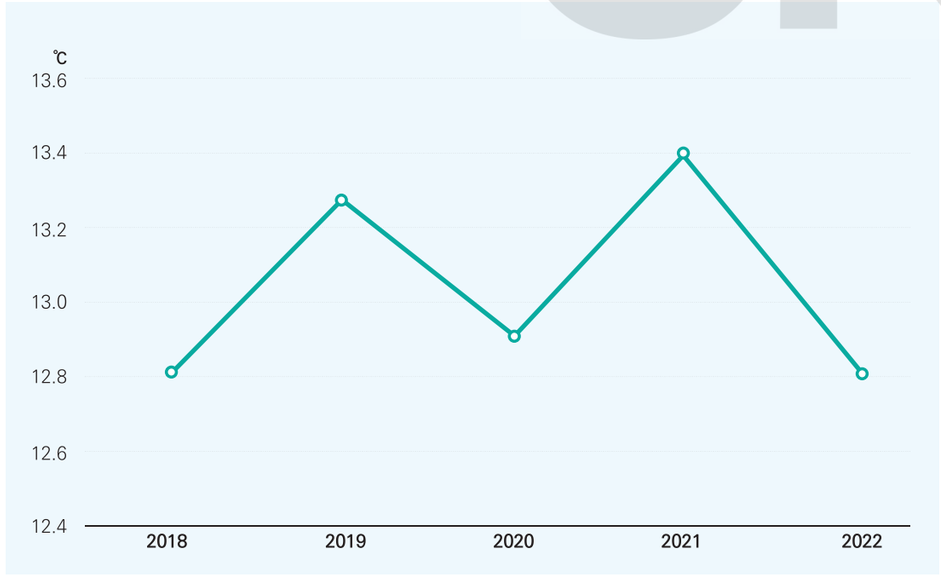
연평균 기온

연도별 평균기온 (2018~2022년)

연도	평균기온(℃)
2018	12.8
2019	13.3
2020	12.9
2021	13.4
2022	12.8

※ 출처 : 기상자료개방포털 – 종관기상관측

연도별 평균기온(2018~2022년)



계절 평균기온 및 최고·최저기온

월별 평균기온, 최저기온, 최고기온(2022년)

월	평균기온(℃)	최저기온(℃)	최고기온(℃)
1	-2.21	-7.29	3.06
2	-1.08	-6.04	4.11
3	7.15	1.77	12.85
4	13.53	7.95	20.04
5	18.06	12.33	24.22
6	23.08	19.22	27.71
7	27.08	23.67	31.22
8	25.54	22.56	29.16
9	22.08	17.66	27.53
10	14.32	9.51	19.86
11	9.54	4.12	15.66
12	-3.93	-8.42	0.83

※ 출처 : 기상자료개방포털 – 종관기상관측

강수량

연도별 일 강수량 (2018~2022년)

연도	일강수량(㎜)
2018	10.1818898
2019	6.63623188
2020	10.6895425
2021	6.69382716
2022	12.9444444

※ 출처 : 기상자료개방포털 – 종관기상관측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6 교육 시설

| 유치원 및 어린이집 |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개수 및 접근성(20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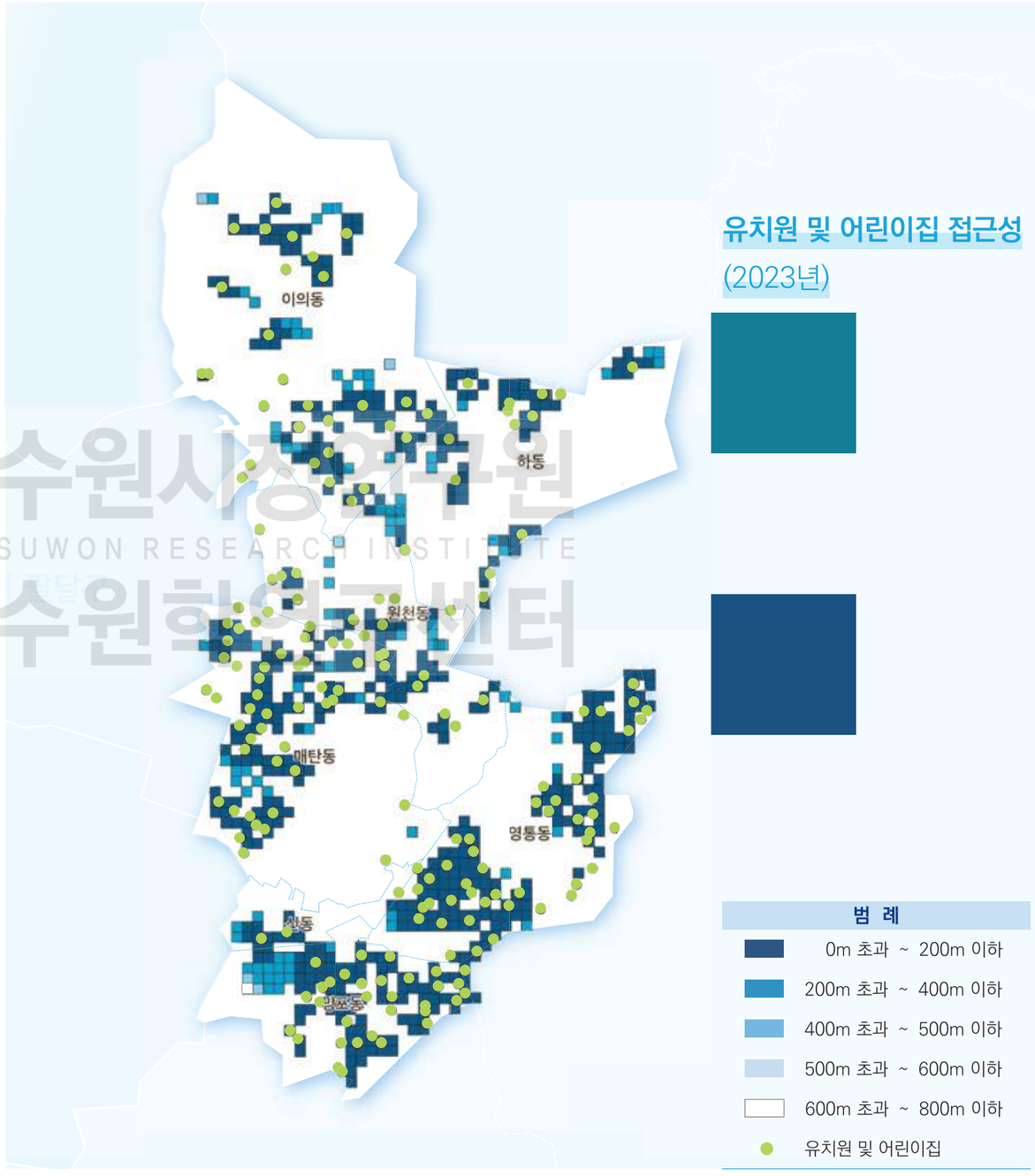
법정동	유아인구	시설개수	1개소당 인구수	평균 최단거리(m)
망포동	3,212	68	47.2	129.35
매탄동	1,912	120	15.9	101.66
신동	286	6	47.7	128.68
영통동	3,059	134	22.8	98.01
원천동	1,468	28	52.4	166.61
이의동	2,007	48	41.8	134.09
하동	1,368	26	52.6	127.87

※ 출처 : 시설 | 경기도 데이터 드림 – 유치원 및 어린이집 현황(2023년)　인구수 | 국토지리정보원 – 100×100(m) 기준 아동 인구수(2023년)
※ 도보 10분 거리 기준 – 800m　※ 접근성 분석 방법 : 인구 격자 중심 point와 시설 간 최단 거리를 계산하여 최단거리가 800m 이내인 격자를 추출, 격자 내 인구수/비율을 구함

유치원 및 어린이집 인구격자별 접근성(2023년)

구분	격자별 평균거리 (m)	800m 내 접근 가능한 인구수	총 인구수	800m 내 접근 가능한 인구 비율 (%)	800m 내 접근 가능한 격자수	총 격자수	800m 내 접근 가능한 격자 비율 (%)
유치원, 어린이집	122.6072707	15,006	15,006	100	658	658	100

※ 출처 : 시설 | 경기도 데이터 드림 – 유치원 및 어린이집 현황(2023년)　인구수 | 국토지리정보원 – 100×100(m) 기준 아동 인구수(2023년)
※ 도보 10분 거리 기준 – 800m　※ 접근성 분석 방법 : 인구 격자 중심 point와 시설 간 최단 거리를 계산하여 최단거리가 800m 이내인 격자를 추출, 격자 내 인구수/비율을 구함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초등학교

초등학교 시설개수 및 접근성(2023년)

법정동	초등학생 학생수	시설개수	1개소당 인구수	평균 최단거리(m)
망포동	4,753	4	1,188.25	316.133963
매탄동	3,229	8	403.625	245.587047
신동	224	–	–	713.402779
영통동	4,510	8	563.75	259.87328
원천동	2,378	5	475.6	303.803654
이의동	3,774	3	1,258	482.717567
하동	1,533	–	–	1,232.294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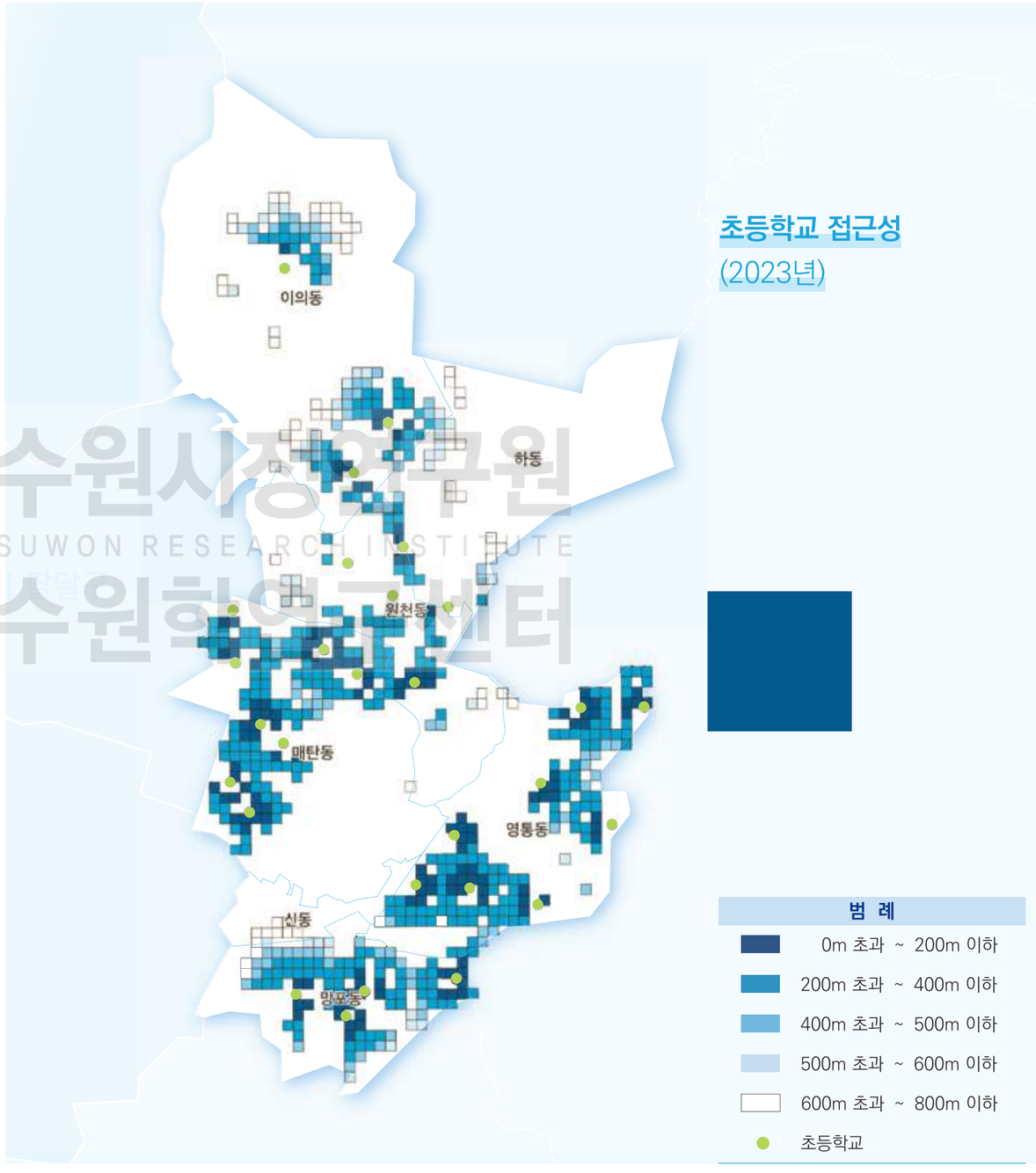
※ 출처 : 시설 | 경기도 데이터 드림 – 초등학교 현황(2023년) 인구수 | 국토지리정보원 – 100×100(m) 기준 초등학교 인구수(2023년)
※ 도보 10분 거리 기준 – 800m ※ 접근성 분석 방법 : 인구 격자 중심 point와 시설 간 최단 거리를 계산하여 최단거리가 800m 이내인 격자를 추출, 격자 내 인구수/비율을 구함

초등학교 인구격자별 접근성(2023년)

구분	격자별 평균거리 (m)	800m 내 접근 가능한 인구수	총 인구수	800m 내 접근 가능한 인구 비율 (%)	800m 내 접근 가능한 격자수	총 격자수	800m 내 접근 가능한 격자 비율 (%)
고등학교	408.4924401	21,274	22,765	93	656	713	92

※ 출처 : 시설 | 경기도 데이터 드림 – 초등학교 현황(2023년) 인구수 | 국토지리정보원 – 100×100(m) 기준 초등학교 인구수(2023년)
※ 도보 10분 거리 기준 – 800m ※ 접근성 분석 방법 : 인구 격자 중심 point와 시설 간 최단 거리를 계산하여 최단거리가 800m 이내인 격자를 추출, 격자 내 인구수/비율을 구함

초등학교 접근성
(2023년)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중학교

중학교 시설개수 및 접근성(2023년)

법정동	중학생 학생수	시설개수	1개소 당 인구수	평균 최단거리(m)
망포동	2,043	2	1,021.5	450.543665
매탄동	1,997	6	332.833333	342.480536
신동	101	1	101	831.041691
영통동	2,717	5	543.4	348.62756
원천동	927	3	309	429.098645
이의동	1,828	3	609.333333	447.317539
하동	697	1	697	726.7277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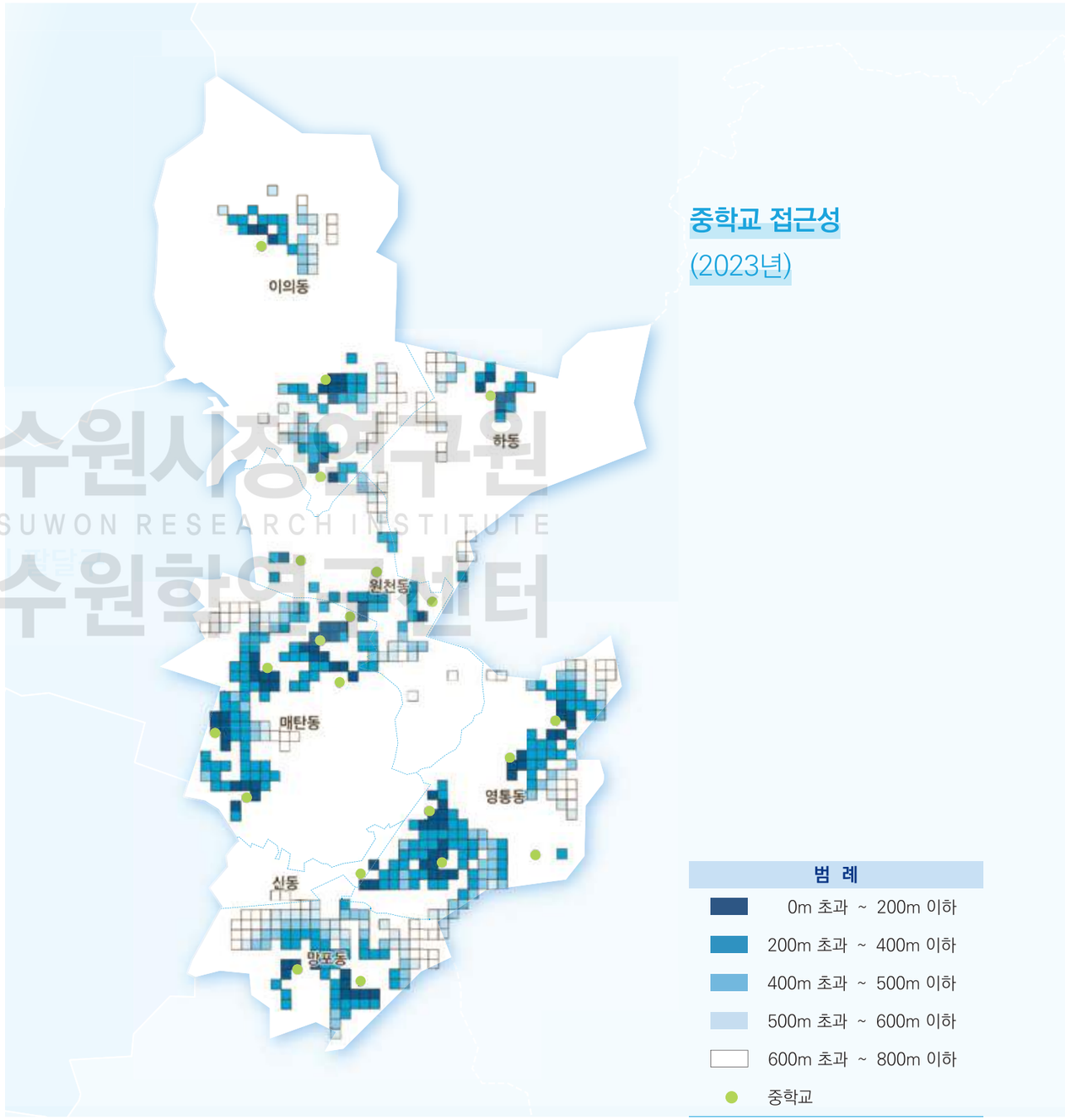
※ 출처 : 시설 | 경기도 데이터 드림 - 중학교 현황(2023년) 인구수 | 국토지리정보원 - 100×100(m) 기준 중학교 인구수(2023년)
※ 도보 10분 거리 기준 - 800m ※ 접근성 분석 방법 : 인구 격자 중심 point와 시설 간 최단 거리를 계산하여 최단거리가 800m 이내인 격자를 추출, 격자 내 인구수/비율을 구함

중학교 인구 격자별 접근성(2023년)

구분	격자별 평균거리 (m)	800m 내 접근 가능한 인구수	총 인구수	800m 내 접근 가능한 인구 비율 (%)	800m 내 접근 가능한 격자수	총 격자수	800m 내 접근 가능한 격자 비율 (%)
중학교	445.1028964	10,623	11,435	93	547	605	90

※ 출처 : 시설 | 경기도 데이터 드림 - 중학교 현황(2023년) 인구수 | 국토지리정보원 - 100×100(m) 기준 중학교 인구수(2023년)
※ 도보 10분 거리 기준 - 800m ※ 접근성 분석 방법 : 인구 격자 중심 point와 시설 간 최단 거리를 계산하여 최단거리가 800m 이내인 격자를 추출, 격자 내 인구수/비율을 구함

중학교 접근성 (2023년)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고등학교

고등학교 시설개수 및 접근성(2023년)

법정동	고등학생 학생수	시설개수	1개소당 인구수	평균 최단거리(m)
망포동	1,878	1	1,878	910.779311
매탄동	2,270	3	756.666667	471.542703
신동	127	-	-	1,270.57467
영통동	2,657	4	664.25	396.234299
원천동	672	1	672	747.801058
이의동	1,626	2	813	936.327994
하동	662	1	662	785.2031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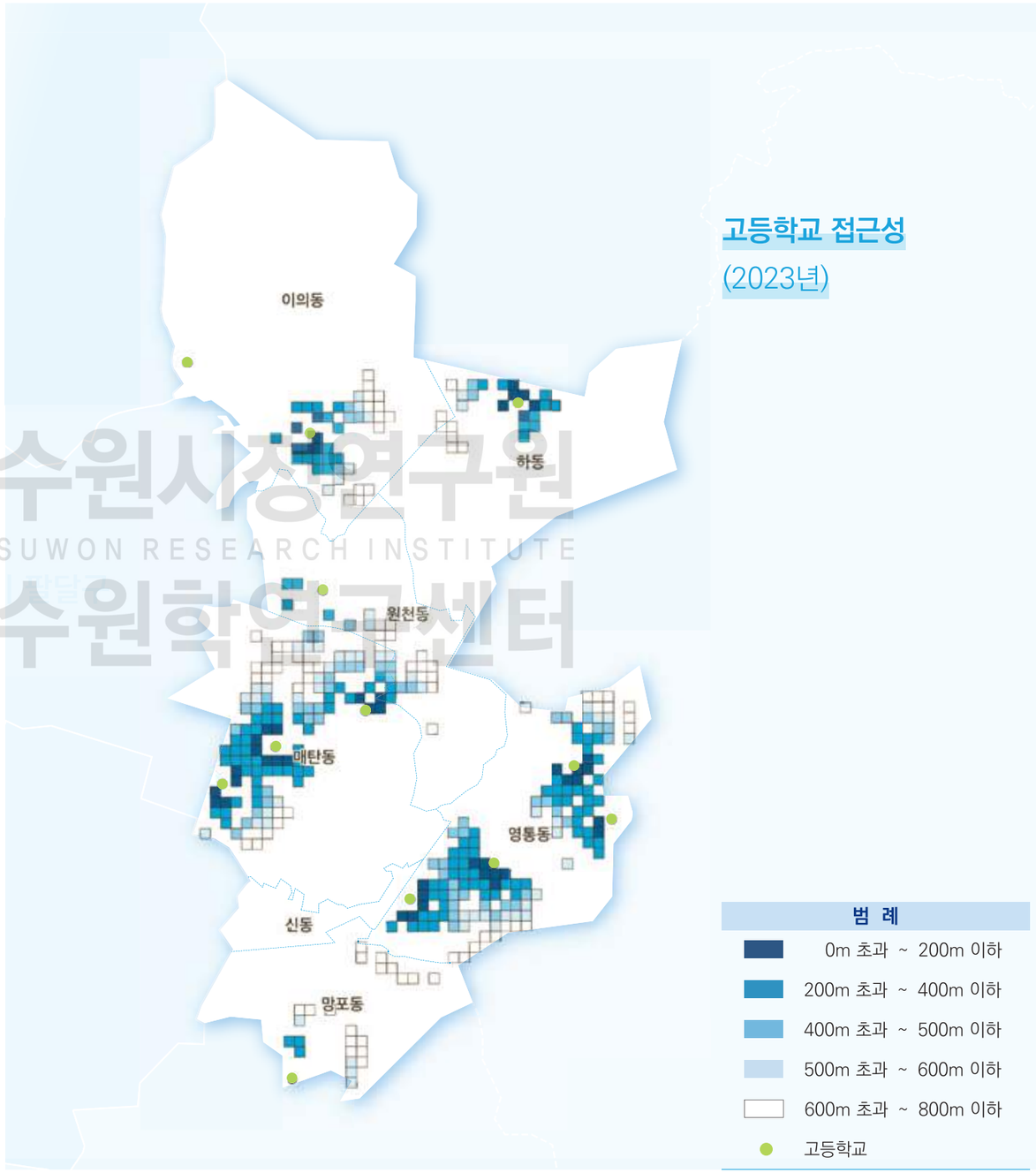
※ 출처 : 시설 | 경기도 데이터 드림 - 고등학교 현황(2023년) 인구수 | 국토지리정보원 - 100×100(m) 기준 고등학교 인구수(2023년)
※ 도보 10분 거리 기준 - 800m ※ 접근성 분석 방법 : 인구 격자 중심 point와 시설 간 최단 거리를 계산하여 최단거리가 800m 이내인 격자를 추출, 격자 내 인구수/비율을 구함

고등학교 격자별 접근성(2023년)

구분	격자별 평균거리 (m)	800m 내 접근 가능한 인구수	총 인구수	800m 내 접근 가능한 인구 비율 (%)	800m 내 접근 가능한 격자수	총 격자수	800m 내 접근 가능한 격자 비율 (%)
고등학교	683.6828954	7,160	10,959	65	381	602	63

※ 출처 : 시설 | 경기도 데이터 드림 - 고등학교 현황(2023년) 인구수 | 국토지리정보원 - 100×100(m) 기준 고등학교 인구수(2023년)
※ 도보 10분 거리 기준 - 800m ※ 접근성 분석 방법 : 인구 격자 중심 point와 시설 간 최단 거리를 계산하여 최단거리가 800m 이내인 격자를 추출, 격자 내 인구수/비율을 구함

고등학교 접근성
(20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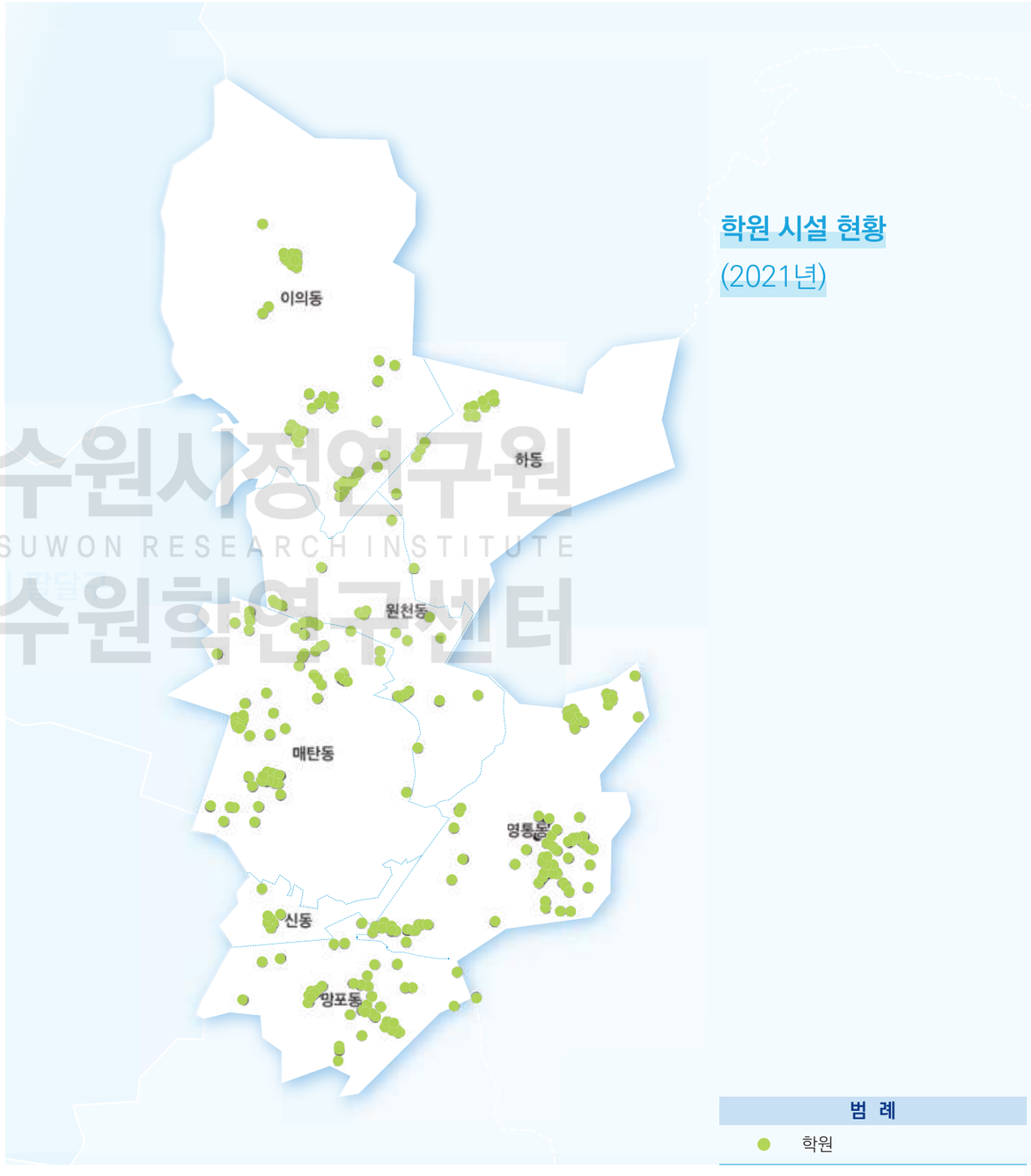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학원

학원 시설수 및 접근성(2021년)

법정동	학생수	시설명	1개소 당 인구수
망포동	8,674	167	51.9401198
매탄동	7,496	180	41.6444444
신동	452	14	32.2857143
영통동	9,884	329	30.0425532
원천동	3,977	57	69.7719298
이의동	7,228	200	36.14
하동	2,892	35	82.6285714

※ 출처 : 시설 | 경기도 데이터 드림 – 학원 및 교습소 현황(2021년)　인구수 | 국토지리정보원 – 100×100(m) 기준 학생 인구수(2023년)



학원 시설 현황
(2021년)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7 의료 시설

병의원

병의원 시설개수 및 접근성, 인구수 대비 의료인 비율(20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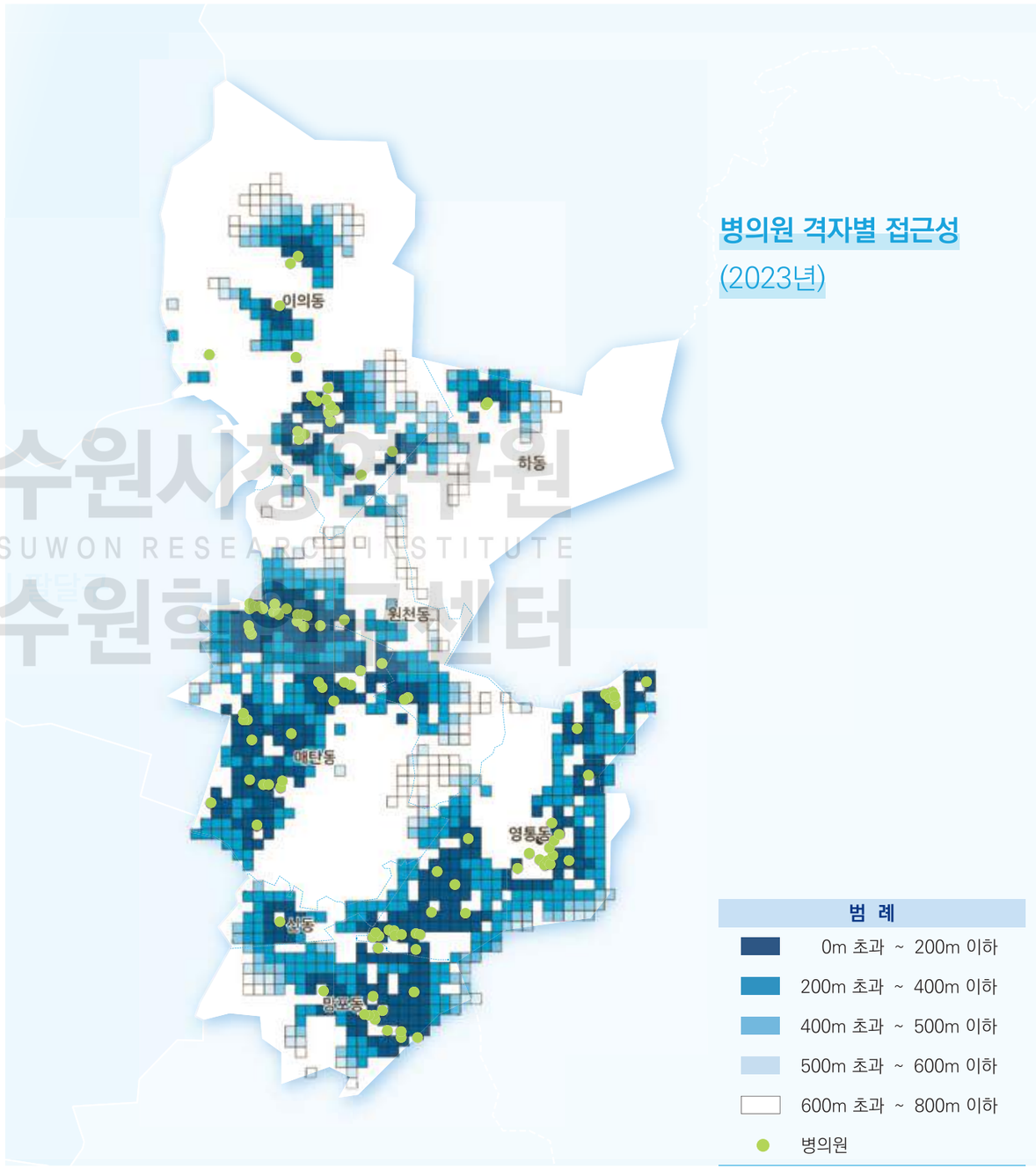
법정동	시설수	총인구수	의료인수	인구수 대비 의료인 비율	평균 최단거리(m)
망포동	28	54,112	92	1.70017741	266.788307
매탄동	54	72,030	116	1.61044009	217.235494
신동	1	5,007	1	0.19972039	209.895269
영통동	80	74,990	289	3.85384718	213.790203
원천동	11	31,823	149	4.68214813	436.657773
이의동	28	48,202	51	1.05804738	361.376491
하동	2	21,829	2	0.09162124	657.258852

※ 출처 : 시설 | 경기도 데이터 드림 - 경기도 병원/의원 현황(2023년) 인구수 | 국토지리정보원 - 100×100(m) 기준 인구수(2023년)
※ 도보 10분 거리 기준 - 800m ※ 접근성 분석 방법 : 인구 격자 중심 point와 시설 간 최단 거리를 계산하여 최단거리가 800m 이내인 격자를 추출, 격자 내 인구수/비율을 구함

병의원 격자별 접근성(2023년)

구분	격자별 평균거리 (m)	800m 내 접근 가능한 인구수	총 인구수	800m 내 접근 가능한 인구 비율 (%)	800m 내 접근 가능한 격자수	총 격자수	800m 내 접근 가능한 격자 비율 (%)
병의원	317.7075131	341,132	351,786	97	1074	1114	96

※ 출처 : 시설 | 경기도 데이터 드림 - 경기도 병원/의원 현황(2023년) 인구수 | 국토지리정보원 - 100×100(m) 기준 인구수(2023년)
※ 도보 10분 거리 기준 - 800m ※ 접근성 분석 방법 : 인구 격자 중심 point와 시설 간 최단 거리를 계산하여 최단거리가 800m 이내인 격자를 추출, 격자 내 인구수/비율을 구함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치과

치과 시설개수 및 접근성, 인구수 대비 의료인 비율(20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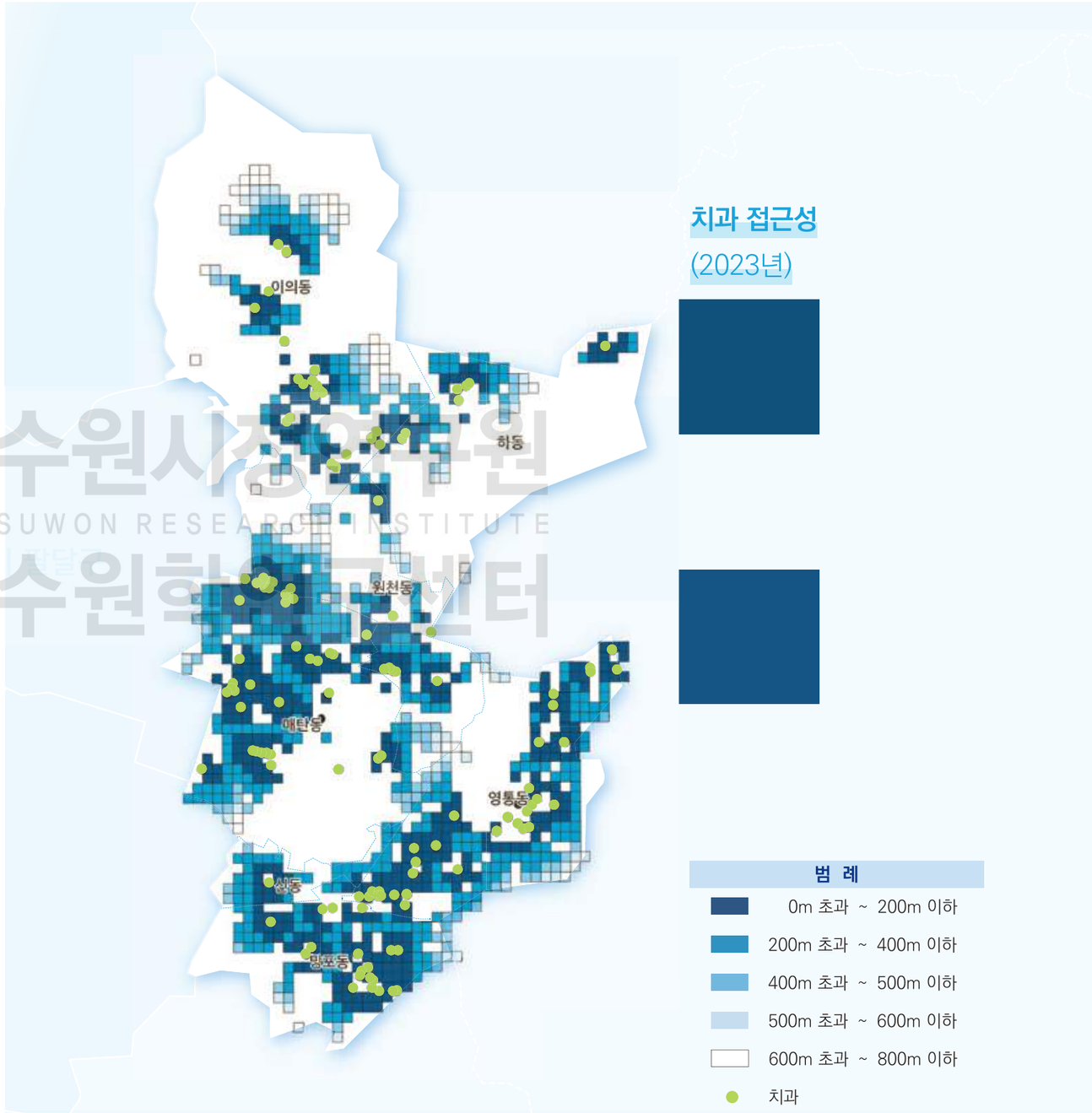
법정동	시설수	총인구수	의료인수	인구수 대비 의료인 비율	평균 최단거리(m)
망포동	36	54,112	45	0.83160852	203.338776
매탄동	44	72,030	53	0.73580453	199.391773
신동	1	5,007	1	0.19972039	209.895269
영통동	65	74,990	86	1.14681958	204.763062
원천동	20	31,823	30	0.94271439	309.559681
이의동	27	48,202	41	0.85058711	348.444036
하동	15	21,829	31	1.42012919	361.343348

※ 출처 : 시설 | 경기도 데이터 드림 - 경기도 치과 현황(2023년) 인구수 | 국토지리정보원 - 100×100(m) 기준 인구수(2023년)
※ 도보 10분 거리 기준 - 800m ※ 접근성 분석 방법 : 인구 격자 중심 point와 시설 간 최단 거리를 계산하여 최단거리가 800m 이내인 격자를 추출, 격자 내 인구수/비율을 구함

치과 격자별 접근성(2023년)

구분	격자별 평균거리 (m)	800m 내 접근 가능한 인구수	총 인구수	800m 내 접근 가능한 인구 비율 (%)	800m 내 접근 가능한 격자수	총 격자수	800m 내 접근 가능한 격자 비율 (%)
치과	264.9489806	347,699	351,786	99	1,092	1,114	98

※ 출처 : 시설 | 경기도 데이터 드림 - 경기도 치과 현황(2023년) 인구수 | 국토지리정보원 - 100×100(m) 기준 인구수(2023년)
※ 도보 10분 거리 기준 - 800m ※ 접근성 분석 방법 : 인구 격자 중심 point와 시설 간 최단 거리를 계산하여 최단거리가 800m 이내인 격자를 추출, 격자 내 인구수/비율을 구함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한의원

한의원 시설개수 및 접근성, 인구수 대비 의료인 비율(2022년)

법정동	시설수	총인구수	의료인수	인구수 대비 의료인 비율	평균 최단거리(m)
망포동	18	54,112	24	0.44352454	244.656088
매탄동	19	72,030	38	0.52755796	276.394259
신동		5,007			450.004163
영통동	26	74,990	90	1.20016002	257.770554
원천동	8	31,823	14	0.43993338	442.358223
이의동	11	48,202	16	0.33193643	608.860565
하동		21,829			1243.106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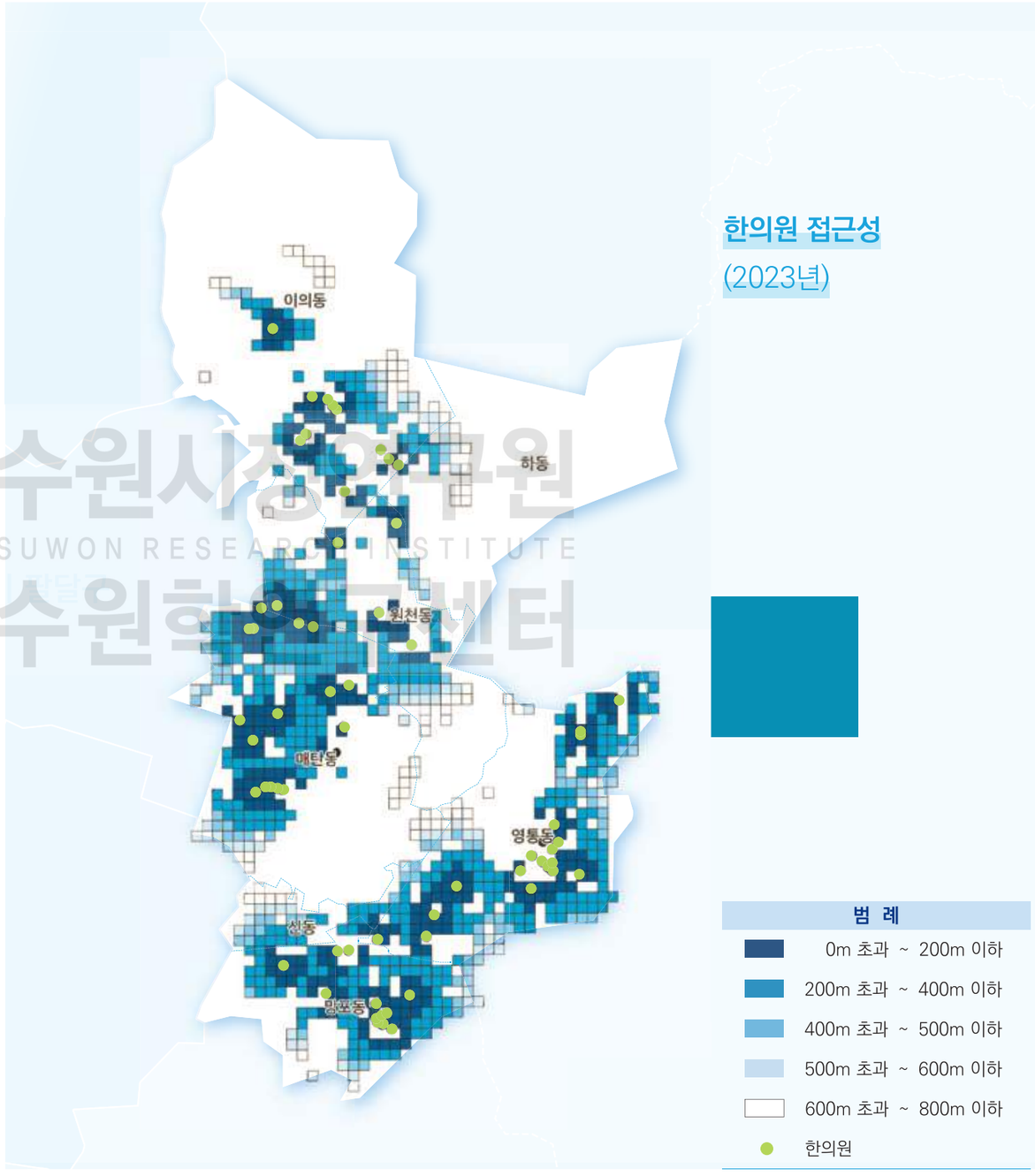
※ 출처 : 시설 | 경기도 데이터 드림 – 경기도 한방병원/의원 현황(2022년) 인구수 | 국토지리정보원 – 100×100(m) 기준 인구수(2023년)
※ 도보 10분 거리 기준 – 800m ※ 접근성 분석 방법 : 인구 격자 중심 point와 시설 간 최단 거리를 계산하여 최단거리가 800m 이내인 격자를 추출, 격자 내 인구수/비율을 구함

한의원 격자별 접근성(2022년)

구분	격자별 평균거리 (m)	800m 내 접근 가능한 인구수	총 인구수	800m 내 접근 가능한 인구 비율 (%)	800m 내 접근 가능한 격자수	총 격자수	800m 내 접근 가능한 격자 비율 (%)
한의원	434.0275648	317,738	351,786	90	950	1,114	85

※ 출처 : 시설 | 경기도 데이터 드림 – 경기도 한방병원/의원 현황(2022년) 인구수 | 국토지리정보원 – 100×100(m) 기준 인구수(2023년)
※ 도보 10분 거리 기준 – 800m ※ 접근성 분석 방법 : 인구 격자 중심 point와 시설 간 최단 거리를 계산하여 최단거리가 800m 이내인 격자를 추출, 격자 내 인구수/비율을 구함

한의원 접근성
(2023년)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약국

약국 시설개수 및 접근성(20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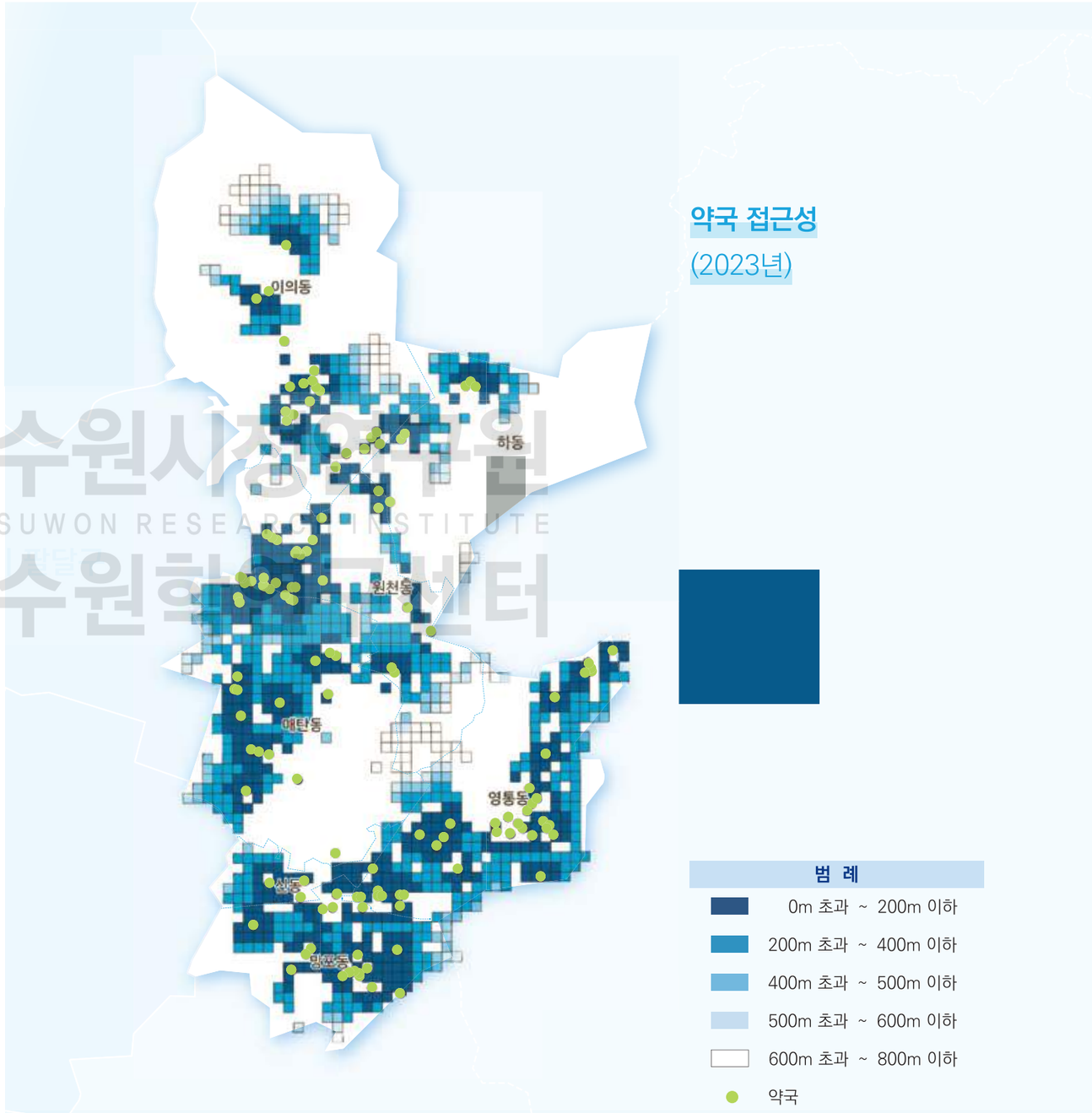
법정동	시설수	총인구수	평균 최단거리(m)
망포동	27	54,112	192.220427
매탄동	31	72,030	243.087464
신동	4	5,007	200.830417
영통동	42	74,990	190.499548
원천동	24	31,823	266.663684
이의동	20	48,202	353.935245
하동	5	21,829	519.219261

※ 출처 : 시설 | 경기도 데이터 드림 – 경기도 약국 현황(2023년) 인구수 | 국토지리정보원 – 100×100(m) 기준 인구수(2023년)
※ 도보 10분 거리 기준 – 800m ※ 접근성 분석 방법 : 인구 격자 중심 point와 시설 간 최단 거리를 계산하여 최단거리가 800m 이내인 격자를 추출, 격자 내 인구수/비율을 구함

약국 시설개수 및 접근성, 인구수 대비 의료인 비율(2023년)

구분	격자별 평균거리 (m)	800m 내 접근 가능한 인구수	총 인구수	800m 내 접근 가능한 인구 비율 (%)	800m 내 접근 가능한 격자수	총 격자수	800m 내 접근 가능한 격자 비율 (%)
약국	278.0836385	342,773	351,786	97	1,076	1,114	97

※ 출처 : 시설 | 경기도 데이터 드림 – 경기도 약국 현황(2023년) 인구수 | 국토지리정보원 – 100×100(m) 기준 인구수(2023년)
※ 도보 10분 거리 기준 – 800m ※ 접근성 분석 방법 : 인구 격자 중심 point와 시설 간 최단 거리를 계산하여 최단거리가 800m 이내인 격자를 추출, 격자 내 인구수/비율을 구함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보건소

보건소 목록

법정동	분류	기관명
영통동	보건소	수원시 영통구보건소

보건소 시설개수 및 접근성(2022년)

법정동	총인구수	평균 최단거리(m)
망포동	54,112	2,304.15966
매탄동	72,030	2,294.97262
신동	5,007	2,452.12392
영통동	74,990	966.736979
원천동	31,823	2,112.23327
이의동	48,202	5,033.95976
하동	21,829	3,766.269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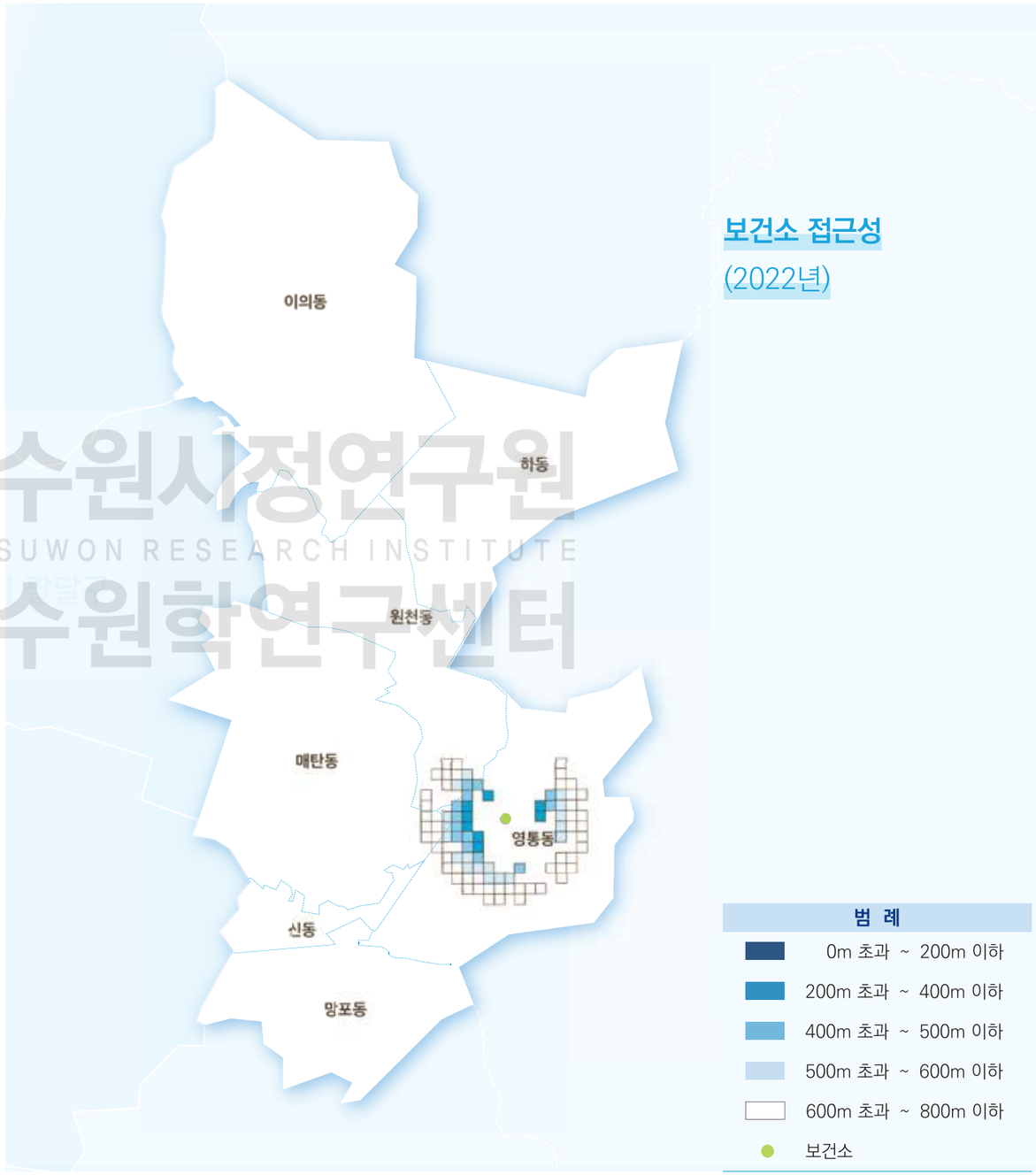
※ 출처 : 시설 | 경기도 데이터 드림 - 경기도 보건소/보건지소 현황(2022년) 인구수 | 국토지리정보원 - 100×100(m) 기준 인구수(2023년)
※ 도보 10분 거리 기준 - 800m ※ 접근성 분석 방법 : 인구 격자 중심 point와 시설 간 최단 거리를 계산하여 최단거리가 800m 이내인 격자를 추출, 격자 내 인구수/비율을 구함

보건소 격자별 접근성(2022년)

구분	격자별 평균거리 (m)	800m 내 접근 가능한 인구수	총 인구수	800m 내 접근 가능한 인구 비율 (%)	800m 내 접근 가능한 격자수	총 격자수	800m 내 접근 가능한 격자 비율 (%)
보건소	2564.102272	27,285	351,786	8	89	1,114	8

※ 출처 : 시설 | 경기도 데이터 드림 - 경기도 보건소/보건지소 현황(2022년) 인구수 | 국토지리정보원 - 100×100(m) 기준 인구수(2023년)
※ 도보 10분 거리 기준 - 800m ※ 접근성 분석 방법 : 인구 격자 중심 point와 시설 간 최단 거리를 계산하여 최단거리가 800m 이내인 격자를 추출, 격자 내 인구수/비율을 구함

보건소 접근성
(2022년)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8 문화 시설

| 박물관 및 미술관 |

박물관 및 미술관 목록

법정동	분류	시설명
원천동	박물관	이주대학교 도구박물관
원천동	박물관	지도박물관
이의동	박물관	수원박물관
이의동	박물관	수원광교박물관
이의동	박물관	경기대학교 소성박물관

박물관 및 미술관 시설개수 및 접근성(2023년)

법정동	총인구수	평균 최단거리(m)
망포동	54,112	3,907.12406
매탄동	72,030	1,514.03657
신동	5,007	3,276.07948
영통동	74,990	2,987.49461
원천동	31,823	828.294788
이의동	48,202	868.676847
하동	21,829	1,752.155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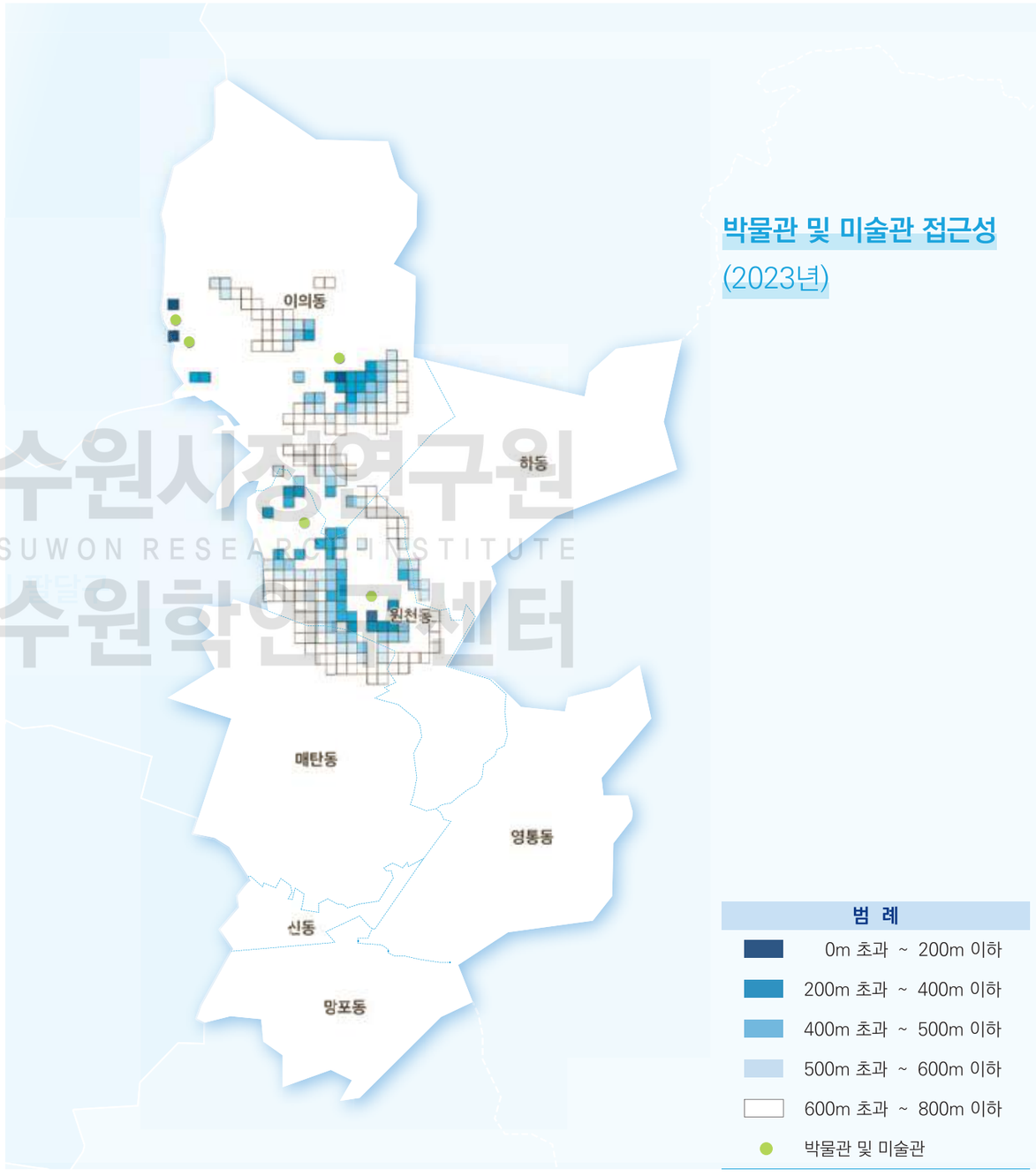
※ 출처 : 시설 | 경기도 데이터 드림 - 경기도 박물관 미술관 현황(2023년) 인구수 | 국토지리정보원 - 100×100(m) 기준 인구수(2023년)
※ 도보 10분 거리 기준 - 800m ※ 접근성 분석 방법 : 인구 격자 중심 point와 시설 간 최단 거리를 계산하여 최단거리가 800m 이내인 격자를 추출, 격자 내 인구수/비율을 구함

박물관 및 미술관 격자별 접근성(2023년)

구분	격자별 평균거리 (m)	800m 내 접근 가능한 인구수	총 인구수	800m 내 접근 가능한 인구 비율 (%)	800m 내 접근 가능한 격자수	총 격자수	800m 내 접근 가능한 격자 비율 (%)
박물관 및 미술관	2017.953448	62,288	351,786	18	219	1,114	20

※ 출처 : 시설 | 경기도 데이터 드림 - 경기도 박물관 미술관 현황(2023년) 인구수 | 국토지리정보원 - 100×100(m) 기준 인구수(2023년)
※ 도보 10분 거리 기준 - 800m ※ 접근성 분석 방법 : 인구 격자 중심 point와 시설 간 최단 거리를 계산하여 최단거리가 800m 이내인 격자를 추출, 격자 내 인구수/비율을 구함

박물관 및 미술관 접근성
(2023년)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도서관

도서관 목록

법정동	시설명	장서수	이용자수(월간)	이용책수(월간)
이의동	광교홍재도서관	126,048	27,313	60,012
영통동	영통도서관	308,208	33,125	58,242
망포동	태장마루도서관	135,270	24,900	50,042
망포동	망포글빛도서관	52,673	28,488	54,754
하동	광교푸른숲도서관	57,666	26,544	54,604
매탄동	매여울도서관	55,801	22,577	45,825
매탄동	바른샘어린이도서관	128,279	8,927	28,081

도서관 시설개수 및 접근성(2023년)

법정동	총인구수	평균 최단거리(m)
망포동	54,112	560.145762
매탄동	72,030	628.655041
신동	5,007	776.55082
영통동	74,990	905.881165
원천동	31,823	922.824172
이의동	48,202	957.903067
하동	21,829	1,201.855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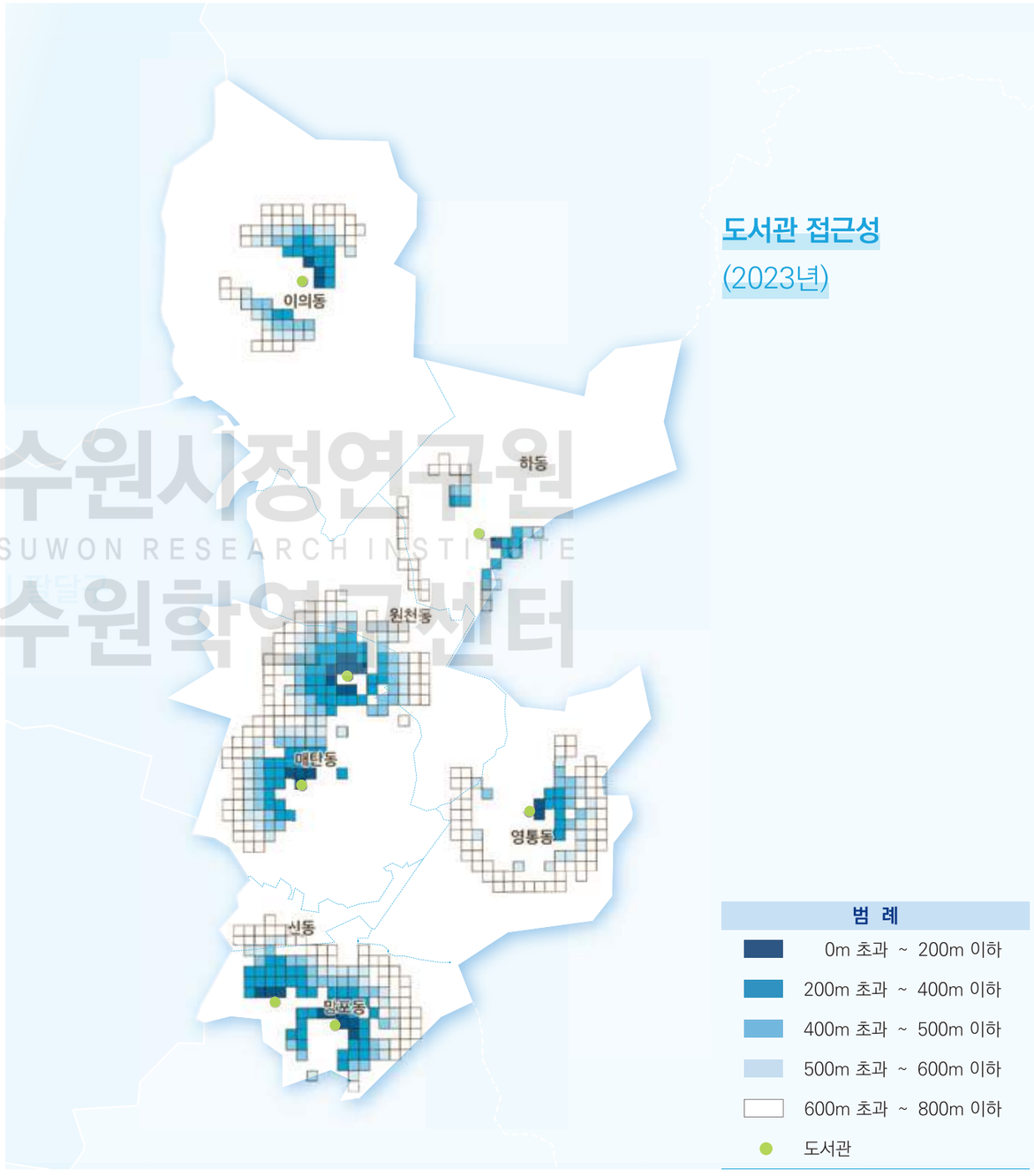
※ 출처 : 시설 | 수원시기본통계 – 공공도서관(2023년) 인구수 | 국토지리정보원 – 100×100(m) 기준 인구수(2023년)
※ 도보 10분 거리 기준 – 800m ※ 접근성 분석 방법 : 인구 격자 중심 point와 시설 간 최단 거리를 계산하여 최단거리가 800m 이내인 격자를 추출, 격자 내 인구수/비율을 구함

도서관 격자별 접근성(2023년)

구분	격자별 평균거리 (m)	800m 내 접근 가능한 인구수	총 인구수	800m 내 접근 가능한 인구 비율 (%)	800m 내 접근 가능한 격자수	총 격자수	800m 내 접근 가능한 격자 비율 (%)
도서관	850.1502494	168,464	351,786	48	526	1,114	47

※ 출처 : 시설 | 수원시기본통계 – 공공도서관(2023년) 인구수 | 국토지리정보원 – 100×100(m) 기준 인구수(2023년)
※ 도보 10분 거리 기준 – 800m ※ 접근성 분석 방법 : 인구 격자 중심 point와 시설 간 최단 거리를 계산하여 최단거리가 800m 이내인 격자를 추출, 격자 내 인구수/비율을 구함

도서관 접근성
(2023년)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영화관

영화관 시설개수 및 접근성(2023년)

법정동	총인구수	평균 최단거리(m)
망포동	54,112	2,123.30482
매탄동	72,030	2,151.3169
신동	5,007	2,497.06679
영통동	74,990	857.627982
원천동	31,823	1,273.14842
이의동	48,202	1,568.60995
하동	21,829	1,370.579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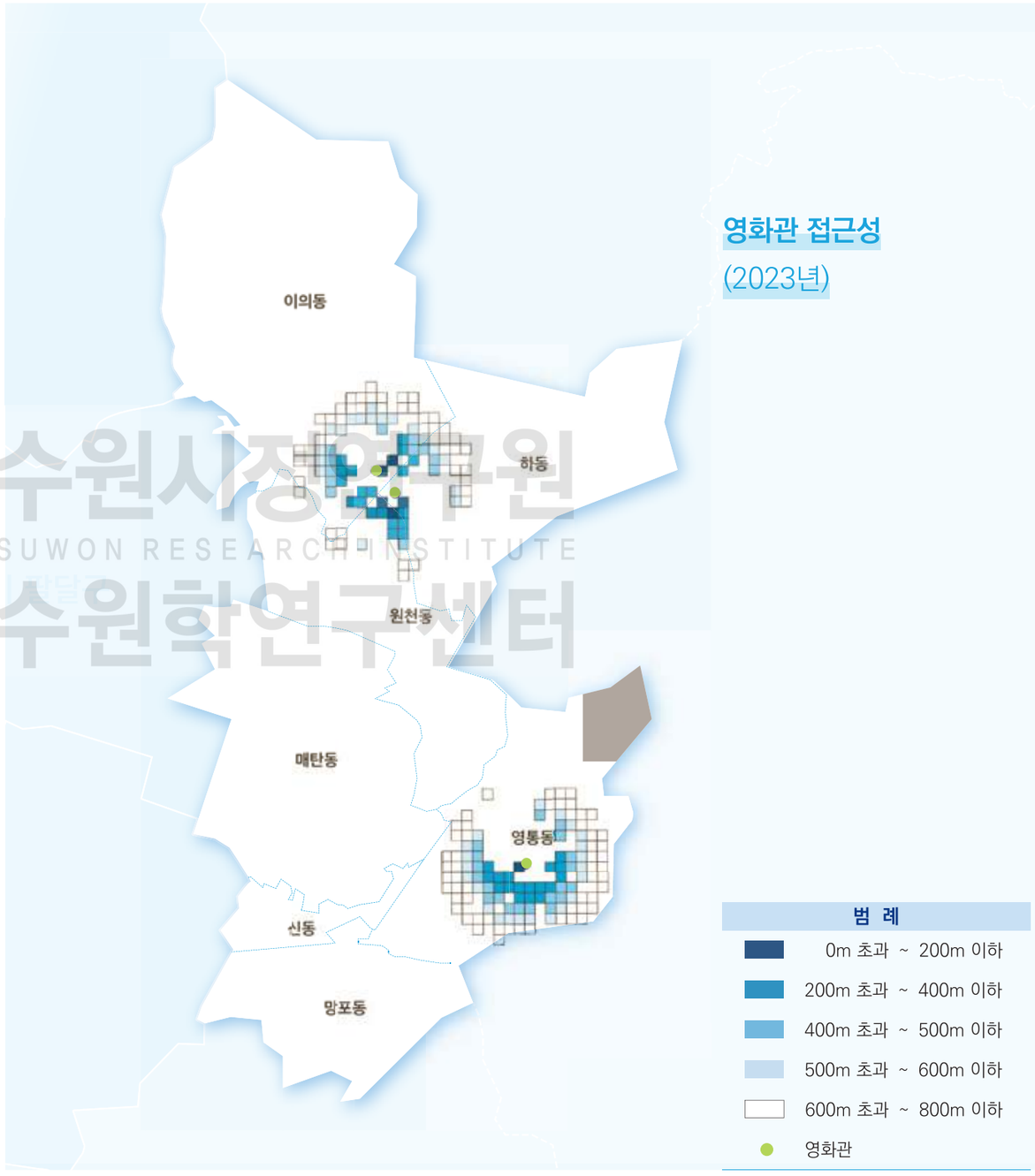
※ 출처 : 시설 | 수원시기본통계 – 영상시설(2023년) 인구수 | 국토지리정보원 – 100×100(m) 기준 인구수(2023년)
※ 도보 10분 거리 기준 – 800m ※ 접근성 분석 방법 : 인구 격자 중심 point와 시설 간 최단 거리를 계산하여 최단거리가 800m 이내인 격자를 추출, 격자 내 인구수/비율을 구함

영화관 격자별 접근성(2023년)

구분	격자별 평균거리 (m)	800m 내 접근 가능한 인구수	총 인구수	800m 내 접근 가능한 인구 비율 (%)	800m 내 접근 가능한 격자수	총 격자수	800m 내 접근 가능한 격자 비율 (%)
영화관	1601.186107	88,275	351,786	25	213	1,114	19

※ 출처 : 시설 | 수원시기본통계 – 영상시설(2023년) 인구수 | 국토지리정보원 – 100×100(m) 기준 인구수(2023년)
※ 도보 10분 거리 기준 – 800m ※ 접근성 분석 방법 : 인구 격자 중심 point와 시설 간 최단 거리를 계산하여 최단거리가 800m 이내인 격자를 추출, 격자 내 인구수/비율을 구함

영화관 접근성 (2023년)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영화관 목록(2023년)

법정동	영화관명
영통동	메가박스(주)영통지점 MX관
	메가박스(주)영통지점 2관
	메가박스(주)영통지점 3관
	메가박스(주)영통지점 4관
	메가박스(주)영통지점 5관
	메가박스(주)영통지점 6관
	메가박스(주)영통지점 7관
	메가박스(주)영통지점 8관
	메가박스(주)영통지점 9관
	메가박스(주)영통지점 퍼피시네마1관
	메가박스(주)영통지점 퍼피시네마2관
이의동	롯데시네마 광교아울렛 제1관
	롯데시네마 광교아울렛 제2관
	롯데시네마 광교아울렛 제3관
	롯데시네마 광교아울렛 제4관
	롯데시네마 광교아울렛 제5관
	롯데시네마 광교아울렛 제6관
하동	CGV광교 1관
	CGV광교 2관
	CGV광교 3관
	CGV광교 4관
	CGV광교 5관
	CGV광교 6관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공연장

공연장 목록

법정동	분류	공연장명
매탄동	공연장	진아트센터
원천동	공연장	레이크아트홀

공연장 시설개수 및 접근성(2022년)

법정동	총인구수	평균 최단거리(m)
망포동	54,112	3,273.94454
매탄동	72,030	831.086339
신동	5,007	2,466.14786
영통동	74,990	2,922.81903
원천동	31,823	1,043.03725
이의동	48,202	2,075.65463
하동	21,829	1,525.890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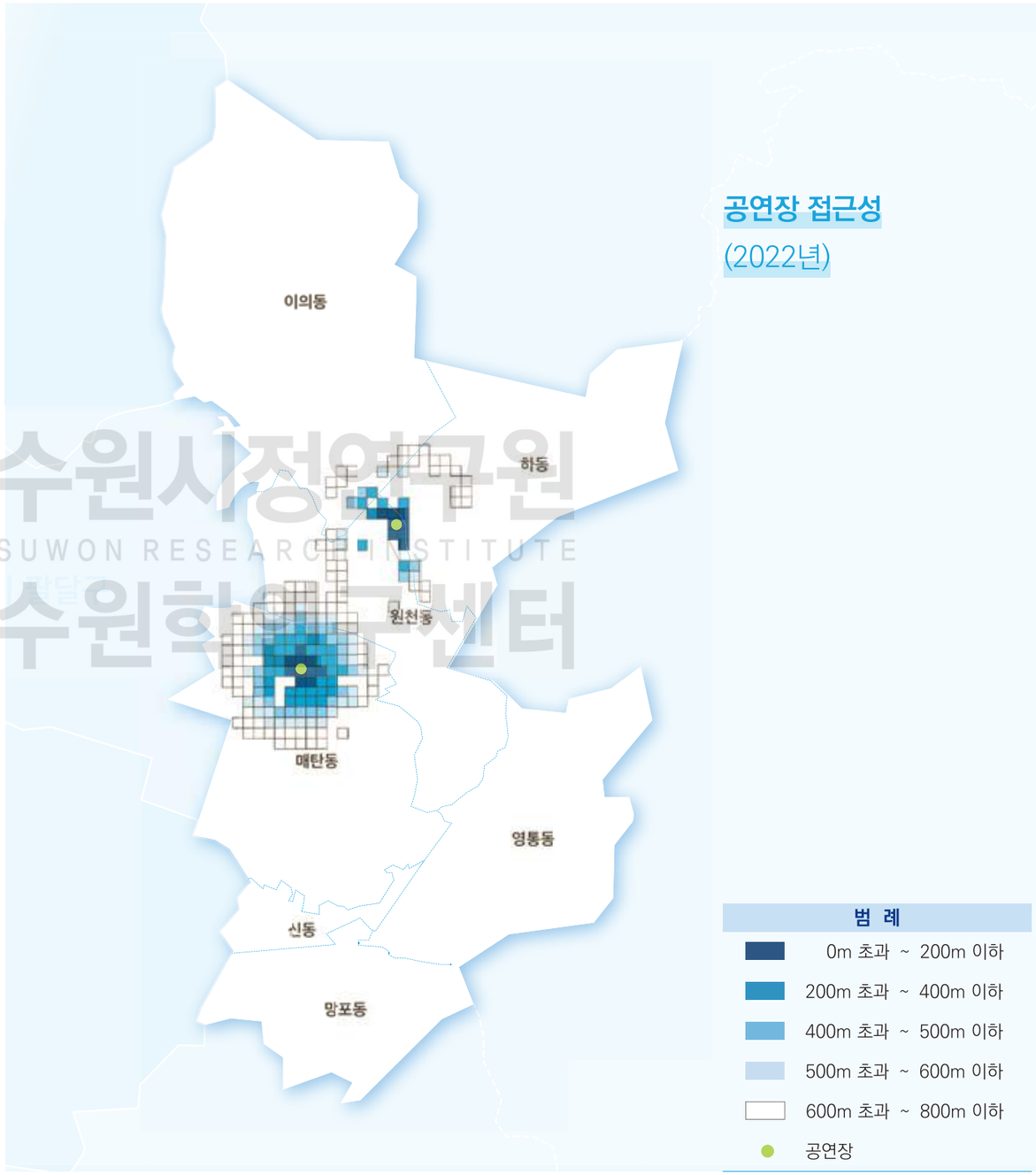
※ 출처 : 시설 | 경기도 데이터 드림 - 경기도 공연장 현황(2022년) 인구수 | 국토지리정보원 - 100×100(m) 기준 인구수(2023년)
※ 도보 10분 거리 기준 - 800m ※ 접근성 분석 방법 : 인구 격자 중심 point와 시설 간 최단 거리를 계산하여 최단거리가 800m 이내인 격자를 추출, 격자 내 인구수/비율을 구함

공연장 격자별 접근성(2022년)

구분	격자별 평균거리 (m)	800m 내 접근 가능한 인구수	총 인구수	800m 내 접근 가능한 인구 비율 (%)	800m 내 접근 가능한 격자수	총 격자수	800m 내 접근 가능한 격자 비율 (%)
공연장	1946.635765	71,140	351,786	20	214	1,114	19

※ 출처 : 시설 | 경기도 데이터 드림 - 경기도 공연장 현황(2022년) 인구수 | 국토지리정보원 - 100×100(m) 기준 인구수(2023년)
※ 도보 10분 거리 기준 - 800m ※ 접근성 분석 방법 : 인구 격자 중심 point와 시설 간 최단 거리를 계산하여 최단거리가 800m 이내인 격자를 추출, 격자 내 인구수/비율을 구함

공연장 접근성 (2022년)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문화재

문화재 현황(2022년)

이름	수량	소유자	주소
박유명 초상화	1본	수원시	수원박물관(영통구 창룡대로265)
영조어필-읍궁진장첩	1첩	수원시	수원박물관(영통구 창룡대로265)
박태유필적 백석유묵첩	1첩	수원시	수원박물관(영통구 창룡대로265)
오산 구성이씨, 여흥이씨 묘 출토복식	96건 124점	국 유	수원박물관(영통구 창룡대로265)
팔달문동종	1기	국 유	수원박물관(영통구 창룡대로265)
김우형 서첩 기오재희묵	1점	수원시	수원박물관(영통구 창룡대로 265)
윤증 서첩 유봉필첩	1점	수원시	수원박물관(영통구 창룡대로 265)
두륜청사첩, 삼사탑명첩	2첩	수원시	수원박물관(영통구 창룡대로 265)
정조한글어필-빈풍칠월편	2점	수원시	수원박물관(영통구 창룡대로 265)
영조예필-송죽	1점	수원시	수원박물관(영통구 창룡대로 265)
영조 사 조현명 어필첩	5점	수원시	수원박물관(영통구 창룡대로 265) 수원화성박물관(팔달구 창룡대로 21)
정조예필-주희시첩	1점	수원시	수원박물관(영통구 창룡대로 265)
정조어필-유시	1점	수원시	수원박물관(영통구 창룡대로 265)
성수침 서첩-청송진묵	1점	수원시	수원박물관(영통구 창룡대로 265)

※ 출처 : 수원시청 문화예술과(2022년 현황)

이름	수량	소유자	주소
송준길 서첩-민기묘표, 신도비명	1점	수원시	수원박물관(영통구 창룡대로 265)
김수증 서첩-곡운희묵	1점	수원시	수원박물관(영통구 창룡대로 265)
영조·정조 사 김종수 어제어필첩	7첩	수원시	수원박물관(영통구 창룡대로 265)
심온선생묘	1기	사 유	영통구 이의동 산13-10
박유명초상 모본	1점	박근성	수원박물관(영통구 창룡대로 265)
수원 방화수류정 자개상	1점	수원시	수원박물관(영통구 창룡대로 265)
수원역대목민관 송덕비군	37기	수원시	수원박물관(영통구 창룡대로 265), 수원화성박물관(팔달구 창룡대로 21)
정유선생묘	1기	사 유	영통구 하동 1020
이목동 출토 석곽묘	1기	수원시	수원박물관(영통구 창룡대로 265)
이의동길마재줄다리기	의식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길마재 지역
수원 화서동 마애삼존불상	1좌	수원시	수원박물관(영통구 창룡대로 265)
화성관련 표석 일괄	5기	수원시	수원박물관(영통구 창룡대로 265), 수원화성박물관(팔달구 창룡대로 21),축만제 등
전주류씨 효자정문	2기	수원시	수원박물관(영통구 창룡대로 265)
안동김씨 참의공파 세장 묘역	일원	사 유	영통구 이의동 산42-1, 1215

※ 출처 : 수원시청 문화예술과(2022년 현황)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9 체육 시설

| 축구장 및 야구장 |

경기장 목록

법정동	분류
매탄동	매탄 인조잔디구장
원천동	원천배수지 야구장

축구장 및 야구장 시설개수 및 접근성(2022년)

법정동	총인구수	평균 최단거리(m)
망포동	54,112	3,042.56397
매탄동	72,030	747.327192
신동	5,007	2,186.19403
영통동	74,990	2,653.92658
원천동	31,823	920.259377
이의동	48,202	2,787.5319
하동	21,829	1,989.93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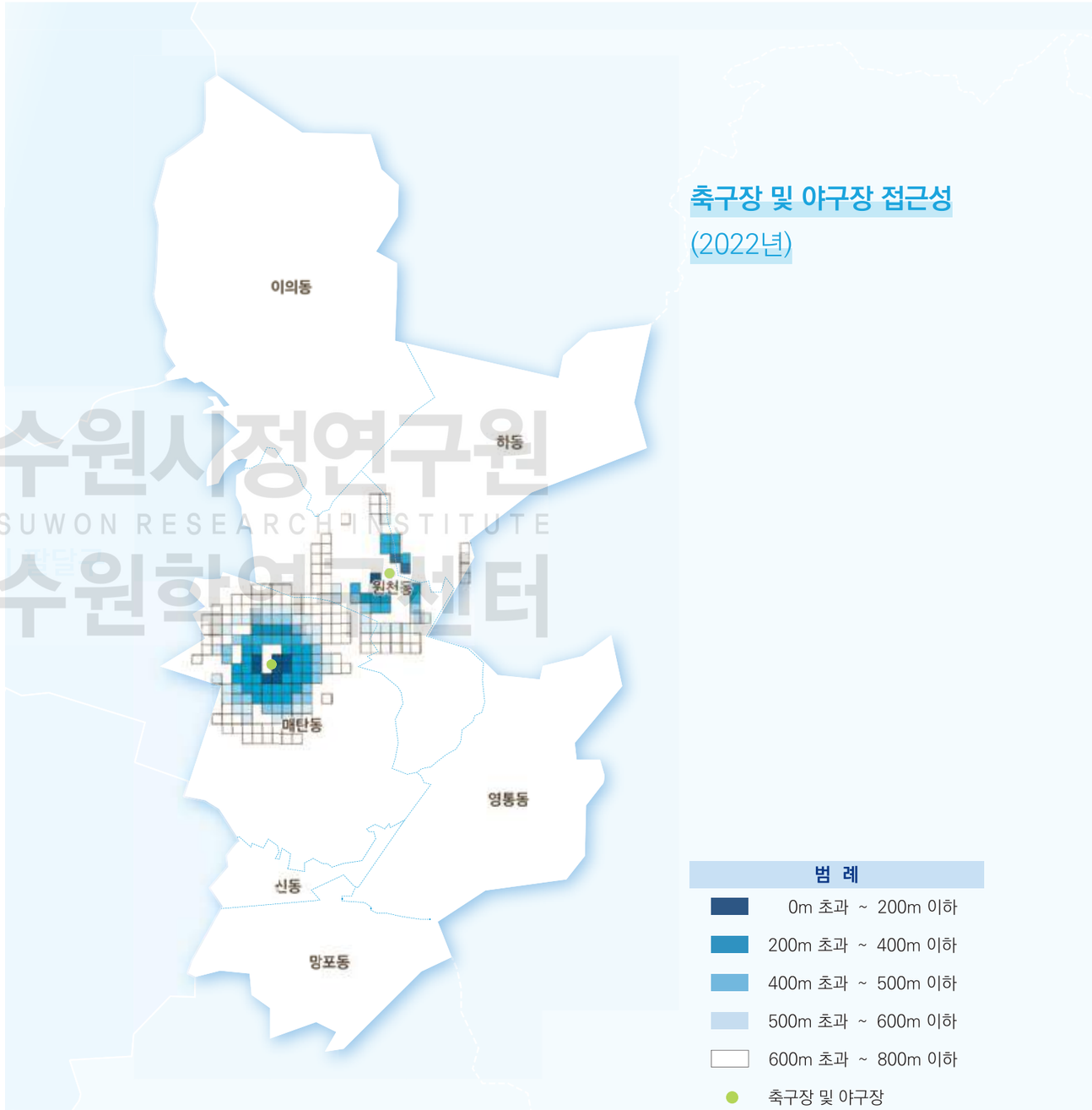
※ 출처 : 시설 | 수원시기본통계 - 구기종목(2022년) 인구수 | 국토지리정보원 - 100×100(m) 기준 인구수(2023년)
※ 도보 10분 거리 기준 - 800m ※ 접근성 분석 방법 : 인구 격자 중심 point와 시설 간 최단 거리를 계산하여 최단거리가 800m 이내인 격자를 추출, 격자 내 인구수/비율을 구함

축구장 및 야구장 격자별 접근성(2022년)

구분	격자별 평균거리 (m)	800m 내 접근 가능한 인구수	총 인구수	800m 내 접근 가능한 인구 비율 (%)	800m 내 접근 가능한 격자수	총 격자수	800m 내 접근 가능한 격자 비율 (%)
축구장 및 야구장	1971.103034	76,439	351,786	22	221	1,114	20

※ 출처 : 시설 | 수원시기본통계 - 구기종목(2022년) 인구수 | 국토지리정보원 - 100×100(m) 기준 인구수(2023년)
※ 도보 10분 거리 기준 - 800m ※ 접근성 분석 방법 : 인구 격자 중심 point와 시설 간 최단 거리를 계산하여 최단거리가 800m 이내인 격자를 추출, 격자 내 인구수/비율을 구함

축구장 및 야구장 접근성 (2022년)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수영장

수영장 시설개수 및 접근성(2023년)

법정동	시설수	총인구수	평균 최단거리(m)
망포동	14	54,112	462.162486
매탄동	29	72,030	263.815364
신동	4	5,007	739.93624
영통동	35	74,990	287.938393
원천동	9	31,823	419.434998
이의동	7	48,202	814.86295
하동		21,829	1,939.071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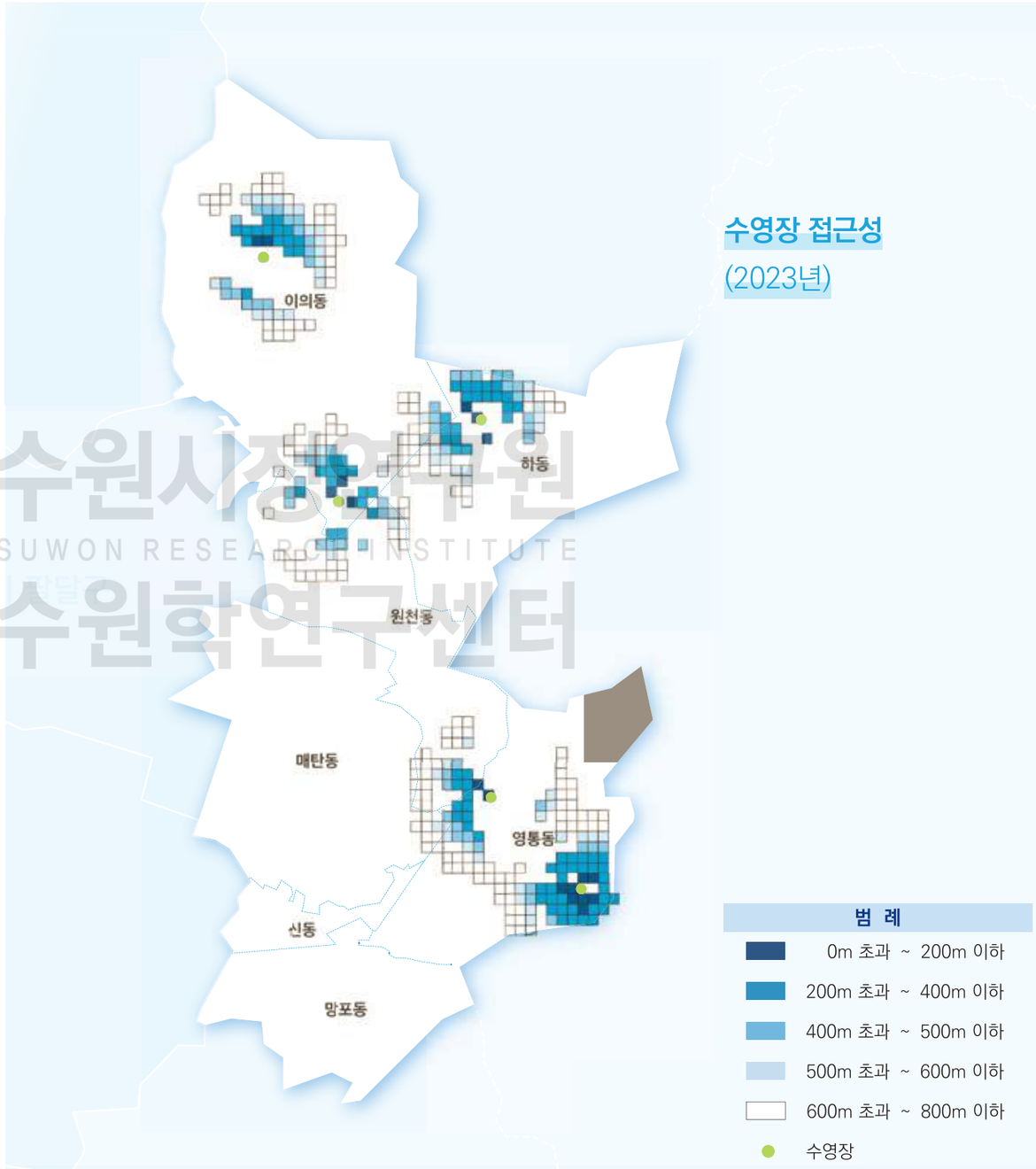
※ 출처 : 시설 | 경기도 데이터 드림 – 수영장 현황(2023년) 인구수 | 국토지리정보원 – 100×100(m) 기준 인구수(2023년)
※ 도보 10분 거리 기준 – 800m ※ 접근성 분석 방법 : 인구 격자 중심 point와 시설 간 최단 거리를 계산하여 최단거리가 800m 이내인 격자를 추출, 격자 내 인구수/비율을 구함

수영장 격자별 접근성(2023년)

구분	격자별 평균거리 (m)	800m 내 접근 가능한 인구수	총 인구수	800m 내 접근 가능한 인구 비율 (%)	800m 내 접근 가능한 격자수	총 격자수	800m 내 접근 가능한 격자 비율 (%)
수영장	1284.767924	105,739	351,786	30	367	1,114	33

※ 출처 : 시설 | 경기도 데이터 드림 – 수영장 현황(2023년) 인구수 | 국토지리정보원 – 100×100(m) 기준 인구수(2023년)
※ 도보 10분 거리 기준 – 800m ※ 접근성 분석 방법 : 인구 격자 중심 point와 시설 간 최단 거리를 계산하여 최단거리가 800m 이내인 격자를 추출, 격자 내 인구수/비율을 구함

수영장 접근성 (2023년)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 골프장 및 골프연습장 |

골프장 및 골프연습장 시설개수 및 접근성(2023년)

법정동	시설수	총인구수	평균 최단거리(m)
망포동	3	54,112	462.162486
매탄동	8	72,030	263.815364
신동	3	5,007	739.93624
영통동	22	74,990	287.938393
원천동	1	31,823	419.434998
이의동	7	48,202	814.86295
하동	15	21,829	1,939.071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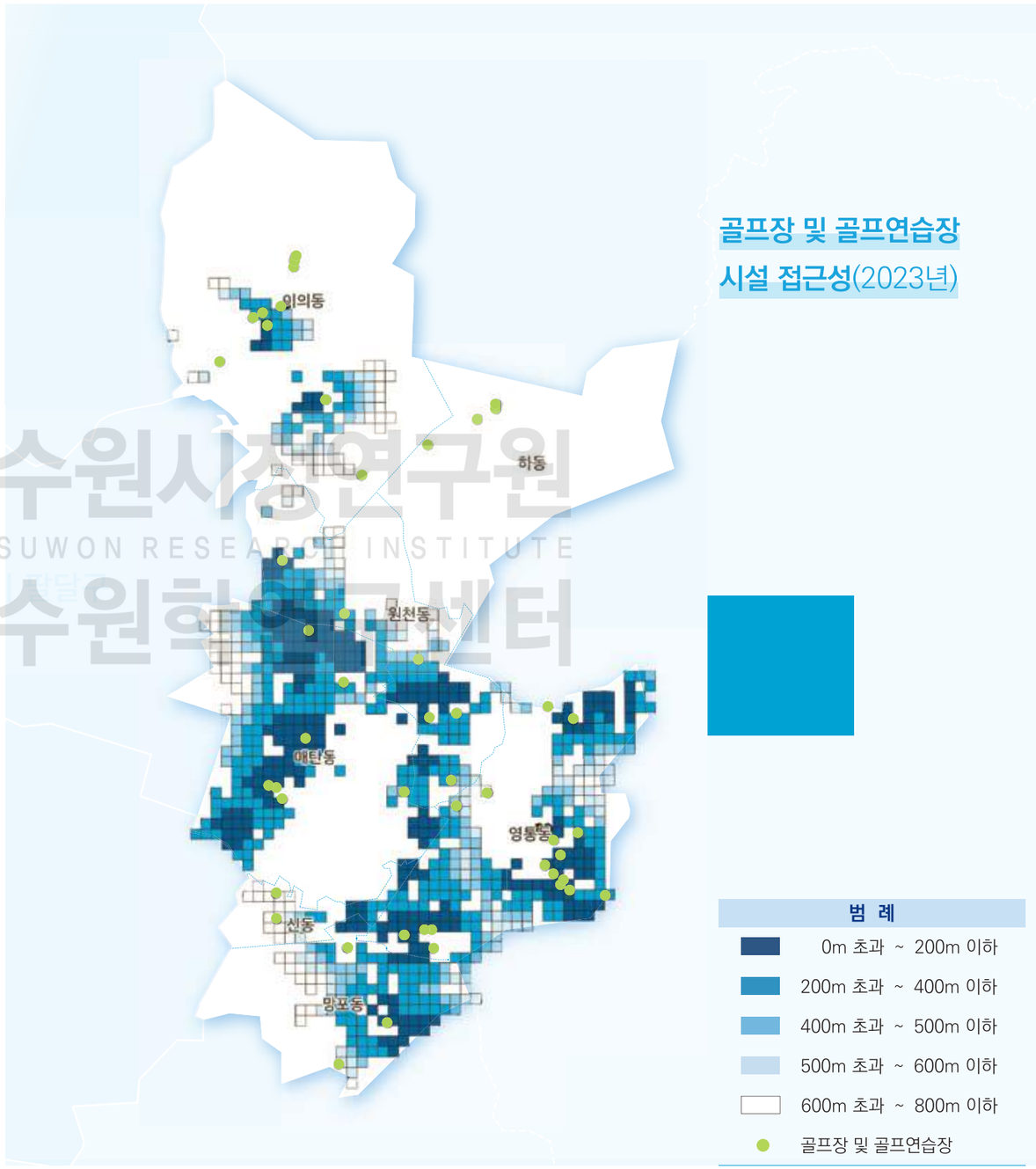
※ 출처 : 시설 | 경기도 데이터 드림 – 골프장 및 골프연습장 현황(2023년) 인구수 | 국토지리정보원 – 100×100(m) 기준 인구수(2023년)
※ 도보 10분 거리 기준 – 800m ※ 접근성 분석 방법 : 인구 격자 중심 point와 시설 간 최단 거리를 계산하여 최단거리가 800m 이내인 격자를 추출, 격자 내 인구수/비율을 구함

골프장 및 골프연습장 시설개수 및 접근성(2023년)

구분	격자별 평균거리 (m)	800m 내 접근 가능한 인구수	총 인구수	800m 내 접근 가능한 인구 비율 (%)	800m 내 접근 가능한 격자수	총 격자수	800m 내 접근 가능한 격자 비율 (%)
골프장 및 골프연습장	372.9969617	336,013	351,786	96	1,056	1,114	95

※ 출처 : 시설 | 경기도 데이터 드림 – 골프장 및 골프연습장 현황(2023년) 인구수 | 국토지리정보원 – 100×100(m) 기준 인구수(2023년)
※ 도보 10분 거리 기준 – 800m ※ 접근성 분석 방법 : 인구 격자 중심 point와 시설 간 최단 거리를 계산하여 최단거리가 800m 이내인 격자를 추출, 격자 내 인구수/비율을 구함

골프장 및 골프연습장 시설 접근성(2023년)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 가상체험 체육 시설 |

가상체험 체육 시설 개수 및 접근성(20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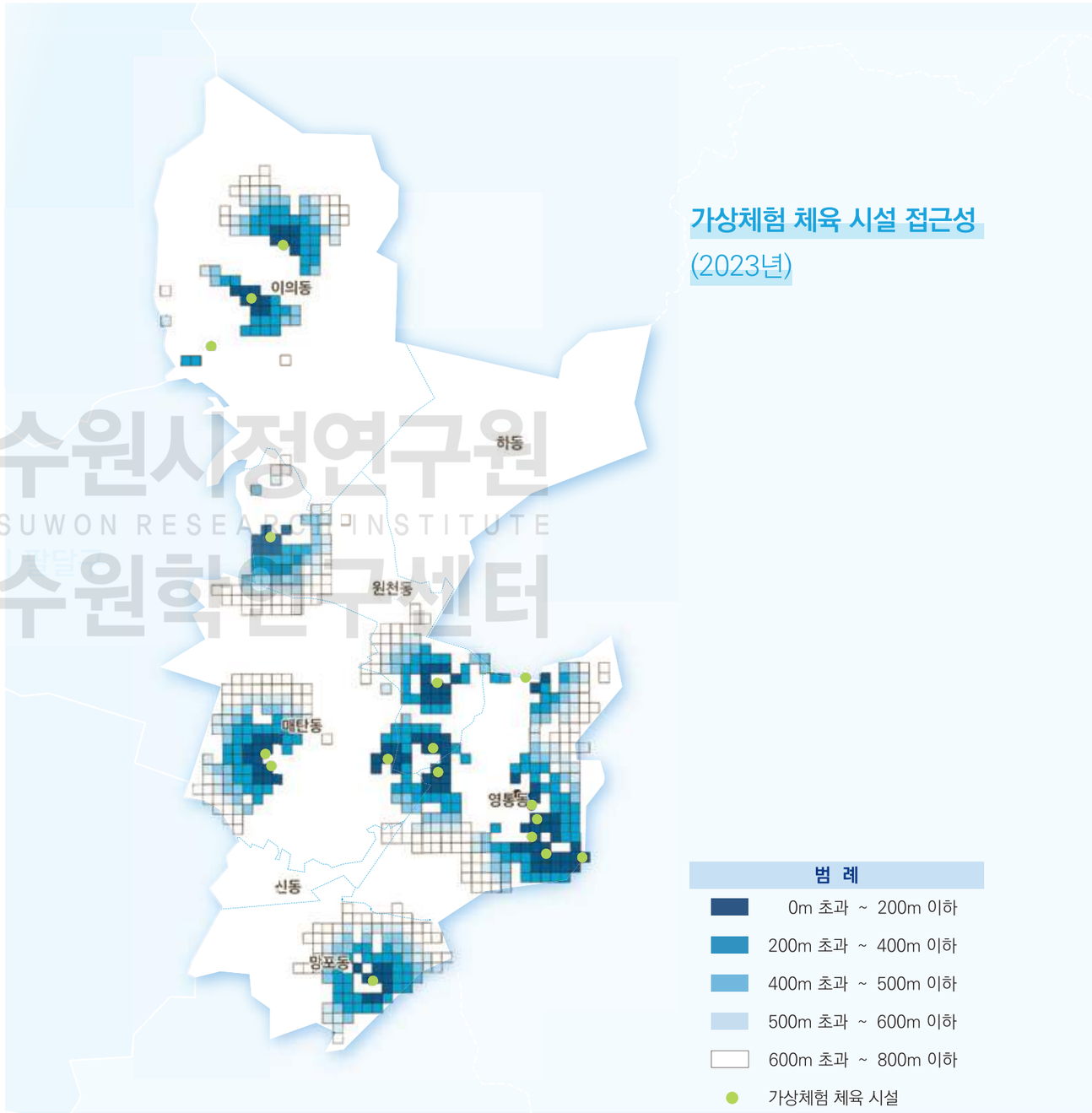
법정동	시설수	총인구수	평균 최단거리(m)
망포동	1	54,112	644.217371
매탄동	3	72,030	669.18913
신동	–	5,007	1,176.14835
영통동	9	74,990	531.267998
원천동	3	31,823	519.902519
이의동	3	48,202	799.486601
하동	–	21,829	2,356.84852

※ 출처 : 시설 | 경기도 데이터 드림 – 골프장 및 골프연습장 현황 중 스크린골프(2023년) 인구수 | 국토지리정보원 – 100×100(m) 기준 인구수(2023년)
※ 도보 10분 거리 기준 – 800m ※ 접근성 분석 방법 : 인구 격자 중심 point와 시설 간 최단 거리를 계산하여 최단거리가 800m 이내인 격자를 추출, 격자 내 인구수/비율을 구함

가상체험 체육 시설 접근성(2023년)

구분	격자별 평균거리 (m)	800m 내 접근 가능한 인구수	총 인구수	800m 내 접근 가능한 인구 비율 (%)	800m 내 접근 가능한 격자수	총 격자수	800m 내 접근 가능한 격자 비율 (%)
가상체험 체육시설	788.4624424	182,057	351,786	52	648	1,114	58

※ 출처 : 시설 | 경기도 데이터 드림 – 골프장 및 골프연습장 현황 중 스크린골프(2023년) 인구수 | 국토지리정보원 – 100×100(m) 기준 인구수(2023년)
※ 도보 10분 거리 기준 – 800m ※ 접근성 분석 방법 : 인구 격자 중심 point와 시설 간 최단 거리를 계산하여 최단거리가 800m 이내인 격자를 추출, 격자 내 인구수/비율을 구함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당구장

당구장 시설개수 및 접근성(20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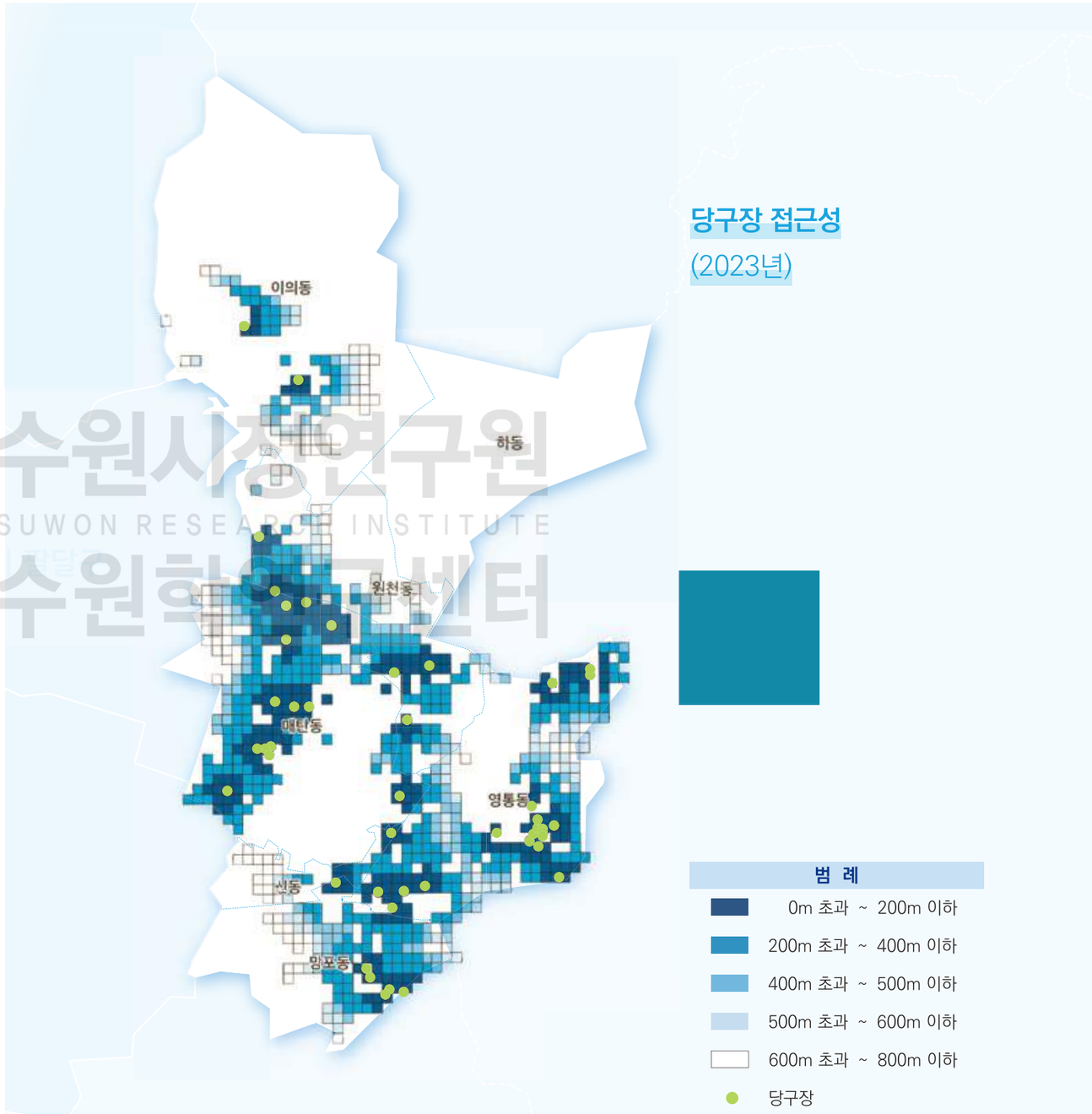
법정동	시설수	총인구수	평균 최단거리(m)
망포동	14	54,112	462.162486
매탄동	29	72,030	263.815364
신동	4	5,007	739.93624
영통동	35	74,990	287.938393
원천동	9	31,823	419.434998
이의동	7	48,202	814.86295
하동	-	21,829	1,939.07173

※ 출처 : 시설 | 경기도 데이터 드림 - 당구장 현황(2023년) 인구수 | 국토지리정보원 - 100×100(m) 기준 인구수(2023년)
※ 도보 10분 거리 기준 - 800m ※ 접근성 분석 방법 : 인구 격자 중심 point와 시설 간 최단 거리를 계산하여 최단거리가 800m 이내인 격자를 추출, 격자 내 인구수/비율을 구함

당구장 시설 격자별 접근성(2023년)

구분	격자별 평균거리 (m)	800m 내 접근 가능한 인구수	총 인구수	800m 내 접근 가능한 인구 비율 (%)	800m 내 접근 가능한 격자수	총 격자수	800m 내 접근 가능한 격자 비율 (%)
당구장	551.3452293	277,054	351,786	79	868	1,114	78

※ 출처 : 시설 | 경기도 데이터 드림 - 당구장 현황(2023년) 인구수 | 국토지리정보원 - 100×100(m) 기준 인구수(2023년)
※ 도보 10분 거리 기준 - 800m ※ 접근성 분석 방법 : 인구 격자 중심 point와 시설 간 최단 거리를 계산하여 최단거리가 800m 이내인 격자를 추출, 격자 내 인구수/비율을 구함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태권도장

태권도장 시설개수 및 접근성(2022년)

법정동	시설수	총인구수	평균 최단거리(m)
망포동	13	54,112	188.908884
매탄동	20	72,030	234.110834
신동	2	5,007	198.347487
영통동	16	74,990	218.12034
원천동	7	31,823	357.089962
이의동	11	48,202	360.054477
하동	1	21,829	585.380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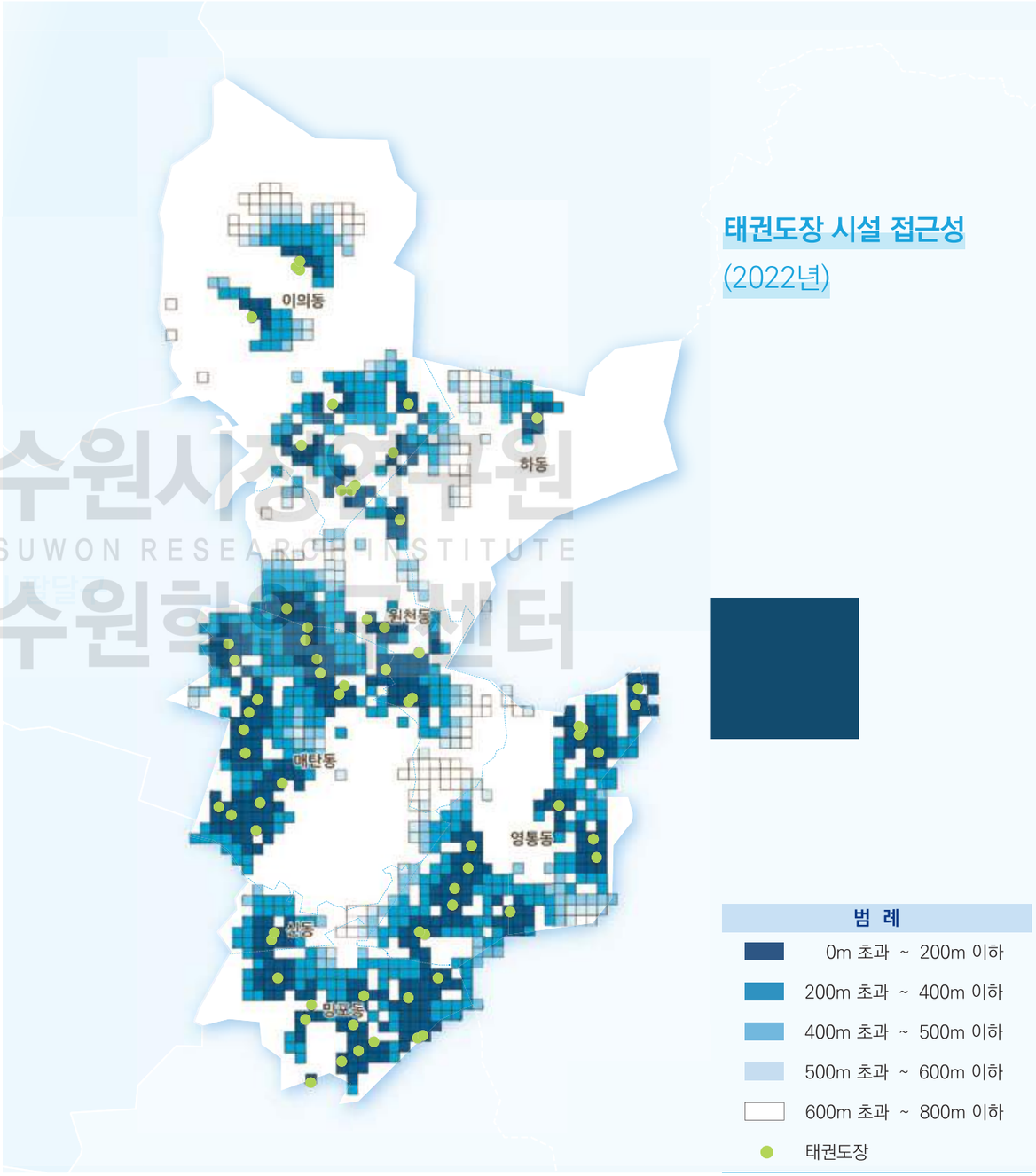
※ 출처 : 시설 | 수원시기본통계 – 태권도(2022년) 인구수 | 국토지리정보원 – 100×100(m) 기준 인구수(2023년)
※ 도보 10분 거리 기준 – 800m ※ 접근성 분석 방법 : 인구 격자 중심 point와 시설 간 최단 거리를 계산하여 최단거리가 800m 이내인 격자를 추출, 격자 내 인구수/비율을 구함

태권도장 시설 격자별 접근성(2022년)

구분	격자별 평균거리 (m)	800m 내 접근 가능한 인구수	총 인구수	800m 내 접근 가능한 인구 비율 (%)	800m 내 접근 가능한 격자수	총 격자수	800m 내 접근 가능한 격자 비율 (%)
태권도장	300.2297495	342,073	351,786	97	1072	1,114	96

※ 출처 : 시설 | 수원시기본통계 – 태권도(2022년) 인구수 | 국토지리정보원 – 100×100(m) 기준 인구수(2023년)
※ 도보 10분 거리 기준 – 800m ※ 접근성 분석 방법 : 인구 격자 중심 point와 시설 간 최단 거리를 계산하여 최단거리가 800m 이내인 격자를 추출, 격자 내 인구수/비율을 구함

태권도장 시설 접근성
(2022년)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기타 체육 시설

기타 체육 시설 목록

법정동	분류	분류
이의동	궁도장	이의궁도장
하동	빙상경기장	광교복합체육센터

기타 체육 시설개수 및 접근성(2022년)

법정동	총인구수	평균 최단거리(m)
망포동	54,112	4,909.74372
매탄동	72,030	2,372.33079
신동	5,007	4,298.26104
영통동	74,990	3,317.78461
원천동	31,823	1,486.76053
이의동	48,202	1,544.12458
하동	21,829	1,026.813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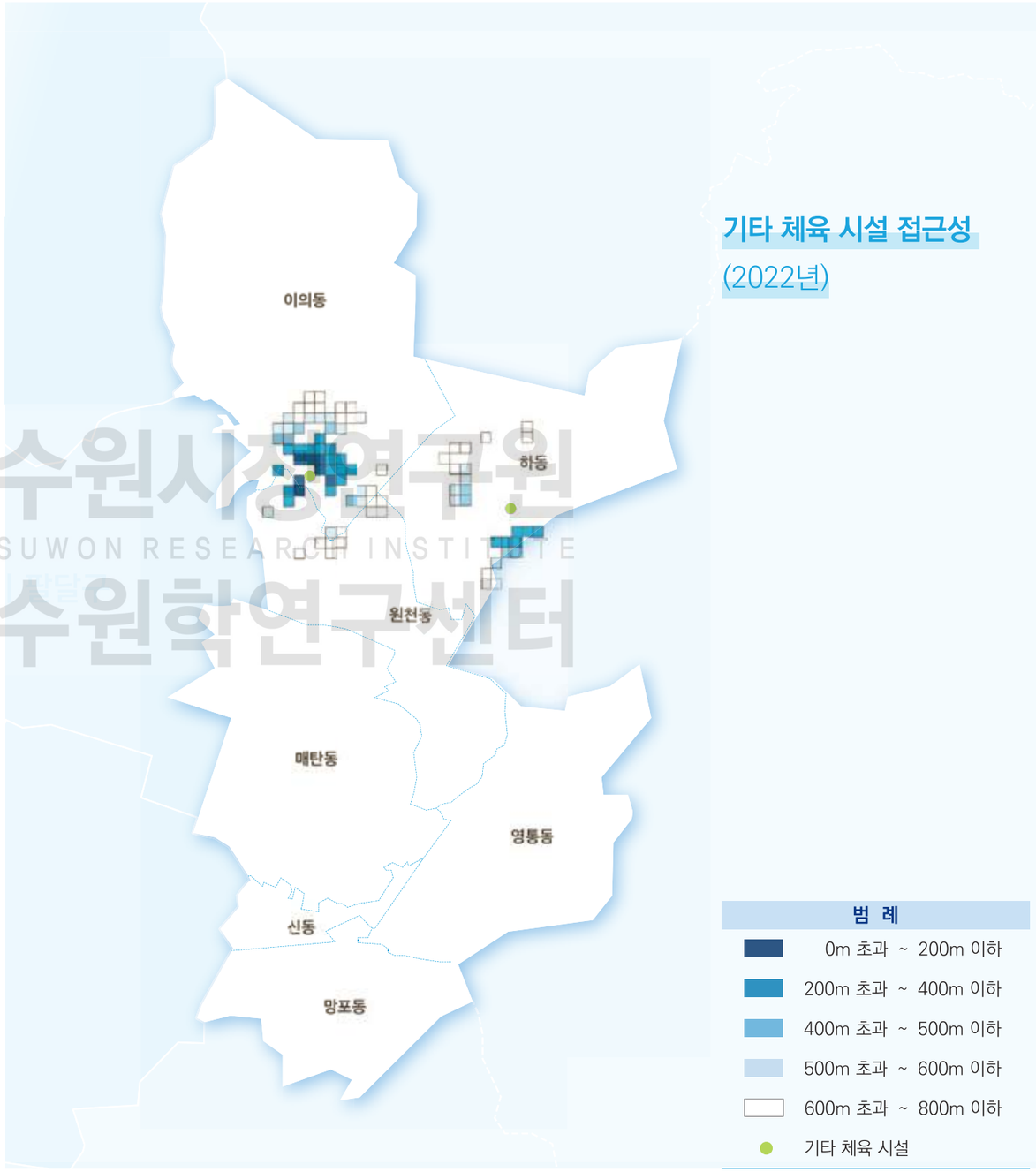
※ 출처 : 시설 | 경기도 데이터 드림 – 궁도장, 방상경기장 등(2022년) 인구수 | 국토지리정보원 – 100×100(m) 기준 인구수(2023년)
※ 도보 10분 거리 기준 – 800m ※ 접근성 분석 방법 : 인구 격자 중심 point와 시설 간 최단 거리를 계산하여 최단거리가 800m 이내인 격자를 추출, 격자 내 인구수/비율을 구함

기타 체육 시설 격자별 접근성(2022년)

구분	격자별 평균거리 (m)	800m 내 접근 가능한 인구수	총 인구수	800m 내 접근 가능한 인구 비율 (%)	800m 내 접근 가능한 격자수	총 격자수	800m 내 접근 가능한 격자 비율 (%)
기타 체육시설	2608.979678	32,394	351,786	9	84	1,114	8

※ 출처 : 시설 | 경기도 데이터 드림 – 궁도장, 방상경기장 등(2022년) 인구수 | 국토지리정보원 – 100×100(m) 기준 인구수(2023년)
※ 도보 10분 거리 기준 – 800m ※ 접근성 분석 방법 : 인구 격자 중심 point와 시설 간 최단 거리를 계산하여 최단거리가 800m 이내인 격자를 추출, 격자 내 인구수/비율을 구함

기타 체육 시설 접근성 (2022년)



SRI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시정연구원
수원학연구센터

10 편의 시설

| 마트 및 편의점 |

마트 및 편의점 시설개수 및 접근성(20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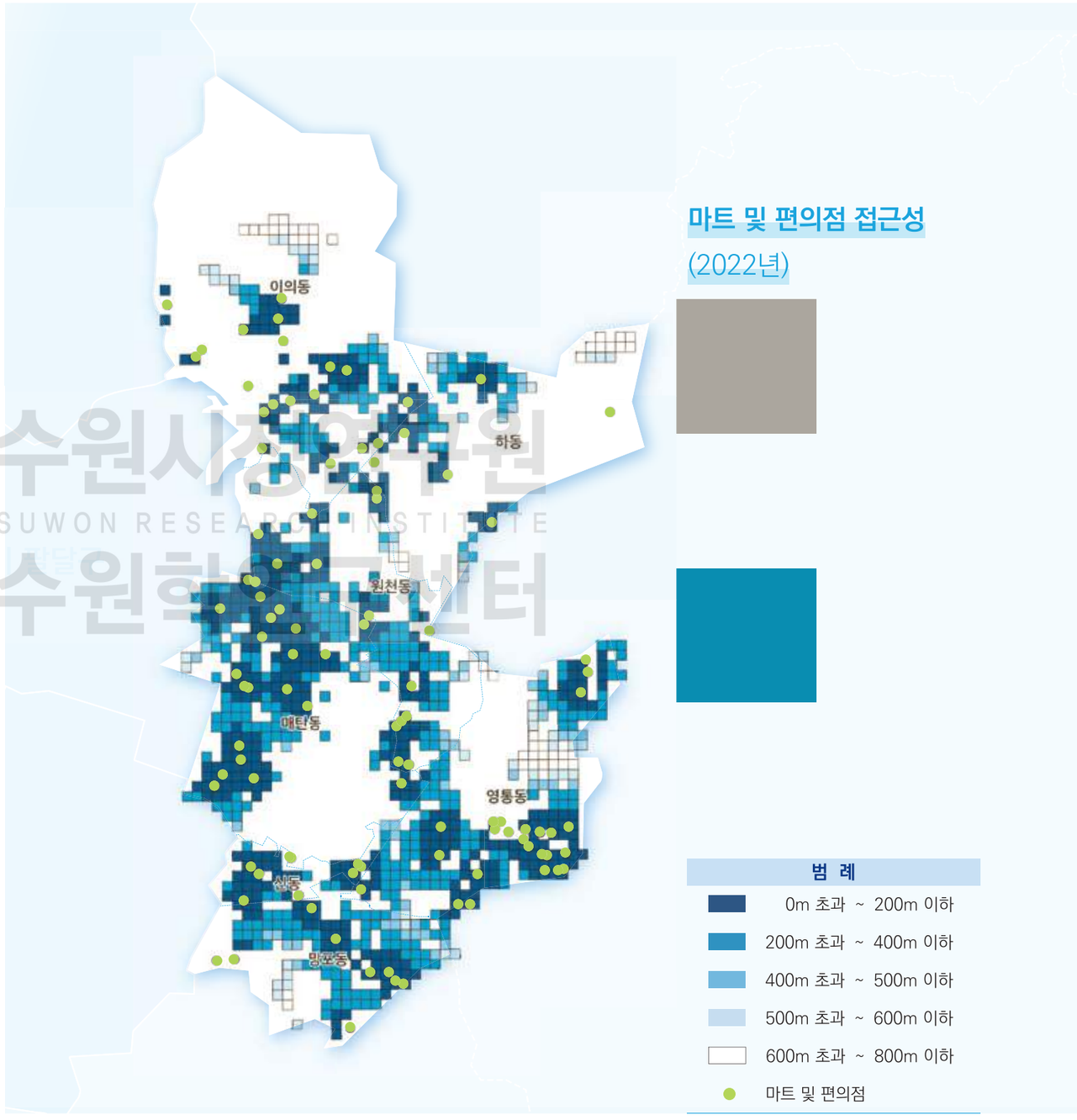
법정동	시설수	총인구수	평균 최단거리(m)
망포동	13	54,112	273.0101
매탄동	20	72,030	169.681857
신동	2	5,007	140.535321
영통동	16	74,990	257.930712
원천동	7	31,823	239.657319
이의동	11	48,202	483.082965
하동	1	21,829	309.124327

※ 출처 : 시설 | 경기도 데이터 드림 – 시장 및 마트 현황/편의점(2022년) 인구수 | 국토지리정보원 – 100×100(m) 기준 인구수(2023년)
※ 도보 10분 거리 기준 – 800m ※ 접근성 분석 방법 : 인구 격자 중심 point와 시설 간 최단 거리를 계산하여 최단거리가 800m 이내인 격자를 추출, 격자 내 인구수/비율을 구함

마트 및 편의점 시설 격자별 접근성(2022년)

구분	격자별 평균거리 (m)	800m 내 접근 가능한 인구수	총 인구수	800m 내 접근 가능한 인구 비율 (%)	800m 내 접근 가능한 격자수	총 격자수	800m 내 접근 가능한 격자 비율 (%)
마트 및 편의점	275.7650241	346,171	351,786	98	1,065	1,114	96

※ 출처 : 시설 | 경기도 데이터 드림 – 시장 및 마트 현황/편의점(2022년) 인구수 | 국토지리정보원 – 100×100(m) 기준 인구수(2023년)
※ 도보 10분 거리 기준 – 800m ※ 접근성 분석 방법 : 인구 격자 중심 point와 시설 간 최단 거리를 계산하여 최단거리가 800m 이내인 격자를 추출, 격자 내 인구수/비율을 구함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패스트푸드점

패스트푸드점 목록

법정동	분류	사업장명
이의동	패스트푸드	커피클라우드
영통동	패스트푸드	한명숙피자앤키친
망포동	패스트푸드	닭앤밀
망포동	패스트푸드	피자스쿨 광교 힐스테이트점
하동	패스트푸드	이마트24 광교포레나점
매탄동	패스트푸드	세븐일레븐 엠파이어1호점
매탄동	패스트푸드	GS25 수원아주점

패스트푸드 시설개수 및 접근성(2022년)

법정동	시설수	총인구수	평균 최단거리(m)
망포동	-	54,112	941.234693
매탄동	3	72,030	501.294562
신동	1	5,007	548.242284
영통동	-	74,990	2,062.3648
원천동	1	31,823	904.292693
이의동	1	48,202	1,325.75825
하동	1	21,829	1,358.717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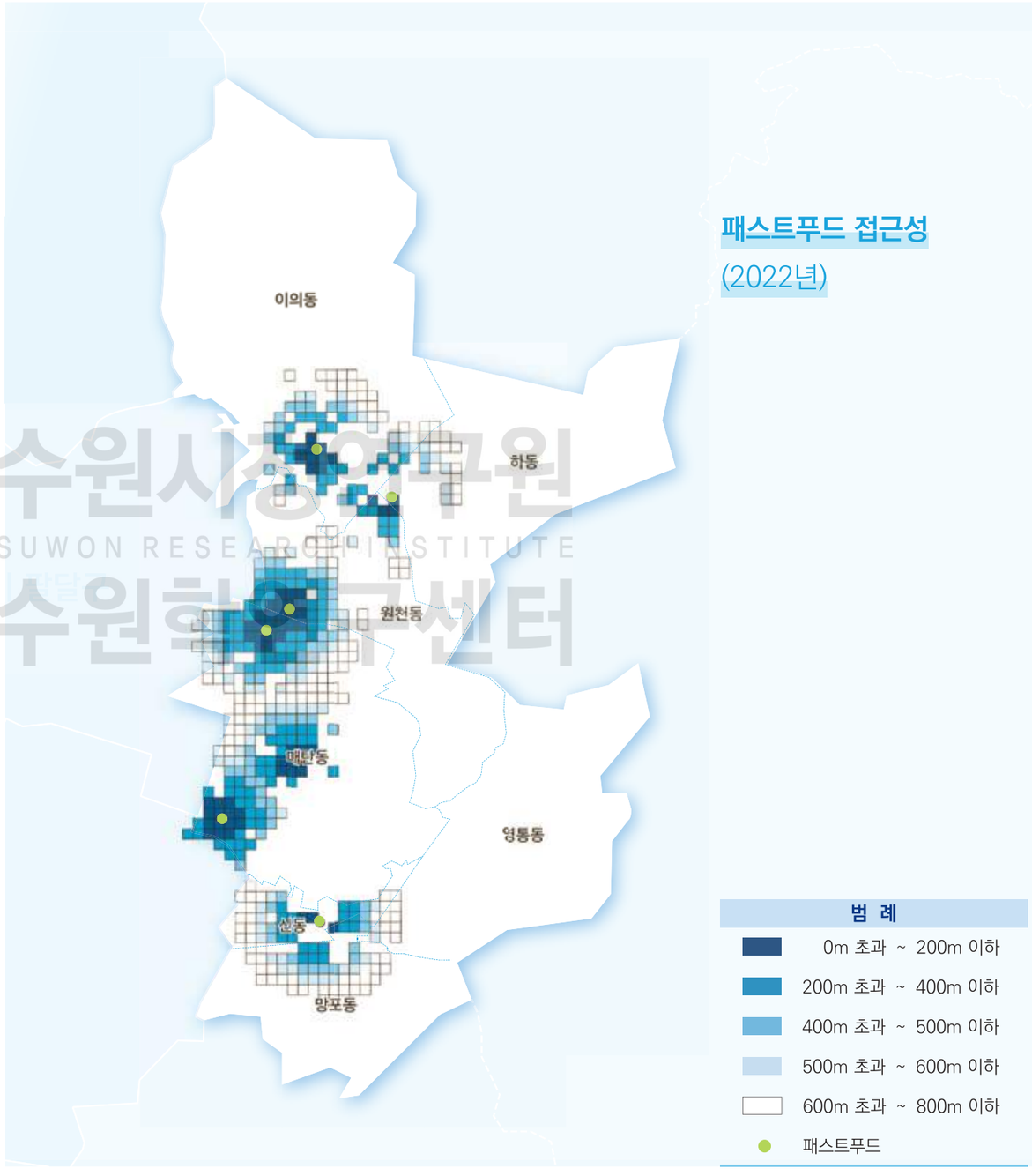
※ 출처 : 시설 | 경기도 데이터 드림 - 일반음식점(패스트푸드)(2022년) 인구수 | 국토지리정보원 - 100×100(m) 기준 인구수(2023년)
※ 도보 10분 거리 기준 - 800m ※ 접근성 분석 방법 : 인구 격자 중심 point와 시설 간 최단 거리를 계산하여 최단거리가 800m 이내인 격자를 추출, 격자 내 인구수/비율을 구함

패스트푸드 격자수 접근성(2022년)

구분	격자별 평균거리 (m)	800m 내 접근 가능한 인구수	총 인구수	800m 내 접근 가능한 인구 비율 (%)	800m 내 접근 가능한 격자수	총 격자수	800m 내 접근 가능한 격자 비율 (%)
패스트푸드점	1143.047644	162,862	351,786	46	483	1,114	43

※ 출처 : 시설 | 경기도 데이터 드림 - 일반음식점(패스트푸드)(2022년) 인구수 | 국토지리정보원 - 100×100(m) 기준 인구수(2023년)
※ 도보 10분 거리 기준 - 800m ※ 접근성 분석 방법 : 인구 격자 중심 point와 시설 간 최단 거리를 계산하여 최단거리가 800m 이내인 격자를 추출, 격자 내 인구수/비율을 구함

패스트푸드 접근성
(2022년)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 공영·민영주차장 |

공영·민영주차장 시설개수 및 접근성(20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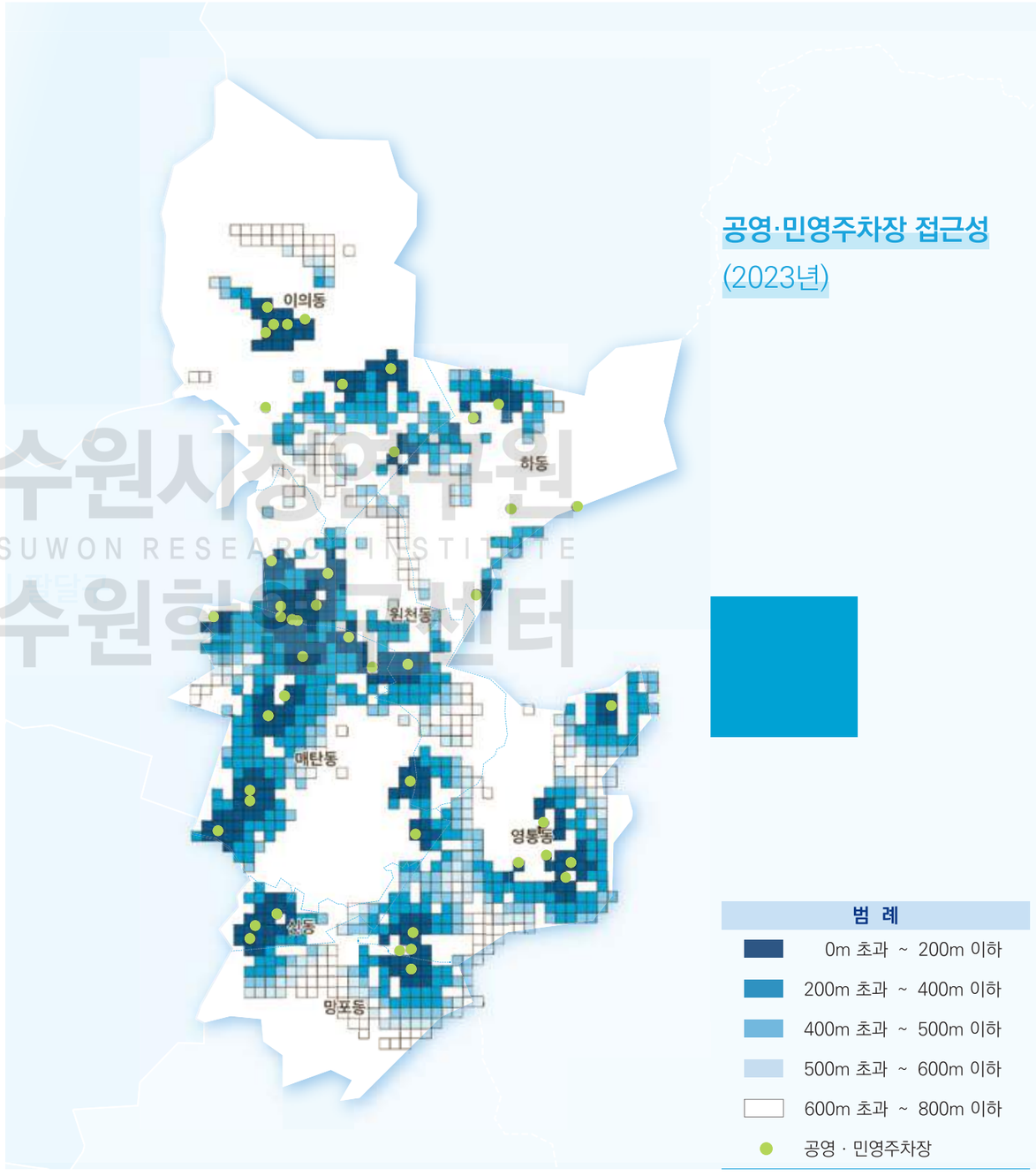
법정동	시설수	총인구수	평균 최단거리(m)
망포동	1	54,112	579.948026
매탄동	14	72,030	259.483393
신동	3	5,007	156.421501
영통동	10	74,990	362.269703
원천동	5	31,823	369.66985
이의동	9	48,202	528.733925
하동	5	21,829	484.592467

※ 출처 : 시설 | 영통구청 – 공영/민영주차장(2023년) 인구수 | 국토지리정보원 – 100×100(m) 기준 인구수(2023년)
※ 도보 10분 거리 기준 – 800m ※ 접근성 분석 방법 : 인구 격자 중심 point와 시설 간 최단 거리를 계산하여 최단거리가 800m 이내인 격자를 추출, 격자 내 인구수/비율을 구함

공영·민영주차장 격자별 접근성(2023년)

구분	격자별 평균거리 (m)	800m 내 접근 가능한 인구수	총 인구수	800m 내 접근 가능한 인구 비율 (%)	800m 내 접근 가능한 격자수	총 격자수	800m 내 접근 가능한 격자 비율 (%)
공영주차장	401.7178238	329,506	351,786	94	1,023	1,114	92

※ 출처 : 시설 | 영통구청 – 공영/민영주차장(2023년) 인구수 | 국토지리정보원 – 100×100(m) 기준 인구수(2023년)
※ 도보 10분 거리 기준 – 800m ※ 접근성 분석 방법 : 인구 격자 중심 point와 시설 간 최단 거리를 계산하여 최단거리가 800m 이내인 격자를 추출, 격자 내 인구수/비율을 구함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공원

공원 시설개수 및 접근성(2023년)

법정동	시설수	총인구수	평균 최단거리(m)
망포동	17	54,112	220.279046
매탄동	22	72,030	198.327166
신동	3	5,007	201.008564
영통동	25	74,990	168.473616
원천동	6	31,823	370.085446
이의동	12	48,202	264.19353
하동	4	21,829	418.656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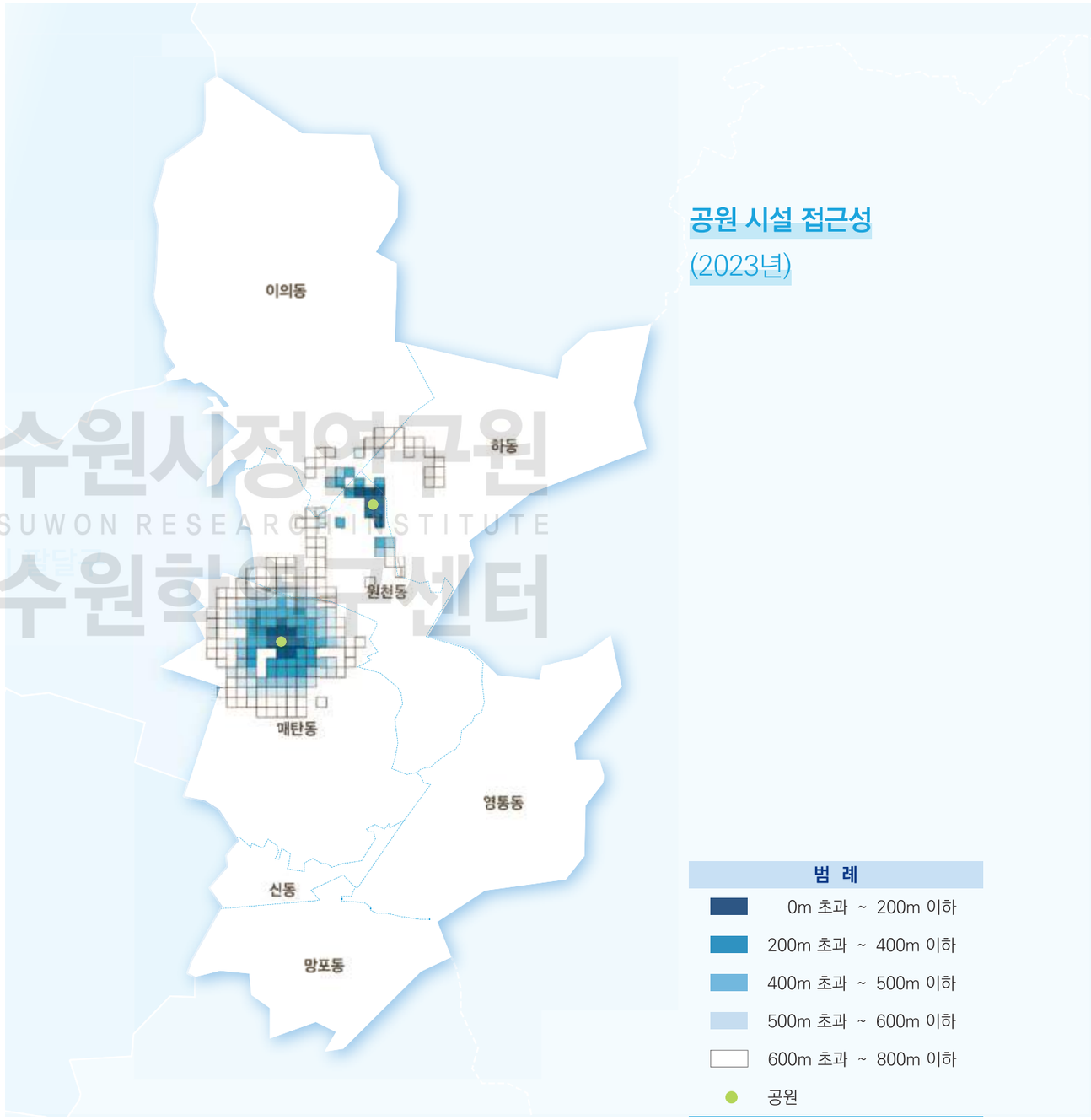
※ 출처 : 시설 | 경기도 데이터 드림 - 도시공원정보 현황(2023년) 인구수 | 국토지리정보원 - 100×100(m) 기준 인구수(2023년)
※ 도보 10분 거리 기준 - 800m ※ 접근성 분석 방법 : 인구 격자 중심 point와 시설 간 최단 거리를 계산하여 최단거리가 800m 이내인 격자를 추출, 격자 내 인구수/비율을 구함

공원 시설 격자별 접근성(2023년)

구분	격자별 평균거리 (m)	800m 내 접근 가능한 인구수	총 인구수	800m 내 접근 가능한 인구 비율 (%)	800m 내 접근 가능한 격자수	총 격자수	800m 내 접근 가능한 격자 비율 (%)
공원	254.4364961	347,973	351,786	99	1,101	1,114	99

※ 출처 : 시설 | 경기도 데이터 드림 - 도시공원정보 현황(2023년) 인구수 | 국토지리정보원 - 100×100(m) 기준 인구수(2023년)
※ 도보 10분 거리 기준 - 800m ※ 접근성 분석 방법 : 인구 격자 중심 point와 시설 간 최단 거리를 계산하여 최단거리가 800m 이내인 격자를 추출, 격자 내 인구수/비율을 구함

공원 시설 접근성
(2023년)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1 교통 시설

지하철

지하철역 목록

법정동	분류	사업장명
이의동	광교중앙(아주대)	신분당선
이의동	광교(경기대)	신분당선
영통동	청명역	분당선
영통동	영통역	분당선
영통동	망포역	분당선

지하철 시설개수 및 접근성(20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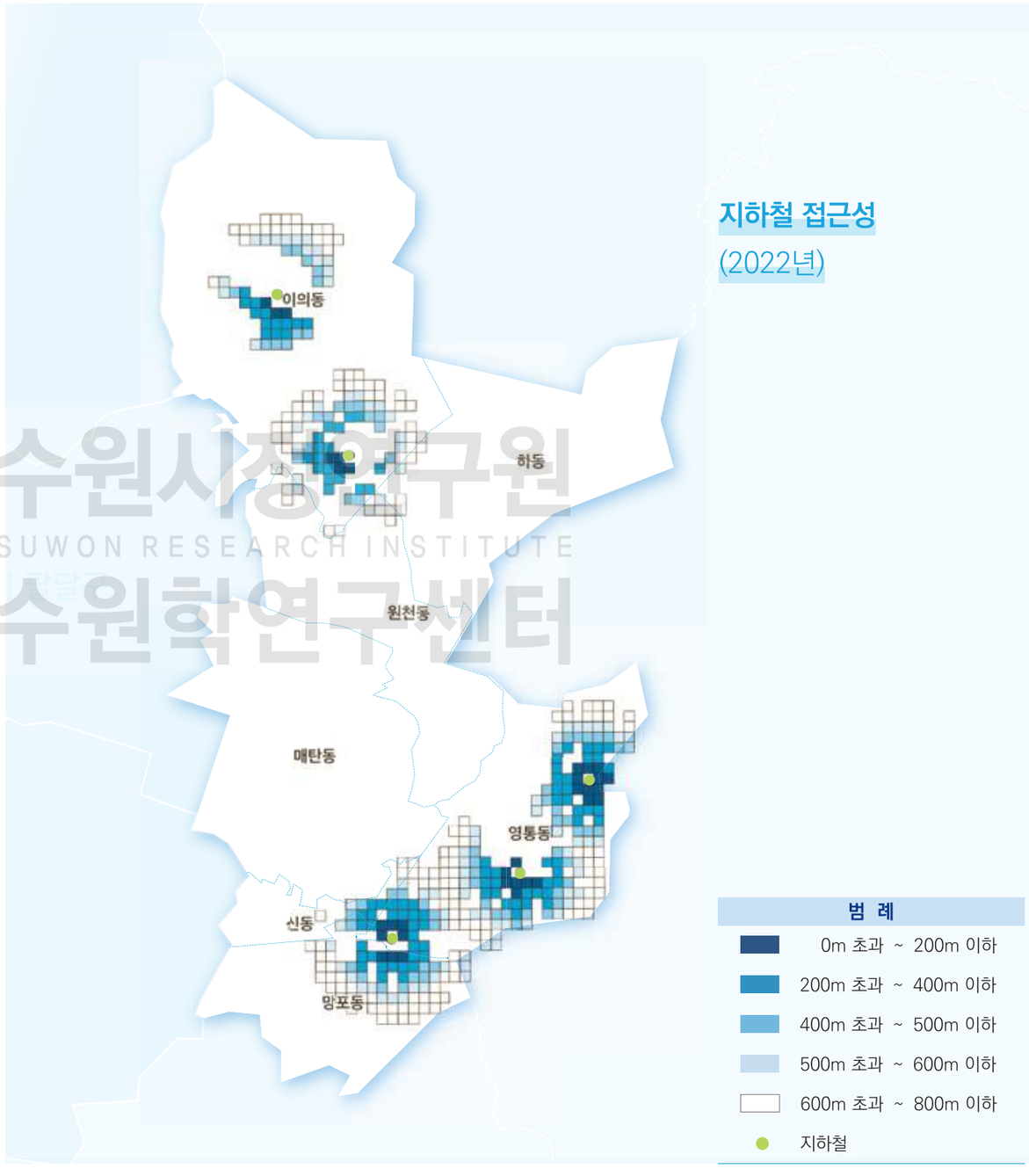
법정동	총인구수	평균 최단거리(m)
망포동	54,112	4,909.74372
매탄동	72,030	2,372.33079
신동	5,007	4,298.26104
영통동	74,990	3,317.78461
원천동	31,823	1,486.76053
이의동	48,202	1,544.12458
하동	21,829	1,026.81379

※ 출처 : 시설 | 공공데이터 - 전국도시철도역사정보표준데이터(2022년)　인구수 | 국토지리정보원 - 100×100(m) 기준 인구수(2023년)
※ 도보 10분 거리 기준 - 800m　※ 접근성 분석 방법 : 인구 격자 중심 point와 시설 간 최단 거리를 계산하여 최단거리가 800m 이내인 격자를 추출, 격자 내 인구수/비율을 구함

지하철 격자별 접근성(2022년)

구분	격자별 평균거리 (m)	800m 내 접근 가능한 인구수	총 인구수	800m 내 접근 가능한 인구 비율 (%)	800m 내 접근 가능한 격자수	총 격자수	800m 내 접근 가능한 격자 비율 (%)
지하철	1149.17141	156,449	351,786	44	445	1,114	40

※ 출처 : 시설 | 공공데이터 - 전국도시철도역사정보표준데이터(2022년)　인구수 | 국토지리정보원 - 100×100(m) 기준 인구수(2023년)
※ 도보 10분 거리 기준 - 800m　※ 접근성 분석 방법 : 인구 격자 중심 point와 시설 간 최단 거리를 계산하여 최단거리가 800m 이내인 격자를 추출, 격자 내 인구수/비율을 구함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버스

버스 시설개수 및 접근성(20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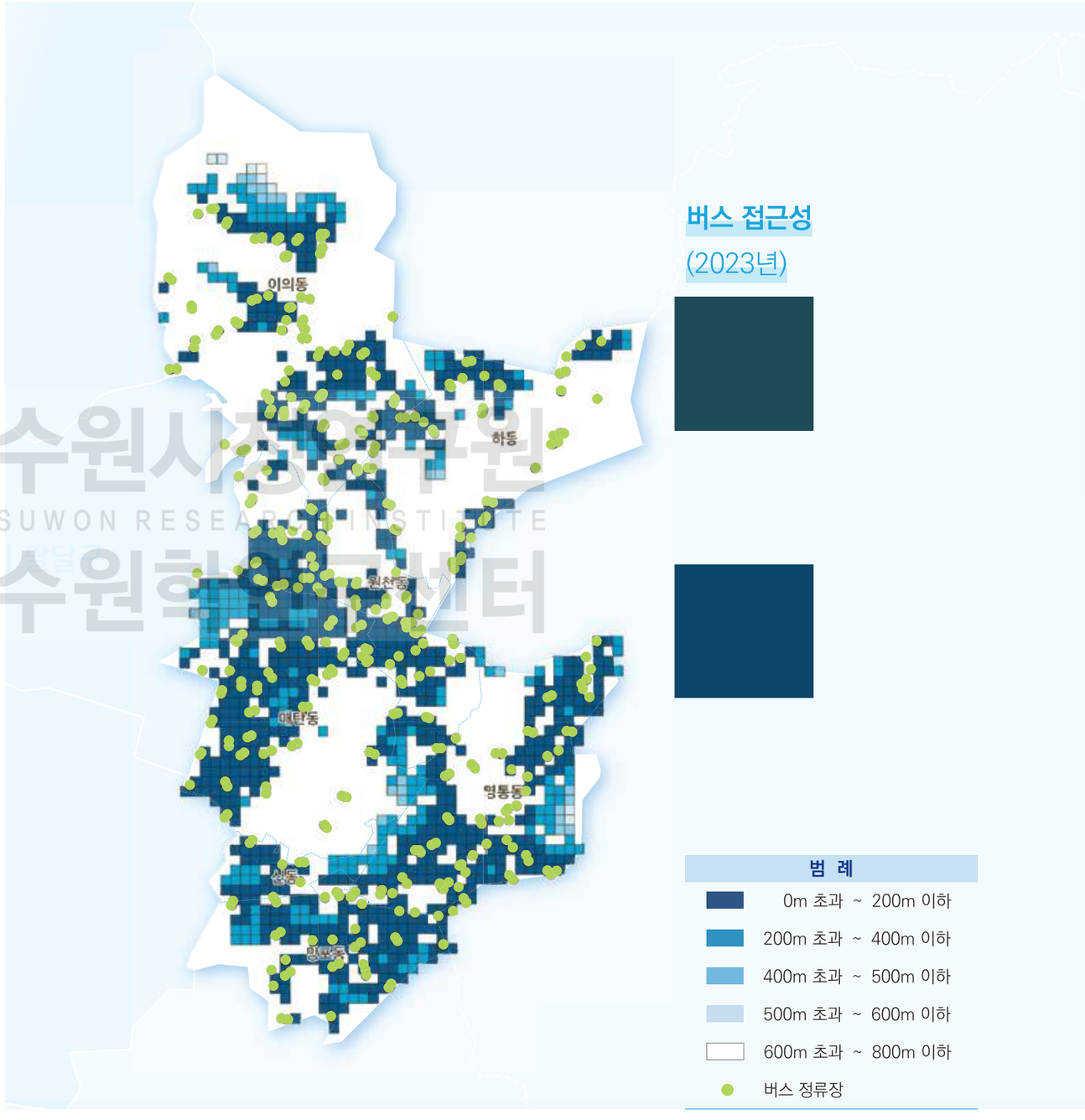
법정동	시설수	총인구수	평균 최단거리(m)
망포동	53	54,112	139.156192
매탄동	90	72,030	148.796099
신동	4	5,007	156.523835
영통동	97	74,990	145.156882
원천동	98	31,823	104.1149
이의동	116	48,202	174.108951
하동	61	21,829	146.278377

※ 출처 : 시설 | 공공데이터 – POI 데이터(2023년)　인구수 | 국토지리정보원 – 100×100(m) 기준 인구수(2023년)
※ 도보 10분 거리 기준 – 800m　※ 접근성 분석 방법 : 인구 격자 중심 point와 시설 간 최단 거리를 계산하여 최단거리가 800m 이내인 격자를 추출, 격자 내 인구수/비율을 구함

버스 접근성(2023년)

구분	격자별 평균거리 (m)	800m 내 접근 가능한 인구수	총 인구수	800m 내 접근 가능한 인구 비율 (%)	800m 내 접근 가능한 격자수	총 격자수	800m 내 접근 가능한 격자 비율 (%)
버스정류장	146.7257995	351,786	351,786	100	1,114	1,114	100

※ 출처 : 시설 | 공공데이터 – POI 데이터(2023년)　인구수 | 국토지리정보원 – 100×100(m) 기준 인구수(2023년)
※ 도보 10분 거리 기준 – 800m　※ 접근성 분석 방법 : 인구 격자 중심 point와 시설 간 최단 거리를 계산하여 최단거리가 800m 이내인 격자를 추출, 격자 내 인구수/비율을 구함



시간별 통행유형별 버스 이용객수(2022년)

구분		단일통행			환승통행			전체통행		
일시	시간	승차	하차	전체	승차	하차	전체	승차	하차	전체
평일	01~02시	17	63	80	14	50	64	31	113	144
평일	02~03시	1	4	5	0	0	0	1	4	5
평일	04~05시	70	3	73	1	0	1	71	3	74
평일	05~06시	1,106	706	1,812	257	149	406	1,363	855	2,218
평일	06~07시	3,477	2,137	5,614	762	461	1,223	4,239	2,598	6,837
평일	07~08시	6,447	4,780	11,227	1,538	1,056	2,594	7,985	5,836	13,821
평일	08~09시	6,086	6,613	12,699	1,844	1,961	3,805	7,930	8,574	16,504
평일	09~10시	3,789	4,142	7,931	1,274	1,460	2,734	5,063	5,602	10,665
평일	10~11시	2,889	2,813	5,702	850	874	1,724	3,739	3,687	7,426
평일	11~12시	2,918	2,516	5,434	766	704	1,470	3,684	3,220	6,904
평일	12~13시	3,099	2,844	5,943	861	871	1,732	3,960	3,715	7,675
평일	13~14시	3,287	2,992	6,279	883	840	1,723	4,170	3,832	8,002
평일	14~15시	2,997	2,776	5,773	892	850	1,742	3,889	3,626	7,515
평일	15~16시	3,674	3,026	6,700	1,033	875	1,908	4,707	3,901	8,608
평일	16~17시	4,397	3,756	8,153	1,294	1,086	2,380	5,691	4,842	10,533
평일	17~18시	5,280	4,599	9,879	1,570	1,362	2,932	6,850	5,961	12,811
평일	18~19시	5,431	5,314	10,745	2,470	2,076	4,546	7,901	7,390	15,291
평일	19~20시	3,091	3,946	7,037	2,186	2,471	4,657	5,277	6,417	11,694
평일	20~21시	3,009	2,914	5,923	1,353	1,461	2,814	4,362	4,375	8,737
평일	21~22시	2,908	2,809	5,717	1,225	1,251	2,476	4,133	4,060	8,193
평일	22~23시	2,538	2,662	5,200	1,148	1,198	2,346	3,686	3,860	7,546
평일	23~24시	853	1,351	2,204	627	941	1,568	1,480	2,292	3,772
평일	00~01시	167	489	656	153	402	555	320	891	1,211

※ 출처 : 이용객수 | 경기도교통정보센터 - 시군별 버스 이용객수 상세분석

구분		단일통행			환승통행			전체통행		
일시	시간	승차	하차	전체	승차	하차	전체	승차	하차	전체
주말	01~02시	10	99	109	3	40	43	13	139	152
주말	02~03시	6	12	18	0	2	2	6	14	20
주말	04~05시	64	1	65	1	0	1	65	1	66
주말	05~06시	609	434	1,043	128	56	184	737	490	1,227
주말	06~07시	1,019	919	1,938	349	255	604	1,368	1,174	2,542
주말	07~08시	1,591	1,381	2,972	462	432	894	2,053	1,813	3,866
주말	08~09시	2,582	2,233	4,815	713	616	1,329	3,295	2,849	6,144
주말	09~10시	2,903	2,695	5,598	720	739	1,459	3,623	3,434	7,057
주말	10~11시	3,075	2,482	5,557	774	700	1,474	3,849	3,182	7,031
주말	11~12시	3,390	2,613	6,003	805	732	1,537	4,195	3,345	7,540
주말	12~13시	3,355	2,799	6,154	917	850	1,767	4,272	3,649	7,921
주말	13~14시	3,302	2,947	6,249	864	864	1,728	4,166	3,811	7,977
주말	14~15시	2,835	2,668	5,503	832	789	1,621	3,667	3,457	7,124
주말	15~16시	3,064	2,635	5,699	888	869	1,757	3,952	3,504	7,456
주말	16~17시	3,594	3,122	6,716	953	920	1,873	4,547	4,042	8,589
주말	17~18시	4,057	3,520	7,577	1,193	1,195	2,388	5,250	4,715	9,965
주말	18~19시	3,478	3,447	6,925	1,062	1,285	2,347	4,540	4,732	9,272
주말	19~20시	2,186	2,287	4,473	746	937	1,683	2,932	3,224	6,156
주말	20~21시	2,456	2,128	4,584	781	822	1,603	3,237	2,950	6,187
주말	21~22시	3,086	2,617	5,703	1,094	981	2,075	4,180	3,598	7,778
주말	22~23시	2,440	2,374	4,814	1,155	1,158	2,313	3,595	3,532	7,127
주말	23~24시	901	1,169	2,070	530	833	1,363	1,431	2,002	3,433
주말	00~01시	175	513	688	127	415	542	302	928	1,230

※ 출처 : 이용객수 | 경기도교통정보센터 - 시군별 버스 이용객수 상세분석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하연구센터

12 주거주택

종류별, 건축 연도별 주택 현황(1979년 이전~2022년)

주택종류별	합계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0~2014	2005~2009	2000~2004	1990~1999	1980~1989	1979년 이전
소계	110,139	68	443	5,877	3,653	4,545	1,556	1,681	24,048	8,152	15,913	35,103	8,977	123
단독주택	4,118	16	30	50	75	203	94	200	537	175	807	1,465	395	71
아파트	100,632	-	300	5,659	3,363	3,301	1,372	1,364	22,387	7,948	14,885	31,604	8,449	-
연립주택	2,630	-	-	100	-	844	-	-	618	-	-	951	76	41
다세대주택	2,521	50	113	66	205	187	82	106	476	13	190	997	28	8
비거주용건물내 주택	238	-	-	-	10	10	8	11	30	16	31	86	29	-

※ 출처 : KOSIS - 건축연도별 주택현황

소유형태별 주택 현황(2021년)

총주택수 (호)	개인소유 주택수(호)	동일시군구 거주자 소유주택(호)	동일시도내 타시군구 거주자 소유주택(호)	타시도 거주자 소유주택(호)	총가구(일반가구) (A) (가구)	주택소유가구 (B) (가구)	가구주택소유율 (B/A) (%)
110,143	102,775	76,404	15,350	11,021	144,551	81,686	57

※ 출처 : KOSIS - 주택소유현황

수원시 수원연구센터 SUWON RESEARCH INSTITUTE



영통동 주거공간(김승일 제공)



매탄동 주거공간(김승일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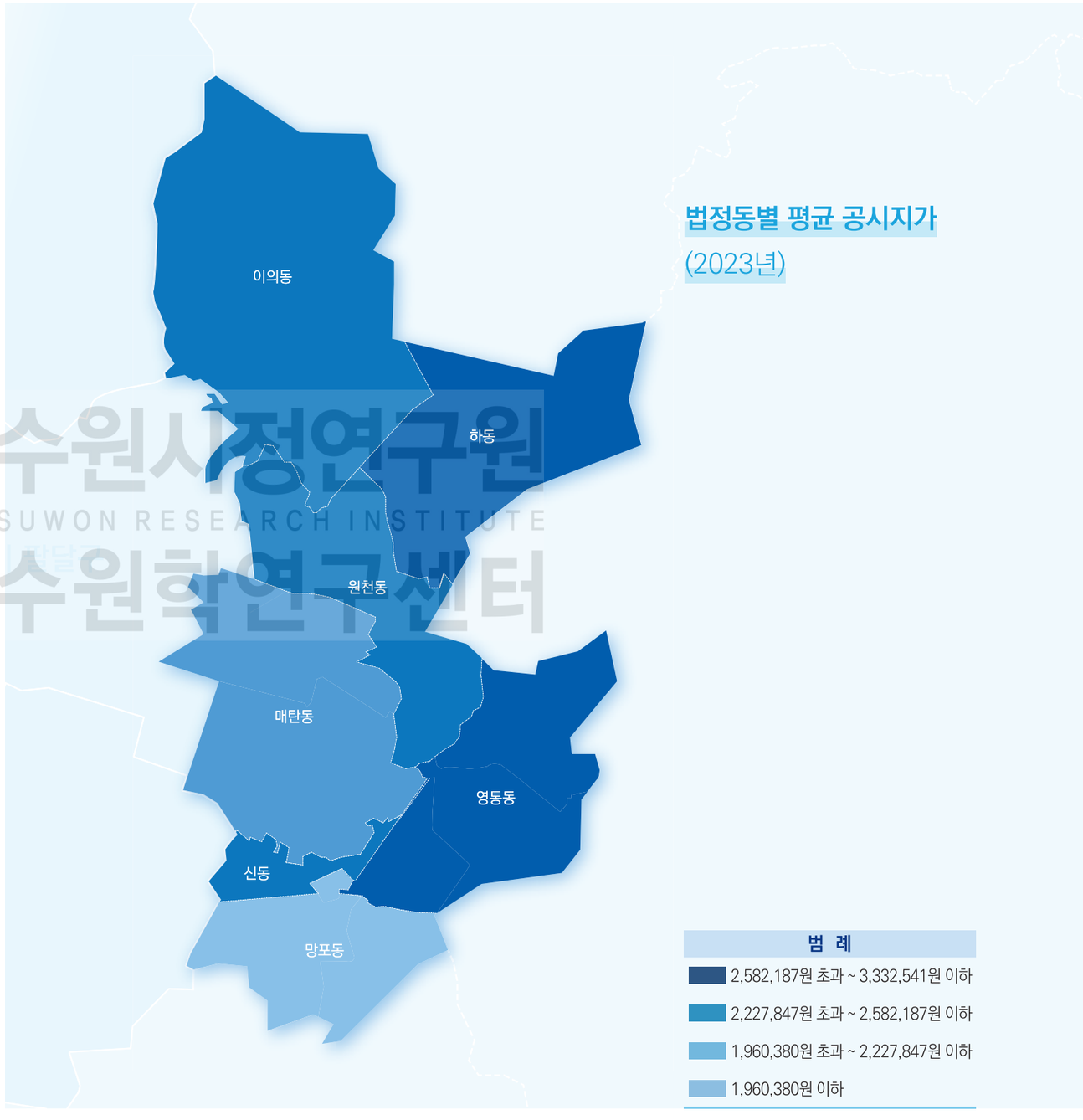
13 지가

평균 공시지가

법정동별 평균 공시지가(2023년)

법정동	공시지가(원)
망포동	1,960,380.49
매탄동	2,227,847.15
신동	2,582,187.5
영통동	3,251,812.5
원천동	2,385,144.07
이의동	2,469,975.4
하동	3,332,530.77

※ 출처 : 공공데이터 – 국토교통부 표준지공시지가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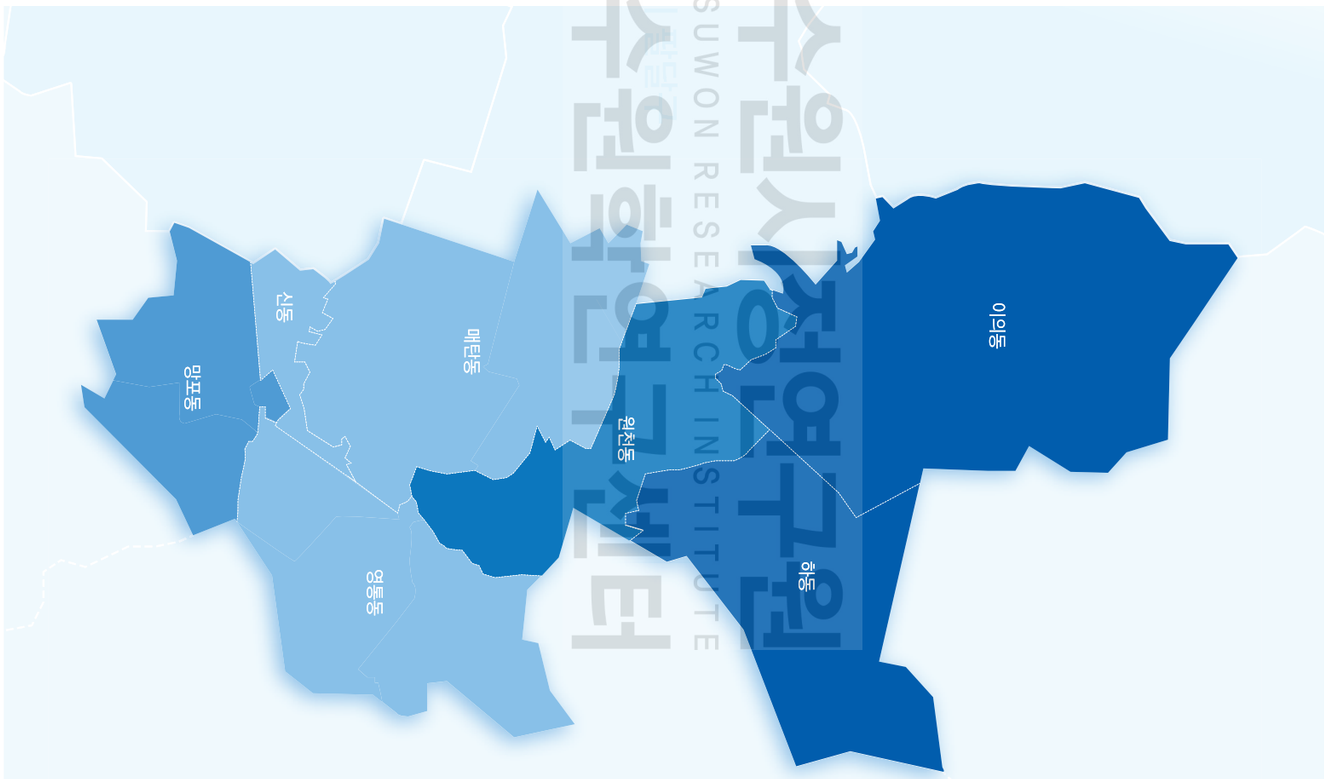
월별 아파트 실거래가(2022년)

(단위 : 만원)

법정동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월 평균
망포동	69,674	70,426.087	75,081.3953	73,379.5455	71,441.1765	70,366.6667	66,760	63,527.7778	61,550	57,013.6364	58,041.6667	59,325.8621	77,446.0375
매탄동	52,374.7727	59,150	57,960.9091	58,634.6154	53,775	52,912	51,817.6471	51,000	48,110	46,280.7692	50,000	48,893.4783	61,338.3936
신동		80,000	77,000		79,250			72,500	75,000	63,500	60,750	57,966.6667	55,024.537
영통동	57,365.3846	53,383.125	51,895.7447	53,218.9394	53,471.6667	49,695.2381	49,106.8966	43,304.3478	46,960	43,957.6923	40,090	39,435.1786	56,572.0763
원천동	102,833.333	81,766.6667	54,007.6923	71,883.3333	75,139.2857	62,457.1429	55,571.4286	68,678.5714	87,970	134,666.667	120,836.364	100,516.667	98,809.5841
이의동	120,944.444	125,125	133,546.429	127,675	128,383.333	138,029.412	149,687.5	150,000	128,916.667	121,000	93,750	108,825	148,349.715
하동	120,750	114,500	114,360	134,000	116,040	133,125	141,750	132,500	83,000	106,125	103,916.667	90,650	135,208.565

※ 출처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월 평균 아파트 실거래가 (2022년)

14 사업체 및 종사자

| 전체 사업체 및 종사자 |

전체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2021년)

행정동	사업체수 (개)	여성대표자 사업체수 (개)	종사자수 (명)	사업체 1개소당 종사자수
소계	30,260	12,379	168,344	5.6
매탄1동	1,036	460	2,421	2.3
매탄2동	1,346	554	5,012	3.7
매탄3동	2,595	1,070	52,622	20.3
매탄4동	1,194	504	2,679	2.2
원천동	3,563	1,291	21,872	6.1
광교1동	5,513	2,223	27,187	4.9
광교2동	3,074	1,345	11,826	3.8
영통1동	1,294	645	3,795	2.9
영통2동	3,430	1,227	16,596	4.8
영통3동	4,621	1,824	17,004	3.7
망포1동	1,401	643	3,598	2.6
망포2동	1,193	593	3,732	3.1

※ 출처 : KOSIS – 구/동별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조직형태별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2021년)

행정동	조직형태별	개인사업체			회사이외법인			비법인단체		
	사업체수 (개)	종사자수 (명)	사업체 1개소 당 종사자수	사업체수 (개)	종사자수 (명)	사업체 1개소 당 종사자수	사업체수 (개)	종사자수 (명)	사업체 1개소 당 종사자수
소계	23,231	46,113	2.0	1,034	23,457	22.7	485	4,089	8.4
매탄1동	946	1,815	1.9	34	352	10.4	18	117	6.5
매탄2동	1,159	2,233	1.9	57	1,333	23.4	31	289	9.3
매탄3동	2,143	4,118	1.9	78	1,141	14.6	58	678	11.7
매탄4동	1,085	1,651	1.5	34	330	9.7	27	242	9.0
원천동	2,708	5,584	2.1	151	6,656	44.1	37	256	6.9
광교1동	3,771	7,496	2.0	174	5,349	30.7	49	444	9.1
광교2동	2,164	4,110	1.9	114	3,022	26.5	27	230	8.5
영통1동	1,101	1,904	1.7	60	1,069	17.8	54	363	6.7
영통2동	2,395	4,919	2.1	62	638	10.3	47	433	9.2
영통3동	3,519	7,976	2.3	185	2,450	13.2	51	316	6.2
망포1동	1,218	2,226	1.8	39	416	10.7	46	391	8.5
망포2동	1,022	2,081	2.0	46	701	15.2	40	330	8.3
	조직형태별	개인사업체			회사법인			사업체 1개소 당 종사자수	
	사업체수 (개)	종사자수 (명)	사업체 1개소 당 종사자수	사업체수 (개)	종사자수 (명)	사업체 1개소 당 종사자수			
소계	23,231	46,113	2.0	5,510	94,685	17.2			
매탄1동	946	1,815	1.9	38	137	3.6			
매탄2동	1,159	2,233	1.9	99	1,157	11.7			
매탄3동	2,143	4,118	1.9	316	46,685	147.7			
매탄4동	1,085	1,651	1.5	48	456	9.5			
원천동	2,708	5,584	2.1	667	9,376	14.1			
광교1동	3,771	7,496	2.0	1,519	13,898	9.1			
광교2동	2,164	4,110	1.9	769	4,464	5.8			
영통1동	1,101	1,904	1.7	79	459	5.8			
영통2동	2,395	4,919	2.1	926	10,606	11.5			
영통3동	3,519	7,976	2.3	866	6,262	7.2			
망포1동	1,218	2,226	1.8	98	565	5.8			
망포2동	1,022	2,081	2.0	85	620	7.3			

※ 출처 : KOSIS – 구/동별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사업체 구분별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2021년)

행정동	사업체구분별								
	단독사업체			공장, 지사(점), 영업소			본사, 본점 등		
	사업체수 (개)	종사자(명)	사업체 1개소 당 종사자수	사업체수 (개)	종사자수(명)	사업체 1개소 당 종사자수	사업체수 (개)	종사자수 (명)	사업체 1개소 당 종사자수
소계	27,867	87,818	3.2	1,925	62,233	32.3	468	18,293	39.1
매탄1동	1,016	2,251	2.2	16	143	8.9	4	27	6.8
매탄2동	1,301	4,081	3.1	34	343	10.1	11	588	53.5
매탄3동	2,425	7,268	3.0	147	38,213	260.0	23	7,141	310.5
매탄4동	1,167	2,370	2.0	20	110	5.5	7	199	28.4
원천동	3,224	10,962	3.4	275	8,194	29.8	64	2,716	42.4
광교1동	4,881	16,486	3.4	515	6,195	12.0	117	4,506	38.5
광교2동	2,673	8,818	3.3	346	2,440	7.1	55	568	10.3
영통1동	1,268	3,435	2.7	19	322	16.9	7	38	5.4
영통2동	3,160	11,914	3.8	172	2,842	16.5	98	1,840	18.8
영통3동	4,253	13,611	3.2	302	2,832	9.4	66	561	8.5
망포1동	1,347	3,163	2.3	47	391	8.3	7	44	6.3
망포2동	1,152	3,459	3.0	32	208	6.5	9	65	7.2

※ 출처 : KOSIS – 구/동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 기준 연도 : 2021년

소상공인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2021년)

행정동	전체 사업체	전체 종사자수	소상공인 사업체	소상공인 종사자	사업체 1개소 당 종사자수	소상공인 사업체 비중(%)	소상공인 종사자 비중(%)
매탄1동	1,036	2,421	932	1,335	1.4	90	55
매탄2동	1,346	5,012	1,188	1,901	1.6	88	38
매탄3동	2,595	52,622	2,189	3,509	1.6	84	7
매탄4동	1,194	2,679	1,100	1,521	1.4	92	57
원천동	3,563	21,872	2,917	4,716	1.6	82	22
광교1동	5,513	27,187	4,272	7,208	1.7	77	27
광교2동	3,074	11,826	2,537	4,439	1.7	83	38
영통1동	1,294	3,795	1,114	1,590	1.4	86	42
영통2동	3,430	16,596	2,504	4,527	1.8	73	27
영통3동	4,621	17,004	3,741	6,282	1.7	81	37
망포1동	1,401	3,598	1,205	1,727	1.4	86	48
망포2동	1,193	3,732	997	1,426	1.4	84	38

※ 출처 : 영통구 소상공인 현황 분석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15 업종

도매소매업/숙박 및 음식점업/제조업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20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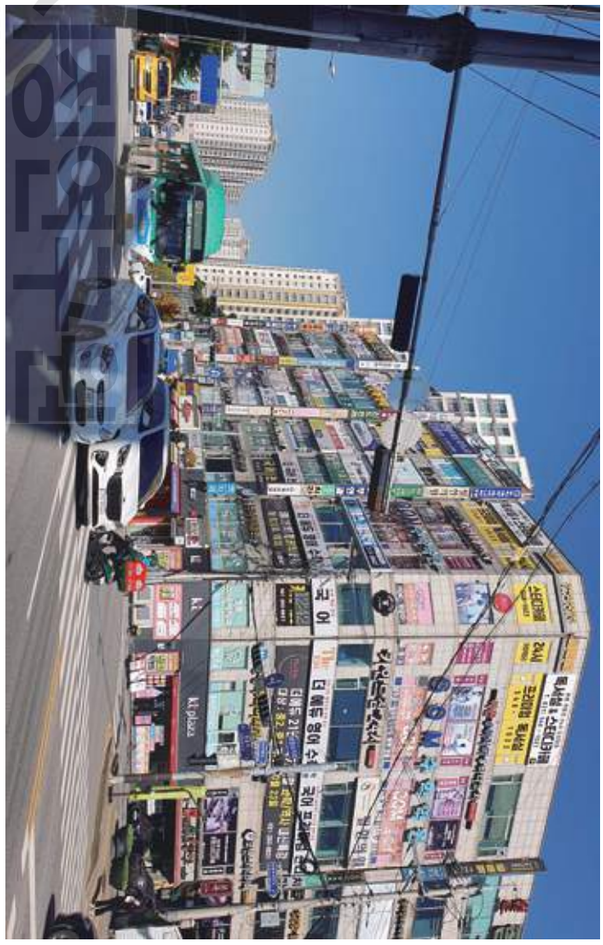
구분	도매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제조업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탄1동	293	490	147	333	28	46
매탄2동	338	875	223	411	45	120
매탄3동	547	1,401	502	2,118	109	6,688
매탄4동	277	460	185	344	41	165
원천동	849	2,187	565	1,773	332	2,403
광교1동	1,628	4,023	742	2,668	349	2,275
광교2동	975	2,303	405	1,502	73	337
영통1동	362	551	115	264	31	98
영통2동	802	3,368	400	1,450	393	3,246
영통3동	1,135	2,630	871	2,503	158	394
망포1동	407	651	149	464	40	112
망포2동	330	614	112	439	32	55

※ 출처 : 수원기본통계 – 사업체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매탄동 삼성전자와 영통동 상가(김승일 제공)



망포동 상가

16 도로교통

도로구간

도로구간 현황(2021년)

도로위계기능	개수
주간선도로	5
보조간선도로	15
집산도로	111
소로	496

평일 추정 교통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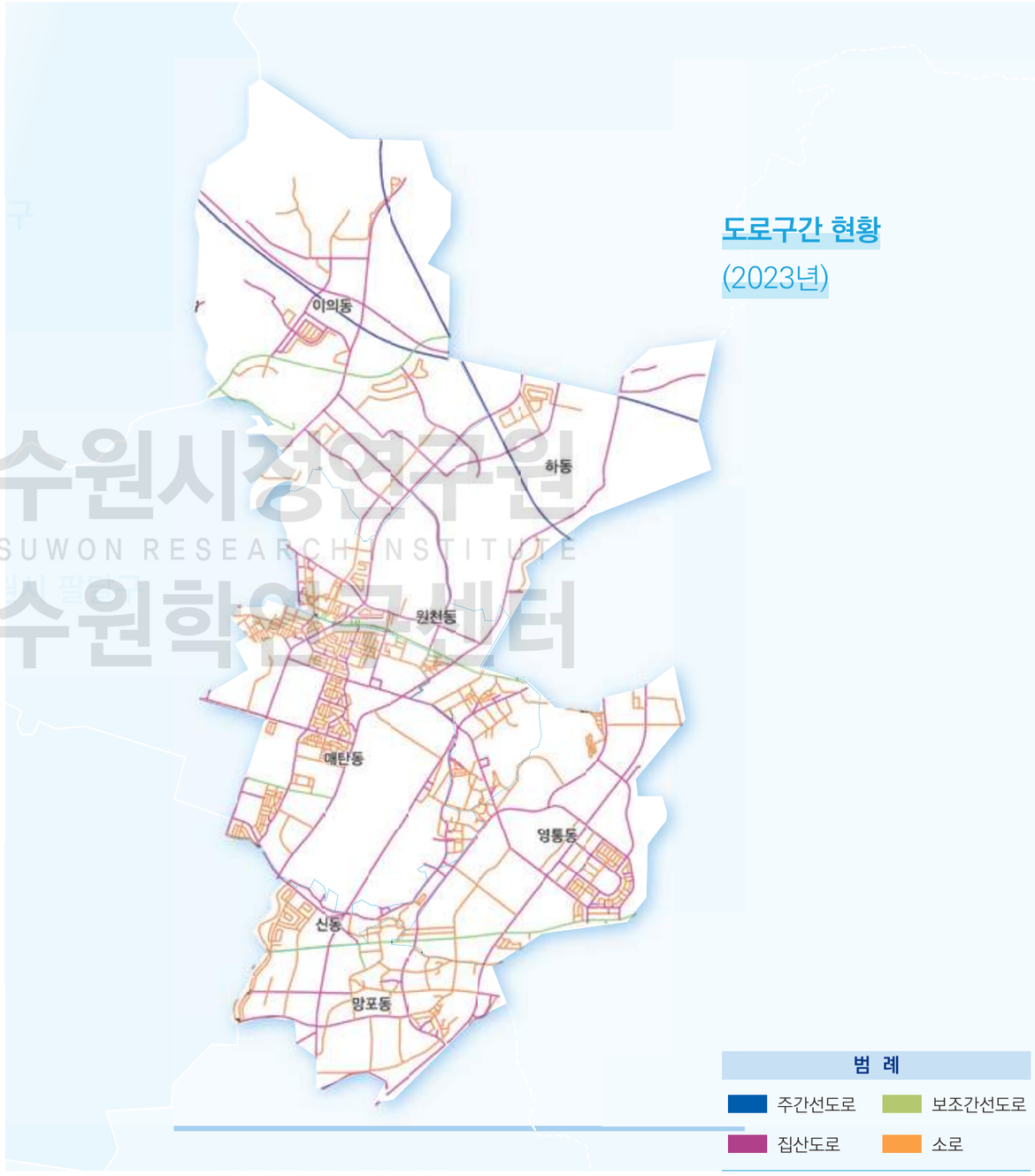
차량 종류별 평일 추정 교통량(2022년)

(단위 : 대)

구분	합계	승용차	버스	화물차
매탄1동	11,533	10,405	442	686
매탄2동	8,932	7,924	288	720
매탄3동	9,906	8,736	323	848
매탄4동	9,619	8,465	347	807
원천동	12,122	10,649	464	1,009
광교1동	21,886	17,819	453	3,613
광교2동	14,960	13,130	399	1,432
영통1동	11,265	9,657	497	1,111
영통2동	9,236	7,720	494	1,021
영통3동	10,351	8,788	460	1,103
망포1동	9,887	8,363	371	1,153
망포2동	6,116	5,261	241	613

※ 출처 : 한국교통연구원

도로구간 현황 (2023년)



※ 출처 : 국가공간정보포털 - (도로명주소)도로구간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읍·면·동별 자동차 등록 현황

차종별 자동차 등록대수(2022년)

(단위 : 대)

읍면동	차종	계	비사업용				사업용					
			소계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소계	경형	소형	중형	대형
합계	승용	143,859	141,995	10,622	1,034	86,216	44,123	1,864	112	0	1,263	489
	승합	2,450	2,341	165	67	1,969	140	109	0	0	76	33
	화물	8,382	6,895	199	5,911	620	165	1,487	43	733	323	388
	특수	379	241	3	220	13	5	138	0	39	39	60
	소계	155,070	151,472	10,989	7,232	88,818	44,433	3,598	155	772	1,701	970
매탄동	승용	29,277	28,981	2,747	322	17,786	8,126	296	9	0	179	108
	승합	772	744	38	30	623	53	28	0	0	27	1
	화물	2,423	2,115	64	1,835	152	64	308	15	202	57	34
	특수	95	51	1	45	5	0	44	0	16	20	8
	소계	32,567	31,891	2,850	2,232	18,566	8,243	676	24	218	283	151
원천동	승용	18,137	17,763	1,240	124	10,870	5,529	374	9	0	237	128
	승합	348	324	25	10	255	34	24	0	0	22	2
	화물	1,251	970	33	837	81	19	281	2	115	79	85
	특수	73	43	1	37	1	4	30	0	9	7	14
	소계	19,809	19,100	1,299	1,008	11,207	5,586	709	11	124	345	229
이의동	승용	21,983	21,776	1,157	114	12,843	7,662	207	5	0	127	75
	승합	289	256	24	3	211	18	33	0	0	8	25
	화물	899	708	26	581	88	13	191	4	50	72	65
	특수	45	39	0	35	3	1	6	0	0	0	6
	소계	23,216	22,779	1,207	733	13,145	7,694	437	9	50	207	171
하동	승용	12,298	12,264	931	98	7,476	3,759	34	1	0	23	10
	승합	181	180	14	3	156	7	1	0	0	1	0
	화물	621	479	17	402	43	17	142	5	60	48	29
	특수	28	22	0	20	2	0	6	0	2	3	1
	소계	13,128	12,945	962	523	7,677	3,783	183	6	62	75	40
영통동	승용	31,377	30,737	2,327	195	18,846	9,369	640	80	0	457	103
	승합	464	446	30	11	392	13	18	0	0	13	5
	화물	1,623	1,240	36	1,072	108	24	383	5	190	47	141
	특수	75	41	0	39	2	0	34	0	7	3	24
	소계	33,539	32,464	2,393	1,317	19,348	9,406	1,075	85	197	520	273
신동	승용	3,865	3,680	247	27	2,202	1,204	185	5	0	147	33
	승합	54	52	1	3	46	2	2	0	0	2	0
	화물	320	296	2	253	32	9	24	3	16	3	2
	특수	5	3	0	3	0	0	2	0	2	0	0
	소계	4,244	4,031	250	286	2,280	1,215	213	8	18	152	35
망포동	승용	26,922	26,794	1,973	154	16,193	8,474	128	3	0	93	32
	승합	342	339	33	7	286	13	3	0	0	3	0
	화물	1,245	1,087	21	931	116	19	158	9	100	17	32
	특수	58	42	1	41	0	0	16	0	3	6	7
	소계	28,567	28,262	2,028	1,133	16,595	8,506	305	12	103	119	71

※ 출처 : 수원 읍면동별 자동차 등록현황(법정동)

17 반려동물

반려동물 및 등록자 현황·등록 비율

반려동물 등록 현황(2022년)

법정동	반려동물 등록 현황	반려동물 등록자	반려동물 등록자당 반려동물 등록 수
망포동	2,854	2,304	1.23871528
매탄동	5,832	4,566	1.27726675
신동	355	266	1.33458647
영통동	4,558	3,725	1.22362416
원천동	1,935	1,487	1.30127774
이의동	2,946	2,327	1.26600774
하동	1,769	1,297	1.36391673

※ 출처 : 공공데이터 – 경기도 수원시 반려동물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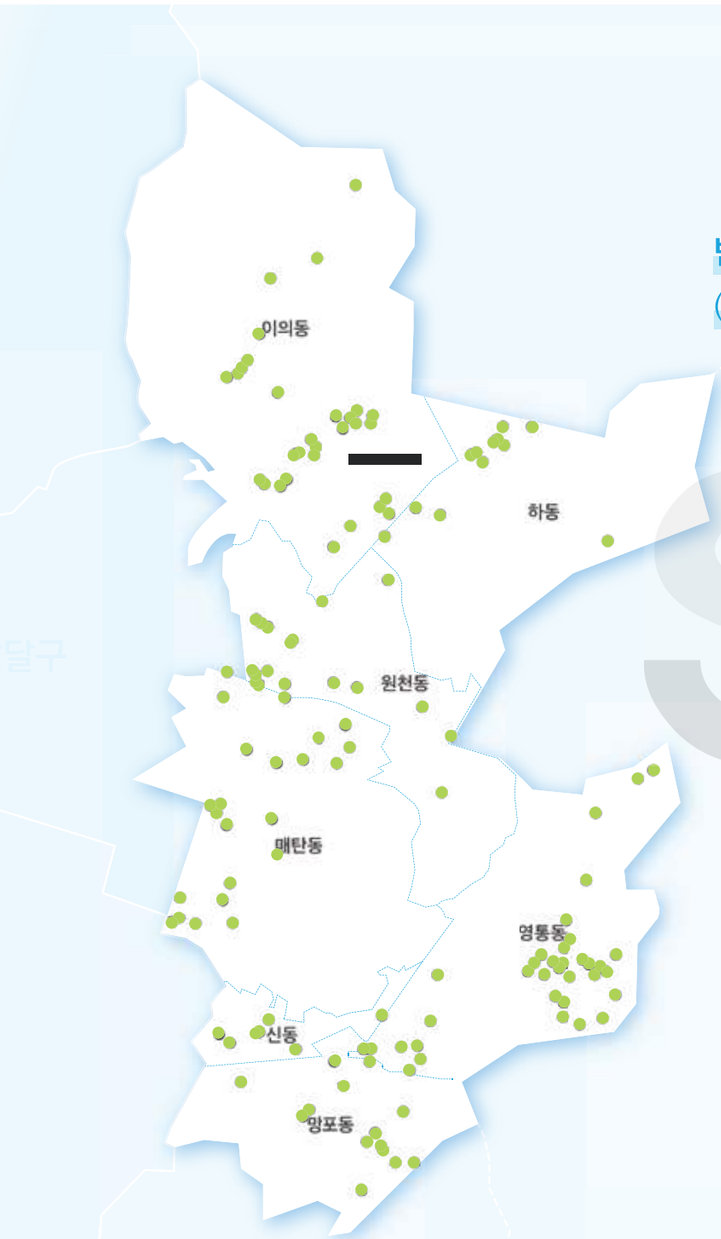
반려동물 관련 시설 현황(2022년)

법정동	시설수	1개소당 등록 반려동물 수
망포동	24	119
매탄동	30	243
신동	7	14.79166667
영통동	48	190
원천동	31	81
이의동	53	123
하동	17	74

※ 출처 : 경기도 데이터드림 – 반려동물 의료 및 복지 시설, 생활편의 시설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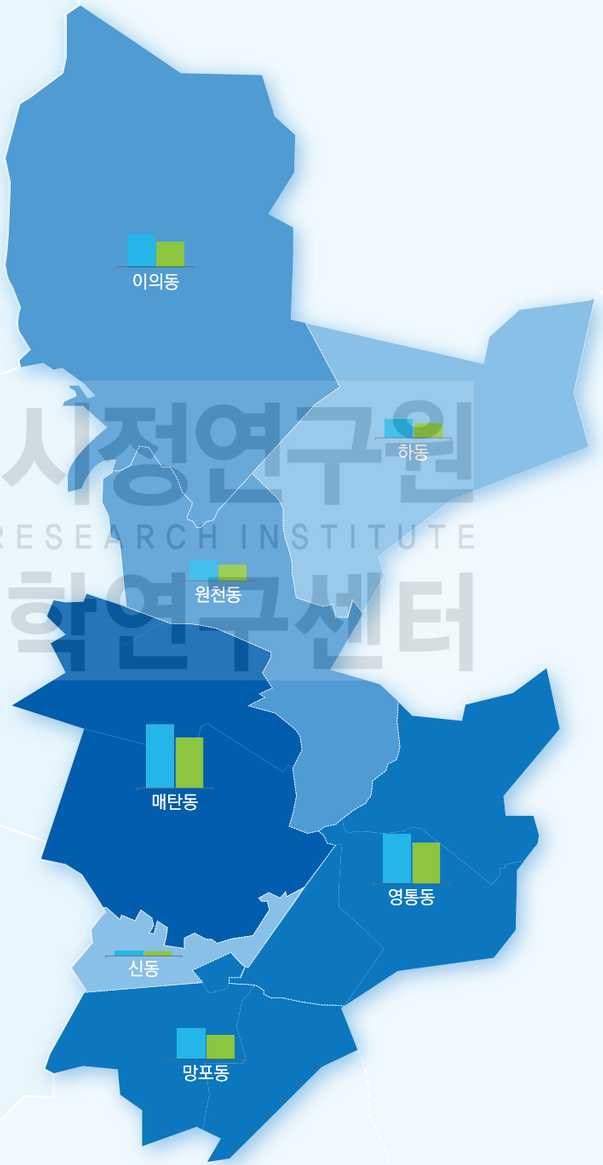
반려동물 관련 시설 현황
(2022년)



범 례

● 반려동물 관련 시설

반려동물 등록 및 등록자 현황, 1개소당 등록 반려동물수 분포
(2022년)



범 례

- 190마리 초과 ~ 243마리 이하
- 119마리 초과 ~ 190마리 이하
- 74마리 초과 ~ 119마리 이하
- 74마리 이하
- 반려동물 등록수
- 반려동물 등록자수

※ 출처 : 공공데이터 - 경기도수원시반려동물 현황
경기도데이터드림 - 반려동물 의료 및 복지시설, 생활편의시설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Growth and Leap

김진희 수원시정연구원 위촉연구원
김충현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
박관아 수원시정연구원 위촉연구원
백정미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연구교수
손승호 인천대학교 지역인문정보융합연구소 선임연구원
유상희 서울대학교 석사
유현희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원
이성호 경상국립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이창수 가천대학교 도시계획학과 교수
황병주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관

Data & Map

윤희라 숙명여자대학교 빅데이터분석융합학 석사과정
최인호 선도소프트 진흥정보사업부 그룹장

Archival Photograph

손예은 수원시정연구원 위촉연구원

기획

유현희 수원시정연구원 수원학연구센터장
홍현영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원

수원학 기획총서 4

영통구, 성장과 도약의 여정

발행인 김성진
발행일 2023년 11월 23일
발행처 수원시정연구원 수원학연구센터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
031-220-8057
디자인 및 인쇄 이원디자인 031-256-2121

ISBN 979-11-6819-144-0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